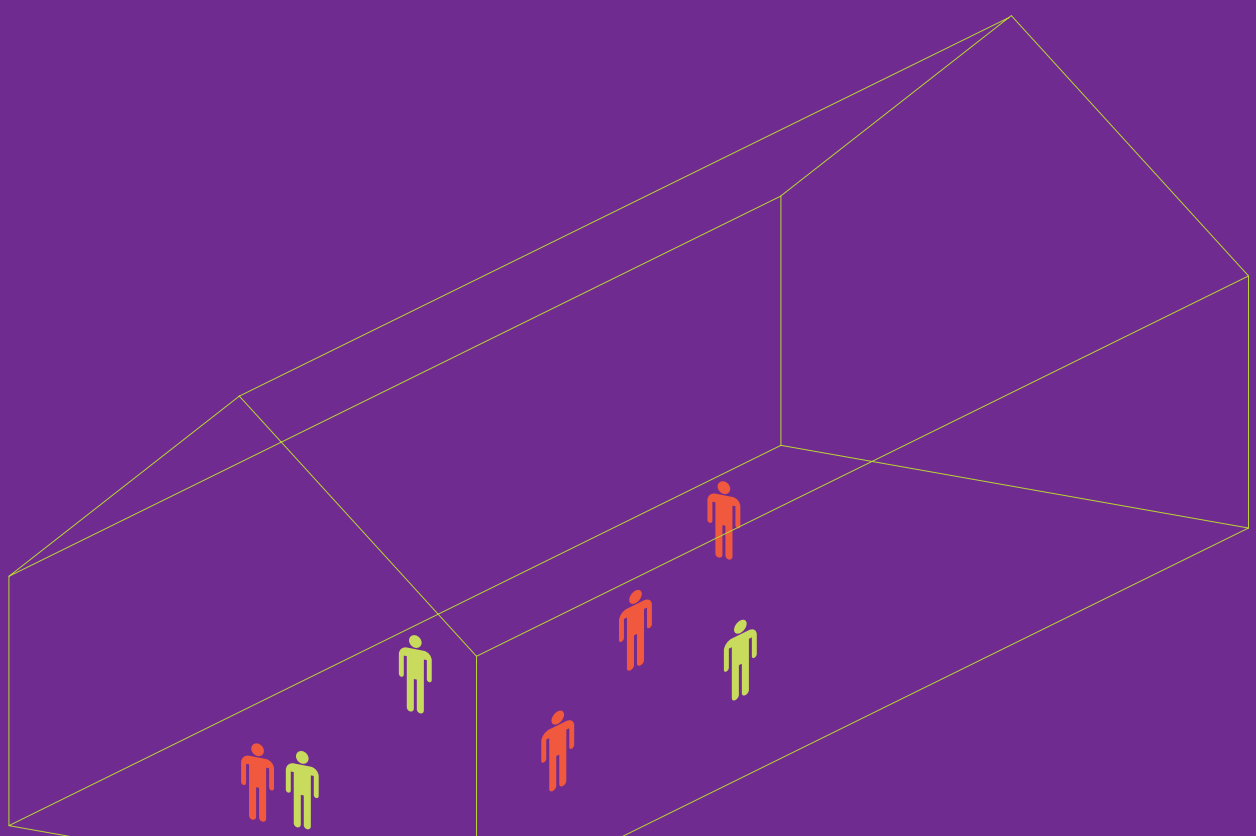
2012 PLATFORM ARTISTS

2012 INCHEON ART PLATFORM
ARTIST-IN-RESIDENCE PROGRAM

2012 플랫폼 아티스트

2012 인천아트플랫폼
레지던시 프로그램



IFAC 인천문화재단
INCHEON FOUNDATION FOR ARTS & CULTURE

인천아트플랫폼
INCHEON ART PLATFORM

PLATFORM ARTISTS

플랫폼 아티스트

2012 PLATFORM ARTISTS

2012 INCHEON ART PLATFORM
ARTIST-IN-RESIDENCE PROGRAM

2012 플랫폼 아티스트

2012 인천아트플랫폼
레지던시 프로그램

주최 인천아트플랫폼
총괄 이승미(인천아트플랫폼 관장)
총괄진행 한재섭(인천아트플랫폼 학예팀장)
전시, 레지던시 오혜미(인천아트플랫폼 큐레이터)
사승현(인천아트플랫폼 큐레이터)
공연 및 홍보 심현주(인천아트플랫폼 프로듀서)
교육 허 진(인천아트플랫폼 에듀케이터)
인턴 박진희 김윤아 한은정 장하루 지승현

Organised by Incheon Art Platform
Directed by LEE Seungmi
Chief Curator HAN Jea-sub
Curatred by OH Hyemi
SA Seunghyun
Producer & Public Relations SIM Hyunju
Educated by HUR Jin
Interns PARK Jinhee KIM Yoona HAN Eunjeong
JANG Haru JI Seunghyun

일러두기

1. 작가이름의 성과 이름 순서는 각 나라 표기법을 따르며 성은 대문자로 표기함.
2. 작품정보는 제목, 크기, 재료, 년도 순으로 함.
3. 도판 사이즈의 순서는 세로×가로(평면), 깊이×폭×높이(입체)임.
4. 작품명은 국문 작품명은 〈국문작품명〉(년도), 영문 작품명은 〈영문작품명〉(년도)으로 함.
5. 전시제목은 《전시제목》(장소, 년도)로 표기 함.
6. 책인용은 단행본, 정기간행물은 『책이름』으로, 논문은 「논문명」으로 표기함.

Preliminary Notes

1. Artist name is represented in order of last name and family name, Family name is represented as a capital letter.
2. Artwork information is represented as the title of artwork, size, materials, production year.
3. The order of the dimension is height×width(2-dimensioanl work) or depth×width×height(3-dimensional work).
4. Artwork title is represented as artwork title(year).
5. Exhibition title is represented as 《exhibition title》(place, year).
6. The title of book and article-the title of book and article is represented as 『title of book』 and 「title of article」.

* 이 책은 인천아트플랫폼 3기 레지던시 프로그램 결과보고 및 2012 플랫폼아티스트 전시도록입니다.

* This catalogue is published on the occasion of & 3nd Residency Program result report the 2012 PLATFORM ARTISTS

인천문화재단 INCHEON FOUNDATION FOR ARTS & CULTURE
인천아트플랫폼 INCHEON ART PLATFORM

2012
플랫폼
아티스트
PLATFORM
ARTISTS

PLATFORM
SHOWCASE
플랫폼 쇼케이스
2013. 02. 02. SAT 18시 / 02. 16. SAT 14시
PLATFORM
SHOWCASE

목차

Contents

010 인사말
Foreword

012 시설
Facilities

014 프로그램
Programs

014 예술가 입주 공모
Open Call for Residency Artist

016 프리뷰전 : 해안동 10–1
Preview Exhibition : Haean-dong 10-1

020 플랫폼 살롱
Platform Salon

028 이론가 매칭 프로그램
Theorist and Artist Matching Program

030 2012 플랫폼 페스티벌 & 오픈스튜디오
2012 Platform Festival & Open Studio

034 결과보고전 : 2012 플랫폼 아티스트
Final Exhibition : 2012 PLATFORM ARTISTS

038 플랫폼 쇼케이스
Platform Showcase

040 예술가 참여 교육프로그램
Public Educational Program with Residency Artist

042 국제교류 프로그램
International Exchange Program

044 창작지원 프로젝트
Supporting Project

우주다방
Wuju Dabang
예술의 쌩얼
Naked Face of Arts
즐거운 나의 집 : 노동자들의 도시, 인천
HOME SWEET HOME : The Workers's City, Incheon

048 백령도 평화예술 레지던시
Baengnyeong-do Peace Arts Residency

054 3기 입주 예술가
3rd-term Residency Artists

– 시각예술 Visual Artists
구본아 KOO Bon-a
권윤희 KWON Yuni
김 봄 KIM Bom
김선희 KIM Sun-hee
김수환 KIM Soohwan
김시하 KIM Siha
김윤아 KIM Yunah
김창기 KIM Chang-ghi
김효숙 KIM Hyo-suk
민재영 MIN Jaeyoung
박방영 PAK Bang-young
박상희 PARK Sang-hee
벤자민 필립스 Benjamin PHILLIPS
신태수 SHIN Taesoo
예추치 YEH Tzu-chi
오석근 OH Suk-kuhn
웁쓰양 Woopsyang
윌 볼튼 Wil BOLTON
이수영 LEE Sooyoung
이시하라 노리코 ISHIHARA Noriko
이의성 LEE Ui-sung
전윤정 CHUN Yun-jung
정용일 CHUNG Yongil
조우치 ZHOU Qi
짜까판 타나티라난 Jakraphun THANATEERANON
차지량 CHA Ji-ryang
카밀라 스제노치 Kamila SZEJNOCH
칼라&안드레즈 Karla&Andrés
홍지윤 HONG Ji-yoon

– 공연예술 Performance Artists
만요컴퍼니 Manyo Company
신재훈 SHIN Jaehoon
연희컴퍼니 유희 Yeonhee Company U-hee

– 문학 · 연구 및 비평 Literature · Research, Criticism Artists
미즈타 사야코 MIZUTA Sayako
안은영 AHN En-young
이지현 LEE Ji-hyun
이 풍 Leepong

322 국제교류프로그램
International Exchange Program
전소정 JUN Sojung
추앙 후이린 CHUANG Hui-lin

336 작가약력
Artists' Profile

인사말

인천 해안동 10-1번지에 예술가들이 창작의 둥지를 튼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예술가들은 지난 1년 동안 인천아트플랫폼과 함께 다양한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인천과 호흡하였습니다.

인천아트플랫폼은 예술가들에게 지역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작품창작의 모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인천리서치투어, 외부 이론가들과 1:1 매칭을 통한 작품분석, 비평문을 통한 예술계 프로모션인 이론가 매칭 프로그램, 국내외 동시대 미술계 흐름에 대한 이해와 예술가에게 필요한 각종 법령과 지원제도 등에 대한 강의제공 등을 통해 창작활동의 촉매제 역할을 위한 아트렉쳐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인천아트플랫폼은 예술가들에게 창작지원 프로젝트와 기획전시, 국제교환프로그램, 쇼케이스 등의 창작 발표의 기회를 제공해 인천시민은 물론 타 장르 예술가와의 협업과 소통의 기회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2012년 3기 입주작가들의 결과보고전인 〈2012 플랫폼 아티스트〉에서는 예술가들이 1년 동안 인천아트플랫폼과 함께한 예술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실험으로 이루어진 결과물들을 선보였습니다. 전시, 퍼포먼스와 공연으로 구성된 〈2012 플랫폼 아티스트〉에는 '플랫폼' '아티스트'들의 예술적 비전과 열망이 담겨 있습니다.

인천아트플랫폼은 1년이라는 시간을 함께하고 해안동을 떠나는 3기 예술가들의 꿈과 열정이 더욱 넓고 아름다운 세상에서 빛나게 펼쳐지기를 응원합니다.

2013년 2월
인천아트플랫폼 관장 이승미

Foreword

A year has passed since the artists settled down in Haean-dong 10-1, Incheon. The artists made themselves at home in Incheon for the past year, participating in various residency program planned by the Incheon Art Platform(IAP). IAP has been running diverse programs including: an Incheon Research Tour that raises artists' interest in regional agenda and offers new inspiration for art project; an art analysis program that allows 1:1 interaction between residency artists and outside experts; an art theorists-matching program that promotes art world via critique; and an art lecture that delves into the trend and the understanding of contemporary art at both home and abroad; plus various legislatures and assistance program much needed for artists.

IAP also offers other opportunities for the artists through the launch of artwork assistance project, special exhibition, international exchange program and other displays to further the artists' interaction with citizens of Incheon as well as collaboration with artists of different genres.

The 〈2012 Platform Artists〉 is an exhibition that showcases the final work of the artists who participated in the third year of the IAP program. The output is the result of their year-long reflection and experiment with art. Such exhibition which is also includes performance and stage acts, expressing the artistic vision and passion of the 'artists' of the 'platform'.

IAP roots for our 3rd-year-artists. We hope they spread their wings of dream and passion in the much bigger and more beautiful world out there.

February 2013
LEE Seungmi
Director of Incheon Art Platform

시설 *Facilities*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제물량로 218번길 3
대지면적	8,450.3㎡
건축연면적	5,593.43㎡
규모	13개 동 2개 단지, 지하1층~4층

A 교육관
외부에서도 내부의 전시를 관람할 수 있는 윈도우 전시장과 같은 크리스탈 큐브와 일반 대중들이 쉽고 편하게 드나들며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교육공간, 안내데스크, 교실(3개실), 라운지

B 전시장
인천아트플랫폼 자체 기획전시 및 레지던시 관련전시가 진행되는 전시장과 수장고

C 공연장
조명 및 음향시설을 갖춘 가변형 블랙박스 형식으로 공연 및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는 공연장, 프로젝트 전시, 세미나와 강연 등이 열리는 다목적실

D 아카이브관
문화예술관련 전문서적과 자료, 레지던시 프로그램 작가들의 포트폴리오를 열람하고 컴퓨터를 이용한 디지털 자료 검색이 가능한 아카이브실, 전문가사양의 영상 편집이 가능한 컴퓨터 등을 보유하고 있는 미디어랩

E1, E2, E3 스튜디오
내부에 화장실 및 개수대가 있는 22개의 스튜디오, 거주 편의를 위한 공동주방, 세탁실, 용접 및 목공, 대형 작업을 위한 공동작업실 등 레지던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예술가들을 위한 창작 지원 공간

F 게스트 하우스
숙박 및 체류를 위한 시설을 갖춘 9개의 게스트룸, 국외작가의 거주, 문학, 연구 및 비평, 큐레이팅 등 레지던시 참여 작가의 창작지원공간, 예술관련 초청인사 단기 체류 공간

G1, G2, G3 어린이 미술체험관, 아트 앤 디자인 스튜디오
지역민과 어린이, 일반 관람객을 대상으로 한 예술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어린이 미술 체험관과 도예 공방

H 커뮤니티관
프로젝트성 작품 전시공간인 프로젝트룸, 카페와 휴식의 장소인 커뮤니티룸에서는 입주작가들의 포트폴리오와 인터뷰 열람 가능

Location	218-3 Jemullyang-ro, Jung-gu, Incheon, South Korea
Ground Area	8,450.3㎡
Gross Area	5,593.43㎡
Building	2 Complexes, 13 Buildings with 1 story below and 4 above ground

A Education Hall
Crystal cube which is similar to Window gallery that inside is visible from outside, Information desk, Room(3 classrooms), Lounge, Office Characteristics Venue where general public can gain free and easy access for participating in educational programs.

B Gallery
Gallery for exhibitions organized by the IAP and special exhibitions by resident artists, Storage.

C Theater
Lightings and sound system equipped black box typed theater, Multipurpose room characteristics theater for performing arts events. Multipurpose room for seminars and lectur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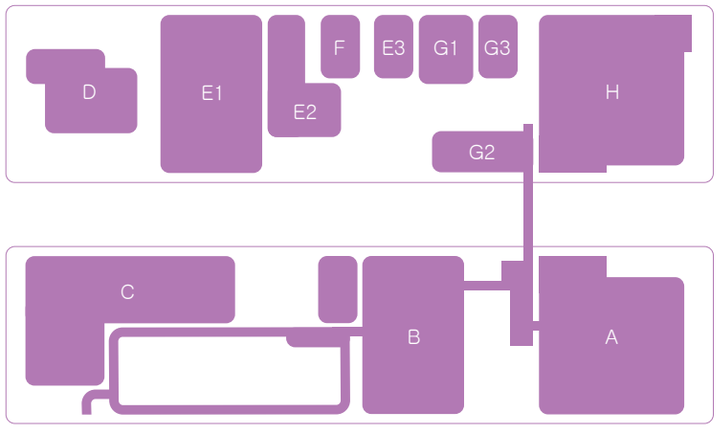
D Archives
Cultural art books, Magazines, Portfolio of resident artists browse. Digital data can be searched through the computer. Multimedia Lab holding latest computer for video editing.

E1, E2, E3 Studio
Bathroom and sink built in studio 1~22, Communal kitchen, Media Lab 1,2, Communal studio for welding carpentry and Large works, Laundry room, Community room Characteristic spaces to support the creative work of artists' participating in the Residency program.

F Guest House
Guestroom 1~9 for accommodation and stay, Guest Lounge, Laundry characteristic space for supporting the creative work of artists' participating in the Residency program such as creative writers, Research, art critics, and curators. Also used for short-term accommodation for VIP guests.

G1, G2, G3 Children's Art Experience Center, Art & Design Studio
Main Facilities Art&Design Studio 1,2,3 Pottery Lab, Characteristics' creative work space for experiential art programs for local residents, children and the general public.

H Community Hall
Project room to showcase works of resident artists, Cafeteria for public, Community room keeps classified resident artists' portfolio and interview.



예술가 입주 정기공모

인천아트플랫폼 예술가 레지던시 프로그램은 2009년 10월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매년 1회 정기 공모를 통해 예술가를 선발하고 있으며 2013년 올해로 4회째를 맞고 있다. 예술가 입주 공모를 통해 2013년 2월 현재까지 인천아트플랫폼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한 입주 예술가는 14개국 124개 팀(149명)이며, 2013년도 3월부터는 12개국 39개 팀(46명)의 입주 예술가들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인천아트플랫폼은 2009년 예술가 서로간의 문화 교류, 학제간, 장르 간의 협업을 통한 새로운 예술 에너지의 촉발을 목표로 시각예술, 공연예술, 문학 분야의 다양한 예술가들을 선발해 왔다. 2011년 국제 레지던시를 시작, 8개 팀(10명)의 국외 예술가를 선발하였으며 2012년 10개 팀(11명), 2013년 14개팀(19명)으로 점진 상향조정하여 선발하였다.

인천아트플랫폼은 창작공간임과 동시에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서 지역사회에서의 역할과 고민들을 예술가 선발 기준에 투영해 왔다. 2010년도에는 순수창작 활동을 하는 개인과 프로젝트를 목적으로 결성된 그룹을 분류하여 김장프랙티스!!, 디엔에이, 스트레인지 에어 인 더 나잇, 언아더 디맨션과 같은 프로젝트성 그룹 분야의 예술가를 중점 선발하였다. 2011년도에는 인천 및 인근의 문화, 역사적 담론을 다루는 지역연계프로젝트를 별도 공모하여 김태은, 김영욱 작가를 선발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했으며 지역연계 프로젝트 외에도 예술가가 제안하는 다양한 프로젝트 등을 수용하여 진행하였다. 2012년도 다양한 분야의 순수창작과 연구 레지던시에 입주한 예술가들은 인천아트플랫폼과 그 주변으로 부터 많은 영감을 받으며 다양한 창작작업을 진행하였다.

인천아트플랫폼 입주 예술가들은 '프리뷰전', '결과보고전', '플랫폼 페스티벌 및 오픈스튜디오'에 참여할 수 있으며, '플랫폼 살롱', '이론가 매칭 프로그램' 및 인천아트플랫폼 내에서 진행되는 예술가가 제안하는 전시와 프로젝트에 대한 홍보 일부를 지원받는다.

예술가 입주현황

〈2009 파일럿 프로그램 입주 예술가〉 25명
강 혁, 고 윤, 고창선, 공주형, 김영수, 김 온, 김원방, 김한수, 김혜란, 남대웅, 박상희, 배진호, 안경수, 오경환, 오유경, 오효석, 유은주, 이주영, 임경수, 장 진, 전소정, 채지영, 최 민, 홍인기, 후지이 라이(FUJII Rai, 일본)

〈2010 1기 입주 예술가〉 28팀
강 혁, 거문고 앙상블 다비, 공주형, 김영수, 김원범, 김장프랙티스!!, 김태은, 김혜란, 남대웅, 노정하, 디엔에이, 박윤희, 박혜정, 배진호, 스트레인지 에어 인 더 나잇, 양승수, 언아더 디맨션, 오경환, 오유경, 이 탈, 이옥련, 장 진, 정상희, 정홍섭, 지민희, 찰리한, 채지영, 최혜영

〈2011 2기 입주 예술가〉 35팀
김영욱, 김제민, 김태준, 김혜지, 김태은, 다나 올라레스큐(Dana OLARESCU, 루마니아), 더 미미랩(the memelab, 캐나다), 라디컬 인텐션(Radical Intention, 이태리), 문준용, 박석태, 박영숙, 박하민, 배진호, 사샤 폴(Sascha POHLE, 독일), 손혜민, 엘리사 페르난데스 알테타(Elisa Fernández ARTETA, 스페인), 연희컴퍼니 유희, 오민수, 오석근, 오시은, 유광식, 유지환, 윤석남, 윤주희, 윤중강, 이민경, 이봄순, 이승현, 임선이, 조슈아 로버츠(Joshua ROBERTS, 미국), 조 습, 타케시 모로(TAKESHI Moro, 일본), 페르난다 치에코(Fernanda CHIECO, 브라질), 현태준, 홍성민

〈2012 3기 입주예술가〉 36팀
구본아, 권윤희, 김 봄, 김선희, 김수환, 김시하, 김윤아, 김창기, 김효숙, 만요 컴퍼니, 미즈타 사야코(MIZUTA Sayako, 일본), 민재영, 박방영, 박상희, 벤자민 필립스(Benjamin PHILLIPS, 영국), 신재훈, 신태수, 안은영(호주), 연희컴퍼니 유희, 예추치(YEH Tzu-chi, 타이완), 오석근, 윱쓰양, 윌 볼튼(Wil BOLTON, 영국), 이수영, 이시하라 노리코(ISHIHARA Noriko, 일본), 이의성, 이지현, 이풍, 전윤정, 정용일, 조우치(ZHOU Qi, 중국), 짜까판 타나티라난(Jakraphun THANATEERANON, 태국), 차지량, 카밀라 스제노치(Kamila SZEJNOCH, 폴란드), 칼라&안드레즈(Karla&Andrés, 독일&스페인), 홍지윤

Open Call for Residency Artist

Incheon Art Platform has selected artists in residence by a ones-a-year regular contest, starting with the pilot program in October 2009, and it's been four years since it did. By the contest for artist residency, it has supported the artists of 124 teams(149 artists) from the 14 countries to data, in February 2013, and it plans to support the artists in residence of 39 trams(46 artists) from the 12 countries in 2013.

Incheon Art Platform selected the various genres of artists including visual art, performance art, humanities and curator, setting an aim of sparking some fresh artistic energy through the cultural exchange among various genres of artists and the inter-academy system, inter-genre collaboration since 2009. In 2011, Incheon Art Platform started to started to select overseas artists and it raised gradually the rate of overseas artists to 8 teams (10 artist) in 2011, and to the 10 teams(11 artists) in 2012, to the 14 teams(19 artists)

IAP, an art studio and a multiplex cultural arts center at the same time, has always been mindful of its role and thoughts in the region, and reflected such characteristics in selecting candidates for the residency program. In 2010 IAP set apart an individual artist working on Fine Arts from those grouped for certain project and then selected majority of artists from the latter group such as 'KimChang Practice!!, 'DNA', 'Strange Air In the Night' 'Another Dimension'. In 2011, IAP separately launched a regional partnership program that deals with cultural and historical discourse that covers Incheon and its nearby region. Back then the two artists KIM Tae-eun and KIM Young-wook were chosen for the task. Other idea projects, suggested by various artists were also on full wing at the time. In 2012 artists from the various areas of Fine Arts admitted to residency building proceeded with their own creative projects, receiving much inspiration within IAP and other places.

The artists in residence at Incheon Art Platform can participate in the 'Preview Exhibition', the 'Final Exhibition' and the 'Platform Festival & Open Studio', and they are supported with the 'Platform Salon', the 'Theorists and Artist Marching Program' and a part of the publicity for the exhibitions and projects proposed by them, which are done in Incheon Art Platform.

Residency Artist Status

<2009 Pilot Residency Artists> 25 artists
KANG Hyuk, KO Yun, KOH Chang-sun, KONG Ju-hyung, KIM Young-soo, KIM On, KIM Won-bang, KIM Han-su, KIM Hye-ran, NAM Dea-woong, PARK Sang-hee, BAE Jin-ho, AN Gyung-su, OH Kyung-hwan, OH You-kyeong, OH Hyo-seok, YOO Eun-ju, LEE Joo-young, YIM Kyung-soo, JANG Jin, JUN So-jung, CHAE Ji-young, CHOI Min, HONG In-ki, FUJII Rai(Japan)

<2010 1st-term Residency Artists> 28 teams
KANG Hyuk, Geomungo Ansemble DAVI, KONG Joo-hyung, KIM Young-soo, KIM Won-beoum, KimChangPractice!!, KIM Tae-eun, KIM Hye-ran, NAM Dae-woong, NOH Jung-ha, DNA, PARK Youn-hoey, PARK Hye-joung, BAE Jin-ho, Strange Air in the Night, YANG Seung-soo, Another Dimension, OH Kyung-hwan, OH You-kyeong, LEE Tal, LEE Okyohn, JANG Jin, JUNG Sang-hee, JUNG Heung-sup, Jiminy, Charlie HAHN, CHAE Ji-young, CHOI Hye-young

<2011 2nd-term Residency Artists> 35 teams
KIM Young-wook, KIM Jae-min, KIM Tae-jun, KIM Heaji, KIM Tae-eun, Dana OLARESCU(Rumania), the memelab(Canada), Radical Intention(Italy), JOON Y. MOON, PARK Seok-tae, PARK Young-sook, BAAK Haamin, BAE Jin-ho, Sascha POHLE(Germany), SON Hyemin, Elisa Fernández ARTETA(Spain), Yeonhee Company U-Hee, OH Min-su, OH Suk-kuhn, OH Si-eun, YOO Gwang-sig, YOO Ji-whan, YUN Suk-nam, YOUN Ju-hee, YOON Jung-kang, LEE Minkyung, LEE Bommsoon, LEE Seung-hyun, IM Sun-iy, Joshua ROBERTS(USA), JoSeub, TAKESHI Moro(Japan), Fernanda CHIECO(Brazil), HYEON Tae-joon, HONG Sung-min

<2012 3rd-term Residency Artists> 36 teams
KOO Bon-a, KWON Yuni, KIM Bom, KIM Sun-hee, KIM Soohwan, KIM Siha, KIM Yunah, KIM Chang-ghi, KIM Hyo-suk, Manyo Company, MIZUTA Sayako(Japan), MIN Jaeyoung, PAK Bang-young, PARK Sang-hee, Benjamin PHILLIPS(UK), SHIN Jaehoon, SHIN Taesoo, AHN En-young(Australia), Yeonhee Company U-Hee, YEH Tzu-chi(Taiwan), OH Suk-kuhn, Woopsyang, Wil BOLTON(UK), LEE Sooyoung, ISHIHARA Noriko(Japan), LEE Ui-sung, LEE Ji-hyun, Leepong, CHUN Yun-jung, CHUNG Yongil, ZHOU Qi(China), Jakraphun THANATEERANON(Thailand), CHA Ji-ryang, Kamila SZEJNOCH(Poland), Karla&Andrés(Germany&Spain), HONG Ji-yoon

* 2013 입주예술가 선발공모 설명회
2012년 11월 7일

* Information Sessin of 2013 Open Call for Residency Artist
November 7, 2012

프리뷰전 :
해안동 10−1

3기 레지던시 프로그램의 시작을 알리고 입주작가들의 대표작품들을 선보이는 프리뷰전시인 〈해안동 10−1〉展이 약 60일간 인천아트플랫폼 곳곳에서 진행되었다. 해안동 10−1은 인천에 새롭게 둥지를 틀게 될 입주작가들이 지금까지 어떤 작업을 해 왔으며, 입주 후에는 어떠한 활동을 해 나갈 것인지를 살펴보는 전시였다. 전시제목인 '해안동 10−1'은 인천아트플랫폼이 위치한 개항장 일대의 옛 번지수이다. 근대의 물결이 밀물과 썰물처럼 드나들었던 곳으로, 현재는 인천아트플랫폼을 경유하는 다양한 예술가들의 예술 활동들이 실현되는 곳이다.

A동 크리스탈 큐브에는 수묵동양화의 전통과 자연관을 기반으로 일상의 삶과 상념, 그리고 다양한 인식과 느낌을 시(詩)와 화려한 색채의 그림으로 표현해 퓨전 동양화로 주목 받아온 홍지윤의 작품 〈봉별(逢別)−만남과 헤어짐〉(2011)이 설치되었다. 작가는 작품을 통해 동서고금을 가로 지르는 예술의 만남을 추구하고,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움직이는 한편의 따뜻한 시로 기억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B동 전시장에는 작가가 직접 풍경에서 받은 감흥을 토대로 생략과 변형의 방법을 통해 눈앞에 보이는 것과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생각 사이의 기묘한 감동을 전해주는 김봄의 회화작품 〈무제〉(2011)와, 인천에서 노동자로 살아온 가족의 서사시를 통해 욕망의 도구로 전락해가는 인간의 모습을 시각화한 김수환의 설치작품 〈화물차가 된 아빠〉(2011), TV 화면의 주사선 같은 흐릿한 시각적 노이즈로 걸러진 현대적 도시풍경을 통해 출구 없이 갇혀 있는 현대문명의 상황을 그려내는 민재영의 회화작품 〈休日 Holiday(휴일)〉(2010) 등이 전시되었다. 국외작가로는 장소 특정적 영상과 디지털 사운드를 결합한 작품으로 영국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2012년 리버풀 비엔날레에서 인천을 주제로 작업하기 위해 입주한 윌 볼튼(Wil BOLTON, 영국)의 〈Quay Tones(키 톤즈)〉(2009)와 왜곡되고 극대화된 일러스트를 통해 인간의 감정을 재해석하는 일러스트레이터 벤자민 필립스(Benjamin PHILLIPS, 영국)의 작품 〈The Rabbit Fiddler(더 래빗 피들러)〉(2009), 역사적 이데올로기를 화두로 공공장소의 건물이나 조각상과 같은 기념비적 요소에 변화를 주어 개인과 역사와의 관계를 재해석하는 카밀라 스제노치(Kamila SZEJNOCH, 폴란드)의 작품 이미지등이 영상으로 소개되었다. 또한 연극연출가 신재훈과 젊은 전통 연희인들이 모인 연희컴퍼니 유희, 1930년대 대중가요인 만요를 재해석하여 활동하고 있는 만요 컴퍼니의 영상과 사진기록들도 함께 선보였다.

· 2012년 3월 8일 − 6월 10일
· 인천아트플랫폼 A동 크리스탈 큐브, B동 전시장

· 구본아, 권윤희, 김 봄, 김선희, 김수환, 김시하, 김윤아, 김창기, 김효숙, 만요컴퍼니, 미즈타 사야코, 민재영, 박방영, 박상희, 벤자민 필립스, 신재훈, 신태수, 안은영, 연희컴퍼니 유희, 예 추치, 오석근, 옵쓰양, 윌 볼튼, 이수영, 이시하라 노리코, 이의성, 이지현, 이 풍, 전윤정, 정용일, 조우치, 짜까판 타나티라난, 차지량, 카밀라 스제노치, 칼라&안드레즈, 홍지윤

3rd Residency Artist Preview Exhibition :
Haean-dong 10-1

<Haean-dong 10-1> which is a preview exhibition does two things; it signals the start of the third year residency program and introduces new artists through display of representative works. The exhibition which is held all over IAP building for about 60 days reveals what kind of projects the new artists were involved in, in the past and contemplate on their future projects since their arrival. The exhibition's title 'Haean-dong 10-1' was originally taken from an old address number of the open port area where IAP is currently located, once populated by all sorts of modern trend that have come and gone. Now this area, covering the IAP stands as a place that allows art activities by various artists.

At Crystal Cube of building A, HONG Ji-yoon's work <Encounter and Separation>(2011) was displayed. The artist was already noted for her fusion-style oriental ink-painting in which she introduced poetry and multitude of colors in traditional ink-painting while expressing the everyday life and thoughts as well as diverse perceptions and sentiments. HONG's art aimed on two things: to bring together the two different art forms, transcending all times and places, and to have her work remembered as moving and heart-warming, just like poetry. The gallery at building B presented KIM Bom's painting <Untitled>(2011) which is based on what the artist experienced, abbreviated and modified to give off a weird sense of delight that arose between what you can see and what you have imagined; KIM Soohwan's installation art <Dad who Turned into a Truck>(2011) which contains the history of KIM's family and also the story of his father who was an employee to Korea Express Co. and worked at a warehouse located at Haean-dong 10-1; MIN Jaeyoung's painting <Holiday>(2010) that described a 'trapped' situation of modern civilization through an illustration of a lifestyle in a city covered in some kind of grayish scanning line like in the buzzing TV, which is a visualization of 'noise'. Artists from overseas includeWil BOLTON(UK), a audio-visual artist who merges certain visual with digital sound into one and currently working in UK but came to Korea to work on the theme of Incheon for this year's Liverpool Biennale; and Benjamin PHILLIPS' (UK) work <The Rabbit Fiddler>(2009) that speaks of re-interpretation of human sentiment through distorted and magnified illustration; and the footage of artworks by Kamila SZEJNOCH(Poland) who, under the historical and ideological theme, re-interpreted the relationship between an individual and the history by adding a bit of change to monumental memorials such as buildings and statues in public places. Other works introduced through visual and photo records include theatrical troupe Yeonhee Company U-hee made up of young traditional art performers including theater director SHIN Jaehoon and Manyo Company, focused on re-interpreting 'manyo', Korea's popular music genre in the 30s.

· March 8 - June 10, 2012
· Incheon Art Platform Building A Cristal cube, Building B Gallery

· KOO Bon-a, KWON Yuni, KIM Bom, KIM Sun-hee, KIM Soohwan, KIM Siha, KIM Yunah, KIM Chang-ghi, KIM Hyo-suk, Manyo Company, MIZUTA Sayako, MIN Jaeyoung, PAK Bang-young, PARK Sang-hee, Benjamin PHILLIPS, SHIN Jaehoon, SHIN Taesoo, AHN En-young, Yeonhee Company U-hee, YEH Tzu-chi, OH Suk-kuhn, Woopsyang, Wil BOLTON, LEE Sooyoung, ISHIHARA Noriko, LEE Ui-sung, LEE Ji-hyun, Leepong, CHUN Yun-jung, CHUNG Yongil, ZHOU Qi, Jakraphun THANATEERANON, CHA Ji-ryang, Kamila SZEJNOCH, Karla&Andrés, HONG Ji-yoon

프리뷰전 :
해안동 10–1

3rd Residency Artist Preview Exhibition :
Haean-dong 10-1

플랫폼 살롱 : 작가프리젠테이션

입주예술가 프리젠테이션은 매월 두 세 명의 예술가들이 자신의 스튜디오 및 아카이브관에 모여 작품세계나 예술관에 대해 자유롭고 편안하게 대화하는 토론의 자리이다. 입주예술가들간의 소통과 교류를 위해 마련된 이 프로그램은 다양한 장르 및 형식을 가진 입주예술가들에게 서로의 작품에 대한 이해와 공동의 관심을 이끌어 내는 소통의 장을 마련해 줌으로써 학제간·장르간의 협업, 연구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일시	참여 예술가
2012년 3월 21일	벤자민 필립스, 오석근
2012년 5월 24일	김시하, 안은영, 만요컴퍼니, 홍지윤
2012년 6월 29일	신재훈, 전윤정, 웁쓰양, 차지량
2012년 7월 27일	박방영, 박상희, 이지현, 짜까판 타나티라난, 조우치
2012년 8월 24일	구본아, 김 봄, 민재영, 연희컴퍼니 유희, 윌 볼튼, 정용일
2012년 10월 26일	권윤희, 김선희, 이의성, 예 추치, 카밀라 스제노치
2012년 11월 30일	김창기, 김효숙, 신태수, 이 퐁
2012년 12월 17일	김윤아, 김수환, 이수영, 이시하라 노리코, 칼라&안드레즈

Platform Salon : Artists' Presentation

The Resident Artists Presentation is a place for discussion where two or three artists meet in their studios or other rooms once a month, talking about the world of their work or the viewpoint on arts freely, comfortably. This program set up for the communication and exchange among the artists in residence aims to dynamize the inter-academy system, inter-genre collaboration and research, by offering a place for communication, where they can understand each other's work and promote common interests, to the artists with various genres and forms.

Date	Artist
21th March 2012	Benjamin PHILLIPS, OH Suk-kuhn
24th May 2012	KIM Siha, AHN En-young, Manyo Company, HONG Ji-yoon
29th June 2012	SHIN Jaehoon, CHUN Yun-jung, Woopsyang, CHA Ji-ryang
27th July 2012	PAK Bang-young, PARK Sang-hee, LEE Ji-hyun, Jakraphun THANATEERANON, ZHOU Qi
24th August 2012	KOO Bon-a, KIM Bom, MIN Jaeyoung, Yeonhee Company U-hee, Wil BOLTON, CHUNG Yongil
26th October 2012	KWON Yuni, KIM Sun-hee, LEE Ui-sung, YEH Tzu-chi, Kamila SZEJNOCH
30th November 2012	KIM Chang-ghi, KIM Hyo-suk, SHIN Taesoo, Leepong
17th December 2012	KIM Yunah, KIM Soohwan, LEE Sooyoung, ISHIHARA Noriko, Karla&Andrés

· 2012년 8월 24일 15:00 - 18:00
인천아트플랫폼 C동 공연장

· August 24, 2012 15:00 - 18:00
Incheon Art Platform Building C Theater

플랫폼 살롱 : 아트렉처

창작지원교육은 예술가들의 다각적인 창작활동 지원을 위하여 국내외를 무대로 활발히 활동하는 기획자, 미술사가, 갤러리스트 등과 같은 미술관계자를 초청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미술현장의 흐름을 들어보는 교육프로그램이다. 미술시장, 한중일 미술, 현대미술의 흐름 등의 강의내용으로 구성된 본 프로그램은 예술가들의 현장교육 및 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일시	강사	강의제목
2012년 3월 21일 19:00–21:00	권세헌(변호사)	예술가를 위한 법률 상식
2012년 5월 24일 19:00–21:00	윤중강(만요컴퍼니 예술감독)	모던보이의 공연/시각예술의 경계놀이
2012년 6월 29일 19:00–21:00	허은광(인천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장)	예술가 지원제도의 흐름
2012년 7월 27일 19:00–21:00	이관훈(사루비아다방 큐레이터)	포트폴리오 제작에 관하여
2012년 8월 24일 19:00–21:00	이주현(명지대학교 교수)	중국 현대미술의 흐름

Platform Salon : Art Lecture

The Creation Supporting Education in an education program set up for supporting the artists' multilateral creative activities, through which they can look into the trends of a rapidly changing comtemporary art scene, by the program inviting the art interested including planers, art historians and gallerists who are highly active on the domestic and foreign art scene. This program consisting of the comtemporary art aimed to provide the opportunities for the on-site education and reeducation for the artists.s.

DATE	SPEAKEL	TITLE
21th March, 2012 19:00-21:00	GWON Se heon (A lawyer)	Common sense laws for artists
24th May, 2012 19:00-21:00	YUN Jung gang (Artistic director of Manyo Company)	Performances of a modern boy / the boundaries of the visual arts play
29th June, 2012 19:00-21:00	HUH Eun-kwang (Head manager of Incheon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Flow of artist support schemes
27th July, 2012 19:00-21:00	LEE Gwan-hun (Curator at Project space SARUBIA)	About portfolio development
24th August, 2012 19:00-21:00	LEE Joo-hyeon (Professor at Myongji University)	Flow of Chinese contemporary art

· 2012년 7월 27일
포트폴리오 제작에 관하여, 이관훈(사루비아다방 큐레이터)

· 2012년 3월 21일
예술가를 위한 법률 상식, 권세헌(변호사)

· July 27, 2012
About portfolio development, LEE Gwan-hun(Curator at Project space SARUBIA)

· March 21, 2012
Common sense laws for artists, GWON Se heon(A lawyer)

플랫폼 살롱 : 리서치투어

인천리서치투어는 인천의 지역성을 띤 주요장소를 답사하는 투어프로그램으로 인천의 역사적 배경과 지리적 특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려줄 수 있는 지역 인사와 함께 답사함으로써 인천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를 높이고 창작활동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2012년 4월 5일 10:00 – 19:00
식목일 기념 나무심기와 근대 개항장 중심의 인천역사탐방

- 내 용 : 식목일을 기념해 인천아트플랫폼에 개인별 식수와 근대의 역사적 장소를 중심으로 한 도보 인천역사탐방
- 강 사 : 이종복(개항장 역사문화연구회장), 민운기(스페이스빔 대표)
- 방문지 : 인천우체국 – 옛 인천세관 – 일선상선 주식회사 – 금파터 – 명조사, 묘각사, 편조사 터 – 신흥초등학교 – 인천시립도서관 – 율목공원 – 권번터 – 인천흥업주식회사 터 – 용동 큰우물

2012년 6월 3일 15:00 – 20:00
인천부두 도보답사

- 내 용 : 인천아트플랫폼의 생성 및 철학에 관한 강의를 듣고 근처 화수부두, 만석부두 등을 살펴봄
- 강 사 : 황순우(바인건축사무소 대표, 인천대 교수)
- 방문지 : 인천아트플랫폼 – 파라다이스호텔 – 북성포구 – 만석부두 – 화수부두

2012년 9월 6일 – 7일
광주비엔날레 답사

- 내 용 : 광주에서 열리는 비엔날레 전시를 관람하고 동시대 국제적인 미술 흐름을 파악함
- 방문지 : 광주비엔날레 전시장(광주시립미술관, 대인시장 등)

Platform Salon : Research Tour

The Incheon Research Tour is a tour program by which the artists make a field survey on the major sites with Incheon's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this program provided the opportunities for increasingly understanding and taking an interest in the city to reflect it in creative activities for the artists, by them exploring the sites with the local persons who could give a talk about the historical background and geographical feature of Incheon.

April 5, 2012, 10:00 – 19:00
Tree planting for Arbor Day and History Tour around Incheon's Open Port region

- Content : A walking history tour around main historical sites of Incheon. Each individual is required to carry a small plant to commemorate Korean Arbor Day.
- Culture Mentor : LEE Jongbok (Mater of Open Port History class), MIN Woonki (Director of space Beam)
- Visit Place : Incheon Post Office – Old Incheon Customs – IlsunSangsun Corporation – Gumpater – Myungjoe Temple, Myogak Temple, Pyeonjoe Temple Sites – Shinhung Elementary school – Incheon City Library – Yulmok Park – A gisaeng call office site – Incheon Heungup Corporation Site – Yong-dong Large well

June 3, 2012, 15:00 – 20:00
Incheon pier Walk exploratory

- Content : Taking a close look into Hwasoo Wharf, Mansuk Wharf and the likes after listening to the lecture on formation and philosophy of IAP.
- Culture Mentor : HWANG Soonwoo (Director of Architectural firm · University of Incheon, Professor)
- Visit Place : IAP – Paradise Hotel – Bukseong Muzzle – Mansuk Wharf – Hwasu Wharf

September 6 – 7, 2012
Gwangju Biennale exploratory

- Content : Viewing the exhibition at Gwangju Biennale and identifying the art trend overseas.
- Visit Place : Gwangju Biennale Exhibition Hall (Gwangju Museum of Art, Dea-in market ect.)

· 2012년 4월 5일
식목일 기념 나무심기, 인천 개항장 도보답사

· April 5, 2012
Tree planting for Arbor Day, History tour around Incheon's open port region

· 2012년 6월 3일
인천부두 보도답사

· June 3, 2012
Incheon pier walk exploratory

· 2012년 9월 6일 - 7일
광주비엔날레, 대인시장 답사

· September 6 - 7, 2012
Gwagju Biennale, Daein market exploratory

이론가 매칭 프로그램

이론가 매칭 프로그램은 입주예술가와 관련분야 이론가들과의 학술적 만남 속에서 작품세계를 밀도있게 조명해 보는 프로그램이다. 작가와 이론가와의 만남을 통해 작품제작 과정에 대한 적극적인 피드백을 유도하여 작업방향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기회를 갖는다. 입주예술가들의 창작의욕 고취 및 역량강화를 위한 본 프로그램은 외부 큐레이터, 평론가 등의 이론가들과 작가간의 소통과 교류를 확대하여 보다 폭 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자 진행되었다.

Theorists and Artists Matching Program

Theorists Matching Program is a program by which the artists focus on their world of work in the academic meeting between the artists in residence and the theorists of interest world. This program aims for the artists to seek for a new direction for work, by them welcoming some feedback on their work and process of work production, through the meeting between the artists and the theorists. This program for promoting the creative wants of the artists in residence and strengthening their ability was carried out to build more expanded human networks, by expanding the communication and exchange between the artists and the theorists including outside curators and critics.

작가	이론가
구본아	김백균(중앙대학교 교수)
권윤희	김경운(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
김봄	하계훈(단국대학교 교수)
김선희	김미진(홍익대학교 교수)
김수환	김지혜(미학)
김윤아	미츠타 사야코(독립큐레이터)
김창기	하계훈(단국대학교 교수)
김효숙	박천남(성곡미술관 학예연구실장)
만요컴퍼니	이소영(음악평론가)
민재영	류철하(전시기획자)
박방영	김상철(동덕여대 교수)
박상희	고충환(미술비평가)
신재훈	김해진(2011 플랫폼 수상자)
신태수	김상철(동덕여대 교수)
연희컴퍼니 유희	현경채(음악비평가)
오석근	현시원(독립큐레이터)
옵쓰양	박영택(경기대학교 교수)
이수영	정원철(작가)
이의성	이선영(미술평론가)
이퐁	김용란(아동문학 평론가)
전윤정	김준기(대전시립미술관 학예팀장)
정용일	심상용(동덕여대 교수)
차지량	이지현(영화평론가)
홍지윤	이선영(미술평론가)

* 이론가 매칭 프로그램을 통해 진행된 원고는 본 도록에 수록 되어 있습니다.(p.056~335)

Artists	Critics
KOO Bon-a	KIM Baik-gyun (Professor at Chung-Ang University)
KWON Yuni	KIM Kyoung-woon (Curator at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KIM Bom	HA Kye-hoon (Professor at Dankook University)
KIM Sun-hee	KIM Mi-jin (Professor at the Graduate School of Fine Arts, Hongik University)
KIM Soohwan	KIM Ji-hye (Aesthetics)
KIM Yunah	MIZUTA Sayako (Independent Curator)
KIM Chang-ghi	HA Kye-hoon (Professor at Dankook University)
KIM Hyo-suk	PARK (Chief Curator at Sungkok Art Museum)
Manyo Company	LEE So-young (Music critic)
MIN Jaeyoung	RYU Chulha (Independent Curator)
PAK Bang-young	KIM Sang-cheol (Professor at Dongduk Women's University)
PARK Sang-hee	KHO Chung-hwan (Art Critic)
SHIN Jaehoon	KIM Haejin (2011 winner at Platform)
SHIN Taesoo	KIM Sang-cheol (Professor at Dongduk Women's University)
Yeonhee Company U-hee	HYUN Kyung-chae (Music Critic)
OH Suk-kuhn	HYUN Seewon (Independent Curator)
Woopsyang	PARK Young-taik (Kyonggi University Professor and Art Critic)
LEE Sooyoung	JUNG Won-chul (Artist)
LEE Ui-sung	LEE Sunyoung (Art critic)
Leepong	KIM Yong-ran (Critic of children's literature)
CHUN Yun-jung	GIM Jungi (Art critic)
CHUNG Yongil	SIM Sang-yong (Professor at Dongduk Women's University)
CHA Ji-ryang	LEE Ji-hyeon (Film critic)
HONG Ji-yoon	LEE Sunyoung (Art Critic)

* The texts written through the Theorists and Artists Matching Program are included in this catalog of pictures.(p.056~335)

· 입주예술가 이퐁과 평론가 김용란
Artist Leepong & Critic KIM Yong-ran

· 입주예술가 전윤정과 평론가 김준기
Artist CHUN Yun-jung & Critic GIM Jungi

2012 플랫폼 페스티벌 & 오픈스튜디오 : 인천 앞바다에 왜 사이다가 떴을까?

플랫폼 페스티벌은 2009년 파일럿 프로그램에서 부터 현재 입주해 있는 모든 예술가들이 모이는 전시와 오픈스튜디오가 함께 진행되는 '홈커밍 데이'와 같은 아트 페스티벌로 예술이란 화두로 각자의 진지하고 유쾌한 성찰을 서로 교감하는 연례행사이다. 2012 플랫폼 페스티벌에서는 49팀의 다양한 예술분야의 예술가들이 모여 전시과 공연, 프로젝트 등을 펼쳤다. 전시제목은 1960년대 코미디언 故서영춘씨가 부른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떴어도~"의 노래가사 일부를 차용한 것으로 이는 1905년 인천 신흥동 '인천탄산수제조소'에서 만들어진 대한민국 최초의 '스타 사이다'가 당시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병이 떠다닐 만큼 대중적 인기를 끌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한 예술가들은 아직도 옛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인천아트플랫폼 일대 근대 개항장 주변으로부터 많은 예술적 영감을 받으며 창작활동에 임해왔다. 과거의 향수, 궁금증을 유발하는 대중가요 가사에도 드러나는 개항장 인천만의 독특한 문화사적 상징인 '사이다'를 차용한 전시제목과도 같이, 본 전시는 인천아트플랫폼 주변 개항장 일대의 인문학적 요소를 환기시키고 젊고 다양한 예술의 실험정신을 통해 사이다와 같은 청량감을 선사하고자 했다. 더불어 오픈스튜디오에서는 현재 입주한 예술가들의 창작현장을 공개하여 작가의 작업실을 둘러보고 작가와 이야기를 나누며 궁금증을 풀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 예술가들에게 있어 스튜디오는 창작의 순간이 기록된 장소이자 작품의 모태가 되는 장소이기도 하다. 인천아트플랫폼은 개관 3주년을 맞이하여 그동안 입주했거나 현재 입주해 있는 예술가들이 함께 과거 창작의 순간을 기억하고 현재의 지점을 되새겨 보고자 하였다. 또한 해가 거듭될수록 늘어나는 인천아트플랫폼 레지던시 출신작가들 간의 교류를 통해 서로의 작업 활동을 격려하고 또 다른 창작의 기폭제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전시

· 2012년 7월 13일 – 9월 16일
· 인천아트플랫폼 A동 크리스탈 큐브, B동 전시장 외
· 강 혁, 거문고앙상블 다비, 고 윤, 고창선, 김선희, 김시하, 김영수, 김 온, 김원범, 김제민, 김태은, 김태준, 김혜란, 김혜지, 노정하, 디엔에이(오상석), 박영숙, 박하민, 벤자민 필립스, 안경수, 양승수, 언아더 디멘션(권종수), 오경환, 오효석, 윌 볼튼, 유광식, 유지환, 윤석남, 이민경, 이승현, 이시하라 노리코, 이옥련, 이의성, 임경수, 장 진, 전소정, 조 습, 찰리 한, 최혜영, 타케시 모로, 페르난다 치에코

오픈스튜디오 "날 보러 와요"

· 2012년 7월 14일 – 9월 15일
· 인천아트플랫폼 스튜디오 E1, E2, E3
· 구본아, 김 봄, 김수환, 김창기, 김효숙, 민재영, 박방영, 박상희, 신재훈, 신태수, 오석근, 윱쓰양, 이수영, 전윤정, 정용일, 차지량, 홍지윤

오프닝

· 2012년 7월 13일, 인천아트플랫폼 전역
· 특별라디오 DJ오석근의 "올팡갈팡"
· 공 연 : 〈장일타홍 연가 외〉 거문고 앙상블 다비, 피아노 이신원, 퍼커션 강준모
· 퍼포먼스 : 드로잉 퍼포먼스 〈낭만변주곡〉 박방영 & 홍지윤, 장구 유소정, 음악 차지량
· 야외주막 : 예술가들의 밤 "미워도 다시한번"

프로젝트 및 공연

〈New Home〉 프로젝트_ 차지량 프로젝트
· 2012년 7월 7일 20:00 – 7월 8일 06:00 / 7월 14일 20:00 – 22:00
인천아트플랫폼 C동 공연장 외(2012 변방연극제 연계)

〈정서진별곡〉 창작희곡 무대독회_ 신재훈 연출
· 2012년 8월 15일 17:00, 인천아트플랫폼 C동 공연장

〈혹부리 영감〉 창작 연희극_ 연희컴퍼니 유희
· 2012년 8월 25일 17:00, 인천아트플랫폼 C동 공연장

〈조선천재 김해송〉_ 만요컴퍼니
· 2012년 8월 26일 17:00, 인천아트플랫폼 C동 공연장 외

전시연계 교육프로그램 및 시민참여 프로그램

전시설명 프로그램
· 전시 기간 중 일 2회 14:00, 16:00(개인 및 단체)

〈인천아트플랫폼을 캐스팅하다 !〉_UCC 동영상 공모전 및 서포터즈
· 2012년 7월 13일 – 7월 29일 18:00까지
· 인천아트플랫폼 방문객이 직접 만드는 UCC광고

2012 Platform Festival & Open Studio : Why is the Cider Floating off Incheon?

Platform Festival is an art festival similar to 'Homecoming Day' that is being held annually with an open studio and encourages all the artists that participated in IAP program - including those who arrived during pilot residency program in 2009 - to gather around for all kinds of serious and delightful exchanges. In the 2012 Festival, 49 art groups from various genres of art came together to hold exhibition, launch special performances and display other projects. The title of the exhibition was "Why is the Cider Floating off Incheon?" taken from the lyrics of the song "Even if the Cider Bottle Floats off in Incheon~" sang by the late-comedian Seo Young-chon in the 60s. The song was referring to the making of Korea's first 'Star Cider' at Incheon Soda Factory in Shinheung-dong, Incheon City in 1905, attesting to the popularity of the brand new soda at the time, that received so much favorable responses that one can actually see cider bottles floating all over the sea of Incheon. The artists who took part in IAP residency program have long received artistic inspiration from IAP's open port area and its nearby spots that managed to preserve much of their old features. Just like the title 'cider' succeeded in incurring nostalgia and curiosity for the Incheon open port and revealed its uniqueness and raise awareness for cultural significance of the place in the process, the latest exhibition was just as refreshing, helping raise awareness for humanistic element in the festival and stirring up enthusiasm to experiment new things with art. The festival also opened up the art studio of existing artists in the middle of the art project so that people and look around the place and talk with the artists to satisfy their curiosity of this place. For artist, art studio is the place that records the moment of new creation or birthplace of a new project. IAP which celebrates its third year wanted to remember the past moment of the birth of new art and status of ongoing creation, along with both the existing and incoming new artists. IAP also hopes the artists of our residency program to encourage each other through continued exchanges and let that be another catalyst for other wonderful projects.

Exhibit

· July 13 - September 16, 2012
· Incheon Art Platform Building A crystal cube and B, ect
· GANG Hyuk, Geomungo Ansemble DAVI, KO Yun, KOH Chang-sun, KIM Sun-hee, KIM Siha, KIM Youngsoo, KIM On, KIM Won-beoum, KIM Jae-min, KIM Tae-jun, KIM Hye-ran, KIM Heaji, NOH Jung-ha, DNA (OH Sang-suk), PARK Young-sook, BAAK Haamin, Benjamin PHILLIPS, AHN Kyung-Soo, YANG Seung-soo, Another Dimension (KWON Jongsu), OH Kyung-hwan, OH Hyo-seok, Wil BOLTON, YOO Gwang-sig, YOO Ji-hwan, YUN Suk-nam, LEE Minkyung, LEE Seung-hyun, ISHIHARA Noriko, LEE Okyohn, Lee Ui-Sung, YIM Kyung-soo, JANG Jin, JUN So-jung, JoSeub, Charlie HAHN, CHOI Hye-young, TAKESHI Moro, Fernanda CHIEKO

Open Studio "Come to see me"

· July 14 - September 15, 2012
· Incheon Art Platform Studio E1, E2, E3
· KOO Bon-a, KIM Bom, KIM Soohwan, KIM Chang-ghi, KIM Hyo-suk, MIN Jaeyoung, PARK Bang-young, PARK Sang-hee, SHIN Jaehoon, SHIN Taesoo, OH Suk-kuhn, Woopsyang, LEE Sooyoung, CHUN Yun-jung, CHUNG Yongil, CHA Ji-ryang, HONG Ji-yoon

Opening

· July 13, 2012 Incheon Art Platform Entire area
· Special Radio DJ : OH Suk-kuhn "Oll Pang Gal Pang"
· Performance : <Jangiltahong love song, etc>_ Geomungo Ensemble DAVI with Piano LEE Sin-won, Percussion KANG Jun-mo
· Performance : <Romantic Variation>_ Drawing Performances by PARK Bang-young & HONG Ji-yoon. Janggu Yu Sojeong, Music CHA Ji-ryang
. Outdoor flea market : "Love me once again"_ Night of the artists

Project & Performances

<New Home>_ CHA Ji-ryang Project
· July 7 20:00 - July 8 2012, 06:00 / July 14 20:00-22:00
Incheon Art Platform Building C Theater, ect.

<Jung Seo Jin Byul Gok> Creative play solo concert _ Director, SHIN Jaehoon
· August 15 2012, 17:00, Incheon Art Platform Building C Theater

<Hokboori Young Gam> Creative play _ Yeonhee Company U-hee
· August 25 2012, 17:00, Incheon Art PlatformBuilding C Theater

<Chosun ChunJea Kim Hae Song> _ Manyo Company
· August 26 2012, 17:00, Incheon Art Platform Building C Theater, ect.

Educational & Participating Programs

Docent program
. Twice a date during the exhibit 14:00, 16:00

<Casting Incheon Art Platform !>_Call for UCC Video contest and supporters
. July 13 - July 29, 2012 until 18:00
. Incheon Art Platform visitors to make their own UCC advertising

2012 Platform Festival & Open Studio
: Why is the Cider Floating off Incheon?

2012 플랫폼 페스티벌 & 오픈스튜디오
: 인천 앞바다에 왜 사이다가 떴을까?

결과보고전 :
2012 플랫폼 아티스트

〈2012 플랫폼 아티스트〉는 인천아트플랫폼에 입주한 예술가들이 스튜디오에서 머물며 진행한 창작활동의 결실을 공개하는 자리로 시각예술, 공연예술, 문학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 작품을 선보이는 결과보고전이다. 본행사를 통해 입주예술가들은 거대한 고래와 같은 세상으로 나갈 준비를, 인천아트플랫폼은 다음 아티스트들의 소통과 교차의 플랫폼으로써 더욱 활발한 역할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10개국 37개팀, 50명으로 이루어진 3기 입주예술가들의 〈2012 플랫폼 아티스트〉는 평면, 설치, 영상, 텍스트, 입체 작품들이 전시장뿐만 아니라 공동작업실과 프로젝트룸, 크리스탈 큐브 등 인천아트플랫폼 곳곳의 장소를 활용하여 작품의 맥락이 최대한 드러나게 구성되었다. 문학비평분야 역시 작가들의 창작물을 월 텍스트와 영상 등 다채로운 방식으로 관람객들에게 선보였다.

· 2013년 1월 18일 – 2월 22일
  인천아트플랫폼 A동, B동, H동 외

· 예술가
– 시각입주예술 : 구본아, 권윤희, 김 봄, 김선희, 김수환, 김시하, 김윤아, 김창기, 김효숙, 민재영, 박방영, 박상희, 벤자민 필립스, 신태수, 예추치, 오석근, 웁쓰양, 윌 볼튼, 이수영, 이시하라 노리코, 이의성, 전윤정, 정용일, 조우치, 짜까판 타나티라난, 차지량, 카밀라 스제노치, 칼라&안드레즈, 홍지윤
– 공연예술 : 만요컴퍼니, 신재훈, 연희컴퍼니 유희
– 문학·연구 및 비평 : 안은영, 이지현, 이 퐁
– 국제교환프로그램 : 전소정(한국), 후이린(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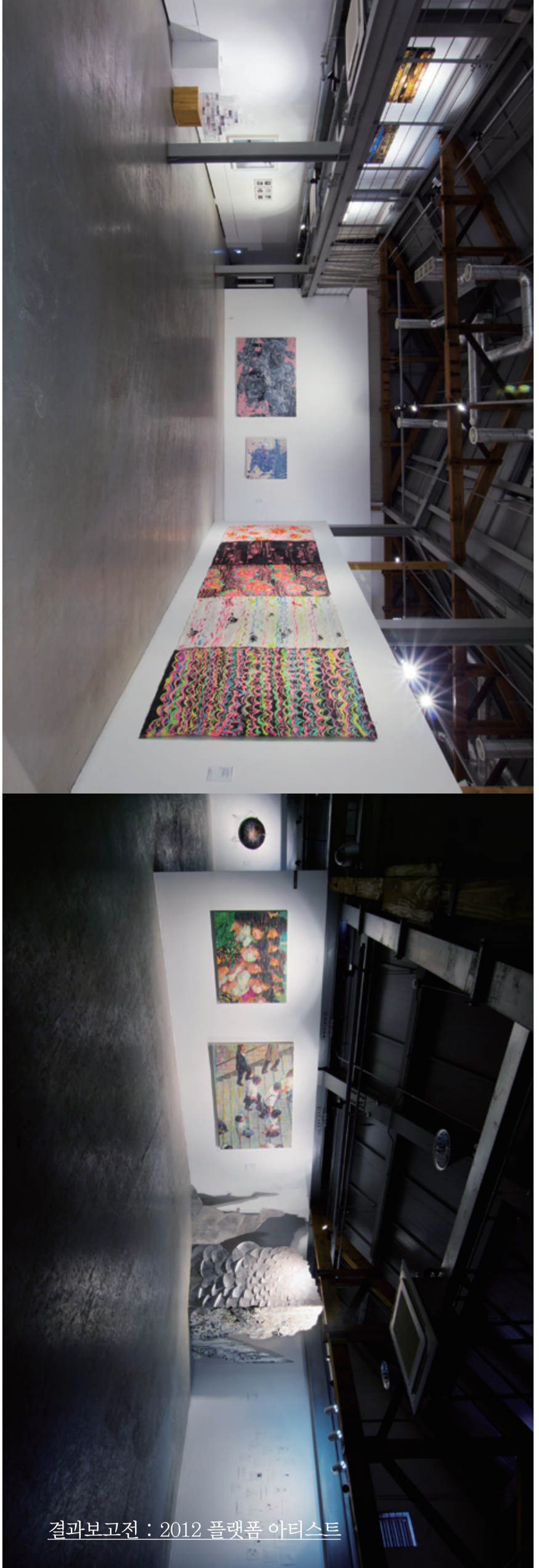
Final Exhibition :
2012 PLATFORM ARTISTS

<PLATFORM ARTISTS> is, as a platform for opening the outcomes of the activities of creation Incheon Art Platform's resident artists have done during a stay in their studio to the public, the Final Exhibition to show the works by the artist of the various genres including visual art, performance art and literature. Throught the <PLATFORM ARTISTS>, resident artists prepare to go out into the world like a huge whale, and Incheon Art Platform plans to more actively play a role ad a platform for the communication and exchange among next-term artists, At the <PLATFORM ARTISTS>for the third-term resident artists, 50 persons in 37 teams, their plane, installation, video, text and three-dimension works were arranged to most effectively reveal the various sites including studios for group work, project room and showed spectators the artists's creations through the varied methods including wall text and video.

· January 18 - February 22, 2013
  Incheon Art Platform Building A, B, H etc.

· ARTISTS
- Visual Artists : KOO Bon-a, KWON Yuni, KIM Bom, KIM Sun-hee, KIM Soohwan, KIM Siha, KIM Yunah, KIM Chang-ghi, KIM Hyo-suk, MIN Jaeyoung, PAK Bang-young, PARK Sang-hee, Benjamin PHILLIPS, SHIN Taesoo, YEH Tzu-chi, OH Suk-kuhn, Woopsyang, Wil BOLTON, LEE Sooyoung, ISHIHARA Noriko, LEE Ui-sung, CHUN Yun-jung, CHUNG Yongil, ZHOU Qi, Jakraphun THANATEERANON, CHA Ji-ryang, Kamila SZEJNOCH, Karla&Andrés, HONG Ji-yoon
- Performing Artists : Manyo Company, SHIN Jaehoon, Yeonhee Company U-hee
- Literature · Criticism & Research Artists : AHN En-young, LEE Ji-hyun, Leepong
- International Exchange Programs Artists : JUN Sojung(Korea), CHUANG Hui-lin(Taiwan)

Final Exhibition : 2012 PLATFORM ARTISTS



결과보고전 : 2012 플랫폼 아티스트

플랫폼 쇼케이스

플랫폼 쇼케이스는 인천아트플랫폼 공연예술분야 입주예술들의 입주기간 내 창작 작업 혹은 결과물을 다양한 형태로 선보이는 발표의 장이다. 인천아트플랫폼 입주작가들은 형식과 장르의 구애 없이 다양하고 자유로운 방식으로 쇼케이스를 선보이고 있으며, 인천아트플랫폼 공연장 외 야외 곳곳을 활용하여 형식의 틀을 벗어난 새로운 시도 및 실험을 한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인천아트플랫폼은 이러한 시도와 실험의 창작작업을 지원하며, 플랫폼 쇼케이스가 공연예술 관계자 및 전문가들에게 입주작가들의 작품을 프로모션 할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 확립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Platform Showcase

Platform Showcase is platform for performance artists at Incheon Art Platform show a creative performance, play or results during residency period.
Incheon Art Platform Resident artist show thier art works diverse and freely regardless of format and genre. And not only use theater but also use outside other outdoor venues to try new form of performances and experimental works.
Incheon Art Platform support these attempts and experimental performances, and Platform showcase trying to be an opportunity to promote the work of resident artistperforming arts for Performing Arts officials and experts.

퍼포먼스

· 그 시에 대한 연금술 _권윤희
2013년 1월 18 오후 6시 인천아트플랫폼 중앙대로

· 고사리 접신 _이수영
2013년 1월 18일 오후 6시 H동 커뮤니티홀

· 책 읽어주는 작가 – 점박이물범 두올이 _이풍
2013년 1월 26일 오후 2시 C동 공연장

· 차세대 연희 '명인전' _연희컴퍼니 유희
2013년 2월 2일 오후 6시 C동 공연장

· 지역연계 프로젝트 '두부가 왔어요!' _이시하라 노리코
2013년 2월 14일 오후 3시 신포시장 내 꿈꾸는 은하수

· 인천 세자매 – 홍예문 로맨스 _만요컴퍼니
2013년 2월 16일 오후 2시 C동 공연장

PERFORMANCES

· Alchemy about the Poetry_Part II _ KWON Yuni
January 18, 2013, 18:00 Incheon Art Platform Main Road

· Bracken Trace_LEE Sooyoung
January 18, 2013, 18:00 Incheon Art Platform Building H Project Room

· The Reader - Doo-all, The Spottrd Seal_Leepong
January 26, 2013, 14:00 Building C Theater

· Next Generation of Yeonhee 'Myeonginjun'_Yeonhee Company U-hee
February 2, 2013, 18:00 Building C Theater

· Local Engagement Project 'Here Comes Tofu!'_ISHIHARA Noriko
February 14, 2013, 15:00 KkumKkuneun Eunhasu at Shinpo Market

· Three Sisters in Incheon-Hongyemoon Romance_Manyo Company
February 16, 2013, 14:00 Building C Theater

· 2012년 1월 - 2월
인천아트플랫폼 C동 공연장

· January - February, 2013
Incheon Art Platform Building C Theater

예술가 참여 교육프로그램

인천아트플랫폼은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학교연계프로그램, 전시연계프로그램, 문화행정연수와 토요창의 예술학교, 방학예술캠프,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등을 레지던시 입주 작가와 함께 진행하고 있다. 현장의 예술가 혹은 지역예술가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참가자 개별 잠재적 역량을 스스로 발굴하고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뿐 아니라, 지역 내 문화예술을 매개로한 교류와 융합의 기회가 됨으로써 예술가와 시민 간의 적극적인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Educational Program with Residency Artist

IAP, runs various genres of professional culture art education program.

School liaison program, exhibition liaison program, culture administrative training, Saturday creative art class, holiday art camp, Saturday Dream Attic Culture School and other programs are taking place with the participation of artists on IAP residency program. By attending the programs participated by artists on the field as well as local artists, locals can also discover one's own potential and gain an opportunity to improve one's quality of life. Such arrangement also helps to further exchange and fuse local art and culture, thus, allowing a place for active communication between artist and citizens to come together as one.

프로그램	일시	작가	주제
토요창의 예술학교(1기)	2012년 3월 3일 – 2012년 5월 6일	연희컴퍼니유희	전통 음악 '꼬마 고인돌'
		이지현	영화감상 '들여다보기'
		옵쓰양	사진 활용 페인팅 '작품제작'
		홍지윤	회화 '나도 예술가'
		이퐁	글쓰기 '나만의 책 만들기'
'해안동 10–1' 전시연계 교육프로그램	2012년 4월 1일 – 2012년 4월 30일	벤자민(Benjamin)	벤자민(Benjamin)과 함께 '해안동 10–1'로!
토요창의 예술학교(2기)	2012년 5월 19일 – 2012년 7월 21일	만요컴퍼니	손뼉치고, 민요 부르고!
		전윤정	그리지 않는 그리기_(공간 드로잉&평면 드로잉)
		김창기	숨은 아트플랫폼 찾기
		김수환	자연이 그려주는 세상
이얍(IAP)! 신나는 여름예술 캠프	2012년 8월 7일 – 2012년 8월 11일	백승기, 이퐁	영화만들기
		이수영	자장면 프로젝트
		만요컴퍼니	소고&민요배우기
		윤영미	반짝반짝, 보석공장
		벤자민(Benjamin)	영어드로잉
		곽지영	안녕! 세라세라!
토요창의 예술학교(3기)	2012년 9월 1일 – 2012년 11월 10일	연희컴퍼니유희	'덩덕쿵놀이 한 판'
		이수영	'고사리와 사우로스(1,2)'
		김창기	'뚝딱뚝딱! 종이나라'
		차지량	'하이 파이브 오브 틴에이저'
		민재영	'너랑 나랑 드로잉'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2012년 6월 23일 – 2012년 7월 21일	홍지윤	액션페인팅, 소품만들기
		옵쓰양	자신의 자신을 전사하고, 기법활용을 통해 페인팅 및 소품 제작하기
		구본아	석고붕대와 주변 사물을 이용해 입체작품 만들기
		이지현	픽셀레이션 기법으로 영화만들기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2012년 12월 8일 – 2012년 12월 22일	이지현	픽셀레이션 기법으로 영화만들기
		오석근	현대예술사진 배우기 및 연출사진 배우기
		민재영	작가 선생님과 함께해요!–겨울풍경, 연하장 그리기

PROGRAM	DATE	ARTIST	TITLE
Saturday creative arts school (1 unit)	2012. 3. 3 – 2012. 5. 6	Yeonhee Company U-hee	Traditional music 'Little dolmen'
		LEE Ji-hyun	Watch movies 'Look in'
		Woopsyang	Photo utilize Painting 'Productions'
		HONG Ji-yoon	Painting 'I am also an artist'
		Leepong	Writing 'Making own book'
'Haean-dong 10-1' exhibited linkage education programs	2012. 4. 1 – 2012. 4. 30	Benjamin PHILLIPS	'Let's go to haeandong 10-1!' with Benjamin
Saturday creative arts school (2 unit)	2012. 5. 19 – 2012. 7. 21	Manyo Company	Clapped, sang folk songs!
		CHUN Yun-jung	Drawing Draw nothing_(Drawing space and drawing on a plane)
		KIM Chang-ghi	Find the hidden Art platform
		KIM Soohwan	Natural world that is drawn
Yiyap (IAP)! Exciting summer art camp	2012. 8. 7 – 2012. 8. 11	BAEK Seung-gi, Leepong	Movie Making
		LEE Sooyoung	Jajangmyeon project
		Manyo Company	Learning Sogo & Folk songs
		YOON Young - Mi	Shiny jewelry factory
		Benjamin PHILLIPS	English drawing
		GWAK Ji-young	Hi! Sera Sera!
Saturday creative arts school (3 unit)	2012. 9. 1 – 2012. 11. 10	Yeonhee Company U-hee	'Deongdeok Kung' play
		LEE Sooyoung	'Bracken and Saurus(1,2)'
		KIM Chang-ghi	'Snap snap! Paper kingdom'
		CHA Ji-ryang	'High Five of the teenagers'
		MIN Jaeyoung	'You and me drawing'
Dream attic Saturday Culture School	2012. 6. 23 – 2012. 7. 21	HONG Ji-yoon	Action painting, Making props
		Woopsyang	Their own transcription then Painting and props Making through the use of techniques
		KOO Bon-a	Creating three-dimensional works using plaster bandage and Surroundings
		LEE Ji-hyun	Making movies pixel migration techniques
Dream attic Saturday Culture School	2012. 12. 8 – 2012. 12. 22	LEE Ji-hyun	Making movies pixel migration techniques
		OH Suk-kuhn	Learning the modern art pictures and directing photo
		MIN Jaeyoung	With Artists!- Drawing greeting cards, Winter landscape

· 2012년 3월 - 12월
인천아트플랫폼 G2동 어린이 창작스튜디오

· March - December, 2012
Incheon Art Platform Building G2 Children's Gallery

국제교류프로그램

인천아트플랫폼은 해외 레지던시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 프로그램을 발전시킴으로써 입주작가의 해외 진출을 꾀하고 기관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교류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국외작가의 입주를 적극적으로 유치함으로서 국내입주작가의 국제적인 감각을 높이고 예술 교류의 장으로 만들고 아시아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예술기관, 큐레이터 및 예술가와의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2012년에는 Taipei Art Village와 국제교환작가 프로그램을 체결하고 한국의 전소정(2012년 8월~10월) 작가와 일본의 추앙 후이린(2012년 9월~11월) 작가를 3개월 맞교환 하였다. 2012 리버풀 비엔날레의 인천 도시관 전시를 후원하고 인천아트플랫폼 입주작가인 오석근, 윌 볼튼, 윤석남을 참여시킨 바 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아시아 창작공간 네트워크' 파티를 진행하였다.

International Exchange Program

By establishing network with overseas residency organization and developing collaborative program, IAP is seeking to help our artists advance to overseas and proceeding with international exchange program to strengthen our international status. By actively attracting foreign artists to Incheon, IAP wishes to further heighten the competence of local artists and establish a meeting place for vibrant art exchange. IAP is also pushing ahead to establish exchange with art institution, curators and artists. In 2012 IAP clinched an international artist exchange program with Taipei Art Village and exchanged Korean artist JUN Sojung (Aug.~Oct. 2012) with Taiwan artist CHUANG Hui-lin (Sept.~Nov. 2012) for past three months. IAP sponsored exhibition of Incheon library in the 2012 Liverpool Biennale and brought in the participation of IAP artists OH Suk-kuhn, Wil BOLTON and YUN Suk-nam for active promotion. also IAP progressed '2012 Asian Arts Space Network' Network party with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 2012년 9월 15일 - 11월 25일 국제 도서관, 영국 리버풀
2012 리버풀 비엔날레 인천도시관 〈Terra Galaxia〉 전시전경

· September 15 - November 25, 2012 LJMU Copperas hill Building, Liverpool, UK
Liverpool Biennial 2012, City States 〈Terra Galaxia〉, Installation view

· 2012년 8월 29일 - 30일 인천아트플랫폼
2012 아시아 창작공간 네트워크, 네크워크 파티 전경

· August 29 - 30, 2012 Incheon Art Platform
2012 Asian Arts Space Network, Network Party view

창작지원 프로젝트

Supporting Project

우주다방

예술의 쌩얼

즐거운 나의 집 : 노동자들의 도시, 인천

Wuju Dabang

Naked Face of Arts

HOME SWEET HOME : The workers's city, Incheon

우주다방

김수환, 벤자민 필립스, 웁쓰양, 이퐁, 전윤정

인천아트플랫폼에서는 작가들로부터 제안을 받아 일부프로젝트를 선발하여 장소와 홍보 등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우주다방(宇宙多房)〉전은 미지의 세계로 떠나는 단서를 제공하는 이퐁 작가의 글로부터 출발하여 각자의 예술적 소우주(宇宙)를 보여주는 전시이다. 본 전시는 이퐁 작가가 길을 걷다 골목길에서 우연히 발견한 '우주다방'을 보고 떠오른 상상력으로부터 출발한다. 우주다방이라는 특정한 공간에서 벌어지는 상황연출은 우리들의 무뎌진 상상력을 자극하며 미지의 세계로 이끄는 플랫폼이 된다. 전시에 참여한 이들은 우리의 일상을 탐닉하는 몽상가가 되어 직간접적 체험, 평범한 일상 속의 불명료한 것, 논리적으로 납득 불가능한 것, 알 수 없는 순간들, 구체적으로 언어화할 수 없는 순간과 감성들을 탐구한다. 이퐁 작가의 꽁트와도 같은 하나의 텍스트에서 시작되어 꾸물거리는 드로잉, 설치, 회화, 실제 다방의 오브제까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예술장르간의 삼투작용을 통해 탄생된 〈우주다방〉전은 작가들의 공동작업의 결과물이다. 그리고 여기에 전시를 보러온 관람객들은 5명의 작가들이 안내하는 각각의 출구에서 우주로의 히치하이킹을 경험할 수 있다. 마치 오즈의 마법사의 도로시처럼 또는 재크와 콩나무의 재크처럼 낯설고 두렵지만 기이한 세계에서 벌어지는 경험을 통해 예술이 가지고 있는 특성 중의 하나인 원초적인 유희와 상상력이 주는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다. 전시를 통한 다섯 작가의 우주로의 여행은 텍스트와 시각예술의 만남을 통해 생성된 강력한 에너지가 넘실대는 특별한 우주로의 여행을 체험한다.

· 2012년 6월 19일 – 7월 8일
· 인천아트플랫폼 B동 전시장

Wuju Dabang

KIM Soohwan, Benjamin PHILLIPS, Woopsyang, Leepong, CHUN Yun-jung

Taking up suggestions from the writers, IAP launched a new project for them. The new project proceeded in a manner to offer places to work and for the writers as well as assistance for advertisement to the specially selected new projects. The exhibition <Wuju Dabang (Space Café)> which intends to offer a clue to fly away to the unknown world begins with the writing of writer Leepong to other writers who will also reveal the small universes of their own. The latest exhibition kicks off with Lee's coming across the café <Wuju Dabang> on the street and started making up stories about it. The situation that takes place in this specific space known as 'Wuju Dabang' will provoke our imagination which has likely become dull with time, serving as a platform toward the unknown world. Those participating in the exhibition will turn themselves into daydreamers who dig into various aspects of our everyday life looking deeply into the direct and indirect experience; unclear things in ordinary life; something that completely doesn't make sense; and the moments and sentiments that is hard to specify in words. <Wuju Dabang> which started out as a single text like a conte than spread its osmotic reaction to include drawing, installation art, painting and even object of an actual café. The exhibition itself is the result of collaboration between writers. The viewers who come to see the display can experience what the five writers has prepared for them, becoming hitchhikers to the space at respective entrance. It may look unfamiliar and scary like in the 'Wizard of Oz' or 'Jack and the Beanstalk' but primitive amusement and the joy of imagination offered only through art compensates such apprehension. Journey to the space set up by five writers via exhibition will help viewers experience a special universe made up of a strong energy formed through encounter between text and visual art.

· June 19 – July 8, 2012
· Incheon Art Platform Building B Gallery

예술의 쌩얼

웁쓰양

우리는 언제나 전시장에서 완성된 작품과 마주한다. 「예술과 환영」에서 곰브리치(E. H. GOMBRICH, 1909–2001)가 기술했듯 지각이 그 자체 고유의 방식으로 물체를 볼 수 없을 때, 차이점들의 명시를 통해 그것을 인식하는데, 어떤 때는 올바로 지각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부정확하게 상상하기도 한다. 예술작품이 가지는 이러한 모호성의 베일을 벗기기라도 하듯 웁쓰양은 본 전시를 통해 작품을 제작하는 과정을 관람객에게 공개한다. 작가는 다양한 프로젝트 등을 통해 예술과 대중과의 소통방법에 대해 고민해 왔다. 〈예술의 쌩얼〉전은 작업실의 일부를 전시장에 옮겨 놓고 아무도 의식하지 않은 채 작업 진행과정을 매일 정해진 시간에 공개하는 퍼포먼스형 전시이다. 작가는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전시장에서 아무도 의식하지 않은 채 작품활동을 하고, 이는 트위터, 페이스 북을 통해 생중계(twitter : @woopsyang, facebook : woops.yang)된다. 전시기간 중 오프닝 당일, 매주 주말에는 소셜 네크워크를 통해 모집한 인물의 초상화 제작과정을 보여주는데 관객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는 작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프로젝트룸의 입구는 전시장 벽면처럼 가로막혀져 있고 관람객들은 액자 안의 유리창 너머로 작업실을 엿보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번 전시는 누구나 갖고 있는 훔쳐보고 싶은 관음증과 같은 심리적 욕망을 해소케 하고 관객과의 깊숙한 관계맺기를 시도하고 있다. 아직도 전시장 앞을 서성이고 있는가? 멋쩍어 말고 예술의 쌩얼을 탐닉해 보자.

· 2012년 6월 21일 – 7월 8일
· 인천아트플랫폼 H동 프로젝트룸

Naked Face of Arts

Woopsyang

We are always faced with a completed product in exhibition center. As commented by E.H. Gombrich (1909–2001) in his book「Art and Illusion」, when one's perception cannot view the object through the manner of existing method, then one sees it through its difference from the past, sometimes, perceiving it the right way and sometimes imagining it unclear way. In the latest exhibition Woopsyang, seemed to have decided to unveil such state of ambiguity by disclosing the whole art making process. Woopsyang has long agonized over means to communicate with the public through various art projects. In her work 〈Naked Face of Art〉 which is a performing display, she brought part of the art studio to the exhibition center to reveal her art making process every day at certain hour, not minding the watchful eyes. The artist will work from 2 to 4 p.m. every day at exhibition center regardless of the viewers and make live broadcast out of it via twitter and facebook (twitter : @woopsyang, facebook : woops.yang). On the opening day of the exhibition and on every weekend Woopsyang will reveal the making process of portraits she gathered through social network, proving how much she wishes to bring out active participation of the audience. Since the entrance of the project room is blocked like the wall of the exhibition those who wish to see her work has to 'peek' through her studio across the window. The latest display seeks to form strong ties with its viewers while helping to satisfy a sense of voyeurism. Are you still wandering outside exhibition hall? Don't be shy and just go straight down to enjoy the 'Naked face' of the art.

· June 21 – July 8, 2012
· Incheon Art Platform Building H Project Room

즐거운 나의 집 : 노동자들의 도시, 인천

김수환

〈즐거운 나의 집〉 전에서 김수환은 어렸을 적 살았던 집을 주요 배경으로 그 당시의 기억들과 가족에 관한 이야기들을 진솔하게 풀어내고 있다. 비닐 위에 쉽게 그려진 소소한 일상에 관한 이야기들은 거대한 실타래가 되어 하나의 평면에 뒤얽혀 있다. 그리고 그 뜨거운 현실 앞으로 작가의 "즐거운 나의 집" 콧노래가 전시장에 울려 퍼진다. 김수환은 〈노동자들의 도시, 인천〉시리즈를 통해 개항과 근대 산업화의 요충지였던 인천에서 노동자로 살아온 가족들이 고착화된 거대권력과 사회구조 안에서 어떻게 변모하는 삶을 살아왔는지를 작업에 투영해 왔다. 그리고 이러한 개인사를 토대로 노동과 도구에 관심을 두고 급격히 발달해 온 인류문명 안에서, 욕망의 도구로 전락해 버린 인간의 모습과 상실해 가는 인간성에 대한 내용을 작업으로 이끌어 왔다. 다소 역설적인 제목을 가진 이번 전시 또한 이러한 맥락을 함께하며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있다.

앞서 잠깐 언급하였듯 쉬운 듯 그려진 그의 드로잉과 이미지들은 솔직함과 진솔함을 배가시키며, 이러한 모든 맥락이 우울과 어두움으로 귀결되지 않고 작가 특유의 유머와 위트로 풀이되고 있음을 짐작케 해준다. 마르크스가 「자본론」에서 노동에 대하여 "노동은 무엇보다 먼저 인간과 자연 사이의 한 과정, 즉 인간이 자연과의 질료 변환을 그 자신의 행위에 의하여 매개하고, 규제하고, 통제하는 과정이다."라고 정의하였듯 작가 또한 인간 존재의 의미를 노동의 원초적 즐거움에서 찾고 있다. 동시에 노동은 본인이 느꼈던 삶의 좌절, 이어지는 진실에 대한 희망의 열쇠이자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이처럼 작가는 개인의 기억과 이야기를 관찰함으로써 국가와 사회, 도시라는 욕망의 사회구조 안에서의 인간 존재의 근원과 그 의미를 탐구해 나가고 있다. 전시제목 〈즐거운 나의 집〉은 누구나 알고 있는 동요제목을 차용한 것으로, 이제는 집을 떠난 우리가 돌아갈 곳은 집 뿐임을 상기시키고 있다.

· 2012년 12월 4일 – 2013년 1월 13일
· 인천아트플랫폼 H동 프로젝트룸

HOME SWEET HOME : The workers's cit y, Incheon

KIM Soohwan

Artist KIM Soohwan in his work <HOME SWEET HOME> gives an honest account of the house he lived in when he was a child along with memories of his childhood and his family. His story described on the surface of vinyl with ease then forms in a giant knitting ball, tangled all over on a single plane. Toward that hot reality, the artist's own humming of "Sweet My Home" echoes throughout the exhibition hall. KIM is known for the art series <The worker's city, Incheon> which reflected the changes that laborers' family in Incheon underwent under the big power and the social structure. Based on this personal history, he came to perceive the big picture of history of world civilization which underwent a rapid development through its great interest in labor and tools, leaving humans to be abused for the other's desire, leaving people to lose the true meaning of life. Such has become the theme of his art work. In the same context, the latest exhibition which holds a rather paradoxical title, too contains a voice of criticism against the capitalist society.

As mentioned beforehand, KIM's drawings and images which appears to be drawn with ease and, reinforces honesty and candidness within, prevents his work from turning dark and melancholy but nicely wrapped up to show KIM's style of wit and humor. Just like Marx defined in his book on「Capitalism」that labor is one of the processes between human and nature in which humans intervene, regulate and control, KIM seeks the meaning of human existence in primitive happiness of labor. At the same time labor is also the source of his disappointment in life, a key of hope due to series of truth and strength. By closely observing his memory and stories, this is how KIM manages to explore the origin of human existence and its meaning under the desire-laden country, society and city. The exhibition title <HOME SWEET HOME> which is borrowed from the famous song that everybody knows, reminds us once again that we, how have left home has no where else to go but to return home, after all.

· December 4, 2012 – January 13, 2013
· Incheon Art Platform Building H Project Room

백령도 평화예술 레지던시

Baengnyeong-do Peace Arts Residency

백령도 평화예술 레지던시

인천아트플랫폼에서는 2012년 6월, 백령도와 서해5도 지역을 배경으로 예술담론을 다루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한 창작거점인 백령도 평화예술 레지던시 운영을 시작하였다. 분단지역이자 섬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들과 적극적으로 교감할 수 있는 다원예술, 장소특정적(Site-Specific) 예술, 커뮤니티 아트, 지역민과 함께하는 예술활동 등을 지원하여 새로운 예술 에너지를 생산하고자 한다. 이러한 지역협력 프로그램, 소수를 위한 커뮤니티 프로젝트 등과 같은 문화예술 활동들을 통해 분단 최전선에 위치한 백령도와 서해 5도의 평화와 남북한 긴장상황의 완화를 기대한다. 백령도 평화예술 레지던시의 입주예술가들에게는 작업공간지원과 홍보, 프로젝트 수행 등이 지원된다.

· 인천시 옹진군 백령면 진촌리 805번지

· 2012 백령도 평화예술 레지던시 입주예술가
: 박충의, 신태수

· 프로젝트 지원
: 홍지윤 〈어진바다〉, 권윤희 〈그 시에 대한 연금술〉,
이지현 〈내고향, 백령도〉, 조우치 〈1-1〉

· 기타
: 서용선 외부 조각 프로젝트, 시화집 출판, 교육프로그램 등 진행

Baengnyeong-do Peace Arts Residency

Incheon Art Platform started the Baengnyeong-do Peace Arts Residency in Five West Sea Islands for the Project of Diverse Discourse on Arts in June 2012. Given the unique tense atmosphere of the Islands in a divided country, we support Interdisciplinary Arts, Site-Specific Arts, and Community Arts where the residents can actively participate in and communicate with to produce a new wave of arts energy. These cultural and arts activities promoting cooperative program with the community or for minorities could extend the boundary of these arts projects of the Five West Sea Islands and Baengnyeong-do the frontline island in the West Sea near North Korea. Baengnyeong-do Peace Arts Residency provides resident artists with studio spaces, promotional resources, and administrative support for projects, and others.

· Incheon Ongjingun Baekryeongmyeon Jinchonri 805

· 2012 Baengnyeongdo peace Arts Residency resident artists
: PARK Chungeui, SHIN Taesoo

· Project Support
: HONG Ji-yun <A Tale of the Ocean>, KWON Yuni <Alchemy about the Poetry>, LEE Ji-hyung <My home, Baekryeong-do>, ZHOU Qi <1-1>

· Various Project
: SEO Young-sun's Project of sculpture, Anthology Publishing, Educational Program.

박충의

· 입주기간 : 2012년 6월 20일 - 8월 31일
· 46년만의 귀향, 그리고 2011년 평화미술 프로젝트에 이어 1년 후의 재방문, 백령도 주민들의 삶의 풍경을 담은 회화작업들을 통해 그들의 깊은 속살을 드러냄

PARK Chungeui

· Residency period : June 20 - August 31, 2012
· Following Peace Arts Project in 2011, a painting project took place to reveal the vulnerable inner life of a resident in Baengnyeong-do during their revisit, a year later one's exile after 46 years of life in the island.

신태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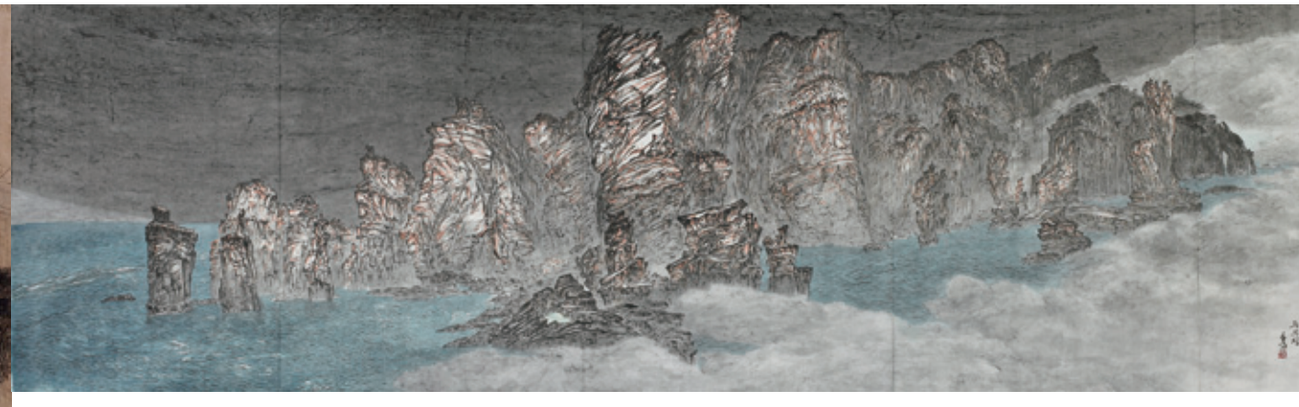
· 입주기간 : 2012년 8월 1일 - 10월 31일
· 백령, 소청, 대청의 8경을 담은 한국화 작업들을 통해 현재진행형인 분단과 전쟁이라는 현실을 직시하고, 아름다운 자연 이면에 있는 시대상황을 읽어냄.

SHIN Taesoo

· Residency period : August 1 - October 31, 2012
· Artists confronted the reality of a divided country and the war that is still going on while following the sub-context of the time stuck behind the natural beauty of 8 great scenes in Baengnyeong-do, Daecheong-do, and Socheong-do, delicately contained in Korean Painting.

· 어리골
Eorigol
82×244cm Drawing on paper 2012

· 두무진
Dumujin
74×244cm Ink on korean paper 2012



프로젝트 지원

백령도 및 서해 5도를 거점으로 제작되는 다양한 작품활동들을 지원하고, 인천아트플랫폼 〈제2회 평화미술프로젝트〉, 〈2012 플랫폼 아티스트〉 등의 전시 등에서 소개되었다.

홍지윤 〈어진바다〉
- 백령도 답사 및 리서치, 사곶해안을 배경으로 물과 어머니를 빨래라는 행위로 등치시켜냄으로써 보이지 않는 경계가 그어진 서해 5도의 긴장상태를 지워내는 퍼포먼스
- 답사 및 제작일정 : 2012년 8월

권윤희 〈그 시에 대한 연금술〉
- 해방이후 쓰여진 남북의 시를 데이터화하고 특정 정치적, 이념적인 단어들을 지워나가면서 만들어진 제 3의 시를 백령도 바다 안개 속에 프로젝션하는 디지털 대지아트
- 2012년 8월 – 12월

이지현 〈내 고향, 백령도〉
- 백령도의 자연경관을 화면에 담고 백령도가 지니는 정치적인 뉘앙스를 개인적 상황과 연계시켜 풀어나가는 실험영화
- 2012년 9월

조우치(중국) 〈1-1〉
- 중국작가 조우치가 백령도의 농부, 어부, 자연환경을 직접 체험하며 느끼는 단상들을 표현한 회화적업
- 2012년 8월 1일 – 12일

Project Sup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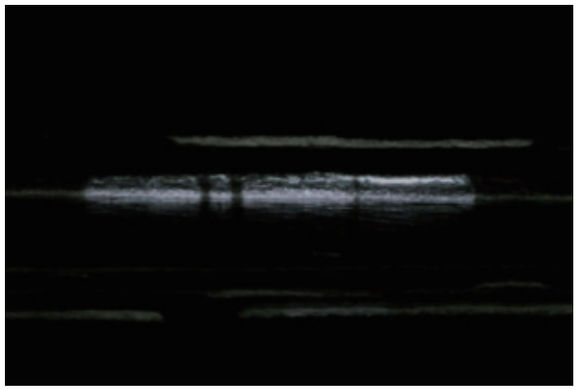
The art pieces created with the support of Incheon Art Platform were put up for exhibitions such as <2nd Peach Arts Project>, <Platform Artist 2012> and others.

HONG Ji-yun <A Tale of the Ocean>
- Survey and Research on Baengnyeong-do, Cloth Wash Art Performances at Seashores, and Production support for Video Arts
- Exploratory and production schedules : August 2012

KWON Yuni <Alchemy about the Poetry>
- The unique natural environment of Baengnyeong-do and Daecheong-do in Five West Sea Islands and the relevant historic events are recreated into digital land arts.
- August ~ December 2012

LEE Ji-hyung <My home, Baengyeong-do>
- The natural scenic beauty and attractions of Baengyeong-do are weaved together with the political subculture in this experimental film where the director placed it in juxtaposition with a person's individual situations.
- September 2012

ZHOU Qi(China) <1-1>
- The painter literally lived the life of a farmer and a fisherman in the natural environment of Baengnyeong-do and starts working on the artistic reproduction of his own experiences.
- August 1 - 12, 2012



기타 프로젝트

서용선 외부 조각 설치
- 심청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서용선의 조형물을 외부에 설치하여 마을의 상징적 이정표로 작용하도록 함

시화집 『백령도』 출판
- 글 윤후명, 김영남, 강제윤, 신동호 / 그림 이인, 김선두, 신태수, 박충의 8인의 서해 5도에 대한 시화 회화 작품을 담은 시화집 『백령도』 출판

교육 프로그램
- 백령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 마을 구전 혹은 인문적 내용 등을 읽게 한 후, 그 내용을 표현하기 위한 문화예술교육, 주민참여 환경예술 교육프로그램
- 강사 : 박미화, 정일영, 정하응

Various Project

SEO Young-sun's Project
- A piece of sculpture about Korean folk tale "Sim-Chung's Story" is installed at Baengyeong-do Peace Arts Residence

Anthology Publishing <Baengnyeong-do>
- A grope of artists including poets like YUN Hoomyung, KIM Youg-nam, KANG Je-yun and SHIN Dong-ho, along with painters such as LEE In, KIM Sun-doo, SHIN Taesoo and PARK Chungeui got together to publish an anthology with poems and paintings about the Five West Sea Islands.

Educational Program
- The natural scenic beauty and attractions of Baengyeong-do are weaved together with the political subculture in this experimental film where the director placed it in juxtaposition with a person's individual situations.
- Lecture : PARK miwha, Jeong ilyoung, Jeong haeug

시각 예술

Visual Artist

056 구본아/글 김백균
KOO Bon-a/ Text by KIM Baik-gyun

064 권윤희/글 김경운
KWON Yuni/ Text by KIM Kyoung-woon

072 김 봄/글 하계훈
KIM Bom/ Text by HA Kye-hoon

080 김선희/글 김미진
KIM Sun-hee/ Text by KIM Mi-jin

088 김수환/글 김지혜
KIM Soohwan/ Text by KIM Ji-hye

096 김시하
KIM Siha

102 김윤아/글 미즈타 사야코
KIM Yunah/ Text by MIZUTA Sayako

110 김창기/글 하계훈
KIM Chang-ghi/ Text by HA Kye-hoon

118 김효숙/글 박천남
KIM Hyo-suk/ Text by PARK Tcheon-nahm

126 민재영/글 류철하
MIN Jaeyoung/ Text by RYU Chulha

134 박방영/글 김상철
PAK Bang-young/ Text by KIM Sang-cheol

142 박상희/글 고충환
PARK Sang-hee/ Text by KHO Chung-hwan

150 벤자민 필립스
Benjamin PHILLIPS

156 신태수/글 김상철
SHIN Taesoo/ Text by KIM Sang-cheol

164 예추치
YEH Tzu-chi

170 오석근/글 현시원
OH Suk-kuhn/ Text by HYUN Seewon

178 웁쓰양/글 박영택
Woopsyang/ Text by PARK Young-taik

186 윌 볼튼
Wil BOLTON

192 이수영/글 정원철
LEE Sooyoung/ Text by JUNG Won-chul

200 이시하라 노리코
ISHIHARA Noriko

206 이의성/글 이선영
LEE Ui-sung/ Text by LEE Sunyoung

214 전윤정/글 김준기
CHUN Yun-jung/ Text by GIM Jungi

222 정용일/글 심상용
CHUNG Yongil/ Text by SIM Sang-yong

230 조우치
ZHOU Qi

236 짜까판 타나티라난
Jakraphun THANATEERANON

242 차지량/글 이지현
CHA Ji-ryang/ Text by LEE Ji-hyun

250 카밀라 스제노치
Kamila SZEJNOCH

256 칼라&안드레즈
Karla&Andrés

262 홍지윤/글 이선영
HONG Ji-yoon/ Text by LEE Sunyoung

구본아

KOO Bon-a

物
Pysical objects
230×390cm Korean ink on Korean paper 2013

物 (부분)
Pysical objects (detail)
230×390cm Korean ink on Korean paper 2013

物
Pysical objects
230×390cm Korean ink on Korean paper 2012
작품 제작과정 The work making process

시간의 이빨
Teeth of time
110×110cm Korean ink on Korean paper 2012

역행(逆行)과 전진(前進) 사이

김백균(중앙대학교 교수)

인천아트플랫폼 3층 볕이 잘 드는 공간에 구본아의 작업실이 있다. 서울에서 인천이란 승용차로 겨우 1시간 남짓의 거리이며, 교통이 막히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서울의 한쪽 끝에서 다른 한쪽 끝으로 가는 시간보다도 짧지만 그의 작업실을 찾아가기 위해 각오를 다지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것은 단지 서울과 인천의 물리적 거리 때문이 아니라 서울이나 인천이라는 개념화된 고유명사로부터 발생하는, 도와 시의 경계가 달라지고 공간과 공간의 단절을 떠올리게 하는 어떤 심리적 거리에 기인한다.

근대 개항기 외래문명 수용의 장으로서 인천이 그 기능을 상실한지 반세기, 고유명사 인천의 이미지는 새로운 희망과 오래된 것에 대한 아쉬움을 동시에 떠올리게 한다. 한국에서 근대교육을 받고 자란 나는 인천에 대한 두 가지 상반된 이미지를 지니고 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지금 한국의 정치경제시스템을 구축한 단서로 작동했던 맥아더의 인천상륙 작전이며, 그 다음은 차이나타운이다. 인천상륙작전에 관한 이미지는 명료하고, 차이나타운에 관한 이미지는 모호하다. 전적으로 기존 교육의 선입견 탓이지만, 전자는 서양의 상징이고 후자는 동양의 상징이며, 전자는 전진의 메타포를 지니지만 후자는 역행의 메타포를 지닌다. 전자는 송도로 대표되고 영종도와 인천공항을 연상시키며 나아가면 우리와 다른 세계로 확장되는 어떤 느낌을 내포한다. 물론 그 확장의 목적지가 서구사회만을 향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다소간 현대사회에서 선진문명이라고 상징되는 서유럽과 북미로 연상되는 것도 사실이다. 후자는 월미도로 대표되며 그로부터 인천 바다 건너 중국의 산동반도가 연상되고, 더 나아가면 과거 동북아시아문명의 핵심을 이루는 유가적 사유구조에 이른다. 현재의 영광과 지나가버린 과거의 영광이 겹침과 동시에, 잘 구획되고 높이 솟은 송도의 마천루와 산만한 도로에 반짝이는 놀이기구가 돌아가는 퇴락한 월미도의 이미지가 대비된다.

구본아의 작업에서도 이와 같은 두 가지 양가적 감정이 동시에 느껴진다. 구본아는 동북아시아 회화에서 한지와 수묵이라는 가장 전통적인 재료를 선염과 필묵이라는 가장 전통적인 붓 쓰임으로 구성한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그가 쓰는 언어는 무척 낡았다. 종이와 수묵이라는 그의 미디엄은 적게 잡아 천년이니 그가 아무리 능숙하게 그 미디엄을 다룬다고 하더라도 그 미디엄 자체에서 변주의 새로움을 발견해 내는 것조차 거의 불가능할 정도이다. 실제로 오랜 시간 재료에 대한 수련을 거친 그는 이 수묵이라는 미디엄을 매우 숙련되게 다룬다. 먹의 건습과 붓의 속도감 어느 것 하나 빼어나지 않은 것이 없다. 나아가 그 숙련됨을 감춰두고 고졸하게 표현하는 맛까지 드러낼 수 있는 그는 작업방식이란 고도의 훈련을 통해서만 나올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그의 수묵사용이 동시대 수묵을 사용하는 다른 어떤 이보다 빼어나다하더라도 선배들의 필묵보다 더 뛰어난 건 아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형식상 혁신은 화면에 작은 장치들을 부여하여 새롭게 보이도록 하는 것으로, 그의 최근화면에는 마치 벽돌을 쌓아올린 것처럼 보이는 작은 네모 종이들이 나타나 빈 화면전체를 덮음으로써 화면 자체가 비어있는 공간이 아니라 건축처럼 구축된 것 같은 효과를 낸다. 작은 장치이지만 여기에는 구본아 작업을 새롭게 하는 매우 중요한 단서가 숨어있다. 의식적 차원에서 본다면 화면의 빈 공간 즉, 여백의 이러한 화면의 구성은 이미 전통적 어법에서 벗어난 것이다. 기존 동양의 회화전통에서 보자면 여백이란 실제 대상이 차지하고 있는 밖의 비어있는 공간의 상징이다. 도(道)라는 형이상학적 개념으로부터 세계의 질서를 유추하는 연역적 방법으로 사물의 원리를 설명하는 유가나 도가로 대표되는 동북아시아의 세계관에 따르면, 모든 현상에는 그 현상을 가능하게 하는 근원적 질서가 있고, 그 질서를 추상화한 개념이 음과 양이다. 두 가지 상반된 성격의 음양은 한 현상에 작동하는 두 가지 측면이다. 보이는 것이 있으면 보이지 않는 것이 있고, 차가운 것이 있으면 따뜻한 것이 있고, 높은 것이 있으면 낮은 것이 있다. 이러한 질서는 단독으로 작동하는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동시에 작동되며 같이 공존한다.

회화에 있어서 여백도 같은 원리 속에서 설명된다. 하나의 사물이 그 리얼리티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단지 그 사물의 보이는 측면으로만 구성되지 않으며 그 사물이 그 장소에 구현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원리의 가시화가 뒤따라야 한다는 믿음이 그것이다. 따라서 동북아시아 회화에 있어서 여백이란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된다. 음양의 순환논리에 따라 실(實)은 허(虛)로 귀속되고, 허는 실로 드러난다. 사물이 실이라면 여백은 허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이 실과 허가 하나라는 믿음이다. 따라서 여백은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상을 존재하게 하는 더욱 근원적인 요소로 작동함으로써 실제 사물보다 더 중요한 공간으로 여겨지기도 하게 된다. 이러한 공간이 최근 구본아의 작업에서는 여백이 아닌 어떤 채워진 공간처럼 처리되고 있다. 작지만 매우 중요한 포인트인 셈인데, 그렇다면 이것으로 인해 어떤 의미가 재해석되고 우리는 이것으로 인해 무엇을 이해할 수 있는가라는 점이다. 어쨌든 이 작은 혁신으로 인해 가장 낡은 언어가 가장 현대적인 것으로 보일 수 있는 어떤 단서가 생긴 변화이기 때문이다.

그의 작업에서 여백은 여전히 사물이 그려져 있지 않은 빈 공간처럼 보이지만 그 여백은 기실 건축의 벽돌 구축처럼 이미 빈 공간은 아니다. 여백이 여백이 아니라 마치 어떤 구축된 공간처럼 보인다면 그 반대의 이미지 즉, 사물이 그려진 공간을 바로 비어있는 공간처럼 여기게 하는 착시 현상이 이루어진다. 바로 여기에서 구본아의 사물에 대한 어떤 역전의 의식도치가 보인다. 빈공간이 단단하게 여겨지고 채워진 공간이 가변적으로 좀 더 유연하게 느껴진다. 허와 실의 도치이니 기존 우리의 세계관에 대한 어떤 반성 같은 것이 드러나게 되는 표현으로도 여겨진다. 우리가 항상 굳건하게 믿어왔던 세계가 사실은 그리 믿을 만하지 않다거나 반대로 믿을 수 없었던 세계가 사실은 어떤 진실이나 진리를 내포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반문을 해 볼 수도 있다. 그런데 무엇을 근거로 이러한 질의를 던져야 하는 걸까?

내가 구본아의 작업에서 발견한 여백의 재해석은 그가 고전의 세계에서 빠져나와 현대로 들어서는 위대한 일보로 생각된다. 이 하나의 장치로 인해 그의 작업은 이미 기존 수묵화가 아닌, 동양화가 아닌 컨템포러리 회화가 되었기 때문이다. 실로 마치 콜로버스의 달걀처럼 기존 세계관을 깨뜨리고 위대한 인식의 세계를 여는 전진의 한 발인데, 이 한 발은 과연 어디로 향한 것일까?

그러나 그의 시선이 머문 곳은 되돌릴 수 없는 시간과 지나가버린 것들에 대한 아쉬움과 애착이다. 그의 작업 속의 이미지들은 가엽고 아련한 것들에 대한 그리움의 감정이 견고한 형태의 대상들과 대비를 이루면서 더욱 또렷이 부각된다. 절벽과 바위벽 그리고 금속성의 태엽시계 같은 무기물은 꽃과 나비, 식물과 같은 유기물과 대조를 이룬다. 이러한 대비는 나아가 영속적인 것들과 찰나적인 것들의 유비를 이끌어낸다.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구본아의 모든 장치들은 시간과 존재에 관한 그의 감상적 생각을 유추하게 한다. 무한과 유한의 대비효과는 결국 유한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지기 때문에 구본아의 이러한 모든 생각의 구조는 유한에 갇힐 수밖에 없고, 유한에 의식이 갇히는 순간 유한에 대한 아쉬움만 토로하게 되는 이야기로 변질될 수밖에 없는 여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무한을 생각한다면 무한이란 유한이라는 개념의 반대편에서만 설정될 수 있다. 무한이 유한의 상대개념이라면 무한의 설정은 유한의 닫힌 세계관을 안에서만 가능하다. 무한이라는 개념을 상정하는 순간 모든 것은 유한이라는 사유 속에서만 무한에 대한 설정이 가능하다는 논리가 성립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무한을 상정한다 하더라도 그 무한은 유한 속에서만 의미를 지니며, 그 무한을 상상하는 한 그 무한은 유한의 내부에 있기 때문에 유한만 존재하게 된다. 결국 그가 영속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하더라도 시간의 흐름 속에 상대적인 찰나에 속한 것이 되어버림으로 그의 모든 이야기는 유한에 대한 감상(感傷)으로만 귀결된다.

구본아가 자신의 작업 특질을 '식물적' 기억과 상상의 세계라고 상징화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익숙한 자연소재들이나, 어느 숲에서나 볼 수 있는 조그만 풀과 잡초, 나무 등이 관심대상이며, 일상에서 볼 수 있는'별거 아닌 자연'에 많은 애정이 간다고 한다면 왜 그것에 관심이 가는지 그 문제의식이 먼저 '이미지'를 통해 나와야 한다. 관심이 간다고 그것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 관심을 이미지가 지닌 어떠한 메타포로 상징화해야지 그것을 직접 그리는 방식이어서는 작업의 레이어가 단순해 질 수밖에 없다. 나는 식물이 갖고 있는 형태들이 서로 상호보완과 긴장, 단순과 복잡, 혼돈과 질서로 서로 모순적인 어떤 세계를 보여준다면 그것이 어떤 구체적 구조를 지니고 있어야하고 그 구체성으로 말미암아 보는 사람에게 추상적 사유를 전달해 줄 수 있어야 어떤 예술적 가치가 드러날 것으로 믿는다. 폐허가 단지 황폐한 어떤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에 그치고만다면 미래의 희망이 드러나지 않는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잃어버린 세계에 대한 매늦은 연정이 아니라 현실을 딛고 미래를 바라 볼 수 있는 혜안이기 때문이다. 예술의 가치는 감정을 소비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통해 새로운 사유를 구축하기 때문에 드러나는 것이라면 구본아의 작업에서 전진해 갈수록 역행하는 궤도를 벗어나 새로운 미래의 희망을 보여주길 바라는 것은 지나친 기대일까.

* 김백균은 1992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을 졸업하여 1997년 북경대학교 철학과 석사 졸업, 2000년 북경대학교 철학과 박사를 졸업했다. 2001부터 2003년까지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선임연구원으로 활동했으며 2003부터 현재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교수로 재직중이다.

Between Retrogression and Progress

KIM Baik-gyun(Professor at Chung-Ang University)

KOO Bon-a's studio is situated in a sunshiny space on the 3rd floor of Incheon Art Platform. Incheon is one hour distant from Seoul by car, and it takes a longer time to go from one end of Seoul to the other during peak traffic hours, but it was not easy for me to resolve to visit her studio. That's not due to the physical distance from Seoul to Incheon but due to the psychological distance, arisen from the conceptualized proper noun of Seoul or Incheon, which reminds me of the discontinuity of spaces when the boundaries of province and city change.

It's been half a century since Incheon, as a place of accepting foreign civilization in the Modern and Port-Opening area, lost its function, and the image of Incheon, proper noun, reminds me a new hope and a regret for the old things at the same time. Having grown up receiving a modern education in Korea, I have the two contrasting images of Incheon. The first which occurs to my mind is MacArthur' s Incheon Landing Operation, which used to work as the clue to build Korea's current political and economic system, and the second, Chinatown. The image of Incheon Landing Operation is distinct, but the one of Chinatown, ambiguous. I am highly influenced by my prejudice due to education; the former is a symbol of the West and the latter, a symbol of the East, and the former is a metaphor for progress but the latter, a metaphor for retrogression. Typified by Songdo, reminding me of Yeongjongdo and Incheon airport, the former implies a sense of expanding to us and another world. The destination of expansion isn't, of course, just Western society, but it is really reminiscent of Western Europe and North America, known as symbol of advanced civilization in modern society. Typified by Wolmido, reminding me of China's Shandong Peninsula across the Incheon Sea, the latter is reminiscent of the thought structure of the Confucian School which make up the core of East Asian civilization of the past. The glory of the present is overlapped with the one of the past, and the image of Songdo with well planned, towering skyscrapers is contrasted with the one of decayed Wolmido with the distractions and dazzling rides on the roads.

These ambivalent feelings are felt in KOO Bon-a's work. Her work consists of the most traditional uses of brush, pre dyeing and brush and Chinese ink, and the most traditional materials, Korean handmade paper and Indian ink, of Northeast Asia painting. In this respect, the language she uses is very old. Her medium of paper and ink has been used for over a thousand years, so it is almost impossible even to discover a new variation of the medium itself, no matter how skillfully she deals with it. She deals with the medium of ink very skillfully after many years of training. She is good at the wet and dry of ink stick and the pace of brush. Furthermore, she can tastefully express the medium, with hiding skillfulness, through a high level of training. But, even if her use of ink stands out among her contemporaries, she is not better than her superiors.

So she has chosen the innovation of form by giving small devices on the picture plane to show it afresh. On her recent one, the entire blank one is covered with the small squares of paper which look like stacked bricks, and the picture plane itself has an effect of being constructed like architecture, not an empty space. She has introduced a small device, but here hides a very important clue to make her work new. On a conscious level, the empty space of the picture plane or the blank space of the composition of picture already deviates from the traditional expression. On a tradition of Oriental painting, blank space is a symbol of the empty space outside the space occupied by actual objects. According to the world view of Northeast Asia, represented by the Confucian and Taoist Schools, which explains the principle of things through the deductive method to infer the order of the world from the metaphysical concept of Tao(Way), there exists an underlying order which makes a phenomenon possible in all phenomena and the abstraction of the order is the concept of yin and yang. The opposing nature of yin and yang means the two aspects working in a phenomenon. If there exists something visible, there also exists something invisible, and if there exists something cool, there also exists something warm, and if there exists something high, there also exists something low. This order doesn't work separately but always works at the same time and coexists.

The blank space in painting is also explained in the same principle: an object doesn't consist of only its visible side, and then is needed the visualization of the invisible principle of a place where it can be represented, so that it can acquire its reality. Accordingly, blank space becomes an indispensable element in Northeast Asian painting. Existence belongs to emptiness and emptiness is revealed as existence in accordance with the circular logic of yin and yang. If things are existence, blank space is emptiness. Even more important is the fact that existence is equal to emptiness. So, blank space becomes an indispensable element, and is often considered as a more important space than actual things by working as a more basic element to make an object exist. In KOO Bon-a's recent work, this space is treated like any other space filled with something than blank. It is a small but very important point. Then, due to this, we guess which meaning can be reinterpreted and what we can understand. That's because the oldest language can seem to be the most modern due to this little innovation.

The blank in her work still looks like an empty space where things aren't painted, but it isn't really empty, like a brick construction of architecture. If blank looks like a constructed space, then the opposite image is created, that is, is caused an optical illusion to make us consider a space where things are painted as an empty space. We can see, right here, KOO Bon-a's conscious reversal of inversion about things. An empty space is considered a firmly one, and a space filled with something is felt a little more flexible. As that's an inversion of emptiness and existence, it's also considered as an expression to reveal some reflection on our existing world view. We can also ask ourselves the fact that the world we have always relied on firmly is really so unreliable, or that the world we haven't been able to rely on really implies some truth or fact. Then, on what basis do we ask these questions?

The reinterpretation of blank I've found in KOO Bon-a's work is considered her great step into modern times from the world of the classics. That's because, due to this one device, her work has become contemporary painting rather than an existing ink painting or oriental painting. It's a step towards progress to break the existing world view and to open a great world of recognition, just like the egg of Columbus, then towards where she has taken the step?

But her gaze has stayed in the regret and attachment to the time which can't be turned back and the things which have disappeared. The images in her work are emphasized more distinctly, as the feelings of longing for dim, delicate things are compared with the objects with a firm shape. The inorganic substance such as cliffs, walls of rock and metallic wind-up clocks are contrasted with the organic substance such as flowers, butterflies and plants. This contrast leads to the analogy of permanent things and momentary things. In other words, all the devices of KOO Bon-a make us infer her sentimental thoughts of time and existence. That' s because the contrast effect of the infinite and the finite eventually leads to the story of the latter and then KOO Bon-a's structure of all these thoughts has no choice but to get stuck in the latter. And it's because there is much room for being turned into the story in which only the regret of latter is expressed, when consciousness is trapped in the latter. If we think of the infinite, it can be set only on the other side of a concept of the finite. If it is a relative concept of the finite, then it is possible to set it only within a closed world view of the finite. That's because, when a concept of the infinity is set up, logically, everything can be set towards it only in a thought of the finite. Even if we set it, it has its meaning only in the finite, and as long as we imagine it, only the finite gets to exist because it is in the inside of the finite. Finally, even if she talks about the story of permanent things, it gets to be the one that belongs to a relative moment in the flow of time, and therefore, all of her stories necessarily result in her impressions of the fini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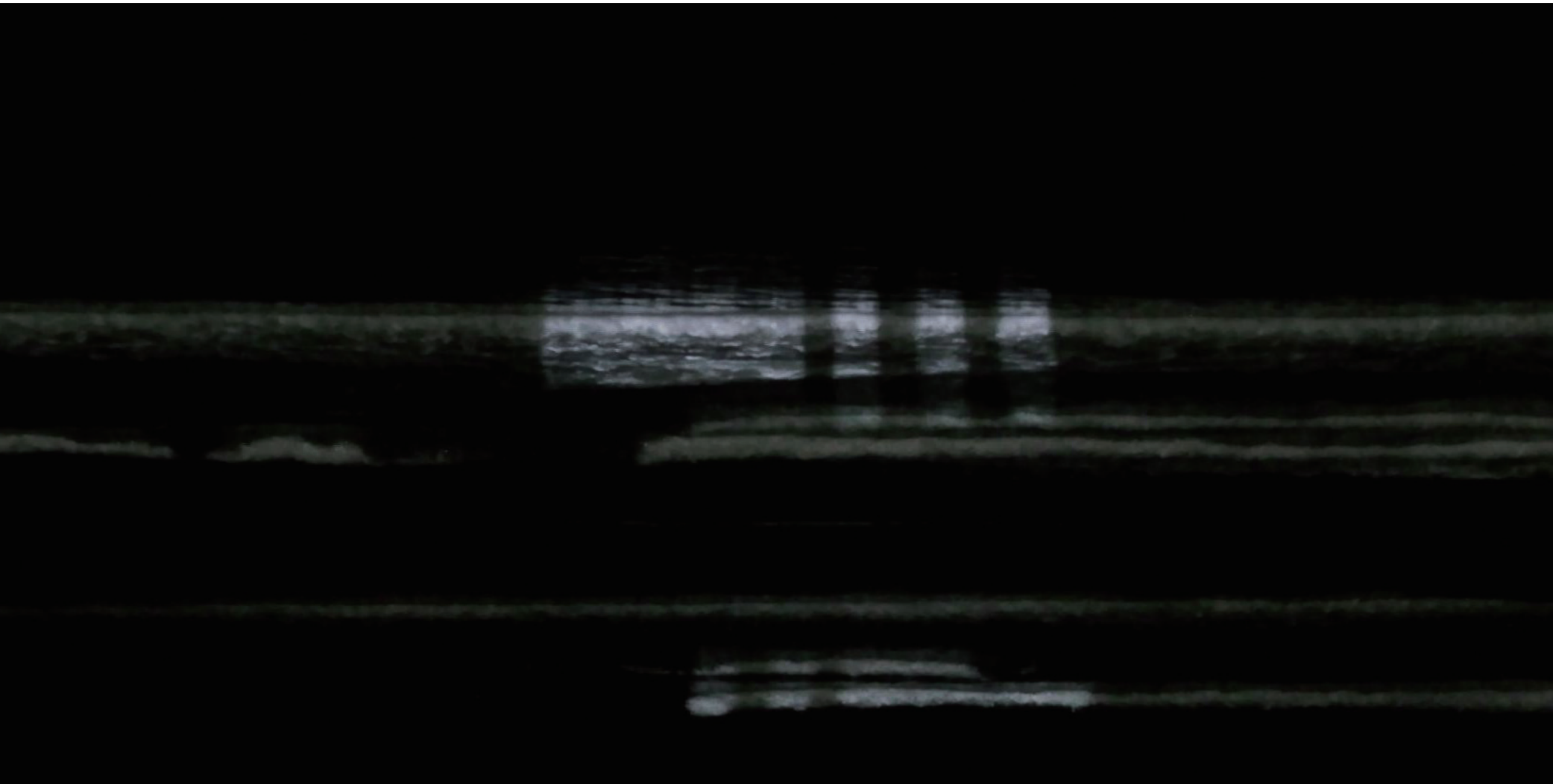
If KOO Bon-a symbolizes the characteristics of her work as the world of memory and imagination of 'plants', and if she is interested in the familiar motifs of nature which can be seen in a forest, such as grass, weeds and trees, and if she has affection for 'the insignificant things in nature' seen in daily life, then, first of all, her critical mind about the interest in these should be revealed through the 'image'. She has to symbolize her interest with a image metaphor, rather than draw it, because a method of drawing it directly must be followed by a simple layer of work. I believe that, if the forms of plants show a contradictory world through complementary cooperation and tension, simplicity and complexity, and chaos and order, the world has to have a concrete structure, and that an artistic value is revealed when the world can convey abstract thought to the viewer due to this concreteness. If ruin just creates a desolate atmosphere, the hope of the future can't be revealed. That's because what is needed for us isn't the belated affection for the lost world but the insight by which we can foresee the future upon the reality. Considering that the value of art is revealed when art creates a new thought through emotions, rather than its consumption of emotions, we anticipate that KOO Bon-a's work will show us a new hope for the future, by her getting out of the track on which the more she makes progress, the more she retrogresses.

* KIM Baik-gyun : Graduated from Art College,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1992, and finished Master's course in Philosophy Dept., Beijing University in 1997 and Doctor's course in Philosophy Dept., Beijing University in 2000. Worked as a senior researcher at Humanities Institute in Seoul National University from 2001 to 2003, and has worked as a professor at Art College, Chung-Ang University since 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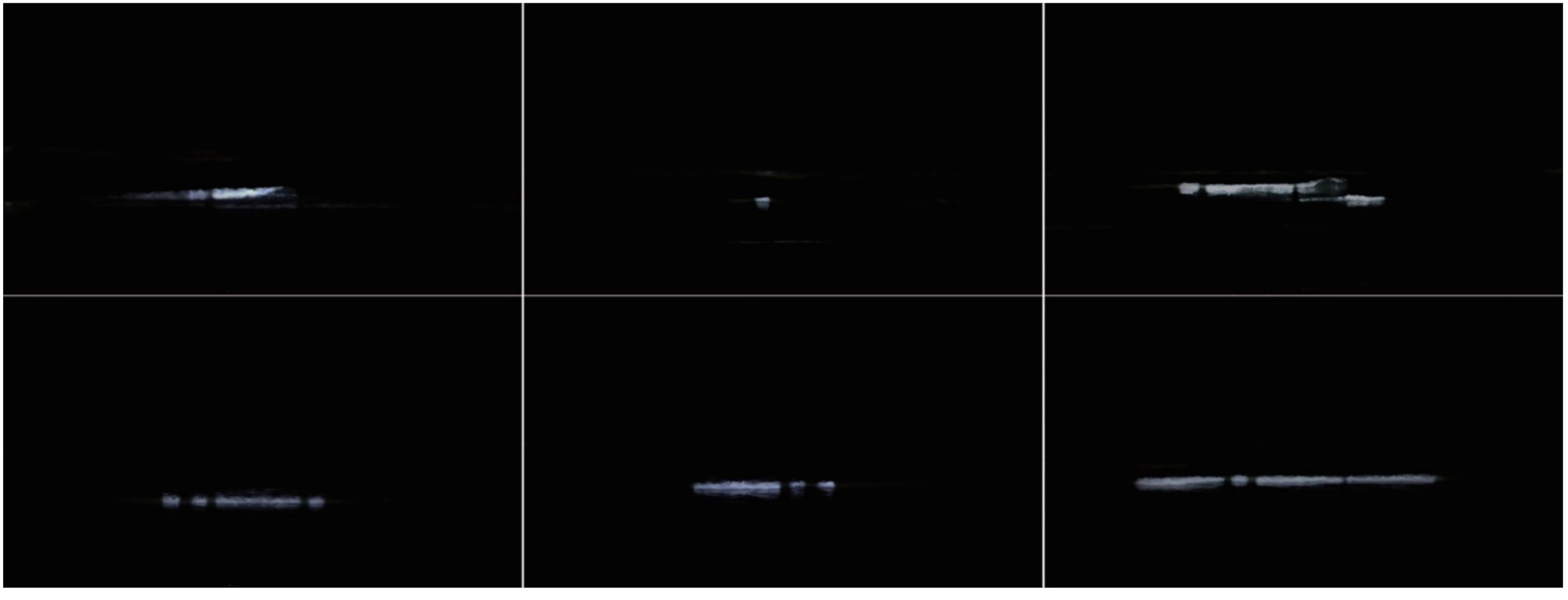
권윤희

KWON Yuni

그 시에 대한 연금술_파트 II Alchemy About the Poetry_Part II
6min50ces Full HD 1,920 × 1,080 Site Specific Installation
Baengnyeongdo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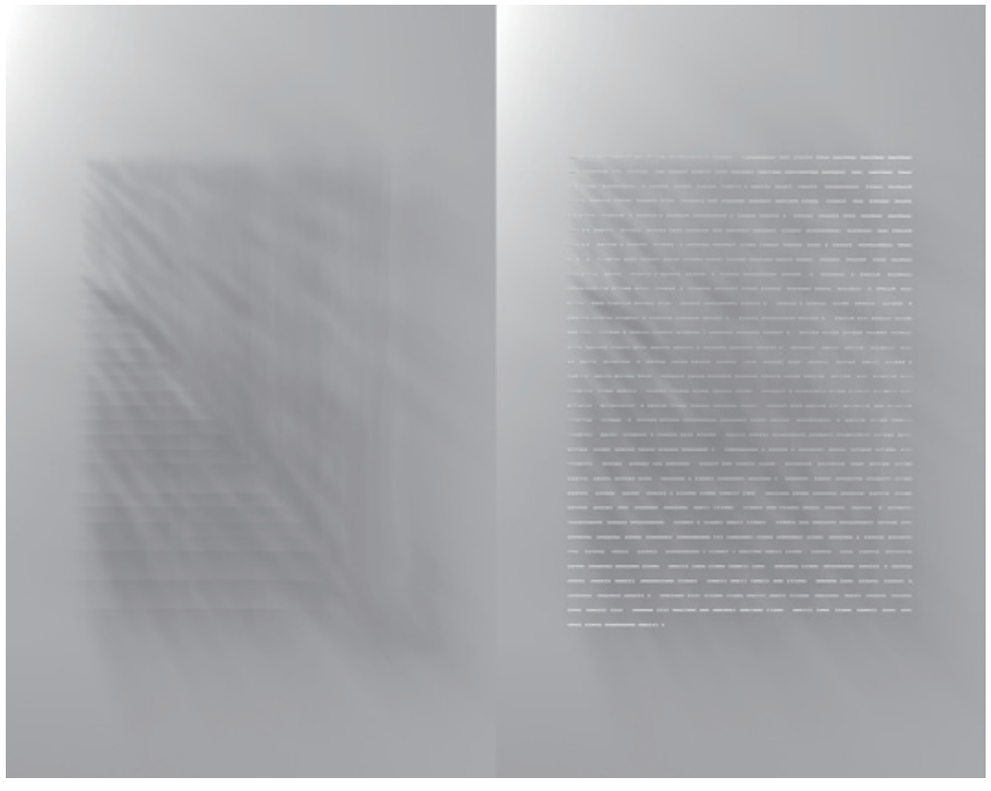


그 시에 대한 연금술_파트 I Alchemy About the Poetry_Part I
5min50sec Full HD 1,920×1,080 Site Specific Installation



그 시에 대한 연금술 모스부호 컨셉 스케치
Alchemy about the poetry : Morse code concept sketch
3min4sec Full HD 1,920×1,080 2012

분단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남북의 시를 모아 특정 이념적, 정치적 그리고 문화적 상징성을 내포한 단어들을 지워나가면서 남아지는 단어들로 제3의 시를 만들어나간다. 너와 나, 그리고 자연을 통해 남북의 시를 해체하고 재구성한다. 나와 타자, 자연은 서로 단어의 경계를 열어두면서 서로가 서로의 의미로 치환되기도 하고 그 이상의 의미로 확장 되기도 한다. 이 재구성된 시들이 다시 모스 부호로 전환되면서 백령도 바다에 프로젝션 된다. 단절로 인해 멈춰있는 언어 또한 비밀의 언어로 다시 재구현되는 영상은 백령도의 자연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파도가 치면 나타났다가 사라졌다를 반복한다.



그 시에 대한 연금술-책 : 모스부호 컨셉 스케치
Alchemy about the poetry-Book : Morse code concept sketch
Digital print 2012

'…… 자신 속에서 화해한다 쉽게 안개와 식구가 되고 바다와 하늘 사이로 나와 나란이 앉아서 먼 수평선을 바라보고 있었네 사람이 풍경일 때처럼 행복한 때는 없다 오랜 침묵과 외로움 끝에 한 슬픔이 다른 슬픔에게 손을 주고 생의 마감까지 가슴에 너를 안고 노래부를 상처없는 영혼이 어깨위에 손을 얹는다 소리 없는 미소를 보낸다'_시 본문 중

그 시에 대한 연금술_파트 II
Alchemy About the Poetry_Part II : 상처없는 영혼이 어깨위에 손을 얹는다.
Incheon Art Platform Site Specific Installation 2012

단절된 인간과 자연을 다시 연결하는 유사과학

김경운(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

플라톤은『향연』에서 아리스토파네스의 입을 빌어 제우스에 의해 둘로 갈라진 인간이 이후 각각 자신의 잃어버린 반쪽을 찾아 헤매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준다. 권윤희 작가는 이러한 플라톤의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자신의 석사논문 서론의 첫머리를 시작한다. 본디 하나였던 전체가 어떤 계기로 인해 둘로 나뉘게 되는 분리의 모티브는 작가의 초기 작업에서 자주 등장하는 것이며, 작가가 볼 때 인간이 잃어버린 나머지 반쪽에 해당하는 타자는 바로 자연이다. 본디 하나였던 자연과 인간이 애타게 서로를 부르는 이야기의 시작은, 그 둘이 안타깝게 갈라지는 분리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된다.

분리

권윤희는 2007년도에 제작한 영상들을 통해 이러한 분리의 주제를 즉흥적인 몇 가지 변주로 보여준다. 예를 들어 〈Improvisation, Absence〉(2007)의 영상에서는 오귀스트 로댕의 1889년 작 대리석 조각 〈입맞춤〉 속에서 상대를 힘껏 끌어안고 있던 연인들이 서로 분리되어 나가는 모습이 등장한다. 그리고 〈Improvisation, Don't look back〉(2007)의 영상은 역시 로댕이 1893년에 제작한 대리석 조각 〈오르페우스와 에우리디케〉의 형상이 그 본체로부터 떨어져나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한편 〈Improvisation, Two Body〉(2007)에서는 로댕이 1897년에 만든 〈아담〉과 〈이브〉의 윤곽이 서로 엉켜 있다가 분리되는 모습이 등장한다. 조화로운 전체였던 것들이 산산조각 나듯 분리되는 모습들은 안타까움과 상실감을 불러일으키며, 그것들이 언젠가 다시 하나의 완전한 총체로 거듭나는 모습을 보고 싶은 열망이 생겨나도록 자극한다.

불통

그렇다면 분리되어 나온 것들을 다시 하나로 묶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대목에서 중요해지는 것이 소통의 접점을 찾기일 것이다. 〈To Whom〉(2009)에서 영상은 투명하게 비치는 3차원의 형상으로 보이는 베개 표면에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휘갈겨 쓴 글씨가 써지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동안 누군가의 목소리는 나지막한 속삭임을 이어나가는데, 이 목소리는 그저 내 손가락이 가는대로 쓰고 있는 것일 뿐,(I just want to write according to the flow of my finger) 내 진짜 감정을 네게 말하지 않을 것이며,(I will not say my authentic feelings towards you)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나의 마음을 표현하기란 너무 어렵다고(It is so hard to express my mind since it should not be said) 토로하면서도, 내가 아무것도 표현하지 않더라도 나의 마음을 읽어줄 수 있기를,(I hope you will read my mind even though I will not express anything to you) 내 베개 밑에 있더라도 내 편지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I will hope you can hear my letter, even though it will be under my pillow) 바란다.

〈Dialog Underwater〉(2006)는 물 속에서 뻐끔거리며 무언가를 말하는 입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나 의사소통이 성립하려면 음성언어가 전달되어야 하며, 이는 공기를 통한 소리의 전파가 있어야 가능해진다. 하지만 소리의 전달매개체인 공기 대신 물이 가득한 상황에서 음성언어의 전달은 실패하고 만다. 입은 나의 언어를, 내 목소리를, 내 입술을, 내 표정을, 내 손동작을, 내 몸동작을, 나를 읽고 나를 느끼라(read my language, read my voice, read my lips, read my face, read my hands, read my body, read me and feel me)고 하지만 이 말은 전달되지 않으며, 이 의사소통을 이루기위해서 우리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만 한다. 그 다른 방법은 공기를 매개로 한 음성언어 대신, 물을 매개로 한 시각언어임을 제안하는 것일까?

〈두 쪽〉(Two Pages, 2009)의 영상은 펼쳐놓은 책의 양쪽 면을 연상시키는 두 부분의 하얀 실선들을 보여주며 시작한다. 곧이어 이 실선들은 불규칙한 형태로 뭉크러지기 시작하는데, 이 뭉크러짐은 시를 읽어나가는 음성의 속도, 강도, 성량, 음색, 음률, 높낮이를 반영한 데이터에 따라 일어나는 것이다. 왼쪽의 선들은 고대 중국의 시를 중국어로 읽은 소리에, 오른쪽의 선들은 현대 한국의 시를 한국어로 읽은 소리에 상응하여 떨린다. 이 두 가지 목소리는 음성언어의 개념적 내용이 아니라 비언어적인 음향에 의해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 완연한 전체가 분리되어 나뉘게 된 반쪽들을, 자아와 타자, 인간과 자연을 다시 만나게 하는 길을 찾기란 오늘날 쉽지 않은 일이 되어버렸다. 그러기 위해서는 익히 알아온 관습적 소통의 방식이 아닌, 새로운 소통방식, 색다른 논리를 찾아야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여기서 그레고리 베이트슨의 독특한 삼단논법을 참조해보자.

인간은 결국 죽는다.
풀은 결국 죽는다.
인간은 풀이다.

Gregory Bateson, Mind and Nature : A Necessary Unity, (New York: E.F. Dutton, 1979), 5, 권윤희,「A Silent Dialogue between the I and Other : The Visualization of Meta-relationships Between Humans and Nature」, MFA Thesis, Rhode Island School of Design, 2009, 37에서 재인용.

그 존재의 전제조건으로서 죽음과 소멸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자연과 인간의 등식이라는 답안을 도출해내는 그레고리 베이트슨의 색다른 논리는 그래서 작가에게 영감을 주었던 듯하다.

연결

이제 대안적 논리를 통해 분리된 것들, 불통되는 것들끼리의 접점과 연결을 구하려는 시도가 권윤희의 여러 작품에서 드러난다. 〈파도 위의 마음〉(Tide in Mind, 2009)에서 영상은 2006년 10월 한 달 동안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일어났던 파도의 높이변화에 따라 파도 모양으로 출렁거린다. 이 출렁거리는 표면에는 버지니아 울프가 소위 '의식의 흐름'기법을 도입하여 집필한 소설『파도』의 원문내용이 일렁거린다. 파도위에 투사되는 파도라는 동어반복은 미니멀리즘의 즉자성이 남겨준 유산이기도 하거니와, '흐름'이라는 은유적 유사성을 매개로 인간의식과 자연현상의 연결고리를 다시 발견해보려는 시도는 미니멀리즘을 넘어선 생태적 생존주의의 관점이 도입된 것을 보여준다.

〈하얀 연인들〉(Double Suicide, 2009)에는 유기체적인 느낌을 주는 추상적 형상 두 덩어리가 나란히 등장한다. 이 두 형상은 1990년부터 2000년까지 알래스카에서 일어난 현상의 데이터에 따른 움직임을 보여준다. 그 중 왼쪽에 나타나는 형상은 사람들의 자살률 데이터에 따라 그 수가 커지면 크기와 유동성이 같이 커지고 그 수가 줄어들면 크기도 작아지면서 비활성화되도록 연동된다. 한편 오른쪽에 나타나는 형상은 돌고래들의 집단 떼죽음 데이터와 같은 방식으로 연동된다. 이 둘 사이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비례? 반비례? 혹은 관계가 없는가? 물론 현재 시점에서 볼 때 이 둘 사이에서는 그저 무작위적인 병렬관계만이 관찰될 뿐이나, 현재 인류의 지력으로는 불가해하지만 인류보다 고등한 지능이 바라볼 때는 이해가능한 관계가 존재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Waiting For…〉(2009)의 경우는 사무엘 베케트의 유명한 희곡 〈고도를 기다리며〉의 오디오북과 1721년부터 2007년까지 근 300년에 이르는 시기동안 스위스에서 축적된 벚꽃 개화기의 데이터를 원재료로 삼고 있다. 이 300년의 시간은 30분으로 압축되고, 그동안 〈고도를 기다리며〉에서 47번씩이나 빈번하게 등장하는 단어인 "고도" 앞뒤의 오디오북이 재생되는데, 그 재생시간은 각 해의 개화기와 연동된다. 즉 개화기가 앞당겨지면 재생시간이 짧아서 앞뒤문맥을 파악하기 어려워지고, 개화기가 비교적 늦었던 시기에 해당되는 재생시간은 상대적으로 길게 되는 것이다. 결국 지구 온난화의 진척이 현대사회의 경험에 내재하는 속도감과 연결된다. 여기서 작가는 독특한 관점을 제기한다. 〈고도를 기다리며〉의 고도는 희망을 상징하는 인물이며, 벚꽃의 개화는 아시아 문화권에서 전통적으로 새봄을 맞이하는 희망을 상징해왔던 바, 희망에 대한 사람들의 간절한 바람은 자연에 영향을 미쳐 벚꽃의 개화기를 앞당기는 결과를 가져왔는지도 모른다. 과유불급이라고, 희망이 오길 바라는 마음은 오히려 결과적으로 자연의 위기를 초래하고 마는 패러독스를 낳아버린 지도 모른다.

앞으로 참여하게 될 레지던스 프로그램의 지역적 맥락에서 출발한 최근의 작품에서 작가는 남과 북의 단절이라는 분리 상황을 극복하는 색다른 경로로 상징적인 작업을 보여준다. 본디 자연은 인위적 경계와 별 관계없이 그저 그렇게 존재하는 것으로, 바다위에는 분계선이란 것이 물리적으로 존재하지는 않는다. 이 바다 위에 남북의 서정시에서 특정성을 배제한 단어들을 뽑아내어 재구성한 보편적인 시어를 다시 모르스 부호로 바꾼 이미지를 투사하는 것이다. 여기서 작가는 광대한 자연을 캔버스 삼아 투사시킨 편성과 추상성의 공통분모를 통해, 분리된 존재들을 다시 이어보려는 시도를 되풀이한다.

풀의 삼단논법 속에서 인간과 풀은 죽음과 필멸이라는 보편적 운명을 연산자로 하여 등식을 이룬다. 작가는 다양한 각도의 접근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보편성의 공통분모라는 우회로를 통하여 분리된 반쪽들이 다시 연결되어 완전한 하나가 될 수 있기를 꿈꾼다. 이 분리된 반쪽들이 이쪽에서 오는 물결과 저쪽에서 오는 물결로 만나 마침내 평화로운 평정으로 고요해지기를, 결핍과 갈망을 가로질러 다시 만날 수 있기를 희망하는 것이다.

* 김경운은 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학위논문으로「하이퍼리얼리티, 도시의 삶, 그리고 텍스트-로버트 롱고의 예술과 미디어 문화」(2002)가 있으며, 2000년부터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로 재직 중이다. 《젊은 모색 2002》(2002), 《일상의 연금술》(2004), 《고 백남준 타계 1주기 추모특별전-부퍼탈의 추억》(2007), 《한국의 행위미술 1967-2007》(2007), 《올해의 작가 2009-서용선》(2009)등 다수의 전시를 기획했다. 뉴욕 재팬 소사이어티 갤러리 펠로우를 거쳤으며,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출강하였다. 주요 논문으로「'시한(부)예술'의 생명연장 프로젝트에 관한 시론」,『미술사와 시각문화』제5호 수록, 2006)이 있다.

Proofless science reconnecting the broken relationship between human and nature

KIM Kyoung-woon
(Curator at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Plato wrote at Symposium in indirect quotation from Aristotle that humans have been looking for their soul mate ever since Zeus cut them in half. Artist KWON Yuni has again quoted this at the start of her Master's thesis. Actually the motif of the previous wholesome being that was separated into two has frequently appeared in her early works and from her perspective the other half has been the nature. The story that humans and nature anxiously call for the other half as to return to the previously one wholesome form of being starts from the unfortunate separation.

Separation

KWON Yuni showcases a few impromptu variations under the subject of separation via the videos produced in 2007. In <Improvisation, Absence>(2007) it was presented as the Lovers in the Kiss, an 1889 marble sculpture by Auguste Rodin, being separated. Also in "Improvisation, Don't look back" in 2007, the figures of Orpheus and Eurydice, 1893 marble sculpture by Rodin, are separated from the underworld background of the main frame. In another <Improvisation, Two Body>(2007) the contours of <Adam> and <Eve>(1897) sculpture of Rodin, are caught being seen as breaking off from their embrace. The separations as if being scattered from the wholesome being invokes the feelings of regrets and loss. It further stimulates the aspiration of wanting to see them going back to the wholesomeness they once represented.

Discommunication

Then what should plan to put those separated back into one? What becomes critical at this part might be looking for the contacts of communications. She shows that the letters are being scribbled on the cover of pillows in transparent three dimension and the letters are unintelligible in <To Whom> in 2009. For this entire time, a soft voice whispers "I just want to write according to the flow of my finger. I will not say my authentic feelings towards you. It is so hard to express my mind since it should not be said. I hope you will read my mind even though I will not express anything to you. I will hope you can hear my letter, even though it will be lies under my pillow."

<Dialog Underwater>(2006) reveals the lip movement as if trying to say something underwater. However, verbal language should be delivered for communication and it needs transmission of sound through the air, but instead when the water fills out the space instead of the air, the messenger of sound, namely, the delivery of verbal language fails. Although the lips say, "read my language, read my voice, read my lips, read my face, read my hands, read my body, read me and feel me". the word fails and we should look for other ways to communicate. Does it indicate visual language with the medium of water instead of the verbal language using air as a medium?

The video of <Two Pages>(2009) starts off with showing white lines in two areas, which reminds us of two pages of an open book. Soon the lines are crumbled down into irregular shapes, reflecting the data of speed, strength, power, color, rates, and height of a voice reading a poem. The lines in the left vibrate responding to the voice reading an ancient Chinese poem in Chinese, while the lines in the right vibrate to the Korean language reading a modern Korean poem. These two different voices communicate with nonlinguistic sound, not the concepts of a verbal language. Finding the other half or the nature in a way back to the wholesomeness has not been easy these days. That is because it needs new ways of communication with different logic, not the conventional and habitual communications. Here we can refer to Syllogism proposed by Gregory Bateson.

Men die.
Grass dies.
Men are Grass.

The unique logic of Gregory Bateson deducts the answer that the nature equals men sharing the common denominators of death and extinction as the preconditions of a being, which seems to have given the insights to the artist.

Connection

The trials to connect the contact points of those separated and discommunicated using alternative logics can be found in several art works of KWON Yuni. <Tide in Mind>(2009) video shows the images fluctuating in the shape of tidal waves following the heights of the tides in California area for the full month of October in 2006. The surface of tidal fluctuation reflects the sentences of the novel 「The Waves」 written by Virginia Woolf, using the stream of consciousness technique. The tautology of waves reflected on waves is the heritage of minimalism's 'Literal Art' and the attempt to rediscover the link between human consciousness and natural phenomenon based on the metaphoric similarity of 'flow' representing the perspective of ecological survivalism that has been applied beyond minimalism.

In <Double Suicide>(2009) abstract two figures which strike with more of an organism appearance. The two figures represent the movement responding to the Alaskan data from 1990 to 2000. The left figure is synchronized to the suicide rates as it gets bigger and becomes flexible with rising suicide rates, but it gets smaller and deactivates with dropping rates of suicide. On the otherhand, the right figure is synchronized in the same way as the data of the mass dolphin death. What i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Are they correlated or inversely proportional, or are they irrelevant at all? At present, it is observed that the two only has a random parallel relationship, but it is still plausible the incomprehensible relationship to humans can suddenly mean something related to super-intelligence.

In the case of <Waiting for…>(2009) the raw data are the audio book of <Waiting for Godot>, a famous playwright by Samuel Beckett, and the 300 years of Swiss accumulated data of cherry blossom bloom date from 1721 to 2007. The 300 years are condensed into 30 minutes and the name Godot which appears for 47 sentences in the playwright of <Waiting for Godot> is played back in sync with the bloom date of each year. With the bloom date arriving early, the playback time is cut back making it hard to comprehend, but as the blossoms bloom later, the audio playback slows. In fact the progress of global warming is connected to the speed inherent in the experiences we share in modern society. The artist offers an interesting viewpoint that just as Godot from the <Waiting for Godot> represents the hope, and the blooming cherry blossom traditionally indicates the hope of welcoming new spring, the people's earnest wish for hope might have brought forward the blooming season. Just like too much is as bad as too little, the wish for hope could have triggered the paradox which resulted in the natural crisis.

In recent series of works that started off from the regional basis of residence program, the artist showed the symbolic work with a very different route of overcoming the separation and discontinuation of the North and the South. Originally nature exists as it is irrelevant to the artificial boundaries, and there is physically no demarcation line on the sea. The universal poetic words were reorganized and extracted from the lyric poems of the North and the South excluding the specificity, as well as converted into morse code to be projected on the surface of the sea. The artist takes the nature as a canvas and repeats the attempt to reconnect the separated beings with the common denominator of projected formation and abstractness.

In the Grass Syllogism, grass becomes men, sharing the common destiny of death and extinction. The artist takes the detour of universal common denominator discovered from various different angles of access and dreams of the separated halves longing to be reconnected to become the wholesome one. She just hope the separated halves to be in quiet and peaceful composure as two water flows meet at one point and to come across each other at another time, crisscrossing the deficiency and aspiration.

* KIM Kyoung-woon : B.A. & M.A., Archeology and Art History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Master Thesis「Hyper-reality, Lives in the City, and Text- Arts and Media Culture of Robert Longo」, published in 2002, Curator at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in 2000. Exhibitions organized : 《Young Pursuit, 2002》(2002), 《Alchemy of Daily Lives》(2004), 《First Year Special Memorial Exhibition for Late Nam June Baek– Memories of Wuppertal》(2007), 《Korean Performance Art 1967-2007》(2007), 《Artist of the Year 2009-Seo Yong Sun》(2009) and others. New York Japan Society Gallery Fellow, lecturer at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Major Thesis「The Poetry of Life Extension Project for Terminally Ill Arts」.

김 봄

KIM Bom

어떤 동네
Some village
181×227cm Acrylic on linen 2012

어떤 동네-집
Some village-The house
112×194cm Acrylic on linen 2012

어떤 동네-개와고양이
Some village-Dog and cat
64×100cm Acrylic on paper 2012

어떤 동네-항
Some village-The port
64×100cm Acrylic on paper 2012

어떤 동네-파란대문
Some village-Blue door
64×200cm Acrylic on paper 2012

동시대를 기억하는 이미지를 재조립한 새로운 산수

하계훈(단국대학교 교수)

회화는 일차적으로 재현을 목표로 하므로 작가들은 가장 효과적으로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재현하는 방법을 모색해왔다. 적어도 추상회화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이러한 목표가 화가들의 사회적 존재가치를 증명해주었으며 추상회화 역시 넓은 의미에서 볼 때 또 다른 방식의 재현이라고 할 수 있다. 폼페이 벽화에서 발견된 정물화와 풍경화는 이러한 재현의 의지가 아주 오래전부터 작가들의 유전자로 존재해왔음을 잘 보여준다. 다만 르네상스 시대에 이르기 전까지 많은 작가들이 다채롭게 자신의 방식으로 시각적 재현을 해 온 것이 근대에 들어서면서 아카데미식의 재현 규범으로 획일화되는 과정이 작가의 자유로운 상상력을 제한해온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한국화를 전공한 김봄은 전통과 현대를 결합한 독특한 방식으로 원거리에서 관찰한 풍경을 재해석하여 화면의 구성 요소들을 재배치함으로써 개성있는 화면을 구성해 온 작가로 알려져 있다. 작가의 초기 작품은 그림지도를 보는 것처럼 화면 가득 언덕과 숲, 길과 집들이 묘사되고 그 공간의 곳곳에 사람들을 배치하여 마치 그 곳에서 마주친 사람들과의 에피소드를 평면적으로 풀어놓은 시각으로 작가의 개인적인 행적을 기록한 것 같은 이야기를 전개해왔다.

김봄이 재현하는 시각적 경험은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다양하게 전개된다. 시간적으로 과거와 현재가 한 장소에서 오버랩 되기도 하고 실제와 허구의 공간을 넘나들기도 한다. 남산과 한강, 부산, 그리고 서울의 곳곳을 동양화적 삼단계 원근법이나 서양화의 과학적 원근법에 구속됨이 없이 마치 지도의 형식을 빌어온 듯하게 평면적으로 평범한 일상의 모습을 배열해놓은 듯한 이미지들로 구성된 화면은 거대한 서사적 내러티브로 읽히기 보다는 마치 지도를 가지고 보물찾기를 하는 어린이들의 마음으로 관람자들이 친숙하게 작품에 다가갈 수 있게 해준다.

2008년 김봄이 참가한 그룹전에서 말했던 것처럼 작가는 "숲에서 다양한 시점으로 보고 느낀 부분들을 해체하고 새롭게 재배치하여 잘 짜인 조경 산수를 만든다. 여러 각도에서 보여진 부분들을 조각내어 개별적이고도 조직적으로 배치, 재조립 하고, 실제 하는 지형(탑골공원, 종묘, 여의도공원)에 그곳을 상징하는 구조물들을 자연의 구조물들과 혼합한 뒤 균등하게 나열하여 '조립된 산수'를 만든다. 원거리에서 대상을 바라본 듯한 화면 구성과 실재 이미지의 생략과 재구성으로 인해 풍경 속에는 부분과 전체, 실재와 허상, 과거와 현재, 디테일과 스케일, 변화와 정지가 공존"하게 하는 것이다.

평론가 고충환은 이러한 김봄의 작품에서 일상의 평범한 이미지에 대한 재현을 넘어서서 현대인의 의식 속에 여전히 살아 숨쉬는 일종의 이데올로기 내지는 아이콘의 작동을 읽어내기도 하였다. 그는 김봄이 재현하는 장소는 일상의 평범한 "장소이기도 하고, 각종 이데올로기적 현실과 사건이 부침하는 정치적 풍경이기도 하며, 과거와 현재가 하나로 만나지는 시간이 열어

A New Landscape of the Reassembled Images to Remember Our Time

HA Kye-hoon(Professor at Dankook University)

As painting primarily aims at representation, artists have sought the methods of representing their own experience and thought most effectively. This aim had proven their social value of existence, at least before abstract painting appeared, and abstract painting can also be another method of representation in a broad sense. The still lifes and landscape paintings found on the mural of Pompeii show that this will to represent has been in their gene for a very long time. But many artists had variously tried visual representation through their own method before the Renaissance era, but the process of conforming to the academic, standardized norms for representation in the Modern Age might have limited artists' free imagination.

KIM Bom, majored in Korean painting, is known as an artist who has composed an individual picture plane by reinterpreting the landscape observed from a distance and by rearranging the components of the picture plane, through a unique method of combining tradition and modernity. In the early works, the artist depicted hills, woods, roads and houses on the full picture plane and arranged people in the places, like a pictorial map, and thus, as if the artist had encounter the people there, the artist showed the documentary-like stories of the artist's personal past with them, in which the episodes with them were represented in a flat vision.

The visual experience KIM Bom represents is diversely displayed in time and spatially. The past and the present are overlapped in a place, and the spaces of reality and fiction are crossed over. The picture plane is composed of the two-dimensional images of the places including Namsan and Han River in Seoul and Busan, like a map format, without being constrained by the three stages of perspective of Oriental painting or the scientific perspective of Western painting, as if the picture plane displayed the appearances of a normal life. Thus, the picture plane makes spectators approach it familiarly with the hearts of the children trying a treasure hunt with a map, rather than reading it as a great epic narrative.

Like KIM Bom said in the 2008 group exhibition, the artist "makes a well-designed landscape by deconstructing and rearranging the parts seen and felt from a variety of perspective in the woods. And the artist makes an 'assembled landscape' by cutting the parts shown from multiple angles into pieces, and by arranging and reassembling them individually and organizationally, and then by mixing the structures of nature with the ones to symbolize the place at the actual terrain(Pagoda Park, Jongmyo Shrine, Yeouido Park) and by evenly arranging them. Thus, the parts and the whole, reality and virtual reality, the past and the present, detail and scale, and change and stop coexist in the landscape, due to the

picture plane in which objects seem to be observed from a distance and to the omission and recomposition of the real images."

KHO Chunghwan, a critic, read, in these works of KIM Bom, working of a sort of ideology or icon still living and breathing in the consciousness of modern people beyond the representation of mundane images. The places KIM Bom represents are, according to him, "a mundane one, a political landscape in which the ups and downs of various ideological realities and events appear, and a new a prospect opened by the time when the past and the present become one. Through the place, the landscape and the prospect, we have got to be able to participate in the ordinary, universal and contemporary history beyond the artist's personal history."

KIM Bom's recent works showed in this exhibition consist of the colored painting and pencil drawing created through this process of representation. The artist composes a picture plane by mixing the images in real life with the ones of the nature watched from a distance and collected like a pictorial map, just as he has done it. The images evenly arranged on the picture plane, with the repetitive images of scenery and the various ones of life found in our everyday life intertwined, are unfolded like a large panoramic piece.

When you look, in detail, into the images on the picture plane, many stories come out. In a large panoramic work entitled <a Village>, the daily life of a quiet, simple village located on the outskirts of a town is presented by fragmented images. There are old walls and windows, clothes hung on a clothesline, a used coal briquette put together in a place, potted plants, red peppers drying on a mat, houses using LP gas cylinders, gas meters installed on the wall of a house, red plastic chairs and old billboards which would be in front of a store at the outskirts, and looks in everyday life of the people living there.

The fragmented images on the picture plane also look like the pieces of puzzle or like the haphazardly chopped ones of mung-bean pancake on a plate. The fragments of images couldn't be connected to one picture plane, as the sizes of the shapes of things don't maintain their consistency, but they can be connected naturally due to the image of a green forest intervened in them. Like this, the mysterious charm by which the images of a classical landscape and a modern cityscape harmonize into one whole, without rejection, is one of KIM Bom's abilities of representation.

There were many works, similar to KIM Bom's one, in which diverse and fragmented images are repeatedly placed at intervals on the picture plane and a space between them is divided by graphical techniques. Therefore, you can't say KIM's one adopt a new format. But, unlike the works attempted previously with this format, KIM's one doesn't emphasize the message the artist tries to deliver by a mechanical repetition of the image or a geometric division of the picture plane. The restructured images in KIM's one make you partially maintain the natural scenery found in a landscape painting and read the images reassembled in it, thus, the space on the picture plane presented by the artist makes you feel a space (or the space can be a vivid reality at some point in the past, depending on the experience of a spectator) which exists somewhere in reality, not suggesting completely artificial array and spatial fiction.

KIM Bom shows, in <a Village>, another work, a village in suburb where a huge wave of redevelopment has come to the threshold. The picture plane is impressive; at the background where old, low-built houses are gathered in front as if they crouched down, towering apartment buildings and a power line tower dauntingly look down at the houses as if they tried to expel them. The picture plane on which the alleys of a village, distorted by the camera lens, are panoramically unfold, quite differently from the artist's previous works, and it composes the landscape to stimulate a little more realistic and lyrical nostalgia, quite differently from an assembled landscape-like combination of images. This work can be a warm-hearted gaze of the artist, who feels regretful over the old look of a village in suburb doomed to disappear due to the spread of cities, or it can be a surrealistic space of fantasy composed of the metaphysical picture plane on which a dog gazes at spectators, from a distance, on the empty street without the traces of people, at midday.

The work of <JinAn>, pencil drawing, specifies a place in the picture plane, unlike the artist's other works. With the title of JiaAn, have appeared a specific pavilion and a road sign pointing to the location of the village, on the top of the right side of the picture plane. This work, depicted in detail with just a pencil drawing, with coloring excluded, seems to induce you to find the hidden picture. High mountains stand like a folding screen at the background of the sky with dazzling clouds, a big lake and several houses are situated on the hills at the center, and this landscape is connected to the more shelvy foreground. But on the picture plane are depicted a person sitting in a swing with the rope fallen from the air, a person narrowly crossing a stream on which a small tree is placed, a big dog looking at the front with tied to fence poles, and the people seeming to go to work with sit in a trunk, with ignoring the proportion of the background and the things in surroundings. The figures may be the artist herself, or the people and animals the artist met there may be represented, according to the importance of the artist's memory, with ignoring the proportion of the picture plane.

Artists create a work, as mentioned above, for the purpose of representing. And, through representation, they ultimately hope to communicate and commune with spectators. As you have learned it through art history, the representation of the images in their works sometimes bore religious implications and sometimes revealed the secular power after the fashion of the time. In those works, an unidentified person, an unspecified place, and animals and plants in unidentified natural habitats weren't eligible to appear on the picture plane. So those pictures were occupied by the palaces, churches or sites of a famous incident known to spectators, and they were represented realistically or idealized beyond realism under the necessity

The images appeared in KIM Bom's works, however, don't boast a heroic figure or flaunt the power to induce a huge discourse. On the contrary, the landscapes, figures and several things represented on KIM's picture planes keep their coordinates, like the symbols on a map, and they contain the message of the perception of reality and history, which consists of the overall meaning through an integrated image, rather than being read as each single image.

The artist, majored in Korean painting, has created a landscape in our time by applying the methodology of a traditional landscape painting to the modern sense and formative expression, and tried to do a landscape with a new image by partially deconstructing and newly arranging the senses the artist has experienced and felt. And the artist has tried to put the artist's soul and consciousness into a variety of images and forests, and to remember our time by communicating with spectators through the works.

* HA Kye-hoon : Graduated from English Dept in Korea University and Art History Dept in Hongik University Graduate School, and finished master's and doctor's degrees at Arts Business Administration Dept in United Kingdom City University. He is an art critic and a head professor at Dankook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Culture and Arts. Served as a steering-advisory-committee at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as a advisory committee for Seoul Cultural Policy, and as a director of estimates for Aid Projects by Korean Museum Association. Authored and translated 『Theory and Practice of Management of Culture and Arts』(co-authored), 『The Curator's Dilemma』, 『How Artists become Successful?』, 『Where will you find Wisdom?』, etc.

놓은 전망이기도 하다. 그 장소, 그 풍경, 그 전망을 통해 우리는 작가의 개인사를 넘어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동시대적 역사에 동참할 수 있게 된다"고 말한다.

이번에 소개되는 김봄의 근작들은 이러한 재현 과정을 거쳐 제작된 채색화와 연필 드로잉으로 구성되어 있다. 작가는 이제까지 그랬던 것처럼 멀리서 대상을 바라보고 그림지도처럼 채집한 자연의 이미지들을 실제 생활 속의 이미지들과 혼합하여 하나의 화면을 구성하는데, 다시점 화면에 균등하게 배치된 이미지들은 반복적인 산수 이미지들과 우리의 일상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생활 이미지들이 교차되어 한 편의 대형 파노라마를 보는 듯하게 전개되고 있다.

화면 속의 이미지들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그림 안에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온다. 〈어떤 동네〉라는 제목의 대형 파노라마식 작품 속에는 변두리 어느 곳엔가 위치한 고즈넉한 동네의 일상이 파편화된 이미지들로 제시된다. 낡은 담벼락과 창문, 빨랫줄에 널린 옷가지들과 한 곳에 모아둔 연탄재들, 화분에 담긴 가녀린 식물과 돗자리 위에 널어 말리고 있는 붉은 고추, 아직 도시가스 공급이 되지 않아 LP가스통을 사용하는 집들과 가스 공급을 받는 집들의 담벽에 설치된 계량기, 변두리 구멍가게 앞에 있을 것같은 빨간색 플라스틱 의자와 낡은 간판, 그리고 그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의 모습들….

화면 속에 파편화된 이미지들은 마치 퍼즐 조각의 모습 혹은 아무렇게나 잘라 놓은 접시 위의 빈대떡 조각들처럼 보이기도 한다. 사물의 형태의 크기가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하나의 화면으로 연결할 수 없는 이미지 파편들이 그 사이사이에 개입되는 초록색 숲의 이미지에 의해 오히려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으며, 고전적 산수와 현대적 도시풍경의 이미지들이 거부반응 없이 하나의 전체로 어우러지는 신비스런 매력이 김봄 작가의 재현 능력 가운데 하나인 것이다.

이렇게 김봄의 작품과 유사하게 다양하고 파편화된 이미지들이 화면 안에 약간의 간격을 두고 반복적으로 배치되고 그 사이를 그래픽 기법으로 구획하는 작품들은 이전에도 많이 소개되었다. 그러므로 김봄의 작품이 새롭게 등장하는 형식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김봄의 작품은 이러한 형식으로 앞서 시도되었던 작품들과 달리 화면을 기하학적으로 구획하거나 이미지의 기계적 반복에 의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강조하지 않는다. 김봄의 작품에서 재구성된 이미지들은 사이사이로 표현된 숲의 형상에 의해 우리가 산수화에서 발견하는 자연스런 풍경의 모습을 부분적으로 유지하면서 그 사이사이로 재조립된 이미지들을 읽어감으로써 작가가 제시하는 화면의 공간이 완전하게 인위적 배열과 공간적 허구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존재하는 어딘가에 있는 공간(혹은 그 공간은 관람자의 경험에 따라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의 생생한 현실이 될 수 있다)을 느낄 수 있게 해준다.

이번에 함께 출품된 또 다른 작품 〈어떤 동네〉에서는 어느 변두리 동네에 재개발의 거대한 파도가 문턱까지 들이닥친 모습을 보여준다. 낡고 나지막한 집들이 전면에 웅크린 듯하게 모여있는 배경에 키 큰 아파트들과 송전탑이 이들을 몰아내려는 듯이 위압적으로 내려다보고 있는 화면이 인상적인 작품이다. 작가의 이전 작품들과 다르게 카메라 렌즈에 의해 왜곡된 어느 동네의 골목이 파노라마 형식으로 전개된 화면은 조립된 산수와 같은 이미지의 조합과는 사뭇 다르게 좀 더 사실적이면서도 서정적인 노스탤지어를 자극하는 풍경을 구성한다. 이 작품은 도시의 확산에 의해 사라질 운명에 놓인 변두리 동네의 옛 모습을 안타까워하는 작가의 애정어린 시선일 수도 있고, 또는 사람의 흔적을 찾을 수 없는, 한낮의 텅 빈 거리에 멀리서 개 한 마리가 관람자쪽을 응시하는 형이상학적 화면을 구성하는 초현실주의적 환상의 공간일수도 있다.

함께 출품된 연필 드로잉 〈진안〉은 김봄의 다른 작품들과 달리 화면 속의 장소를 특정해주고 있다. 진안이라는 제목에서 더 나아가 화면 우측 상단에는 구체적인 정자와 마을의 위치를 안내하는 이정표까지 등장한다. 채색이 배제된 채 연필 드로잉만으로 세밀한 묘사를 시도한 이 작품은 마치 숨은그림찾기를 유도하는 듯하다. 배경의 원경에는 현란한 구름이 떠있는 하늘을 배경으로 높은 산들이 병풍처럼 서있고, 중경의 구릉에는 커다란 호수와 몇몇 집들이 자리잡고 있으며 이러한 풍경은 좀 더 완만한 전경으로 연결된다. 그런데 이 화면 속에는 허공으로부터 내려진 줄에 그네를 타는 사람과 작은 나무를 걸쳐 놓은 냇물을 곡예하듯이 건너는 사람, 울타리 기둥에 묶인 채 이쪽을 바라보는 커다란 개, 그리고 짐칸에 앉아 일터로 가는 듯한 사람들이 배경과 주변 사물의 비례를 무시한 채 그려져 있다. 아마도 이 인물들은 작가 자신의 모습이거나 작가가 그곳에서 만난 사람과 동물이 작가의 기억에 떠오르는 비중에 의해 화면 속의 비례를 무시한 상태로 표현되어 있는 것 같다.

작가가 작품을 제작하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재현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그러한 재현을 통해 궁극적으로 작가는 관람자와 모종의 소통과 교감을 이루기를 희망하는 것이다. 우리가 미술사를 통해 학습한 것처럼 시대에 따라서 작가의 작품 속 이미지의 재현이 때로는 종교적 함의를 지니기도 하고 또 때로는 세속의 권력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이러한 작품에서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 어디인가를 특정할 수 없는 장소, 서식처를 밝혀낼 수 없는 동물과 식물 등은 화면에 등장할 자격을 얻을 수 없었다. 그래서 이 시대의 그림들은 보는 이가 쉽게 알 수 있는 궁전과 교회나 유명 사건의 현장, 한 번 보면 누군지 알 수 있는 인물들에 의해 점령당했으며 필요에 의해 그들은 사실적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사실적 표현을 넘어 이상화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김봄의 작품에 등장하는 이미지들은 어느 하나도 영웅적 자태를 뽐내거나 거대한 담론을 유도하는 위력을 과시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와 반대로 김봄의 화면 속에 표현된 산수와 인물, 그리고 여러 가지 사물들은 마치 지도 위의 기호처럼 자신들의 좌표를 지키고 있을 뿐이며 이미지 하나하나의 의미를 읽기보다는 전체로 통합된 이미지를 통해 하나로 구성되는 현실의 인식과 역사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한국화를 전공한 작가는 방법적으로 전통적 산수의 방법론을 현대적 감각과 조형어법으로 응용하여 우리 시대의 산수화를 제작하였으며 그 안에서 작가가 체험하고 느꼈던 감각들을 부분적으로 해체하고 새롭게 배치함으로써 새로운 이미지의 산수를 만들려고 하였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기는 숲과 다양한 이미지 속에 자신의 영혼과 의식을 담아내려 하였으며 그렇게 제작된 작품을 가지고 관람객들과 소통하면서 그들과 함께 자기가 살아가는 시대를 기억하고자 하고 있다.

* 하계훈은 고려대학교 영문과, 홍익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영국 시티대학 예술경영학과 석, 박사 과정을 수료했으며 현재 단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주임교수로 재직하면서 미술평론 활동을 하고 있다. 국립현대미술관 운영자문위원, 서울시 문화정책 자문위원, 한국박물관협회 지원시업 평가단장을 역임했으며 저서 및 역서로는 『문화예술경영 이론과 실제』(공저) 『큐레이터의 딜레마』, 『예술가는 어떻게 성공하는가』, 『지혜를 어디서 찾을 것인가』 등이 있다.

김선희

KIM Sun-hee

휴지통 11
Bin shelter 11
Variable installation Object 2012

텐트 09
Tent 09
Variable installation Object 2011

금고 032
Vault 032
Variable installation Object 2011

휴지통 11
Bin shelter 11
Variable installation Object 2012

바라보는 숲
Forest
Variable installation 310cm(length) Thread, Soap 2010

기억 2
Memory 2
Variable installation Pine, Zelkova 2008

기억의 사물이 만들어낸 시적공간

김미진(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교수, 기획 · 비평)

잃어버린 시간, 다시 말해 시간의 흐름, 존재했던 것들의 소멸, 존재들의 변화에 대해 사유하도록 강요하는 기호들이 있다. 그것은 우리와 친숙했던 사람들을 다시 보게 되는 뜻밖의 계시(啓示,révélation)이다.
질 들뢰즈 지음(1997), 『프루스트와 기호들』,서동욱, 이충민 옮김, 민음사, P.43

김선희는 내부와 외부의 공간을 과거의 시간 축과 함께 바라보면서 현재를 말한다. 그는 나무로 이미 우리 일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익숙한 사물들을 온몸으로 느끼며 깎아 촉각적으로 표현한다. 오래된 재료를 다시 다듬거나 시간을 드러내는 기억에 관한 흔적들을 그려 넣은 그의 작품들은 따뜻함과 함께 예민한 감각으로 다가온다. 먼저 〈Room of Memory〉(2008)을 보면 이 작업은 갤러리 실내공간에 미송으로 가구와 일상적 오브제들을 제작하여 설치해 놓은 것이다. 침대와 테이블, 책, 시계, 토끼인형, 전화라는 작가의 일상과 가장 가깝고 필요한 오브제들이 공간을 구성하고 있다. 그는 재활용한 나무를 사용해 만든 가구에 세월의 흔적을 보여주는 터치를, 그리고 기억의 파편들인 낙서를 군데군데 해 놓았다. 나무자체와 잘 어우러진 엷은 색채의 부드러움과 우연성이 표피의 딱딱한 오브제로 된 기호에 생명을 담아낸다.

딱딱한 오브제 덩어리인 기호 안에 새겨진 흔적은 고독과 즐거움의 경험들을 애틋한 감성으로 되살린다. 조금씩 커가며 성숙해 가는 소녀의 담백한 생활이 사각의 딱딱한 침대와 식탁 겸 책상에 켜켜이 묻어있다. 침대 한쪽 곁에는 어린 시절 외로움과 구애의 가장 가까운 대상이었던 토끼인형이 놓여 있다. 이 인형은 마치 푸르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의 마들렌 과자를 한입 베어 먹었을 때 그 부드러움 속에서 온몸을 휘감는 느낌으로 어릴적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나는 체험처럼 과거를 현재로 변화시킨다. 그것은 현재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상황을 가진 젊은 작가의 삶으로 연결되어 이해된다. 책은 지식으로 사고의 폭을 넓혀주는 성숙의 상징이다. 전화, 라디오, 여행 가방은 불안정한 어린 영혼에게 외부와의 소통을 시도하는 가장 간단한 시간의 도구들이다. 김선희의 시간에 따른 기억의 사물들로 이루어진 방 풍경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이어진 중층적 시공간으로 조금씩 다른 어린 나를 만나게 한다.

김선희의 〈기억의 방〉이 자신의 추억으로부터 내면을 만나고, 시적으로 외부세계와 연결되어 있다면 〈바라보는 숲〉(2010)은 작가가 외부세계를 바라보는 시선을 담아내고 있다. 향나무, 전나무, 플라타너스, 참나무, 괴목을 사용하여 서로 다른 크기로 공처럼 둥글게 깎고 바닥에 수평으로 설치해 놓은 작업이다. 이렇게 다양한 나무의 종은 숲의 기호로 작용한다. 바라보는 대상으로서의 나무는 나를 포함한 자연의 단위가 되고 우주의 이치를 보여준다. 구의 형태가 갖는 의미는 이미 동서양의 철학에서 많은 상징성으로 회자되고 있다. 동양철학에서의 둥근 형태는 생명의 시작인 씨로부터 죽음의 순환고리까지를 의미한다. 크고 작은 목 구슬 형태들이 나열해 있는 풍경은 인간과 자연이 같이 경험한 생사의 고리처럼 보인다. 작가가 조각도 터치로 된 표면을 가진 구 형태를 얻어내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었을 것이다. 마치 수도승처럼 작업하는 과정에서 온전히 대상과 일치시켜 자연의 이치를 온몸으로 받아들여 작업한 것이라 짐작된다. 그것은 대상으로서 무수한 나무들이 켜켜이 쌓여있는 오래된 숲이면서 동시에 광범위한 의미로 결합된 존재 전체이기도 하다. 나무 고유의 향기와 조각도의 터치 그리고 나무 자체의 갈라짐이 주는 복합적 감각의 경험은 존재 자체가 현상으로서 살아있는 생생함을 경험하게 한다.

이 작업이 우주론적 본질인 존재 자체에 대한 탐구라면 비누로 만든 구슬을 실로 연결해 목걸이처럼 만든 〈바라보는 숲〉(2010)은 물질문명에 영향을 받는 삶의 소멸과 생성에 관해 탐구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부드러운 파스텔 색조의 톤으로 된 구형 사이에 강한 원색이 하나씩 섞여 있는 거대한 목걸이는 벽과 바닥에 걸쳐 설치되어 있거나 서로 다른 길이를 가져 기울어진 나무판 위에 놓여 있다. 각각 다른 형태와 색채를 갖는 비누구슬은 정체성을 가진 인간의 삶을 대변한다. 존재와 대상이 일치된 대우주적 관점의 나무로 된 숲과는 달리 비누로 만든 구슬의 숲은 목걸이처럼 실로 연결된 큰 원과 같은 형식적 틀을 갖는 '부분'이다. 크기가 다양한 비누구슬은 인위적인 끈으로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에 놓여 있다. 목걸이의 순환구조는 환경에 따라 형태가 달라진다. 바닥과 벽에 걸쳐 설치되거나 기울어진 물푸레나무 책상에 놓인 목걸이는 매우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준다. 그리고 개체로 연결되어 서로 떨어질 수 없는 목걸이 역시 한군데가 끊어지면 다 무너져버리는 매우 위험한 관계를 관통하고 있다.

김선희는 비누라는 일상에서 늘 쓰며 닳아 없어져 버리는 질료를 선택함으로 하루살이의 삶을 대변하고자 한다. 비누의 성질은 딱딱하기도 하고 물러지기도 한다. 그리고 향과 재료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진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쓰던 쓰지 않던 간에 닳아 없어지게 되는 유한의 재료다. 서로 다른 향기와 크기 그리고 색채를 갖고 있는 존재들은 단지 섞여 있을 뿐 큰 우주의 법칙 안에서는 별로 특별한 것이 없다. 그것은 인생이 생사의 법칙을 안고 미지의 땅을 밟으며 살아가는 불안한 존재라는 관찰자의 관점을 은유한다.

일련의 〈텐트09〉, 〈금고032〉, 〈휴지통11〉 작업들은 사회제도 안에서의 불안전한 자신의 위치를 현실의 발견된 오브제로 표현한 것이다. 작가의 불안한 정체성에 관한 작업은 〈텐트09〉(2011)에서 더욱 진화된다. 버려진 목재로 된 받침대 위에 반투명한 재질의 흰색 텐트를 치고, 그 안과 주변에 곰인형, 담요, 코펠, 냄비, 책 등 기억을 간직하며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구를 설치해 놓은 작업이다. 집은 사회적 기호로 전형적인 사적공간이면서 외부와는 철저히 단절되고 보호되는 장소다. 텐트는 그의 집이면서 그 자신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의 반투명한 텐트는 외부에 쉽게 노출되고, 연약하며 부서지기 쉬운 공간이다. 그럼에도 어느 곳이든 쉽게 설치될 수 있는 집이기도 하다. 나무로 된 받침대는 최소한의 안전망으로 물이나 벌레 등으로부터 공간을 보호한다. 비록 버려진 나무받침대지만 숲의 연장선상에서의 질료적 해석이라 여겨진다.

〈금고032〉(2011)역시 물질을 중시하는 현대사회제도 안에서 감금된 혹은 구속된 작가 자신의 상태를 보여준다. 단단한 금속으로 된 작은 금고 안에 작가 자신이 앉아 있고, 그 옆에 사탕이 들어있는 병이 놓여 있는 작품이다. 검은 옷을 입은 작가 자신의 신체에서 견고한 물질중심 사회구조 속에서 죽어가는 육체를 암시받는다. 자아 없는 물질만 남은 육체는 감금된 채 살아가고 유일하게 방석 안에서 안락함을 누리며 죽어 갈 것이다. 옆에 놓여있는 달콤한 사탕이 들어 있는 병의 존재만이 유년시절의 기억, 추억으로 열악한 사회적 현실을 탈출하는 유일한 도구가 된다.

〈휴지통11〉(2012) 의 경우는 선택된 사물들이 그의 예술적 주제를 잘 반영한 수작이다. 대규모 아파트나 빌딩에서 볼 수 있는 공적인 사용도구인 쓰레기통을 개조해 그 자신만의 안락한 공간으로 만든 것이다. 김선희는 더러운 악취가 뿜어져 나오는 내부를 스펀지 방음벽으로 둘러싸고, 크리스마스 트리에 사용하는 작은 전구, 알람라디오, 나무사다리, 체크무늬 침낭, 지구본을 설치해 놀라울 정도로 반전된 매우 아늑하고 아름다운 공간으로 바꿔 놓았다. 자본사회의 저급한 상징적 기호가 먹고, 자고, 쉬는 실존적 삶의 공간으로 새롭게 탄생된 것이다. 그리고 그는 오르내릴 수 있는 나무 사다리, 반짝이는 불빛, 새어나오는 라디오 소리로 작고 섬세한 그리고 여린 소통의 장치를 통해 외부와 관계를 시도한다. 작가 내면에 존재하는 어릴 적 기억으로부터 유추되는 순수한 감성은 비물질적 장치와 함께 깊은 근원적 향수를 끌어올리며 잔혹한 공간을 아름다운 예술로 승화시킨 것이다. 아직 젊은 작가인 김선희는 자연과 주변 환경을 자신의 내면과 함께 깊은 사유로 경험 하는 것이 예술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는 것이리라. 어릴 적 기억의 연장선상으로 시간을 통해 얻은 새로운 경험이 만든 앞으로의 그의 삶과 예술을 기대해 본다.

* 김미진은 파리1대학 팡테옹–소르본느에서 예술학 박사를 거쳐 《광주비엔날레》(1997) 유럽담당큐레이터, 영은미술관 부관장, 《인천여성비엔날레》(2007) 커미셔너, 세오갤러리 디렉터, 예술의전당 전시예술감독, 한국문화예술위원회책임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현재는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예술기획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대표적인 논문으로 「젊은 작가들의 경향으로 살펴본 오늘의 미술연구」, 전시기획으로 《2009재외한국청년미술제 : U.S.B전》(예술의전당, 서울, 2009) 등이 있으며 비평가, 전시기획자, 그 밖에 국공립기관의 운영자문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A Poetic Space created by the Memorable Things

KIM Mi-jin(Professor at the Graduate School of Fine Arts, Hongik University, planning · criticism)

There are signs which force you to think of lost time, in other words, the passage of time, the calling of things that existed, and the change of beings. This is an unexpected revelation (révélation) by which you see the people who have been familiar to you in a new light.
by Gilles Deleuze(1997), 『Proust et les Signes』, translated by Seo Dongwook & Lee Chungmin, published by Minumsa, P.43.

KIM Sun-hee talks of the present with watching the inside and outside space along with the time axis of the past. She tactually represents the familiar things already used in everyday life by wood, with feeing them with every fiber of her body and carving them. Her works, in which old materials are refined or the traces of the memory to reveal time are depicted, approach you with warmth and a keen sense. First, the work of <Room of Memory>(2008), is the one installed in the interior space of the gallery, with consisting of the furniture and ordinary objects made of the Douglas fir. Its space is composed with the most familiar objects required in the artist's daily life such as a bed, a table, books, a watch, a bunny rabbit doll and a phone. She has done a touch to show traces of time and scrawled graffiti to reveal fragments of memory in places on the furniture made of recycled wood. The softness and fortuity of the pale colors harmonized with the wood has put life into the signs created by the objects with a hard surface.

The traces printed in the signs, a mass of hard objects, trace back the experiences of solitude and pleasure emotionally. The simple life of a girl who matures gradually as she grows up is well shown in the square hard bed and the dining table and desk. The bunny rabbit doll, the most familiar object of the loneliness and courtship during childhood, is lying by one side of the bed. The doll transforms the past into the present, just as the main character, in 『In Search of Lost Time』 by Proust, experienced that his childhood memories vividly came back to him when he took a bite out of a Madeleine cookie, as if they had coiled around him in their softness. That is understood, with being connected to the life of a young artist with an unstable and uncertain situation. The book is a symbol of maturity to broaden thinking due to knowledge. The telephone, radio and travel bag are the most simple tools of time for the unstable young soul to try to communicate with the outside world. KIM Sun-hee's landscape of the room consisted of the things of memory in time is a superimposed time space that goes from the past to the current time, and it makes you meet yourself in your childhood who are slightly different.

The work of <A Wood you look at>(2010), KIM Sun-hee's another work, has her eyes with which she looks at the outside world, while the one of <Room of Memory> is to meet the inner world through memory and is poetically connected with the outside world. This work, consisted of the wood roundly cut in different sizes like a ball, with using cedar, fir, plane tree, oak and zelkova, is horizontally installed on the floor. These various species of wood act as a symbol of the wood. The wood, as an object you look at, becomes the unit of nature including you and show the meaning of the universe. The meaning of the spheres has been much spoken of as symbolism in the Eastern and Western philosophy. The spheres in Eastern philosophy mean the cycle from the seed, beginning of life, to death. The landscape in which the shapes of large and small beads are arranged looks like a ring of life and death human beings and nature have experienced. It might have taken a lot of time and effort for the artist to gain the sphere with a surface made by the touch of a carving knife. She might have worked with fully corresponding to the objects and with bodily accepting the order of nature in the process in which she has worked like a nun. This work is the old wood, as an object, where countless pieces of wood are piled up, and at the same time, it is the whole of beings combined in a broad meaning. The complex sensory experience given by the unique fragrance of wood, the touch of a carving knife and the split of wood makes you experience the vividness that existence itself live as a phenomenon.

The work of <A Wood you look at>(2010), created by connecting the beads made of soap by thread like a necklace, searches for the creation and destruction of the life affected by a material civilization, while the work, mentioned above, does for existence itself, a cosmological essence. The big necklace with the spheres in soft tons of pastel shades mixed with a strong primary installed on the walls and floor or placed on the tilted wooden boards with different lengths. The soap-beads with different shapes and colors represent the human life with identity. Unlike the wood made of wood, with a cosmic perspective of unifying existence and objects, the one of beads made from soap is the 'part' with the formal framework such as a large circle connected with thread like a necklace. The soap beads in various sizes are in the inseparable relationship due to an artificial thread. The shapes of the circular structure of the necklace vary depending on the environment. The necklace installed on the floor and walls or placed on the tilted desk made of ash tree is under the very unstable relationship. And the one, in which individual beads are connected to each other and inseparable, is also under the very dangerous one, in which when a part of it is broken, all of it will collapse.

KIM Sun-hee has tried to represent the ephemeral life by choosing a substance, soap, which is always used in daily life and wears quickly. The property of soap is hard and softens. And its value varies depending on the flavor and ingredients. But it is a limited material which wears off over time, whether it is used or not. The beings with different scents, sizes and colors are just mixed with each other, there is, in them, nothing special in the laws of the universe, That metaphorically expresses the observer's point of view that life is an unstable presence in which beings live having the laws of life and death and treading on unknown ground.

A series of works, <Tent09>, <Safe32>, <Trash Can11>, represent the unstable position in social system through the objects found in reality. The artist's work about unstable sense of identity has more evolved in <Tent09>(2011). Here is installed a minimum of tools to maintain livelihood keeping the memory, such as a teddy bear, blanket, portable pots and pans for camping, pots, books, etc, inside and around the white tent in translucent material placed on an abandoned wooden base. The house as a social sign is a typical private space and a place that is protected and thoroughly disconnected with the outside world. The tent is the artist's house and herself. Her translucent tent is, however, a space which is easily exposed to the outside, fragile, and easy to break up. Nevertheless, it is a house which can be easily installed anywhere. The wooden base, as a minimal safety net, protects the space from water or insects, etc. This abandoned wooden base can be considered as an interpretation of material on an extension of the wood.

The work of <Safe 032>(2011) also shows the state of the artist herself who is arrested or confined in a contemporary social system that emphasizes materials. Here, the artist herself sits in a small safe in solid metal, and next to her, a bottle that contains sugar is placed. The artist's body dressed in black is reminiscent of the one that is dying in the firm material-centered social structure. The body of which substance has remained, without self, will live confined and dye only enjoying comfort in a cushion. The presence of the bottle that contains sweet candies, next to the artist, becomes the sole tool by which she can escape from the harsh social realities by aid of her memories of childhood.

In the excellent work of <Trash Can11>(2011), the artist's artistic theme is well reflected by its chosen objects. KIM Sun-hee has converted a trash can, public-used tool, which can be seen in a large apartment complex or building, into her own comfortable space. She has changed it into a surprisingly reversed, very cozy and beautiful space by soundproofing the walls with sponge in its ill-smelling inside and by installing small bulbs for a Christmas tree, a clock radio, a wooded ladder, a checkered sleeping bag and a globe. A lower symbolic sign of a society of capitalism is reborn as a space for an existential life of eating, sleeping and resting. And she tries the relationship with the outside world through a small, delicate and tender communication device of the coming up and down by the wooden ladder, twinkling light and the sound emanated from the radio. A pure sensitivity that is inferred from the childhood memories existed inside herself, with arousing nostalgia with the non-material device, has sublimated a brutal space into beautiful arts. It would be to strengthen the roots of arts for KIM Sun-hee, a young artist, to experience nature and the surrounding environment with her inner self through deep thoughts. We look forward to her life and art that will be created by a new experience gained from time as an extension of childhood memor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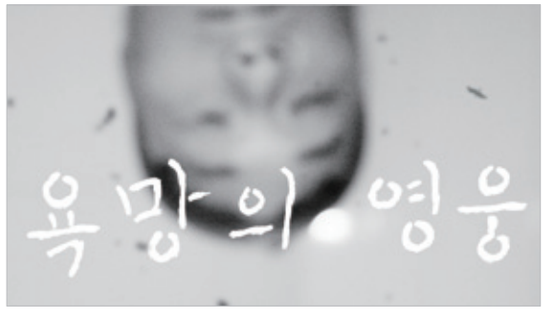
* KIM Mi-jin : Received a Ph.D. degree (Science of Arts) at Université at Paris 1 Panthéon-Sorbonne. Held various posts in succession such as a curator for Europe at 《Gwangju Biennale》(1997), a deputy director of Youngeun Museum, a commissioner at 《Incheon Women Biennale》(2007), a director of Seo Gallery, an exhibition-arts director of Seoul Arts Center, a responsible member of Korean Culture & Arts Council. Serves as a professor at Planning of Arts Dept, the Graduate School of Arts, Hongik University. Written several papers including 「Study on Today's Art seen through a Tendency of Young Artists」, and planed several exhibitions including 《"2009 the Overseas Korean Young's Art Festival : USB Exhibition》(Seoul Arts Center, Seoul, 2009). Works in various fields of activity, as a critic, an exhibition manager and a consultant for operating activities in national and public institu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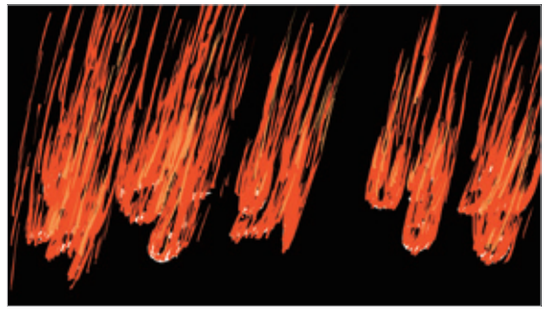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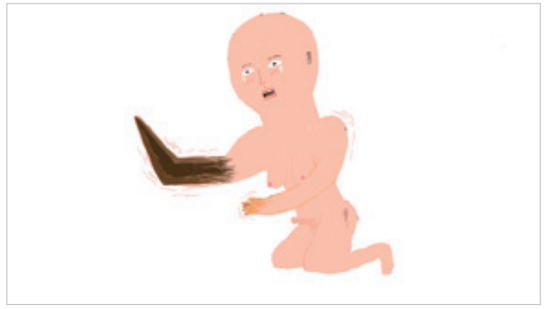
김수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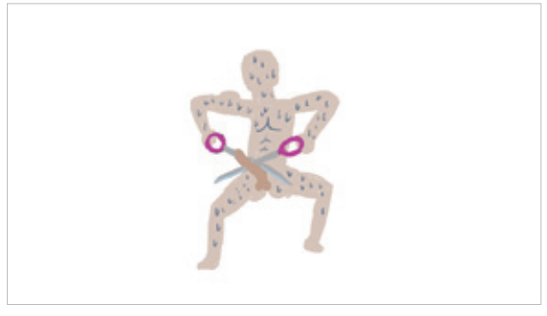
KIM Soohw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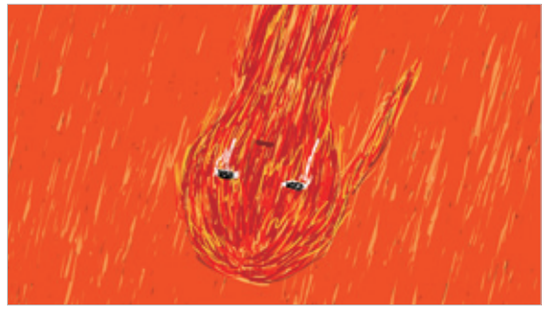
가족
Family
Variable installation Ink, Acrylic on paper, Bulb, LED, Styrofoam 2011-2012

욕망의 영웅
Hero of desire
3min 7sec Single channel video 2012







욕망의 영웅
Hero of desire
Dimension variable Acrylic on paper, Polystyrene 2012

부랑자들
Tramps
15sec loop Single channel video 2013

개인을 위한 낙서
Doodle for personal
Wall painting the creative attitude of that 'Distance' Seoul Art Space_Geumcheon 2012

나는 내가 속한 삶의 모습들을 관찰해 왔다. 그 모습들은 나의 작업에서 욕망의 이미지로 그려지는데 주로 도구와 노동을 통해 억압된 욕망이 아닌 변질된 욕망을 이야기해 왔다.

처음 인간의 노동은 욕망의 실현을 위한 행위였으며 욕망은 도구에 투영되어 그것의 발달과 함께 도시와 사회, 국가라는 시스템을 완성했고 지금의 문명과 역사를 진행해오고 있다. 하지만 개인들의 욕망이 뒤섞인 시스템은 오히려 개인을 물질과 권력에 기대고 사회의 도구로, 물질의 노예로 전락시켰다. 결국 욕망은 거대해지고 충돌하고 좌절하면서, 그러나 여전히 맹목적으로 근본적인 반성 없이 뒤틀린 성욕이나 매체, 폭력 등으로 변질되었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이러한 생각들은 건설현장에서의 경험이나 국가의 산업화를 지나 아직까지도 노동자로 살고 있는 가족, 나의 지역적 환경(인천)들을 바탕으로 작업에 투영되어왔다. 자동차로 변해버린 아버지와 배로 변한 삼촌, 남근을 상징하는 미사일이 떨어지고 있는 도시 등의 작업이 그것이다. 이를 표현하는데 페인팅이나 드로잉, 입체, 사운드와 미디어매체를 이용하여 전반적인 이야기와 현장성을 전달하려 한다.

최근에는 견고히 여겨지던 사회구조와 개인들이 쫓고 있는 욕망이 얼마나 값싸고 어이없는 코미디이며 허술하고 허망하고 반복적인 동시에 비효율적인가에 관심을 두고 있는데, 반대로 이러한 것들 속에 개인의 작은 추억이나 역사들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들이 재개발로 마을이 파괴되고 사람들이 쫓겨나듯 나약하게 흔적도 없이 묻히고 사라진다는 것이다. 내가 본 세상은 절망적이고 슬픈 이야기투성이다. 하지만 언젠가 변질된 채 커져가는 욕망대신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맘껏 웃고 춤추고 떠들 수 있는 순수한 욕망으로 가득한 즐거운 세상이 오리라는 희망을 품고 창작에 몸을 실어본다.

– 작가 노트 –

I have been observing the appearances of my life that I belong to. They are depicted as images of desire in my work, where I have been telling not about repressed desire but about corrupt desire. I have done so mainly through the theme of tools and labor.

At the start of human life, labor was an act to realize human desire. The desire was reflected in tools, which led to completion of the system of city, society and state. It is running the current civilization and history. However, the system where each individual's desire is mixed in confusion rather ruined individuals to depend on material and power, degrading to a tool of society and a slave of material. What I think is that desire became bigger, but it clashed and collapsed while still not reflecting on itself ultimately: It is corrupted as a twisted sexual desire, media or violence. These thoughts are reflected in my work with my personal and local background: I have an experience of working at construction sites, my family is still living as a working class after all those industrialization period and I'm living in Incheon. A figure of a father transformed into a car, an uncle into a ship or a city being bombarded with a missile that symbolizes a phallus are the manifestations of such backgrounds. I intend to convey the general story and verisimilitude by employing painting, drawing, three-dimensional work, sound and a variety of media in expressing them.

Recently, I'm interested in the seemingly solid social structure and the desire that is sought out by individuals in a respect that how they are so cheap, shabby, vain, repeated yet inefficient and being an absurd comedy. On the contrary, there clearly exist small memories and histories of individuals within them. And they are buried and died away with weakness as if towns are destroyed and people are evicted with redevelopment plans. The world as I see it is full of hopeless and sad stories. But I put myself into the path of creation with a hope that there will be a world that is filled with pure desire instead of the corrupt and growing desire, where one can laugh, dance and shout as much as he wants with his loved ones.

- Artist's Note -

노가다를 고찰하다

김지혜(미학)

어느덧 가을이 되었고, 서쪽에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다. 이 여리고 예민한 바람이 흔들지 못할 만큼 농익은 햇살이 어느덧 짜릿하게 내려와 그 남자의 얼굴에 선명한 그림자를 만들었다. 주변을 둘러보니 저마다의 얼굴에 볕이 내려와 있었고, 그림자가 생겨나 있었다. 잠시 동안 고요 안에 머무르며 그 남자는 이 세상 모든 이에게 심지어는 낡고 바랜 자신의 구두 위에 똑같은 양만큼 내리쬐는 태양에 감사했으며, 그 아래서 노동할 수 있다는 데 벅차오르는 감정을 느꼈다. 노동은 그 동안 구축되어온 인간사에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그로 인해 문명은 발달하였다는 게 그의 생각이었다. 그리고 그는 하늘에서 똑같은 양만큼 내리쬐는 태양만큼 똑같이 주어진 신성한 노동 역시 고마움의 대상이라 여겼다. 그의 이러한 감상은 매우 긍정적이며, 낙천적인 것이지만, 역시 그 안에는 지나치게 낭만적인 구석이 있기도 하다.

레프 니코라예비치 톨스토이는 『부활』에서 헨리 조지의 '지대공유론'을 인용하며 "땅은 모두의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꼭 같이 땅을 가질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그리고 땅 위에 살면서 땅에서 나는 소산으로 먹고 살 수 있다는 가능성은 언제나 가장 행복하고 독립된 개인의 삶에서 주요한 조건 중 하나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톨스토이의 의견에도 역시 다소 낭만적인 면이 있다. 실제로 노동은 모든 이에게 같은 양만큼 주어지지 않았으며, 노동을 하는 자와 그들이 생산한 상품을 향유하는 자는 분명히 구분되어왔기 때문이다. 고로 막심 고리끼는 결국 그의 사유와 결별했는지도 모르겠다. 육체로 노동의 다양한 영역을 골고루 경험한 그에게 톨스토이의 노동론과 아나키즘은 현실 저 편에 있는 것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었을 테니 말이다.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질문할 수 있다. 노동에 대해 말할 때 진정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노동의 경험이 선재해야 하는가? 진정성은 절절한 체험과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만 가능한가? 대답은 아마도 "우선 그렇다"가 될 것이다. 더욱이 "노동은 다른 동물과 구별하도록 하는 인간의 본질적 속성으로서, 즉 인간 자신을 유적 존재로 실현하고 증명하도록 해주는 것"이라는 마르크스의 말처럼, 노동은 생각보다 신성하고, 존귀한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위의 질문들에 대한 또 다른 대답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노동의 영역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인가라는 새로운 질문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진정성'이라는 것은 깊은 반성과 성찰 그리고 타자에 대한 진심어린 관심과 타인의 삶에 대한 심적 개입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작가 김수환의 작업을 말하기 위한 것들이다. 그의 가족사는 대한민국의 격변적인 현대사와 함께하였으며, 또한 섬세한 노동의 변천사에 걸쳐져 있다. 더욱이 그의 조모와 아버지, 삼촌 그리고 동생까지 몸담고 있는 노동의 터전은 우리 근현대사에서 가장 확실한 변화의 지점을 찍어온 인천이다. 고로 그에게 '노가다'는 가족처럼 친근한 것이며, 고마운 것이며, 또한 어느 지점에서는 불편한 것이며, 어려운 것이기도 하다.

김수환은 여러 작업의 방식을 통해 '노가다'의 다양한 면모를 보여주었다. 인천 재개발 지역 한복판에 집-이 집은 후에 강제 철거되었다-을 짓기도 하였고, 직접 내부를 꾸며 전시공간을 만들기도 하였다. 또 공사장에서 노동을 하며 친숙해진 도구, SINO에 호흡을 불어넣어 식물처럼 키워내기도 하였으며, 장난감으로 만들어 관객들에게 제공하기도 하였다. 그의 작업에서 두드러진 특징이 있다면, 이 모든 맥락이 우울과 어두움으로 점철되어 있지 않다는 것과 작품 속에 그 만의 특유한 유머와 위트를 불어넣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점에 대해 되뇌어 보면, 우리는 '노동'이 현실이 되고, '실제'가 될 때, 모든 노동자가 노동의 향유자에 대한 반감과 적개심으로 '노동'을 하지 않으며, 그것은 긴 시간 동안 미시적 삶들의 원천이 되고, 더욱이 때로는 고맙고 감사한 것이 될 수 있으며, 때로는 즐거움을 주는 것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 마찬가지로 그것이 삶이 될 때, 얻게 되는 고달픔과 버거움은 더욱 깊이 있게 드러나기도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때 도출되는 표현들은 지나치게 낭만적이거나 과격하지 않다. 마치 박영근의 담백하면서 위트 있는 시처럼 말이다. 누군가 지적한 바대로, 경험하지 않은 자들의 표현은 지나치게 강렬하거나 지나치게 냉철할 가능성이 높다. 그것은 때로 지나치게 낭만적이거나 감상적으로 흘러가기도 하고, 분석적이거나 과학적으로 흘러가기도 한다. 하지만 김수환이 획득하고 있는 것은 그것 안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되 그 현상으로부터 거리를 두어 담백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의 작업 중에서 특히 드로잉과 텍스트들은 강한 인상을 남긴다. 그의 손끝에서 다양한 장면들은 담백하게 피어나고, 성장하여 화려하지는 않지만 생명력 있는 식물군을 이루고 있는 것만 같다. 그의 드로잉은 일견 톨스토이보다는 고리끼와 닿아있다. 확실히 체험과 경험 그리고 지극히 미시적인 가족사로부터 작업이 출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마치 랑시에르가 알튀세르를 비판한 것과 맥락이 유사하지만, 고리끼와 김수환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고리끼의 처절한 절망감이나 적개심의 무게가 덜어졌다는 사실일 것이다.

또한 솔직하고 담백하게 써내려간 다양한 글들도 '진정성'을 담보로 신선한 감동을 준다. (실제로 작가는 상당한 문학적 감수성을 지니고 있는 듯하다.) 모두가 뇌세포를 자극할 정도로 강렬한 자극과 심장을 울릴 만큼 센 감동을 주고자 하고, 그러한 것들이 예술의 덕목이라도 되는 것 마냥 여기는 시대에, 여리지만 진정성 있는 자극으로 우리의 마음에 와 닿는 김수환의 작업들은 긴 여운을 남긴다. 그것은 마치 어느 가을 날 내려와 나와 당신의 얼굴에 같은 그림자를 만드는 농익은 햇살이 주는 짙은 감동과도 같다.

* 김지혜는 홍익대학교 미학과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숙명여자대학교 미술사학과 를 수료하였으며, 홍익대학교 미학과 박사과정에 재학중이다. 대안공간 루프, KT아트홀, KTF갤러리 등에서 큐레이터로 일했으며, 독립큐레이터로 《두리안 세 번째 파이공장》(서교예술실험센터, 서울, 한국), 《두리안 파이공장》(호치민미술대학, 호치민, 베트남), 《후인마이의 편지》(KT&G 상상마당, 서울, 한국), 《이모를 찾아라》(서교예술실험센터, 서울, 한국), 《공가공갈단》(문화일보갤러리, 서울, 한국) 등을 기획하였으며, 다양한 매체에 대중과 아동을 위한 글쓰기 작업을 하고 있다.

Consideration on "Nogada" (construction workers)

KIM Ji-hye(Aesthetics)

Now that fall is here, and the wind has begun to blow from the west. The brilliant sun which this soft and keen wind couldn't shake was beating down, throwing hard-edged shadows on the man's face. As he looked around, the sun was beating down on everyone's faces, and shadows appeared. Staying within the stillness for a while, the man was thankful to everyone in the world, and to the sun for equally beating down on even his old, faded shoes, and then he felt overflowing emotions for being able to labor under the sun. He thought labor had played a more important role than anything else in human history and civilization had developed due to labor. And he regarded a sacred labor, which was equally given, as an object of gratitude, like the sun which beat down equally from heaven. His thoughts were very positive and optimistic but also excessively romantic.

Citing Henry George's 'theory of Land Sharing', Lev Nikolajevic Tolstoj said, in the novel 『Resurrection』, "Land belongs to all people. All of them have the right to have it equally." He also said that the possibility that you could live on the land and live on the fruits produced on the land was always one of the major conditions in the most happy and independent life of an individual. But Tolstoj's opinion is also somewhat romantic. That's because labor, in fact, isn't equally given to everyone, and people to labor and people to enjoy the products produced by laborers have been clearly separated. For that reason, Maxime Gorikki might eventually declare his intent to separate from Tolstoj. That's because Gorikki, who evenly experienced various areas of labor in flesh and blood, could not help considering Tolstoj's labor theory and anarchism as the things that were at the other side of reality.

We can, here, ask questions as follows. Should the experience of labor preexist in order to achieve authenticity when speaking of labor? Can authenticity be achieved only through intense experiences and active participation? The answers will probably be "Yes, first". That's because, like Marx's words, "Labor is a human intrinsic property to distinguish human beings from other animals, in other words, labor makes human beings realize and prove themselves as their presence", labor is sacred and honorable than you might think. However, you can differently answer to the above, that is, "There is a possibility that it seems not". That's because you can bring up a new question that the area of labor is from where to where. That's also because 'authenticity' is possible when it is equipped with a deep reflection and introspection, a sincere interest in others and a mental intervention in the lives of others.

These stories are for speaking of the work of KIM Soo-hwan, artist. His family history has sunk or swum together with the sudden changes in Korean modern history, and it has been related with the whole changes that has taken place in labor. Moreover, a base for labor which his grandmother, father, uncle and brother have been in is the city of Incheon which has marked with the most obvious point of change in our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Therefore, the 'Nogada', construction workers, is, for him, familiar and grateful like family as well as uncomfortable and inaccessible at some point.

KIM Soo-hwan has showed various aspects of 'Nogada' through the several methods of work. KIM built a house in the middle of Incheon redevelopment area-the house was demolished by force afterward- and also did an exhibition space by directly decorating the interior. Also, KIM infused life into SINO, a tool which became familiar with him during laboring on construction sites, raising it like a plant, and made toys from it, offering them to spectators. The distinctive features of his work are that the context of all this is not marked by melancholy and darkness and that he infuses his own peculiar humor and wit into the works.

When we think again about this point, we will know the fact that, when 'labor' becomes a reality and 'real', all the laborers won't 'labor' with the hostility and antipathy against the people to enjoy the labor of others, and that labor will become the source of microscopic lives for a long time, and be sometimes grateful and thankful to us, and be sometimes able to give us pleasure. And also, we will realize the weariness and tiredness gained when labor becomes life will emerge more deeply. However, the expressions derived from this are not overly romantic or radical, just like PARK Young-geun's light and witty poetry. As someone pointed it out, it is likely to be excessively intense or realistic that those who have not experienced it express their opinions of it. Their opinions are sometimes biased; overly romantic and sentimental, or analytical and scientific. But what KIM Sou-hwan has acquired is that KIM talks of the phenomenon with candor, by being deeply involved in it but keeping his distance from it.

Especially the drawings and the texts, of his work, leave a strong impression. It seems that various scenes are created with candor from his fingertips, grow up, and form a flora which isn't splendid but has vitality. His drawings are, at a glance, more connected with Gorikki than Tolstoj. That's because his work certainly starts from his own experiences and his very microscopic family history. This can be understood in the same context as Rancière criticized Althusser, but the difference between Gorikki and KIM Sou-hwan would be that Gorikki's weight of despair or hostility has been relieved.

In addition, the various texts written by KIM very openly and with candor give us a fresh impression with 'authenticity'. (In fact, the artist seems to have a considerable literary sensibility.) In these times when all people try to give a stimulation that is strong enough to stimulate brain cells and an impression that is intense enough to pound hearts, and when they consider all these things as the virtues of arts, KIM Sou-hwan's work which touches our hearts with a weak but authentic stimulation leaves a good taste for a long time. It's like a brilliant sunlight, which comes down an autumn day and creates same shadows on my and your faces, makes a deep impression.

* KIM Ji-hye : Graduated from the master's course at the Dept. of Aesthetics, Hongik University, and finished the Dept. of Art History, Sookmyung Women's University, and now is in the doctor's course at the Dept. of Aesthetics, Hongik University. Worked as a curator at Alternative Space Loop, KT Art Hall, KTF Gallery, etc, and planned, as an independent curator, the exhibitions including 《Durian Third Pie Factory》(Seogyo Arts Experiment Center, Seoul, Korea), 《Durian Pie Factory》(Ho Chi Minh City Fine Arts University, Ho Chi Minh, Vietnam), 《Huynh Mai's Letter》(KT&G Sangsangmadang, Seoul, Korea), 《Look for an Aunt》(Seogyo Arts Experiment Center, Seoul, Korea), and 《Gongga Gong Galdan》(Munwha Ilbo Gallery, Seoul, Korea). She has written for the public and children in a variety of media.

김시하

2010년부터 현재까지 전개해온 〈Real-fantasy〉 연작 사진작품 중 하나이다. 2012년 제작한 〈White Out〉과 〈눈의 여왕〉 등으로 전개되는 과정에 위치한 작품으로 사진 및, 드로잉, 조각 등 복합설치중 그 일부이기도 하다. 〈Real-fantasy〉는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를 다룬 작품으로 실재의 나와 이상적인 나와의 괴리감에서 오는 낯섦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다. 현실과 존재하지 않는 이상적인 세계의 간극-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자연적인 것과 인공적인 것처럼 삶을 구성하는 현실적인 환경과 이상적인 환경-을 통해 발생하는 당황, 낯섦, 욕망, 상처와 같은 심리적 요소, 거기서 유추하게 되는 실제의 삶과 관계맺기는 인공적인 환경을 통해 거꾸로 삶을 들여다보며 치유해나갈 수 있음을 내포한다. 그녀는 현재 중국과 한국을 오가며 작업중이다.

KIM Siha

This work is part of the on going photo series <Real-fantasy>. A project that began in 2010. The current display is linked with the procession of the other two works <White Out> and <Snow Queen> and is also part of installation art piece consisting of photos, drawings, sculptures and more. <Real-fantasy> is an art work that focuses on boundary between reality and imagination, and thus, deals with unfamiliar gap deriving from me in the real world and me in the ideal world. The psychological elements of bewilderment, unfamiliarity and hurt that spring within the gap of reality versus the non-existent ideal world; of things that can be seen versus that cannot be seen, of realistic environment formed of natural and artificial goods versus purely ideal environment helps one to analogize the way to reach out to the actual life. By studying the artificial world, one would be able to reflect on reality and began one's healing there. Now She lives and works in Seoul, Korea and Bejing, China.

Real fantasy 4
140×96cm Digital print 2011-2012

Real fantasy 2
74×110cm Digital print 2011-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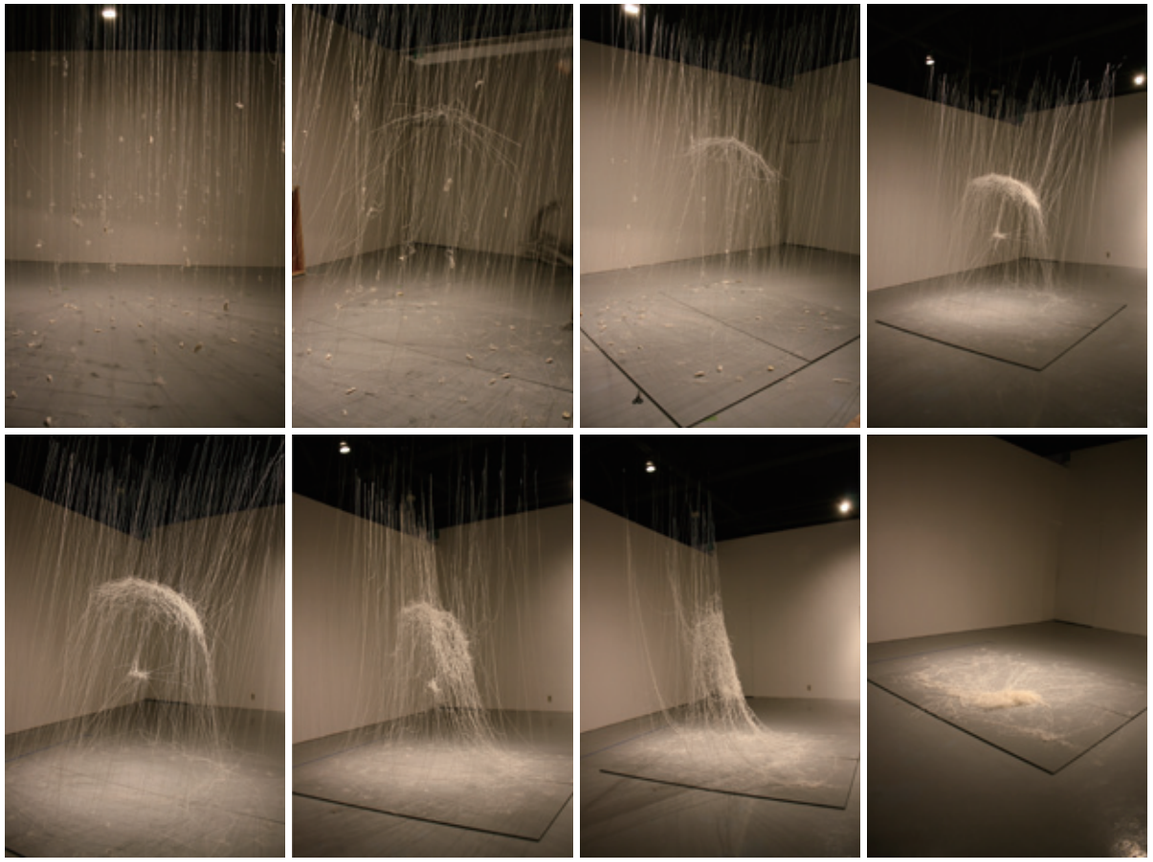
Real fantasy
Installration 350×500×540cm Mixed media 2012

김윤아

KIM Yunah

숲
Forest
70×70×30cm Thread, Wood, Stainless steel, Mixed media 2012

비
(it) Rains
Installation Thread Arko Art Center 2012
작품 철수과정 The work pullout process



비
(it) Rains
Installation Thread Arko Art Center 2012

모호한 경계선

미즈타 사야코(독립 큐레이터)

1. 모호한 경계선

김윤아 작품의 시작과 끝은 어디인가? 대부분의 화가들은 종이나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지만, 김윤아는 공간을 기본 매체로 작업한다. 관객은 이 작업에서 대담함을 느끼고, 심지어 신체적으로도 작품을 느껴볼 수 있다. 김윤아의 작품은 분명 구체적인 형체를 갖춘 예술작품(Objet d'art)이지만, 그 경계가 모호하다. 그녀의 작품은 정해진 공간과 장소의 한계를 교묘하게 빠져나가면서, 한편으로 면이나 나일론 실 혹은 철사나 낚싯줄과 같은 소재를 통해 다시 공간으로 끌어들이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선"은 단순하게 경계선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부와 외부의 두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람의 피부와 견주어 볼 수 있다. 관객들은 작품을 느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접 경험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신체 또한 느끼게 된다. 대부분의 경우, 관객들은 작품의 설치공간 안으로 지나치게 깊숙하게 들어가면 작품을 보고 관찰한다기 보단 감지하고 나오게 된다.

김윤아의 작품은 작가 자신과 소재뿐 아니라 작품의 내부에서 물리적으로 작품을 경험하게 되는 관객들의 에너지 전체를 보유한다. 이 작품들은 단단하고 강한 벽이라기 보다는 창문이나 문처럼 들어가고 나올 수 있는 것과 같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관객들은 작품에 가까이 접근하고 세밀한 부분까지 관찰해서는 작품 전체를 파악할 수 없다. 이것은 엄격한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 전통적인 청동 조각상이나 찰흙 조각과는 다르다. 이것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오히려 지속적으로 형태를 바꾸는 형식의 예술작품에 가깝다는 것이다.

2. 피부로서의 김윤아의 작품

김윤아의 작품에서 받게 되는 인상은 피부이다. 이러한 작가 내부의 힘과 에너지는 공간과 소재로 인해 더욱 고무 되고, 작품 안에서 끊임없이 변형되고 변화된다. 피부는 표면인 동시에 내부와 외부의 경계이다. 피부는 내부 압력으로 형성되고, 또한 외부 자극에 의해 할퀴어지거나 흔적을 남기게 된다. 이는 몸을 감싸는 세포이면서 동시에 신체 외부와 끊임없이 상호 작용하는 감각의 수용체로서 인간 신체 기관의 하나로 기능한다.

무엇보다도 그녀의 작품은 융통성이 있으면서도 신중하다. 장기간에 걸쳐 설치된 실은 동시다발적인 방식으로 조용하게 확장되고 축소되며 때로는 끊어지고 다시금 확장된다. 피부 표면의 세포가 매일같이 떨어져 나가고 지속적으로 새로운 조직으로 교체되듯이, 우리는 이 작품들 속에서 지속적인 업데이트 시스템을 찾아볼 수 있다. 이 작품들은 반복적으로 설치되었다가 해체되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를 새롭게 변형시킨다. 이러한 점에서 작가는 기존의 회화나 조각과는 달리 작품을 정지된 시간 안에 붙잡아 봉인해 두지 않는다. 김윤아의 작품은 이 세계와 사회가 그렇듯이 끊임없이 변화하여 진화된다.

김윤아의 작품은 정밀하고 조심스러운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어 가며 다시금 새로워지는 작품세계를 구조화해간다. 신생아들이 주변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가장 먼저 사용하는 기관은 입이다. 신생아들은 사물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사물에 입을 가져가 빨아본다. 그러나 성장 과정을 통해서 손과 눈을 사용하면서 사물의 형태와 감각을 연결할 수 있게 된다. 더 많은 시간이 지나면, 아기의 시각이 변하고 세계에 대한 인식 역시 변하게 된다. 태어나면서 즉시 걸음마를 시작하는 다른 포유류 신생아와 달리 인간은 세계를 인식하고 자신의 역량을 이해하는 데에 좀 더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만큼 더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한다. 어떤 관객들은 마치 신생아가 세계를 인식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작품을 바라볼 수도 있을 것이다. 작가에게 있어서 예술작품을 창조하는 과정은 자신의 세계를 어떻게 인식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찾아 가는 여정인 셈이다. 그것은 또한 갑자기 떠오르는 질문에 답하고 감상을 다루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중간 과정이기도 하다.

3.《방》

작가의 작품에서는 신체 부위를 포함한 몸과 피아노, 하이힐, 의자와 같은 주변환경의 물체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이는 작가와 작가를 둘러싼 세계를 상징하는 매개체이다. 이것이 지속적으로 그리고 복잡하게 새로워지는 것처럼 작가 자신 역시 끊임없이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업데이트한다.

그 중 하나인 "방"은 새나 나방(bagworm:도롱이 나방)의 둥지 같은 따스하고 안전한 공간을 표현한 설치작업이다. 얼핏 나무 오두막처럼 보이는 이 작품은 둥지처럼 보이는 형태가 우리에게 편안한 느낌을 준다. 그러나 한 편으로는 절반으로 두 동강이 나있는 거칠고 불편한 인상을 받았을 수도 있다. 오두막에 매달려 있는 철사로 만들어진 얇고 작은 의자는 부서질 듯 불안한 모습을 하고 있다. 이 의자는 작가 자신과 세계, 그리고 이 사회와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가늘고 얇은 이 철사는 비교적 견고하다. 이 작품에서 사용된 목재와 석재 같은 다른 소재도 분명 깨어지고 부서질 수 있겠지만, 철사로 만들어진 이 의자는 어느 정도의 외부 공격도 감당해 낼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은유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이 사회를 이해하고 그 안에서 생존해 나갈지와 긴밀히 연관되어있다. 그것은 외부로부터의 충격을 흡수하고 다음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그것의 형태를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이 작품은 경계에 대한 모호함을 유지하면서도 외부 공격을 감안해서 필요한 힘을 유지한다. 결국 변화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바로 힘의 열쇠이며, 그 열쇠는 외부의 자극을 통해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마치 누군가 그 의자 위에 앉아있다가 방금 전에 일어난 것처럼 보이게 하는 물리적인 측면이다. 비록 이 의자 위에 누군가가 실제로 앉아 있을 수는 없겠지만, 가벼운 움직임이 더해지면서 이 의자는 마치 살아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또한 의자를 구성하고 있는 선들은 종이 위에 자유롭게 그려진 그림처럼 아주 정교한 방식으로 엮이어 모든 방향으로 뻗어나가고 있다. 이러한 지속적인 존재감과 변형이 이 작품의 중요한 성격 중 하나이다.

작가의 작업과정이 전통적인 표현 방식을 따르지 않고 있으므로 비록 특정 한 장르로 작품을 규정짓기는 어렵지만 작품 기저에 있는 예술의 정수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을것이다. 작가는 대학에서 조각을 전공했지만 조각가에게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엄격한 기술과 테크닉을 사용하는 기존의 조각 방식에 대해 상반된 감정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작가는 사색적이면서도 유동적인 작품을 추구하기 시작했고 자신 내부와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작품활동을 지속해왔다.

막스 베크만(Max Beckman)이 비정상적인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사람을 묘사했던 〈죽음〉이라는 작품에 대해 평론을 썼던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의 애니메이션 아티스트인 윌리엄 켄트리지(WILLIAM Kentridge)의 글이 떠오른다. 막스 베크만은 퇴폐적인 예술가로 낙인 찍히면서 나치 시대에 끔찍한 전쟁을 경험했으며 많은 억압을 받았다.

막스 베크만의 작품 〈죽음〉(1983)은 위험에 처한 모든 영혼의 등불이다. 타협하는 사회의 존재를 수용하되, 그 가치의 모든 의미를 배제하거나 타협을 못 본 척 그냥 넘어가지도 않는다. 그것은 낙관론이 억제되고 허무주의가 저지된 지점을 표시한다. 바로 이 좁은 틈에서 비정상적인 자신의 상황을 인식하면서도 생계를 이어나가며 작업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된다. 거대한 사회 변동의 가장자리에 서 있지만, 나는 그러한 변화에서 배제되어 있다. 사회 변혁의 직접 참여할 수 없으면서도, 마치 이러한 격동적인 변화가 없었던 것처럼 행동할 수는 없다.
적극적인 참여도 아니고 무관심한 관찰도 아닌 그 지점이 바로 작업의 시작점이며 나의 작업 공간이다. 이것이 주제가 될 필요는 없다. 작업 그 자체는 이러한 지점의 가장자리를 맴돌게 되는 무수히 많은 일탈이라 할 수 있다.

–윌리엄 켄트리지, "What we see & What we know" 27P, 2009, 도쿄 현대미술관 전시도록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현실계에서 베크만과 김윤아는 객관성과 평정심을 유지하는 동시에 유동적인 관점을 유지한다. 그러면서 이들은 직면하고 있는 변화를 절대 무시하지 않을뿐더러 작가로서의 자신이 나아갈 길을 향해 전진하는 데 초점을 두지도 않는다. 이는 기성 예술계의 표현 방식과는 다른 이들만의 비형식적인 부분과 관련이 있다. 분명한 것은 일시적이며 융통적이지 않으며 가변적인 움직임으로 구성되어 있는 김윤아 작가의 작품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확장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 미츠타 사야코는 일본 무사시노 미술대학에서 예술정책경영학 석사학위(2006년)를 받았으며, 예술경영과 현대미술이론, 일본의 현대미술역사를 전공했다. 이후 2년간 2008년까지 도쿄원더사이트에서 부수석 큐레이터로 근무했다. 이후 2009년부터 독립큐레이터로 전시와 예술행사를 주최하고 평론활동을 펼쳐왔다. 독립 큐레이터로 작업하면서 사야코는 같은 세대의 신진 작가를 소개하는 데 주로 집중해왔다. 일본 아이치현에서 주최하는 국제 예술축제인 2010년 아이치 트리엔날레(Aichi Triennale 2010) 전시제안 수상을 받아 "피부 & 지도 : 몸과 감각에 대한 4명의 작가들의 연구(Skin & Map: the study of body and sense by four artists)"(2010)라는 제목으로 전시를 이끌기도 하였다. 이번 대회 입상 이후, "피부 & 지도 2: 기억과 시간에 대한 접근(Skin&MAP2: approaching memory and time)"(2011) 등 여러 전시의 기획을 맡았으며 "여행자의 여행자 이야기 1–4(Voyager in Voyager out vol.1–4)"(2012)라는 제목의 전시 시리즈에서 큐레이터로 작업하기도 하였다.

Ambiguous Boarder Line

MIZUTA Sayako(Independent Curator)

1. Ambiguous Boarder Line

Where the artworks of KIM Yunah begin and end? While most painters use paper or canvas as their base medium of paintings, she uses space as her base medium. Spectators may sense the boldness of her works, and they can even physically feel her works. Her works are certainly concrete objet d'art, however their border is ambiguous. While her works escape the limit imposed by space and place, her works seems to be drawn into spaces through the medium of cotton, or nylon threads, or metal wire, or fishing line. These "lines" function not only as a boundary line, but also like human skin in the sense that both sides – inside and outside – have their own functions. Additionally, spectators can feel not only her works, but also their own bodies by experiencing her works. More often than not, they enter too deep into the space of her installation, and there they sense the scenery rather than seeing it.

Her works retain the energy of entities: not only that of artist herself and materials, but also that of spectators physically experiencing her works from inside. Note that her works are not strong and solid as wall, but are able to be entered and leaved like a window or a door. As aforesaid, one, approaching to her works and gaining entry into their details, cannot grasp the overview of her works. In addition, her works are different from traditional bronzed or clay sculptures, created in a certain widely-accepted process. One may understand that one of important characteristics of her works is that they are closer to drawings, which continuously alter their formation.

2. KIM Yunah's Works as Skin

The impression, which her works delivered, is skin: The inner energy of the artist and the power is stimulated by spaces and materials, which endless are altered and transformed in her works. Skin is a surface and at the same time, a border of inside and outside. Skin is created by inner pressure, and is also scratched and traced by outer stimulations. It is cuticle wrap of a body, while it also is one of human organ functioning as a sensation receptor, which constantly interacts with the outside of the body.

Basically, her works are flexible and gentle. Threads, which have been installed over a long period of time, extend and shrink quietly and coincidentally, and sometimes break off and extend again. As, the surface of skin falls off every day and is replaced by a new layer constantly, what one can find from her works is the system of continuous updates. Her works are also installed and uninstalled repeatedly, and in the process, her works transform themselves into new works. In this sense, her works, unlike existing paintings or sculptures, are not statically preserved or capture the time and freeze it in them. They are updated continuously as the world and society are.

It seems that her works, continuously updated, construct her world which also is renewed minutely and carefully. For a newborn infant, the first organ, which they use to recognise his surroundings, is his mouth. He sucks things to understand what they are. As he grows up, he links shapes and senses of things by using his hands and eyes. Over time, his optic angle is shifted and his recognition of the world again changed. While mammal infants start to walk by themselves immediately after their births, human infants take a long time to recognise the world and understand what they are capable of slowly and carefully. One may see KIM Yunah's works in the same way that infants recognise the world. For Kim, the process of artistic creation is a way to find out how she may recognise the world. It is the preceding phase, at which she deals with the questions raised and senses arisen, and find acceptable answers, so that she can move on to the next phase

3.《A Room》

In her works, body including body parts and her surroundings, such as a piano, high-heels, chair, etc, are repeatedly presented. As aforementioned, these are the media representing her and the world surrounding her: Like the worlds, which are renewed constantly and complicatedly, surrounding her, she also is changing and updating herself ceaselessly.

One of her works, "A Room", is an installation, expressing a warm and safe place like a nest, built by a bird or bagworm, presented in a space of exhibition. One, who sees the wooden cabin, may feel relieved at a glance, as they may feel the same way with a nest, but one may also sense roughness and rudeness as the cabin is cut in half. A fine and thin chair, made of metal wire and dangling inside the cabin, looks fragile and feeble, however this chair, standing alone in a desolate place, finds its shelter from a windy storm inside the cabin. Here, the artist endeavors to presen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rtist herself and the society or the world.

The metal wire is thin and fine, but in fact it is relatively strong. While the other materials used in this piece, such as wood or stone, may get broken, the glittering chair, made of metal wire, is capable of bearing a substantial attack from the outside. This is not only a simple metaphor, but also is tightly related to the way how we understand this society and survive in it: It can absorb a shock from the outside and adjust its form to be prepared for the next attack. Again, this work, in which attack from the outside is also taken into consideration, retains its strength while maintaining the ambiguity of border. In other words, its variability is the key to its strength, and that can be achieved by stimuli from the outside.

Furthermore, another interesting point one should bear in mind is associated with its physical characteristic: It looks as if someone sat on it earlier and left just now. Although this chair cannot be sat in verity, the subtle wiggling of the chair makes it looks alive. In addition, as if free-hand drawing on paper, the lines, constructing the chair, are woven in a very sophisticated manner, and stretch in all directions. This continuous becoming and transforming is one of importance characteristics of this work.

Although she does not follow the traditional way of expression in creation and it is difficult to categorize her works into a specific genre, one can see the essence of art on the basis of her works. She majored in sculpture in university, however she started to develop conflicted feeling on the conventional making process of sculpture which rigidly requires sculptors to be equipped with a certain skills and techniques. To resolve this conflict, she has pursued ponderous, yet very flexible works, and continued her creation with endless interaction with her inner Self.

Accordingly, it reminds me of the text of WILLIAM Kentridge, an animation artist from South Africa, about MAX Beckman's painting, titled <Death>, which describes a man surrounded by anomaly people. Max Beckman was faced with horrible wartime, and experienced suppression under the Nazi Regime, because he was branded as a degenerate artist.

MAX Beckman's painting, <Death>(1983) is a beacon for endangered souls. It accepts the existence of a compromised society and yet does not rule out all meaning or value, nor pretend these compromises should be ignored. It marks a spot where optimism is kept in check and nihilism is kept at bay. It is in this narrow gap that I see myself working - aware of and drawing sustenance from the anomaly of my position. At the edge of huge social upheavals, yet also removed from them. Not able to be part of these upheavals nor to work as if they did not exist.
This position -neither active participant nor disinterested observer -is the starting point and the area of my work. It is not necessarily the subject of it. The work itself is so many excursions around the edge of this position.

-WILLIAM Kentridge, p. 27 "What we see & What we know", 2009, catalogue of museum of modern art Tokyo

In the real world, which continues to change, it is obvious that both Beckman and KIM Yunah have a flexible viewpoint, while keeping their objectivity and equanimity. By doing so, they never ignore the changes which they face with, and they do not simply focus only on moving forward and going their own ways as artists. This is related to their informality, different from the conventional way of expression in the established art world. I am certain that her works, which consist of layers of temporary, non-fixable and variable moments, will continue to update and extend themselves in the future.

* MIZUTA Sayako received a master's degree in Arts Policy and Management in 2006 from Musashino Art University in Japan. Her areas of concentration includes art management, contemporary art theory and Japanese modern art history. From 2006 through 2008, she has worked as a chief assistant curator at Tokyo Wonder Site, an art center run by the Tokyo Metropolitan Government. Since 2009, after finishing her services at Tokyo Wonder Site, she has been organizing exhibitions and art events, as well as writing exhibition reviews on a freelance. After being an independent curator, she has mainly focused on introducing emerging artists of her generation. In summer 2010, her exhibition proposal was accepted by the curatorial competition of the Aichi Triennale 2010, and international art festival hosted by Aichi prefecture in central Japan. The title of the exhibition was "Skin & Map : the study of body and sense by four artists" (2010). After winning the competition, she has curated the series of exhibitions, under the title of "Skin&MAP2: approaching memory and time" (2011), In addition, she also has curated the exhibition series, titled "Voyager in Voyager out vol.1-4"(2012).

김창기

KIM Chang-ghi

놓여지다
In some place
600×600×300cm Wire, Natural stone, Welding 2012

흐르다
Flow
75×95×140cm Mixed media 2012

놓여지다
In some place
600×600×300cm Wire, Natural stone, Welding 2012

흐르는 돌
Running stone
27×20×33cm(each) Wiring, Natural stone 2010

먼지
Dust
800×90cm, 530×190×17cm Wiring, Natural stone, Mixed media 2013

이질적 요소의 병합을 통한 변증법적 확산

하계훈(단국대학교 교수)

돌과 철을 주재료로 작업해 온 김창기의 작품들은 현대성 혹은 동시대성이라는 개념에 잘 부합한다. 작가는 조각의 정통 어법에 충실히 기초를 둠으로써 기본적인 조형훈련을 받아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자신이 활동하는 시대의 조형적 사유와 확장된 공간 개념에 대한 담론을 유도하는 작품으로 표현 영역을 확장시키고 있다. 김창기는 자신의 작품을 통해서 조각과 소조, 시각과 촉각, 채움과 비움, 현실과 상상과 같은 대립적 항목에 대한 사유를 유도함으로써 현대 조각개념의 변증법적 발전과 확산을 추구하고 있다.

김창기가 선택하는 재료는 자신의 주변과 활동의 궤적 안에서 발견되는 것들로 이루어진다. 주로 돌과 철을 사용하는 작가는 돌의 사용에 있어서 자연의 모습 그대로의 재료들을 가능한 한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작품의 일부로 편입되도록 유도한다. 이탈리아 유학을 통해 대리석을 다듬는 과정을 수없이 반복해 온 작가가 매끄럽고 세련된 대리석과 달리 인공적 변형을 최소화하고 자연 그대로의 상태에서 서로 다른 느낌을 주는 돌들을 하나로 조합함으로써 태어나는 작품에 관심을 돌리게 되는 것은 아마도 그가 태생적으로 몸속에 지니고 있는 자신의 유전자와 그로부터 형성된 자기정체성과도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알다시피 우리나라에서 대리석은 그리 흔한 재료가 아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도 고궁 건축으로부터 서민들이 사용하는 맷돌에 이르기까지 울퉁불퉁한 재질의 돌들이 우리 생활의 주변을 장식하는 대표적인 석재였다. 작가로서의 조형훈련을 위하여 먼 곳을 돌아 고향으로 귀환한 김창기가 이러한 돌들을 발견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것일 것이다. 게다가 작품 활동과 함께 숙성된 작가의 의식과 사유가 자연스럽게 자신의 문제, 주변의 모습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것도 시간의 흐름에서 자연스런 변화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김창기가 사용하는 재료로서의 돌이 자연을 상징한다면 그가 사용하는 또 하나의 재료인 철은 자연의 대척점으로서의 '인공적인 것'의 위치에 놓이게 된다. 역사적으로 볼 때 자연을 극복하고 지배한 역사의 대표적인 물질로서의 철은 전쟁을 위한 무기의 재료였으며 근대사회의 산업혁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유용하게 발명된 각종 기계와 장치들의 주된 재료였다. 다시 말해서 철은 자연을 극복하고 점령하면서 인간의 인공적 편익을 추구하는데 앞장섰던 대표적인 재료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김창기는 이러한 철을 철사 형태로 작품에 도입하여 용접과 연마 과정을 거쳐 오브제로 형성하며 특히 자연의 석재와 결합시킴으로써 자연과 인공의 대립적 결합을 시도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돌과 철로 이루어진 작품에는 돌이 주는 조각적 중량감과 철로 구성된 매스가 전달하는 볼륨감, 자연적인 것과 인공적인 것, 질감과 공간감 등의 대조적인 요소가 콘트라스트를 이루며 출발하여 자연의 순환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재료의 연마와 부식 등에 의해 자연스럽게 변화해가면서 이질적인 두 용소가 동질화되가는 과정 등을 담게 된다.

이처럼 김창기의 작업은 창작 과정에서부터 작업의 종료, 그리고 제작이 완료된 이후의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변화하는 작품의 변화를 모두 포함하는 성질을 지니고 있다. 말하자면 김창기의 작품에서 완성과 종료의 순간은 과정과 진행의 현상에 의해 유보되고 연장되고 있는 것이다. 작가는 이러한 자신의 작품을 '순환'의 개념으로 제시하고 있다. 김창기의 작품 제 가운데 상당부분이 '흐르는 돌'이라는 반어법적인 표현으로 이루어진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순환하고 흐르는 것은 곧 살아있다는 것이며 그러므로 태어나고 자라고 소멸하고 다시 태어나는 순환의 흐름을 반복하는 것이다.

재료를 깎거나 붙여가는 과정을 통해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조각은 원래 미학적 가치의 발현에 앞서서 실용적인 요구에서 출발하였다. 회화가 2차원적인 평면에 선과 색 등의 조형요소를 가지고 조형적 재현을 하는 것이라면 조각은 회화와 달리 3차원의 입체 공간에서 필요로 하는 재현성을 수행하는 것을 본래의 목적으로 하였으며, 특히 건축과의 연관성 안에서 공간조형의 대표적인 장르로 발전하여 왔다. 근대에 이르기까지 조각활동의 결과물 가운데 상당수는 인물상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으며 미학적 감상의 대상이기보다는 종교적 경배와 영웅적 행위를 기억하는 물적 증거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과거의 조각 작품들은 초인간적 위엄성을 자아내는 인물을 안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작품 그 자체만큼이나 인물상을 배치하는 장소성이 중요한 조형요소가 되어왔다. 재료면에 있어서도 조각은 기념비적 성격을 강조하기 위한 재료를 멀리서 구하기도 하였고 때로는 조각이 놓이게 되는 사회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가져온 희귀한 재료로 만들어진 작품을 조각으로 표현한다는 것이 곧 해당 인물의 생애의 업적과 연관시켜 위업성을 강조되기도 하였다.

위업성은 훼손되지 말아야 하였기에 작품들은 중앙에 높이, 혹은 특정 장소에서 시선이 집중되는 곳에 굳건한 받침대 위에 놓여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조각은 감상의 대상이기보다는 관람자와의 불평등한 관계 속에 일방적인 위엄을 쏟아내거나 교훈적인 이데올로기를 주입하는 주체였으며 관람자가 친밀하게 다가설 수 없는 타자였다. 김창기의 작품은 이러한 종류의 조각 작품이 추구하는 가치와 명백하게 대립된다. 작가는 교훈적이거나 시대의 증인으로서 어떠한 사건을 증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창기의 작품은 묘사적일 필요가 없으며 신화적 내러티브를 담아내는 형식의 틀에 얽매일 필요도 없다. 그리고 작품이 인위적으로 지정된 특정 장소에서 높은 받침대 위에 올라앉아 관람자의 시선을 지배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김창기의 조각이 이러한 기념비적 조각의 물성과 이데올로기를 조롱하는 것은 재료를 다루는 방법과 태도에서도 읽을 수 있지만 작품을 관람자들에게 제시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차별화된다. 대부분의 작품들은 작품의 크기에 관계없이 관람자의 시선으로부터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경우가 드물다. 그리고 아주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 그의 작품들은 자연의 상태에서 혹은 자연을 가상하는 공간에서 겸손하게 제 모습을 드러낸다. 이렇게 함으로써 서양 현대 조각에서 두각을 나타냈던 칼 앙드레나 리차드 롱의 작업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김창기의 작품 '속에서' 작품과 어울리고 작가와 의식의 공유를 통해 작품을 감상할 뿐 아니라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김창기의 조각에 대한 인식과 사유를 잘 나타내 주는 언술이 하나 있었다. 2010년에 열린 《김창기의 개인전》에서 박석태는 그의 작품에 대해 "공간에 대한 깊은 사유를 이끌어내어 그의 작품의 이론적 담론을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롭다.... 그의 조각은 허구의 공간과 현실의 공간을 동시에 포괄하며 마침내 우리를 '자연/인공'이라는 이항적인 대립 개념을 연상시키는 차원에서 '들여다봄/느끼는 것'의 차원까지 이끌고 있다"고 분석했으며 김창기의 작품에 대해서 "조형적 완결성보다는 사유와 의식의 흐름을 따르게 하는 과정을 중시하고, 예술을 짓누르는 관념과 정신주의보다는 일상과 삶을 중심으로 새롭게 질문하기에 의미를 둔다면, 그의 미술은 지속될 것"이라고 하였다.

이 말은 작가의 작업에 대한 정확한 통찰에서 나올 수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하며 필자 역시 전적으로 동감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보다 더 적절한 표현을 변안해내지 못하고 박석태의 언술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이다. 다만 필자가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작가로서 작품을 마주하면서 촉발되는 수많은 생각과 감정을 자연스럽게 작품 속으로 녹여내고 그것이 자연의 순리처럼 관람자들과 공감되게 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허구적 명제나 수식이 필요치 않은 것은 분명하더라도 조형적 완결성에 대한 관심을 전적으로 놓아버릴 수는 없다는 점이다. 오히려 더욱 치밀하게 조형적 완성도를 추구할 때 작가는 관람객들과 좀 더 쉬운 조형 언어로 소통하고 공감하며 메시지 전달의 효용성과 작가로서의 존재가치나 창작행위의 정당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하계훈은 고려대학교 영문과, 홍익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영국 시티대학 예술경영학과 석, 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며 현재 단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주임교수로 재직하면서 미술평론 활동을 하고 있다. 국립현대미술관 운영자문위원, 서울시 문화정책 자문위원, 한국박물관협회 지원시업 평가단장을 역임했으며 저서 및 역서로는 『문화예술경영 이론과 실제』(공저), 『큐레이터의 딜레마』, 『예술가는 어떻게 성공하는가』, 『지혜를 어디서 찾을것인가』 등이 있다.

A Dialectical Spread through the Merging of Disparate Elements

HA Kye-hoon(Professor at Dankook University)

KIM Chang-ghi's works with stone and iron fit in well with the concept of modernity or contemporariness. The artist has received a basic formative training, by faithfully basing on the orthodox expression of sculpture, and based on this, he has been expanding the range of expression into the works which stir up a discourse about the formative thinking and expanded concept of space of his times. He has sought the dialectical development and spread of the concept of contemporary sculpture, by encouraging the thinking about opposing items such as sculpture and molding, sense of sight and that of touch, filling and emptying, and reality and imagination through his works.

The materials chosen by him consist of those found in his surroundings and his scope of activity. The artist mainly uses stone and iron, and when it comes to using stone, he incorporates a natural state of the material into a work as intact as possible. That the artist, who had steadily improved his skills for marble cutting during studying in Italy, has turned his attention to the works created by combining different feelings of stones in natural state into one, with minimizing artificial deformation, unlike a smooth, polished marble, may be relevant to his genes and his self-identity formed from them.

As you know, marble is not a very common material in our country. Historically, ranging from the construction of ancient palaces to the making of millstones used by ordinary people, the stones with a rough quality of the material have been the most representative one to decorate all around us. It may be natural that KIM Chang-ghi, who had returned back to his hometown for formative training as an artist, has found these stones. In addition, it may be natural changes in the flow of time that the artist, with the consciousness and thinking elaborated through work activities, has got to pay attention to the appearance of the surroundings and his problems.

The iron, another material used by KIM Chang-ghi, is placed on the location of the 'artificial things' as the antipodes of nature, while the stone as a material used by him symbolizes nature. Historically, the iron as a representative substance of the history in which people have overcome and dominated nature has been the material of weapons for war and the main material of various machines and devices, useful inventions for achieving the Industrial Revolution of a modern society. In other words, the iron is one of the representative materials by which people have pursued the artificial benefits by overcoming and occupying nature.

KIM Chang-ghi has introduced the iron in the form of wire in the works and tried a confrontational combination of nature and artificiality, by forming it as object through the process of welding and polishing and by combining it with natural stone. These works made of stone and iron show a contrast between the contrasting elements at first, such as a sculptural sense of weight given by stone and a sense of volume given by a mass of iron, natural things and artificial ones, texture and spatial sense, etc, and then they hold the process in which the two disparate elements change naturally due to the polishing and corrosion of the materials which change according to the cycles of nature and the flow of time and are homogenized.

KIM Chang-ghi's works, like this, have the properties of including all the changes of a work which changes naturally from the creative process to the end of work, and in accordance with the lapse of time since the completion of production. Let it be said that the moments of completion and end in KIM Chang-ghi's works are suspended and extended by the phenomena of process and progress. The artist presents these works by him with the concept of 'circulation'. It can be explained in this context that a large portion of his works has been made with the title of the 'flowing stone', an ironical expression. The things that circulate and flow mean they are alive, and therefore, they repeat the circulation of birth, growth, extinction and rebirth.

Sculpture which creates an image through the process of cutting or sticking materials started originally from the practical needs, prior to the revelation of aesthetic values. Sculpture has aimed the property of representation required in the three-dimensional space and developed as a representative genre of space modeling especially within the correlation of it with architecture, while painting has done a figurative representation with the formative elements including lines and colors on the two-dimensional plane. A great many products of sculpture activity have been developed centering on a figure up to the modern times, and the majority of them have been the physical evidences to make us remember the religious worship and heroic deeds, rather than the objects of aesthetic appreciation.

Accordingly, the sculptures of the past had placed the figure to evoke a superhuman dignity in most cases, and therefore the placeness of placing a figure had been an important formative element as well as the work itself. And the materials of a sculpture had been obtained from afar to emphasize its monumental nature, and to express a sculpture made with the rare materials, which is brought away from a society in which it is placed, sometimes emphasizes the dignity in association with the achievements of the man in question.

As the dignity of a sculpture should not be damaged, sculptures have been placed on a solid pedestal, high in the center or at the site which the attention is focused on in a certain place, in most cases. These sculptures had been the main agents, which infused a didactic ideology or radiated dignity unilaterally in a unequal relationship with spectators, and the strangers which spectators could approach near intimately, rather than the objects of appreciation. KIM Chang-ghi's works are obviously opposed to the values these kinds of sculptures had pursued. The artist doesn't try to testify any incident didactically or as a witness of the times. Therefore his works don't need to be illustrational or to be tied to the framework of a form which contains mythological narrative. And they don't need to dominate the attention of spectators, sitting on a high pedestal in a artificially set, specific place.

That KIM Chang-ghi's sculptures mock the ideology and physical properties of these monumental sculptures can be read in the methods and attitudes of dealing with the material, but they are also differentiated on how to present them to spectators. Most of his works, regardless of the size of the work, occupy rarely a dominant position from the gaze of a spectator. And, except for very rare cases, his works reveal their look in a modest way in the state of nature or in the virtual space of nature. So, as the works of Carl Andre and Richard Long who distinguished themselves in Western modern sculpture did, we can, 'in' the works of KIM Chang-ghi, harmonize with the works and appreciate and 'feel' them through a consciousness shared with the artist.

There is a statement that well represents KIM Chang-ghi's recognition and thinking of sculpture. PARK Seok-tae told of his works, in the 《KIM Chang-ghi's solo exhibition》held in 2010, like this; "It is very interesting that he has created a theoretical discourse of his works by drawing a deeper thinking about space." PARK analyzed his works like this "His sculptures embrace a space of fiction and that of reality at the same time, and they finally lead us to the dimension which is reminiscent of the concept of binomial confrontation of 'nature/artificiality' and to the one of 'looking into/feeling'. PARK told of his works like this "His art will continue, if he is more concerned with the process of following the flow of thinking and consciousness than the figurative completeness, and if he attaches greater importance to newly questioning centered on life and daily life than on the ideas and idealism to weigh on art."

This statement can be made through an accurate insight on the works of the artist, KIM Chang-ghi, and the present writer also agrees with Park totally. So, the present writer can't translate a more appropriate expression than this, and citing Park's statement as it is. However, the present writer would like to point out one thing that unnecessary fictional propositions or expression are not necessary but he should be interested in figurative completeness, in order for him to melt many thoughts and emotions which are triggered while facing the work as an artist into it naturally, and in order for his work to gain the sympathy from spectators like the laws of nature. When seeking figurative completeness more elaborately, he could communicate and sympathize with spectators by an easier formative language, and he would be able to find an effectiveness of message-conveying and the value of existence as an artist or a justification of creative activity.

* HA Kye-hoon : Graduated from English Dept. in Korea University and Art History Dept. in Hongik University Graduate School, and finished master's and doctor's degrees at Arts Business Administration Dept. in United Kingdom City University. He is an art critic and a head professor at Dankook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Culture and Arts. Served as a steering-advisory-committee at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as a advisory committee for Seoul Cultural Policy, and as a director of estimates for Aid Projects by Korean Museum Association. Authored and translated 『Theory and Practice of Management of Culture and Arts』(co-authored), 『The Curator's Dilemma』, 『How Artists become Successful?』, 『Where will you find Wisdom?』, etc.

김효숙

KIM Hyo-suk

서해 5도
Seohae 5do
130×130cm Acrylic on canvas 2012

재현된 무대 II
The reenacted stage II
181×223cm Oil, Acrylic on canvas 2010

실마리
Clue
194×260cm Acrylic on canvas 2010

김효숙의 탈(脫)은폐된 풍경

박천남(성곡미술관 학예연구실장)

1.

멀리 볼 것도 없다. 머리 들어 가까운 하늘을 보라. 크레인 하나쯤 세상을 휘젓듯 춤추고 있을 것이다.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노란, 붉은, 푸른색의 제법 프티(petit)한 크레인이 연출하는 과감한, 기묘한 선묘(線描)는 일견 움직이는 대형 설치작품, 이른바 키네틱(kinetic) 조각을 연상시킨다. 좋게 보아 그렇다. 누군가는 직업병이라고 했다. 그러나 뭉게구름에 앞서 춤을 추듯 가을 하늘을 수놓는 크레인들이 마냥 반가울 수는 없다. 세상의 변화, 발전 속도에 도무지 적응이 안 되는 요즘, 또다른 낯선, 잠재적 불안 요소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해를 거듭할수록 세상 변화에는 속도가 더해지고 있다. 사적/공적개발, 혹은 건축의 계획, 구성방식에 사회나 해당 구성원들의 합의를 일일이 구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만, 삶과의 건강한 균형을 무시한, 각기 엇박자를 자아내는 번잡한 풍경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왠지 스스로가 이 사회의 이방인 같다는 생각을 당최 지울 수 없다.

멀리 갈 것도 없다. 사는 동네는 물론 출퇴근길, 이런저런 나들이 길에서 트이는 듯 막히고 막히는 듯 트이는 익숙하면서도 낯선 풍경을 매일처럼 만난다. 번잡한 도심에서도 흔히 접하는 결코 낯설지 않은 복잡풍경이다. 쉽게 사라지고 쉽게 나타나는 반갑도록 서운한 장면들은 새삼 삶의 무상함을 돌아보게 한다. 개인적인 주된 동선 탓이기도 하겠지만, 매일처럼 만나는 이 도시 그리고 도심, 참으로 비인간적이다. 매일 지나다니는 광화문 광장과 새로 단장한 광화문의 담벼락은 대단한 전시용 사업처럼 위용을 자랑한다. 거대하고 넓고 높기만 하면 그것이 국제도시의 격에 맞는 위용이요, 이른바 디자인 도시의 상징이며 시민을 위한, 시민의 공간이 되는 것인가? 불행(?)히도 광화문대로 중앙에 놓여 있던 은행나무들의 풍경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새삼 그립고 현재가 더욱 쓸쓸하고 씁쓸할 것이다.

유럽의 도시, 특히 파리나 프라하와 같은 세계적인 예술도시의 도시개발, 정비과정을 돌아보노라면 그들이 얼마나 도시와 시민들의 물리적/심리적 지형을 세심하게 배려해 왔는가를 알 수 있다. 사람과 그들의 삶이 존중되는 개발, 사람을 먼저 고려하는 정책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 가까운 일본의 도시들도 마찬가지다. 과거와 현재, 역사와 미래가 균형 있게 공존하는, 미신과 과학이 사이좋게 어우러지는 모습이다. 사람이 살아온, 살고 있는 인간적 냄새가 흠뻑 묻어난다. 미래적인 합의와 큰 틀 아래 세세하게 또 조심스레, 순차적으로 손을 대고 있다. 사람 중심의, 어쩌고저쩌고하는 모구청의 슬로건은 무슨 코미디 코너 제목처럼 보인다. 사람 중심이 아닌 건물과 제도 중심이었음을 고백하는 문구에 다름 아니다. 주변인을 넘어 무슨 액세서리(accessories) 같은 취급을 당하는 요즘이다.

비단 도심뿐이랴. 이른바 빨간 버스를 타고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을 달려가면 초유의 집합적 회색 풍경을 만난다. 멀리서 가까이서 그들을 볼 때면, 저것들이 수명을 다하여 한꺼번에 움직이기라도 한다면, 또한번 멀지 않은 후대에 개발광풍이 거세게 그리고 크게 일렁일 것이라는 불안감이 앞선다. 안토니 가우디(Antoni Gaudi)의 구엘성당(Esglesia de la Colonia Guell) 같은 방식의 건축은 아니더라도 천년 건축, 천년의 지속성을 가질 수 있는, 자연과의 조화, 자연의 동의를 구해가면서 유지하고 만들어내는 도시풍경, 삶의 표정변화가 과연 우리나라에서는, 이 사회 시스템에서는 경험하기 어려운 것인가?

온라인상의 변화도 따라잡기 버거운 현실에서 이놈의 오프라인 환경조차 부화뇌동(附和雷同)하듯 요동친다. 실로 지나치게 숨가쁜 현재요, 강요된 일상을 살아가는 현실이다. 수면아래에서 슬프도록 바삐 움직이는 백조의 발동작처럼 태연한 척, 적응하는 척 살아가자니 숨이 턱까지 차오른다. 작금의 도시변화 양상은 일견 역동적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심히 미래적 걱정이 앞서는, 당대 삶의 현실이 위장되고 은폐된 풍경이다.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유예기간도 주어지지 않는다. 게다가 사회에, 현실에 정착하지 못해 오늘은 이리로 내일은 저리로 부초처럼 떠도는 젊은, 중년, 노년의 실직자, 구직자들의 곤궁하고 궁핍한 삶은 이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과 괴리감을 극한까지 밀고 나가게 만든다. 너나없이 하루도 편히 그 어느 곳에 몸 두고 마음 붙일 수 없는 참으로 답답한 현실이다.

2.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 자신을 돌아볼 겨를도 없이 일상처럼 반복되는 현실 속에서 김효숙은 방황하는 이웃/자신을 본다. 강제된 현실풍경 속에서 강요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을 여기저기서 문득문득 맞닥뜨린다. 작가 자신이 어릴 적부터 지켜보아온 개발풍경이 중첩된다. 어쩌면 나와는 크게 상관없어 보이는 세상, 내 몸 하나 추스르기 바쁜 일상. 그러한 당대 현실과 자신의 무력함은 작가가 지금까지 아프도록 경험하고, 마치 트라우마(trauma)처럼 간직하고 있는 지난 기억을 환기시킨다. 어릴 적 부모와 함께 움직이면서 목도한 개발현장의 비극적 속살과 이사를 거듭하며 경험한 부적응의 심리와 생활의 괴리감이 고스란히 반추된다.

김효숙은 자신이 어릴 적부터 그러한 폭력적 환경 속에 던져져 있었음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지금까지 그러한 환경 속에서 자라나고 살고 있다는, 이른바 현사실성(現事實性)을 알게 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음

The Exposed yet Hidden Scenery of KIM Hyo-suk

PARK Tcheon-nahm
(Chief curator of Sungkok Art Museum)

1.

You can't see anything from a distance. Lift up your head and look up at the low sky. A crane is dancing, as if swinging the world around on a wire. The backdrop of the blue sky creates a background for the yellow, red, and blue of the petite crane as it sets the stage for the bold and peculiar lines it cuts. The lines remind one of the so-called kinetic sculptures and the large installation artworks that are visually in motion. It was done to make it look better. Somebody has said it is an occupational hazard. However, the cranes stand out ahead of the cumulus clouds to embroider the sky as if they were engaged in a dance. These days it is impossible to adapt given the speed at which the world is changing and moving forward. The picture cannot be a completely welcome sight because it is another strange, potentially dis-equilibrating element. Every time the sun rises, the world is changing at a faster pace. One cannot discover all the areas of agreement between society and its constituent parts vis-a-vis private/personal development, construction plans, and methods of construction. Nevertheless, when we look out over the scenery which is vexing because it is a tapestry of criss-crossings which ignore the healthy balance between lives, we cannot shake the feeling that we are strangers in this society.

Also, there is no place far away to go to. Even outside your own doorstep, when you go to and from work or run errands sometimes the way is packed with people and sometimes it is deserted. We find the scenery to be familiar yet different every day. Even in the boisterous downtown areas, we expect the scenery to be the same as the last time and not strange. The tiring scenes that constantly appear and disappear are so very tiring to the eyes yet are welcome sights. They reveal to us the pointlessness of an existence constantly renewing itself. Maybe the fault lies with the fact that people's movements are for the most part individual motions, but the city and the city center that we encounter every day is very unfriendly to people. We are proud that Gwanghwamun plaza, which we go past everyday, and the Gwanghwamun walls that are constantly being redecorated, are being treated like a huge exhibition affair. It has been made to appear huge, spacious, and tall in a manner befitting a truly international city. And so it has become a symbol of Seoul as a city of design. But is it a space for the residents and citizens? Unfortunately, for the people who remember the ginkgo trees in the middle of the road passing through Gwanghwamun, the scene makes them feel their longing afresh, and makes their present feel more lonely now and going into the future.

If you look at the type of equipment used in city development in European cities, especially cities of international artistic renown such as Paris or Prague, you will see the degree of detail that the residents pay to the physical and psychological lay of the land. You can feel in your bones that real estate development is respected by people and that policies put people first amongst the elements they take into consideration. Cities in neighboring Japan are the same. They have a respect for the balancing act between the past and the present, and between the past the future. Also, superstition and science exist in harmony side-by-side. The cities give off from somewhere deep inside the smell of a human presence and the feeling that people have lived and are living there. They are following a sequence as they work a bargain struck with the future and pay careful attention to detail within the large given frame. The people-centered slogan of the former district office looks like the name for some kind of comedy show. The text is just a text that makes a confession about buildings that are not people-centered and which are system-centered instead. Its point goes beyond expressing the people in the surrounding area and furthermore treats them like accessories.

This is true not just of cities. It is just like when you take a red long-distance bus and after riding for just a short while, you just run into an assembly of gray scenery, that is the buildings, which are all the same. If you look at them from far away or close up, they have used up their life expectancy and if it so happens that they move all together suddenly, there will come yet again the sense of malaise in the form of the fierce and sweeping scenery caused by re-development that will occur in the near future in big waves. But in Korea there is a kind of construction that is difficult. The expectation of this construction is not so high that it be along the lines of the Esglesi de la Colonia Guell of ANTONI Gaude; however, what about "thousand-year construction" that can endure and continue its existence for a thousand years? This type of construction is also in harmony with nature and searches for a way for nature to agree with it. What about that kind of city scenery, which is also an expression of the changes in our lives as people? Would it really be all that difficult in Korea to achieve this kind of social system?

In the present it is hard to not only keep up with the changes occurring online, but the offline environment also is in flux and we even struggle to keep up with it. We have a hard time catching our breath to keep up with the present reality, which dominates our daily reality and forces us to follow it. We are like the white swan whose feet are paddling beneath the water surface like mad, to the extent of making it sad, yet it and we appear calm when seen above water. Also, we pretend to have adapted and pretend that everything is normal yet we are really gasping for breath. The changes currently taking place in our city could be said in a positive sense to be dynamic; however, the scenery is really a curtain blocking the view, hiding the truth using camouflage about the reality of our lives at the present moment. Above all else, we are really worried about the future. People are not even given a certain minimal stretch of time within which they can adapt to the changes. We have to think about the old, middle-aged, and young unemployed who are bouncing back and forth like a flame in the wind, today going this way and in the future yet another way, without being settled down in society and in reality. The lives of these unemployed people, which are poor and destitute lives, are cornered into a feeling of non-belonging and separation in relation to this. This reality is really stifling because nobody has a place to rest where they can call home from day to day.

2.

The reality that KIM Hyo-suk sees herself and her neighbors in as they wander about aimlessly is a reality that is rapidly spinning, which is repeating itself as if it were a routine over and over again so that neither KIM Hyo-suk nor her neighbors have the chance to see themselves as they are. Everybody is forced to live a certain life in a reality they are forced to accept, and everybody is constantly bumping into each other. She has always watched in person the same type of real estate development take place over and over again since she was a child. There seems to her to be a huge gap between her and the world, as if the world were not connected to her; everyday he struggles just to look after her own body. Her present reality is like this and her powerless self has had painful experiences so bad that they cause her pain. In fact, she can't help but remember her past which is filled with events that are to her like individual traumas.

She had to move around with her parents when she was younger, and had to move house and was a repeated witness to the tragic events behind the development stories that she witnessed. Furthermore, she had to repetitiously and completely live with a mindset of having failed to adapt and a feeling of lifestyle alienation.

KIM Hyo-suk only came to understand after the fact that she had been subject to a violent

에 괴로워했다. 그녀의 작업은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던 과거 자신의 나약함을 떨쳐버리려는 존재의 몸부림에 다름 아니다. 흙이 비켜준 자리, 흙을 걷어낸 자리에는 정한 공기(工期)에 따른 파열음과 불협화음으로 대지가 파헤쳐지고 인간실존이 송두리째 거세되었다. 과거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은 결국 신의 노여움을 사기에 이르렀고 그들의 그러한 만용은 그들의 스스로의 마음도 빼앗아가 버렸다. 김효숙은 화가의 길을 걸으면서 사람이 소외되고 삶이 은폐된, 일방적 개발이 선사하는 파열음과 그에 따른 불안을 통해 드러나는 자기고백을 하나둘 털어 놓기 시작했다. 화면 속에는 삶을 무화시키려했던 폭력적 개발정책과 강요된 당시 삶의 현실이 잔인하도록 공허한 냉혹성으로 메아리친다.

개인의 힘으로는 절대 막아낼 수 없는 현재의 반복적, 일방적 개발 풍경과의 과거 심리적 상흔이 중첩된다. 도저히 어찌할 수 없음과 마치 그것을 막지 못한 공범자와도 같은 반성적 기운을 화면에 쏟아낸다. 갈아엎을 수도 없는 노릇. 김효숙은 차라리 이들 모두를 송두리째 빨아들인다. 마치 진공청소기로 더러운 무언가를 없애 버리듯, 무기력했던 자신의 아픈 기억을 지워버리려는 듯, 이들 일방적, 폭력적 개발 덩어리들을 잘게 쪼개어 빨아들인다. 산산히 부서지고 회오리치듯 비산(飛散)하는 기억의 파편들로 가득한 화면은 그야말로 아수라(阿修羅) 분위기에 다름 아니다.

거대한 소용돌이, 강한 삭풍(朔風)이 휘몰아친다. 봄을 도통 기대하기 어려운 건조하고 차가운 한겨울 분위기다. 목적성 없이 배회하는 일단의 사람들과 비산하는 건설폐기물, 건축 부자재들이 등장한다. 사람들은 무언가 쿵한 모습이다. 자력갱생의지가 삭제되고 거세된 인간실존으로 보인다. 정착하지 못하고 겉도는 인상이다. 개발파편들 사이로 띄엄띄엄 지친 듯, 포기한 듯 축 늘어진 인간군상이 등장하기도 한다. 상처 입고 소외된 자들의 현실영혼이자, 김효숙의 무력한, 분열된 자기영혼이다. 무력감과 자괴감은 현실을 송두리째 빨아들이는 강력한 동인이 되었다. 이들은 살풀이라도 하듯 춤을 추는 제스처로 세상에 주문을 걸며 삭막한 현실의 폐부를 찾아 서성거린다. 일방적, 획일적 개발유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삶의 종(種)다양성을 꼼꼼히 살피지 못한 지나친 획일적, 일방적 도시화를 경계하는 심리도상이다.

또한 김효숙의 경험과 기억, 현실인식의 반성적 재구성에 다름 아니다. 오늘은 여기에, 내일은 저기에 하루가 다르게 도처에 솟아나는 빌딩들, 그 사이로 더욱 빠른 속도로 삭막해지는 세상사. 인간관계의 건조함과 푸석푸석함. 인간소외 현실을 환기시키는 김효숙의 유감풍경이기도 하다. 김효숙은 거대하고 육중한, 마치 집합적으로 집단권력화되어 있는 건물 더미들을 중심 없는 다수로 잘게 썰어내어 분열시켜 버린다. 강압된 인공과 일방적 제도 속에서 경험하는 강요된 삶과 위장되고 포장되어 은폐, 엄폐되어버린 현실 삶의 풍경을 탈(脫)은폐시키고 있는 것이다.

화면은 온통 잿빛 세상이다. 무엇이 작가로 하여금 이토록 건조하고 처참한 모노톤의 혼돈구조를 구성하도록 했을까. 김효숙의 화면은 마치 실제로 그러한 현장에 나와 있거나 그것을 눈앞에서 목도하는 듯한 생생한 현장감이 압권이다. 건설 폐기물들이 즐비하다. 희뿌연 연기와 매캐한 냄새가 진동한다. 소용돌이치듯 부유하는 혼돈의 도시풍경 속에는 실마리 혹은 마지막 소통의 가능성으로서 인간이 등장한다. 이색도 저색도 아닌, 회색인간. 두터운 겨울옷으로 무장한, 자신을 스스로 은폐, 엄폐한 사람들. 마치 좀비와도 같은 이들은 세상으로부터 스스로를 삭제하듯, 희생하려는 듯 세상의 찬 기운과 분연히 맞선다.

군무를 추듯 정해진 스텝을 밟는 이들의 모습에서는 죽음을 맞이하는 제의적인 분위기도 감지된다. 공통점은 하나같이 무언가를 쏟아내듯 빨아들이고 있다는 점이다. 마치 빨아들여서 잘게 부수어낸 듯 세상은 무수한 파편들로 가득하다. 화면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강력한 분노와 좌절의 감정이 휘몰아치듯 교차한다. 계획 개발이든, 난개발이든 일방적 개발논리가 인과적으로 유예하는 집합적 폐해, 기존의 조립된 인공질서를 해체, 재구성한다. 인간적 질서와 합리성이 상실된 인공포장도시는 물론, 기술네트워크 시스템이 지탱하는 현실세계에 대한 비판이 빚어내는 공허한 전망을 잘게 부숴버리고 있다.

김효숙은 발을 붙이지 못하고 객지를 전전하며 주변부로 밀려나고 밀려나던 삶의 기억. 그러한 기억 속에 깊숙하게 박혀 있는 날카로운 기억의 파편들을 끄집어내듯 중첩시킨다. 김효숙이 재현/표현해낸 풍경은 작가 본인의 트라우마적 리얼리즘이다. 반복이라는 개념을 주요 모티프로 구사하며 자신과 소외된 사회 구성원의 아픔과 상처를 토해내고 원인 제공자를 잘게 썰고 갈아내어 무화시키려는 심리적 방어기제에 다름 아니다. 실로 참담한 현실풍경이다. 강력한 복수의 바람이다. 화면은 대단히 불안정한 상태이며 불안전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다. 사람과 잘게 썰어진 건물 잔해들이 한데 뒤엉켜 한바탕 씨름을 벌이는 듯하다. 일종의 분열증적 혼수상태다. 왜곡된 개발전략을 해체하고 그 결정체인 건축물들을 중심 없는 다수로 잔인하게 분열 시킨다.

3.

김효숙의 풍경은 하나의 병리적 집단현실초상으로 보인다. 자본만능의 왜곡된 세상과 현재를 살아가는, 방황하는 우리네 병든 자화상일지도 모른다. 인물들은 대부분 장화를 신고 있다. 현실에 발 담그기 싫은 의지, 혹은 그만큼 위험한, 오염된 현실을 강조하고 있다. 제법 두툼하고 질긴 고무질을 연상시키는 독특한 문양도 보인다. 일견 자연의 숨결로 이해된다. 간혹 맨발이 보인다. 현실을 직접적으로 맞닥뜨리려는, 그러할 수밖에 없는 처지의 사람들이다. 두툼한 외투에 얼굴을 깊게 덮고 가린 후드 속 인물들은 좀처럼 얼굴을 보여주거나 나타내지 않는다. 그려내지도 않았다. 아픈 기억을, 무력한 존재감을 지워버리려는 의도로 생각된다. 화면 속 쟁기질하는 사람의 모습은 원래 그곳이 농토였음을, 농사라고 하는 삶의 기본질서가 존재했음을 미루어 짐작케 한다. 단단하고 견고한, 두터운 건물 바닥아래 잠복되어 있는 따스한 삶의 기운, 터전, 인간적 존재감을 긁어내듯 환기시키고 있다.

사람도 그러하지만, 자연이 한번 망가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법이다. 돌이킬 수도 없다. 우리네 삶도, 인공도 그러할 것이다. 모두 그러하다. 언제까지나 자연은 그저 습관처럼 이들을 용인할 것인가. 천지불인(天地不仁)이라 했다. 인정사정없는 세상이듯, 가차 없는 자연임을 명심해야 한다. 먼 옛날, 바벨탑을 쌓아 올린 자들의 최후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자연의 순리를 거스른 인간과 자연과의 소통에는 반드시 부정맥이 발생한다. 각종 막힘과 부작용이 즐비하다. 김효숙은 현대판 바벨탑에 저항하는 국민들의 개발유감을 잘 보여준다. 욕망의 끝을 환기시킨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일방적인 개발과 철거. 그들과 맞서는 싸움, 대립, 갈등 등 반복구조. 승자와 패자, 얻는 자와 잃는 자의 절규가 화면에 가득 떠오른다.

김효숙의 깊이 있는 사유와 자전적 고민을 반영한 대립구조는 심각한 현실문제인 구조적 모순을 탈은폐시키고 우리가 애써 망각하고 있는 현실을 강하게 환기시키려는 지적의도가 담겨 있다. 앞서 지적했지만, 김효숙의 풍경은 왜곡된 도시 재개발 뉴타운, 발전 논리에 드리워진 무의미와 은폐전략을 건설현장 가까이서 목도한 어릴적 경험과 기억이 반추된 현실도상이다. 자연으로부터 배우는 일도 중요하지만, 자연을 제자리로 되돌려 놓아야 할 때다. 자연은 스스로 움직이는 존재다. 물론 도시도 진화하고 발전하는, 움직이는 존재임에는 틀림없다. 중요한 것은 누가 움직이느냐의 문제다. 인공으로부터 배우는 부분도 없지 않지만, 그러나 인공에 쉽게 물들지 말아야겠다. 배우는 것과 물드는 것은 분명 다르다. 분명한 개념과 철학에 근거한 개발방향과 삶과 사람을 존중하는 삶의 공간 확장이 필요하다.

김효숙의 작업은 인간 실존이 거세된 일방적 개발 논리, 그로인한 위기와 갈등구조, 삶의 사실구조보다는 은폐된 현상, 망각에 관여한다. 무의미하게 채워져 있는 인공구조, 자연에 내재된 본래적 진실을 은폐, 엄폐시키고 인공미가 자연미를 구축(驅逐)하고 있는 당대 엄연한 망각현실을 지적하는 환기시키는 작업이다. 핵심적인 문제들을 핵심적인 요소로 풀어낸 공감할 만한 이야기 구조가 특징이다.

구조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치환시키고 개인이 그러한 상처를 허락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기득권자들이 구사하는 고전적 수법이다. 김효숙은 사람이나 삶을 그저 도구로만 인식하는 것, 이러한 왜곡된 일방적, 폭력적 인식의 한계를 강하게 해체한다. 그러나 그의 그림은 이러한 인식의 한계에 도전하고 그것을 완전히 없애는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적어도 그러한 과정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또다른 세상의 한계, 자기한계를 고백하고 노정하며 경계하자는 것이다. 한계의 탈구성적 맥락을 드러내려는 새로운 한계 그리기로 보인다. 그것을 극복하려는 노력의 한편으로는 또다른 한계국면으로의 열림을 인정하고 경계하는, 그것에 다시 직면할 수 있는 불안한 현실인간존재를 그려낸다.

오늘도 일상처럼 난무하는 개발과 자연보호라고 정책구호의 비대칭적 관계를 목격한다. 김효숙은 구조의 문제와 개인의 문제 사이의 비대칭적 관계를 지적하는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으로의 열림을 수용하는 미래적 한계를 지적한다. 구조의 문제를 단순한 개인의 문제로 치환하려는 작금의 시스템, 사회현실이 노정하는 한계를 까발린다. 궁극적인 해답을 제시하거나 새로운 세상을 펼쳐 보이기보다는 새롭게 등장하는 또다른 구조적 모순을 예의 경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김효숙이 강조하려는 새로운 한계는 닫힌 개념으로서의 한계라기보다는 개선의 개연성으로 넘쳐나는 열려 있는, 대비 가능한 한계일 것이다.

상실의 시대, 혼돈의 시대다. 모두 다 인간이 만들어내고 빚어내고 자초한 결과들이다. 결자해지. 인간이 개입해서 정리하고 수습할 일이다. 인간의 힘으로 몰아붙인 자연. 인간의 힘으로 돌려놓아야 한다. 김효숙이 건조하게 말라버린 건조한 도시, 인공구조를 이토록 집요하게 선보이는 이유다. 자연이, 과학이, 신이 개입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종말일 것이다. 그것은 이 혼란의 판을 갈아엎으려는, 덮으려는, 이제 그만 정리하려는 포기의 감정, 혹은 정리의 마음일 것이다.

김효숙의 몸짓은 일방적 개발과 그 속에서의 강요된 삶, 인공의 공허한 냉혹성, 그로부터 길들여지고 그로인해 파생되는 기능적 사고와 태도를 거부하려는 총체적 몸짓이다. 자연과의 유사성과 차이성을 동시에 내재하고 있는 인간이 자연과 엄연하게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 어느 누구도 결코 은폐시킬 수 없는 진리라는 강력한 주장을 담고 있다. 유기질이 거세된 푸석하고 건조한, 공허하고 냉혹한 현실풍경, 인간적인 질서와 인식의 틀이 해체된 인공의 질서가 거꾸로 부각된 풍경을 통해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다. 최대한 자신을 지키는 선에서 인공질서에 노출시켜야하는 미래적 한계를 어떻게 풀어 나가야 할까. 김효숙은 물론,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할 숙제다.

* 박천남은 서울생으로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동대학원 예술학과 석사, 미학과 박사과정 수료했다. 1992년 삼성문화재단 호암미술관 큐레이터를 시작으로 로댕갤러리 큐레이터, 서울시립미술관 전시과장, 부산시립미술관 학예연구실장으로 재직했다. 한국큐레이터협회부회장, 경희대 겸임교수 등을 역임했으며, 중앙미술대전30주년기념전 〈이륙〉(2009) 큐레이터, 제2회양평환경미술제 〈Echo of Eco〉(2009, 경기도) 전시감독, 제2회관두비엔날레(2010, 대만), 제2회충칭아시아청년작가비엔날레(2011, 중국) 한국측 큐레이터로 활동했다. 現 성곡미술문화재단 성곡미술관 학예연구실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environment since she was a child. She was tormented by the fact that she had to acknowledge the fact that she had grown up in and had always been living in such an environment. That is, she was tormented by understanding that a personality should adapt to its reality. The work set out for her was dealing with a past that was inseparable from that, and to make an effort to shake off her existence which was that of somebody who was trying to escape from her own weak will. The earth yielded and created a spot for her, where she walked. And on this spot there was heard explosive sounds and the sounds of dissonance depending on the construction period. This was the creation of a strong presence for people and digging to create a plot of land. The people in the past who tried to build the Tower of Babel eventually brought the wrath of God upon themselves, but their amazing courage to attempt to do such a thing even cost them to lose their own hearts and minds. While KIM Hyo-suk was walking the path of the painter, one by one pieces of a self-confession started to become evident as a result of her dissonance, which was a gift of one-sided real estate development, and the alienation from people that she experienced. In the middle of the scene, the violent development policies that tried to render her life meaningless and the reality that she was forced to accept were cruel. Finally, as the cruelty of the policies and the reality became worse it took root in a vain, empty inhumanity.

The repeated psychological scars of the past were the result of the one-sided, repetitiously occurring development taking place these days, which absolutely cannot be stopped by one individual acting alone. What appears on the screen is a kind of reflective mood as if one were a partner in crime and the offense was not being able to stop this and being without recourse. It is a losing game, and the tide cannot successfully be turned. Rather, KIM Hyo-suk swallows all those people up. That is, she breaks the one-sided violent development people into small pieces and swallows them up as if she were getting rid of some dirty thing using a vacuum cleaner, or erasing her own painful memories of being rendered powerless. The screen is filled with the fragments of memory that were sent flying, as if they had been broken into small pieces and were moving about in an emotional tornado, so that the scene is that of a mood of devastation and destruction.

It is a huge whirlpool. The cold winter wind is bearing down hard. The atmosphere created is that of such a fierce, cold and dry winter that it is difficult to entertain the hope that spring will come soon. Enter the prowlers without any set goal, the discarded construction waste scattered about, and the secondary construction materials. The people look amazingly tired for some reason. The will to create change using one's own force has disappeared and they look like emasculated people. The impression is that they have not settled down and cannot mingle together. They lead a dreary, tired existence between the fragments that development has left behind. We even see that these people form groups which are stretched out as if they have given up. This reflects the soul of the wounded who have become alienated and also her own soul, that is, the soul of KIM Hyo-suk who is powerless and divided. The feelings of powerlessness and self-reproach both become a strong motivation for swallowing up reality whole. The people are making dance moves and invoking an incantation on the world. We are pacing about looking for the true meaning of this vague reality. The one-sided, sweeping development approach finds explicit expression and it becomes a psychological icon that gives us a warning against the excessive, one-sided, sweeping development that is changing areas into cities without first carefully examining the different types of life.

Furthermore, the experiences and memories of KIM Hyo-suk are nothing other than a reflective re-configuration of how we understand reality. Buildings are cropping up everywhere in quickly changing ways so that today they are appearing over here and tomorrow over there. Meanwhile, the world is becoming more and more dreary at a faster and faster pace. The focus is on constructing human relationships. This has also been described as the sad imagery of KIM Hyo-suk that stirs up a realization about the reality of humans being alienated from each other. KIM Hyo-suk divides and dices up into little pieces the massive, bulky buildings, which look as if they had formed themselves into piles of buildings in a collective manner. She creates a "exposed yet hidden" view of reality. What is meant by this is that the real scenery of life, which has become concealed or hidden and was experienced inside the forced artificiality and the one-sided system, and which was packaged and camouflaged, has become exposed. The scenery is that of a completely grey world. What could have happened to the creator to make her create such a dry, horrible and monotone confused construction? The coup de grace in the scenes of KIM Hyo-suk lies in the fresh, realistic sensation they create, as if one were really inside such a reality or were witnessing it unfold right in front of oneself. There are many discarded construction materials. White fumes and a stinging smell were very strong. In the middle of this seeming maelstrom of a city landscape just floating in confusion, humans appear as the solution or the last possibility of communication. The color that the people can assume is limited solely to gray. They are armed with thick winter clothes and conceal themselves well so that they are hidden. They are like zombies that have erased their own presence in the world. They courageously stand up to the cold world as if they wanted to sacrifice themselves.

While walking through the pre-established steps as if doing a group dance, the atmosphere is a ritualistic atmosphere as if one were greeting death. What they have in common is that they are sucking something in unison as if something were gushing out, almost as if after they sucked it up they broke it up into fine pieces so that the world was filled with uncountable fragments. The scene alternates between a fierce anger that moves everything violently and waves of frustration. Whether it be planned or unplanned development, the one-sided theory of development causes collective damage that puts a damper on progress because of the action of cause and effect, destroys the extant artificial order of things, and performs a re-construction. Rationality and the human order of things are tearing apart not only the lost, manmade asphalt city but also vain prospects, which are being examined because of criticism about the modern world which is being supported by technological systems.

KIM Hyo-suk has not put down roots anywhere and is constantly travelling in foreign places. She has been cast out to the periphery, and she remembers that having been the case for her entire life. She is repeatedly pulling out fragments of her incisive memories, which are deeply buried in scenes such as these. The representations and expressions that make up these scenes of KIM Hyo-suk express the creator's own traumatic realism. She exerts control with her main motif of the concept of repetition. She tells the story of the pain and wounds of the members of society from whom she is alienated and chops up the one responsible into small pieces. This is nothing other than her psychological defense mechanism at work. It creates a very horrendous depiction of reality. It is a scene of the raging winds of revenge. The scenes depicted are states of extreme anxiety, and they are engulfed in an atmosphere of exposure to danger. The people and the pieces left of the buildings become one big bundle as if engaged in a wrestling match. It resembles a kind of schizophrenic, unconscious state. She tears down the warped developmental strategy and cruelly breaks up the crystalline buildings into a multitude whose shape now lacks a central location.

3.

The scenes created by KIM Hyo-suk appear to be a collective sculpture of reality with pathological features. Perhaps it is also a self-portrait of our warped world where capital can achieve any purpose and the present time that we live and wander about in while afflicted with disease. Most of the figures here are wearing very high boots. This may be an expression of the desire not to step into reality or may be done to emphasize how dangerous and contaminated our reality is. We can also see a repeating theme that brings to mind something thick, tough, and gummy. This is interpreted as the respiration of the natural world. Sometimes we see bare feet, to express how the people are in the position of having no choice but to directly interact with reality. The people who have their faces stuffed deep inside a thick overcoat and hidden by a hood do not reveal or show their faces. What comes to mind about this is the desire to erase one's sense of powerless existence and painful memories. The person plowing a field in one scene leads one to surmise that the natural order of life for that place was originally farming and that it used to be farmland. This brings to mind the fact that beneath the hard and thick floor of the buildings there lies a slumbering warmth of life, a hearth for a home, and an existence worthy of human beings.

It also happens for people, but once nature has started to ruin something it really can't be stopped. This is true of our lives and what we create artificially. Everybody is subject to this. So, at some point, nature should probably accept these people out of force of habit. Likewise, there is the saying that all things in heaven and earth should be left alone without human interference. The world is a cruel place, and we have to respect the brutal force of nature. We have to remember our ancient history and the fate of the people who built the Tower of Babel. There will always arise cases of a failure to be in sync for humans who go against the laws of nature and also when communicating with nature. There are scores of side effects and different limits and obstructions.

What KIM Hyo-suk does is clearly show the frustration with development that residents feel who are opposing the modern-day version of the Tower of Babel. He summons up the end of ambition. The one-sided development and demolitions have not taken place in the context of any type of agreement. The fight against them, the confrontations, and the arguments just repeat themselves. The scenes depicted bring out the cries of the winner and the loser and of the taker and the giver.

KIM Hyo-suk's thoughts are deep thoughts, and her work has a contrastive construction which incorporates her auto-biographical concerns and worries. These two facts "expose the hidden" behind the contradictions in the organizational fabric, which is a serious problem with reality. Her work points out how we should try to force a revival of the reality that we are trying so hard to forget. As I mentioned above, the scenes depicted by KIM Hyo-suk are concerned with the meaninglessness behind "new towns," distorted city re-development projects, and their development logic as well as with their strategy to cover up and conceal. Her scenes are realistic pictures that ponder her memories and experiences - what he witnessed as a child from up close on actual construction sites. What we learn from nature is also important, but it is time now to return nature to its proper place. Nature moves of its own accord. Of course cities also evolve, develop, and move but the difference lies in who is causing the movement. Also, artificially constructed things are not without something to teach us; however, we should not become absorbed in what is manmade. Here, learning and getting absorbed in something should clearly be differentiated. What we must do is make bigger life spaces that respect people and life. Also,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should have a foundation in philosophy and concepts that are obvious.

The task that KIM Hyo-suk performs is to depict human existence as mainly participating in oblivion and the phenomena of concealment; this participation is stronger than its participation in a realistic construction of life, in the fierce one-sided development theory, and in the danger this theory exposes one to and the arguments constructed because of it. Her works point out the clearly evident present reality of oblivion wherein manmade constructions are filled with meaninglessness, the original truth inherent in nature is concealed and hidden, and manmade beauty is forcing out natural beauty. This is thought-provoking stuff. One characteristic of her work is that it constructs a conversational space worthy of our sympathy wherein the core problems and the core elements are brought to the fore.

The problem of the construction is switched out for a problem affecting the individual. Pushing the individual to allow such wounds to form is a classic method that those with vested rights have at their disposal. What KIM Hyo-suk does is forcibly remove this limit imposed by such a distorted, one-sided and violent awareness which views life and people as mere tools. Her drawings, however, go beyond just challenging this limit and completely getting rid of it. At the very least, they also urge us to be vigilant about the limits imposed by a new world that we will run up against during the eradication process described above, and about confessing our own limits, which will be exposed and laid out in the open. Her drawings depict a new limit that tries to expose the veins of the other limit. Some of the effort expended to overcome the first limit causes her drawings to depict the reality humans are in as an uneasy existence which is once again confronted with a new limitation which it must acknowledge and be vigilant against as it unveils itself.

Even today on a daily basis we bear witness to the asymmetrical relationship between rampant development and policy slogans about protecting nature. At the same time as Kim Hyo-suk is pointing out the asymmetrical relationship between the construction problem and the individual problem, he also points to a futuristic limit that can accept the opening up of new possibility. He lays out in the open the present day systems which replace the construction problem with just a simple individual problem and the limits which the social reality is imposing. He is not as interested in presenting a final solution or spreading out wide and showing a new world as he is in warning about the different kind of organizational contradictions that will surface. However, the new limits that KIM Hyo-suk wants to emphasize are not the limits of a closed-off concept but limits which can be weighed and which are open to and filled with the possibility for improvement.

This is an era of loss and confusion. This is a result of what all humans have built and caused by themselves. The person who caused it is the one who has to fix it. People will intervene, impose order, and exert control. In other words, humans have pushed nature to one side, so it is people who have to put it back in place. This is why the themes that KIM Hyo-suk has stubbornly clung to are the dry, constructed city and manmade buildings. If nature, science or God were to intervene, that might be the end of it all. If that happened, that would bring about the desire to put everything in order or give up, which are emotions which would try to overturn all the confusion, cover it up, and take care of it once and for all.

The gestures of KIM Hyo-suk are holistic gestures which fight to reject one-sided development and the life that people are forced to live inside of it, the fruitless cruelty of the manmade and artificial, becoming enslaved by it, mechanical thinking which is fragmented, and associated attitudes. People on the inside are at the same time similar to yet different from nature. It is a fact that people clearly must co-exist with nature, and this is a truth that absolutely must not be hidden from anyone. We must accept this as fact because we can see that organic matter has been relegated to a crumbly, dry, vain and cruel reality, and furthermore because it is obvious in the imagery of the artificial, manmade order which has dismembered the formula of a humanistic order and awareness. How can we best protect ourselves and resolve the issue of the limits of the future that will be imposed on us by the artificial order? This is a problem both for KIM Hyo-suk and for each and every one of us.

* PARK Tcheon-nahm : He was born in Seoul. He graduated from the department of art history &theory at Hongik University and received his master's degree from the department of art history &theory and his Ph.D from the fine art department of the graduate school of Hongik University. He began working as curator of the Ho-Am Art Museum with the Samsung Foundation in 1992. He also worked as curator at the Rodin Gallery, exhibition director at the Seoul Museum of Art, and chief curator at the Busan Museum of Art. He has also been the vice president of the Korean Art Museum Curators Association and adjunct professor at Kyung Hee University. Other notable positions have been as curator of the 30th Anniversary Memorial Exhibition of the JoongAng Fine Arts Prize Taking Off (2009), Exhibition Director for the 2nd Yangpyeong Eco Art Festival Echo of Eco (2009, Gyeonggi-do), and curator for the 2nd Kwandu Biennale (2010, Taiwan) and the 2nd Chongqing Asia Youth Writer Biennale (2011, China) for the Korea section. Presently, he is active as the chief curator of the Sungkok Art Museum with the Sungkok Foundation of Cul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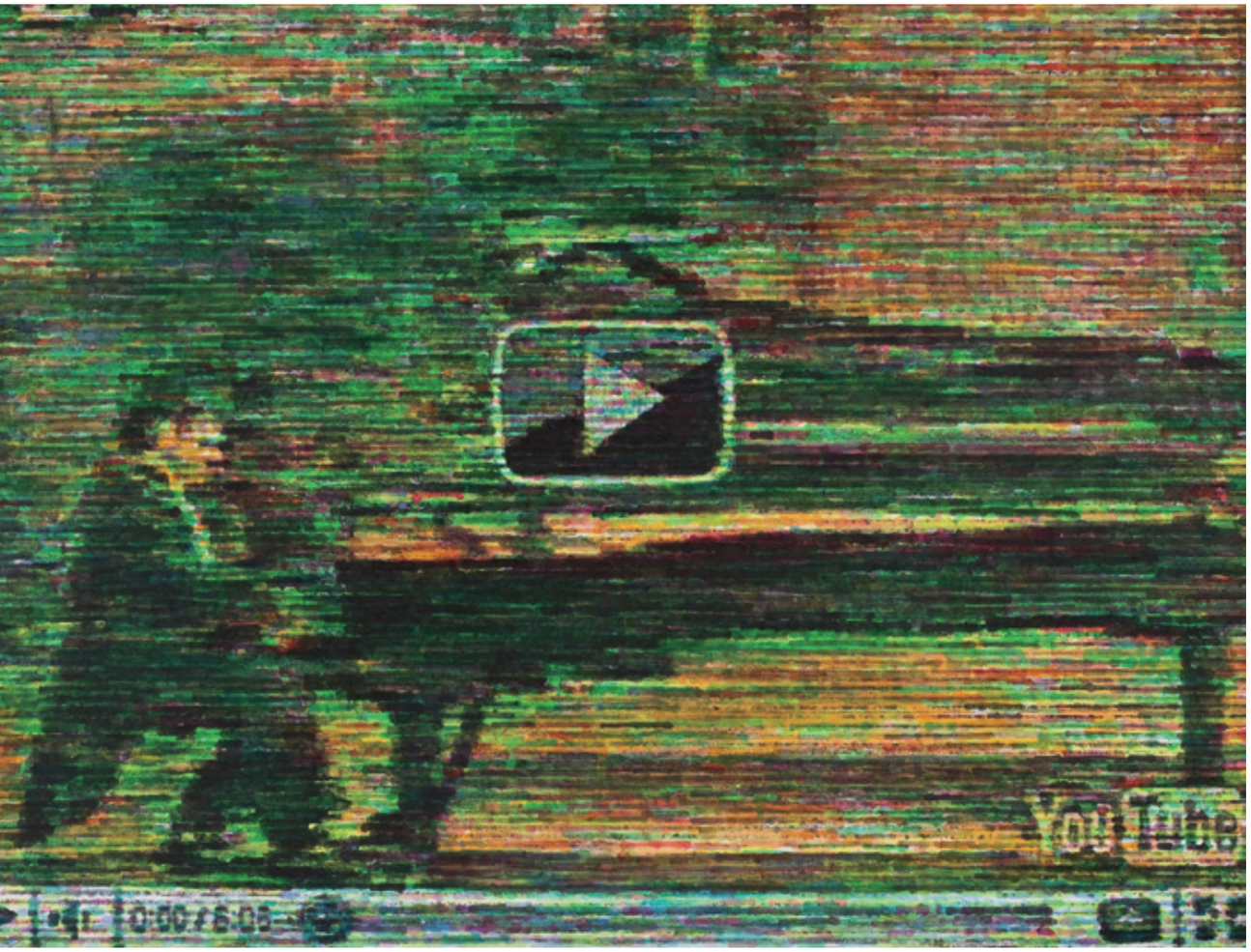
민재영

MIN Jaeyoung

방청(傍聽)
Audience
100×118cm Ink and color on korean paper 2012

오르기
A steep ascent
130×190cm Ink and color on korean paper 2012

연주자
A pianist
62.4×84cm Ink and color on korean paper 2012



퇴근길
Their way home
80×100cm Ink and color on korean paper 2011

시간의 미분과 의미의 잔상을 넘어서

류철하(큐레이터)

민재영의 작업은 도시공간을 배회하고 가로지르며 마주치는 풍경들, 반복되는 삶과 경험들, 익명의 군중이 만들어내는 구조의 풍경을 묘사해 왔다. 민재영은 도시 속에서 펼쳐지는 빈번한 마주침과 흩어짐의 경계 속에서 인간군상의 강박과 부유(浮游) 그리고 덧없음을 발견하고 그것의 구조를 공중에서 혹은 사선으로 잡은 시선으로 단면화한다. 민재영이 보여주는 일상적 장면으로서의 풍경은 일반적이지만 일반성이 담고 있는 보편적 체험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묻고 있다는 점에서 그녀의 작업은 집요한 어떤 반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나와 타인의 흔적과 관계, 보편과 개별의 표지를 정서와 의식의 다양한 방식으로 묘사하고, 반복되는 체험의 형식과 장면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녀의 작업노트에 다음과 같은 글이 있다.

어떠한 상황의 전환이나 개선도 결국은 사소한 것으로부터 출발하며, 하루하루가 모여서 우리 삶의 궤적이 만들어진다고 할 때, 그 속에서 가장 빈번하게 드러나는 장면은 어떤 것이 있을까를 생각해 본다. 인파 가득한 거리에서 느끼는 공기, 주변을 둘러보면 흔하게 시선에 잡히는 풍경들, tv나 포털뉴스에서 접하게 되는 이미지들, 문득 엄습하는 피로와 생활에 대한 염려, 그리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이러한 잔상들을 거울 보듯 바라보면서, 분주히 살아가며 이루어진 매 순간의 선택과 변화를 돌아보는 계기의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2010.9)

민재영이 묘사하는 것은 매일의 경험이나 사건에서 축적되는 반복과 그 반복의 전형성을 찾고자 하는 것이고 그것의 방식을 인간체험의 관찰을 통해서 하고 있다. 그녀의 관찰과 장면의 제시는 상황을 조사하듯 위에서 내려다보는 부감의 시선, 혹은 사선과 파노라마로 전경을 펼치는 시점인데 사진카메라와 영상의 적절한 교차와 활용이 주요한 시각형식을 이룬다. 부감의 시선은 나다르가 1860년대 이미 기구를 타고 파리를 사진 찍는 시도를 한 이후 1920년대에 특히 혁명 이후의 러시아에서는 '위로부터' 접근하는 시각이 대중화 되었다. 이 '위로부터' 보여지는 현실과 인간에 대한 적나라한 모습은 그러한 시각이 갖는 독특한 서사와 구조, 희극성을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파노라마적 전경과 영상에 의한 피사체의 확대는 대상과의 거리를 화면 속 인물들의 바로 위와 옆까지 가능하게 하고 심지어 그것을 분절하여 장면과 상황의 극적인 연출을 가능하게 만든다.

민재영이 제시하는 보도 위를 부유하는 인간군상의 이미지는 타인을 통한 나의 확인과 시공간적 동질감으로서 이중반영의 모습을 하고 있다. 도시는 고립에 대한 두려움과 군중속의 안도감을 동시에 제공한다. 타인의 삶을 응시하는 것은 나를 보는 것이고 타인과 나도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안도를 거울처럼 제시한다. 비록 매체를 통한 왜곡일지라도 타인과 군중의 파편을 보는 순간 시공간적 동질감은 충분하다. 적어도 이 파면의 이미지에서는 '타인은 나의 지옥'이 아니다.

민재영에게 자기반영의 거울은 타인이고 타인의 어떤 상황이나 장면의 특수가 아닌 매순간의 잔상이며 각 장면들의 무작위이다. 도시는 끝없는 부재와 보충을 낳는 장소상실의 공간이고 새로운 것들로 대체되는 공간이다. 새로움이 낡은 것을 대체하고 그것의 끊임없는 대체가 덧없는 무상을 느끼게 하는 공간, 이것이 도시라는 현대성의 아이러니다

이 무상의 현대를 관찰하기 위하여 사진기의 시선으로 본 도시의 내부는 지하철, 버스, 거리 그리고 군중들인데 그것들은 모호하고 이중적이며 의미없이 흩어지고 서로에게 미끄러지며 얼룩과 망점처럼 형체없이 다가온다. 무상의 현대를 보는 망막 자체는 영상기제의 눈이 되었고 그것에 대한 적절한 은유가 정지된 화면으로서의 군중과 형상들이다. 민재영은 사진 이미지나 동영상을 촬영하고 순간의 장면을 정지시켜 그림으로 옮기는데 가로로 그려진 tv주사선이 모티브이자 회화로 구성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전체 화면을 메우는 가로선의 중첩은 사물을 tv화면의 떨림처럼 불확정적인 어떤 표지로 나타낼 뿐만 아니라 색의 중첩에 의한 색감과 형체감, 화면의 부가효과를 강조한다.

이러한 매체의 눈은 암시적이고 모호한 현실을 드러내고 도시와 군중 그리고 타인의 개별성과 구조를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도시는 파편화한 형체들의 점과 얼룩이며 의미없는 사건들의 지속, 실재없는 것들의 대체, 스쳐가고 만남의 지질구레한 장소상실, 거대한 주거적 교직의 시스템들이다. 이 세계의 불연속과 확대, 인위적 순간성 속에서 우리는 공간 사이를 스치가는 거대한 장소상실의 경험을 무수히 마주한다. 민재영은 이 '장소상실'의 무수한 경험을 '매체를 통과하여' 구조적 장면으로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매체를 통과하여'란 말은 우리의 시각이 불완전하다는 것, 그리하여 망막을 통한 시각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말이기도 하다. 렌즈의 시각을 빌린 투과된 시선, 사실적인 현실의 단편이라기 보다는 상징적 징후들을 포착하는 그녀의 시선은 사건과 시간의 의미없음을 분해한다. '자신들의 모습, 그 반영을 잠시 정지시킨 채로 움직임의 잔상을 돌이켜 보는 것(민재영)'은 시간은 미분하고 그 미분된 의미의 잔상을 시각적 언어로 제시하는 작업이다. 마치 말을 분절하는 언어구조의 논리학처럼 사건과 시간을 분절하여 그 미분화된 의미를 시각화하는 것이다.

매체의 눈을 통해 우리는 세상의 불연속과 확대, 인위적 순간성을 입증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영상의 불연속이 최대의 추상을 발휘하여 강렬한 어떤 것에 대한 계시가 될 수 있고 사건과 인물이 일상성을 벗어나는 주요한 모티브로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민재영에게 있어서 이러한 분절과 분해, 확대를 통한 시각화는 아직은 과정속의 어떤 것으로 파악된다. 나와 타인의 풍경이 어떠한 의미로 반영되었는지, 혹은 그들 속에 느끼는 '나'와 나 속에 있는 '그들'이 사건과 시간의 분절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밝혀지지 않는다. 사물의 재현과 보편지식 혹은 상징의 어떤 것을 넘어서는 시간과 사건의 알레고리가 필요하다. 타인과 집합적 군중에서 느끼는 동질감의 확인이나 현대성의 구조는 은유에 그치기 때문이다.

민재영에게 은유를 넘어선 알레고리는 도시적 경험의 파편화를 딛고 군중속을 산책하면서 사물의 덧없는 무상성성을 넘어서는 어떤 경험, 바로 현대성을 발견하려 했던 보들레르처럼 배후적 현실 너머에 있는 영원성을 발견하는 산책자, 일상의 현기증을 내딛는 어떤 시각경험이 필요할 듯 하다.

* 류철하는 월전미술관 학예실장 역임하였으며 전시기획자, 서울대 성신여대 강사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Beyond the differentials of time and afterimages of the significance

RYU Chulha(Curator)

MIN Jaeyoung captures the landscape of urban cities with people wandering around the cities, their repetitive lives and experiences, and the scenery that the anonymous crowd builds. MIN Jaeyoung has discovered the obsession and emptiness floating around humanities amid the vigilance of frequent encounters and has disassembled and caught the structure from above or diagonally to put on a canvas. Although the scenery shown by MIN is a general landscape, his work is persistently requesting a kind of reflection, given that the general images tenaciously inquire what the universal experiences are. Therefore, the traces and relations between me and the others, namely, the signs of universality and individuality, are expressed in various ways of sentiment and consciousness, which present the forms and scenes of repetitive experiences. The following were found in an artist note.

The conversion or the improvement of any circumstances starts small. When the days come together to build the trajectory of our lives, I came to think about what scenes would appeared the most frequently: the air felt in a packed street, sights that I lay my eyes on, images shown on TV or internet portal news, acute fatigue or worries overwhelming me, people we live together. As if looking at the afterimages in a mirror reflection, I wish we can look back on the times of changes and choices made at every moment of our busy preoccupied life. (2010.9)

What MIN described is to seek the repetition accumulated in daily experiences and events and the stereotype of repetition, placing it under the microscope to observe human experiences. He presents the bird's eye view as if to survey the whole situation, the panoramic view and the appropriate combination of images with a camera to make a significant visual formality. After Nadar first took the aerial photography of Paris from a tethered balloon in the 1960's, the approach described above has become widespread, especially in Post-Revolutionary Soviet Art in the 1920's. The reality and humans explicitly revealed from the above approach presents enough of its unique narrative, structures, and theatrical elements. Panoramic views and the enlarged objects in the image can be split into seconds down to the moment when the two objects are closest together for dramatic effects.

MIN presents the dual reflections of the images of people floating around the sidewalk recognizing me from the others and at the same time identifying all of us in the same space and time. City offers the fear of isolation and the relief of the mass. Looking at the lives of the others is reverse to looking at oneself, as if to offer a solace with a mirror to show that I myself can live in the same way. Although it is the distortion made by media, there is an ample sense of kinship in the space ad time looking at the splinter of the others and the mass. At least, the images of those splinters show that my so-called hell is not the hell of other people.

The self reflection on the mirror is not the specific scenes or situations of other people but rather the afterimages of every random moment. City is the spaces of lost places which in turn is led to absence and replenishment and then replaced with something new. The irony of the modernity in a city is that the city is a space of emptiness constantly and endlessly replacing the old with the new. In the observation of the empty modernity, the inside of the city caught in the camera was the figureless crowd ambiguously and dubiously floating around like a smudge or halftone. The retina of human eyes looking in the empty modernity has become a camera lens, and the adequate metaphors are the figures of crowd caught in a still image. MIN Jaeyoung films the moving images or takes a photo and converts the still images into a canvas where horizontal TV scanning lines become the motif of the drawing. The repetition of horizontal lines filling the entire canvas identifies the object as a sign of uncertainty and vibration as in the TV monitor while also emphasizing the colors, shape, and other effects of the monitor due to the overlapping colors.

As described in the above, the eyes of the media reveal the implicit and ambiguous reality and visually present in the individuality and structure of the city, crowd, and other people. City is a colossal fabric of residential systems including continuation of meaningless events as smudges or halftone of splintered figures, replacement of the non-existence, and loss of passers-by and trivialness. MIN shows the structured scenes of a plethora of experiences including the "loss of places" and "through media." Here "through media" represents that our perspective is imperfect and that the visual gained through retina is not reliable. Her perspective seen through lenses—capturing the symbolic signs rather than the splintered reality—analyzes the emptiness of the time and incidents. As MIN Jaeyoung said, "looking back at the afterimages of the movements suspended in the reflections of ourselves" is to put time on differential equations, and convert the afterimages of the differentials into visual languages. As if the logics of linguistic structure that divide words into segments, she splits the time and incidents, and visualizes the meaning of each segment.

Through the eyes of the media we can prove the discontinuation, enlargement, and artificial ephemerality of the world. Also, the discontinuation of the video in its maximum abstraction can indicate something strong, or suggest major motif beyond the generality of the persons and incidents. However, MIN sees the visualization through segmented parts that are disassembled and enlarged, and are still in the process as it is still unclear what is the significance of the scene of me and other people, or the disassembled time and events of "I" felt within them and "other people" in me. Beyond the representation of objects and the general knowledge or symbols, the allegory of time and incident are needed as a sense of kinship with other people in a collective crowd or the structure of modernity are at best mere metaphors.

MIN's allegory, beyond metaphor, has its root in fragmented urban experiences and strides among crowds trying to discover the experiences beyond transient emptiness. Like Baudelaire who discovered modernity, MIN needs a stroller who discovers eternity beyond the reality or a certain visual experiences bravely stumping along the dizziness of our daily lives.

* RYU Chulha : Lecturer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Sung Shin Women's University. Exhibition Planner and Curator at Woljeon Museum of Art

박방영

PAK Bang-young

너에게
For you
570×445cm Mixed media on fabric 2013

오늘의 길 위에서
On the path of Today
135×419cm Korean ink, Acrylic on Korean paper 2012

우리이야기
Our story
70×190cm Korean ink, Acrylic on Korean paper 2012

너는 나
You Are Me
135×280cm Mixed Media on Rice paper 2012

디지털 시대의 아날로그, 박방영의 회화

김상철(동덕여대 교수, 미술 평론)

현대미술의 특징을 다양성에서 찾곤 한다. 이러한 경향은 새로운 세기에 들어 더욱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현대미술을 대변하는 특정한 경향이나 이즘은 실종된 지 이미 오래이며 온갖 분방한 개성과 다양한 표현들이 무제한적으로 표출되고 있다. 이는 새로운 세기의 주목해 볼 상황이라 할 것이다. 과거 세계의 질서는 우월한 문명을 점유하고 있는 국가나 집단에 의해 견인되어 왔다. 이른바 선진국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문명 체계는 독점적이고 종속적이며 권위적인 성격을 지니게 마련이다. 그러나 새로운 세기에 들어 이러한 기성의 질서는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른바 인터넷으로 대변되는 디지털 시대가 바로 그 견고한 기성의 질서를 허물어뜨린 것이다.

디지털 시대는 인간과 네트워크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새로운 세상이다. 이는 물질 중심으로 이루어진 가치체계가 아니라 개념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또 다른 세계이다. 물리적인 공간은 네트워크를 통해 하나로 결합되고, 공간과 공간 간에는 이른바 시차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미 일상화된 실시간, 동시대라는 말은 바로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환경 질서를 개괄하는 함축적인 단어이기도 하다. 이러한 새로운 질서 속에서는 과거의 획일적이고 권위적인 가치는 용인되지 않는다. 모든 문명은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통해 존재하며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질서를 통해 다양성을 보장받게 된다. 오늘의 현대미술이 특정한 주도 이념에 따라 진행되지 않을 뿐 아니라 무한한 개성의 표출이 담보되어 분방함의 극치를 이루는 것 역시 이러한 시대적 산물인 셈이다.

디지털 문명의 위대함, 혹은 무서움은 바로 그것이 인간의 경험을 무제한적으로 축적한다는 점이다. 과거 문자를 확보한 계층이 지배계층으로 군림했던 것에 비한다면, 그리고 이들의 제한적인 경험만이 문자화되어 전해졌던 것을 상기한다면, 오늘의 새로운 세상은 그야말로 혁명적인 변화와 마주하고 있는 셈이다. 장차 디지털은 인간의 경험을 무제한으로 축적하며 기계문명을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까지 끌어 올릴 것이다. 생물의 진화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혁명적인 계기를 통하여 획기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때, 우리는 전에 경험해 보지 못 한 새로운 문명 상황을 바로 목적에 두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디지털을 바탕으로 한 기계문명의 절정에서 이른바 아날로그로 통칭되는 인간적인 가치는 오로지 예술에 의해 보존되고 존중될 것이다. 이러한 가치 변화와 예술 영역의 확대는 이미 우리가 절감하고 있는 바이다. 현대미술의 다양성 역시 이러한 현상의 구체적인 발현인 셈이다.

새로운 문명 상황에서 문명과 문명 간의 관계가 수평적이며 상호의존적인 것이라 한다면, 그것은 바로 특수성의 가치를 용인하고 평가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이는 과거 선진 문명에 의해 제시되었던 보편성의 가치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것으로 향후 우리 미술의 새로운 이정으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중요한 내용이라 할 것이다.

작가 박방영의 작업은 특정한 내용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독특한 것이다. 분명 서예를 지지체로 삼고 있지만 그것은 고전적인 서예와는 사뭇 다르다. 더불어 회화적 요소가 다분하지만 전통적인 회화의 범주에 넣기에도 마땅치 않다. 거침없이 분방하고 풍부한 감성이 물씬 배어있는 그의 작업은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 등 다양한 가치의 민감한 경계에서 독특한 빛을 발하고 있다. 그의 작업을 단순히 문자로 읽고 서예로 이해한다면 실로 유감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더불어 회화의 조형적 가치로 판단하려 한다면, 이 역시 적잖은 것을 훼손하고 망실하여 결국 형식만을 건지게 될 것이다.

그의 작업은 그 독창성만큼이나 독특한 방법으로 읽고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때로는 마치 재갈 물리지 않은 야생마처럼 거칠고 기운차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한없이 여리고 감성적인 들꽃과도 같다. 짙고 검은 먹과 거침없는 운필로 이루어진 그의 화면은 강한 남성적 매력과 더불어 여성적인 다감함이 공존한다. 그것은 그의 천성이자 감각일 것이다. 주목할 것은 바로 이러한 독특한 형식과 내용에서 물씬 풍기는 아날로그적 감성이다. 서예에서의 필획 자체는 반복된 훈련을 통한 정교한 원칙이 존재한다. 하물며 수천 년을 이어오며 무수한 운필의 경험들을 축적하며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임에야 그 깊이는 참으로 헤아리기 어려운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작가의 운필들은 반드시 그러한 원칙과 규율에 충실한 것은 아니다. 그것은 차라리 일탈의 분방함과 자유로움으로 충만한 것이다. 물론 이는 오랜 기간 서예에의 몰입에서 획득된 성과이겠지만, 적어도 그것이 회화적 수단으로 운용됨에 있어서는 서예의 그것과는 또 다른 것이다. 전통적인 동양회화의 품평에서 이러한 경우를 흔히 일격(逸格), 혹은 일품(逸品)이라 일컫는다. 즉 규정하고 평가할 마땅한 방도가 없으나 그 자체로 빼어난 것을 말한다.

작가의 일탈은 아날로그적 감성으로 점철되어 있다. 그것은 민화에서의 천진한 파격과 분청사기에서의 해맑은 감성과도 유사하다. 이러한 심미 특질들은 우리 민족 고유의 것이지만, 그간 간과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과거 우리미술은 다양한 외부적 조건에 의해 그 본질과 특질이 온전히 발휘되지 못하였다. 전통시대에는 중국미술로 부터의 영향과 이어 일제 강점기의 일본 미술로 부터의 영향, 그리고 해방 이후 서구미술의 세례에 따른 왜곡된 현대미술의 수용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질곡의 세월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그것은 우월한 문명에 대한 추종이었으며, 종속적 문화 수용의 예일 것이다. 이제 새로운 세기의 새로운 가치가 특수성에 바탕을 둔 수평적이고 상호의존적인 질서로 변환되고 있다고 할 때, 작가가 표출하고 있는 독특한 심미적 내용들은 분명 눈여겨봐야 할 대목일 것이다. 그것은 새로운 세기의 새로운 요구이기 때문이다.

너와 함께
With You
45×53cm Mixed media on Korean paper

* 김상철은 서울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를 졸업하고 중화민국 문화대학 대학원에서 수학하였다. 이후 서울 공평아트센터 관장 및 월간 미술세계 주간을 거쳐 현재 미술평론가로 활동하고 있다. 주로 한국화 및 한국문화에 관한 평문과 짐필을 하고 있으며, 현재 경희대학교, 상명대학교 등에 겸임교수로 출강하고 있다. 논문으로 〈원과 고려의 회화교류〉가 있으며, 역서로 〈동양화의 이해〉, 〈중국 근, 현대미술〉 등이 있다.

Analogue in the Era of Digital, Paintings of PAK Bang-young

KIM Sang-cheol
(Prof. at Dongduk Women's University, Art Critic)

The roots of contemporary arts are found in diversity. The trend has become more evident at the dawn of a new century. A certain trend or 'ism' representing contemporary arts have gone missing only to be replaced by wild and unique characteristics and diverse expressions. It is worth taking note in this new century. The hegemony was handed over to a group of countries with advanced civilization or advanced countries. The civilized countries also have the monopolizing, subordinating, and authoritative power. However, the conventional order of the world as we know it has gone through seismic changes in this new century. The digital era widely represented as the internet connection has shattered once solid conventional order of the world.

Digital era is a newly created world organically combining human and network. It is a new world centering at the concept, not the value system with materials. Physical space is combined into a single unity with network where there exist no different time zones. The words like "real time" and "contemporary" represent and encompass the new entire environment and order. This new order does not accept the uniform and authoritative values of the past. All the civilization has their diversities guaranteed in horizontal and democratic order system via interdependent relationship. Thus, this new digital era has facilitated the contemporary art to reach the culmination of ultimate freedom with unfettered expression of individual characteristics rather than sticking to certain ideologies of the past.

The greatness or rather the scary part of the digital civilization is the unlimited accumulation of human experiences. Comparing to the dominance of literate group over the illiterate, the new world today confronts revolutionary changes per se. The digital will raise human experiences to an unlimited level of accumulation that the previous mechanical civilization could never have imagined. When the evolution of the biology has come to the point of radical juncture with innovation not slow consistent evolution process, we may soon face a new civilization that we have never experienced before. At the height of digital-based machine civilization, the human value collectively referred to as analogue can only be preserved and respected in arts. We are currently witnessing this value change and the expansion of the territory of arts. The diversity of contemporary arts is again concrete expression of this phenomenon.

The horizontal and interdependent relationship of civilization indicates the acceptance and the evaluation of the unique and special values. It greatly differs from the universal value suggested by the advanced civilizations in the past. It is something that we have never seen or experienced before, and therefore it is significant as a roadmap for Korean arts to unfold in the future.

Artist PAK Bang-young's works are very unique and thus difficult to pin down to a single category. Basically it is taking calligraphy as the main base but then it differs from the other classic calligraphy. Also there are more than enough painting elements but they don't fall into the traditional painting category. His free spirited, sensitive, and multidisciplinary works stand in between the ambiguous borders of traditional and modern, the East and the West. If one could try to read off and understand from his calligraphy, it could be just unfortunate as the spectator will miss out the painting. If one tries to judge his painting as formative arts, he or she will end up being lost under the rubble of formality.

His works should be read and understood as unique and creative as it is presented. It could be energetic but abrupt like unbridled wild horse, but it could become vulnerable and sensitive like wild flowers in a field. On the screen, the bold uninhibited brushstroke of black ink with strong and masculine charm coexists with friendly touch of femininity. This must have come from his natural characteristics or sensitivity. What draws our attention is the analogue sensitivity strongly presented in this unique forms and contents. The calligraphy brushstrokes should be practiced repetitively under strict and rigorous instruction and principle. Given that the experiences have been accumulated for over thousands of years up until today, it is difficult to fathom the bottom of the depth. However, the artist's brushstroke does not always abide by the rules and regulations. It is filled with unfettered freedom deviated from the norms. It must be the achievement gained from practices in calligraphy for longer period of time, adding at least some of painting elements. In traditional ink painting, this is called "Great Blow" or "Excellent Quality" which literally indicates the outstanding achievement in itself, but there are no official evaluation and rating systems in place.

The artist's deviation is embroiled with the analogue sensitivity. It is rather similar to the pure and clear sensitivity of grayish-blue-powdered celadon and the ingenuously comical or whimsical Korean folk painting. It has always been the nature of Korean people but has long been ignored. In the past, Korean art has not been expressed wholly in its nature restrained by various outside conditions: China's heavy influence and Japanese colonial rule in the past, the christening of western arts as "modern arts" which have again distorted Korean arts. However, Korean arts have trudged through the era of the ordeals to come this far. We had blindly followed superior civilizations and we were the prime example of subordinate acceptance of foreign culture. When the new values of this century change into interdependent and horizontal order, we should take note on the unique aesthetic elements the artist has expressed. That is because it is the demand of the new century.

너에게
To You
45×53cm Mixed media on Korean paper

* KIM Sang-cheol is B.A. in the Oriental Painting, Hongik Univ. and finished a course at the Graduate school of Chinese Culture University. He served as a Director at Seoul Gongpyeong Art Center and Editor-in-Chief at monthly art magazine Misul Segye. He is currently working as an Art Critic. He mainly writes about Korean paintings and Korean culture. He is an adjunct professor at Kyunghee University and Sangmyung University. His published papers are <Painting exchange between Koryo and Yuan Dynasty>, and the translated books are <Understanding of Oriental Painting>, <China Modern and Contemporary Arts>.

박상희

PARK Sang-hee

수영장
The pool
19×33cm Acrylic on canvas, Plastic sheet cutting 2012

수영장
The pool
55×150cm Acrylic on canvas, Plastic sheet cutting 2012

기찻길
The Rail Road
30×130cm Acrylic cutting on panel 2012

휴식
On the path of today
30×130cm Acrylic on canvas, Plastic sheet cutting 2012

빛 갑옷을 입은 도시의 피부를 찢어라

고충환(미술비평가)

그리기와 만들기. 회화적 프로세스와 공작적 프로세스. 박상희는 시트지로 그림을 그린다. 시트지로 그림을 그릴 수는 없으므로 엄밀하게는 시트지로 그림을 만든다. 시트지 위에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이중삼중으로 덧입힌 시트지를 칼로 오려내 시트지 위에 그린 그림이 부분적으로 드러나게 함으로써 그림을 만들기도 한다. 그림을 그리고 만드는 과정이 일관성을 가지고 수행되기도 하고 과정 속에서 일관성이 뒤집어지기도 한다. 그림을 그리고 만드는 과정이 긴밀하게 맞물려 있어서 서로 구별되지가 않는다.

이처럼 구별되지 않는 그림은 그리기와 만들기의 프로세스 중 한 프로세스가 그림의 외적 인상이며 처음인상을 장악하게 한다. 시트지를 이용해 그림을 그리고 만들기 시작한 처음 작업에서는 그리기보다는 만들기가 화면에 대한 첫인상을 결정지었었다. 그리고 점차 만들기의 과정은 그리기의 과정에 자리를 내어주면서 그리기의 과정이 두드러져 보이기에 이른다. 그래서 그림은 외적으로 그린 그림이며 재현적인 그림처럼 보인다. 그리고 만드는 과정은 그리는 과정 밑으로 잠수한다. 그래서 그림은 꽤나 잘 그렸지만 특별할 것은 없는 그저 평범한 그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처럼 그리기와 만들기의 상호 이질적인 두 지층이 중첩되고 표면과 이면으로 분리되고 포개진다. 보통의 그림처럼 보이지만 보통의 그림이 아니다. 보통의 그림이 그림의 표면이라면 보통이 아닌 그림이 그림의 이면이다. 보통의 그림 속에 보통이 아닌 그림을 숨겨놓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숨겨진 그림은 드러나 보이는 그림이 주는 감각적 쾌감 탓에 잘 드러나 보이지는 않지만 자세히 보면 보인다. 그리기와 만들기, 드러내기와 숨기기, 숨기기를 통해서 오히려 더 잘 드러나 보이게 하기의 과정이 긴밀하게 상호작용하는, 꽤나 복잡한 그림이다. 그저 평범한 보통의 그림처럼 보이는데, 알고 보면 형식이나 과정 자체가 그다지 복잡한 것은 아닌데, 형식으로나 의미론적으로, 그리고 형식보다는 의미론적으로 꽤나 복잡한 그림이다.

무엇을 그리고 무엇을 만드는가. 무엇을 드러내고 무엇을 숨기는가. 숨기기를 통해서 오히려 더 잘 드러나 보이게 한다고 했다. 낯설게 하기다. 친숙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낯설게 하기의 전략을 숨겨놓고 있었다. 친숙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친숙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 같다. 자세히 보면 낯설다고 말하는 것 같다. 자세히 보면 낯선 것이 보인다고 말하는 것 같다. 그리고 그렇게 친숙한 것이 아닌 낯선 것을 보여주고 싶고, 그렇게 캐내진 낯 선 것이 다만 친숙한 것처럼 보일 뿐인 친숙한 것의 실체라고 말하는 것 같다. 그저 아름다운 도시의 야경처럼 보이는데, 무엇이 표면이고 이면이란 말인가. 무엇이 실체란 말인가. 도시의 실체? 도시의 야경의 실체? 도시의 욕망의 실체? 도시와 욕망의 도시는 다르다. 도시가 가치중립적이고 중성적인 의미 없는 개념이라면, 욕망의 도시는 그 속에 파토스와 에토스를 탑재하고 있는 심리적이고 가치론적인 개념이다. 작가는 도시를 소재로 하여 바로 그 도시의 욕망을 그리고 싶고, 도시의 심부에 잠자고 있는 파토스와 에토스에 이르고 싶고, 그 심리적이고 가치론적인 개념을 드러내고 싶다.

물신도시, 욕망의 도시. 현대인은 상실의 시대를 살고 있다. 현대인은 늙었다. 늙는다는 것은 상실을 엄연한 현실로, 삶의 냉엄한 준칙으로 받아들이게 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아님 당연하게도 문명이 발달할수록 더 그렇고 심신이 편안할수록 더 피폐해진다. 처음엔 거머쥐려고도 해보았고 저항도 해보았고 몸부림도 쳐보았다. 그리고 이내 시들해졌다. 현대는 그렇게 시들해진 상실감이 침묵보다 깊은 잠속에 잠복해있다. 철저하게 무기력하지만 현실을 개조하고 전복할 수도 있는, 거의 그럴 일은 없는, 실제로는 거의 불가능한 동력이며 계기이기도 하다. 상실감은 숨어있지도 않다. 일부러 외면하지 않는다면 쉽게 눈에 띈다.

여기에 상실의 시대에 역행하는, 일부로나 실제로 상실감을 외면하는, 상실감이 사실은 거짓이라고 말해주는, 유혹하듯 속삭이는 장소가 있다. 도시다. 현대 속의 현대다. 현대도시는 신을 폐기하고 자본주의 물신을 대리신으로 불러들였다. 그런 도시에서 모든 길은 물신으로 통한다. 물신이 아니라면 아무런 일도 시작되지도 일어나지도 않는다. 스펙터클 소사이어티. 현실 속에 영화가 있고 소설이 이미 다 들어있다. 현실 속의 영화와 영화 속의 현실을 뒤죽박죽으로 만들어 꿈꾸듯 삶을 살게 만들어라. 이미지가 현실을 대체하고 이미지가 현실인 시대를 구가하게 하라. 물신의 지상명령이다. 현실을 이미지로 바꾼다는 것은 곧 현실을 소비할 수 있는 상품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이미지가 현실을 대신하는, 이미지가 곧 현실인 장소가 도시다. 그리고 그 현실은 낮보다는 밤에 더 잘 드러나 보인다. 낮보다는 밤에 도시는 더 도시답다. 현실과 이미지가 뒤죽박죽된, 현실보다 이미지가 더 현실처럼 와 닿는 도시의 야경 속에서 현대인은 기꺼이 길을 잃는다. 도시에는 길이 없고 오로지 이미지의 밑도 끝도 없는 흐름이 있을 뿐이다. 이런 이미지 도시를 판타스틱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조명이고 인공 광이다. 조명은 물신의 화신처럼 물신이 흘려보낸 기쳐럼 도시 구석구석을 핥고 다닌다. 때론 어둠 속에 침잠하고 싶은 사람들이며 고독하고 싶은 사람들마저 지나치는 법이 없고 내버려두는 법이 없다. 도시 속에 입성했으면 도시의 법률이며 준칙을 받아들여야 한다. 도시 속에 고독과 침잠과 상실감에 젖은 감상을 위한 자리는 없다.

그래서 박상희는 도시를 그리고 도시의 야경을 그린다. 도시에 끌려서 도시를 그리고 도시가 애써 지워낸 상실감을 들추어내고 싶어서 도시의 야경을 그린다. 이중적이고 양가적이다. 이중성과 양가성은 도시 자체의 속성이기도 하고(현란한 불빛 속에 상실감을 은폐하고 있는) 도시에 대한 작가의 태도이기도 하고(환락도시와 상실의 도시라는 중의적 의미로 나타난) 도시를 재현하고 있는 시트지 고유의 성질이기도 하다. 고유의 성질? 시트지에 고유성 같은, 본질 같은, 거대담론 같은 어떤 항상적이고 일관된 성질 따위가 있을 리가 없다. 그저 임시방편의 쓰임새가 있을 뿐. 작가는 원래 이 임시방편의 쓰임새를 간판을 그리면서부터 착안해냈었다. 도시를 도시답게 해주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도시의 아이콘으로 부를 만한 것으로는 무엇이 있을까, 하고 숙고하는 과정에서 찾아진 것이 간판이다. 그리고 그렇게 간판을 그리다가 자연스레 간판의 재료인 시트지와 빛(조명빨)이 눈에 들어왔다. 간판은 도시의 전형에 해당하는 아이콘이고, 그 아이콘은 조명으로 인해 더 잘 드러나 보인다. 그래서 시트지로 그림을 그리게 됐고 도시의 야경을 그리기에 이른다.

피에르 부르디외의 문화계급론에 의하면, 문화는 만인에 평등하지도 균등하지도 않다. 이로부터 사물계급론을 유추해볼 수가 있을 것이다. 비록 모든 계층과 부류의 사람들이 똑같은 코카콜라를 마시기 때문에 코카콜라를 그린다는 앤디 워홀의 애교 섞인 전언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사물은 결코 만인에게 평등하지도 균등하지도 않다. 빛도 마찬가지. 빛도 물신이 분배하는 자본의 논리로부터 예외일 수도 자유로울 수도 없다. 비록 자연광은 만인에 평등하고 균등한 빛을 비출지 모르나, 유감스럽게도 그리고 당연하게도 조명빨은 철저하게 자본의 논리를 수행하고 대리하고 반영한다. 빛에도 분명 그레이드가 있다. 휘황찬란한 불빛으로 현란한 이미지를 돋보이게 하는 빛이 있는가 하면, 그 빛의 기세에 짓눌려 희미한 조도 아래 궁색한 몸을 낮추는 빛 같지도 않은 빛도 있다. 조명은 심지어 사람들이 도시를 빠져나간 이후에조차 밤을 잊은 그대들을 위해 저 홀로 번쩍거리고 점멸하고 자기를 광고하기에 열심이다.

자연광이 사물을 부드럽게 감싼다면 인공광은 사물의 대비를 극명하게 한다. 사물을 빛과 어둠으로, 선한 사물과 악한 사물로 대비시킨다. 그 날카로운 예각에 찔리거나 베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물신의 사제 앞에 한껏 몸을 사려야 한다. 예로부터 빛은 신의 전유물이며 부유물이었다. 자본주의 물신이 그 성스러운 빛을 유산으로 물려받았다. 파리하고 창백한, 차갑고 무미건조한 빛이 유리 진열장에 모신 상품들을 얼마나 돋보이게 하는가. 노터치, 더럽혀진 손으로 성스러운 몸(상품 혹은 물신)을 만지지 말라. 예로부터 성과 속은 서로 건널 수 없는 강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다. 다만 주인이 바뀌었을 뿐. 일을 하지 않는 자는 먹지 말고, 일을 할 수 없는 자도 먹지 말고,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자도 먹지 말라. 물신은 신격도 아니고 인격도 아니다. 그래서 마치 기계처럼 여지가 없다. 그저 작동과 수행이 있을 뿐. 이처럼 도시의 야경을 휘황찬란하게 하는 빛은 냉정하고 동정이 없다. 박상희는 도시의 야경을 불 밝히고 있는 조명을 매개로 이처럼 냉정하고 동정이 없는 자본주의 물신을 그리고 있는지도 모르고 최소한 그리고 싶은지도 모를 일이다.

박상희의 그림은 그림 층과 시트지로 오려낸 층이 하나의 층위로 중첩돼 있다. 외적 인상과는 달리 자세히 보면 이 두 지층은 서로 일치하지도 조화를 이루지도 않는다. 시트지 층은 비교적 사실적으로 재현된 그림 층을 돋보이게 하기보다는 해체하고 파열한다. 그렇게 파열된 현실의 지층 사이로 무엇이 보이는가. 작가는 시트지를 매개로 표면만 있고 이면은 없는 현대도시의 무미건조하고 창백한 혹은 무색무취의 속성을 드러내고, 그 매끈한 피부를 듬성듬성 오려내 현대도시의 속살을 드러내 보인다. 그렇게 오려낸 표면 뒤쪽으로 이면이 보이는가. 꽤나 잘 그리고 그럴듯하게 그려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 그렇게 숨겨져 있어서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래서 오히려 더 이런 물음 앞에 서게 만든다. 현대도시는 이면이 있는가. 빛의 유혹에 현혹되지 않는다면, 그래서 현대도시가 빛의 휘장 뒤편으로 숨겨놓고 있는 어둠을 직시한다면 혹 그 이면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 고충환은 부산에서 태어났으며, 영남대학교 회화과와 홍익대학교 대학원 미학과를 졸업했다. 1996년 조선일보 신춘문예 미술평론 「키치의 현상학 이후, 신세대미술의 키치 읽기」로 등단했으며, 2001년 '성곡미술대상'과 2006년 '월간미술대상 학술부문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다. 그동안 《재현의 재현전》(성곡미술관), 《비평의 쟁점전》(포스코미술관), 《조각의 허물 혹은 껍질전》(모란미술관), 《드로잉조각, 공중누각전》(소마미술관)을 기획한 바 있으며, 저서로는 『무서운 깊이와 아름다운 표면』(2006)과 공저로 『비평으로 본 한국미술』(2001)이 있다. 현재 한국미술평론가협회와 국제미술평론가협회 회원으로 있다.

Tear the Skin of a City clad in Amor of Light

KHO Chung-hwan (Art critic)

Drawing and making, the processes of painting and crafts. PARK Sang-hee draws a picture with sheet paper. In the strict sense, PARK makes a picture with it, because you can't draw a picture with it. PARK draws a picture on it and makes it with it by cutting the double or triple layers of it by a knife and by partially revealing a picture drawn on it. The processes of drawing and making a picture are carried out with consistency, or this consistency is broken in the processes. As the two processes are closely interlinked, they are not distinguished from each other.

Like this, in an undistinguishable picture, one process of the processes gives the outward and first impressions. In the early works of drawing and making a picture with sheet paper, making, rather than drawing, started making a first impression about the picture plane, and gradually, the process of making made way for the one of drawing, and then the latter has got to stand out. So the picture, drawn outwardly, looks like a representative one. And the process of making dives into the process of drawing. So the picture looks like an ordinary one which is pretty well drawn but has nothing special, but, in fact, the two different strata of drawing and making are overlapped and separated into surface and hidden side and superposed. So the picture looks ordinary but is non-ordinary. The non-ordinary picture is the hidden side of the picture, while the ordinary one is the surface of it. The non-ordinary one is hidden in the ordinary one. Although this hidden picture isn't well exposed due to a sensual pleasure given by the revealed one, it comes into sight when we closely look at it. The picture is quite complex, due to that the processes of drawing and making, revealing and hiding, and revealing better trough hiding closely interact with each other. It looks like an ordinary picture, and its format or process itself isn't very complex if you get to know it, but it is a quite complex one formally and semantically, and more exactly, formally rather than semantically.

What does the artist draw and make? What does the artist reveal and hide? The artist reveals something much better through hiding. This is defamiliarization. The picture looks familiar but the artist has adopted a strategy of defamiliarization in it. The artist seems to say that it looks familiar but really isn't familiar. The artist seems to say that it is unfamiliar when you look at it closely. The artist seems to say that something unfamiliar comes into sight when you look at it closely. And the artist seems to say that the artist wants to show you not something familiar but something unfamiliar, and that something unfamiliar that is dug, is the reality of something familiar that just looks familiar. The picture just looks like a beautiful night view of the city, but what are the surface and the hidden side? What is reality? Is it the reality of the city? Is it the one of the night view of the city? Is it the one of a desire of the city? The city and the city of desire are different. The former is a value-neutral, gender-neutral concept, while the latter is a psychological, axiological one with pathos and ethos. The artist wants to express the desire of the city with a motif of the city, to reach to the pathos and ethos sleeping in the center of the city, and to reveal the psychological and axiological concept.

The city of fetish, and the one of desire. Modern people live in times of loss. They are old. Getting older make them accept loss as stark realities, and as grim standards of life. Ironically, or understandably, the more civilization develops, the more pliable they get, and the more comfortable mind and body is, the more devastated they get. They, at first, tried to grab something, resisted and struggled. Then their interest in this withered away. Although they are thoroughly enervated, this withered sense of loss is in hiding in a deeper sleep than silence in modern times. The sense is the power and opportunity through which they can renovate and overthrow realities, which is actually almost impossible. The sense isn't even in hiding. It is easily noticeable, if you don't deliberately turn your face away.

Here is a place, which goes against the times of loss, which deliberately or really turns away from a sense of loss, which tells that the sense isn't true, and which whispers as if it lured people to it. It is the city in modern times. The modern city has disposed of gods and replaced them with a fetish of capitalism. In this city, all roads lead to it. Unless there isn't a fetish, nothing starts or happens. The spectacle society. Movies and novels are already in reality. Mix the movies in reality and the reality in movies up, and make people live their life as if they dreamed of it! Replace reality with image, and make them enjoy the era when image is reality! These are the supreme orders of the fetish. Replacing reality with image means the change of reality into a sort of goods which can be consumed. Like this, the place, where reality is replaced with image and where image is reality, is the city. And the reality is better visible at night rather than in the daytime. The city has a more urban character at night rather than in the daytime. In the night view of the city with a hodgepodge of reality and image, where image is more realistic than reality, modern people are willing to get lost. In the city, there is no way and there is only an endless flow of images. The things that make the city of images fantastic are lighting and artificial light. The lighting licks all the corners of the city, like an incarnation of the fetish, and like a flag sent by the fetish. It doesn't even pass people, who sometimes want to withdraw into darkness and solitude, by or leave them alone. Once you have entered the city, you have to accept its laws and standards. There is, in it, no room for the sentimentality of solitude, withdrawal and a sense of loss.

So PARK Sang-hee draws the city and the night view of the city. PARK is attracted by the former to draw it, and wants to expose a sense of loss erased by it to draw the latter. This is dual and ambivalent. Duality and ambivalence are the properties of the city itself (covering up a sense of loss in a dazzling light), the artist's attitude about the city (shown as a double meaning of the city of pleasure and loss), and the intrinsic properties of the sheet paper on which the city is represented. The intrinsic properties? In sheet paper, there can't be any consistent, coherent properties such as characteristic, essence and great discourse. There are just uses for a temporary expedient. The artist had an eye on the uses when drawing a signboard. It was the signboard that he found in the process of contemplating what might make the city has an urban character and what could be called an icon of the city. Then, during the signboard-painting, sheet paper and light, materials of signboard, naturally came into his sights. A signboard is a typical icon of the city, and the icon is better visible due to lighting. So the artist has got to draw a picture with sheet paper and to do the night view of the city.

According to PIERRE Bourdieu's theory of culture-class, culture isn't equal or even to all people. From this, you could be able to infer a theory of things-class. Despite of Andy Warhol's witty statement that he paints Coca-Cola because people of all classes and categories drink the same Coca-Cola, things are actually never equal nor even to all people, light ditto. Light can't be exceptional nor free from the logic of capital distributed by the fetish. Natural light might shine equally and evenly for all people, but, regrettably and understandably, lighting thoroughly follows, represents and reflects the logic of capital. Surely, there are also grades in light. There is light which makes a brilliant image show to advantage by a dazzling light, while there is light which is oppressed by the power of the dazzling light like a grimmer. Lighting flashes and flickers and is eager to do self-advertising for you who have forgotten the night, even after people got out of downtown area.

Natural light gently wraps things, while artificial light makes things contrast sharply. The latter contrasts things; light and darkness, good things and evil ones. You must be careful not to be pricked with the sharp acute angle. You must be very prudent in front of the priest of fetish. Light has been the exclusive property of gods. The fetish of capitalism has inherited the sacred light. How wonderfully a pale, cold and prosaic light make the goods enshrined in glass showcases stand out! No touch. Don't touch the sacred body (goods or fetishes) with soiled hands. Sanctity and mundanity have been the impassable rivers since ancient times. Now, the latter has taken the place of the former, as an owner. Those who don't work won't eat, those who can't work won't eat, and those who want to work but can't do won't eat! The fetish isn't godhead or personality. So, it is unquestionable like a machine. It only works and functions. Like this, the light which makes the night view of the city brilliant is cold-hearted and merciless. Through a medium of the lighting which brightens the night view of the city, PARK Sang-hee may express this cold-hearted, merciless fetish of capitalism or at least wants to.

In PARK Sang-hee's pictures, the layer of picture and the one cut from sheet paper are overlapped in one layer. The two strata aren't united or harmonious unlike the outward impression, when we closely look at them. The layer of sheet paper deconstructs and dismantles the one of picture which is realistically represented, relatively, rather than showing if off. What do you see through this dismantled stratum of reality? The artist reveals the insipid, pale or colorless properties of a modern city through a medium of sheet paper, and exposes the flesh of the city by sparsely cutting out its smooth skin. Do you see the hidden side at the back of the cut surface? The picture is pretty well, convincingly painted, so its hidden side isn't clearly visible, and it is so well hidden, so it isn't obviously revealed, but, thus, you would ask yourself the questions. Does the modern city have its hidden side? If you aren't seduced by the lure of light, and you face the darkness the modern has hidden at the back of the curtains of light, you could see its hidden side.

* KHO Chung-hwan : Born in Busan, and graduated from Painting Dept, Youngnam University and Aesthetics Dept, Hongik University Graduate School. Started his career after winning a prize with 「Reading Kitsch in a New Generation of Art, since the Phenomenology of Kitsch」 in the 1996 Chosun Ilbo's Art Critic of annual spring literary contest. Won a prize of 'Sungkok Art Grand Prize' in 2001 and of 'Encouragement Award in Academic Sector of Monthly Art Grand Prize' in 2006. Planned 《Exhibition of the Representation of Representation》(Sungkok Museum of Art), 《Exhibition of the Issues of Critique》(Posco Art Museum), 《Exhibition of the Skin or Peel of Sculpture》(Moran Museum of Art), and 《Exhibition of Drawing Sculpture, Castles in the Air》(Soma Museum of Art). Authored 『Scary Depth and Beautiful Surface』(2006), and co-authored 『Korean Art seen through Criticism』(2001). He is a member of Korean Art Critics' Association and International Art Critics' Association.

벤자민 필립스

영국 출신 작가 벤자민 필립스는 일러스트레이터이자 아티스트로 2012년 3월부터 8월까지 인천아트플랫폼 레지던시에 참여하였다. 입주기간동안 제작한 드로잉들은 동기간에 제작한 작가의 그림일기 중 일부로 몇몇 작품을 살펴보면 주민들의 운동을 돕기 위해 자유공원에 설치된 운동기구들을 사용하는 동네 주민들과 하나같이 똑같은 스타일의 패딩점퍼를 입은 사람들을 표현한 것을 찾을 수 있다. 작가는 인천에 머무는 동안 인천의 주변과 일상을 관찰하며, 주로 자신의 나라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생경한 문화적 이질감들을 드로잉으로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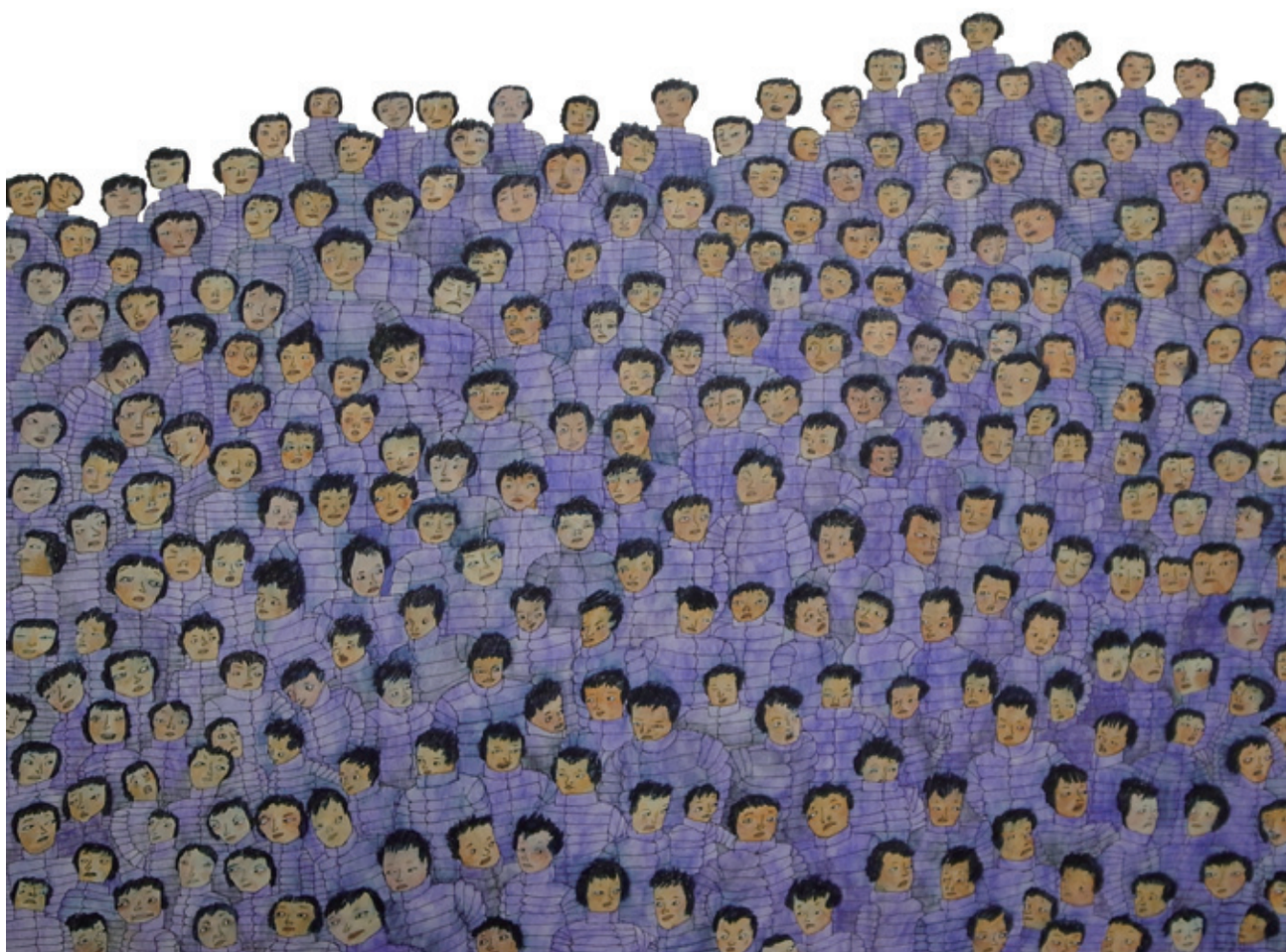
인천에 머무는 동안 모든 것이 작가에게는 새로운 경험이자 독특한 감정들을 느끼는 시간이었으며 작가는 그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꿈만 같다고 토로한다. 작업에서 나타나는 생소하거나 기묘한 느낌들을 통해 우리는 작가의 독특한 유머감각과 당시의 심리상태를 엿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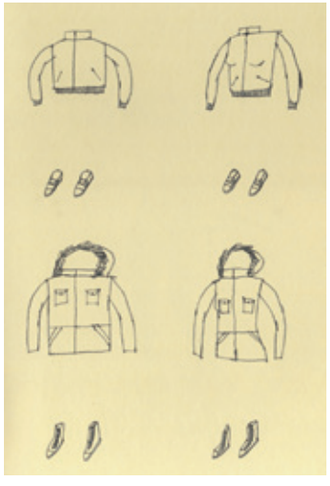
Benjamin PHILLIPS

Benjamin PHILLIPS from the United Kingdom took part in IAP residency program from March to August in 2012. His drawing displayed at the exhibition is part of his illustrated diary which he worked on during that time. Taking a closer look, one thing easily noticeable is that all the townspeople who comes to exercise in Jayu (freedom) Park is wearing a same style padding jacket. During his stay in Incheon, PHILLIPS focused on observing the everyday life of Incheon and expressed things that he felt unusual and culturally distant in his drawing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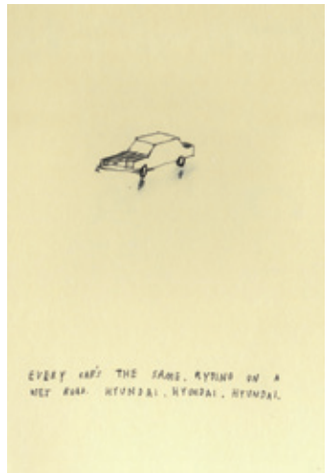
PHILLIPS said that his entire time in Incheon was a totally new experience to him that evoked strange and unique feelings. Looking back, it feels almost like a dream, he added. Thus the unfamiliar or unusual sentiment expressed in his drawing helps the viewers to take a peek at the artist's unique sense of humor as well as his feelings at the time.

보라패딩
Purplepadding
48×48cm Pen, watercolor on paper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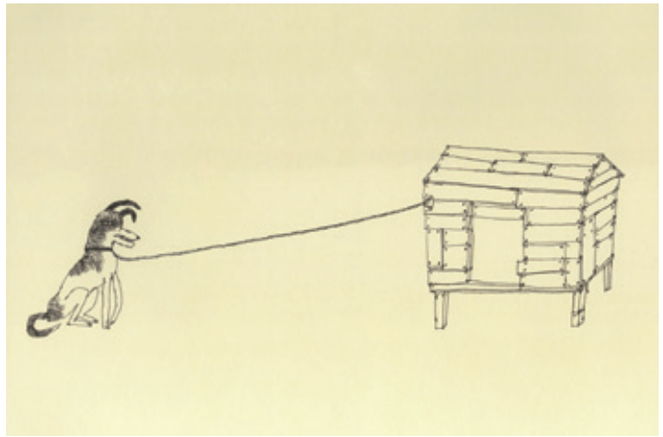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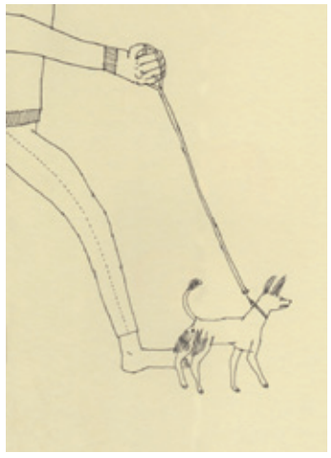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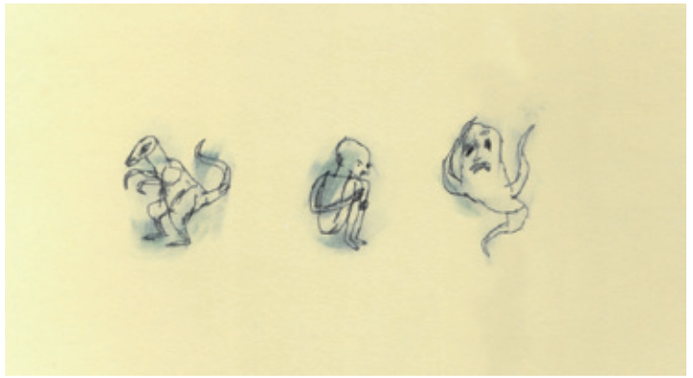


무제_'인천 관찰' 시리즈
Untitled-'Incheon Observations' Series
Variable size Pen on Paper Digital Reproductions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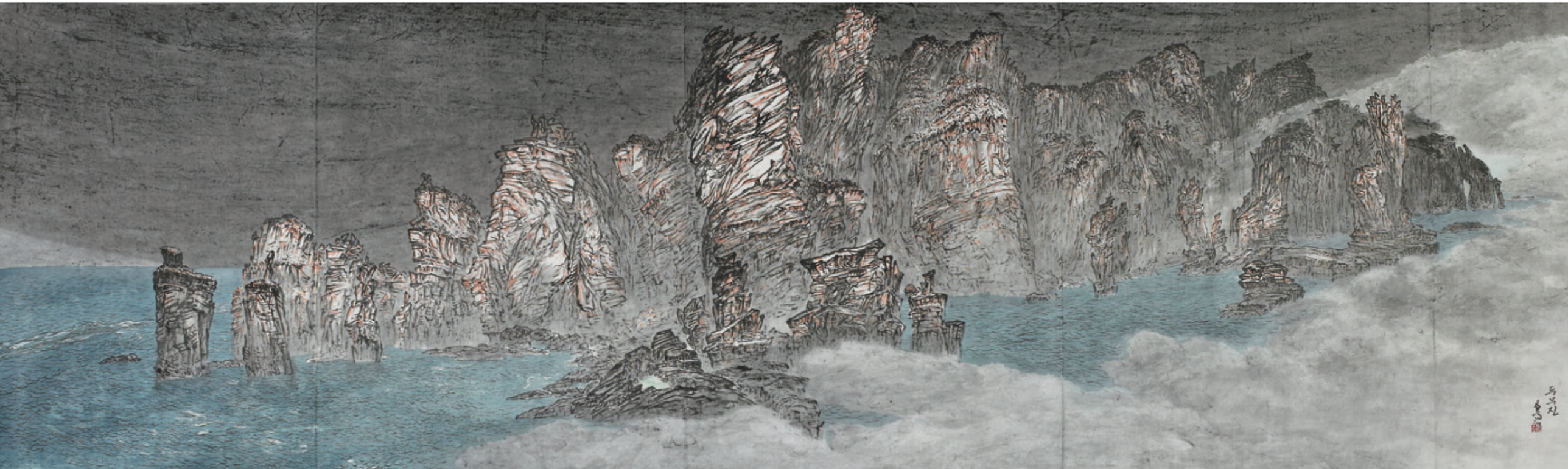
무제-'인천 관찰' 시리즈
Untitled-'Incheon Observations' Series
Variable size Pen on Paper Digital Reproductions 2012



신태수

SHIN Taeso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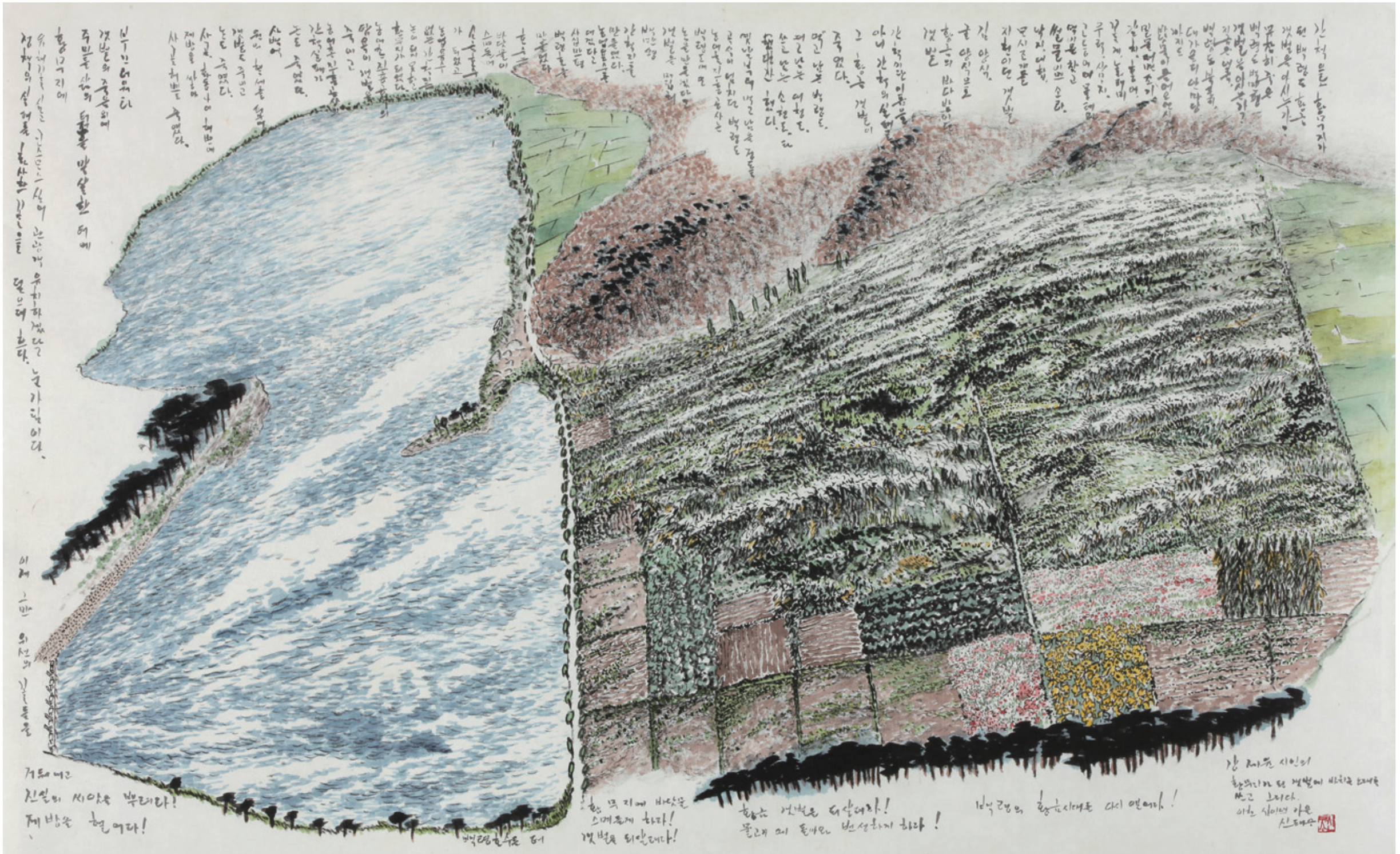


용기원산 백학
A Crane of Mt. Yonggiwon
28×96cm Ink and Watercolor on Korean paper 2012

미아 용여해변-beach
Mia Yongyeohaebyun
74×265cm Ink and Watercolor on Korean paper 2012

소청분 바위산
Mt. Bunbawi in Socheong
74×244cm Ink and Watercolor on Korean paper 2012

백령호와 간척지
Lake Baekryeong and Reclaimed land
59×96cm Ink and Watercolor on Korean paper



외출 – 괭이부리말과 백령도에서의 실경

김상철(동덕여대 교수. 미술평론)

작가 신태수의 작업은 실경산수를 본령으로 하고 있다. 전통 산수가 관념의 그윽한 이상향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실경 산수는 자연과의 직접적인 교감을 통해 현장의 생생한 기운을 표현하고자 함이라 설명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실경 산수는 대개 수묵을 표현의 기저로 삼고 원근법이나 투시법 등을 차용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화면이 주류를 이룬다. 이는 전통적인 수묵, 혹은 산수의 발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적인 것으로 치부되기도 하고, 또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가치를 담보하는 표현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이러한 실경 산수가 본격적으로 대두되고 새로운 가치를 대변하는 새로운 표현 방법으로 제시된 것은 지난 1970년대 말 부터일 것이다. 우리의 것에 대한 추구와 현실에 대한 직시 등의 사회적 요구와 맞물려 전통에 대한 비판과 반성의 과정을 거쳐 그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바로 실경 산수인 것이다. 이후 실경 산수는 전통적인 관념 산수의 경계를 넘어 다양하고 풍부한 조형 경험을 축적함으로써 산수화의 대세를 이루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작가 신태수의 작업 역정은 바로 이러한 실경 산수의 발전 과정과 괘를 같이 하고 있다. 초기 작가의 작업들은 안동을 비롯한 경북 지방의 독특한 산세와 암석들로 이루어진 풍광들에서 비롯되고 있다. 우뚝하고 가파른 산세에 켜켜이 중첩되는 암석들의 양감에 특유의 검붉은 색조가 담채로 더해진 풋풋하고 담백한 맛이 한껏 두드러진 것이었다. 당시 그의 작업에서 유독 인상적인 것은 그것이 비록 실경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그의 화면이 지향하는 것은 단순히 사생에서 비롯되는 현장감에서 벗어나 또 다른 함축적인 의미로서의 자연을 다루고 있지 않은가 하는 점이었다. 묘사나 재현을 통해 객관적인 상황을 드러내기 보다는 대상에 대한 주관적 해석을 통한 함축적인 의미를 포착하고 전달하고자 함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작가의 의지는 이후 그의 작업에 일종의 화두와 같이 일관되게 작용하여 그만의 개성을 구축함에 근간을 이루었다고 여겨진다.

실경으로 일관하며 올곧게 작업에 매진해 온 작가의 근작들은 새로운 변화의 양태를 드러내고 있다. 현실에 대한 설명적이고 부차적인 요소들은 대폭 감소되고 대상의 본질에 육박하고자 하는 우직한 수묵의 맛이 한결 강조된 점은 바로 여실하게 드러나는 변화의 구체적인 예일 것이다. 그것은 꾸미고 수식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부드럽고 조화로운 여성적인 심미가 아니라 마치 거친 흙바닥을 굵은 막대기로 긁는 듯 한 투박함과 질박함이 두드러진다. 이는 작가의 지향이 육안에 의한 대상의 관찰에서 벗어나 보다 근본적인 것에 모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결국 이는 대상의 함축적 표현을 통한 함의의 전달이라는 그만의 해석이 발휘되고 반영된 결과일 것이다.

작가의 신작들은 괭이부리말과 백령도 사생을 통해 이루어진 것들이다. 이는 작가의 작업 거처가 인천이라는 새로운 환경으로 전환됨에 따라 새롭게 마주하게 된 대상들인 셈이다. 그간 주로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강원도 등 자연 경관을 소재로 삼았던 점을 염두에 둔다면, 이번의 신작들은 소재의 확장과 표현의 다변화라는 점에서 의미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괭이부리말은 인천시 동구 만석동의 다름 이름으로 생긴 지 약 70여년이 지난 쪽방 촌이다. 예전에는 바다였던 곳을 매립한 곳으로 인천시의 대표적인 빈민가 중 한 곳으로 재개발을 목전에 둔 처연한 삶의 현장이다. 이곳은 단순한 재개발을 목전에 둔 빈민촌이기에 앞서 인천의 어제를 비춰 볼 수 있는 상징적인 곳이자 우리 근대사의 한 장을 조심스럽게 들춰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가난을 숙명처럼 이고 살아온 이들이 지치고 아픈 몸을 겨우 누이고 숨을 고르던 이곳에도 개발이라는 무서운 바람이 불어 그야말로 풍전등화와도 같이 아슬아슬한 상황인 것이다.

까실하고 무덤덤한 필 촉으로 판자촌 구석구석을 훑고 지나가는 작가의 시선은 조용하고 담백하다. 굳이 감상을 더하거나 주관을 보태 사연을 끄집어내려 하지 않는다. 키 작은 집들이 엉성한 슬레이트 지붕을 머리에 이고 어깨를 마주하며 갸우뚱 앉아 있는 모습은 어쩌면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일 것이다. 낡고 부서져 장차 스러져갈 운명이 작가의 칼칼한 수묵의 맛과도 잘 어울려 오히려 안타까움을 더한다. 가벼운 듯 운필은 자유롭지만, 그것이 머무는 곳마다 쇄락한 시간의 흔적들이 무겁게 무너져 내린다. 텅 빈 하늘은 고상한 여백이 아니라 한숨 같은 탄식으로 읽혀진다. 인적조차 찾아볼 수 없는 그곳은 어쩌면 탈각된 시간의 껍데기들인지도 모른다. 이는 정녕 작가 개인에게 있어서 새로운 시각적 자극이자 조형적 실험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은 그의 작품 세계에 의미 있는 흔적으로 기록될 것이라 여겨진다.

더불어 백령도의 풍광을 담은 작업들 역시 신작들 중 하나이다. 북한과 마주하고 있는 서해의 최전방 백령도는 익숙하지만 낯선 곳임에 분명하다. 콩돌해변과 두무진 등 백령도의 명소를 일별한 작가의 화면은 예의 맑고 싱그러우며 담백한 실경의 맛이 두드러진다. 성근 듯한 짧은 필 촉들을 잇대어 구사함으로써 준법을 대신하고 필이 헛되이 흐름을 경계하며 대상을 포착해 내는 작가의 화면은 간결하고 명료하다. 백령도의 풍광 역시 그가 이전에 자주 마주하였던 그러한 자연들과는 또 다른 모습이었을 것이다. 가로로 넓게 펼쳐진 섬 풍광과 넉넉하게 열린 공간의 구사, 그리고 안개와 파도 등의 표현은 이전 그의 작업에서의 그것과는 또 다른 맛을 느끼게 한다. 작가의 필치는 짧고 부드럽지만 단호하고, 색채는 담백하여 싱그럽다. 적묵의 눅진한 깊이 보다는 순간적인 필의 움직임의 간결한 필치로 완성되는 화면은 소박하고 담백하다. 만약 이에 수묵이 지니고 있는 유현함이 더해진다면, 그의 작업은 더욱 풍부해 질 것이라 여겨진다. 작가의 작업이 현상에서 본질로 접근하고자 하는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음을 염두에 둔다면, 이는 그의 작업을 보다 다른 차원에 이르게 할 관건 중 하나라 여겨진다.

작가가 특정한 지역의 자연과 풍광을 통해 자신의 특장과 개성을 확보한 것이라 한다면, 이번 신작들은 분명 작가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해 준 소중한 기회였을 것이다. 그것은 단순히 새로운 대상에 대한 새로운 표현이라는 현상적인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괭이부리마을이나 백령도와 같이 특정한 의미와 각별한 상징성을 갖는 공간에 대한 해석이라는 새로운 경험이 바로 그것이다. 실경이 관념 산수를 대신하여 주류를 이루고 있는 현실에서, 실경이 단순히 자연에 대한 객관적 상황의 재현에 머물러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형식주의에 함몰되어 가고 있다는 지적과 비판을 염두에 둔다면 작가의 이번 경험은 분명 그의 작업 생애에 있어 소중한 자양분으로 남게 될 것이다.

* 김상철은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를 졸업하고 중화민국 문화대학 대학원에서 수학하였다. 이후 서울 공평아트센터 관장 및 월간 미술세계 주간을 거쳐 현재 미술평론가로 활동하고 있다. 주로 한국화 및 한국문화에 관한 평문과 집필을 하고 있으며, 현재 경희대학교, 상명대학교 등에 겸임교수로 출강하고 있다. 논문으로 〈원과 고려의 회화교류〉가 있으며, 역서로 〈동양화의 이해〉, 〈중국 근, 현대미술〉 등이 있다.

The Outing - Natural Scenery Painting of a Shanty Town and Baekryeongdo

KIM Sang-cheol (Prof. at Dongduk Women's University, Art Critic)

Artist SHIN Tae-soo's project is firmly based on real landscape paintings. While traditional landscape arts pursue the traces of idealistic concept, contemporary ones focus more on the vivacious expression of scenery in direct communication with the nature. The mainstay of real landscape arts is objective and reasonable paintings using perspective and projection techniques in ink wash. It could be simply dismissed as a phenomenon in the process of advancement in traditional Asian ink painting, or it could be seen as an expression securing new future values. It was around the end of the 1970's when the actual landscape paintings first emerged as new expression representing new values. In conjunction with the need of our time to face harsh reality and seek what is our own criticizing and soul-searching about Korean tradition, actual landscape painting was suggested as an alternative. Henceforth, the actual landscape paintings became the major force behind today's scenery arts, moving beyond the borders of traditional and conceptual landscape arts and collecting a variety of formative experiences.

SHIN's works share the same trajectory of the advancement of the landscape paintings. In his early works, SHIN painted unique mountain scenery and rocky crags in North Gyungsangdo area including Andong city. The voluminous mountains towering high with overlapping steep and majestic peaks and ridges—highlighted in unique light black and red coloring—evoke the clean, light, and fresh images. Although SHIN paints actual landscape, his perspective as an artist goes beyond the scenery that meets the eye and even further into the comprehensive implications of the nature. Rather than expressing subjects in descriptive and detailed representation, he delivers the implications of the subject in artist's own interpretation which later built the basis of his unique styles.

The recent works of an artist with single-minded focus on actual landscape painting appeared to show some changes. To be more precise, he cut short the descriptive and subordinate elements but highlighted the essence of the subject in deep and opaque black ink. Unlike smooth and harmonized feminine beauty with decoration and embellishment, it reveals the rough and simple approach as if to paw the ground with a stick. It indicates that the artist is getting closer to the essence and away from naked-eye observation. It is direct outcome of the gravity of implications carried in his works and his own interpretations.

His recent works are mainly the landscapes of a Shanty town and Baekryeongdo. It is because he has moved his studio to Incheon and he is now surrounded by new subjects and environment. Considering that his works were mainly about North Gyungsangdo and Gangwondo areas, it is significant in that the new project could both expand subjects and diversify expressions.

Gwaeng-i-bu-ri town—roughly translated as Cat Mountain—is a shanty town dated back to the 1970's under the administrative district of Manseok-dong, Dong-gu, Incheon-shi. The land reclamation site became home to the have-nots but now they are in a helpless condition as they will be forced to be evacuated with city redevelopment project waiting to be implemented. This town is a symbolic place where we can steal a glimpse of Korean modern history and look back on the past of city Incheon. It is the place where the have-nots led the dreadful poverty-ridden life like destiny. It is also a place they called home to lie down after a long day and rest to catch their breath, and yet the development project has pushed them towards the verge of collapse like a candle flickering in the wind.

The artist reveals every nook and cranny of the shanty town in his brushstroke standoffishly or rather abrasively. He does not intentionally exaggerate or amplify the emotion, but the ramshackle makeshift houses and corrugated iron roofs with holes reveal the lives of shanty town dwellers. Those destined to become old and break at one point were caught nicely in the artist's ink wash painting style and that makes us even more saddening. The feather-light touch of brush on the paper would bring down the debris and shards of time. The empty sky is no longer gracious blankness but filled with heavy sighs and groans. This less populated scattered town might be the shell of the time there once was. It could be the new visual stimuli and formative experiment for the artist himself and it will be a meaningful experience in his world as an artist.

Also, the natural scenery paintings of Baekryeongdo are included as a part of his recent project. We all know Baekryeongdo, the closest island to North Korea in the Yellow Sea, and yet the island still strikes us as an unfamiliar place. Popular tourist attractions in Baekryeongdo such as Kongdol beach and Doujin are presented as the usual bright, fresh, and placid places in his works. His works are clean and articulate with repetitive short, rough, and thick brushstrokes without wasting one single stroke. Baekryeongdo is different from the natural scenery as he knows it. The island horizontally expanded along with wide open space, thick fog, and waves present something else in SHIN's art works. His brushstrokes are short and terse but smooth and precise with the placid yet fresh colors. Whimsical brushstrokes rather than the soft and sticky depth of repetitive strokes complete the simple tranquility of his works. Once applied to his project, the profound depth of the ink wash could help his pieces in more ways than not. Considering that the artist's project show signs of changes toward the essence away from phenomenon, it could be the catalyst that pushes his works to the next level.

Given that the artist had gained his unique style through a certain geological features of landscape painting in the past, recent series of his works might have presented him with a very precious opportunity that it is the interpretation of the space with special symbols and meanings not the new phenomenon of new expression on new subjects that draws new values as in the case with a shanty town or Baekryeongdo. At a time when the real landscape paintings touted as the mainstream replacing the conceptual scenery have been criticized for not being able to reflect the reality and cave in to formality, the experience could serve as precious nutrition for the artist and his work.

* KIM Sang-cheol is B.A. in the Oriental Painting, Hongik Univ. and finished a course at the Graduate school of Chinese Culture University. He served as a Director at Seoul Gongpyeong Art Center and Editor-in-Chief at monthly art magazine Misul Segye. He is currently working as an Art Critic. He mainly writes about Korean paintings and Korean culture. He is an adjunct professor at Kyunghee University and Sangmyung University. His published papers are <Painting exchange between Koryo and Yuan Dynasty>, and the translated books are <Understanding of Oriental Painting>, <China Modern and Contemporary Arts>.

예추치

타이완 출신 작가 예추치는 퍼포먼스 아트스트로 인천아트플랫폼에 머물면서 두 가지 퍼포먼스를 진행하였다. 그중에 하나인 〈김치김치〉는 인스턴트 라면이 끓고 있는 것을 중심에 놓고 사다리 위에서 깃털을 떨어뜨리거나, 주전자에 물 끓는 소리들을 삽입하여 라면 끓이는 행위를 또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는 평범하고 보편적인 언어와 행위들로 이뤄지는 습관들을 낯설게 함으로써 새로운 해석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대만에서 태어나 서양문학을 전공하고 번역가로 활동하였던 작가는 언어로 짜여진 세계의 고정된 의미들을 교란시키면서 새로운 의미로 번역하는 것을 작업의 모티브로 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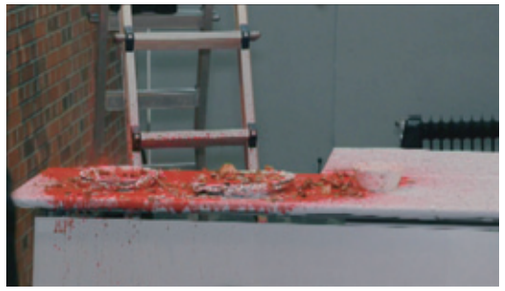
YEH Tzu-chi

YEH Tzu-chi proceeded with two kinds of performance when he arrived at IAP. One of the performance is <Kimchi Kimchi> in which set instant noodle boiler at the center of the stage and drop a feather from the ladder or insert sounds of boiling water, presenting new perspective to instant noodle making method.

By putting a new distance to ordinary and common behaviors in language and behavior, the artist allows us to open up to new interpretation of our action. YEH Tzu-chi, who was born in Taiwan, majored in western literature and worked as a translator. By creating a confusion with words that has fixed meaning, the artist seeks to translate things into new meanings and that is where the motif lies.

김치김치
Kimchi Kimchi
3min 18sec Performance document video 2012

김치김치
Kimchi Kimchi
3min 18sec Performance document video 2012



이 작업은 시각예술을 과정으로 한 즉흥 퍼포먼스이다. 이것은 삼차원 공간에 있는 회화와 같다. 나는 시간과 공간에서 일어나는 색감, 행동, 소리, 그리고 이미지들이 어떻게 운동 에너지와 즐거움으로 가득한 모든 예술로 협력하거나 공동작업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한다. 저의 결론은 기존의 전통 연극보다 시각예술이 공연에 가깝다는 것이다.

–작가 노트–

The production of this live performance is a procedure of visual art. I was like painting in a three-dimensional space. I thought about color, action, sound, and image that happened in time and space, and about how to collaborate or collage all these parts together into a total art full of kinetic energy and fun. The result is a performance closer to visual art rather than a traditional theatre.

-Artist' note-

바람 소나타
Wind Sonata
4min 43sec Performance document video 2012

나는 마른 나뭇잎에 누워 있었다. 잎은 빛으로 따뜻했다. 햇빛은 잎의 마디를 통해 들어왔다. 바람이 내게 잎을 가져왔을 때, 나는 젊은 관객들의 환호를 들었다. 바람과 나뭇 잎이 움직이는 소리는 너무 아름다웠다. 그것은 바람, 나뭇잎, 햇빛, 시간의 퍼포먼스이다. 나는 내 자신을 숨기고 있었지만, 관객은 나의 의지 인내, 끈기, 그리고 개념을 보게 되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잎은 멀리 날아가고, 그림자 와서 햇빛은 그 자체를 보여 주거나 숨거나 했다. 나뭇잎이 모두 날아갈 때 쯤 나의 몸은 점점 드러났다. 그것은 바람으로 만든 조각이자 바람의 소타나가 되었다.

–작가 노트–

I was lying in the dry leaves. The leaves are light and warm. Sunlight came in through the joints of leaves. When the wind took leaves from me, I heard young audience exclaiming. The sound of friction between wind, leaves, and ground are so beautiful. It's a performance by wind, leaves, sunlight, and time. The artist hid herself, but the audience saw her will, patience, persistence, and concept. As time went by, the leaves flied away, the shadow came and went as the sun showed or hid itself. The artist body gradually revealed itself when most of the leaves flied away. It's not just wind's sonata, but also a sculpture by the wind.

-Artist' no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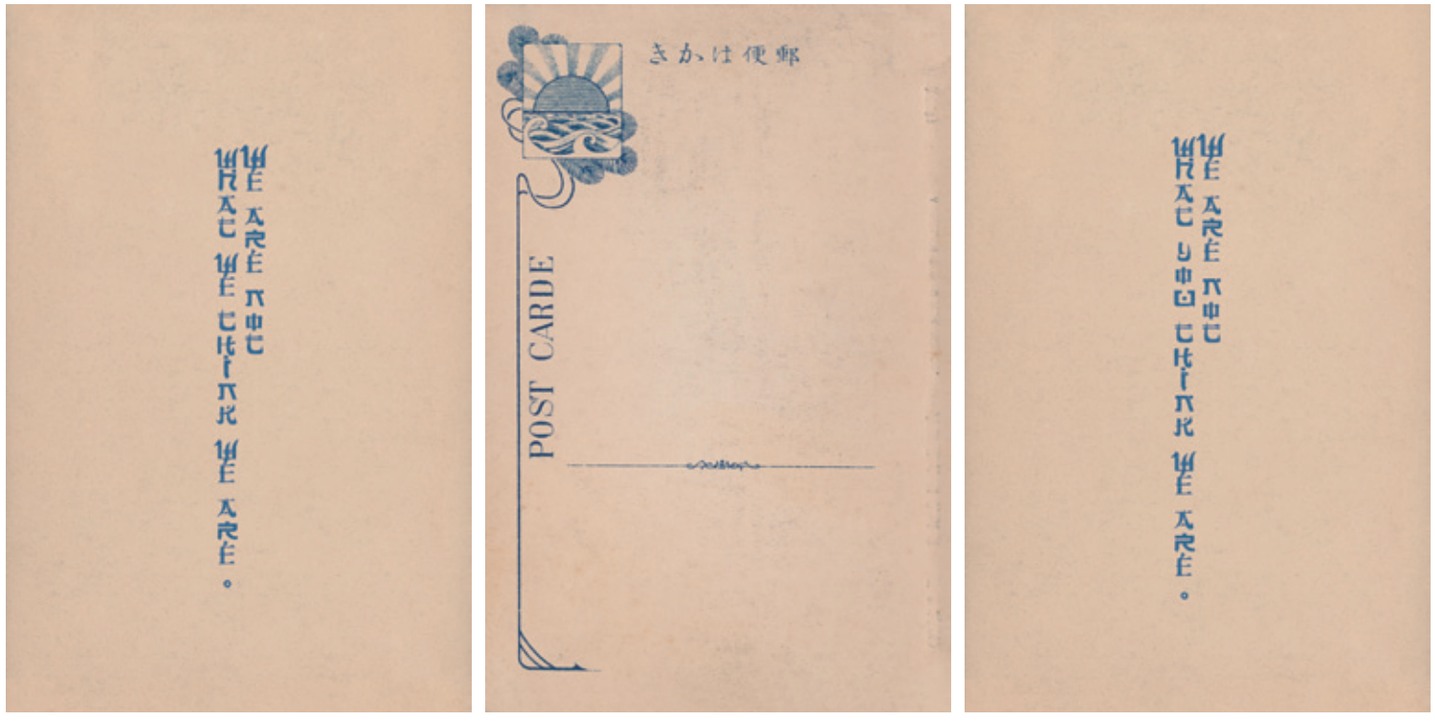
오석근

OH Suk-kuhn

한국의 풍습-서울의 짐꾼
The manners of Korea-Portefaix De Séoul
125×100cm Digital c-print 2012

한국의 풍습-쌀 수확
The manners of Korea-Reisernte-Reinigen und Dreschen
125×100cm Digital c-print 2012

한국의 풍습, 조선에서 온 엽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아니다. 우리는 당신이 생각하는 우리가 아니다.
The manners of Korea, Postcards from Chosun
-We are not what we think we are, You are not what you think we are.
Dimensions variable Printed in post cards 2012



한국의 풍습, 조선에서 온 엽서-조선에서 온 엽서
-당신이 우리의 이미지를 규정함으로써 우리의 정체성도 구축된다.
The manners of Korea, Postcards from Chosun
-You construct your identity by defining our image
Dimensions variable Printed in post cards 2012

폐수에서 무지개 빛을 보던 그런 순간들

현시원(독립 큐레이터)

"어린 시절 내게 인천은 붉게 물든 하늘과 경인고속도로의 굉음 그리고 녹슬고 부식된 기괴한 기계들이 가득한 항구의 풍경으로 채워져 있었다. 그 시절 소극적이고 소심했던 나는 전형적인 철수로서의 장면들을 기억한다."
–작가 오석근–

오석근의 작업은 자신에 대해 말하지 않으면서 결국 자신에 대해, 아니 자신을 둘러싼 겹겹의 레이어에 관해 질문하고 기억하는 작업이다. 여기서 '자신(self)'이 누구인가가 늘 다각도로 긴장감 있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의 작업은 초상 사진인 동시에 사회적 풍경 사진이 된다. 타자에 의해 명명되는 '자신들(selves)'과 사회 체계 안에서 훈육되고 구성된 주체의 표상이 오석근의 사진 작업 안에서는 다시 스프링처럼 튕겨져 나온다. 오석근의 최근 프로젝트 〈한국의 풍습〉(2012)과 2006년부터 진행된 〈교과서(철수와 영희)〉 연작에 이르기까지 작가는 누구도 쉽게 범할 수 없는 거대한 이미지와 단어를 제시해놓고 그 안에 꽁꽁 얼어버린 스테레오 타입(stereotype)들을 요리조리 굴린다. 철수와 영희가 활보하는 교과서와 한국의 당대 풍습이 담긴 20세기 초 일제엽서라는 '교본'을 반추하고 반성하며 작가는 오독된 시선의 역사를 다시 구성해낸다. 유년기의 놀이에 숨겨진 폭력성을 들춰내듯이, 또 하루해가 뉘엿뉘엿 질 때의 하늘이 보여주는 변화무쌍한 카멜레온의 색깔들을 들여다보듯이 오석근의 작업에는 어느 한 순간의 무엇에 관한 것이라 규정하기 어려운 감정과 배경들의 뒤섞여있다. 그의 작업은 대한민국 교과서의 주인공인 '철수와 영희'들을 비롯한 축적된 역사를 극단에 밀어내고 위반하는 작업이며 이를 '다시-읽기'하는 작업이다. 그러나 오석근의 작업을 이렇게 몇 마디 단어로 규정지을 수 없는 것은 그의 작업이 그가 태어난 도시 인천을 배경으로 한'지정학적'인 작업이며 또한 이 지정학을 넘어서는 공통의 감각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오석근의 작업에 담긴 훈육제도에 대한 발언이나 정치현실에 관한 고찰들을 읽어내는 일보다 더욱 눈에 처음 들어오는 것은 사진 구석구석에 알알이 박힌 알싸한 감정들이다. 이 감정들은 오석근이 설치해놓은 사진 구도 안의 배경과 오물조물한 사물들 사이에서 피어난다. 철수와 영희가 쭈그리고 앉아있거나 이상한 짓을 당하거나 벌이고 있는 순간들 뒤로 시간의 때가 묻은 벽지와 이불장의 디테일한 장식들이 눈에 들어온다. 〈교과서 p.19〉 작품에 보이는 검은 옷장과 영희가 숨어있는 공간 안으로 보이는 주홍색 비단 이불, 〈교과서 p.269〉의 배경인 철근냄새 물씬 풍기는 해 지는 부둣가의 풍경은 오석근이 몸담은 시공간의 디테일이자 그가 설치해낸 '기억-재생의 무대'다. 1980년대와 1990년대 나아가 1970년대와 2012년의 지금이라는 혼성적인 시공간을 복합적으로 보여주면서 작가는 '시각이 기억해내는 기억들'의 장치를 작동시킨다. 지나간 엔터테인먼트와 복고취향을 호출해내는 오석근은 직접 재래시장에서 수집한 버너큘러(vernacular)한 의상들과 소품을 취하고 구성하는 재능을 보인다. 완벽하게 꾸며진 연극 무대가 아니라 길거리라는 현실 배경을 주 무대로 하면서 작가는 철수와 영희를 연기하는 퍼포머들을 현실과 허구의 지렛대 위에 아슬아슬하게 올려놓는다. 작가가 세워놓은 이 무대 위에는 과거를 살았던 청소년들도 현재를 고민하는 아이들도 찾아온다. 현재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는 학생들의 초상 사진과 근대기 청소년들의 사진 도큐먼트가 함께 구성되는 작업 〈해(海)에게서 소년(少年)에게〉(2009~)에서 카메라의 렌즈를 응시하는 청소년들이 가진 '날 것'의 존재감이 생생하게 다가온다. 이 날 것의 긴장감과 존재감은 오석근의 작업이 갖고 있는 특성이기도 하다. '사춘기-스러운' 복잡 다다한 감정을 억지로 묶어 내거나 삭제하지 않고 감정들과 기억들의 복수체계로 존재하게 하는 것 말이다.

한 인터뷰에서 오석근은 철수와 영희 작업을 하며 소설 『파리대왕』(윌리엄 골딩)에 등장하는 소년들을 언급한 바 있다. 덜 자란 미성숙의 모티브이면서도 사실은 독립된 주체로서 자기완결성을 지닌 유년기와 청소년기는 이제 성인이 된 오석근에게 끈질기게 따라붙는 질문의 대상이다. 그가 보았던 것을 복구해내고 기록해내며 작가는 자신이 발 딛고 선 현실을 바로 보기 위한 시정(是正)의 시간들을 보낸다. 오석근의 카메라에서 타자의 이미지는 자신의 이미지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다. 철수와 영희라는 주체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재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오석근은 가면과 코스프레를 장치로 삼아 알기 힘겨운 무표정의 이미지들로 둔갑시킨다. 철수와 영희는 어린이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이들이 뒤집어쓰는, 하지만 표정은 결코 방송용의 밝고 화사한 것이 아닌, 거대한 가면을 쓰고 무표정한 눈코입을 갖고 있다. 퍼포머의 얼굴은 무척 크지만 모든 얼굴 근육과 표정이 사라짐으로써 '얼굴 없는' 대상이나 마찬가지다. 거대한 얼굴이 막상 얼굴이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은 대한민국 교과서에서 가장 뻔질나게 얼굴을 내보이며 규정하기 쉬운 대상이었던 철수와 영희를 가장 알기 어려운 대상으로 교란시키는 것이다. 개인에게 남은 강박과 트라우마는 얼굴 표정이 사라졌기에 한 순간의 일화로 휘발되지 않고 인물 뒤의 배경과 대기와 함께 더욱 생생하게 살아난다. 〈한국의 풍습〉(2012~)에서도 지난 시기 조선을 살았던 이들을 연기하는 퍼포머들은 오석근에 의해 다시 한 번 그때 그 순간을 살아가는 의상과 매너들을 기억해낸다.

물론 오석근이 오랜 시간 대화 수단으로 삼은 철수와 영희 등은 '나' 또는 이에 상반되는 '타자'로 치부하기엔, 대한민국에서 교과서를 읽으며 자라난 세대에게는 치명적인 대상이다. 남으로 돌려버리기에는 너무도 나의 모습과 가까워 떨어지지 않는, '따라오는 거울'과 같은 대상이 오석근에게는 또 있다. 바로 인천이라는 시공간이다. 작가는 인천을 상징화하는 어떤 기념비적인 작업이나 사회과학적인 리서치를 작업에 드러내지 않는다. 인천 주민들을 직접적인 대화상대로 삼거나 조사하고 대상화하기에는 제 피부처럼 가까운 인천의 한 자락에서, 작가 오석근은 인천의 파편들을 수집하고 이 파편들 사이에서 인천의 오묘한 공기와 부스러진 형태들을 억지로 고체화하지 않으며 액체처럼 섭취한다. 공장과 바다, 부둣가의 거대한 구조물들과 문화적인 취향들, 인천을 활보하며 오석근이 보았던 유년시절의 잊혀지지 않는 강렬한 풍광들은 그가 다시 근대의 문화사를 탐구하게끔 하는 원동력이 된다. 녹슨 기계들의 굉음과 바다 소리를 함께 들으며 자랐던 오석근에게 100% 정형화된 도시도 농촌도 아닌 다면적인 도시에서의 경험과 숱한 이동들은(동티모르 파병, 일본에서의 직장생활 등) 그에게 지역성을 탐구하게끔 하는 원동력이 되었을 것이다. 오석근에게 그가 아카이브하고 새롭게 촬영하는 이미지의 출처는 그런 점에서 그의 이동과 맞물려있다. 이 이동 안에서 그는 흡수와 분출과 망각이 가장 빠른 도시 중 하나인 근대기의 인천, 나아가 과거부터 미래까지의 인천을 바라보고 또 노래한다.

오석근은 기존 이미지의 재현과 구성에 재구성으로 맞서며 '기억하기'의 문제를 수행한다. 대중 매체와 소셜네트워크 등의 확장으로 많은 것들이 순식간에 이야기되고 흘어지는 현 상황에서 오석근은 사라지거나 쉬 잊혀지는 것들에 관해 수집하고 대화한다. 〈서해 프로젝트 나나나나〉(2011~)에서도 오석근은 서해의 여러 섬을 방문하여 연평도, 백령도, 대청도 대기의 알싸한 리얼리티를 누그러뜨리지 않는다. 연평도를 비롯한 서해 크고 작은 섬들을 찾은 작가는 스마트폰으로 108장의 사진을 기록했고 이곳의 트마우마와 가까운 상처들을 기록하고 또 이 기록의 행위에 관해 자신을 향해 질문한다. 연평도의 한 가정집에서 깨진 거울을 가져온 작가는 예민한 빨간 글씨로 '어차피 기억하지도 못할 거면서'라는 문장을 새겨 넣는다. 〈연평의 거울〉이라는 이름을 붙인 작품은 누구를 향한 질타나 보고가 아니기에, 연평도를 찾아 사진으로 기록한 작가 자신을 향한 반문이기도 한다. 그가 기억하고자 하는 것은 특정 사건과 사회적 이슈가 아니라 기억의 방식과 파편들이다. 최남선의 시에서 이름을 따온 〈해(海)에게서 소년(少年)에게〉(2009~)는 여러 작업들이 겹겹을 이루는 프로젝트로 그는 현재 학교를 다니는 교복을 입은 청소년들의 사진을 찍고, 또한 소년이었으나 지금은 다른 시절을 보내고 있는 인천 주거민들의 앨범을 수집하여 기록했다. 소년이었던 이들에게 바치는 비가(悲歌)는 방치된 시간들에 대해 작가가 대항하는 하나의 방식이다. 오석근이 아카이브한 파편들은 인천의 대기에서 액체처럼 흘러들어가고 엮어 '지금'을 구성해낸다.

인천과 근대라는 사회적 시공간은 오석근에게 무엇일까. 그에게 인천은 복잡 다다한 보물섬과 같은 창고이며, 자신을 배태시킨 호기심과 갈등, 앎의 과정이 뒤섞인 양탄자다. "바닷가에 있던 철조망"과 "어느 날 너무 아름다운 색깔을 보았는데 그게 가까운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였다"는 작가의 말은 그가 재구성해낼 근현대사의 여러 컨텍스트들이 사적인 감각의 경험담을 통해 생생하게 증언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2011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재와 먼지(灰塵 : 회진)〉에서 오석근은 인천의 독특한 건축물을 향해 보다 적극적으로 직접 찾아 나선다. 인천 중구에서 볼 수 있는 근대시기의 독특한 건축물들을 기록하고 인천중구 거주자들의 앨범에서 찾은 사진을 변형시키면서 겹쳐지고 어긋나는 시간대를 살았던 수많은 이들의 '중첩'된 기억을 발굴해내는 것이다. 장소에 숨죽이고 있는 이상한 문화적 상처와 혼용들을 그는 기록하고 채취한다. 여기에 쌓인 먼지들을 훅 하고 털어내지 않고, 먼지들을 직접 움직이게 하고 어딘가로 이동하게 하는 오석근의 작업은 먼지로 규정된 밑바닥의 것들을 다시 꿈틀거리게 하는 자극제가 된다.

오석근의 작업 안에는 그의 질문들과 삶의 배경, 다채로운 취미와 걸으면서 지나치는 인천의 많은 단상들이 한 데 다층적으로 존재한다. 그리고 그가 즐겨듣는 흥이 넘치는 옛 가요와 최신 음반까지 수없이 많은 생활의 단서들이 숨겨있다. 직접적으로 제 생활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그는 어쩌면 자기 생활과 작업을 한데 엮어 투명하게 일치시키는 작가 중 하나일 것이다. 개인사의 배경과 출처를 탐구하면서 그 안에 담긴 오해와 망각을 풀어헤쳐보려는 작가의 관심사는 고립과 악전고투 속에서 사회적으로 방치된 파편적 기억들과 쉽사리 타협하지 않는 행위이다. 최근 작가가 진행하고 있는 〈한국의 풍습〉은 리서치 아카이브와 퍼포먼스가 결합된 작업으로 렌즈에 담기는 사진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작가 스스로 실험해보고 진행해보는 작업의 연장선에 있다. 한 세계를 알려주는 방식으로서의 교과서와 엽서, 앨범 등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어떤 방향으로 무엇인가를 보고 기억하라고 주입한다. 그러나 작가가 불러내는 과거의 기억들과 현재의 트라우마가 누구의 것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억의 공통감각이 어딘가에서 끝없이 모두에게 '흘러내리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 현시원은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미술이론과 전문사 졸업하였으며 독립 큐레이터로 《지휘부여 각성하라》(2010), 《라이팅밴드(writingband.net)》(2012) 등의 전시,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저서로는 『디자인 극과극』, 학고재, 2010 등이 있다.

한국의 풍습-한국의 얼굴
The manners of Korea-Faces of Korea
Dimensions variable Part of slide show Images from old postcards and books about Korea 2012

The Moments Rainbow Sheen Shined Bright in Wastewater

HYUN Seewon(Independent Curator)

My childhood in Incheon is filled with the roaring soundsof cars coming from Seoul-Incheon Highway and the rusty and grotesque machines sitting in the port. I remember the moments of me as a typical Cheolsoo shy and passive.
- Artist OH Suk Kuhn–

OH does not talk about himself in his work but his work is actually the process of asking questions about several layers covering himself and remembering them. He poses questions 'Who is oneself' in all the different aspects hitting the nerve, so his work of self portrait suddenly becomes the society's landscape. The selves named by the others and the symbols of subjects structured and trained within the system of society bounce back again in his works. In his recent project < Korean Custom>(2012) and <Textbook (Cheol-soo and Young-hee)> started off from back in 2006, artist OH presents the grand images and words that no one can easily approach and toys with the stereotypes frozen hard inside the images and words. The artist reflects and introspects on the textbook where Cheol-soo and Young-hee swagger about and "coursebook" dubbed as Japanese Postcard in early 20th century containing then Korean customs, and he reorganizes the misinterpreted history.As if to reveal the violence hidden in childhood plays, and look straight into the ever changing chameleon colors of the sky in dusk, OH's works have the mixed backgrounds and feelings, which is hard to pin down. His work aims to shove and violate the accumulated history including the main characters of Cheol-soo and Young-hee in Korean textbooks to the peripheries and start to re-read this history. However, OH's work cannot be defined in a single word because it is more of a geological process against the background of the city Incheon and shares the commonly shared feelings that go beyond the geology.

In fact, what caught the audiences' eyes first, before reading into the remarks of training and education system or the contemplation on political reality,are the pungent tastes of feelings stuck grain by grain at every corner of the photos. The feelings seep through the cracks between the backgrounds of the photo the structure he installed and other cute little objects. Behind Cheol-soo and Young-hee sitting together crouched or involved in some kinds of weird things are the discolored wallpapers and detailed decorations of blanket chest. The scarlet colored silk blanket shown where Young-hee is hiding and the black chest in the <textbook p.19> and the stench of steel reinforcing bars wafting from a quayside constitute the details of the time and space where OH had lived and "the stage of remembrance and playback" was installed. Presenting the 1980's and 1990's or further to the complex times and spaces of 1970's and 2012, he activates the device of "recollections that remember the time."

Calling for the entertainment of bygone era and retro tastes, OH showcases his gift of collecting and structuring "vernacular" clothes and items handpicked from traditional marketplaces. Taking the reality of a street as the major stage instead of de facto pe rformance stages decorated to perfection, he places the performers of Cheol-soo and Young-hee on the lever hanging in balance in between reality and fiction. His stage is also frequented by both kids of today and yesterday. The rawness of the adolescents looking straight into camera viewfinder vividly strikes us in <From the Sun to the Boy>(2009~) the adolescents photo portrait documentary project ofthe early 20th century and today. The tension and existence of the rawness is the unique features of OH's project. He presents the feelings and memories in a plural system as to not try and sub-categorize or delete the "puberty like it is" complex feelings.

In an interview, OH mentioned the boys from the novel Lord of the Flies by William Golding explaining about his project Cheol-soo and Young-hee. The essence of the questions doggedly begging him to answer is about childhood and adolescence as a motif of immature and yet independent subjects of self defined completeness. Restoring and making a log of what he had seen, OH spend his time of correction to see right through the reality where he rests his feet. In OH's camera, the images of the others stand not that far from my image. Rather than representing the subjects like Cheol-soo and Young-hee for easy understanding, OH transforms them into hard-bitten stony-eyed faces using the devices like masks and costume play. Cheol-soo and Young-hee have the toneless faces wearing giant masks, but not the face masks smiling brightly for a kids TV show. Although the performers have big faces, the facial expressions and muscles are now gone making them appear to be more like "faceless" subjects. As the official faces of Korean textbook have suddenly become faceless, OH has successfully confuses us with impenetrable stranger Cheol-soo and Young-hee. Without facial expressions, the obsessions and personal traumas are not provoked as a moment's anecdote but make into a fresh throwback with the background and atmosphere behind the Cheol-soo and Young-hee. The performers who lived the Chosun period in <Korean Custom> (2012~) remember the costumes and manners of the time and moments once again.

Cheol-soo and Young-hee have become far too close to the generation who grew up with Korean textbook, so it is next to impossible for them to dismiss Cheol-soo and Young-hee as 'Others' opposed to 'Selves'. However, there is another "mirror that tags me," or too close to me to define as others for OH Suk Kuhn. It is the space-time called Incheon. The photographer does not reveal his landmark project or sociological research symbolizing Incheon in his work. Rather than objectifying and surveying the residents in Incheon, OH recollects the shards of what is remained in Incheon absorbing them as liquids not forcing to solidify the unique atmosphere and crumbs at one corner of Incheon as in his second skin. Strutting down the factories, colossal constructions and cultural predisposition in the quay and the seashores, the indelible imprint of his childhood in Incheon has become the strong driving force for him to further explore the cultural history of the modern times. Growing up with the roaring sounds of rust machines and sea waves, OH has the multifaceted experiences of the city with frequent relocations to East Timor for troop dispatch and to Japan for his job rather than for the authentic all so typical countryside or urban dwelling experiences. In his regard, the sources of the images, whether taken out of his archive or newly shoot, are therefore interconnected with his whereabouts. In this journey, he sees the city Incheon as one of the fastest growing cities of absorption, dissolution, and oblivion in the modern days and sings the city further in the past and the future.

OH conducts the "Remembering" against shaking off the representation and structure of previous images. With the mass media and social networks expanding talk about and dispersing so many topics, OH collects and converses about things that disappear or easily fall into oblivion. OH visits many islands in the Yellow Sea in <Yellow Sea Project NINANANA> (2011~) and refuses to subdue the pungent realities of the atmosphere in Yeonpyeongdo, Beakryungdo, and Daechungdo. OH took 108photos with his mobile phone, recorded the near traumatic wounds, and asked questions to himself about his act of recording. OH has jotted down "not going to remember anyway" in red on the broken shards of a mirror picked up from a house wracked by the bombing in Yeonpyeongdo. Titled <Mirror from Yeonpyung> the work is not the report or retort, it is more of counter question to himself about his recordings of Yeonpyeongdo in his photography. What he tries to remember is not a specific incident or a social issue but the methods and shards of the memories. Taken from the poem by Choi Nam-sun, <from the Sun to the Boy> (2009~) the photos are made of layers of several projects. He took photos of students in school uniform and collected the photos of Incheon residents who were once students too. The elegy for people who were once boys is OH's way of protesting to the times left alone in negligence. The archive of those shards flew from the Incheon atmosphere are weaved together to constitute 'the now'.

What is the space-time of Incheon and modern days to OH-Suk Kuhn? Incheon is a cargo, more like the labyrinth of Treasure Island, or the carpet where the processes of curiosity, conflict, and learning which begot OH are all mixed together. The excerpts from OH's previous remarks such as "barbed wire along the seashore" and "one day I saw such beautiful colors but then it was the wastewater flowing from a factory nearby" show that the context of modern history he is about to restructure is clearly testified through his personal experiences. OH-Suk Kuhn searches for unique architectures in Incheon in <Ash and Dust>(2011~). Recording the unique architectures of the modern days in Jung-gu Incheon, OH explores the "overlapped" memories from the photo albums of the residents in jung-gu Incheon. He records and recollects the abnormal cultural wounds and confusion lying low in several places. OH does not dust off the objects. He simply moves things around with the dust. This project stimulates him to see deep bottom of what is defined as dust.

OH's project shows multilayered platforms of Incheon which one would simply pass by along with his questions, the background of lives, and a variety of hobbies. There are also a myriad of hidden leads including old and new Korean pop songs OH used to enjoy. OH might be one of those artists who intertwineshis personal life with his works without revealing his lives straightforward. He refuses to compromise with the shards of memories left in negligence in a lonely fight and isolation to unravel the misunderstanding and see what is behind the oblivion exploring the personal background and sources. His recent <Korean Custom>is the extension to his project experimenting with the structure of time contained in photography combined with research archives and performances. Textbooks, postcards, and albums as a medium to learn about the world infuses us with what to see and remember. However, what matters is not the past memories and current traumas revealed by the artist and where they belong, but the common undercurrents of those memories that are shared by us all.

* HYUN Seewon B.A.,Dept of Art Theory at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Independent curator planned the project and exhibitions 《Wake up, Command》(2010), 《Writingband.net》(2012) and others. Wrote 『Two Ends of Extreme Design』, Hakgojae, 2010 and oth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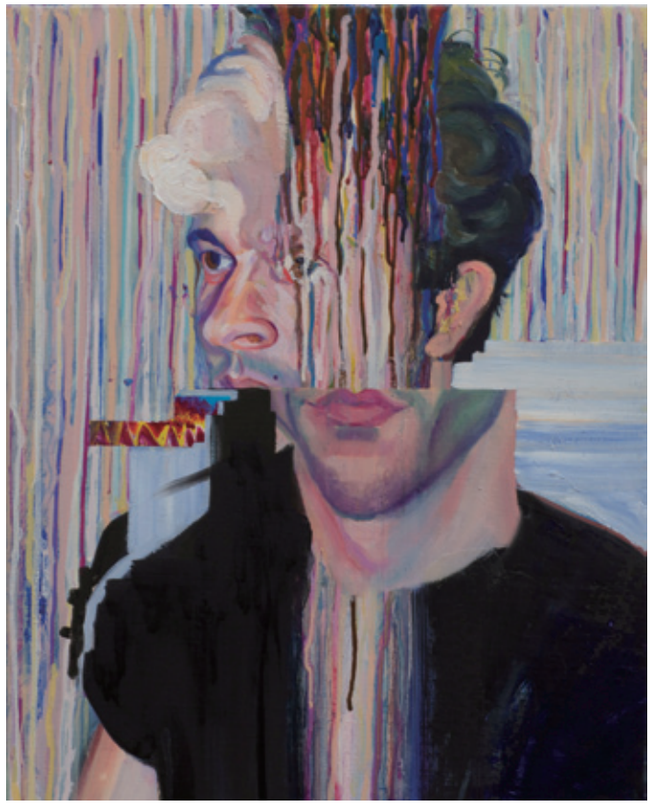
웁쓰양

Woopsyang

예술가들
Artists
120×90cm Oil on canvas 2012

진실은 저너머에
The truth is out there
89×119cm Oil on canvas 2012

신인류
Neoanthropinae
50×40cm Oil on canvas 2013



신인류
Neoanthropinae
50×40cm each Oil on canvas 2012

웁쓰양의 랙이 걸린 이미지

박영택(경기대학교 교수, 미술평론가)

웁쓰양의 그림은 이른바 재현주의 회화라고 볼 수 있다. 외형적으로 그렇다. 주어진 모델을 닮게 그리거나 특정 상황을 연출해 이를 사실적으로 묘사한다. 작가는 실제 한국 사회에서 일어난 각가지 사건들을(불행한 사건들) 모티브로 삼아 그렸고 지인들을 모델로 사용해서 그렸는데 그들 역시 어딘지 불안하고 흔들리는 존재의 초상이다. 그 그림의 원본은 이미 이 세상에 있다. 사람들이 있고 그들이 저지른 사건들이 있고 상황설정이 무대처럼 전개되어 있으며 그것을 재현한 이미지, 사진도 있다. 아니 있어도 너무 많이 있다. 우리는 자신이 살고 있는 작은 방 안에서도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그 이미지를 통해 바라본다. 알고 있다. 따라서 세상, 현실은, 실은 없으면서도 과잉으로 있다는 기이한 역설이 자리한다. 이른바 대중매체를 통해 우리는 과잉된 현실의 이미지를 과도하게 주입받고 있다. 물론 그것은 의사현실이고 가짜이기도 하다. 허구이자 환영으로서의 현실이자 세계인 셈이다. 잘 실감나지 않는 세상이 영상을 통해, 사진이미지를 통해 다가오고 사라지기를 반복한다. 그러나 그것이 부재하다고, 없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실재감은 잘 감촉되지 않는다. 아니 어떤 것이 진실이고 사실인지 헷갈리는 것이다. 우리가 매일 신문이나 텔레비전에서 무수한 뉴스와 그곳에서 전하는 다양한 소식들을 접하면서도 기실 그것이 어디까지 진실인지 마냥 헷갈리기만 하다. 모든 뉴스는 허구이자 환영 같기도 하다. 그러나 그 속에서 엄청난 일들은 분명 벌어지고 누군가는 죽고 누군가는 거짓을 말하고 어떤 이는 악질이고 또 어떤 이는 선량해 보인다. 물론 정의가 무엇인지, 진실이 어떤 것인지 가늠하기는 무척 어렵다. 그래서 답답하고 불안하고 나아가 우울하기도 하다.

하여간 이 세상일들이, 그 온갖 별별 일들은 실시간으로 다가온다. 신문과 텔레비전, 인터넷을 통해 받아들이는 현실은 한결같이 끔찍하고 추악하고 말도 안되는가 하면 슬프고 비극적이고 더러 지겹다. 왜 세상은 이 모양이고 이 꼬라지일까 하는 온갖 회환들이 밀려든다. 그래서 오늘날 뉴스를 보는 일은 무척 두려운 일이 되었다. 끔찍하고 괴이하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일 온갖 일들을 접하며 산다. 뉴스 없이는 살 수가 없다. 대중매체에서 쏟아져 나오는 온갖 소리와 영상에 휩쓸려 지내며 매일 같이 상당한 강도의 사건들을 만나 충격에 빠지기를 거듭한다. 웁쓰양은 그렇게 접한 온갖 사건들에 주목했다. 본인이 직접 관심이 가는 사건을 취재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그 사건의 주인공들의 입장에서 재구성해보기도 했다. 그렇다고 그녀가 탐정이냐 하면 그렇지는 않다. 기자도 아니다. 호기심이 많은 화가일 따름이다.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여러 사건들 중 몇 개를 골라 그림으로 그렸다. 불공평한 사건이고 불행한 것에 관심을 갖는 차원에서 걸려든 것들이다. 그녀는 사소한 사건 속에서 사람들이 겪는 일, 이야기에 주목하고 이를 접수했다. 그렇게 이야기 구조가 있는 것을 그림으로 그렸다. 그렇다면 그 그림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일까?

작가는 대부분 사람들을 그렸다. 인물화가 주를 이룬다. 특정인의 초상이 단독으로 설정되어 있거나 둘 혹은 여러 명의 사람들이 모종의 행위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그림이다. 얼핏 봐서는 텔레비전 뉴스나 신문에서 흔하게 접하는 사건을 촬영한 사진이미지를 재현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어디선가 분명 접하고 보고 들었던 사건들이 연상된다. 자신의 마음을 짓누르는 불편한 뉴스를 접하면서 드는 여러 생각들로부터 그녀의 그림은 기원한다. 그녀는 말하기를 그 모든 사건을 이해해 보고 싶었다고 한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무엇이 어떻게 잘못된 걸까"(웁쓰양) 그녀가 주목한 사회적 사건은 엄마를 죽인 아들, 신생아를 버린 20대부모, 동급생을 성폭행한 10대, 노사문제의 부당함,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는 천태만상의 사건들이다. 작가는 순백의 착한 사람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일을 벌였을까를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는 그것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여기면서 그 모든 사건들을 이해하고 싶었다고 한다. 따라서 그녀가 특정 사건을 대중매체에 의해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직접 취재해서 가능한 객관적 시각으로 그 사건을 본 후에 비로소 이해한 것을 그림으로 그려 넣고자 했다. 그러니 그녀의

Computer Glitches in the Images of Woopsyang

PARK Young-taik(Prof. at Kyonggi University, Art Critic and)

The pictures by Woopsyang can be viewed as examples of "reproductionalism." This is true on the exterior. By this is meant either drawing true to the model or sticking to a certain situation and describing it in a realistic fashion. This artist has taken as a motif throughout her art various (unfortunate) incidents that have actually happened in Korean society. She has used people she knows as her models. They are, however, portrayed as an existence that is somehow anxious and unsteady. The originals of the pictures are already in this world, and the people already exist as do the incidents that they are responsible for. The selection of the depicted situations are set out like a stage, and there are images and even pictures to reproduce them. Actually, if there is one of them, there are a thousand, as they say. Even if we live in a small room, we can look out through her pictures and see the big, wide world outside. I am aware of that. No matter what, even if we try to deny the existence of the world and reality, they will come back in a strange paradoxical fashion because they exist in over-abundance. For example, there is the mass media which floods us with an excess of realistic images. Undeniably, they are mirages and false representations; they are fictions and an illusory version of reality. The presentations made by movies, which lack a sense of realism, and by photographs repetitively come into view and fade away. Still, we cannot say that it doesn't exist or that it is not there. Nevertheless, we fail to feel a sense of realism. Actually, we are confused about what is really the truth and what is real. We cannot help but be confused about how true something actually is, in spite of our being exposed to the variety of tidbits and countless news items that come to us everyday over the TV and via the newspaper. All the news essentially resembles fiction and sleight of hand. Still, we cannot deny that beneath it all there are events of enormous import that really are happening: somebody dies, somebody lies, somebody is a bad person and somebody is a good person. Understandably, it is extremely difficult to discern what is justice and what is truth, and so we feel trapped and anxious, and perhaps even depressed. At the same time, the happenings in the world, all of them in their wide variety, are unfolding around us in real time. The reality presented to us by newspapers, the TV and the Internet is indeed stomach-wrenching, horrendous, unfathomable, sad, tragic and somewhat damnable. One thinks about many things, like "Why is the world as bad as this, and why does it look like that?" And so watching the news these days is a very scary thing to do. It is horrendous and strange and sometimes we fail to understand it, yet we are exposed to a variety of news items in our daily lives. Actually, we cannot live without it. Over and over again, we get caught up in the voices and videos that the mass media brings forth, and every day we come face to face with incidents of great intensity that shock us. Woopsyang turns her eye towards all of these incidents that we encounter in this manner. For an incident that she has an interest in, what does is gather materials directly on the spot, collect information, and reconstruct the scene from the position of the major player. It is not as if she is out there sleuthing around doing detective work. She is no journalist, but rather just has a lot of curiosity. She is in fact a painter characterized by her curiosity. And this has been the origin of the pictures she has drawn of a few selected incidents that have occurred within Korea. These incidents have been unjust incidents that grab your attention because of their unfortunate nature. She has handled insignificant events by concentrating on what the people involved have been through and on real stories. In this way, she has successfully portrayed in pictures something that has a story-like construction. The question we must ask ourselves is, "What is the meaning of these pictures?"

The artist has mostly drawn people; that is, she has created people-centered pictures. The pictures engender the feeling of either a singular individual acting in isolation or of two or more people performing some kind of action. The feeling one gets at first glance is that one is looking at a reproduction of a photograph of the kind of incident that one commonly sees in the newspaper or on TV news. We think that we have heard of or seen the incident being reported somewhere else before. Her pictures are born from the many thoughts that come to mind when looking at a piece of unfortunate news that wrenches your heart. Woopsyang has asked, "What has made everything so messed up?" The social incidents that she has concentrated on have included a mother killing her son,

그림은 이데올로기에 의해 현혹되거나 언론이 조작이나 왜곡, 억측 등에서 벗어나 가능한 진실을 가늠해보고 그 개별 존재들을 이해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빚어지는 사건들, 상처들을 치유하고자 했다고 한다. '힐링'은 요즈음 화두가 되었다. 그만큼 상처가 많다는 증거다. 많은 사람들이 위안 받고 싶은 것이다. 그래서 힐링을 원하고 이를 요구하고 외친다. 그러나 현실적 모순의 본질을 건드리지 않고 이를 심리적 차원으로만 환원시키려는 얄팍한 전략이 또한 힐링이기도 하다. 어쨌든 옵쓰양은 저 끔찍하고 말되 않되는 온갖 사건들을 다시 정리하고 그리기를 통해 그들의 입장을 이해해보는 한편 우리에게 저 사건들이 배후에 주목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는 생각이다. 다시말해 한결같이 행복하지 못한 상황들, 사건에 주목했고 또한 그러한 사건들을 다루는 이유는 그 각각의 '포지션'을 이해해 보고자 하는 바람이라는 것이다. 그에 따라 재현적 그림은 요구되었고 그 중간에 랙이 걸린 것처럼 사선을 그어 만든 장치가 요구되었던 것이다.

그녀가 그린 그림들은 실제 사건의 사진이나 영상이미지를 차용한 것이 아니라 뉴스 텍스트만 읽고 그 사건을 상상해서 주변 지인들을 모델로 사건을 재구성한 것을 그린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실제 사건과 연관되기도 하지만 그와 무관하기도 하다. 실제이기도 하고 조금은 허구적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 사건, 인물들은 분명 실제 했던 것으로 부터 파생한 것이다. 예를 들어 집단 성폭행, 살인, 폭력, 정치적 사건 등을 비롯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일들이 모티프가 되었다. 관념적으로 읽혔다 사라져버리고 마는 텍스트를 이미지로 전환해보려는 시도가 그녀의 작업이다. 하나의 장면으로 연출해 그린 후 그 어딘가에 우리가 흔히 '랙' 걸렸다고 하는, 컴퓨터상의 오류로 인해 화면이 순간 멈추고 이미지에 사선이 그어지면서 흔들리는 듯한 상황을 얹혀놓았다. 그래서 그려진 그림을 보면서 마치 모니터나 텔레비전화면에 랙이 걸린 것을 보고 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직' 거리는 소음과 함께 동영상의 화면이 느닷없이 정지돼서 홀연 멈춰버린, 그 돌연한 적막감을 야기하는, 격렬한 외부의 폭력성 혹은 내부 시스템의 결정적 오류를 예감하게 하는 화면을 접했을 때의 묘한 긴장감이 화면을 덮고 있다. 물론 이것은 가짜이다. 실제 랙이 걸린 영상이미지가 아니라 정지된 캔버스 화면에 그려진 그림이다. 보통 '랙'이라고 불리는 컴퓨터 상의 오류들은 온라인 게임 중에도 심심치 않게 나타나는데 이를 버그 또는 에러라고 한다. 이런 현상은 그래픽 용량을 pc가 감당을 못해 벌어지는 것이라고 한다. 비율이 일그러지거나 앞뒤가 뒤 틀리거나 도트가 늘어지거나 또는 이전 상황이 그대로 붙어 다니거나 하는 다양한 형태로 글리치(glitch)가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데 작가는 그 모습이 무척 우습게 보이기도 하고 애처롭게 보이기도 했다고 한다. 그 글리치기 보여주는 조형성이 옵스양에게는 기이하고 흥미롭게 보였던 것이다. 그런대 재미있는 것은 그 같은 그래픽 오류는 게임 이미지의 퀄리티가 좋아질수록 생길 확률이 높다고 한다. 정교한 이미지를 실행하기 위해 그 만큼 성능이 좋은 pc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도 나오는 것이라는 얘기다. 정리하자면 랙은 컴퓨터 내부의 시스템의 결함으로 인한 것이고 그 오류는 에너지의 속도를 방해하거나 극단적으로 중지시킨다. 옵쓰양이 그리는 사건들은 이 사회라는 구조 안에서 벌어지는 오류들이다. 그것 또한 랙과도 같은 이치다. 그것이 인간의 탓인지 구조의 탓인지를 정확하게 말하기는 무척 어렵다. 하여간 옵쓰양은 사회구조 안에서 존재하는 인간에 주목한다. 인간은 사회 구조 안에서 에너지를 교환하고 전달한다. 그렇게 시스템속의 부품처럼 자리하다가 순간 오류를 일으키고 랙이 걸렸다. 그것이 사건들이다. 그렇게 그 둘은 연관을 갖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옵쓰양의 그림은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그 사건들을 다시 주목하게 하는 것일까 혹은 화면의 어느 부위에 느닷없이 랙이 걸린 듯한 표현을 통해 평범한 그림에 돌연 강조점을 부여하고 모종의 불안감을 조성하게 하려는 것일까? 그 끔찍하고 잔인한 사건들 또한 컴퓨터 내부의 시스템 에러로 인한 '랙'과 같은 오류에 의해 일어난 사건들임을 은유하고자 하는 것일까?

옵쓰양이 캔버스에 유화물감으로 그린 이 그림은 전형적인 구상화다. 비교적 묘사력이 좋고 물감의 두툼한 살(질감)과 붓질의 맛이 감촉되는 그런 회화다. 그림그리기를 좋아하고 열심히 그림을 그리는데서 즐거움을 찾아가는 작가들의 손맛을 접한다. 그림은 우선 물질을 통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만들어가는 성형과 창조의 놀라움으로부터 기인한다. 텅 빈 캔버스에 물감이 붓질과 함께 올라가 붙어가면서 인지 가능한 형상을 환각적으로 안겨주는 것이다. 이미지는 일루젼이다. 그 환영은 언제나 놀라움과 신기함을 동반하면서 다가온다. 하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일루젼이다. 환영 아닌 삶이 없다. 좀 극단적으로 보자면 이 목숨도 이 세계도 오로지 환영이다. 그래서 인생은 비극이다. 온통 허구이고 허깨비뿐이니 말이다. 다만 그 비극과 환영의 제요소들을 아름다움으로 승화시키거나 이른바 해탈이랄까, 깨달음이랄까 하는 것을 획득하면서 견뎌내는 수밖에는 없을 것도 같다. 생각해보면 그 모든 것은 비극이나 환영과의 타협이자 절충이고 나아가 위안이다.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사회 현실 역시 무수한 환영에 의해 구성되어 있고 유지된다. 사람들은 그 환영에 속고 그러면서도 더 많은 환영을 욕망한다. 이미지에 속고 욕망에 속고 현실에 속는다. 아찔하고 치명적이며 위태롭기 그지없는 환영에 기대어 산다. 생각해보면 옵쓰양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들을 소재로 삼아 구상적 형식 안에 공들여 그리는 이유는 환영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욕망도 내재되어 있는 것 같다. 자신의 눈으로 진실을 파악하고 싶다는 욕망이자 대중매체의 조작이나 왜곡과 거리를 두려는 의미도 있어 보인다. 그런 의미에서 선택된 소재들은 그래서 흥미롭다. 랙이 걸린 상황을 그림으로 연출한 것도 조금은 이해가 된다. 그러나 평범하고 지극히 무난한 구상적 그림의 어느 부위에 랙이 걸린 듯한 장치 하나로 그림이 의미를 갖는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내 생각이지만 그녀의 그림이 좀 더 풍성한 회화적 맛으로 가득해지는 것이 더 요구되고 작가가 관심을 갖고 다루는 그 사건을 어떻게, 어떤 방법론으로 재현하는 것이 본인의 의도를 전달하는데 좀 더 효과적일 수 있을까를 고민해보았으면 한다.

* 박영택은 성균관대대학원 졸업(미술사전공)하고 주요 저서로는 『예술가로 산다는 것』, 『식물성의 사유』, 『가족을 그리다』, 『얼굴이 말하다』, 『테마로 보는 한국현대미술』, 『수집미학』등이 있다. 현재는 경기대학교 예술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20-year-old parents who threw away their newborn baby, teenagers who sexually assaulted a classmate, the injustice in conflict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and others from among the multifarious events that take place in Korea. She has thought about why hundreds of nice people have done such horrible things. She has said that she has tried to get her head around all these kinds of events without seeing them as individual problems. This approach means that she does not blindly accept the lurid happenings reported on in the mass media. Instead, she does on-the-spot information gathering and presents the events from a third-person point of view as much as possible. Only then does she put what she has learned into her pictures. This allows her pictures to be devoid of ideological entanglement and of the manufacturing, distortion and guesswork common in the press and to be the product of her own judgment. She has said that she wants to heal the wounds and the aftermath of things that happen in Korean society while understanding the individuals involved on a personal level. The idea of healing has recently become a topic of conversation, proving just how many wounds there are out there. There are many people looking for solace. They want to be healed and are crying out for it. One form that this healing takes, however, is the superficial strategy of restoring peace at a merely psychological level. Such a strategy does not delve into the individual's essence, which is rooted in contradiction. In any event, Woopsyang goes back over, re-organizes and draws those many horrendous events (which it is unacceptable to regard as acceptable) to understand the stance of those involved. At the same time, their role is to help us adopt the attitude of concentrating on those events after the fact. To recap, the reason she has handled and focused on events and situations -- all unhappy ones -- is the hope of exposing the various "positions" of the participants. What was needed for the drawings to do this was pictures that were re-enactments. However, what was also needed was a device for drawing a slanted line as if there were an error in the middle of the picture.

The pictures she has drawn do not simply borrow snapshots and videos from events that really occurred. Rather, she has used people that she knows as models to reconstruct a scene based on what crosses her mind as she reads a news article. This connects her pictures to the real event but also distances them from each other. They are somewhat realistic and somewhat fictitious at the same time. The picture, however, is derived from events and people that really existed. The motifs for her pictures have been various incidents which have taken place in our society, for example, group sexual assault, murder, physical assault, and political turmoil. The task she has set for herself is to attempt to transform texts, which were read from an ideological point of view, into images. After producing and drawing a single scene, she lays on top of that scene something else in a manner that resembles how a computer screen may momentarily flicker while drawing a slanted line or stop as the result of a computer error or glitch. For this reason, when you look at the pictures she has drawn, you are under the false impression that you are looking at a TV or computer monitor that is experiencing a glitch. It might make a strange sound and the video being shown on the screen may unexpectedly freeze and then stop. The screen is covered by the strange anxiety that occurs when you are faced with a screen that has locked up because it either has experienced a violent shock from the exterior or is experiencing some internal malfunction. This creates in the viewer a sense of lonely desolation. This is of course not real, because it is a picture that has been drawn on a canvas being used as a monitor and is not a real image experiencing a glitch. What we most often use the word "glitch" for is a computer error that occurs when playing an online game. These are also referred to as bugs or errors. Such phenomena are most often caused by a computer being unable to handle a large amount of graphical data. The glitch can take various forms: either the proportions are distorted, or the back and foreground are twisted, dots become lines, or perhaps portions of the former screen are present. Woopsyang presents this in a very humorous yet sorrow-inspiring manner. The imagery that the glitch creates appears to Woopsyang as strange and intriguing. What is interesting, however, is that the possibility of there being such a glitch with the computer graphics increases as the image quality gets better. This is because, to reproduce such refined images, a computer with good performance is required. Glitches result from a system defect inside the computer and produce their effect by interfering with the speed of energy, in extreme cases causing the screen to freeze up.

The incidents depicted by Woopsyang are errors that take place within the framework of society. The principle behind them is comparable to that of a computer glitch. It is extremely difficult to say whether they are the result of human behavior or the framework itself. The focus of this artist remains on the people and their existence within the social framework. Humans transfer and forward energy within the social framework. They assume their position inside the system, like parts of a mechanical device, only to instantaneously cause an error which results in a glitch. That glitch is the incident, and glitches and the incidents are connected by their common origin. This leaves many questions to be answered. Are Woopsyang' pictures supposed to bring our attention back to the incidents that arise within our society? Or, by expressing the idea of the sudden glitch on a part of the screen, is she trying to instigate a kind of anxiety by putting some emphasis on a picture that otherwise would be normal? Or, is she making a metaphor about those horrendously cruel incidents and those incidents that are caused by errors and glitches that occur because of an internal system error in a computer?

The pictures that Woopsyang paints using oil colors on a canvas are model specimens of real objects. They have comparatively speaking very good descriptive ability. Furthermore, they are paintings where the brush strokes and the thickness of the colors have a palpable taste. You can tell that she is the kind of painter who loves painting and drawing pictures and for whom drawing with enthusiasm is a source of happiness. The most important thing about pictures is that they find their origin in the reproduction of the form of something concrete using painting materials and in the surprise of creation. As the brush moves on an empty canvas it creates a recognizable form that embraces the imagination. The image is an illusion. The illusion is always accompanied by surprise and a miraculous quality. True, it could be said that everything in the world is an illusion. There is no life which is not an illusion. In the most extreme point of view, my life and this world are only illusions. This is why life is a tragedy. Everything is thoroughly a made-up fiction and an illusory appearance. However, the essence of the tragedy and the illusion can bear fruit when they are sublimated into beauty or take the form of enlightenment or a great breakthrough in understanding. We have no choice but to make it through. If you think about it, all of those things are a compromise and mutual understanding between tragedy and illusion. What' s more, it provides consolation. The reality of our capitalistic society that we live in is that it is composed of and can continue its existence only because of the countless number of illusions. People are deceived by the illusions yet want more of them. They are deceived by images, by their desires and by reality. We depend on an endless quantity of illusions that make us dizzy, which can be deadly and lethal, and which are dangerous. What Woopsyang has in essence done is turn the many incidents that arise in our society into the source material for her work. The fact that she has taken pains to draw them in a concrete framework is to make sure that they are instilled with the desire to want to escape from the illusions. We can also find in them the desire to understand reality and the intent to distance themselves from the distortions and manipulations of mass media using our own two eyes. She has kept these goals in mind when choosing her material, which makes them interesting. We can also understand her putting glitches in the situations and expressing that in her paintings to a certain degree. However, it is difficult to find a meaning in how the paintings, which are normal and extremely flawless in their concreteness, are also a kind of object or device that embodies a glitch in a certain part of them. It is only my opinion, but I believe that her paintings are in need of being filled with a more abundant pictorial, graphical flavor. I hope also that Woopsyang will ponder whether this would enable her paintings to more effectively convey her original motivation vis-a-vis how and by what method she reproduces the subjects that are of interest to her.

* PARK Young-taik graduated from the Sungkyunkwan University Graduate School having majored in art. He has been a prolific writer, and the books he has written include Living as an Artist, The Thoughts of Plants, Drawing the Family, The Face Speaks, Contemporary Korean Art by Theme, and Anthology of Aesthetics. He is currently a professor in the Arts Management Department at Kyonggi University.

윌 볼튼

영국 리버플 출신 작가 윌 볼튼은 사운드 영상 아티스트로 2012년 인천아트플랫폼 해외입주작가로 참여하였다. 〈Incheon Days〉는 입주기간동안 작가가 인천아트플랫폼 주변을 답사하며 수집한 이미지와 소리들을 조합하여 만든 영상작품 이다. 인천의 일상 장면 속에 숨어있는 세부와 질감 등을 차이나타운, 항구, 공장지대, 등을 배회하며 추출해 내었다. 추출된 사진과 녹음된 소리들은 천천히 사라지면서 다른 사진과 소리에 중첩된다. 인천이라는 도시의 분위기를 작가 특유의 섬세한 감성으로 표현하였다.

Wil BOLTON

Living in Liverpool, United Kingdom, he participated as overseas artist to IAP program. <Incheon Days> is an image art work he created through sounds and images he collected as he explored around IAP region during his stay the city. Wandering around the China Town, harbor and factory areas, he extracted the details and texture of the things hidden in everyday life of Incheon. In his artwork, the initial photo images and recorded sounds would then drift away slowly to be overlapped by another images and sound. The atmosphere of the city has been re-expressed through the artist's unique tas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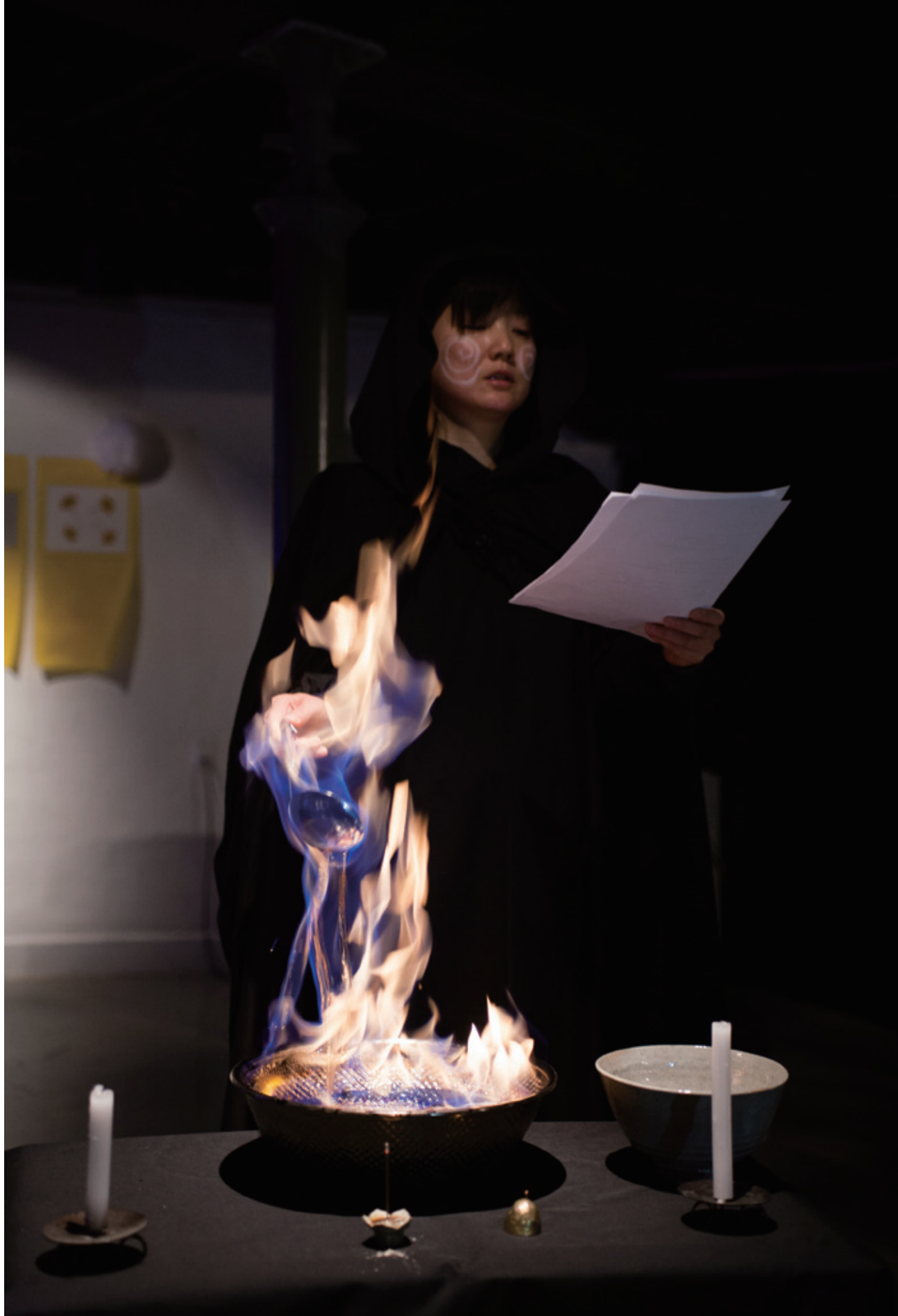
인천의 날들
Incheon days
45min Dimensions variable Video, Sound installation 2012

인천의 날들
Incheon days
45min Dimensions variable Video, Sound installation 2012

인천의 날들
Incheon days
45min Dimensions variable Video, Sound installation 2012

이수영

LEE Sooyoung



고사리 접신
Bracken Trance
2min1sec Performance document video 2012

백령도 해병대와 죽음의 사제
Marin corps and a priest of death
Performance 2012

연평도 해병대와 물귀신
Marin corps and a ghost
Performance 2012

이 땅의 미술계에 액티비스트를 허하라!

정원철(작가)

지난 4월 이수영 씨는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창작스튜디오에서 운영하는 이론가매칭프로그램의 파트너로 나를 점찍고선 연락을 해왔다. 몇 해 전 커뮤니티아트와 관련한 집담회에 패널로 함께 참여하면서 알게 된 후, 배울 점이 참 많은 작가라고 생각하고 있긴 했지만 당연히 나는 이론가가 아니어서 바로 사양을 했다. 하지만 그걸 모르고 부탁했겠냐는 작가의 반문이 오히려 호기심을 자극했다. 무모하기는 하지만 단순히 우발적인 승낙만도 아니었던 것이 사실 얼마 전부터 나는 내가 하게 될 일의 선택권을 가능하면 상대에게 내어 놓으려는 조금 이상한 노력을 하고 있던 터였다. 좀 더 설명을 하자면 어떤 제안이나 의뢰를 놓고 하게 되는 나의 선택은 그 기준이 매번 같아서 그 결과, 언제나 비슷한 물에서 비슷한 놀음을 하고 있는 반복된 일상이 갑자기 불안하게 다가오면서 하게 된 다짐이었다.

글의 시작을 이론가도 아닌 내가 그 역할을 담당하게 된 경위의 설명으로 하고 있지만 그것은 부담을 덜기 위한 면피성 전제인 셈이고, 진짜 중요한 핵심은 이론가와의 협업으로부터 별로 기대할 게 없다고 여긴 수영 씨의 판단에 있다. 작가의 입장에서 평론가나 기획자의 논리적 분석이 작품 활동을 진전시키는데 별 도움이 안 된다고 여기는 경우가 없지는 않지만 수영 씨의 경우엔 그런 일반적인 입장과는 다른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이 된다. 그것은 동업자로서 내가 느껴 온 미술계의 오래된 관습, 이를테면 작가주의적이고 작품중심적인 시선에 대한 못마땅함으로부터 기인하는 다분히 주관적인 느낌이다. 따라서 이 글은 작가나 작품에 대한 논리적 분석이 아니라 동업자의 응원임을 우선 밝힌다.

이 매칭프로그램의 수행을 위해 수영 씨는 자신이 그간 해온 작업에 대한 몇몇 자료들을 보내왔다. 구구절절한 설명 없이 프로젝트 과정 이미지들로만 구성한 포트폴리오도 평범하진 않았지만, 단연 놀라웠던 것은 1번부터 10번까지 번호 매겨진 작가노트였다. 최근의 기록인 10번의 "~하고자 한다."를 제외하고는 1~9번은 모두 "~했다."로 문장을 끝맺고 있었는데 그 행동을 하게 된 동기나 행위 이후의 소감 따위는 전혀 없는, 오로지 실제로 수행한 행동의 기록만 있을 뿐이었다. 대개의 경우 작가노트는 작품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 예술행위 이전의 동기나, 작업 의도 등에 대한 기록이어서 작업과 관련된 개념들이 총동원되는 '명사형 작가노트'이기 마련이다. 하지만 수영 씨는 동사를 빼고 나면 아무런 의미나 개념이 보이지 않는 '동사형 작가노트'를 보내 온 셈인데 나는 그런 작가노트를 처음 봤다. 그렇다고 그런 생소한 작가노트가 그녀를 머리보다 몸이 앞서는 다혈질의 행동주의자로 보이게끔 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실제적인 삶의 영역에서의 효용과는 무관하게 말이나 개념으로 치장된 의미과잉의 미술계에 일침을 가하는 냉철한 침묵으로 보였다.

'동사형 작가노트'가 전달하는 강렬한 메시지와 더불어 짧은 대담시간동안 내가 이해한 수영 씨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무차별하게 작동되는 사적, 공적 차원의 온갖 권력들에 대한 비판적 시각, 오만하고 탐욕스럽기 그지없는 동물종으로서의 인간에 대한 반성적 태도 등을 현실의 장소에서 오롯이 몸의 움직임으로 수행해 가는 '액티비스트'였다. 대담의 과정에서 그와 나는 아직도 모든 예술행위의 결과를 물질로 바라보고 그것도 미술계 내에서나 통용되는 기호체계와 문법으로 읽으려는 우리 미술계의 후진성과 그것에 의한 스트레스에 대해 공감했다. 그녀의 포트폴리오로부터 이런 스트레스의 증거를 내 맘대로 들춰내 본다면 2011년 '수유시장 사주풀이 인터뷰 프로젝트'전시가 아닐까 싶다. 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사주를 봐주는 과정에서 기록된 사주풀이 노트와 복채로 받은 물건들을 전시했던 것인데, 과정의 기록을 전시하는 방식으로서 얼핏 납득할만한 전시 광경임에도 내게는 너무 무겁게 보였다. 혹시 그 전시가 구태여 하지 않아도 될 사족 같은 프로젝트 보고전은 아니었을까? 시장 입구에 진을 치고 앉아 사주를 미끼로 상대방의 삶 속에 깊숙이 침투한 프로젝트를 어떤 방식으로 기록해야 할까? 천막가게 안에서 생성된 그 순간의 모든 물질, 비물질적인 것들을 천막 밖으로 충실하게 실어 나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관객과의 관계성을 중심으로 작업하는 작가에게 있어 핵심적인 예술행위는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는 가운데 벌이는 직접적인 접촉의 시도이다. 현장 작업을 계획하는 작가가 자신의 온갖 역량을 결집하는 지점 또한 누군가와 혹은 무엇인가와의 마주침의 순간이며, 바로 그 과정이 작가의 기대감이 가장 증폭되는 시간이기도 하고, 따라서 실망과 성취가 교차되며 계획의 수정, 보완을 순발력 있게 해내야 하는 때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사주풀이를 위해 만난 특정한 한 사람, 한 사람과의 관계에 몰두하면서 작가적 행위의 대부분은 이미 실행되었고, 행위에 의해 발생된 경험은 서로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살아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작가의 작업행위는 이미 끝났고 행위의 결과로서의 작품 또한 이미 삶의 시공간으로 이동해 버린 것이다. 그러고 보면 현장에서 옮겨져 전시장에 진열된 사주풀이 노트와 복채로 건네진 물건들은 과정의 생생한 기운과 유동성이 사라진 채 뒷북을 치는 '명사형' 오브제인 셈이다. 프로젝트의 실행을 통해 깨닫게 된 소중한 콘텍스트가 있어서 그것을 소통하기 위해 전시회를 꾸린다면 그건 또 하나의 다른 시도로서 새로운 의미가 생긴다. 하지만 어떤 형식의 예술 활동이건 전시 형태로 마무리돼야 하는 제도의 경직성이나 관행으로 인해 가시적인 작품을 해야 한다면 그것은 작가에게 가해지는 엄청난 폭력일 수밖에 없다.

미술계의 제도와 관행이 요구하지 않더라도 행위 자체의 충실한 기록과 행위과정의 복잡다단한 사유를 효과적으로 담아 낼 매체를 개발하는 일은 과정중심의 작업을 하는 작가들의 공통된 과제다. 섬세한 기록과 피드백은 다음 행위를 유발하는 결정적인 동기가 될 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존재 자체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이다. 최근 소복을 입고 연평도를 돌아다니며 기록해 온 사진이미지들을 놓고도 수영 씨는 매체와 관련한 고민에 빠져 있었다. – 소복 입은 그녀를 거리에서 우연히 맞닥뜨린 해병대원들은 매우 즐거워하며 그 순간만큼은 무장 해제된 채로 그냥 보통의 젊은이가 되어버렸다. 수영 씨는 그 느낌이 좋았다. 남북 긴장의 상징, 연평도에서 군인을 아주 짧은 순간이나마 해방시켜 놨으니 그냥 그걸로 이미 자신의 행위가 일으키는 의미는 끝이 난 것이다. 작업은 다 끝났는데 작품이 없다. 기록해 온 사진들을 보니 자신을 보고 웃고 지나가는 해병대원들 이미지가 솔직하다. 하지만 탱크 옆에 서서 찍은 소복 입은 여인의 이미지가 전달력이 더 커 보인다.– 이를테면 이런 식의 고민에 대해 얘기하다가 수영 씨가 한 마디 툭 던졌다. "관광회사를 차려서 가이드나 할까요?" 정말 액티비스트다운 기발한 생각이다. 관광의 새로운 차원을 여는 소복 입은 가이드, 좀비복장의 가이드가 되어 타성적 시각, 권력이 지시하는 시각으로 보던 장소를 새롭게 보게끔 해주는 역할은 얼마나 훌륭한 예술 행위인가. 바로 이런 경우처럼 실천적인 행위와 제작활동이 하나가 되는 상태를 작품으로 볼 수는 없을까? 특정한 시공간에 벌여 놓는 형태적인 구축만이 아니라 세계를 구성하는 조건이나 태도를 생산하는 것을 작업의 목적으로 삼는다면 너무 이상적인 것일까?

현장에서의 기록을 가공하여 예술계에 소개하는 것이 작업 의도의 연장선에서 어떤 의미를 추가로 발생시키는지 나로선 잘 모르겠다. 현장에서의 직접적인 활동과 마주침, 소통이 만들어내는 실천적 행동들이 세련되게 가공되어 미술계의 전문가들을 만족시키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두 경우의 '아트사이엔 결정적인 격차가 발생하는 걸까? 흔히들 현장에서의 활동이 예술적으로 다듬어져 전시형태로 공급되지 않으면 그 활동은 사회활동가나 자원봉사자의 그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반문한다. 수영 씨는 대담 중 "인문학적으로 우수하고 좋은 의도이긴 한데 예술적 감동은 없다."는 누군가의 평가를 예로 들며 난처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모두 미학적 잣대만을 들이댄 발언들이다. 실천적 예술행위에 집중하는 액티비스트들은 작품의 가치에 대한 평가를 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자신을 둘러싼 다양한 가치에 더 주목하는 작가들이다. 이제 삶 속에서, 삶의 맥락 속에서, 삶이면서 예술행위이기도 한 작업을 이어가는 작가들을 바라볼 다른 시선이 필요하다. 새로운 비평적 관점이 생겨나야 하는 것이다. 이들이 행하는 행위의 실제적인 쟁점은 무엇이고, 그것이 사회, 문화, 역사와 맺는 관계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사회, 문화적 종 다양성의 가치를 지키고 확대해 가기 위해서 작동되고 있는 예술계가 스스로 동일성의 함정에 빠지게 된다. 세상의 모든 독립적인 존재는 다른 무엇으로 대체될 수 없다. 어려운 길을 가는 존재는 더욱 그러하다. 미술계의 커뮤니티 아트 현황을 관심 있게 바라보며 깊은 애정을 표하고 있는 이문재 시인의 말을 빌어 마무리한다.

"작품보다 작업이, 작업보다 작가가, 작가보다 작가의 삶이 더 커야 한다."

* 정원철은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 독일 카쎌미술대학교 조형미술과를 졸업했다. 14회의 개인전을 열었고 10여 년 전부터 문화예술교육 활동과 공동체미술 프로젝트 기획과 실행에 관심을 쏟고 있다. 추계예술대학교 미술대학 판화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Permit activists in the art world of this land

JUNG Won-chul(Artist)

Last April, LEE Sooyoung placed me on the top of the list as a potential partner for an Artist- Theorist Matching Program offered by the studio and called me to ask for the job. Although I have known her for several years after joining as a panelist for community art and think highly of her, I declined the offer as I have never been a theorist. However, she asked me whether I seriously thought she was not aware of my profession, which triggered my curiosity. Although it might sound a bit reckless it was not a slip of the tongue. As strange as it may sound I was trying to give more options to the other party on negotiation table in terms of my work and project. To further elaborate, I came to realize that my choices over any suggestions or request pretty much put me in a boundary of the same results with repetition of similar plays in the all so similar environments, so I decided to go out of my way to face new challenges.

It was my humble and brief introduction of how an artist, who is not a theorist, came to take on the role, but in fact it was building the ground to save my face and lower the pressure. The mainstay of LEE Soo-young's decision was that there is not much to expect from collaboration with a theorist. Although there were a few cases of logical analysis of curators or critics not really helping the artists, from the way they see it, I assume there is more to hers decision than what the general attitudes believe. I see it as a partner who harbors rather the subjective feelings of disapproval toward the long-standing tradition of Auteurisme or artwork-centered approaches. Therefore, I should note that this is not to logically analyze the artist or hers works, but to send big cheers to my partner.

Sooyoung sent me several materials on hers projects of performances to help me with my research for the matching program. Filled with images of performances in process without enough explanations, the portfolio was not what I had expected. Instead, what caught my eyes was the artist note, numbered from 1 to 10. Except the very recent 10 which ends with "I intend to do ~," all the rest of 1 to 9 notes ends with "I did ~" which records only the actions conducted devoid of motives or sentiments afterwards. In most of the cases, artist note is the log of the artists' motivation or the intention of the art project which is not easily represented in the art work, so it ends up as a 'note full of nouns' about the project concept. However, Sooyoung sent me the 'verb-type artist note' which I never saw before. When I remove the verbs there is no concept or meaning left to signal or send direction to the audience, but it does not make her a hot-tempered activist. It is rather the stone silence responding toward the excess of words and meanings in art circles decorated with flowery words and concepts.

Based on the strong message delivered by the artist note and brief discourse with the artist, I think LEE Sooyoung is an "activist physically performing with hers entire body movements, who is visiting places in reality reflecting on humans as greedy and arrogant animal species, and criticizing all sorts of authority in public and private areas which indiscriminately affects our daily lives. During the discourse, I sympathized with her about the backwardness of the art circle who is trying to read its grammar and symbolic systems only from art forms and we were on the same page on our suffering from the stress.

From her portfolio I think the clues of hers stress can be found in the 2011 Fortune Teller Interview Project on Suyu Street Market where she told fortunes to the market merchants. She later displayed the fortune teller note next to the merchandises when customers paid for the service. The seemingly plausible exhibition weighed heavy on my mind. Was the exhibition an unnecessary project report? What should be the proper way of recording the penetrative project deep into the lives of the other people be with the bait of fortune telling at the entrance of the market? How can the materials and non-materials created at moments inside the fortune teller's tent be brought outside? For artist whose work centers around the relationship with the audience, the core of the performance art should be the direct attempt to make a direct contact within shared space and time. Therefore the contact point should be the moment that an artist who planned the project concentrates intensively. It is the moment hers expectation would explode and the moment she is met with mixed feelings of disappointment and achievement and flexibly correct or change the plan. Hers performance as an artist had already started off when she was focused on each client and the experience by the performance continues to live on in each other's hearts. In other words, hers performance was already finished and the result of the performance has moved on to a different space-time. In this respect, the fortune teller note and merchandises paid in kind were belated "noun type" objet now with the vividness and lively processes are gone. If the context was worthwhile for an exhibit in itself, it is in itself significant as a new trial. However, the rigid practice that forces all sorts of art performances to have exhibitions is violence to the artist.

Even when the art circle does not request such an institution or practice, the development of media effectively containing complex reasoning of art performances and service as a diligent record keeping is a challenge for all the performance artists who value the processes. The feedback and refined record can motivate the next performance, and it could be the record of one' s existence. Recently, the photo images of Sooyoung visiting Yeonpyeongdo island in white mourning garment led Sooyoung to think about what the right choice of medium could be. The marines she faced on the street were delightful and they instantly gave away the average young men inside them. Sooyoung liked that. At Yeonpeongdo Island, the symbolic place of the North and South' s conflict, although it was a very brief moment, helped the soldiers let go of the heavy burdens of conflict and it had finalized hers goals of the performance. The performance is finished but there is no artwork left. The photos she brought back reveals the candor of smiling marines passing by. Rather, the image of a girl in the mourning garment standing next to a tank seems to deliver more striking messages. It was about when we talk about this, Sooyoung would say, "Shall we set up a tour company and become guides?" She has these brilliant ideas suitable for an activist. A guide in mourning garment would raise a bar in the tourism industry to a new level and a guide in zombie costume projects a different viewpoint on places previously ruled passively by the authority. How great the performance art it is if we can take a role to awaken the viewers to see the places differently. As in the case, can we simply look at the art performance and production as an art work? Could it be way too ideal if the purpose of a project is not only the structural building of a space-time but also includes provoking conditions and attitudes which once again constitute the world?

I don't know what more significance can be developed by processing the records of the performance stage to brief the art circle. Could there be distinctive differences whether the direct activities, contact, and communications of the performance are sophisticatedly processed to the satisfaction of the art experts, or not? They would ask back, if the performance art is not artistically processed for display what are the differences between those activities of those social workers or volunteers. During the discourse, Sooyoung was at a loss talking about someone else's take on hers performances that hers work had "good intentions and is great as liberal arts, but do not artistically move the audience." All the remarks basically have the measuring yardstick of aesthetics. The activist who focus on the practical art performances do not want their work to be evaluated for its value, but want to focus more on various values of hers surroundings.

Now we need a different approach to look at the performance of artists working on the project—part art performance that is part life in the broad context of lives. A new critical viewpoint should be emerged. We need to focus on what really matters in the performance, and what are relations they make with the society, culture, and history. Otherwise, the art circle—activated to preserve and expand on the value of species diversities in society and culture—is falling for the trap of uniformity. All the independent beings in the world cannot be replaced by something else, and especially so for those taking the less traveled road. I would like to close quoting a poet LEE Moon-jae who has been following the community art with deep affection.

"Project comes before work, and artist before the project. The life of an artist should be towering larger than the artist."

* JUNG Won-chul, B.A. Painting Dept., College of Fine Art at Hoingik University & Fine Art, and Formative Fine Art at Kassel School of Art 14 solo exhibits, and working on the culture and art education activities and community art project execution and performance for the past 10 years. He is currently a Prof. of printmaking at the College of Fine Art, Chugye University for the Arts.for the Arts.

이시하라 노리코

한국에 와서 2년이 됐다. 한국어도 할 수 있게 됐다. 친구도 생겼다. 근데 어느 날 도마 위에 작은 사각형으로 잘린 두부가 마치 나처럼 보였다. 쓰러지지 않게 균형을 잡으려는 모습이었다. 두부는 부드럽고 무너지기 쉽지만 의외로 무겁고 묵직하며 물을 많이 포함하고 냉장고에 랩을 씌우지 않고 깜빡 해버리면 바싹 말라버린다. 마치 우리의 마음 같다…

나는 2008년 처음으로 내 마음을 두부에 담는 작업을 했고 이번엔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두부에 담는 작업을 시작했다. "당신은 요즘 뭔가 힘든 것이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하면 다들 조금씩 얘기해준다. "요즘…" 누구나 꼭 그때마다 힘든 것이 있는 게 우리의 삶이다. 이 시리즈는 이런 질문을 하면서 진행한 작업이다. 나의 힘든 것, 당신의 힘든 것, 누군가의 힘든 것. 다들 그런 마음을 품은 채 삶을 보내고 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누군가의 두부를 내가… 내 두부를 또 누군가가… 또 다른 사람이 누군가의 얘기를 듣는다. 누군가의 얘기를 누군가와 나눈다. 의미가 없는 듯 하지만 의미가 있는 것. 그런 얘기를 담은 것이 이번의 시리즈다.

– 작가노트 중 –

무제 두부2011-시리즈에서
Untitled tofu2011-series
90×110cm Inkjet print 2012

ISHIHARA Noriko

It's been two years since I came to live in Korea. I can now speak Korean. I made some friends, too. Then one day I noticed a tofu that was neatly cut in rectangle on the chopping board, looking just like me. It was trying to keep balance and not fall. Tofu is soft and easy to crumble but can also be unexpectedly heavy, bulky and contain much water. However if you forget to put a cover on it in the refrigerator it will dry off immediately. It's just like our heart….

It was in 2008 that I began to put my heart into tofu work. Then I began to put other people's heart into tofu as well. Whenever I ask "Is there something bothering you?" people always has a thing or two to reply. "Well, these days…" We always have some kind of difficulty lying ahead of our path, without a fail. That is what our life is all about. So those were the questions I raised as I proceeded with this art project. My burden, your burden and somebody else's burden. Everybody lives on with such burden in heart at workplace, at home and at school. I listen to someone else's tofu story and someone listens to my tofu story while someone else listens to someone else's tofu story. Sharing tofu story with another may look meaningless yet that is exactly where the meaning lies. That's what my latest art series is all about.

- Artist Note -

두부가 왔어요!
Here comes tofu!
지역연계 프로젝트 Local engagement project 2013

무제 두부 2011-시리즈
Untitled tofu 2011-series
Installation view

해안동 2가 5번지#3
Haean-dong 2-5#3
42×29.7cm Inkjet print 2012/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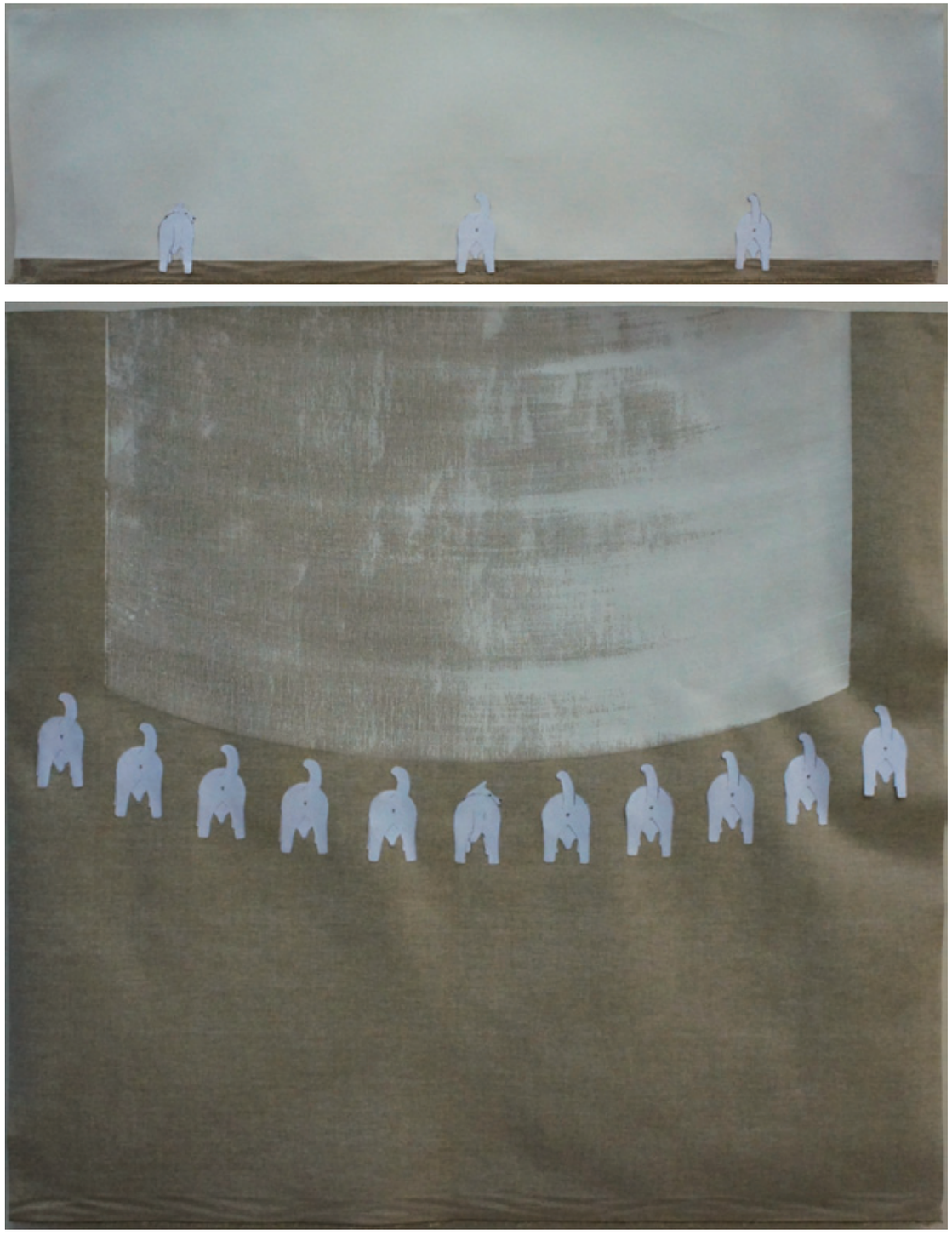
해안동 2가5번지 #1
Haean-dong2-5 #1
42×29.7cm Inkjet print 2012/2013

이의성

LEE Ui-sung

명
Meong
500×500×60cm FRP, Motor, Steel frame, Stainless bucket, Dog food, Sound 2013

멍-드로잉
Meong-drawing
33.5×85cm, 67.5×68cm Paper on canvas 2012



멍-세부이미지
Meong-detail
500×500×60cm FRP, Motor, Steel frame, Stainless bucket, Dog food, Sound 2013

지혜의 무게
Weight of wisdom
64×44×120cm Wood, books 2010

마른 곡괭이
Skinny pickax
52×7×97cm Pickax 2010

우유누수
Milk leak
120×115×65cm FRP, urethane coating, stainless bucket, object 2010

문명이라는 장기판에 놓여 진 벌거벗은 생명

이선영(미술평론가)

이의성의 작품에는 동물들이 많이 등장한다. 동물을 좋아하는 그에게 동물들은 자신의 비유가 되어 작가로서 세상을 향해 하고 싶은 말을 전해준다. 주로 등장하는 동물은 개, 곰, 소, 말 등 인간과 친숙한 동물들이다. 그러나 현대미술에서 자주 등장하는 동물은 단순히 인간으로 하여금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한 교훈담이나 우화에 머물지 않는다. 또는 '인간 역시 동물이다'는 식의 싱거운, 그리고 대부분 퇴행적이며 반동적으로 기우는 자연주의적 결론에 머물지 않는다. 이의성의 작품에서 인간과 동물의 비유는 보다 심층적이다. 그것은 인류문명에 의해 타자화의 극단에 몰려있는 동물들의 운명이 정확히 그 가해자들에게 되돌아온다는 메시지이다. 가해자가 모두 같은 부류는 아니다. 동물을 비롯한 벌거벗은 생명에 군림하는 보이지 않는 권위는 따로 있으며, 근거가 확실치 않은 이 부당한 권력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다수의 인간들 역시 타자로서의 운명을 공유한다.

특히 작가라는 존재는 스스로를 의식하면 할수록 타자화 되었음을 깨닫게 된다. 다수의 타자를 억압하는 동일성의 논리는 다양성을 억압하며, 결국 그것들을 사라지게 한다. 대표적인 다양성의 산실은 자연이고 다른 하나는 예술이다. 그래서 자연과 예술은 그토록 많이 닮아 있는 것이다. 야성과 종 다양성을 소멸시키는 권력 아래에 아무런 보호막 없이 위험에 노출된 동물들은, 마찬가지로 한계선 상에 있는 예술가가 강하게 감정이입할 수 있는 존재들이다. 동물 희생은 신화나 종교의 시대부터 공장화 된 대규모 동물농장과 동물실험실에 이르기까지 인간 문화의 근저에 깔려 있다. 자크 데리다는 『법에서 정의로』에서 동물희생은 주체성의 구조에 본질적이라고 본다. 인간 주체를 세우는 중심 논리로 로고스 중심주의(logocentrism)-여기에서 로고스는 이성, 의미, 기원, 근거, 현전 등을 포괄한다-를 지목했던 데리다는 이 논리가 억압하는 타자로 동물 및 생명체 일반의 희생 구조를 포함시킨다. 그는 이를 해체함으로서 인간중심적 공리계 전체를 재고하자고 주장한다.

인간중심주의가 행하는 폭력은 그것의 일방성이다. 이의성의 작품 〈뛰는 개〉(2010)는 한 방향으로 뛰고 있는 개떼들을 통해 전진만을 강제하는 현대문명을 풍자한다. 개는 눈이 제거되어 있어, 벽을 향한 개들의 질주는 맹목적이다. 그것들은 벽과 부딪히는 순간 벽 저 너머로 사라져 버릴 듯하다. 클론 같은 개의 모습은 한 마리의 여러 동작처럼 보이며, 공간에 정지된 조각매체에 시간적 흐름을 부여한다. 젖소가 등장하는 작품은 한 가지 기능만으로 특화된 가축의 착취를 예시한다. 작품 〈우유누수〉(2010)는 거대한 양동이가 넘칠 만큼의 우유를 짜낸 젖소가 헬기에 의해 어디론가 이동되고 있다. 원래 이 작품은 비가 새는 작가의 열악한 주거지로부터 영감을 받은 것이다. 그는 고인 빗물에 의해 천정이 젖소의 젖처럼 축 늘어진 눅눅한 곳을 벗어나고 싶었지만 이내 제자리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젖소 또한 다른 곳으로 옮겨지기보다는 재난에 가까운 그 장소로 다시 되돌려 놓아지는 듯하다.

한 마리 젖소는 하나의 우유생산 공장으로 간주된다. 젖소는 더 많이 생산할수록 더 곤경에 처해진다. 작가 또한 마찬가지 아닌가? 그들은 열심히 작업할수록 더 사회로부터 물러난다. 쾌적함과 아늑함으로부터 더 멀어진다. 젖을 받아내는 거대한 양동이나 장기판의 말처럼 젖소를 이리저리 옮겨놓는 헬기는 젖소 자신과는 이질적이다. 그것은 문명의 산물이다.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닌, 인간에게 필요한 젖을 대량 생산해낸 젖소는 스스로의 생산물에 의해 소외당한다. 자신이 만들어낸 상품에 의해 소외되는 다수의 노동자들처럼, 그리고 자신이 만들어낸 작품에 의해 소외되는 작가들처럼 말이다. 제목부터 장난스러워 보이는 작품 〈개벼락〉(2007)은 고소공포증이 있는 작가가 자신을 은유-그는 개를 '영혼의 친구'라고 표현한다-하는 개로 변신하여 공중에 흩뿌려진다. 그것은 작업에 몰두하는 삶처럼 죽음에 가까운 짜릿함인가? 이의성의 작품에서 시스템을 상징하는 여러 인공 구조물과 함께하는 동물들은 고난에 처해지지만은 않는다. 철봉에서 곰들이 아이들처럼 천진하게 노는 작품 〈대롱대롱〉(2008)은 인간 본연의 모습을 '놀이하는 인간'(호이징가)으로 본다. 오동통한 몸은 작가의 말대로 '순수의 덩어리'처럼 보인다. 동물 대신에 사물에 빗대어 노동하는 인간의 면모를 표현한 작품 〈마른 곡괭이〉(2010)는 생명의 전면적인 역량을 활성화시키는 놀이와 대별되는 대표적인 행위로 노동을 지목한다.

이 작품은 헌 곡괭이의 자루를 사람의 손가락 마디로 조각해 놓은 것으로, 이를 통해 반복적인 곡괭이질을 하고 살아가는 듯한 우리의 일상을 풍자했다. 동물들은 노동으로부터 벗어났지만 그자체가 도구화되며, 인간은 동물로부터 벗어났지만 노동으로 인해 물화된다. 지배와 예속을 야기하는 타자화의 메커니즘은 동일하다. 현대의 지배적 체제는 무엇보다 살아있는 생명의 형식을 겨냥한다. 생명은 잉여가치의 원천으로, 그것을 예속상태에 묶어놓는 것은 정치의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된다. 그래서 현대의 정치는 생명의 정치라고까지 평가된다. 이의성의 작품 속 인간과 동병상련의 동물들은 생명정치의 대상으로 나타난다. 그의 작품에서 벌거벗은 생명인 동물은 순수한 존재이다. 조르조 아감벤은 『호모 사케르』에서 '벌거벗은'이라는 말은 그리스어 '하플로스'에 해당하는데, 이는 철학에서 순수존재를 정의할 때 사용하는 용어라고 말한다.

순수 존재의 영역을 분리해 내는 일은 형이상학의 기초적인 행위로, 정치에서 벌거벗은 생명을 분리해내는 일과 상당히 유사하다. 벌거벗은 생명은 순수존재 만큼이나 무규정적이고 불가해하다. 이 순수존재를 포착하기 위해 정치는 생명정치로 변화한다. 호모 사케르는 미셸 푸코의 『앎의 의지』를 인용하면서, 자연 생명이 국가권력의 메커니즘과 계산속으로 통합되기 시작하고 정치가 생명정치로 변화하는 과정을 보여준다고 지적한다. 푸코에 따르면 인류가 그리고 개개인이 단순히 살아있는 신체라는 의미로 정치 전략의 중요한 관건이 될 때, 사회는 생물학적 근대성의 문턱에 도달했다고 할 수 있다. 근대정치는 벌거벗은 생명과 내밀한 공생관계에 접어든 것이다. 근대 민주주의는 바로 이러한 신체의 요구와 제시로서 탄생했다. '정치란 인민의 생명에 일정한 형식을 부여하는 것'(페르슈어)가 되었다. 20세기의 전체주의는 생명과 정치의 동일성에 기초한다.

생명과 정치는 원래 서로 별개의 것이었지만 하나로 결합한다. 조르조 아감벤은 벌거벗은 생명을 정치 영역에 포함시키는 것이야 말로 권력의 핵심이라는 결론을 내린다. 타자로서 배제된 벌거벗은 생명들은 정치화를 통해 포섭된다. 수용소는 이러한 생명 정치적 공간의 대명사로, 총체적인 지배의 시도가 이루어지는 현대 사회의 모델이다. 수용소는 역사적 사실이자 아미 과거에 속하는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정치적 공간의 숨겨진 모형인 것이다. 동물농장이나 동물실험실 또한 마찬가지이다. 인간은 농장이나 실험실을 통해 더 많은 생산력을 확보했지만, 더 많은 자연적 인공적 재앙 또한 불러온다. 인간에게 해방을 가져다 주리라 기대되었던 이성 자체의 역기능이 도처에서 빈발한다. 동물대신에 문명시대의 사물이 등장하는 이의성의 또 다른 작품 군들은 문명의 역설에 대해 언급한다.

작품 〈지혜의 무게〉(2010)는 책의 무게로 인해 무너진 미국의 한 도서관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켜켜이 쌓아 둔 책들 때문에 책상다리에 알통이 배긴 모습을 표현하였다. 책들은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 진리가 아니라, 인간 머리 위를 짓누르면서 압박한다. 관념이 쌓은 탑들은 겉보기의 체계와 달리 임의적이고 엉성하다. 그것들은 몸을 둔화시키고 실천을 마비시킨다. 삶을 변혁시키는 실천으로 전화될 수 없다면 그것은 지혜가 아니라, 단지 지식일 것이다. 타락한 지식은 단지 쌓아놓은 재물이 가지는 권위나 힘을 예시할 뿐이다. 그의 작품에서 책은 다음에 쌓여질 책을 위한 받침대가 될 뿐이다. 책은 책이 있는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또 다른 책을 낳는 자기 지시적 활동에 복무한다. 〈지혜의 무게〉는 코드화 되고 관료화 된 현실의 불구화된 모습을 풍자한다. 작품 〈내가 꼰 회오리〉(2010)는 자신이 만들어낸 산물에 의해 자승자박되는 모습이다. 20센티미터 남짓한 얇은 철사를 수없이 꼬아 길이와 굵기를 늘려나간 이 작품은 늘 치워도 어질러져 있는 자신의 방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것으로, 작은 바람줄기가 모여서 모든 것을 날려버리는 회오리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 그것은 작은 혼란들이 모여서 언젠가는 자신을 흔들어놓을 것이라는 불안감을 준다.

시멘트로 만들어진 달걀 모양의 작품 〈콜럼버스의 달걀〉(2010)은 나날이 콘크리트화 되는 지구를 표현했다. 그러나 자연이라는 실체를 덮은 그 콘크리트 표면은 그다지 견고하지 않다. 달걀 껍질처럼 취약하다. 그러나 인간이 문명의 취약함을 깨닫게 되는 계기는 지혜가 아닌 재앙을 통해서일 뿐이라는 것이 재앙을 반복하게 한다. 재앙의 기억조차도 지나간 뉴스처럼 곧 희미해진다. 벽에 처박힌 자동차를 표현한 작품 〈무제〉(2008)는 〈뛰는 개〉(2010)의 주제를 동물이 아닌 사물로 표현한다. 동물이나 사물의 자리에 작가 스스로의 처지를 대입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맹목의 질주가 낳은 재앙을 사건사고처럼 보여준다. 이러한 종류의 사건사고는 부지불식간에 매순간 벌어진다. 조용한 죽음은 차가운 현대의 일상에 편재한다. 벽을 향해 달리는 눈 없는 개떼들과 브레이크 없는 질주를 하는 자동차는 맹목의 두 가지 차원이다. 유일한 방향성을 요구하는 진보된 문명의 압박은 다수의 패자들 뿐 아니라 소수의 승자에게도 파멸을 안겨줄 뿐이다.

* 이선영은 이화여자대학교 생물학과 졸업, 홍익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를 수료했다. 1994년 조선일보신춘문예 미술평론 부문으로 등단하였고, 2003-2005년 미술평단 편집장, 1996-2006년 미술과 담론 편집위원 역임했다. 또한, 2005년 제1회 김복진 미술상, 2009년 제1회 한국 미술평론가 협회상(이론부문)을 수상하였다.

Bare Life Placed on the Chess Board of Civilization

LEE Sunyoung(Art critic)

There are a lot of animals in the work of artist LEE Ui-sung. Mr. LEE likes animals, and for him, they serve as a metaphor for himself and communicate to the world the message he wants to convey as an artist. The animals that most commonly appear in his artwork are those that have a close relationship with human beings, such as dogs, bears, cows and horses. However, the animals that frequently appear in contemporary art are more than mere moral allegories or fables urging humans to lead better lives. Nor do they offer a clichéd - and often regressive and reactionary - naturalistic conclusion along the lines of "people are animals, too". No, the comparison of people and animals in the work of Mr. LEE goes much deeper: its message is that just as animals have been made into the other by civilization, the perpetrators are doomed to the same fate. These perpetrators are not all in the same category. There is a separate and unseen authority that rules over animals and all other forms of bare life, and most people are also dominated by this unjust power, despite its lack of a legitimacy. These people also share the fate of becoming the other.

Especially for an artist, the more self-aware one becomes, the more one realizes how one has been made the other. Diversity is suppressed by the logic of sameness, which oppresses those it deems to be the other, and in the end makes them disappear. One of the classic examples of diversity is nature; the other is art. This is why nature and art resemble each other so much. Endangered, unprotected, and exposed to the power that is annihilating the diversity of species and the wildness of life, animals elicit the sympathy of artists. Artists, too, are on the verge of extinction. Animal sacrifice has been an integral part of our culture from the age of myths and religion until large-scale factory farming and animal experiments. In "From Law to Justice", Jacques Derrida argues that animal sacrifice is fundamental to the construction of selfhood. Derrida, who observed that the central assumption used to establish human selfhood was logocentrism -here "logos" encompasses reason, meaning, origin, foundation, and tradition-, includes the sacrificial system of animals and life in general as the Other that is oppressed by this system. He advocates deconstructing this system to give us a chance to reconsider our anthropocentric paradigm.

The violence perpetrated by anthropocentrism derives from its one-sidedness. Mr. LEE's work <Running Dogs>(2010) uses a pack of dogs running in the same direction to satire contemporary civilization's focus on progress. The dogs' eyes have been removed, and they are racing blindly toward a wall. The viewer feels that, the moment they run into the wall, they will disappear on the other side. The clone-like dogs look as if they are the same animal in different poses, which confers the flow of time on the genre of sculpture, which by its nature is confined to one place.

A milk cow appears in another work, which points to the exploitation of cattle, which are specialized for one function only. In <Milk Leak>(2010), a milk cow has been milked until a huge bucket is almost overflowing, and the cow is being transported somewhere by helicopter. The author apparently was inspired to make this piece by his dilapidated house, which leaked when it rained. He wanted to escape from that damp place, where the collecting rain water made the ceiling sag like a cow's udders, but he knew that he would have to return to the same spot before long. It seems that the cow, too, is not being moved somewhere else but is rather being returned to the site of calamity. A milk cow is regarded as a milk production facility, and the more the cow produces, the worse its predicament becomes. Isn't this the same as with an artist? The harder they work, the further they move from society, and they also lose sight of pleasure and comfort. Like the huge container that holds the milk or like pieces on a chess board, the helicopter that carries the cow from place to place is of a different nature from the cow itself. That is the product of civilization. The milk cow, which has produced a huge quantity of milk not for herself but rather for the needs of people, is alienated by her own product. It is the same with many workers who are alienated by the products they make and artists who are alienated by the artwork they create. <Dog Lightning>(2007) is a playful piece, as the title suggests. Mr. LEE, who is afraid of heights, uses dogs to represents himself – he has called the dog his "soul mate" – and scatters them across the sky. Does this perhaps represent an ecstasy that approaches death, like a life spent absorbed in one's work? Mr. LEE's work includes many animals that are accompanied by various artificial structures symbolizing the system, but not all of these animals are depicted as suffering. <Take Dangling>(2008), for example, a piece in which bears are gamboling on a pull-up bar like innocent children. In this piece, humanity's true image is shown to be Huizinga's homo ludens - man at play. The chubby bodies of the bears look like "lumps of innocence", just as Mr. LEE has described them. It is not animals but objects that are used to represent the appearance of working man in <The Dry Pickax>(2010). Here, labor is identified as a representative human behavior that contrasts with play, which rejuvenates our overall capacity for life. In this piece, the handle of an old pickax is sculpted of human finger bones. These function as a satire of our daily lives, reminding us of people who spend their lives doing the repetitive work of swinging a pickax. Animals are freed from labor but are turned into tools; humans are freed from being animals but are commodified through labor. The mechanisms of "othering", leading to control and subjugation, are the same. The thing that the oppressive contemporary regime aims at most of all is the form of living things. Since life is the source of surplus value, bringing that into a state of subjugation is one of the most pressing interests of politics. For this reason, contemporary politics has even been described as biopolitics. The people and animals in Mr. LEE's artwork who suffer the same ordeals are shown to be the objects of such biopolitics. Animals, which are the bare life in his art, represent pure being. In his book Homo Sacer, Giorgio Agamben says that "bare" here corresponds to the Greek word "haplos", which is a philosophical term used to define "pure being".

Delineating the domain of pure being is a fundamental task of metaphysics in a rather similar way to defining bare life in politics. Just as much as pure being, bare life is irregular and improper. Politics becomes biopolitics in order to take hold of pure being. In Homo Sacer, Agamben quotes Michel Foucault' s The Will to Knowledge, observing that natural life begins to be absorbed in the mechanisms and calculations of national power and reveals the process by which politics changes into biopolitics. According to Foucault, it is when humanity and individual people in the sense of purely living bodies become an important key to political strategy that society can be said to have crossed the threshold of biological modernity. Politics in the modern world has entered into a private symbiotic relationship with bare life. Indeed, modern democracy was born from the demands and presentation of just this sort of body. The words of Otmar Von Verschuer - "Politics bestows a particular form upon the life of people" - have been realized. Totalitarianism in the 20th century is founded upon the unity of life and politics. While the two were originally separate from each other, they have been combined into one. Giorgio Agamben concludes that it is the act of including bare life in the domain of politics that is the key to power. "Bare lives", which had been excluded as the Other, are won over through politicization. The concentration camp, which is synonymous with the biopolitical space, is the model for contemporary society that illustrates the attempt to achieve complete control. Concentration camps are not merely a historical fact: they are not an irregularity that belongs to the history of the military, but rather are the concealed template for the political space in which we are still living today. Factory farms and animal experimentation are one and the same thing. While humans have been able to increase productivity through these farms and laboratories, they also have brought more natural and artificial disasters. Humanity was led to believe that reason would set us free, but everywhere we see it doing the exact opposite.

Other pieces in Mr. LEE's oeuvre that depict artifacts from our civilized age instead of animals speak to us of the paradox of civilization. In Mr. LEE's work <The Weight of Wisdom>(2010), which was inspired by a library in the US that collapsed under the weight of its own books, the legs of a table are bulging with the weight of the books that are stacked in layers atop it. Far from offering the truth that sets men free, books are oppressive, pressing down on the heads of people. Towers built of ideas, despite their external system, are temporary and weak. They make the body dull and paralyze action. If something cannot be converted into the kind of action that transforms life, it is not wisdom, but simply knowledge. Corrupted knowledge does no more than foreshadow the power and authority held by accumulated wealth. In Mr. LEE's art, a book is no more than a prop on which the next book can be placed. A book cannot escape from the place of books, and it serves the self-referential activity of yet other books. The Weight of Wisdom satirizes contemporary life, which is crippled by encryption and red tape. The piece <The Whirlwind that I Wove>(2010) shows us someone being betrayed by their own creation. Thin 20cm-long strands of steel wire are entwined, gradually becoming thicker and longer. The work was inspired by the author's room, which always seems to be a mess no matter how much he cleans it. It serves as a warning that small gusts of winds can join together to become a cyclone that sweeps away everything in its path. The work makes the viewer uneasy, implying that small confusions may combine someday to shake one's very core.

<Columbus's Egg>(2010), a work that consists of an egg made of concrete, depicts the state of the world today, which is gradually being covered by concrete. However, while the concrete surface may conceal nature below, it is not very sturdy - indeed, it is as brittle as an eggshell. It is not wisdom that makes humanity aware of the frailty of civilization, but disaster, and for this reason we face one disaster after another. But the memory of calamity soon becomes as faint as old news. In the work <Untitled>(2008), which depicts an automobile that has crashed into a wall, the theme of <Running Dogs>(2010) is expressed through objects instead of through animals. The author is also able to substitute his own situation in the place of the animal or object. This work shows us the tragedy provoked by this ignorant race in the guise of an accident. Such accidents occur every moment without our awareness. Quiet demise is omnipresent in our cold everyday existence. The eyeless pack of dogs running toward the wall and the automobile racing ahead without brakes are two dimensions of blindness. The oppression of progressive civilization, which demands a unique directionality, only brings ruin, not only for the weak majority, but also for the winning minor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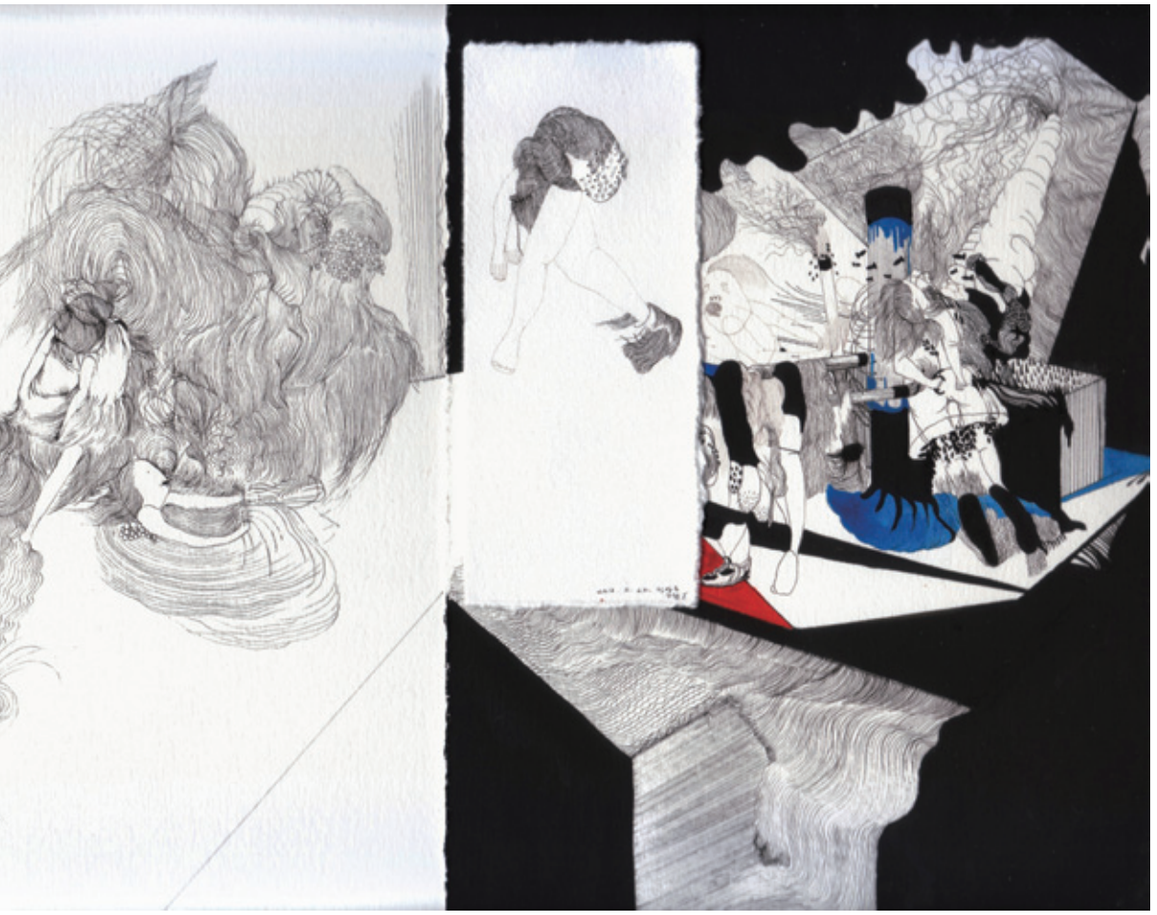
*LEE Sunyoung graduated from Ewha Women's University with a degree in biology and completed a graduate course in art history at Hongik University. She made her debut in the category of art criticism in the 1994 spring literary competition sponsored by the Chosun Ilbo, and she held the position of art criticism editor from 2003 to 2005 and was on the art and discussion editing committee from 1996 to 2006. She also won the first Kim Bok-jin Art Prize in 2005 and the first Korean Art Critic Association Prize (in the theory category) in 2009.

전윤정

CHUN Yun-jung

생각의 배
The ship of thinking
25×20cm Drawing on paper 2012

다방(多房)중 상상의 충돌
The collision of imagination
20×25cm Drawing on paper 2012



다방(多房)중 혼란의 밤
The night of chaos
20×25cm Drawing on paper 2012

정체된, 지금은 마치 '어둠'
Stagnant, The present is like da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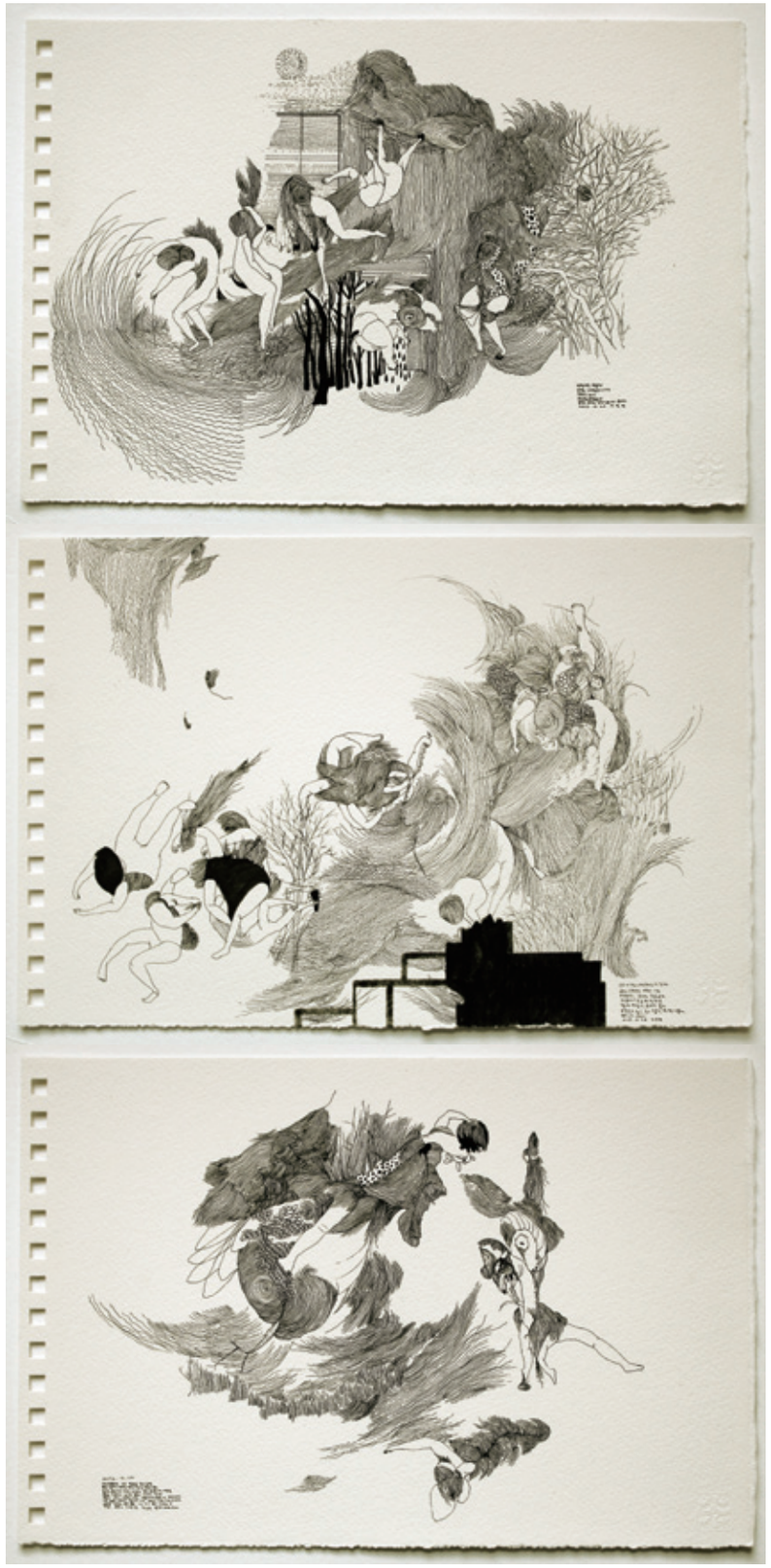
기다림, 사람들의 항의
Waiting, Protests from people

다리 위를 거닐며, 과거로부터의 욕망
Walking over the bridge, Desires from the past

억누른, 어두운 공원을 걷다
Suppressing, Walk through the dark park

외면된 안과 밖
Neglected inside and outside

현실의 차가운 바람
Cold wind of reality
19×28cm each Drawing on paper 2012



예술가의 세계와 그 안팎의 문제

김준기(미술평론가)

전윤정이 거쳐 온 지난 몇 년간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오늘날 예술가가 사회와 관계 맺는 방식을 들여다볼 수 있다. 그는 학업을 마친 직후 레지던시 생활을 시작했다. 임시거주 방식의 레지던스 프로그램은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작업실과 생활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작가에게 안정적인 작업공간을 확보하게 해준다. 게다가 잘 돌아가는 프로모션 기능이 있다면 그것은 예술가의 자기확장을 위한 최상의 기회일 수 있다. 기실 국내외의 많은 작가들이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다른 예술가들과의 만남을 통하여 자신의 세계를 확장하는 방법으로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일종의 등용문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레지던시는 예술가가 좁은 울타리를 벗어나 세계 속의 예술가로 자리잡는 데 일종의 장애로 작용할 위험성도 있다. 레지던시에서의 만남이라는 것이 예술가 혹은 예술에 관심있는 소수 사람들과의 만남으로 한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예술가들은 그들만의 네트워크와 관계맺음에 갇혀서 세상을 넓게 볼 가능성을 차단당하기도 한다. 물론 레지던시의 가능성과 위험성은 작가 자신들의 개별적인 활동방식에 따라 사뭇 다른 과정과 결과를 도출하기도 한다. 그런 점에서 나는 전윤정에 대한 이 글을 '예술가의 세계와 그 안팎의 문제'에 관해 몇 가지 언급하는 장으로 삼으려고 한다.

지난 수년간 몇 군데 레지던시에 참여한 후 지금은 고향 대전에 돌아와서 새로운 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전윤정의 경우 가능성과 위험성은 반반 정도 작용한 것 같다. 우선 레지던시가 그에게 준 위험성과 그것을 극복해나간 과정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술계는 물론 사회 생활의 경험이 많지 않았던 전윤정은 지난 몇 년간의 레지던시 생활을 거치면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맺기 때문에 마음고생을 많이 하면서 지냈다고 한다. 한 지붕 아래서 작업과 생활을 병행해야하는 공간구조 때문에 작업뿐만 아니라 일상의 문제까지 함께 문제시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조바심내고 마음을 닫을 때도 있었지만, 주변의 동료들과 공존하는 방법을 익혀나가면서 미술을 익히고 세상을 배웠다.

긍정적인 가능성은 다른 작가들과의 공동생활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점검하고 자신의 가능성을 재발견한 것에 있다. 특히 그가 마지막으로 생활했던 인천아트플랫폼은 인천의 원도심이 자리하고 있는 곳이라 작업공간 인근에서 여러 시민과 관광객을 만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는 한적한 시골의 고즈넉한 작업실에서 관광객으로 가득한 원도심 공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레지던시 환경을 체험했다. 국내외 작가들과의 네트워킹은 물론 레지던시 주변환경과의 다양한 관계맺음은 그가 지낸 온 지난 몇 년 동안의 커다란 성과일 것이다. 지금까지의 레지던시 체험은 그가 보다 크고 넓은 세상과 대면하면서 예술가로서 활동하는 데 있어 매우 소중한 근거를 제공했다.

레지던시의 작가 전윤정은 지난 몇 년간의 미술계 생활에서 자신의 작업을 레지던시에서 획득한 문제의식, 즉 일상적인 생활공간과 전문적인 작업공간이 겹쳐진 곳에서의 사람들과의 관계 맺기에 포커싱하기 시작했다. 레지던시라는 좁은 세계이지만 그는 이 공간 속에서의 관계맺음을 사회 속 개인의 관계 문제로 의제화 했다. 그는 상처와 화합을 통해서 자신을 발견하고 자아를 키워나갔다. 결국 예술가들에게 예술은 현실을 대면하는 통로로서의 별다른 세계가 아니라 예술 그 자체가 자신의 삶을 구축하는 현실 그 자체일 수 있다는 점을 전윤정의 삶과 작업에서 새삼 확인할 수 있다. 전윤정에게 있어 작업은 세상을 살아가는 한 인간의 매우 구체적인 현실이다. 이런 맥락에서 전윤정의 작업은 자이치유의 과정이자 그 결과이기도 하다.

전윤정은 깨알같은 글씨에 꼬물락거리는 필치로 드로잉을 해오고 있다. 그리 크지 않은 종이에 가는 펜으로 그려내는 그의 드로잉에는 초현실적인 이야기들이 가득 차있다. 그는 인체를 해체해서 뒤죽박죽 조립해놓은 것만 같은 형상들을 뭉텅이로 그려넣는다. 그것은 얼핏 봐서는 엽기 코드의 몸 담론을 담은 것 같지만,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조금 다르다. 전윤정의 드로잉에 등장하는 인체들은 인간과 인간 상호간의 관계맺음을 고민하면서 그 길을 찾아온 지난 몇 년간의 작가 자신의 마음이 담겨있다. 그는 작업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탐문하고 자신과 타자의 관계맺음에 대해 스스로 질문하고 답변한다.

꼼꼼하고 집요한 작업 스타일은 벽드로잉에서도 잘 드러난다. 그는 벽에 라인테이프를 붙여 빈공간에 선과 면을 창출하는 벽드로잉 작업을 해왔다. 애초에는 전시장 벽면에 공간 드로잉을 하던 그는 최근 들어서 캔버스에도 라인테이프 드로잉을 하고 있다. 무수히 반복되는 검은 선의 축적은 펜이나 붓으로 그려내는 선들에 비해서 훨씬 더 즉물적으로 예술가의 수행성을 웅변적으로 보여준다. 라인테이프드로잉의 양상은 종이 위의 펜 드로잉과는 사뭇 다르다. 펜이 작가의 생각을 직접적으로 재현하거나 표현하는데 유용한 방법이라면 라인테이프는 주로 직선을 이용한 선과 면의 창출을 결과하기 때문이다.

펜드로잉을 할 때의 전윤정과 라인테이프드로잉을 할 때의 전윤정에게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같이 나타난다. 두 작업의 공통점은 당연히 예의 그 꼼꼼함과 집요함이다. 그에게는 여느 작가들에게서 나타나는 반복의 미학을 훨씬 능가하는 섬세한 그리기의 마력이 있다. 그러나 펜과 라인테이프 두 가지 다른 드로잉은 각각 다른 이야기들이 담겨있다. 펜드로잉이 소설적인 나레이션으로 자신의 일상과 체험을 그려낸다면, 라인테이프드로잉은 시적 언어로 공간을 유영하는 선과 면의 세계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 가지의 사뭇 다른 양상이 한 작가에게서 동시에 나타나는 것은 그리 흔한 일은 아니지만 전윤정의 경우 색의 규정을 배제한 단색의 세계를 통해서 서사와 공간을 구축해 나간다는 점에서 일관성을 발견할 수 있다.

전윤정의 예술세계에는 예술과 사회, 예술가와 일반인, 전문적으로 제도화한 예술공간과 일상이 녹아있는 삶의 공간 사이의 이분법적인 대립이나 거리두기, 또는 양자의 조화 등의 요소들이 부재하다. 다시 말해서 아직 그의 작업에는 예술 세계 바깥과의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만남이 개입해 있지 않다. 그것은 지금까지의 작업이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맥락과 닿아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지금까지 그가 살면서 만난 세계는 앞으로 그가 대면하고 구축해 나갈 새로운 세계가 결국은 같은 원리로 작동하는 동일율의 틀 안에 놓여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는 성찰의 예술가로서 자신의 안팎을 진지하게 들여다 볼 것이다. 전윤정처럼 꼼꼼하고 집요하게 자신의 삶과 예술을 들여다보는 예술가가 훨씬 더 치열하게 개인과 사회, 인간과 자연, 개체와 군집의 관계를 예술적 소통의 선상에 띄워 올릴 수 있지 않겠는가.

* 김준기는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예술학과와 같은 학교 대학원 석사 과정을 마친 후 예술학 전공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미술전문지 『가나아트』 기자 일을 시작으로 가나아트센터 전시기획자, 공공미술팀장으로 일했으며, 사비나미술관에서 학예연구실장으로 일했다. 《2006년 부산비엔날레 조각프로젝트》전시팀장으로 일했으며, 공공미술추진위원회 팀장으로서 《아트인시티 2006》프로젝트 매니저 일을 했다. 2007년에 석남미술상 젊은 이론가상을 받았으며, 경희대 겸임교수를 지냈다. 부산시립미술관 큐레이터로 일했으며(2007–2010), 2010년부터 대전시립미술관 학예연구실장으로 일하고 있다. 《건너간다》(2001), 《작업실 리포트》(2003), 《리얼링15년》(2004), 《아시아의 지금 : 세계화와 지역성》(2006), 《분지의 바람》(2007), 《대추리현장예술아카이브 : 들 가운데서》(2007), 《돌아와요 부산항에》(2008), 《액티비스트 리포트》(2008), 《인터시티》(2009), 《분단미술》(2010) 등의 전시를 기획했으며, 《프로젝트대전 2012:에네르기》(2012)를 총괄했다. 「1980년대 이후 한국리얼리즘미술에 나타난 현장성과 공공성의 문제」, 「구본주론」, 「정정엽론」, 「박경주론」, 「공공영역에서의 예술적 실천과 새로운 공공미술」등의 글을 썼다.

The world of an Artist and the Issues inside and out

GIM Jungi(Art critic)

In the past a few years of life CHUN Yun-jung, we can see the way today's artist makes a relationship with the society. Fresh out of school, she started residency program. The temporary dwelling type of residence program offers the physical spaces of studio and living spaces guaranteeing some security for the artist. Taking advantage of some well-funded promotional features, it could be the perfect opportunities for an artist to expand spontaneously. In fact, many artists at home and abroad join residence programs to meet with other artists and promote themselves. It is now considered as a gateway into the art world.

However, when you think about it, residency could pose a threat to an artist' s mission to build his or her own territory as an artist in a world void of narrow fences. The residency could limit him or her to the small circle of artists. Therefore some artists could be trapped in a small world of networking. Of course the possibilities and the risk entailed from the residency could result in quite different processes and outcomes for different activities of artists. In this respect, I would like to mention a few points about the "world of an artist and the issues in and out of the world."

In the case of CHUN Yun-jung who spent a few years in several residences and now came back to her hometown Daejeon for new experiment, the potential possibilities and the risks were about half and half. First, we need to examine CHUN's process of overcoming the risks involved in residency program. With not much experience out in the world or in the artists circle for that matter, CHUN had trouble getting along well with the other artists. As the artists work on their projects and live under the same roof, small disagreements on personal habits or house chores could be distracting. It could make CHUN feel anxious or hurt, but in the process, CHUN learned about the world and the art coexisting with other artists.

The positive possibility was to rediscover one's potential and see where I stand in a community of artists. The Incheon Art Platform where CHUN stayed on the last leg of residency journey was located at the heart of Incheon where many citizens and tourists roam around. CHUN has gone through various residency environments from a desolate countryside to downtown filled with tourists. Networking with other artists in and out of the country along with the relationship with the other surroundings might be the big achievements for the past a few years. Those experiences CHUN earned offer precious ground facing the big world as an artist

The residence artist CHUN starts focusing on the human relations in dual areas of work and living, which is the issue CHUN has been dwelling on for years in the residency program. CHUN develops the human relations problems into an issue of an individual in a society. From the open wound and the healing CHUN sees herself and raises her identity. It has awakened CHUN to the fact that eventually the arts for an artist are not a conduit leading to a different world, but the reality itself to build one's life. The project is very concrete reality for a person living a life in a world. In this context, the project is both the process of self-healing and the result.

CHUN has been drawing with fine letters of writing or minute stroke. In the drawing, the not-that-big paper canvas is filled with surreal stories written in a fine pen. CHUN draws figures as if human bodies are disassembled and reassembled in the mass. At a glance it looks like a body discourse in a grotesque manner, but CHUN's story tells something different. The human bodies appeared in CHUN's drawings and she contained herself for the past a few years along the myriad of human relationship. With the project, CHUN asks about her identity, the questions about forming relationship with others, and she answers her own question.

Her thorough and tenacious working style can be seen from the mural drawing. She has been working on the mural drawing creating lines and spaces attaching line tapes on the wall. In the beginning she worked on the walls of the exhibition but now moved to canvas and line tape drawing. The countless repetition of black lines practically presents the artists' performance rhetorically. The expression of line tape drawing a lot differs from the pen drawing on a paper canvas. While pen is useful in expressing and representing the thoughts of the artist, lien tape make the lines and spaces mainly using lines.

The pen drawing reveals the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with the line tape. The similarities are the usual thoroughness and the persistence of the artist. She has the magical spell of delicate drawing surpassing the aesthetics of repetition easily found in other artists, but the two different drawings have different stories. Pen drawing is the social narrative of her daily lives and experiences, while the line tape drawing builds the world of lines and spaces where the poetic words are wafting through. It is not common that two different types of expressions coexist in a single artist simultaneously. However, there is the consistency of narrative and space built in a single colored world restricting the rules of colors.

CHUN's art world is absent of elements of dichotomy, distance between, or harmony of professional boundary of arts spaces and living spaces. In other words, her work is not aggressively intervening with the contacts with the outside of the art. Whether her work until now has been social or political is another story all together. The new world she is going to face and build along the way lie in the same framework of law of identity. She will continue to pore through herself inside and out as an artist. The thorough and persistent artist like CHUN who looks into her life and arts can presumably sublimate the relationships between individuals and society, or human and nature, individuals and groups in art.

* GIM Jungi (1968-) B.A. & M.A., College of Fine Art at Hongik University. Ph.D., Science of Art. Previously a reporter at arts magazine Gana Art Magazine. Exhibition Planner and Performance Art Dept Head at Gana Art Center, Curator at Savina Museum. Exhibition head for 《Busan Biennale Sculpture Project 2006》, Head of Korean Commission of Public Arts, Project Manager for 《Art in City 2006》, Won "Young Theorists Award of Suknam Arts 2007, Adjunct Professor at Kyunghee University, Curator at Busan Museum of Art (2007-2010). Curator at Daejeon Museum of Art (2010–), Planned and Exhibited 《Crossing Over》(2001), 《Studio Report》(2003), 《Real-ING for 15 years》(2004), 《Now in Asia : Globalization and Regionality》(2006), 《Winds in Basin》(2007), 《Grand Reasoning Arts Archive : in the Middle of Field》(2007), 《Come Back to Busan Port》(2008), 《Activist Report》(2008), 《InterCity》(2009), 《Divided Arts》(2010), Handled the coordination of 《Grand Project Exhibition2012:Energy》(2012), Wrote books like 「The Issues of Public and Site Aspects of Korean Realism Arts Since the 1980's」, 「Thesis on Bon Ju Gu」, 「Thesis on Jung Yup Chung」, 「Thesis on Kyung Joo Park」, 「Artistic Practice in Public Sector and New Public Art」 and etc.

정용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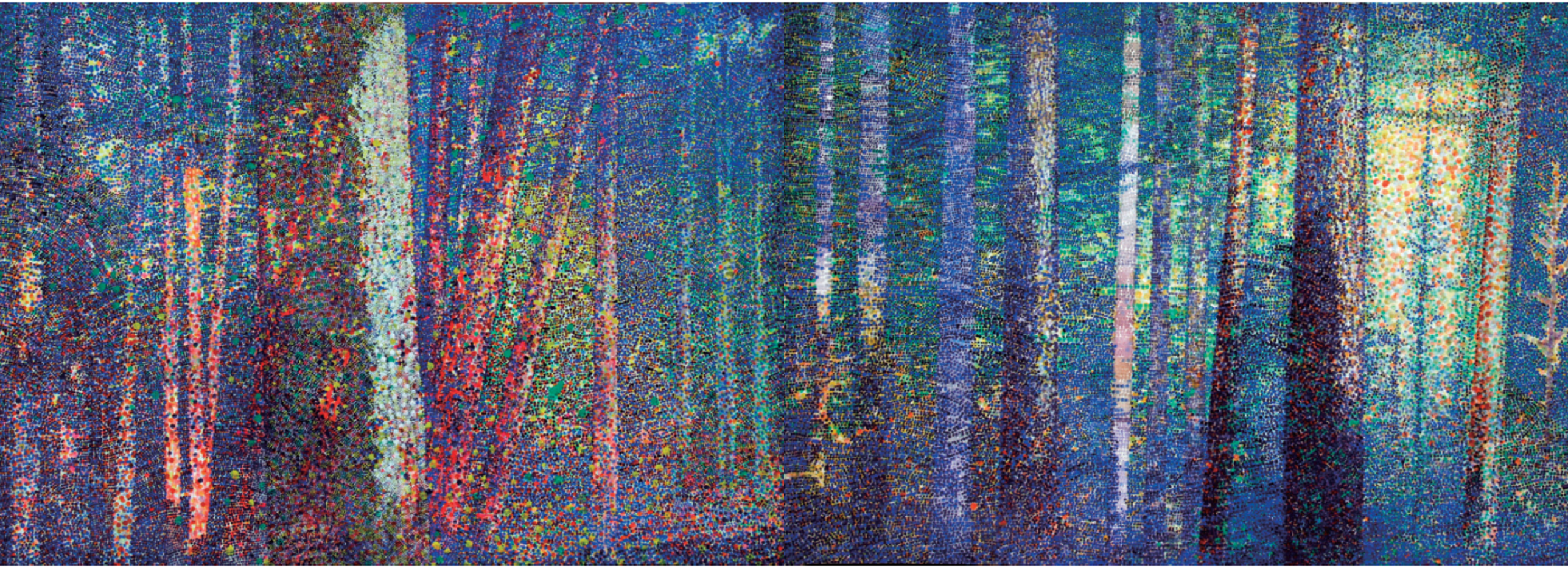
CHUNG Yongil

관조
Contemplation
62×112cm Acrylic on canvas 2012

자연의 신전-명상
The temple of natrual-Meditation
182×260cm Acrylic on canvas 2012

자연의 신전-숲길1
Temple of the nature-A forest I
182×260cm Acrylic on canvas 2012

자연의 신전-숲길2
Temple of the nature-A forest II
182×260cm Acrylic on canvas 2012



염원의 회화공간, 또는 신앙으로서의 회화론

심상용(미술사학 박사, 동덕여자대학교)

무속의 언어로 풀어낸 민족의 기백과 정서

정용일 세계의 미학적 축은 토속적 샤머니즘의 맥락에 근거하는 민족지학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전통의 무속사를 관류해 온 정서가 고유한 정체성 미학의 원료가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그가 일관되게 추구해온 조형 탐사의 밑바탕이었다. 정용일의 세계가 주체적인 역사인식을 요구했던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었다. 잃어버린 고구려의 기상, 국권침탈의 수난사, 민족과 사대의 축 사이에서 분열되고 이념적 갈등으로 양분된 작금의 조국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내면으로 포용해 들이는 것, 그리고 그 분열과 분단의 아픔에서 극복과 치유의 비전을 끌어내는 것이야말로 그의 예술학이요 회화론의 근간이었던 것이다. 정용일의 역사인식과 민족사관은 정연하다. 통일신라 이후 1300여년을 이어온 통일국가로서의 민족성이 작금의 분열과 갈등으로 상처를 입어서는 안 되며, 세계 흐름의 재편을 주도할 수 있는 잠재력을 발휘함으로써 희망의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그 요지다.

정용일의 회화론은 개인사의 희노애락과 그 표현의 범주를 훨씬 넘어선다. 그것은 역사와 상황의 인식, 성찰과 예지적 사유가 지평융합되면서 만들어지는 초극적 담론의 기반 위에서 형성되고 전개되어 왔으며, 이는 현재에도 변함이 없다. 뿌리의 미학, 땅에 기반하는 조형의식이야말로 그의 회화론을 지지하는 변함없는 토양인 것이다. 이러한 회화론이 오늘날 사대화로의 고착을 중병으로 앓고 있는 한국미술의 동시대 상황에 대해 치열한 재성찰을 촉구하는 것은 지당한 결과일 것이다. 이러한 이론지평에서 움튼 회화, 그 조형인식이 유입된 서구 모더니즘의 계보에 스스로를 안착시키는 것 또한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긴 매한가지다. 정용일의 세계가 앵포르멜이나 추상표현주의 같은 서구적 추상, 개념이나 미디어로 귀결될 가능성은 애초부터 전혀 없었던 셈이다. 정용일의 회화가 문호를 개방하고, 기꺼이 받아들인 조형적 유산은 당연하게도 작가가 발 딛고 서있는 땅에서 자생하고 성장해온 것, 바로 민화(民畵)였다. 작가의 세계가 수용한 채색의 범주가 전통적인 오방색의 그것을 넘지 않는 것도 민화의 맥락과 무관하지 않다.

염원의 회화공간, 또는 신앙으로서의 회화론

정용일의 최근작들은 색과 에너지를 담지한 점들로 충만해있다. 화면을 가득 매운 각각의 점들은 재현이나 상징, 단순한 조형적 기법 이상이다. 그것들의 궁극적인 의미는 시각적 효과를 얻거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에 있지 않다. 그것들은 오히려 세계를 구성하는 원초적인 질서의 표상, 형태가 부여되 보이지 않는 에너지 입자들에 가깝다. 어떤 초월적인 원칙에 상응하거나 표상하는 물질적, 시각적 단위쯤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그것들은 일정한 방향성을 띠기도 하고 서로 중첩되거나 분산되기도 하면서, 화면 전체를 운동하는 크고 유기적인 하나의 질서, 흐름을 만든다. 때로 그것들에 동반되는 강렬한 색채효과에 의해 수직이나 수평의 흐름이 시각적으로 강조되고, 이에 의해 화면은 더욱 긴장감이 감돌고 활력이 넘치는 것이 된다. 이로 인해 이 세계는 어떤 구체적인 분석적 요인 없이도, 조용하지만 힘찬 생동감을 내포한 것이 된다. 이미지가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의 현상이거나 사건이 되는 것이다. 때로 점들의 기술적인 실행에 의해 동일한 몇 개의 이미지가 엇갈리게 중첩된 듯한 홀로그램효과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에 의해 이 현상-또는 사건-은 한층 더 유동적이고 경쾌한 시각경험의 제공처가 된다.

그렇더라도, 정용일의 이 현상, 또는 사건으로서의 회화가 전적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만을 취급하는 것은 아니다. 이 세계가 무속의 전통에서 발원하는 신앙과 같은, 내재하는 세계의 어떤 독특한 정신 상태를 주로 다루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렇더라도 그러한 내적 상태는 때때로 외부적인 표상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런 맥락에서 정용일의 회화에서 구체적인 형상과 이미지를 만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것들-형상이나 이미지-은 때로 매우 직접적인 형태로 화면에 등장하기도 한다. 예컨대 색 점들의 물결 위로 때로 수직과 수평선이 교차하면서 만들어진 격자무늬가 부가되기도 하고, 사람의 두상 모습이 세부묘사가 생략된 실루엣의 형태로 등장하기도 한다. 정용일의 회화에 간헐적으로 등장하는 격자무늬는 아마도 자연과 자연, 자연과 인간의 인연의 연결고리를 의미하는 도상의 일환인 듯하다. 윤곽선만으로 그려진 사람의 두상은 (작가에 의하면) 인간이거나 인간과 자연의 매개자인 샤먼의 표상이다.

이처럼 정용일의 회화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오가고, 재현미학과 상징미학 사이를 구분 없이 왕래한다. 정용일의 세계는 이미 오래전부터 형식주의의 어두운 골목으로 들어서지 않는다. '추상인가 형상인가' 등의 형식주의적 질문은 무의미하다. 그것은 애초부터 의미있는 질문이 아니었다. 그가 강렬한 원색을 선호하고 현란한 채색의 향연을 추구한다면, 그 역시 단지 색채미학의 실현이나 조형적 질서의 차원 때문만은 아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회화를 생명이나 생기를 대변하는 빛으로 충만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정용일의 회화론은 그러므로 칸트로부터 그린버그까지 이어져 내려온 자율성의 미학과 그 단절의 인식론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그에게 회화란 역사적 상흔이나 일상으로부터의 염원과 결코 분리될 수 없으며, 그렇게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에게 예술정신은 한 맺힌 민족의 과거사를 치유하고, 현재의 아픔을 달래며 그 위기를 넘어서고자 하는 염원과 교차해야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정용일의 세계에서 우선 읽어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염원으로서의 회화론이다. 이 회화론은 모더니즘이나 포스트모더니즘으로 대변되는, 서구의 동시대의 주류미학과는 그 뿌리부터가 다르다. 정용일의 것은 한편으론 역사의 유산과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고, 다른 한편으론 세속을 넘어서는 주술과 일맥상통하는 신앙으로서의 회화론이다. 여기서 미학은 존재론과 분열적으로 대치하지 않으며, 예술은 삶과의 분리를 꾀할 필요가 없다. 정용일이 제사상에 올려진 돼지머리를 그리던 때부터 형성되어 온 이 회화론이야말로 이 생(生)의 미학이자 삶의 예술이었던 것이다. 회화를 시대의 소망을 담아내는 '염원의 공간'과 무관한 것으로 인식하는 가능성은 처음부터 배제되었던 것이다. 애초부터 정용일의 신앙으로서의 회화론에서 화가는 마땅히 샤만(무당), 또는 제사장으로 재정의되어야 한다. 현실과 초월의 매개자, 미래로부터의 메신저, 자연의 전령의 최소한의 흔적이라도 자신의 정신에 각인한 존재로서의 화가로서 말이다! 정용일은 특별히 한국인의 타고난 심성이요 모습일지도 모를 그것이야말로 화가의 진정한 정체성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정용일의 회화론이 제안하는 샤먼, 또는 제사장으로서의 화가는 신과의 능통한 교섭능력이 아니라, 당대를 함께 살아내는 동료인간들과의 소통능력으로 그 질이 가늠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정용일은 새로운 화가의 이러한 소임에 대해 잘 알고 있다.

* 심상용은 1985년, 88년에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1989년 도불, 파리 8대학에서 조형예술학으로 석사와 박사(D.E.A)를, 파리 1대학에서 미술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저서로는 《시장미술의 탄생》(2010), 《속도의 예술》(2008), 《천재는 죽었다》(2003)외 다수가 있고, 「장 보드리야르의 '죽음'의 관점에서 본 현대미술」, 「현대미술과 세계주의」, 「디지털 기술의 미학적 가능성에 대한 비평적 접근」등 다수의 논문이 있다. 현재, 동덕여자대학교 예술대학 큐레이터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A Painterly Space for Desire, or Theory of Painting as Faith

SIM Sang-yong
(Ph.D. in Art History, Dongduk Women's University)

The Spirit and Feelings of a People Freed Through the Language of Shamanism

The aesthetic center of CHUNG Yongil's art is in ethnography that is rooted in folk shamanism. The emotions that underlie the history of shamanism serve as the raw material for an aesthetics of pure identity, which Mr. CHUNG has consistently chosen as the basis for his study of the visual arts. The fact that his art demands a self-reliant historical vision is part of this same context. Accepting and embracing the spirit of lost Goguryeo, the suffering of a nation robbed of its sovereignty, and even the Korea of today, when the country is divided between its own people and the outsiders it must follow and is torn in two by an ideological conflict - and then teasing out a vision of survival and healing from the pain of this division - this is the foundation on which Mr. CHUNG has erected his art and his theory of painting. Mr. CHUNG's historical consciousness and his perspective on his people's history are clear enough. Essentially, he firmly believes that the unity of the Korean people, which has lasted for 1,300 years since the peninsula was unified during the Silla Dynasty, must not be damaged by the division of the country today, and that the country can move forward into a hopeful future by tapping into the latent potential and can take the lead in shaping global trends.

The scope of Mr. CHUNG's theory of painting goes far behind joy, anger, sorrow and pleasure of the individual and the expression of those feelings. Rather, his theory was based on a discourse of overcoming that constituted a lateral fusion of a consciousness of history and context, introspection, and foresight; it has continued to develop along the same lines; and it remains so today. It is an aesthetic of roots, a visual consciousness grounded in the soil, which is the unchanging earth that supports Mr. CHUNG theory of painting. It is only appropriate that such a theory calls for a passionate reevaluation of the status quo, as contemporary art today suffers from a serious ailment of entrenched subservience to the powers that be. And it would be just as difficult to imagine the artist allowing himself to remain content in the tradition of Western Modernism, of which the paintings and visual recognition that have been created through this theory are undeniably a part. Looking now, we see that there was never even the slightest possibility that Mr. CHUNG's art would end up as Art Informel, Abstract Expressionism or any other Western abstraction, concept, or media. What is the visual legacy to which Mr. CHUNG's paintings open the door and embrace so readily? Perhaps unsurprisingly, it is Minhwa (Korean folk art), which sent up shoots and blossomed in the earth on which the artist walks and stands. The fact that the artist stays within the bounds of the colors described in traditional Obangsaek (five basic colors) is also not unrelated to the context of Minhwa.

A Painterly Space for Desire, or Theory of Painting as Faith

Mr. CHUNG's recent work is brimming over with dots that are full of color and energy. Each of these dots, which cram his canvases to bursting, cannot be explained in terms of representation, symbolism, or mere visual technique. Indeed, their ultimate meaning does not lie in producing some kind of visual effect or constituting an image. Rather, they are closer to energy particles which, though they remain invisible, are imbued with the form and emblem of the primal order that holds the universe together. They can also be understood as physical and visual units that correspond to or embody some transcendent principle. These dots are granted a certain directionality, and they also make an huge, organic order and flow that dominates the entire canvas, while coming together and then breaking apart again. At times, the vertical or horizontal flow caused by the violent color effects that accompany these dots becomes the visual focus, and as a result the canvas crackles with tension and overflows with energy. This is how Mr. CHUNG's art, despite the absence of any concrete, analytical element, exudes a quiet but powerful vividness. It is the painting itself, and not the image it portrays, that becomes a phenomenon or a happening. And at other times, the technical execution of the dots gives rise to a hologram effect in which it appears that several identical images are slightly overlapped. It is through this that the phenomenon - or happening - provides the viewer with an even more liquid, light-hearted visual experience.

That being said, all of Mr. CHUNG's paintings as the phenomena or happenings, do not deal exclusively with a world that is removed from sight. It is an undeniable fact that his art generally addresses a certain unusual mental state in the world that inheres in the traditions of shamanism, a state that resembles the faith forged in those traditions. But even if that is so, this inner state of being from time to time requires outward expression. It is in this sense that it is not that hard to come across concrete shapes and images in Mr. CHUNG's paintings. Those things - those shapes and images - sometimes appear on the canvas in a very direct form. For example, at times a checkered pattern is formed of vertical and horizontal lines that intersect above a wave of colored dots, and sometimes a person's head can be seen in the form of a silhouette with all the details erased. It is possible that the checkered pattern that intermittently features in Mr. CHUNG's paintings is part of a figure that can be interpreted as the fate that connects nature and nature, and nature and people. Only drawn in outline, this human head is an emblem of humanity, or of the shaman, the intermediary between humans and nature (according to the artist).

In this manner, Mr. CHUNG's paintings tread the line between the seen and unseen worlds, traveling back and forth between representative aesthetics and symbolic aesthetics without making a definite distinction: his art left the dark alley known as formalism long ago. Formalist questions such as "Is it an abstraction or a shape" are meaningless - and indeed, they always have been. If Mr. CHUNG prefers loud primary colors and offers his viewers a feast of gaudy hues, it is not merely as an exercise in color theory or only because of design considerations. For him, the important thing is to fill his paintings with colors that can speak for life and the vitality thereof.

As such, Mr. CHUNG's theory of painting collides head on with the aesthetics of autonomy developed from Kant on through Greenberg and its rupture with epistemology. This is because, for him, painting cannot, and must not, be separated from historical scars or from our everyday desires. For him, the spirit of art must heal the bitter past of the nation and intersect with the desire to soothe the pains and overcome the crisis of the present.

The first thing that we should grasp from Mr. CHUNG's art is the theory of painting as desire. His theory differs in every respect from the mainstream in contemporary Western art, often referred to as modernism and postmodernism. On the one hand, his theory is deeply rooted in the ground of history and its legacy, while on the other hand it is a theory of painting as faith that shares something in common with incantations that go beyond the physical world. Here, aesthetics and ontology need not conflict, and there is no need for art to be separated from life. It is this very theory of painting, which Mr. CHUNG has been framing since he first drew a picture of the pig's head on the ceremonial altar, which has been his aesthetics of being and his art of life. From the outset, we are not allowed to view painting as something that is irrelevant to the "space of desire", which we fill with the hopes and dreams of our time. From its conception, in Mr. CHUNG's theory of painting as faith, the painter must be redefined as a shaman or high priest - that is, as a painter in whose heart can be found at least some trace of the liaison between the real and the transcendent, the messenger from the future, and the envoy of nature. Mr. CHUNG is telling us that it is the unique sentiment and appearance that Koreans are born with that must be the cornerstone of a painter's true identity. If this is true, the painter as shaman or chief priest, which is recommended in his theory of painting, doesn't refer to some ability to communicate with God. Rather, it means that a painter should be judged by how well they can communicate with their fellow men and women, the people living at the same time as them. Mr. CHUNG knows very well about such duties, the duties of a new painter.

*SIM Sang-yong, He graduated with a degree in painting from College of Art, Seoul University in 1985 and from the graduate school of its university in 1988. He traveled to France in 1989, where he was awarded a master's degree and a DEA in the visual arts from the University of Vincennes in Saint-Denis and proceeded to receive a doctorate in art history from the Pantheon-Sorbonne University. Books he has written include The Birth of Market Art (2010), The Art of Speed (2008), and Genius Is Dead (2003), and he has also published a number of academic articles including 'Contemporary Art Viewed from the Perspective of Jean Baudrillard's 'Death', 'Contemporary Art and Globalism', and 'A Critical Approach to the Aesthetic Potential of Digital Technology'. He is currently employed as a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curatorial studies at College of Arts, Dongduk Women's University.

조우치

중국 흑룡강성에서 출생하여 북경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우치는 세상 만물은 아무런 차등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는 관객들이 작품 속에 나오는 인간이나 돼지, 식물들을 모두가 똑같은 천상의 피조물들로 받아들여주기를 바란다. 그것은 고대 신화 속 – 산해경의 기묘한 피조물들을 떠올리는 – 의 세계처럼 자연과 문명이 분리되기 전의 모습들처럼 보인다. 거기는 아무런 분리도 차등도 없이 혼돈의 상태가 곧 질서인 세계로써 작가는 인간이란 종의 상상력에 제한받지 않기를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

ZHOU Qi

ZHOU Qi who was born in Heilongjiang Province in China and currently living in Beijing, believes there is no difference in classes among all living things. He wishes his viewers to regard all humans, pigs and plants as equal creations of this earth. His work seems like something out of an ancient mythology – reminding of strange creatures that appear in an old Chinese geography book - a world that was before the division of nature and civilization. It is a world free of any distinction or class, where the state of chaos stands as the order. ZHOU asks the viewers not to restrict one's imaginative boundary to human species only.

ZQ2012.7.10
74×64cm Acrylic on canvas 2012

ZQ2012.7.10
74×64cm Acrylic on canvas 2012

ZQ2012.7.15
35×27cm Acrylic on canvas 2012

ZQ2012.9.5
35×27cm Acrylic on canvas 2012

짜까판 타나티라난

태국 출신의 짜까판 타나티라난은 '예술이 삶이고, 삶이 곧 예술이다'라고 믿으며 매일 매일 일상의 모든 것들에서 예술적 영감을 받고 있다. 그는 태국을 주무대로 수많은 나라를 여행하며 H설치와 영상, 퍼포먼스 등을 진행해왔다. 작가는 인천아트플랫폼 입주기간동안 분쟁지대에 놓인 백령도로 가는 답사길에서 찍은 사진이미지들을 조립하여 작업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Mr. Siam suicide in IAP〉은 입주기간동안 사용한 자신의 명함과 바코드 인쇄물들을 모아 즉흥적으로 만든 작품이다. 굳이 예술이라 이름 붙이지 않아도 될 만큼 가벼워 보이는 작품에서 그는 예술과 삶의 구분을 허물고 있다.

Jakraphun THANATEERANON

This artist from Thailand who believes art is life and life is art, receives inspiration from just about everything in his daily life. Though he spends most of his time in his homeland, he still travels quite frequently to other countries to work on various projects that include installation art, image art and performance art. During his stay in IAP he went to explore Baekryeong-do Island and worked on photo images of the pathway that lead to the disputed island. His work is an impromptu piece created with his name card and bar-coded printed materials that he used during his stay in Incheon. The work itself seems too light to be labeled an art, a somewhat humorous way of erasing of boundary between life and art.

Mr. Siam suicide in IAP
Mixed media 2012

Mr. Siam suicide in IAP
Mixed media, Per formance 2012

Project by Jakraphun Thanateeranon
Show (Cho's) room
Performance, Interactive Installation, cooking cart,
Dimension Variable. 2011
Gallery Mite, Gwangju, South Korea.

Project by Jakraphun Thanateeranon
Face Faith Fake
Interactive Video Installation and Performance, 99 white heads glass on terra cotta, life size
2 set of barcode gun and monitor, barcodes and programing system.
2012, WTF Gallery, Bangkok, Thailand.

Project by Jakraphun Thanateeranon
Mr.Siam
Interactive Performance, Video Installation, Photography, Dimension Variable. 2011
Gwangju Design Biennale 2011, Gwangju, South Korea.
and JATIM Biennale 2011, Java Timor, Indonesia

Project by Jakraphun Thanateeranon
WTB (What the bags Waht the biennale?)
Performance, Video Installation, Photography,
15 Venice Biennale bags, Dimension Variable.
2011, Artist community space Ugro, Gwangju, South Korea.

차지량

CHA Ji-ryang

New home
Participation project 2012

New home
90min Participation project Multi-channel video 2012

New home
90min Participation project Multi-channel video 2012

New home
Participation project Scene
Participation project Epilogue 2012

새로운 언어, 새로운 체계를 겨냥한 개인 : 미디어아티스트 차지량

이지현(영화평론가)

21세기 한국의 비트세대를 이끄는 일인이라 불러야 할지 모르겠다. 차지량을 보고 있자면 비트닉(Beatniks)적 방랑자의 기질이 엿보인다. 게다가 그의 최근 작업들은 힙스터(Hipster)스럽다는 기분까지 든다. 작가 스스로가 밝히는바 지금까지 작업이 '개인을 데리고 와서 참여시킨 다음 생각하게 하는'데에 중점을 두었다면, 앞으로는 시스템을 보여주고 '시스템만 남긴 뒤 사람-혹은 작가 자신이 될 피사체를 사라지게 할' 계획이라고 한다. 산업화 이후 미국사회에서 벌어진, 실체 없는 체계에 희생된 개인의 고통이 현시대 우리들의 절망과 비슷하지 않을까란 의문을 그는 스스로에게 던지는 중이다. 생각해보면 2004년의 조형미술작품 〈12시를 위한 회화〉이후 줄곧 이 목표를 향해 내달렸다. 당시의 작업은 설치미술과 참여미술의 경계에 서 있었는데, 작품이 설치된 장소는 오가는 행인 많은 홍대 거리였고, 빛을 이용한 행인들과의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 애초의 목표였다. 이후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홍대 일원에서 진행된 낭독회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가 도달한 곳은 바로 영상미디어의 영역이었다. 본격적으로 영상 자체를 목적으로 진행된 작업의 시작은 2008년작 〈왕년야구왕〉에 이르러서다. 충무갤러리 《동대문운동장전》의 출품작이기도 했던 〈왕년야구왕〉은 작가가 캐스팅한 배우가 동대문운동장의 작업에 직접 참여해 '진짜' 주변인들을 끌어들인 후, 주인공인 고교 야구왕과 그의 여자 친구의 드라마가 평행 편집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른바 '다큐멘터리를 기반으로 한 사회 참여형의 극영화'라 이를 만한 첫 번째 작업이다. 이후 2008년의 공연 〈인사동네 사람들〉을 거치면서 이러한 '연극과 영화의 혼재' 경향은 서서히 작가 개인의 기존 작업형태인 '조형예술의 형식'과 유기적으로 결합된다. 그러니 2010년에 이르러 〈세대독립클럽〉이 탄생한 배경에는 '설치미술에서 조형미술로의 전향, 그리고 영상물에 대한 일종의 실험'이 자리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본고는 2010년 이후 완성된 차지량이 만든 작품 일렬, 즉 〈세대독립클럽〉(2010)와〈일시적 기업〉(2011), 〈뉴홈〉(2012)의 세 작품을 일컬어 '성장세대에 대한 트릴로지'라 부르려 한다. 정확히 말해 이들 세 작품이 가리키는 목적은 '주류사회의 틈' 그 자체다. 즉, 대안 제시가 이 작품들의 목적은 아니다. 삼부작 중 특히 〈일시적 기업〉과 〈뉴홈〉에서 참여자들은 대개 사회와 개인의 영역, 그리고 그 사이의 연계(linkage)로써 작용하는 경향이 있다. 여기서의 연계란 미디어를 사이에 둔 놀이의 방식 내지, 사회참여에의 골을 현재로 끌어들여서 미래로 투사하려는 의지를 뜻한다. 일시적 연대를 통해 주류사회의 틈을 공격하고, 그 과정을 미디어란 어란로 파열하는 것이 이때 관객의 역할이다. 따라서 참여자들의 연계를 통해 사회적 개인의 겉면 하나가 답습되고, 이와 동시에 (다양한 참여자의 비슷하고도 다양한) 매개된 다른 겉면들이 비교되면서 작품은 방향성을 잡아간다. 그러니 사회적 형태의 비교 자체가 이들 작업이 바라보는 일차적 목표라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일례로 〈일시적 기업〉에서 작가는 기업의 이름과 신입사원 선발과정, 그리고 사무실에서의 작업 행태에 대해 단지 겉만을 흉내 내고 반복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는 좀 더 직접적으로 게임과 참여자 간의 갭을 삭제해 나가려는 의도처럼 읽힌다. 이 삭제의 과정을 거친 결과, 마지막 시퀀스에서 발사되는 물총과 그래픽으로 하늘에 수놓아지는 축포의 행진이 풍자(satire)로 느껴지게 된다. 이처럼 사회화의 행태에서 시작해 익살(drollery)과 해학(humor)을 남기며 마무리되는 과정 자체가 삼부작이 겨냥한 목표이다. 차지량은 작업의 결과만큼이나 과정이 중요한 작가인데, 때문에 그의 작품을 올바로 보기 위해서는 영상만큼이나 '온라인을 통해 공지와 자발적인 참여, 그리고 참여자의 행동 자체'도 눈여겨 살펴야 할 것이다.

과정이 중요하다고 해서 그의 참여형 퍼포먼스를 '관객의 도구화'로 읽는 것은 곤란하다. 그보다는 차라리 퍼포먼스 자체를 '추상'이라 읽는 편이 낫다. 이 지점에서 차지량 작품의 모더니즘적 성향 일부가 드러난다. 〈세대독립클럽〉의 클립 중 하나인 〈미드나잇-퍼레이드〉 속의 야광녀나 촛불남의 '디지털 캠프파이어'가 대표적 예다. 그들은 당시 사회상의 일부를 표상하는 동시에, 개인의 아픔을 드러내는 행위로써 디지털 라이트를 이용하는 인물들이다. 어쩌면 〈뉴홈〉의 개별적 방안 꾸미기 역시 그 자체로 다양한 사회적 행위의 개별적 답습으로 읽을 수 있다. 즉, 화면 속 등장인물이 엄밀하게 구조화된 계획 아래에서 생성된 사회의 어떤 '드러난 체계'를 대변해주는 장치가 된다. 보드리야르의 언급을 빌려서 표현하면 이는 기술적 사물에 담긴 본래의 형태인 '추상적 형태'인 셈이다.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추상, 본래의 의도와 역전된 채, 기술적 계획과도 같은 일종의 추상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고 작가는 웅변한다. 이 폐쇄적이고도 추상적인, 심지어 우리가 깨닫지 못하더라도 근본적으로 현실의 아래에 잠재해 있는 '근본적인 현실'을 각각의 개별 참여자가 드러낸다. 이렇게 참여한 개인 각각의 행위를 '내포된 것들'과 '객관적 외연'의 쌍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앤디 워홀과 마르셀 뒤샹을 언급하며 루트번스타인 부부가 사용한 '추상(abstraction)과 현실(reality)'이란 단어처럼, 참여자 행위의 내연과 외연을 우린 차지량의 작업에서 구별해 내어야 한다. 예를 들면 소쉬르가 언급한 '랑그(langue)와 파롤(parole)'이 그렇고, 혹은 사회학 분야에서 사용되는 '생산(production)과 소비(consumption)'의 용어가 그렇다. 전자를 내포적 의미에 그리고 후자를 객관적 외연에 대비시켜 보자. 결과적으로 이런 식의 분류는 차지량 작품에 담긴 개별참여자가 취하는 '드러난 행위'가 갖는 의미 층위를 '추상, 랑그, 생산'의 내포적 의미로 해석될 수 있게 한다. 즉, 만약 보드리야르의 말대로 기술이 추상이라면 이들 참여자들 역시 추상이 되며, 우리는 이에 대해 넓은 의미의 '환경을 지배하는, 각 개인에 관한 객관적 관여 혹은 통계'라 이를 수 있다. 비로소 성장세대 삼부작은 기존작품들에 대한 해석의 발판임과 동시에, 앞으로 차지량의 작업을 이해하기 위한 밑거름으로 작용할 힘을 얻는다. 이른바 완전한 포스트모더니즘으로 향하는 발판이 이렇게 마련된다.

물론 추상표현주의에서 미니멀리즘으로 이어지는 모더니즘 미술의 징표가 발견된다 하더라도 차지량 작업에서의 본격적 포스트모더니즘의 색채를 언급하지 않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관객의 참여, 이들의 연계적인 역할을 아무리 추상화시킨다고 하더라도 개인 스스로의 '개성'을 완전히 삭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는 편집의 과정에서 일부 부각되는 측면이 있다. 이를테면 〈일시적 기업〉 혹은 〈뉴홈〉을 통해 주지하였듯, 차지량은 영상의 운동성을 편집해 내길 주저하는 작가이다. 그는 길게 찍고 길게 드러내길 선호한다.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작품 속 반복되는 행위들은 엄밀히 말해 반복은 아니다. 이들은 반복(repetition)되는 것이 아니라 변주(variation)된다. 다만 편집되지 않기에 강하게 인지되지 않을 뿐이다. 이들 세 작품 모두에서 이러한 변주는 동일하게 드러나는 특성 중 하나이다. 그렇지만 후반작업에서의 테크닉을 이용해 특정행동이 강하게 표현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린 주지해야만 한다. 이는 관객에게서 변주에 대한 인지를 앗아가기 때문이다. 따라서 변주라는 표현보다 이 변환적 반복을 우린 '집적(accumulation)'이라 부르는 편이 더 알맞을 것이다. 차지량은 온라인을 통해 모은 개인의 특성들을 마치 아상블라주하듯 쌓아 올려, 이를 신사실주의에 대한 승인처럼 부각시켜 드러낸다. 이렇듯 집적이란 용어를 우리가 사용하자마자 그의 성장세대에 대한 관객참여 트릴로지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초엽에 속하게 된다.

작품에서 드러난 인물들의 행위, 다시 말해 연계의 목적 역시 이즈음 다시 환기될 필요가 있다. 앞서 말한 것처럼 개인의 퍼포먼스가 추상적 생산이라 일컫는다면, 이는 정확히 말해 상품보다는 좀 더 특별한 발명품, 이를테면 생활에 필요하진 않지만 일종의 '아이디어 상품'에 가까운 의미에서다. 이처럼 필수가 아니지만 개인의 일상을 풍요롭게 만드는 상품에 대한 특별한 용어를 우린 이미 알고 있다. 바로 '가제트(gadget)'다. 만일 관객의 참여를 가제트로 환원시킬 수 있다면, 유용성의 부재나 비일관성과도 같은 기능성의 유무 역시 긍정적으로 사유할 여지가 생긴다. 예를 들어 가제트가 현실의 상품들을 비방하기 위한 것인지에 대한 사유를 통해서 우리는 작품 속 현실 체계가 '실제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을 목적으로 하지 않음'을 추론할 수 있다. 또한 가제트가 가지는 특성인 '욕구의 비합리성'을 전제로 둘 때, 미술적 의미에서의 '취향' 역시 고려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자율참여자들의 기능성 유무가 차지량의 작품을 판단할 중요기제가 될 수 없음을 이는 이른다. 물론 이때의 가제트는 대안이 아닌 '창구'로서의 역할을 맡는다. 취향이 담긴 미적 감각을 전수하는 창구, 참여자 모두를 아티스트로 만들어 주는 창구 말이다. 개별적 예술 창조의 창구를 쌓아올리는 예술, 그리고 과거의 유산에 얽매이지 않는 예술을 위한 창구, 이가 최근 들어 차지량 활동의 지향점이다.

피에르 마르티노가 브랜드를 택할 때 그러했듯, 차지량은 일상에서 맞닥뜨리는 사회적 상황들을 마치 친구를 결정하듯 대처하라고 조언한다. 〈일시적 기업〉의 직업 선택이나 테러의 방향, 그리고 〈뉴홈〉의 거주 방식 또는 구조 결정의 과정을 지켜보며 그런 생각이 들었다. 온라인을 통해 집합된 참여자들은 마치 친구를 결정하듯 편안하게 그의 작업에 참여한다. 물론 이때 주어지는 틀은 작가의 고민을 거쳐 고안된 틀이다. 그렇더라도 작가는 사회에서 이미 결정한 이미지를 내밀었을 뿐이고, 빈 공간을 공략하고 관객을 부추기는 것은 참여자 스스로가 맡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작가는 스스로 실재의 이미지가 놓치고 있는 사회적 부재들을 참여자에게 알리는 창구 역할을 한다. 결과적으로 극장에서 영상으로 이 작업을 접한 관객들은 과정을 담은 이미지를 '환기하게' 되고, 공연 참여자는 스스로 환기함과 동시에 개별성을 발산할 수도 있다. 이렇게 참여자와 관람자, 이들 '예술의 1,2차 소비자들' 모두 이런 과정을 통해 '추상적이고 유동적인 힘'이 된다. 이 힘의 제스처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넓은 의미에서 그 불완전한 일시적 행위는 서서히 누적될(cumulative) 것이다. 차지량 작업의 매력도 바로 여기에 있다. 취향의 존중, 그리고 일시적 친구의 발견을 통해 그의 영상물은 살아 숨 쉰다.

* 이지현은 한양대학교 연극영화과를 졸업 한 후, 프랑스 캉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13회 씨네21 영화평론상'으로 등단한 후 다양한 매체에 영화평론을 쓴다. 현재 인천아트플랫폼 3기 입주작가로 활동 중이다.

An Individual Aiming at a New Language and a New System : Media Artist CHA Ji-ryang

Lee Ji-hyeon(Film critic)

He might be called the leader of Korea's 21st century Beatnik generation. CHA Ji-ryang displays a beatnik's proclivity to wander. What's more, his latest work exhibits a very definite hipsterish sensibility. If, to this writer, Mr. Cha's work so far has placed an emphasis on grabbing the viewer by the throat and then getting them to think, his future plans to shine a light on the system seem to involve him hiding the writer or individual as the subject behind the system. Mr. CHA is now asking himself whether the suffering of the individual, that lost victim of America's insubstantial post-industrial set up, does not correlate with the passion in our own society. One wonders if Mr. CHA has not been heading in this direction ever since his 2004 formative work <Conversations for 12 o'clock>. At that time, his work was posited on the very boundary between installation and audience participation. His starting goal was to utilize the light of passersby chancing on his Hongdae installations to create a kind of two-way communication. Then from 2007 to 2009, as he gave public readings throughout Hongdae, Mr. CHA entered the territory of visual media. A complete entrance into the visual media world came with his 2008 work, <The One Time King of Baseball>. The piece was shown as part of Chungmu Gallery's Dongdaemun Stadium Retrospective, and Mr. CHA used ordinary people working at the stadium as part of his cast. He then edited in a story about a high school baseball king and his girlfriend. This so called "drama documentary of participants in society" was Mr. CHA's first such work. In 2008, he followed it up with <Insadong People>. This marriage of theater and movie gradually sought to fuse the writer's extant working forms with the formalism of his formative works. But then in the context borne out of 2010's <Generation Independence Club>, it seemed that Mr. CHA was now to be viewed as converting installation art into formative art, and as a series of experiments in visual materials.

The works that Mr. CHA has completed since 2010 - <Generation Independence Club>(2010), <Temporary Business>(2011) and <New Home>(2012) - can be seen as a trilogy about the "growth generation". Each of these pieces sought to make explicit the gaps in mainstream society. But their goal was not to assert any concrete alternatives. Two particular works in this trilogy, <Temporary Business> and <New Home>, posited participants in the territory between the society and the individual and made a connection between the two. This "connection" was in the media's method of play and in drawing out and projecting into the future the "participating society's" present day goals. Through temporary solidarity we can attack mainstream society, and, in the process, it is the audience's role at this time to disrupt it through media and language. Through the solidarity of the participants, the social individual's exterior can be imitated. At the same time, through comparing mediated exteriors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of various participants), the works went after directionality. Comparisons of the social form itself can be seen as the primary goals of these works. In <Temporary Business> the artist merely imitated in repetition the exterior forms of, for example, business names, the employee selection process, and everyday office work methodologies. This reads like an intention to more directly eliminate the gap between the participants and the "game". The results of this process of erasure are satirical, as firing water pistols and a full artillery parade are graphically embroidered onto the sky. The trilogy starts out with the socialization of behavior, but drollery and humor seem to be its final goal. Process seems as important to Mr. CHA as results. To view his work properly, one has to remember that online announcement of the voluntary performance recruits as well as the participant's activities are as important as the images themselves.

The process being of such importance, it is a little troubling to term his participatory performances as "the mechanization of the spectators". Rather, I would prefer to term the performances as abstract. In this respect, they are modernistic in outlook. Typical of this is the"Midnight Parade" clip in Generation Independence Club, in which a glow-in-the-dark female and candlelit man comprise a "digital campfire". They are emblematic of a part of society, and are acting out the individual's pain via digital light. New Home's decoration-by-individuals can be read as imitating the individuality of various social actions. The scene's participants become installations speaking for society's revealed system behind its strictly structured plans. To make mention of French theorist Jean Baudrillard, the primary form of the technological product is the same as its abstract form. The artist seems to be proclaiming that as the reverse of society's dominating abstract, its original intention and its love rival, technological plans have become a kind of abstract dominating society. Underneath this closed, abstract, unperceivable basic reality lies dormant a fundamental reality that each individual participant in Mr. CHA's work exposes. These participating individual actions can be divided up into a pair: "internalities" and "objective externalities".

In the same way as Warhol, Duchamp and Root-Bernstein deployed the words abstraction and reality, we can divide Mr. CHA's work up into internalities and externalities. Saussure's langue and parole and the sociological analytical terms "production" and "consumption" offer further dualistic parallels. Let us compare viewing the former items as internalities and the latter as externalities. The actions undertaken by Mr. CHA's individual participants connote the former, that is, abstraction, langue, and production. So according to Baudrillard's formulation that technology is an abstraction, Mr. CHA's participants are abstractions, and in the broadest possible sense can be thought of as participating individuals, while still mere "individuals" or statistics of the controlling environment. Mr. CHA's Growth Generation Trilogy serves as a basis for interpreting his existing works and a foundation to understanding what he might have in store for the future. Mr. CHA has established a foothold in what might be called complete postmodernism.

Of course, even though in abstract expressionism we find a mark of the modernism which sprung from minimalism, in Mr. CHA's work we see the signs of a full-scale postmodernist. This is because no matter how abstract the work, within the element of audience participation, within those individual's solidarity, the "individuality" of the individual cannot be erased. This is partly grafted on in the process of editing. As we can see in <Temporary Business> and <New Home>, Mr. CHA is an artist who hesitates to edit the motility of his images. He prefers long exposure and elaborate capturing of his images. Strictly speaking, the repetitive actions exposed in that process are not repetitive. They are variations, not repetitions. But in Mr. CHA's editing, these variations may not be strongly perceived. Yet in the variations perceivable in his trilogy there is one common peculiarity. In the technique used in later works we will just have to get used to the fact that these particular actions are not strongly expressed. Apprehension of these variations is snatched away from the audience. So it would serve us better to term these converted repetitions "accumulations" rather than variations. The assembly-like process of recruiting individuals online highlights and exposes an approval of neo-realism. The moment we use such direct terminology, the audience participation in Mr. CHA's Growth Generation trilogy belongs to the early days of postmodernism.

In the actions of the people he exposes, in what we might call Mr. CHA's goal of solidarity, perhaps there is now a need for "ventilation". We have already applied the term "abstract production" to the individual's performance. To speak more precisely, they, the individual's performances, are a special invention rather than a product. They carry a meaning closer to a series of "product ideas", so to speak, as distinct from actual everyday necessities. We already have a term for daily un-necessities, those items which the individual can do without but which enrich and enliven his everyday existence: gadgets. If the individual's performance can be revivified through gadgetry, there is reason to positively doubt the functional presence of an absence or inconsistency of utility. For example, in doubting whether gadgets can taint everyday products, we can reasonably infer that the reality of the system to be found inside those products is not aimed at positing a critique of the predominant ideology. Given the premise of the gadget's special "irrationality of the implement", we might consider "taste" as integral to artistic meaning. In the last analysis, it seems that we arrive at a place where the functional presence of participant autonomy cannot be an important mechanism in judging the work of Mr. CHA. Of course, today's gadgets play the role of "window" rather than alternative. This window contains the transferred aesthetic sense of taste and makes artists of all the individual participants. Art which amasses these individual artistic creations, these windows, and which is not bound to the artistic inheritance of the past has been a theme of Mr. CHA's recent work.

As when PIERRE Martino makes a brand choice, Mr. CHA counsels us to deal with the encounters of everyday social situations as we would decide upon friends. Acute complementary notions are continually raised: in <Temporary Business>, the choice of a job or the direction of terrorism, and, in <New Home>, the place of residence or the process of structural decision making. The participants selected online are comfortably assembled in the manner of making friends. Of course, it is all designed to reflect the anxieties of the artist. He is just offering us the image that he has already fixed for himself in society at large. In attacking the empty space and inciting the audience, he is laying the onus on the individual to be responsible. In this process, the artist assigns the role of the window to participants who have surrendered their real image amidst the social absence. As a result, image is "ventilated" in the process of the theater production of the audience video, and whilst the performative audience "ventilates", individuality itself is released. There is abstract and fluid energy in the process, through the audience and participants, who are, we are given to understand, the final and ultimate objects in the chain of consumption. How should we receive this gesture? Broadly speaking, this incomplete temporary action has a gradual cumulative effect. And herein lies the attraction of Mr. CHA's work. His videos are an appraisal of taste and, through the discovery of friends, breathe and live.

*LEE Ji-Hyeon graduated from Hanyang University's Department of Theater and Cinema. She took a master's in Cannes University in France and was the recipient of Cine 21's 13th movie critic award. Her film criticism appears in various publications. She is currently writer-in-residence at Incheon Art Platform.

카밀라 스제노치

카밀라 스제노치는 도시를 대표하는 심볼(Symbol)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작업해왔다. 인천아트플랫폼의 입주기간동안에도 송도와 월미도, 자유공원 등을 답사하면서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색이 나타나는 기념비들을 돌아보기도 했다. 결과보고전에 출품한 작품 〈All I wanted in Korea〉는 광화문 광장에 있는 세종대왕 동상 위에 작가가 올라가 있는 장면을 포토샵으로 합성한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고 관람객 또는 인터넷 방문자들과 소통을 하는 작품이다. 한국의 역사, 도시의 정체성을 반영하는 동상에서 작가가 원했던 퍼포먼스를 간접적으로 연출하여 유희적인 느낌을 자아낸다.

Kamila SZEJNOCH

Kamila SZEJNOCH has always had continued interest and worked with “symbols” that represent each city. During her stay in IAP, she explored Songdo City, Wolmi-do Island, Jayu (freedom) Park and other places to look into distinctive monuments of the region. What she produced as a result was <All I wanted in Korea> a picture of herself placed atop the statue of King Sejong in Gwanghwamun Square, by using photoshop, which is then unloaded in her Facebook to see the response and interact with tourists and other internet users. The work itself is somewhat amusing, the way she managed to make a performance of herself, albeit indirectly, at the statue that epitomizes Korea’s history and the identity of the city.

All I wanted in Korea photos
Album on Facebook 2012

All I wanted in Korea photos
Album on Facebook 2012

그네 1, 4
Swing 1, 4
10m Installation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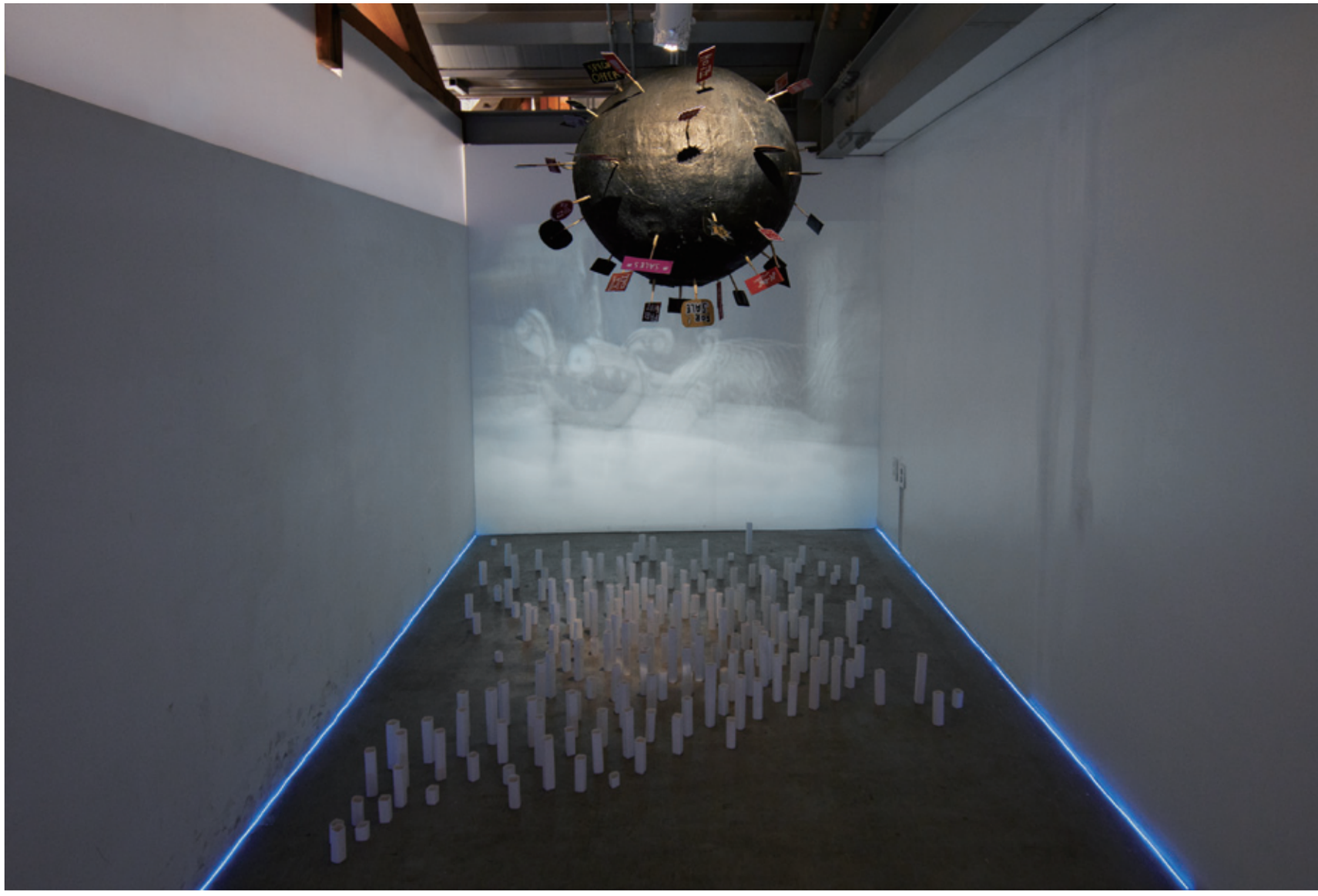
칼라&안드레즈

"칼라와 안드레즈"는 독일과 스페인 출신의 작가가 결합한 팀으로 주로 도시의 미니어처 모델을 만들고 그것을 비디오로 담는 영상작업을 진행해 왔다. 그들은 도시와 도시간의 차이점은 없다고 이야기 한다. 결국 모든 도시들을 움직이게 하는 시스템은 동일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들은 도시의 모습들을 종이박스를 이용해 미니어처로 재현해내고 카메라의 텔레스코프와 마이크로스코프를 극단적으로 오가며 도시의 속살과 껍데기를 영상으로 보여준다. 그렇게 보여지는 그들의 작품은 음습하고 불길한 디스토피아를 연상시키며 도시의 부속 기관으로만 존재하는 우리들을 떠올리게 만든다.

Karla & André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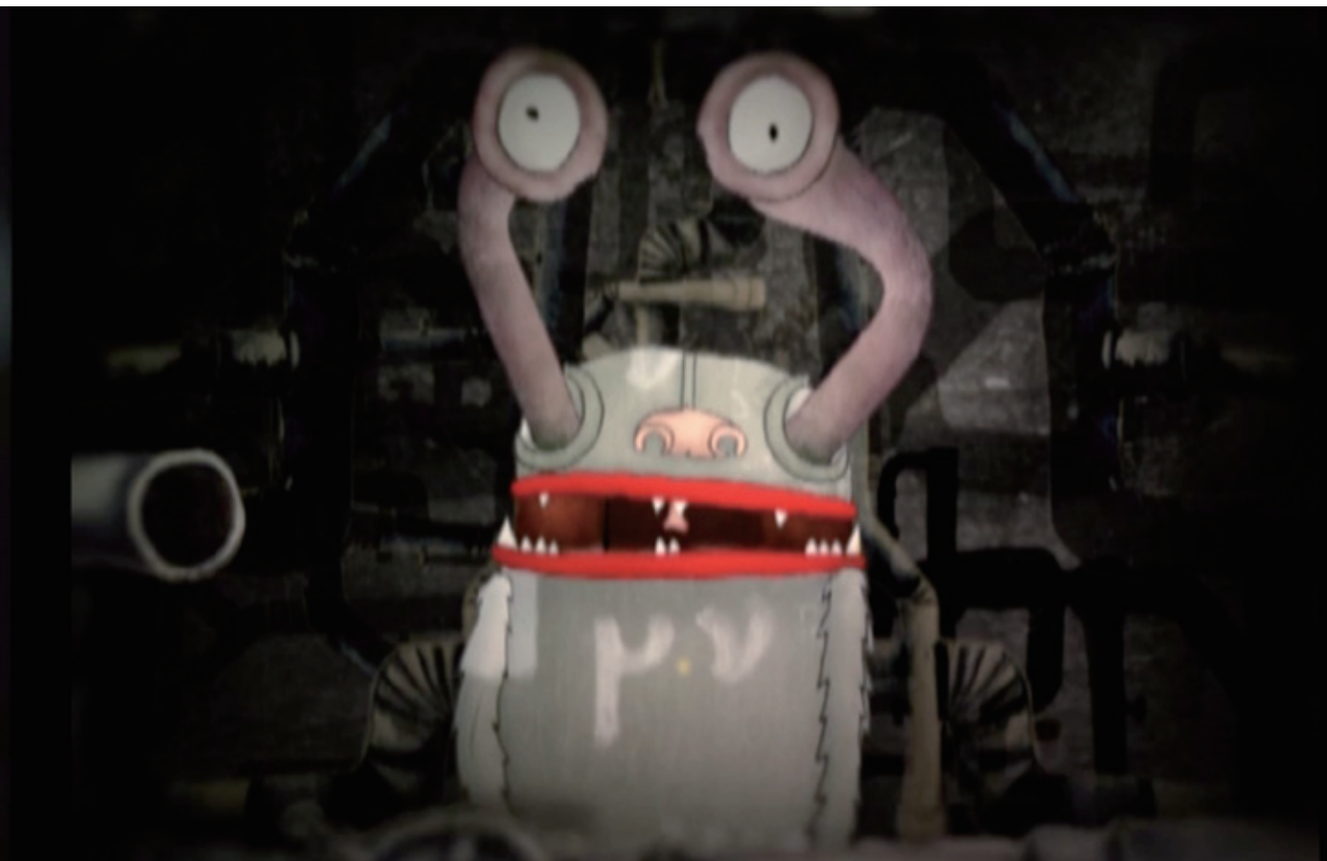
"Karla & Andrés" is a group of artists from Germany and Spain whose main work is to produce a miniature model of a city and make a film out of it. They point out that there is not much difference between one city to another because the system that moves those cities are all the same. They recreate the miniature model of the city with a cardboard box, and then make an excessive use of telescope and microscope to reveal everything about the city right down to its bare skin. Their work usually depicts a shady and ominous dystopia in which, we humans only play a supplementary role to 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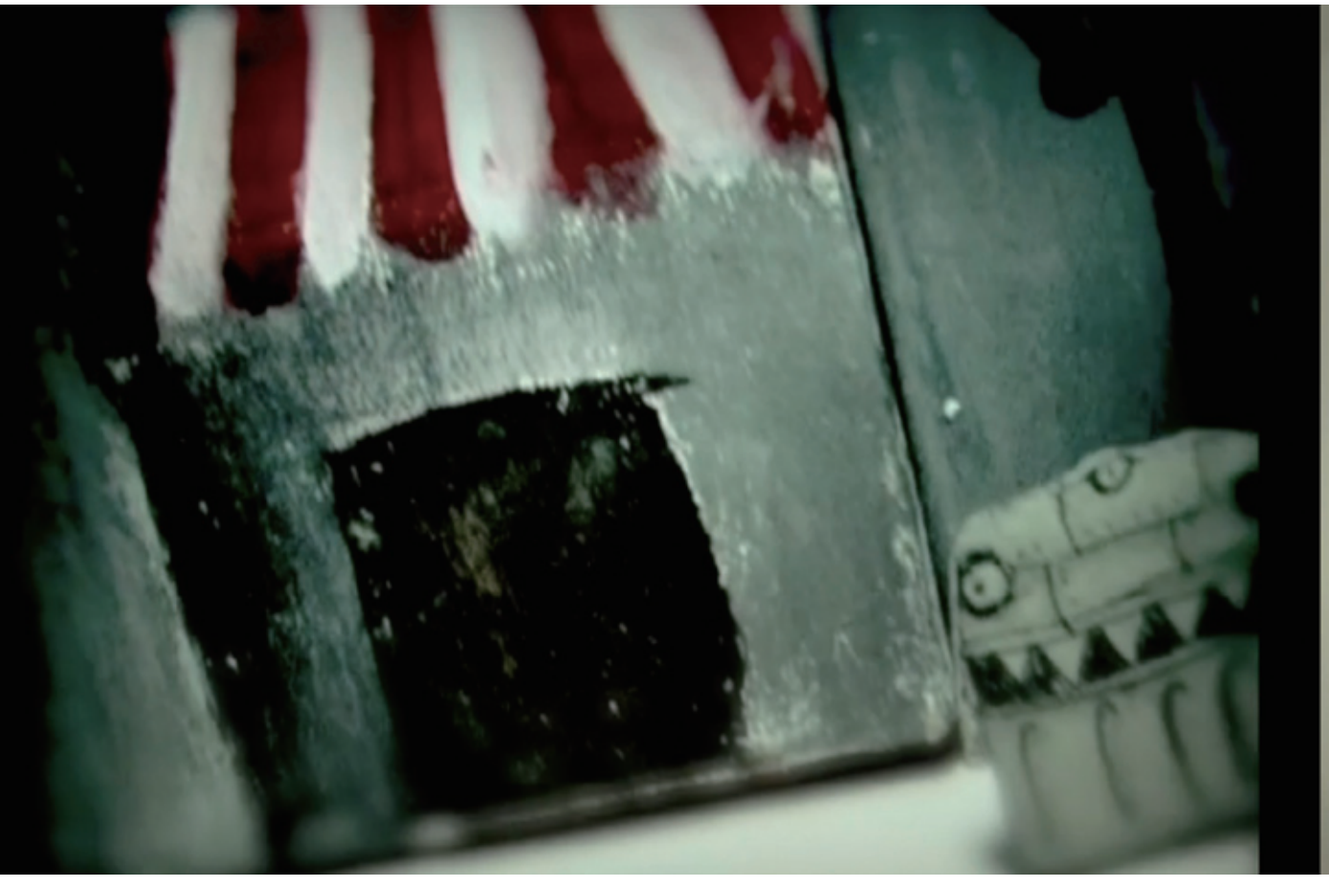
Zoomwooz-Working in Progress
2min Single channel video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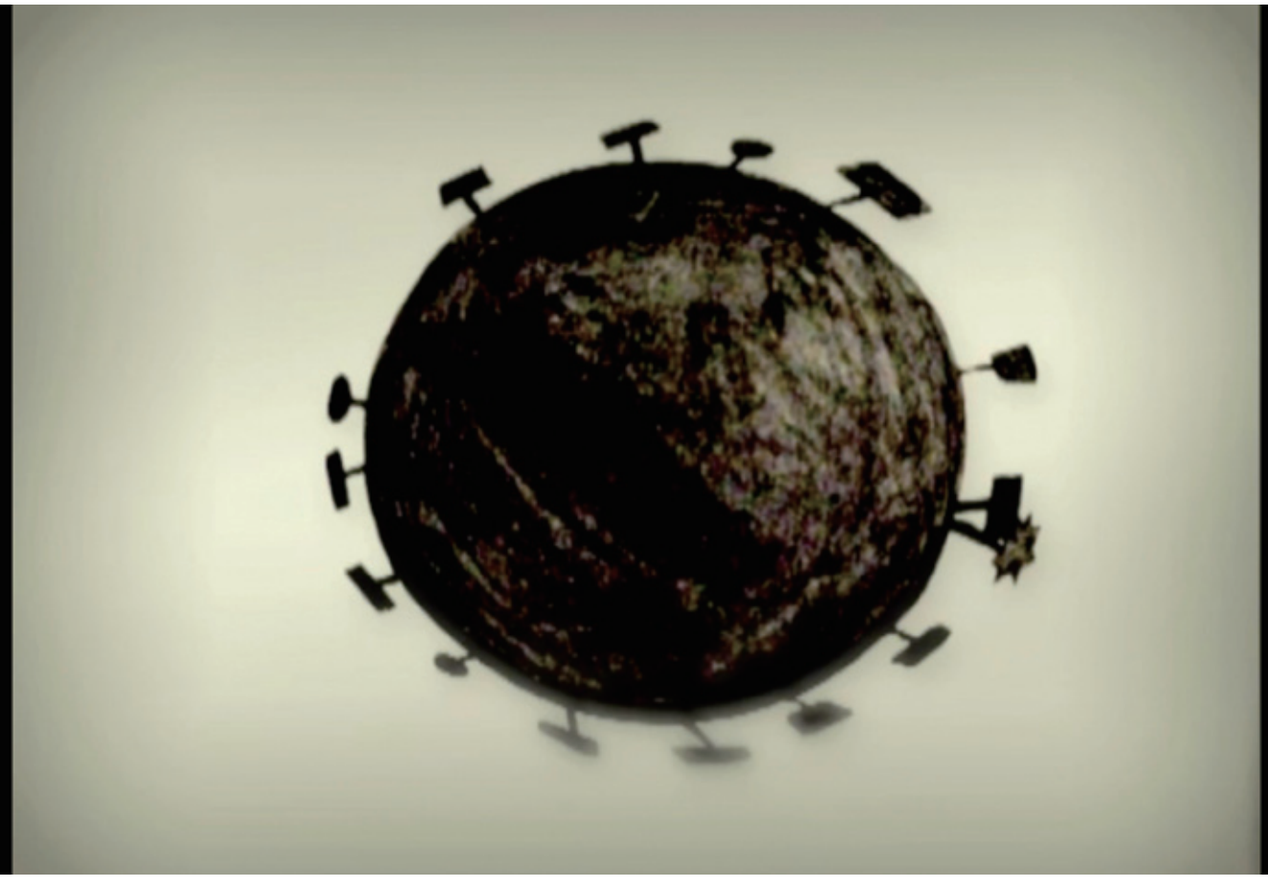


Zoomwooz-Working in Progress
Dimension variable 2012

Zoomwooz-Working in Progress
2min Single channel video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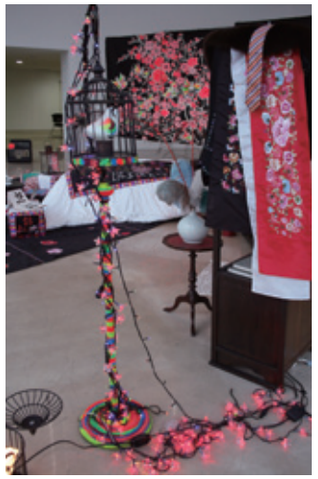


홍지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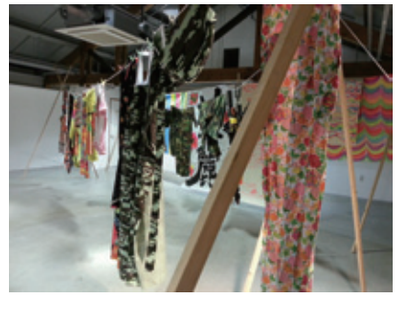
HONG Ji-yoon

어진바다-찬란한 물결
An ocean of mother nature-gorgeous border
210×150cm(each) Korean ink on Korean paper 2013

봉별(逢別)
Being and dead_meet and separate
Dimensions variable Acrylic and ink on rice paper, 2min50sec Video installation 2012



어진바다-화려한 경계
An ocean of mother nature-gorgeous border
6min Single channel video 2012



공감각적인 사랑의 담론

이선영(미술평론가)

어릴 때부터 붓을 쥔 홍지윤에게 시서화는 하나이고, 그 자신과도 하나가 되어 있는 듯하다. 그것은 진정 하나였기에 여럿도 될 수 있었다. 거리와 무대, 화폭과 다양한 인터페이스를 망라하는 홍지윤의 자유분방한 작품은 '퓨전 동양화'라고도 불리는데, 무슨 이국적인 메뉴판 같은 이러한 꼬리표는 그녀의 작업(=삶)이 곧 '퓨전'이라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한문으로 씌여진 추상적 화론으로 첩첩이 쌓여있는 심오한 동양화의 세계에서, 시를 짓듯이 노래하듯이 온몸으로 풀어내는 홍지윤의 작업은 아마도 작품을 발표하는 매순간들이 긍기를 위반하는 장이었으리라. 그러나 홍지윤은 동질성에 역행하는 이러한 이질성에 대한 반감이나 저항을 또 다른 반감과 저항으로 맞대응하는 여성 투사 같은 심각한 부류는 아니다. 작품에 분명하게 보이듯이, 그녀에게는 태양과도 같은 강한 긍정과 낙관의 힘이 있다. 현실의 제도 속에서 살아가는 한 인간에게 가해지는 압박에 순응하기보다는, 자신의 본능에 충실했음에 후회하지 않는다. 자신에게 완전히 충실했다면 후회할 일도 없는 것이다.

칼리그래피 스타일의 디자인이 유행하기 훨씬 전부터, 홍지윤은 편안한 듯 솜씨 있는 아름다운 한글 서체로 시를 써왔다. 시는 작업의 출발이고, 작품 곳곳에 이런 저런 형태로 착상한다. 작품의 소재이자 주제는 '구름이 꽃으로, 꽃이 새로, 새가 사람으로, 사람이 사랑으로, 사랑이 꿈으로…'라는 작가의 말에 잘 드러나 있다. 여기에서는 모든 것이 고정됨 없이 흘러간다. 꽃과 새, 사랑과 꿈같은 이미지를 물들이는 색의 범위는 전통색인 오방색과 무지개빛 총천연색을 넘어 형광 빛 인공광원까지 이른다. 특히 최근작에 등장하는 색동 꽃과 색동 새는 전래의 소재 및 색감과 팝(Pop)의 그것을 종합한다. 색동 바탕에 거대한 꽃이 둥 떠 있는 작품 〈Life is colorful〉(2010)에 나타나듯, 물감을 듬뿍 묻혀서 쓱쓱 그어진 직선과 곡선, 그리고 한순간도 멈추지 않는 폭발적인 색채 에너지가 있다. 형태로부터 자유로운 몇 개의 획이 꽃의 형상을 취하며, 수직 또는 수평으로 그어진 몇 개의 선이 바탕을 만든다. 형상과 바탕은 꽃잎과 새의 날개처럼 그 국면만 다른 동일한 계열을 이룬다.

작품은 대개 여러 개의 패널들이 느슨하게 붙어있는데, 다채롭지만 혼란스럽지 않고 자신의 작품 어떤 단편과 만나도 어울릴 듯 호환성이 있다. 자작시는 물론, '사랑한다고 말할 것 그랬지….님은 먼 곳에' 같은 유행가 가사, 난해하기 그지없는 이상의 시 등이 화면 위, 또는 그 사이사이를 누빈다. 홍지윤은 예술이 '학문이나 기법이기 보다는 영혼, 눈빛, 별빛, 달빛이 미래의 언어'라고 확신한다. 오랫동안 동양화를 전공한 작가의, 결코 손쉽게 내려진 것만은 않은 이러한 결론은 정전주의에 내재된 가부장적 어법에 대한 본능적인 거부함의 발로라고 보여진다. 그것은 깊이에 대한 표면의 대응인데, 마침 실체와 본질의 기나긴 시대를 넘어, 표면(들)로 이루어진 시대가 도래 했다. 그녀는 어릴 때 그림을 시작하여 동양화과 박사까지도 마칠 만큼 한 우물을 파왔지만, 2001년 당시로선 낯설었던 '연세 디지털 헐리우드'과정을 통해 다양한 부류와 다양한 트임을 만들어왔다.

오랜 시간 지필묵을 체화했던 몸은 바로 여성의 몸이다. 그리고 그 여성은 사랑과 사랑이 야기하는 역설적 이야기들로 이루어져 있다. 《한국화의 재발견》(성남아트 센터, 경기도, 2011)에서 처음 발표되었고, 2012년 인천 아트플랫폼에서도 전시되었던 작품 〈봉별(逢別)〉은 남녀의 만남과 헤어짐이라는 사건을 색다른 시공간 속에 맥락화한 작품으로, 사랑이라는 주제를 애니메이션부터 패션에 이르는 다양한 장르로 종합한 홍지윤의 근래의 대작이다. 작가는 '나약한 지식인으로, 고전과 모던의 틈을 살아간 사람, 이상, 그의 이상이자 자화상인 금홍과의 만남과 이별은 불협의 극한에 이른 장소인 금홍의 방에서 여러 번의 봉별을 치루고 끝내 파한다'고 이야기를 시작한다. 1930년대 지식인과 기생의 만남이 이루어진 기생 금홍의 방을 채운 것은 골동품 같은 가구와 인테리어, 잔뜩 멋이 들어간 여성의 소품들이다. 나무 인형처럼 만들어진 이상과 금홍의 상이 대조적이다. 색동과 꽃으로 알록달록 장식된 여성과 초췌해 보이는 남성 지식인상이 식민지 시대의 얼굴을 드러내는 듯하다.

이러한 주제와 형식에서 매춘과 사랑과 예술의 동일성을 확인했던 근대의 공감각주의자 보들레르가 떠오르지 않는 바도 아니다. 장지에 수묵채색으로 그려진, 검은 바탕에 가득 핀 꽃은 화려하면서도 죽음의 그림자가가 짙다. 어둠이 곧 삼켜버릴 듯한 색은 순간적으로 빛이 된다. 선이자 획이자 꽃잎은 순간적인 응집력을 가질 뿐이다. 또는 우주로 산산이 흩어지려는 해체의 순간 같기도 하다. 그것은 어디에도 뿌리를 내리지 않고 붕 떠 있다. 만발한 꽃과 새의 날개 짓에 내재된 사랑의 은유에 종이꽃이나 검은색으로 상징되는 죽음의 은유가 겹쳐진다. 신부의 꽃가마나 장지로 떠나는 상여를 꾸미는 꽃의 이미지에는 사랑과 죽음의 상징적 우주가 공유된다. 홍지윤의 작품에서 여자와 남자의 만남은 사랑과 죽음의 만남처럼 치명적이다. 편지지, 그림, LCD 화면, 이불 위의 자수 등으로 나타나는 아름다운 서체의 글자들은 사랑 또는 죽음의 담론들로 채워진다. 이 조합이 동서고금의 시와 노래를 대부분 채워왔던 그 보편적인 주제이다.

'그 많던 꽃들 피어났다가 시들어지'(홍지윤)며, '꽃나무는 제가 생각하는 꽃나무에게 갈 수 없'(이상)다. 여기에는 사랑이라는 강렬한 순간과 불일치의 드라마가 있다. '그녀, 아름다운 꽃'이라는 자작시 제목처럼, 꽃은 홍지윤에게도 여성이다. 그녀에게 '꽃은 아름다움과 여성, 생에 대한 환희'를 통칭한다. 또한 '역사와 질곡의 삶에 예고 없이 찾아오는 기쁨의 순간과 생명체의 치열함을 역설'한다. 홍지윤의 작품의 대표 이미지가 된 꽃은 인간의 희로애락부터 우주와 생명의 생멸까지 포괄하는 주제이지만, 여성이자 작가인 홍지윤에게 꽃은 보다 특화된 이미지로 다가온다. 화려한 색과 에너지로 가득한 꽃의 우주와 조응하는 것은 사랑의 담론이다. 그것은 단지 꽃이나 시로 이러저러한 사랑의 경험과 사연을 재현하거나 표현하는 문제가 아니다. 금홍과 이상이라는 특정한 역사적 인물이 등장하는 작품조차 재현이나 표현의 문제는 아니었다. 작품은 사랑의 강렬함을 나타내는 기호로 가득하지만, 기호가 향하는 것은 특정한 대상이 아니다. 이 여성-작가에게 예술작품은 그 자체가 사랑의 담론인 것이다.

줄리아 크리스테바는 『사랑의 역사』에서 한 여성에게 사랑한다는 것은 글쓰기와 같은 것이라고 말한다. 사랑에 빠진 여자들이 글을 쓴다. 무엇인가를 글로 쓴다는 것은 사랑을 글로 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담론의 한 시련이다. 작업이란 사랑처럼 시련이자 도전이며, 절망이자 희열이다. 사랑의 언어는 직설적이지 않고 은유적이다. 사랑은 언어가 당면한 의사소통 능력이 시험에 붙여지는 시련과 같다. 홍지윤에게도 사랑은 말해진 그 무엇이다. 그래서 그녀는 틈만 나면 그토록 여기저기에 글을 써댄다. 사랑의 환몽이 실현되는 장인 작품 속, 이런 저런 형식으로 빼곡히 씌여진 글은 히스테리 환자의 지나친 다변처럼 실어증의 또 다른 증후이다. 어떤 시기에 특정한 수신자를 가졌을지도 모를 사랑의 담론들은 일반 관객에게도 읽혀진다. 그러나 그것들은 시자체가 그렇듯이 불확실하고 은유적 압축의 상태로 보여진다. 크리스테바에 의하면 은유는 융합이다. 왜냐하면 두 가지 용어가 온전하게 지속되는 비교와는 달리, 은유는 두 부분 중 어느 것도 배제하지 않으면서 이원성을 확인하기 때문이다. 은유는 변신 또는 공감각이 되고, 은유가 만들어내는 무한화 된 의미는 독특하게 육감적이고 관능적인 향락으로 전환한다.

흩뿌려진 자아는 오로지 은유로써만 중심이 잡히고 글로 쓰일 수 있다. 홍지윤에게 꽃은 고정된 상징이기보다는 은유이다. 그것은 주체적이고 담화적인 쇄신과 위기의 역학으로서의 사랑의 체험, 그리고 그 언어학적 상관요소인 은유성을 내포한다. 은유로서의 꽃과 시는 표상 불가능한 요소이며, 이 표상 불가능한 것들이 기호들(signes)의 기반이 된다. 홍지윤의 공감각적인 작품은 기호들 사이에 있다. 크리스테바에 의하면 사랑하는 상태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글쓰기의 상태의 하부 구조는 공감각이다. 이러한 교환은 또한 하나의 전염이자 압축이다. 공감각이란 불안정 상태에 있는 언어, 아직은 존재하지 않고 이미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언어 속의 은유이다. 홍지윤의 작품에서 중요한 요소인 여성성 역시 사랑의 은유처럼 표상 불가능한 이타성을 지닌다. 여성은 에로스만큼이나 죽음인 리비도로 활기차다. 상상적인 면에서 여성의 욕망은 죽음에 더 가까이 탯줄로 연결되어있다고 간주된다. 그것은 생명의 모태적 원천이 생명을 파괴할 수 있는 힘을 얼마나 지니고 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홍지윤의 작품에서 생명과 여성의 순환 고리에는 사랑과 죽음이라는 연결 고리가 포함되어 있다.

* 이선영은 이화여대 생물학과 졸업, 홍익대 대학원 미술사학과를 수료했다. 1994년 조선일보신춘문예 미술평론 부문으로 등단하였고, 2003-2005년 미술평단 편집장, 1996-2006년 미술과 담론 편집위원 역임했다. 또한, 2005년 제1회 김복진 미술상, 2009년 제1회 한국 미술평론가 협회상(이론 부문)을 수상하였다.

The discourse of synesthesia love

LEE Sunyoung(Art Critic)

Poetry, calligraphy, and drawing have been one single thing to HONG Ji-yoon who grabbed brush at a very young age and they have come to define her ever since. As it is truly one, it could also be plural. Encompassing a variety of interfaces of street, stages, and canvas, HONG Ji-yoon's footloose artworks are dubbed as 'fusion oriental painting'. This rather exotic restaurant menu-like tagline means nothing more than the fact that 'fusion' is her work and life. In the world of profound oriental paintings covered by layers of abstract painting philosophy and theory written in Chinese characters, HONG Ji-yoon's work is unraveled with her body as if writing a poem and singing might have been breaking taboos at every exhibition.

However, HONG does not fall into the category of a serious woman fighter against hostility and confrontation of the hostility and resistance with the same resistance toward the heterogeneity going against the uniformity. As shown in the work, she has the strong positive power and optimism as in the sun. Rather than being submissive to the oppression to a person in the institution of reality, she doesn't regret her faithfulness to her instinct. If one was truly faithful, there is nothing to be remorseful about. Long before the calligraphy style became a big hit in design trend, HONG Ji-yoon has been writing poetry in beautiful Korean characters as comfortably and skillfully as could be. Poetry was the start of her work and implant here and there of her work in several shapes. The subjects and title of the work can be shown in her words 'from cloud to flower, flower to bird, bird to human, human to love, love to dream…' here everything flows and never fixated to anything. The range of flowers painting the images like flowers and birds, love and dreams expand from the traditional rainbow and five Korean traditional colors to natural techno-colors to fluorescence artificial lights. Especially the color striped flowers and birds in her latest work embrace the traditional and Pop materials and colors. The gigantic flower floating on the background of the color strip in <Life is Colorful>(2010) shows the explosive color energy that never stops even for a moment with seemingly carelessly painted lines and curves loaded with enough paint.

A few lines free of shape take the flower form while the other vertical or horizontal lines make the background. The figures and the background constitute the other identical system for a specific segment as did the flowers and wings of the birds. Usually there are several other panels loosely attached to a single work in colorful but not in disarray, compatible to other sketches of her work. Her poems and Korean pop song lyrics like 'I should have said I love you', and enigmatic poetry of Lee Sang are written on the canvas line by line. HONG assures that arts are the 'souls, eyes, star lights and moon lights in the language of future rather than academic or techniques'. This not that easy conclusion drawn by an artist in oriental painting for a very long time is the manifestation of instinctive refusal to academic paternalistic grammar. It is the facial response to the depth, speaking of which we have passed the long tunnel or existence and essence, and the new era of surfaces have arrived. She started drawing very early and has kept on working on the oriental painting in pursuit of her Ph.D. She started working with a variety of other groups and networked through the Yonsei Digital Hollywood which was new back in 2001.

It was woman's body that internalized the paper, pen, and ink. The woman is made of love and the paradoxical love stories. 《Rediscovery of Korean Painting》 was first exhibited at Seongnam Art Center in Gyunggido in the year 2011. <Meeting and Parting>, which was first exhibited at Incheon Art Platform in 2012, has put the meeting and parting of men and women in the different context of time and space. HONG Ji-yoon's latest masterpiece encompasses various genres of love themes including animation and fashion. She starts the story of the vulnerable "Poet Lee Sang stuck in between the modern and classic eras met with his better half and self-portrait Keum HONG in her place but after a series of breakups, they broke up when their discord hit the limit." An intellectual poet of the 1930's met with a concubine in her room filled with antique furniture pieces, upholstery, and decorative feminine items. Wooden doll faced Lee Sang contrasts with the color striped and flower decorated Keum HONG figurine. The haggard look of Lee Sang puts a face on the intellectuals under colonization.

It slightly reminds me of Baudelaire, another modern poet of synesthesia, who was assured of the uniformity of prostitution, love, and art in similar titles and forms. The flowers in full bloom against black background of the ink wash painting on Korean paper are splendid in dark shadows of death. The colors about to be swallowed by the darkness become lights at a moment. Only the flower petals or lines or brush stroke have the instant cohesiveness. Or it could be the moment of deconstruction that it can be scattered into the universe. It is floated without taking its roots to anywhere else. The metaphor of love ingrained in the full bloomed flowers and the birds flapping its wings overlaps with the metaphor of death symbolized into black colors or paper flowers. The flower decorated bridal palanquin or the flowers decorating bier share the symbols of love and death. In HONG Ji-yoon's works, the woman meeting a man is as lethal as the meeting of love and death. The beautiful characters written on letter, paintings, LCD monitors, and embroidery on a blanket are covered with the discourse of love or death. The combination has been the universal theme of all the poetry and songs in disregard of the time and country.

'Those many blossoms would bloom and wither (HONG Ji-yoon)' and 'the flowering trees cannot go to the trees they want (LEE Sang)'. Here comes the strong moments of love and dramatic incongruity. As in the title of HONG's poem 'She, Beautiful Flowers' flowers are women for HONG Ji-yoon. 'Flowers indicate the beauty, women, and the great joy over life'. It 'paradoxically reveals the joyous moments and fierce competition for survival in fettered lives and history'. The flowers, the main image of HONG's works, encompasses from the basic human hope, anger, love, and joy to birth and death of lives and universe, female artist HONG Ji-yoon's flowers have its specified images. It is the discourse of love that responds to the universe of flowers full of luxurious colors and energies. It is not simply the representation or expression of love with flowers or poetry. Even in the work where historical figure like Keum HONG and LEE Sang appear, it is not the issues of expression or representations. Although the work is filled with symbols expressing strong love, it is not the specified object that the symbols stand for. The art work in itself for female artist is the discourse of love.

In 『Histoires d'amour (Tales of Love)』 Julia KRISTEVA says love is writing to a woman. Women who fall in love write things. Writing something down therefore is an ordeal of a discourse as if writing about love. Project could be ordeal, challenge, despair, and rejoice like love. The language of love is not straightforward it is metaphorical. Love is like the ordeal of taking a communications test. For HONG Ji-yoon, love is something that has been talked about. Therefore, she writes down things whenever she can. In her works where the fantasy of love materializes, like excessive eloquence of hysteria in the dense lines can be thought of as another symptom of aphasia, or impairment of language ability. The discourse of love, which might have been addressed to an audience, is read by an average audience. It looks as uncertain and metaphorically compressed as is the poetry. According to Krosteva, metaphor is convergence. Unlike comparison where two terms continuously maintains the other's territories, metaphor checks the duality without excluding any one of the two parts. Metaphor becomes transformation or synesthesia, and the eternalized meanings of the metaphor changes into uniquely sensual and sultry enjoyment.

Scattered ego can only stand with metaphor and starts writing. For HONG, flowers are more of a metaphor than fixated symbols. It contains the experiences of love as dynamics of crisis and subjective renovation in discourses, and the characteristics of metaphor as linguistically relevant elements. Flowers and poetry are the elements that cannot be represented as metaphors and becomes the basis for signs. HONG's synesthesia works stand in between the signs. The substructure of writing—according to KRISTEVA is in the state of love—is synesthesia. The exchange is another contagion or compression. Synesthesia is the metaphor inside the language in volatility, or that does not exist yet, or it no longer exists. Femininity, the most critical element in HONG's work has the altruism that cannot be expressed like the metaphor of love. The Eros in woman is as active as libido of death. In a symbolic way the a woman's desire are thought to be as connected with the umbilical cord just as death is connected to the source of matrix, for a life is well aware of the power to destroy life. The cycle of woman and life in HONG Ji-yoon's work contains the link of love and death.

*LEE Sunyoung graduated from Ewha Women's University with a degree in biology and completed a graduate course in art history at Hongik University. She made her debut in the category of art criticism in the 1994 spring literary competition sponsored by the Chosun Ilbo, and she held the position of art criticism editor from 2003 to 2005 and was on the art and discussion editing committee from 1996 to 2006. She also won the first Kim Bok-jin Art Prize in 2005 and the first Korean Art Critic Association Prize (in the theory category) in 2009.

공연 예술

Performance Artists

272 만요컴퍼니/글 이소영
Manyo Company/ Text by LEE So-young

280 신재훈/글 김해진
SHIN Jaehoon/ Text by KIM Hae-jin

288 연희 컴퍼니 유희/글 현경채
Yeonhee Company U-hee/ Text by HYUN Kyung-chae

만요컴퍼니

Manyo Company

인천 세자매-홍예문 로맨스 Incheon three sisters-Hongyemoon romance
윤중강 작·연출 Directed YOON Jung-kang
Incheon Art Platform Building C Theater 2013

조선천재 김해송
KIM Haesong the Genius in Chosun
Performance document video 2012

만요 컴퍼니의 〈조선천재 김해송〉 음반의 음악적 가치

이소영(음악평론가, 명지병원 예술치유센터 임상교수)

1. 김해송은 누구인가?

한국 대중가요사에서 1930-40년대를 대표하는 천재 작곡가로 알려진 김해송(본명 : 김송규)은 작곡가 겸 가수로서 〈오빠는 풍각쟁이〉, 〈연락선을 떠난다〉, 〈코스모스 탄식〉, 〈선창〉 등 수많은 히트 곡을 내었고 약초 악극단과 해방 후 K.P.K 악단을 이끌면서 우리나라 에 본격적인 뮤지컬 무대를 선보인 뮤지컬계의 선구자로 알려져 있다. 김해송의 전체적인 윤곽은 황문평 저, 『삶의 발자국』1의 "뮤지컬의 선구자 김해송"과 박찬호, 최동현, 김민수, 『유성기로 듣던 불멸의 명가수』(신나라, SYNCD-120) 196쪽 참조 하시오.

특히 그는 하와이언 기타를 비롯한 악기 연주, 지휘, 편곡 등 음악 실연에 뛰어난 감각과 기량을 지녔던 것으로 보인다. 김송규(金松奎: 1911~1950)는 "평양숭실 전문학교 재학시부터 이미 음악적인 재능을 발휘하기 시작하여 클래식기타와 하와이언 기타의 '명수'라는 칭호를 얻었고 초기에 기타 연주가와 가수로 활동하면서 작곡도 겸하였다" 이근태(1996),「작사 · 작곡가 약력」『불멸의 명가수』, 신나라레코드, 527쪽.

라는 기록으로 봐서 후자의 경우에 속한다. 그가 유성기 음반에 취입한 가요를 연대기적으로 살펴보면 1935년부터 1943년까지 대중가요의 창작 및 가수 활동을 지속하였음을 알 수 있고 특히 1930년대 후반과 1940년대 작품 생산량이 두드러진다. 주로 오케(Okeh) 레코드회사에서 활동하였는데 이외에 콜럼비아(Columbia)와 빅타(Victor)음반회사에서도 상당수의 곡을 작곡 · 발표하였다.

김송규의 작품을 갈래별로 열거해보면 유행가에는 이난영의 〈다방의 푸른 꿈〉, 〈울어라 문풍지〉, 장세정의 〈잘있거라 단발령〉, 박향림의 〈코스모스 탄식〉, 김연월의 〈무정한 밤차〉 고운봉의 〈선창〉 등이 있다. 자신이 작곡하고 부른 유행가로는 〈청춘의 물결인가〉, 〈설움의 별판〉, 〈밀월의 코스〉, 〈풍차도는 고향〉, 〈내 채찍에 내가 맞았소〉 등이 있다. 만요풍의 노래로는 〈개고기 주사〉, 〈남무아비타불〉, 〈모던기생점고〉, 〈오빠는 풍각쟁이〉, 〈엉터리대학생〉, 〈청춘삘딩〉, 〈전화일기〉 등이 있는데 모두가 당시 만요 중 대표적인 노래에 해당하는 곡들이다.

김송규는 당시 작곡가 중에서 유독 재즈적인 어법에 능숙했던 것으로 보인다. 〈감격의 그날〉, 〈고향의 로맨스〉, 〈이별전야〉 등이 째즈송이란 갈래로 취입한 곡이고 이외에도 유행가나 신민요 갈래 안에서 재즈적인 어법이 트로트 양식이나 전통민요 등 다른 어법과 매우 자연스럽게 융합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상당부분 발견된다. 또한 김송규는 영화음악작업에도 손을 대어 〈목화를 따며〉, 〈반도의 처녀들〉, 〈그대와 나〉, 〈낙화삼천〉 등의 주제가를 발표하였다. 〈그대와 나〉, 〈낙화삼천〉은 조선군보도부(朝鮮軍報道部)가 제작한 내선일체 영화 〈君と僕〉의 주제가로 사용된 곡인데 김송규는 이외에도 〈희망의 썰매〉, 〈애국반〉, 〈반도의 안해〉 등 일제말기 전시체제에 협력하는 부일가요 및 군국가요를 상당수 작곡하였다.

한편 김송규는 한국인 작곡가들의 대중가요가 일본인 작곡가들의 편곡작업을 통해 마지막 포장작업을 거쳐 음반에 취입되었던 당시의 음반 제작 관행에 비추어볼 때 박시춘과 함께 상당히 많은 수의 곡을 편곡했던 보기 드문 한국 작곡가에 속한다. 〈오빠는 풍각쟁이〉, 〈천리춘색〉, 〈청춘무정〉, 〈어머님 안심하소서〉, 〈엉터리대학생〉 등이 김송규 작, 편곡에 속하는 곡들에 해당한다. 영화〈반도의 처녀〉의 주제가로 쓰인 〈목화를 따며〉, 〈반도의 처녀들〉은 솔로 가수 외에 오케 코러스단과 오케관현악단의 합주를 김송규가 직접 작, 편곡 한 것으로 되어 있다. 1943년 2월자 〈本月新譜及特選目錄〉에

A Musical Worth of the Record <Chosun Genius KIM HAE-SONG> by Manyo Company

LEE So-young(Music critic & Clinical professor at Arts Healing Center, Myongji Hospital)

1. Who is KIM Hae-song?

KIM Hae-song(real name: KIM Song-gyu), known as a genius composer who was representative of the 1930s and 1940s in Korean history of pop music, was a singer-songwriter who released numerous hit songs including <My brother is a street musician>, <A ferry leaves>, <Cosmos's sigh>, <Dock>, and was known as a pioneer of musical world who launched the full-scale musical stage in Korea, leading Herb Musical Troupe, and K.P.K. Band after Liberation. For an overview about KIM Hae-song, see "KIM Hae-song, a pioneer of musical" in『Footprints of Life』 1, written by HWANG Moon-pyeong, and 『Immortal great singers we had heard by gramophone』, co-written by PARK Chan-ho, CHOI Dong-hyun and KIM Min-su (Shinnara, SYNCD-120) P. 196

In particular, he seems to having had a great sense and skills for music performance such as playing musical instruments including a Hawaiian guitar, conduction and arrangement. It was recorded that KIM Song-gyu (1911~1950) "already began to show his musical talent while he was in Pyongyang Soongsil Professional School, and he gained the title of a 'master' of a classical guitar and a Hawaiian guitar, and he composed a song while working as a guitarist and singer in the early period." LEE Keun-tae(1996), 『Biography of lyric writers · songwriters』 『Immortal great singers』, Shinnara Record, P. 527

We chronologically seeing the songs he recorded for gramophone records, he continued to create popular songs and to do active work as a singer from 1935 to 1943, and especially he produced many works in the late 1930s and 1940s. He recorded mainly at Okeh record company, and composed and launched many songs also in Columbia and Victor record companies.

KIM Song-gyu's works are classified by genre as follows. Hit songs he composed are <Blue dream in a coffee shop> and <Paper weather strips, weep!> sung by LEE Nan-young, <Danbalryeong, goodbye!> sung by JANG Se-jeong, <Cosmos' s sigh> sung by PAAK Hyang-rim, <Heartless night train> sung by KIM Yeon-wol, <Dock> sung by GO Un-bong, and etc. Hit songs he composed and sang are <Is it youth's wave?>, <Fields of sorrow>, <Course of honeymoon>, <Hometown where windmills turn>, <I was whipped by my whip>, etc. The Manyo style of songs are <Injection of dog meat>, <Namu Amitabul>, <Modern gisaeng's spot>, <My brother is a street musician>, <A crappy college student>, <Youth building>, <Phone diary>, etc, which were representative of the Manyos in those days.

Of the composers in those days, KIM Song-gyu seems to especially having been good at the expressional technique of jazz. The songs including <The overwhelming day>, <Romance in hometown> and <The eve of the farewell> were recorded as the genre of jazz song, and the expressional technique of jazz often fused with the other expressional techniques such as trot style of songs and traditional folk songs very naturally within the genre of popular songs or neo-folk songs. Also worked film music, KIM Song-gyu launched the theme songs including <Picking cotton>, <Virgins of the peninsula>, <You and me> and <Three thousands of fallen blossoms>. The two songs of <You and me> and <Three thousands of fallen blossoms> were used for the theme songs of <君と僕>, a film of the colonial view of history that Japan and Chosun was one body, which was produced by Chosun Army Press Bureau. He also composed a fair number of Japan-friendly and militarist songs to collaborate in the wartime system of the late Japanese Occupation, such as <Sled of hope>, <Class of patriotism> and <Wife of peninsula>.

Meanwhile, viewed in the record production practices at the time when Korean composers' popular songs were recorded through the arrangement by Japanese composers, KIM Song-gyu was, along with PARK Si-chun, one of the rare Korean composers who personally arranged a fairly large number of songs. The songs of <My brother is a street musician>, <a long distance of spring scenery>, <Youth' s heartlessness>, <Mother, be at ease!> and <A crappy college student> were composed and arranged by him. For the songs of <Picking cotton> and <Virgins of the peninsula>, which were used for the theme songs of the film <Virgins of the peninsula>, he personally composed and arranged the song for a solo singer

"空前의 交響樂 編成"이란 홍보문고를 통해 이 음반에서 상당한 수준과 규모의 합창과 교향악 편성의 편곡을 김송규가 직접 담당했음을 알 수 있다.

김송규는 작 · 편곡 외에 김해송이란 필명의 가수로 많은 곡을 취입하여 김용환과 함께 싱어송라이터(singasongwriter)로서 선구적인 역할을 하였다. 한편으로는 〈꽃서울〉(고가마사오 작곡), 〈방랑곡〉(홍난파 작곡)처럼 다른 작곡가의 작품을 노래하기도 하였다. 김송규 자신이 직접 기타 반주를 한 곡으로는 〈상사월야〉가 있다. 이처럼 김송규는 작곡가 · 편곡자 · 가수 · 기타연주자 등 전방위에 걸쳐 대중가요의 모든 작업에 재능을 가졌던 전천후 실용음악가였다. 김송규는 작곡시에는 김송규로 표기하였고 노래가수로 취입할 때는 김해송이란 예명을 사용하였으나 1939년부터 작곡도 김해송으로 통일시켰다. 해방 후에는 K.P.K 악단을 조직하여 본격적인 뮤지컬 쇼를 시도하는 등 한국 대중가요의 초석을 다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1950년, 6 · 25때 납북되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한국 가요사에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2. 만요 컴퍼니의 〈조선천재 김해송〉

2011년 김해송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여 대중음악학회에서는 김해송 특집 학술대회를 열고 이를 학회지에 출간하는 등 전문가들 사이에 김해송을 "조선 천재 작곡가"로 규정하는데는 큰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대중들에게 김해송은 낯선 인물이다. 김시스터즈의 아버지, 이난영의 첫 남편 정도의 보충설명이 들어가면 어르신들 중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이 좀 생겨날 정도로 대중적인 인지도는 낮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 가요계의 중요한 시기인 1950년-60년대 활동을 하지 않고 6.25전쟁 통에 유명을 달리 했으니 대중들이 모르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김해송의 단독 음반이 복각이 아닌 리바이벌 형태로 나왔다는 것은 여간 의미있는 일이 아니다. 만요컴퍼니가 제작한 〈조선천재 김해송〉이 음반은 다음과 같은 면에서 음반사적으로나 음악적사적으로 그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음반을 원곡과 비교해보면 전체적인 느낌은 오리지날리티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현대적인 사운드에 익숙한 이들에게도 불편하거나 많이 낯설지 않고 음악적으로 세련된 품격을 견지하고 있다. 일전에 어느 공연에서 일제시대 신민요를 그대로 복원한다는 연주를 들었는데 그 사운드가 너무 조악스럽고 채보나 해석이 오리지날리티에 대한 맹목적 신화에 갇히는 바람에 음악적 설득력이 너무 떨어져 오히려 신민요 안티 노릇을 하는 모순을 발견하고 무척 아쉬웠던 적이 있다. 처음에 이 음반을 받았을 때 또 이러한 오류가 김해송과 만요의 복원이라는 이름아래 이루어지면 어떡하나 걱정을 많이 했었다. 그러나 들어본 결과 우려와는 달리 기대 이상의 수확이다! 화성이나 전체적인 음악적 텍스트는 원곡에 매우 충실하고 가수들 역시 원곡의 가수들 모드를 매우 충실히 재현해냈다는 점에서 이 음반은 복원 연주로서 의미가 매우 크다. 그러면서도 사운드는 복각 음반을 듣는 불편함이나 조악스러움이 없고 현대적 감성과 세련됨이 자연스럽게 녹아들어가서 음향적으로 매우 세련된 현대인의 취향속에 복고를 자리잡게 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둘째, 악기 구성이 피리, 가야금 등 국악과 아코디언 건반 등 혼종적 편성으로 이루어짐으로써 김해송 작품이 갖는 특유의 하이브리드 성격을 더욱 잘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그냥 재즈가 아닌 '조선 재즈'로, 그냥 만요가 아닌 '조선 만요'의 특성의 강화이다. 피리는 주로 주선율을 맡으면서 원곡에서 금관 · 목관 파트 부분을 주로 담당하고 있고 가야금은 바이올린과 같은 현악기 파트 부분을 맡으면서 주선율을 보조하거나 주선율에 대응하는 대위선율 파트를 맡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국악기가 아코디언 음색과 잘 조화됨으로써 1930-40년대 느낌을 더욱 향토적으로 재구성해내고 있다. 또한 원곡들은 대부분 고전적인 빅밴드 편성으로 반주된 곡들인데 비해 여기서는 피리 가야금 두 개의 선율 악기와 건반 아코디언의 화성 및 리듬 악기, 타악 이렇게 단촐한 다섯악기 편성만으로 그 효과를 최대한 살리고 있다는 면에서 편곡자의 감각과 재치가 매우 돋보이는 음반이라 할 수 있다. 나아가 가수들 역시 마치 자신이 1930-40년대 가수인 것 마냥 최대한 당시의 느낌을 살려 창법을 구사하면서도 시간을 초월한 보편적인 설득력을 갖는데 부족함 없게 노래들을 잘 불러주고 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 김해송의 편곡 기법 중 가장 눈에 띄는 장점이 악기연주의 표현적 효과를 가장 경제적으로 극대화시키고 있다는 것인데 여기서는 피리 가야금 및 제한된 악기 사용으로 인하여 그 대비적 속성을 풍부하게 살리지는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원 음반에서는 음색과 음역에 따라 서로 대조적인 악기군, 즉 남성적인 금관악기군과 여성적인 목관악기군으로 나눈다던가, 높은 음역대의 트럼펫과 낮은 음역대의 콘트라베이스의 주고 받음으로 음역대를 대조시키고 tutti와 solo 악기를 대비시킨다던가 하는 식으로, 길게는 4마디 단위로, 짧게는 한마디 안에서 메기고 받는 call & response를 적절하게 운용함으로써 긴장과 이완을 절묘하게 조절하며 곡 전체의 색깔과 성격을 매우 다채롭게 하고 있다. 8개의 악기를 사용한다 할 때, 악기군이 연주하는 음악적 프레이즈를 길게 혹은 짧게 나누어 각 프레이즈 마다 악기들을 쉼없이 다르게 배치하거나 여러 가지 경우의 수로 조합하고 각 악기의 출현마다 특정 성격을 부여함으로써 마치 주인공 8명이 무대에서 긴밀하게 움직이는 듯한 정교한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하여 이러한 움직임이 산만하지 않고 오히려 평이하고 단순할 수 있는 두도막형식 남짓한 노래를 매우 세련되고 밀도 있는 음악으로 탈바꿈시키는데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빅밴드 편성의 관악기를 다루는데 있어 적절한 뮤트 사용을 포함하여 색소폰과 트럼펫, 피아노와 베이스 등 재즈 악기에 대한 편곡 감각이 동시대의 잘나가는 일본 작곡가들의 그것에 비해 봐도 손색이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만요컴퍼니 음반에서는 아무래도 선율 악기가 피리와 가야금 두 개이다 보니 이러한 운용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금관과 목관이 두마디 단위로 서로 주고 받음으로 해서 음색적 대조를 이루는 부분이 피리 하나로 계속 연주한다던가(예:감격시대 전주부분) 피리와 가야금이 주고 받지만 가야금 음량이 너무 약하여 원곡에서와 같은 call & response 효과가 감소하는 등 대체로 10곡을 다 듣다 보면 다양한 악기 구사가 이루어지는 면에서 제한을 가지고 있다. 음색이나 음역 대비 등을 통해 편곡의 묘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좀더 다양하고 큰 편성의 악기군이 존재해야 하는데 만요 컴퍼니의 악기 군으로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옥의 티는 〈다방의 푸른꿈〉의 선율 가락의 특성에 중요한 부분이 간과되었다는 점이다. 〈다방의 푸른 꿈〉은 한국 대중음악 역사상 최초의 블루스 음계와 블루 note를 제대로 사용한 수작으로 꼽히는 곡이다. 내가 채보한 바에 의하면 이난영이 부른 원곡은 다음과 같다.

이 곡의 노래 선율을 보면 첫 4마디에서 블루 노트의 운용이 잘 나타나고 있다. 3-4마디에서 음계내의 제 3음에 해당하는 c#음이 14마디에서는 c 제자리음으로 노래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화음 역시 4마디에서 A장3화음이 a단3화음으로 바뀌면서 장 · 단조 조성이 교차되는 양상을 띤다. 그런데 만요컴퍼니 음반에서는 3-4마디가 그냥 C#음으로 노래되고 있고 장3화음이 반주되고 있다. 5마디째와서 블루노트 3음은 제자리음으로 노래되면서 반음 내려지는데 이는 첫 4마디안에 응축적으로 보여지는 블루스적 선율 느낌이 매우 약화되고 4마디 장조, 다음 4마디 단조 이렇게 기계적인 병렬로 음악적 매력과 긴장이이 떨어지는 결과를 낳고 있다. 추후에 이 부분이 다시 채보되고 보완되었으면 한다.

만요컴퍼니의 이 음반이 널리 알려질 뿐만 아니라 이에 부수되는 공연이 많이 활성화되어서 기왕의 노력이 많은 이들에게 알려지고 향유되길 기대해본다.

* 이소영은 음악평론가, 음악학자, 현 관동의대 명지병원 예술치유센터 소장, 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교수 등을 역임하였다.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및 대학원 졸업 한국학중앙연구원 문학박사(음악학 전공)과정을 수료하였으며 저서로는 『나는 다르게 듣는다』, 『이소영의 음악 비평 – 생존과 자유』, 『한국음악의 내면화된 오리엔탈리즘을 넘어서』와 다수 논문이 있다.

and the ensemble of Okeh Chorus and Okeh Orchestra. Through an ad of "unprecedented orchestra organizing" inserted in <Mokwolshinbokeub Special Selection List>, published in February 1943, we can know he personally did the choral and symphonic arrangements with a significant level and scale for this record.

KIM Song-gyu also recorded many songs as a singer using stage name of KIM Hae-song, playing a pioneering role as a singer-songwriter along with KIM Yong-whan. And also, he sang the other composers' songs such as <Flowery Seoul>(composed by Koka Masao) and <Vagabond's song>(composed by HONG Nan-pa), and he sang <Moonlit night of lovesick> to the accompaniment of a guitar. Like this, he was a musician in a genre of applied music who had a talent for all operations of popular song such as a composer, arranger, singer and guitarist. He marked himself with KIM Song-gyu as a composer and used the stage name of KIM Hae-song when recording as a singer, but also used the stage name as a composer from 1939. He played an important role of fortifying the foundation of Korean popular songs by organizing K.P.K. Band after Liberation and attempting a full-fledged musical show. He is believed to having been kidnapped to North Korea and killed during Korean War in 1950, which is a big loss to Korean history of popular songs.

2. <Chosun Genius KIM Hea-song> by Manyo Company

Judging by that the Korean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Popular Music held a symposium on KIM Hae-song and published it in the Journal to commemorate the 100th anniversary of his birth in 2011, experts would agree that KIM Hae-song is defined as a "genius composer of Chosun Dynasty". But he is a stranger to the public. When hearing that he is the father of Kim Sisters and the first husband of LEE Nan-young, some seniors would recognize him. Like this, public awareness of his activities is low. It's not surprising that the public don't know him, as he didn't music activities during the 1950s and 1960s, a critical time in the Korean world of popular songs, and he passed away during the Korean War. In this situation, that the record of KIM Hae-song has been released in the form of revival, not of reprint, is so meaningful. The record <Chosun Genius KIM HAE-SONG> produced by Manyo Company has a great worth in the aspects of record history and music history, in the following ways.

Firstly, when comparing this record with the original recordings, the overall feel isn't discomfortable or strange even for the people who are accustomed to modern sound and has a musically refined dignity, without losing its originality. When hearing the playing at a performance which tried to intactly restore the neo-folk songs of Japanese colonial period the other day, this writer felt sorry to find that the playing played a role of anti-neo-folk songs because it was musically rather fetched due to the very coarse sound and due to the fact that setting the songs to music after hearing their melody or interpreting them was blindly trapped in the myth about originality. So, when receiving this record, this writer, at first, worried that this kind of mistake would be made again under the name of restoring KIM Hae-song and Manyo. But after hearing it, this writer felt glad because, unlike the concerns, it was over achieved! This record means a lot as a restored playing in the aspects that the chord or the overall musical text is very faithful to the original songs, and that the singers have so faithfully represented the mode of the original singers. Still, in the aspect of sound, this record contributes to settle retro in a very refined taste of modern people, as the sound isn't comfortable or coarse unlike a reprinted record and modern sensibility and sophistication melt into it naturally.

Secondly, this record reveals more better the peculiarity of hybrid which is unique to the works by KIM Hae-song; the instruments consist of the ones of Korean traditional music such as the pipe and Korean zither and the ones of Western music such as the accordion keyboard. And the result is a strengthening of the characteristics of 'Chosun Manyo', just not Manyo, as 'Chosun jazz', just not jazz.

The pipe mainly takes on the main melody, taking charge of the part of the brass and the woodwind of the original songs, and the Korean zither takes on the part of the string instrument including violin, subserving the main melody or taking charge of the part of counterpoint melody responding to the main melody, and therefore overall, the Korean instruments are well harmonized with the tone of the accordion keyboard, recomposing the feeling of the 1930s and 1940s more indigenously. Also, compared to the original songs which were mostly accompanied by the classic big band, the arranger's sense and wit are the highlight of the record at the aspect of the effect created by the simple orchestration - the two melody instruments of the pipe and the Korean zither, the chord of keyboard accordion, a rhythm instrument and a percussion instrument. Furthermore, the singers also make the then impression as much as possible, having a distinct singing style as if they were the singers of the 1930s and 1940s, while they sing well in a way that carries a timeless, universal conviction.

But this record leaves one thing to be desired. The most noticeable advantage of KIM Hae-song's arranging techniques is maximizing the expressive effect of playing a musical instrument most economically, but this record doesn't fully express the properties of contrast due to the limited use of the instruments. For example, in the original record, the tension and relaxation is exquisitely adjusted and the color and feature of an entire song is colorfully, by condignly employing call & response in a one-bar or by four-bar unit in the way of dividing the contrasting group of instruments into the masculine group of the brass and the feminine group of the woodwind, or of contrasting a high range of the trumpet with a low range of the contrabass or of contrasting between the tutti and solo instruments, depending on tone and range. When eight instruments are used, the original record displays an elaborate composition of the instruments as if the eight main characters cooperated closely on the stage, by dividing the musical phrases the groups of instruments play lengthily or in short, and then arranging the instruments pauselessly, differently for each phrase or combining the several numbers of cases and according a specific feature for each instrument. Thus, these movements aren't unfocussed and are used for transforming the songs of nearly tow part form which can be plain and simple into a very sophisticated and dense music. Especially when dealing with a combination of wind instruments for the big band, this record's sense of the arrangements of jazz instruments including saxophone, trumpet, piano and bass and including an appropriate use of mute is every bit as good as that of the contemporary hottest Japanese composers. But, in the record by Manyo Company, employing instruments seems to having been limited because melody instruments are two, pipe and Korean zither. When we hear all of the ten songs, this record generally has restrictions on the application of various instruments; only the pipe keeps playing the tonally contrasting parts of the original songs due to the mutually give-and-take of the brass and the woodwind by the two-bar unit (eg. the prelude of 'Thrilled Era'), or the pipe and the Korean zither do give-and-take but the volume of the latter is too weak to have the effect of call & response of the original songs. The more diverse and large organized groups of instruments must be present in order to provide the subtlety of arranging through the contrast of voice tone or range, but there seems to be a limit to the groups of instruments selected by Manyo Company.

Lastly, it is the only flaw in this record that the important part of the feature of the melodic rhythm of the song <Blue dream in a coffee shop> has been overlooked. The song is the first masterpiece in which blues scale and blue note are properly used in the Korean history of popular music. According to the music made from me hearing its melody, the original song sung by LEE Nan-young is as follows:

Of the melody of the song, the blue note is evidently operated in the 4th bar. The c# note, which corresponds to the third note of the scale, in the 3rd-4th bars is singing as C natural in the 14th bar. Accordingly, also for the chord, the A major 3rd is changed into the a minor 3rd in the 4th bar, major chord and minor chord being interchanged with each other. But, in the record by Manyo Company, the 3rd-4th bars are singing just as C# note and the A minor 3rd is accompanied. In the 5th bar, the three notes of blue note are singing as natural note and flat, and this brings about the results of lowering musical charm and tension, due to weakening the feel of blues melody which would be intensively shown in the first four bars, and due to the mechanical juxtaposition consisting of 4 measures of major and then 4 measures of minor. This writer hopes that, for this part, the music will be made again from hearing its melody and complemented la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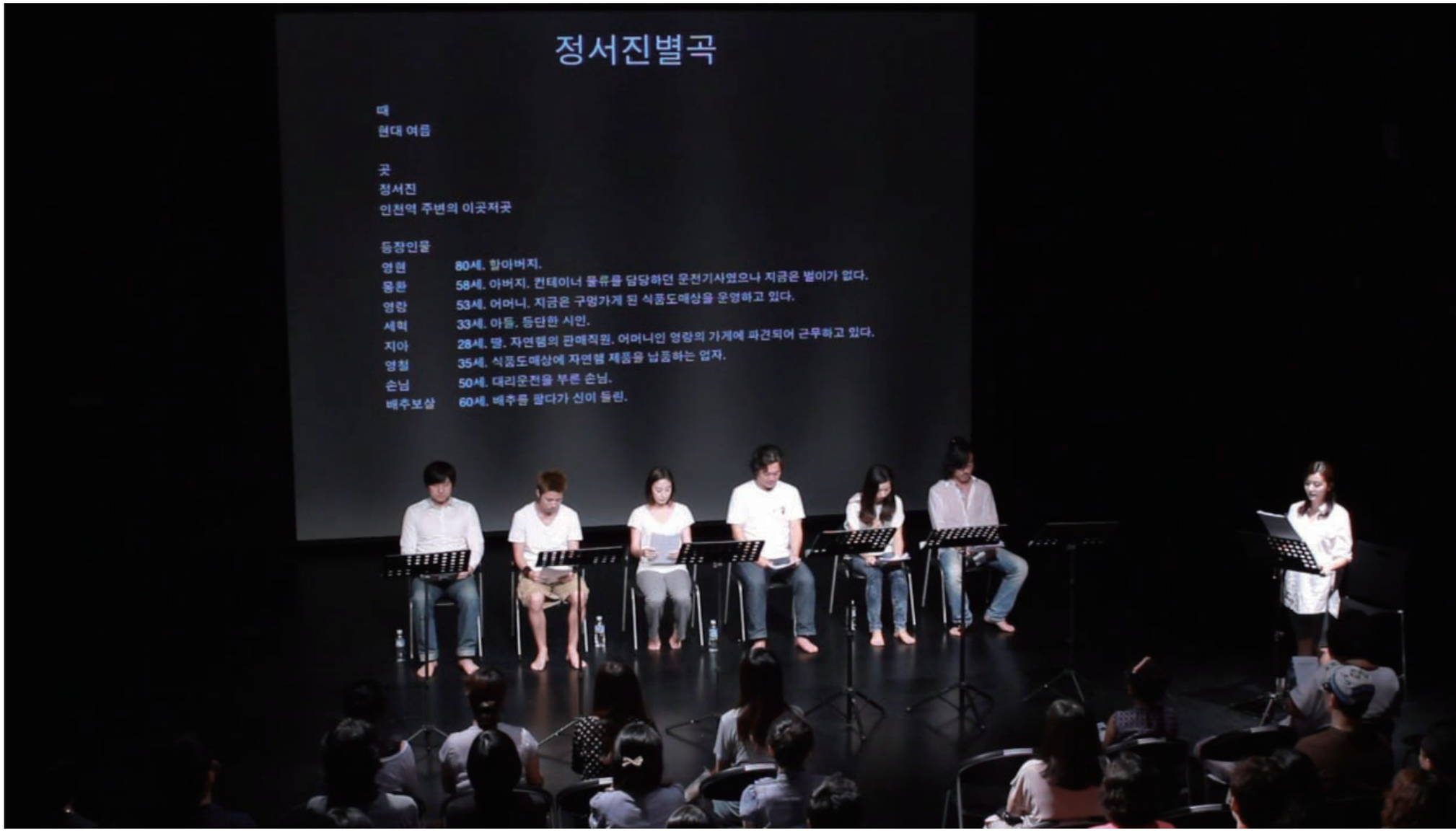
This writer expects that this record produced by Manyo Company will be widely known and the accompanying performance will be activated, and so the public will enjoy them.

* LEE So-young : A music critic, She was a musicologist and director of Arts Healing Center at Myongji Hospital, Kwandong Medical College. She has served as a research professor at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Graduated from College of Music and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finished the course of Doctor of Literature (majored in Musicology) at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Authored 『I Hear Differently』, 『Music Criticism by LEE So-young - Survival & Freedom』, 『Beyond the Orientalism Internalized in Korean Music』 and several papers.

신재훈

SHIN Jaehoon

창작희곡 무대독회-정서진 별곡 Creative play a stage reading-Jeongseojin new tune
신재훈 연출 Directed SHIN Jaehoon
Incheon Art Platform Building C Theater 2013



창작희곡 무대독회-정서진 별곡 Creative play a stage reading-Jeongseojin new tune
신재훈 연출 Directed SHIN Jaehoon
Incheon Art Platform Exhibition installation view 2013

우리가 누구를 믿겠니 Who in the world can we believe?
신재훈 작·연출 Directed SHIN Jaehoon
Play laboratory Hyehwa-dong-1 2012

바투 But:too
신재훈 연출 Directed SHIN Jaehoon
Seoul Namsan Traditional Theater 2012

'가족'이라는 설계도

김해진(플랫폼 수상자)

* 본문에서 ' '는 작품의 대사 혹은 지문.

해가 진다. 가게는 텅 비고 아버지는 늙었다. 그 앞에서 몽환은 목을 매달거나 하늘공원에서 몸을 던지려 하지만 결국 제자리다. 정동진이 아니라 정서진, 그곳의 인물들은 스러져가는 해를 닮았거나 피어오르는 담배 연기를 닮았다.

플랫폼 쇼케이스에서 무대 독회로 만난 〈정서진별곡〉은 인천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때 인천은 배경이자 인물이 된다. 인천의 쇠락해가는 공간과 어느 가족의 이야기가 겹쳐지는데 인물들은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꾸만 주변부로 미끄러진다. 작가이자 연출가인 신재훈은 할아버지 영현, 아버지 몽환과 어머니 영랑, 아들 세혁과 딸 지아로 가족을 구성하고 여러 에피소드를 통해 각자의 속내를 드러낸다. 영현은 뒷방 늙은이가 된 자신의 처지가 서럽고, 영랑은 세상물정 모르는 남편이 밉고, 몽환은 가족이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아 화가 나고, 세혁은 시를 쓰지만 생활이 어렵고, 지아는 잘 안 팔리는 소세지를 붙들고 산다. 여기에 유통업에 휜한 영철과 대리운전을 부른 손님, 배추보살을 배치해 가족이 겪는 어려움을 구체화한다.

몽환은 정서진 유원지 개장에 맞춰 새롭게 식품 유통업을 시작하려 하지만 현실에 맞지 않는 계획 때문에 가족은 그를 외면한다. 기운 없이 집에 돌아와 늙은 아버지 영현에게 목이 막혀 죽으라는 듯 꾸역꾸역 밥을 먹이는 몽환은 어쩌면 아버지가 미운 게 아닐 수도 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를 아버지에게 투사하는 이 인물에게 관객은 마음이 쓰인다. 마찬가지로 세혁도 아버지 몽환이 밉다. 미움과 분노가 3대에 이르는 것이다. 〈정서진별곡〉이 에피소드식 구성인데도 불구하고 극이 절정에 이르는 건 이야기의 기저에 흐르던 남자들의 좌절감이 폭발하기 때문이다. '제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라는 몽환의 대사와 '목을 움켜쥐고 구르'다가 '간신히 숨이 트이는' 영현의 모습은 배우들이 제자리에 서서 연기하는 것만으로도 강렬했으니 무대에서 어떻게 펼쳐질지가 궁금하다. 애증이 짙게 밴 장면이다.

한 때 개항장이었던 인천의 모습은 극 안에서 가족을 힘겹게 먹여 살리는 유통업의 기능으로 바뀐다. 바다였지만 길이 된 곳에서 인물들은 허우적댄다. 살아가는 곳이 사는 이를 장악한다. 사실 '가족'은 연극에서 흔한 소재이지만 그 안에 어떤 사회상을 담느냐에 따라 질감을 달리한다. 신재훈이 인천의 이야기를 발굴해냈다는 점이 반가운 이유는 이 가족이 살아가는 공간이 매우 구체적이면서 동시에 관객들에게 공감을 불러 일으키는 저마다의 공간이 되기 때문이다. 독회에서는 이야기의 배경이 되었던 실제 풍경을 무대 뒷벽에 비춰서 현실과 연극의 관계를 더욱 다정하게 만들고 관객들은 작품과 이미지가 엮이는 호흡에 동참한다. 분란을 함께 거친 가족의 모습을 노을이 지는 풍경으로 마무리하고 연이어 애정 어린 시선으로 찍은 사진을 보여주었던 이 날의 독회. 누군가에게는 노을처럼 물드는 이야기였고 또 누군가에게는 다음과 같은 질문이 되었다.

"가족이 꼭 지켜져야 하나요?"

독회가 끝난 후 관객과의 대화 시간에 나온 질문이다. 우울할 줄 알고 까만 옷을 입고 왔다는 관객도 있었다. 가족 서사에 대한 비판적 시선을 기대하는 반응이었는데 작가는 "이렇게라도 긍정하지 않으면 또 무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그런데 여기서 가족에 대한 작가의 태도를 좀 더 읽어볼 수 있는 작품 〈우리가 누구를 믿겠니〉(신재훈 작 · 연출, 극단 작은방, 2011.9.30~10.16. 다리 CY씨어터. 필자는 대본으로 접했음을 밝힌다)를 함께 들여다보고 싶다. 제목만 봐도 웃음이 터지는 이 작품은 아버지와 큰아들이 함께 사는 집에 작은 아들이 결혼할 여자를 인사차 데려오면서 벌어지는 사건을 그렸는데, 필리핀에서 시집 온 큰아들의 처가 김치냉장고에서 죽은 채 발견되면서 화기애애하던 가족의 분위기가 점차 험악해진다. 작가는 김치냉장고 속의 사정을 비교적 일찍 터뜨리고 이후 큰아들이 팬티만 입고 진상을 부리기까지의 과정을 보여준 후 징글징글한 이 가족의 굴레에 또 한 명의 식구(며느리)가 편입되는 상황을 그린다.

〈우리가 누구를 믿겠니〉에서 아버지는 '그래도 나중엔 가족밖에 없'다고 말하고 작은 아들은 '사랑해'라며 여자를 '당겨 안는다'. 작은 아들이 결국 배 다른 형의 죄를 묵인하기로 한 것은 가족의 흉이 자신의 흉이 될까봐서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은 가족의 허물 안에 발을 담그는 것으로 본인의 체면을 지키려 하는 것이다. 시체가 든 가방을 옆에 두고 다 함께 기도를 하는 장면은 또 어떤가. 작은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마다 실제 아버지는 자신을 부르는 줄 알고 눈을 떴다가 감는다.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이는 실제 아버지가 아니다. 또 이 작품은 '다문화 가정'이라는 일견 공평하고 평화로워 보이는 말 뒤에 숨은 균열을 들여다본다. '별 볼일 없이' 사는 이 가족이 어긋난 관계와 과오를 징그러운 포옹으로 바꾸는 모습은 그래서 웃을 수만은 없는 코미디가 된다.

〈정서진별곡〉에도 무력한 아버지는 빠지지 않는다. 실제로 무대에서는 불릴 일이 없지만 대본상 이름은 '몽환'인 아버지. 현실이 아닌 곳에서 사는 듯한 그는 가장으로서 인정받고 싶고 또 한편으로는 부모 덕을 보고 싶다. 자살 시도에는 가족들에게 시위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맡고 있는 어머니 영랑에게 그것은 '어리광'이다. 영랑이 시름을 가득 지고서도 가족을 보살피는 모습에서 이 시대 모성의 고단함을 본다. '변변치 않게' 살면서도 외로움을 진득한 사랑으로 바꾸는 이들에게 가족은 밉지만 부정할 수 없는 둥지 같은 것이다. 가족단위마저 처절하게 붕괴되어 가는 지금의 한국사회에서 신재훈이 희곡을 통해 설계한 가족은 발악하고 위로하고, 우스꽝스럽게 서로에게 문대며 살아간다. 그리고 두 작품의 공통점은 갈등 속에서도 가족이 와해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신재훈에게서 가족은 지켜져야 하는 것이라기보다 이렇게밖에 남아있지 못한 것으로 채집된다.

삶은 어렵고 끝까지 버티고 살아내야 한다는 공동체의 숙명은 삶의 즐거움을 잊은 지 오래다. 해가 매일 뜨고 지는 것처럼 인물들은 그래도 살아간다. 그런데 이 고집스러우면서도 고요한 긍정이 연극과 만날 적에 어떤 극성(劇性)이 생겨나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해보기를 조심스레 제안한다. 가족의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무엇일까? 적은 누구인가 혹은 무엇인가. 대사와 매 상황은 구체적이지만 극 전체를 관통하는 사건은 희미하다. 현재 희곡이 가지는 구성만을 놓고 보았을 때는 무대에서 추진력을 가질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관련해서 위에서 언급한 남자들의 좌절감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어떨까 생각해본다. 독회에서는 할아버지 영현이 각 에피소드의 사이에서 내레이션하듯 거닐면 어떻겠냐는 제안이 나오기도 했다.

물론 공연의 형태는 다양하고 어떻게 연출하느냐에 따라 이 희곡은 또 다른 씨앗이 될 것이다. 그 가능성은 이런 것이다. 시인 세혁은 대리운전을 부른 손님의 희롱에 급브레이크를 밟는다. 작가는 젊은 시인의 열패감을 들여다본다. 가족이어도 알 수 없는, 개인의 내면에 자리한 아픔이나 괴로움을 한 장면씩 정성껏 펼쳐보이는 것. 〈정서진별곡〉이 선택한 방식이다. 지아가 세혁에게 '씨바, 어깨 좀 펴!'라고 울먹이고 영랑이 '예상하고 미리 짐작하며 살지 말고 그냥 지금을 살'라고 말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평소 듣지 못했던 저 아래 깊은 곳의 목소리일지도 모른다. 있었지만 고개를 돌렸던 풍경, 있었지만 미처 듣지 못했던 목소리. 살려내고 싶은 것과 실상 허물어져가는 것이 서로 맞부딪치는 미묘한 풍경 속에서 관객은 한편으로 무엇이 허물어져가고 무엇을 보호해야 하는가 하는 정치적이고 윤리적인 질문도 해본다.

신재훈의 이야기에서 여러 의미를 발견하려는 이 글은 그러나 이후 다시 쓰여져야 한다. 왜냐하면 무대 언어는 또 다른 것들을 생산해낼 것이기 때문이다. 성실하게 쓰인 이 작품이 무대에서 공연될 날을 기다린다.

* 김해진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연극학과 예술전문사 졸업하고, 2011년 제4회 플랫폼 공연비평상에 당선됐다. 극단 목요일오후한시 단원, 대안학교 연극강사, 컬처뉴스 공연담당 기자를 거쳤다. 논문으로 『댄스시어터의 몸 구현』, 비평글로 『소녀들이 사라져간다』, 『'중무장'한 대화가 '엉망'이 된다』, 『해방/비해방의 구별이 없는 것』, 『극장에서 나온 후』 등이 있다.

The Plan named 'Family'

KIM Hae-jin(Winner at Platform)

* A mark of ' ' in this text means the dialogue or stage direction of the work.

The sun sets. The store is empty and the father is old. Mongwhan has tried to hang himself on a tree or to throw himself at the Sky Park, but eventually he goes around in circles. The figures who live there, not in Jeongdongjin but in Jeongseojin, bear a similarity with the sun which sets or the cigarette smoke which rises.

The play <Special Tune of Jeongseojin> which we watched as a staged reading at the Showcase of Platform told the story of Incheon. Here, Incheon becomes the background and a character. The decaying place in Incheon and the story of a family overlap, and then characters are expelled to the fringes over and over again, regardless of their will. SHIN Jaehoon, a writer and director, forms a family consisting of Younghyeon, grand father, Mongwhan, father, Youngrang, mother, Sehyeok, son, and Jia, daughter, and makes them reveal their innermost feelings through several episodes. Younghyeon is sorry to being an old man isolated in a back room, Youngrang hates her husband who is a babe in the woods, Mongwhan is angry thinking his family ignores him, Sehyeok writes poems but doesn't live a stable life, and Jia lives holding sausages which don't sell well. Adding the other characters such as Youngchul who is familiar with distribution industry, a customer who has called out for a substitute driver, a Bodhisattva of napa cabbage, SHIN Jaehoon embodies all the hardship that the family is undergoing.

Mongwhan tries to start a new food distribution industry which fits with the opening of Jeongseojin amusement park, but his family disregards him because of the plan which doesn't fit into the reality. Mongwhan comes back home damply and makes Younghyeon, his old father, stuff cooked rice into his throat, as if he wanted his father to die from suffocation, but he may not hate his father. Spectators feel pathetic that this character projects anger at himself onto his father. Similarly, Sehyeok also hates Mongwhan, his father. Hatred and anger has lasted for three generations. Although the <Special Tune of Jeongseojin> consists of the episodes, the reason the play reaches its peak is that the men's frustration which lies hidden on the base of the story explodes. Mongwhan's dialogue of 'Nothing goes well!' and Younghyeon's appearance of 'weltering with grasping his neck' and then of 'being able to barely breathe better' made a strong impression by just actors playing the characters with standing in place, so we really wonder how the play would unfold on the stage. Love and hate is ingrained in this scene.

The aspect of Incheon, which was an open port once, changes into the function of distribution industry by which the character barely provides for his family in the play. The characters are floundering in the places where the sea has changed into the roads. The place where people live dominates the people who live there. The 'family' is, in fact, a common motif in the play, but the plays with the motif differ in quality, depending on what social conditions are described therein. We are glad to see that SHIN Jaehoon has unearthed the story of Incheon. That's because the place where this family lives is very concrete and evokes public sympathy. At the staged reading, SHIN makes the relationship between realites and the play more familiar by reflecting the physical landscape which is the background of the story on the back wall of the stage, and so, spectators participate in breathing where the play and the image fit together. The staged reading ended by showing the family who had gone through conflict together at the background of the sunset scenery and by showing the pictures taken through the loving gaze. It was the story which touched his or her heart like the sunset for someone and the one to throw a question for someone else.

"Does our family have to be taken care of?"

It was the question posed by one of spectators at the time of conversation with spectators after the staged reading. One spectator said she came dressed in black because she would feel melancholy due to the play. Most of spectators showed an response that they expected a critical eye on the narration of a family from the play, and the writer said he thought like this; "if we don't answer in the affirmative in this way, so what else can we do?" Then, here, the present writer wants to look into the play <Who can we believe?> (written and directed by SHIN Jaehoon, played by Small Room Theater Company, at Dari CY Theater, 2011.9.30.~10.16; the present writer has known the play through its script) through which you can more read the writer's attitude to the family. This work, which makes you burst out laughing just looking at the title, describes a series of events which follow while the younger son brings a woman he will marry to say hello to the house where his father and eldest brother live together. After the eldest son's wife who came from the Philippines was discovered dead in the kimchi refrigerator, an amicable atmosphere of the family became increasingly tougher. The writer causes an incident in the kimchi refrigerator relatively early, and shows the course in which the eldest son gets to make trouble just wearing panties, and then describes the situation in which another member of family (daughter-in-law) gets involved in the restraints of the family.

In the play <Who can we believe?>, the father said, 'However, we only have our family in the end.', and his younger son embraces his marriage partner, saying 'I love you!' The younger son gets to decide to connive at the crime committed by his half-brother (his eldest brother), and that's because he feels anxious about that the fault of his family becomes his own one. Ironically, these members of family try to defend their dignity by dipping their foot into the faults of their family. What about the scene where they pray together next to the suitcase with the dead body? Whenever the younger son calls God, his actual father opens his eyes and close them, knowing that his son calls himself. One who can help them is not the actual father. And this play looks into the gaps behind the word named 'multi-cultural families' that seems fair and peaceful at first glance. These members of family who live 'scarcely meeting each other' change their troubled relationships and mistakes into the creepy hug, and then this play becomes a black comedy.

Also in the play <Special Tune of Jeongseojin> appears a helpless father. The father's name, which isn't actually called on the stage, is 'Mongwhan' on the script. He who seems to live out of realities wants to be recognized as a patriarch and to receive help from his parents. In his suicide attempt, there is intent to complain to his members of family. But it is 'behaving like a baby' to Youngrang, his wife, who actually plays a role of patriarch. You see the exhausting days of motherhood in this era through Youngrang who takes care of her family even though she is very anxious about the future of her family. For those who are 'poor' but change loneliness into patient love, the members of family are like a nest that can't be denied even though they hate each other. The members of family SHIN Jaehoon have planned through the two plays, in Korean current society where even the unit of family is drastically collapsing, live with becoming violent in desperation, comforting each other, ridiculously depending on each other. And the plays have something in common with that the family doesn't collapse even in conflict. For SHIN Jaehoon, the family is something that has nothing to do but remain in this way rather than something that must be protected.

We've forgotten about the joy of life for a long time due to the fate of the community that life is difficult and that we should hold on to the last to survive. But, just like that the sun rises and sets everyday, people continue to live. Well, this writer suggests carefully that we will a little more think of which polarity would occur when this stubborn and silent affirmation meets with the play. What's happening outside of the family? Who or what is enemy? Every situation and dialogue is specific but the incident that penetrates the entire play is blurred. Judging from the plot of this play,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e play could have momentum on the stage. This writer also wonders why the director doesn't try to look into the story centering on the men's frustration, mentioned above. At the staged reading, it was suggested that Younghyeon, grandfather, would do better to walking as if he had done narration in the intervals of each episode.

The forms of performance are, of course, diverse, and this play will be another seed depending on the method of directing. The possibility is like as follows. Sehyeok, a poet, slams on the brakes, when he was taunted by a client who called a chauffeur service. The writer looks into the young poet's sense of defeat and inferiority. To display the pain and anguish in the inside of an individual, which his or her family wouldn't know, scene by scene, with the writer-director's utmost sincerity is the method the play <Special Tune of Jeongseojin> has selected. 'Oh, shit, straighten up your shoulders!', which Jia tells Sehyeok with being about to cry, and 'Don't live with anticipating and foreseeing, and just live now!', which Youngrang says are maybe the voice heard from deep within our hearts which we can't usually hear. The scenery which has been beside us but we have looked away, and the voice which has been inside us but we have never heard. In front of the delicate scenery in which the things we want to restore collide with the things that are tearing down, spectators ask themselves political and ethical questions; what is tearing down and what should be protected?

This article through which this writer tries to discover several meanings in the story by SHIN Jaehoon has to be rewritten later. That's because stage language will produce the other things. This writer looks forward to the time when this sincerely written play will be performed on the stage.

* KIM Hae-jin Graduated from the Arts Professional's Degree at the Dept. of Theatre Studies, Drama School, The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and won the 4th Platform's Performance Criticism Awards in 2011. He worked as a member of Thursday 1 PM Theater Company, a drama instructor at an alternative school and a performance editor at Culture News. Wrote a thesis 『Embodying the body of dance theater』, and did critiques including 『Girls are Disappearing』, 『'Armed' Dialogue becomes a 'Mess'』, 『Without Distinction of Liberation/Non-Liberation』, 『After coming out of the Thea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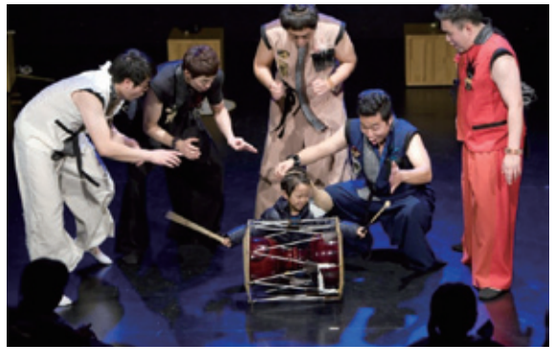
연희컴퍼니 유희

Yeonhee Company U-hee

흑부리영감 The wenny old man
연출 이성재 Directed LEE Sung-jae
Incheon Art Platform Building C Theater 2012

흑부리영감 The wenny old man
연출 이성재 Directed LEE Sung-jae
Incheon Art Platform Building C Theater 2012

퍼니도깨비와 미스터혹부리 Funny goblin and Mr.wenny man
윤중강 연출 Directed YOON Jung-kang
Incheon Art Platform Building C Theater 2013



장구를 다양하게 활용한 〈혹부리 영감〉

현경채(음악평론가)

창작 연희극 〈혹부리 영감〉은 인천아트플랫폼에서 8월 26일 공연분야 입주 작가들이 상반기 동안 진행한 창작활동 결과물을 선보이는 자리에서 발표된 작품이다. 이 작품은 전통연희 종목들을 종합적으로, 나열식으로 보여주는 창작방식에서 탈피해 한 가지 연희를 집중적으로 연구하여 창작에 도입하는 방식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흥미 있었다. 이번에 집중적으로 보여준 것은 장구였다. 장구는 거대한 나무로 변신한 무대 구조물이 있었으며, 도끼를 들고 등장한 혹부리 영감의 도끼질로 나무는 무너져 장구로 변신하는 것은 기발한 아이디어 였다. 혹부리 영감에게 장구는 아주 중요한 매개였다. 영감의 장구연주에 반한 도깨비들은 연주력이 혹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거금을 주고 혹을 사고 열심히 장구치는 것을 연마하는 도깨비..... 등. 본격적인 설장구 연주라도 한바탕 기대 했는데 그것이 없었던 점이 아쉬웠지만 원시인에서 도깨비로 발전된 연희컴퍼니 유희의 모습과 여러 타악기 중에서 장구를 중심에 놓고 공연을 기획했다는 점에서 절반은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그들의 의도가 좋았고, 다음엔 어떤 악기가 주인공이 될까? 하는 기대감을 갖게 했다.

한국의 전래동화가 브랜드 공연으로

연희컴퍼니 유희의 창작연희극 〈혹부리영감〉은 관람 내내 완성도 면에서 상당히 거칠다는 생각을 떨치 수 없었던 작품이다. 하지만 '혹 떼러 갔다 혹 붙여 온다'는 속담이 나오게 된 전래동화 〈혹부리영감〉을 '도깨비 설화'와 접목해 재미를 한층 더한 작품이었다는 점에서 기획적인 면에서 볼 때 무한의 가능성을 기대하게 하는 작품이다. 디즈니사의 애니메이션에도 유명한 동화가 중요한 스토리 보드를 제공하고 전 세계의 관객이 매해 여름에 출시되는 애니메이션 영화를 기다린다. '라이온킹', '뮤란' 등이 성공 사례이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창작연희극 〈혹부리영감〉은 연희컴퍼니 유희가 장기로 하는 사물놀이 · 구음 등을 더해 새로운 전통연희퍼포먼스를 만들어 냈다는 점에서 기대감이 크다. 동화와 전통음악을 접목시킨 새로운 개념의 공연작품은 문화의 시장에서 커다란 영향력을 쉽게 발휘할 수 있다는 장점이다.

그러나 작품의 대상층을 고려해 본다면, 좀 더 수정이 필요하다. 이 작품은 '어린이 대상'으로 해서 작품을 만들었다는 것은 알겠으나, 그렇다면 아동 대상의 연희적 소재의 수준을 어디에 놓고 기획되었는지 궁금하다. 일단 어린이대상을 염두에 둔다면, 전체적인 색감과 도깨비들의 의상, 그리고 조명적인 측면도 그렇다. 조명이 너무 어둡고, 연결과 극 흐름의 템포도 아동과 맞지 않아 심각해 보인다. 더불어서 '연희'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뭔가 제대로 된 아이들과의 교감의 매체가 부족하다. 아이들과 교감을 주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완성도면에서도 많은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 어린이용 공연이 꼭 어린이만 보러 오는 것은 아니다. 부모도 보호자로서 함께 관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어린이용 공연은 어른들이 봐도 흥미롭고 재미있다. 잘된 작품은 누가 봐도 재미있다. 이것은 치밀하게 기획되고,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야 하며, 그에 합당하는 시간과 돈과 노력이 투자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번 작품에 부족했던 것이 무엇인지는 인천아트플랫폼과 연희컴퍼니 유희도 모두 알고 있는 부분이다.

창작의 열정만이 살 길이다

연희컴퍼니 유희[U-흠]는 새로운 한국적 공연물을 창조하기 위해 젊은 전통연희인들이 모여 만든 단체다. 한때 가장 가까운 놀이였던 연희를 현대에 맞는 공연물로 재창조해내는 것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연희컴퍼니 유희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연희과 출신들로 구성된 연희 그룹이다. 연희란 탈춤.풍물. 굿을 포함한 가무악(歌舞樂)이 결합된 한국적 공연예술을 의미한다. 김덕수 · 안숙선 · 윤중강의 특별한 관심을 받았다는 것이 원인이겠지만, 인천아트플랫홈에 상주작가로 선정된 2011년부터 최근 몇 년동안 급성장 했고, 다양한 무대에서 만날 수 있었다. 김덕수명인의 타악공연을 비롯하여, 안숙선의 '소리로 가는 여행', 한옥마을 상설공연 '비나소리' 공연, 국립극장 여우락 페스티벌 바람곶 게스트, 천차만별 콘서트 공연, 현대무용가 안은미의 수원 화성 행궁 '댄싱마마 프로젝트'에 참여 했고, 고양호수예술축제에서 입상하면서 고양신한류예술단에 합류하게 되었고, 세계사물놀이 겨루기 대회 대학, 일반부 최우수상 으뜸상(창작)을 수상했다.

사랑과 관심을 받으며 다양한 무대에서 만날 수 있게 된 것은 아주 반가운 일이다. 탄력 받은 김에 세계로도 쭉쭉 뻗어 나가기를 기원한다. 하지만 바쁜 공연 일정으로 혹여 '한국적 공연물을 창조해내기 위해 모인 그룹'이라는 초심을 잃지 않을까 걱정된다.

오색의 공, 과유불급

'플랫폼 쇼케이스'에서의 〈혹부리 영감〉은 제작 기간이 아주 짧았다고 전해 들었다. 전래 동화에 등장하는 혹부리 영감을 주인공으로 했고, 원시인 하쇼(Hot Show)에서 보여준 원시인을 도깨비로 전환했다. 원시인은 지난해 국립국악원 공감청년 공연에 선발되어 보여줬던 것의 변화와 발전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창작연희를 선보이는 몇 안되는 연희팀 '유희' 전통음악의 현대적 창작을 추구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여타 단체와 같지만, 그 표현 방법에 있어서는 기발하고 제작 속도도 빠르다. 스토리텔링 기법도, 현대적인 표현기법도, 유니크한 아이디어를 담아내는 기법도 지금까지는 좋은 편이다. 이 작품의 성공은 배우의 힘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더욱 핸섬해진 배우들과 무대 장악력이 아주 좋은 김지훈(혹부리)이 있었다.

창작연희를 선보이는 팀답게 소규모 플로어에 높은 천장의 아트 플랫홈 C동을 수직적으로 활용하여 무대를 꾸몄고, 능동적인 관객 참여를 위해 노력한 점이 강점이었다. 지난번에 이어 전통놀이 문화를 공연 속으로 끌어들여 관객의 참여를 유도하였다. 원시인에서 도깨비러 변신한 단원들의 장구합주가 정교해 졌고, 사물놀이 장단과 분장과 의상도 지난 공연보다 한층 성숙해 졌으나, 유희팀의 연기는 앞으로 좀 더 연습이 필요하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사실 연희의 끝은 언제나 모든 사람들이 흥겹게 어우러지는 화합이 장이 연출된다. 지난 2월에 발표한 〈원시인 하쇼(Hot Show)〉에서도 마지막에 공을 던지며 관객과 연희팀의 함께하는 것이 연출되었다. 이게 연희의 특성이요 강점일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고정관념일 수 있다. 또한 공을 사용한 대동단결은 지난해 국립부산국악원의 음악극 〈부산아라〉에서도 유희팀들에 의해 연출되었고, 〈원시인 하쇼(Hot Show)〉에 이어 이번 8월 공연 '플랫폼 쇼케이스'에서의 〈혹부리 영감〉에서도 등장했다. 연출의 의도를 알 수 없었고, 흐름도 맞지 않았던 공을 사용한 퍼포먼스는 어쩌면 유희팀이 현대무용가 안은미의 작품에 참여하면서부터 처음에는 안은미에게 배운 것(?)이고, 이후엔 음악극 〈부산아라〉에서 연출을 맡은 윤중강의 영향으로 보인다. 〈원시인 하쇼(Hot Show)〉에서는 공연 속에 스며들었던 오색공을 이용한 퍼포먼스가 〈혹부리 영감〉에서는 다소 무리 있는 연결이었고, 마무리의 연출도 세련되지 못한 것으로 새로운 수습이 꼭 필요할 것이다.

연출의 중요성

그래도 이 팀의 강점은 아이들이 아주 좋아한다는 것이다. 처음의 흡입력을 어떻게 지속시킬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장면 하나 하나의 완성도는 어느 정도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연결시키는 스킬이나 센스는 없었다. 단순한 나열을 작품으로 받아들이기엔 관객들은 때론 한순간 아주 냉정해지기도 한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을 전달하고 있기는 한데, 미안하지만 전달이 잘 안되더라는 것이다. 대사 없이 진행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다.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좀 더 집요한 연구와 철학이 필요하겠고, 더 적극적인 극 전개도 아쉽다.

전통연희란 무궁무진한 한국의 전통예술을 아우른다는 것이고, 그들이 젊은 연희자이기 때문에 무한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고 아직까지 이를 바탕으로 한 창작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연희가 가진 큰 매력 중에 하나이다. 이번 공연이 쇼케이스이고 초연이라서 앞으로 수정 보완하여 가능하고, 충분히 한국을 대표하는 창작 연희극으로서의 가능성이 이들에게 있다고 확신한다. 문제는 집념과 시간이다.

연출과 대본을 맡은 이성재는 유희의 단원으로 이번 작품으로 처음으로 연출로 입봉한 것이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칭찬 받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긴 안목으로 볼 때 이들이 한국을 넘어 저 넓은 세계를 향해 출발을 계획하고 있다면, 무대 구성과 소품, 의상, 연출, 기획 등도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할 것이다.

* 현경채는 서울대학교에서 국악작곡과 이론을 전공했고, 대만에서 민족음악학으로 석사학위를, 한양대학교에서 음악인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대학에서는 한국음악과 동양음악 전문가로 강의를 하고 있다. KBS 방송국에서 국악공연 리뷰를 소개하다가 자연스럽게 음악평론가로 데뷔한 공연전문가로서 현재 〈FM국악당〉 진행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국민일보』, 『경인일보』, 『월간 객석』 등에 상당수의 비평문을 게재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은 공연현장과 가깝게 했고, 진정한 공연 전문가로 확고하게 했다. 1982년 동아음악콩쿠르 작곡상을 수상했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통예술위원 역임했으며, 현재는 영남대학교 겸임교수이며, 예술의전당 자문위원이다.

A Performance of <The Old Man with a Lump on his Cheek> on the Janggu (a Traditional Korean Double-headed Drum)

HYUN Kyung-chae(Music Critic)

Traditional musical theater piece <The Old Man with a Lump on his Cheek> is the fruit of the company's creative exertions in the first half of its year as writer-in-residence at the Incheon Art Platform, which began on August 26th. In it, the group does away with the traditional interpretive method of synthesizing and enumerating the story's main events and has, in an arresting approach, instead sought to express the tale via a single creative focus. This single creative focus is the janggu. A column of the traditional percussion instruments forms a tree, and it is this tree that forms the single dominating element of the stage set. The idea is that the old man with the lump on his cheek enters the stage carrying an axe with which he then sets about striking at the tree in order to excavate and liberate its drum components. The janggu becomes an instrument of paramount importance to the old man with the lump in his cheek. The goblin from the folk tale hears the percussive music the old man subsequently plays and believes the source of his musical abilities to be the lump in his cheek. The goblin gives the old man a fortune for the lump in his cheek and, armed with the secret to musical achievement, sets about vigorously practicing the janggu. It was a minor disappointment, in having expected the playing of the janggu. Nevertheless, a limited success can be ascribed to U-hee's performance choreography from the primitive man to the goblin in focusing solely on the janggu. The intention is creatively interesting and it leaves the observer wondering which instrument will become the hero of their next work.

Branding Korea's Traditional Tales

U-hee's interpretation and re-realization of <The Old Man with a Lump on his Cheek> will certainly make the audience think. The tale, which teaches the proverbial lesson that you should be careful what you wish for (the goblin, realizing his error, simply passes on his useless lump to an old man who already has one), is one of a number of goblin fables drawn from children's fairy tales which have an almost limitless potential for re-exploration. It is traditional fairy tales that have provided Disney with so many of the stories that cinemagoers across the world enjoy each summer as they take their cinema seats to watch The Lion King, Mulan, and many others. Set in this context, our expectations for U-hee's drum and sound performance of <The Old Man with a Lump on his Cheek> might be large. In grafting traditional music onto ancient fables to produce a new concept in performance art, U-hee is well positioned to exert considerable influence on the cultural market.

But considering the target audience, some modifications would appear to be in order. <The Old Man with a Lump on his Cheek> is targeted at children, which raises the issue of how to draw up and implement performative subject material suitable to a theater audience of youngsters. If the piece is put together with children in mind, then the mind of a child - its appreciation of color, its eye for the goblin's costume, and its fascination with lighting - must be a priority consideration. Here, however, we have a dark stage environment and a tempo of narrative ebb and flow off kilter with the attentive habits of its intended audience. Theatrically speaking, it is also insufficiently engaged with the current generation's relationship to media. Not mining this relationship must count as a missed opportunity. Some amendments to U-hee's original vision for the performance could be thought necessary. Not only children come to watch children's theater shows. It is normal for parents to chaperone their children and watch the performance also. Therefore, the show should be fun for adults, too. A good piece of children's theater is a good piece of theater for all. The piece must be expertly produced in this regard, and thus requires the participation of experts in the field. Time, money and energy must all be invested to this end. The responsibility for any deficiencies in the work therefore must be dealt with by both The Incheon Art Platform and The U-hee Yeon-hui Theatrical Company.

A Passion for Performance, a Passion for Life

U-hee has gathered together numerous bright young musical performance talents in order to create something new and uniquely Korean in the field of musical theater. The company is using traditional instruments to recreate pieces that were once very commonly performed with modern sensibility.

U-hee formed as a group at Department of Performing Arts, the Korean National University of Arts. A "Yeon-hui" means a Korean performance arts which incorporates GaMuAk(歌舞樂) including mask dance, performance of pungmul (instruments for Korean traditional percussion music), and the rituals of exorcism. They receive attention from Kim Dok-su, Ahn Suk-soen and Yoon Joong-gang, which has risen in profile since becoming a writer-in-residence at the Incheon Art Platform in 2011. Since then, U-hee has performed at numerous events. With Kim Dok-su's percussion as their basis, U-hee has undertaken Ahn Suk-seon's Travels in Sound, done regular performances of Flattering Sounds at the traditional village, taken a guest spot at the National Theater's Fox Rock Festival, performed at the Thousand Different Ways concert, participated in modern dancer Ahn Eun-mee's Suwon Hwaseong Haenggung Palace Dancing Mama Project, received prizes at the Goyang Lake Arts Festival, figured in the Goyang New Korean Wave Arts Group and at the World Samulnori (traditional Korean percussion) Convention, and been recognized with awards as innovators in the field.

The group's emergence and its positive reception are much to be welcomed. It is to be hoped that such momentum can be maintained and that U-hee go on to make a truly global impression. One also hopes that the group is able on its travels to abide by its original founding purpose, that is, as a performance company dedicated to creativity through traditional Korean dance and musical practices.

Five Colored Balls: Too Much Is as Bad as Too Little

It was mooted by some that the performance of <The Old Man with a Lump on his Cheek> at the Platform Showcase was too short. The old man with the lump in his cheek was the hero of a traditional fairy tale. Then in Primitive Man Hot Show the primitive man became a goblin. The Primitive Man showcased U-hee's changes and development since last year's performance at the National Gugak Center for Korean Traditional Performing Arts Youth Space. Like a few other groups working in the same field, U-hee seeks to modernize the creativity of traditional Korean music. The group's expression is quirky; the performance, however, is a little rushed. On the other hand, its storytelling technique, modern expression, and ability to encapsulate its unique perspectives are all good. The key to the performance's success was the energy of the actors, amongst whom the most striking was the handsome KIM Ji-hoon, a performer in full possession of the stage space.

The floor space of Platform's C stage is small and the ceiling high. U-hee has embellished it accordingly. The performance is very much geared toward audience participation. In the last part of the program, traditional culture was integrated into the performance in order to induce audience participation. The janggu ensemble was elaborately rendered as the primitive man transformed into a goblin. The drum performance and make up and costume had all matured inside of a year, but practice remains necessary to iron out the flaws.

At the climax of a traditional music performance such as this, everyone gaily comes together in conclusive harmony. In February's <Primitive Man Hot Show> balls were thrown into the audience in order to seal an emotional link with the performers. On the other hand, this maneuver could be viewed as repetitive and staid. As a gimmick to promote unity and fellow feeling, balls were similarly used in the performance of <Busan Ara> at the Busan National Gugak Center for Performing Arts last year; they were also used at the performance of <Primitive Man Hot Show> and the Platform Showcase performance of <The Old Man with a Lump on his Cheek> this August. It is difficult to ascertain the director's intention in this continual deployment of balls, and in addition to being out of sync with the tempo of the show it smacks of the influence of modern dancer Ahn Eun-mi (since whose participation balls have been used) as well as the influence of Yoon Joong-gang, who directed <Busan Ara>. Although the use of the five colored balls in <Primitive Man Hot Show> had a good effect, there was a tenuous connection in <The Man with the Lump in his Cheek>. The climax of the show requires a little more direction.

The Importance of Direction

Children are very important to U-hee's prospects. It now needs to investigate how its capacity to engage youngsters can be developed. It must harness the skill and sense to link scenes which individually may be exquisitely produced but which lack obvious overall cohesion. The average audience member is, at moments during the performance of a scene-by-scene narrative, a dispassionate observer. It must be said that the method of conveying a traditional narrative that is well-known by the audience needs work. One wonders, for instance, what the justification was for telling the story without verbal iteration. A guiding perspicacity and philosophy are essential to retelling stories.

Traditional Korean Yeon-hui productions can reinterpret countless traditional Korean art forms and performances. The possibilities when undertaken by a young, fresh performance company are similarly boundless. Therein lies the attractions and dangers for a company like U-hee. Following on from this premiere, U-hee has many opportunities to revise its interpretation. U-hee is excellently placed to do this as the definitive Korean Yon-hui company. The key is tenacity and time.

It is U-hee company member LEE Sung-jae's first time as director and script editor. He has rightly been the recipient of praise for his efforts. But if in the long term he plans to extend his range beyond Korea and out into the world beyond, he will need the expert contributions of people experienced with stage crew and prop, as well as costume and directing.

* HYUN Kyung-chae graduated in Korean Traditional Music Composition and Theory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She took a master's in folk music at Taiwan before receiving a doctorate in musical anthropology from Hanyang University. She is a university lecturer in Korean and Western music. She has appeared on KBS television as a reviewer and critic of traditional Korean music and is currently part of FM Traditional Music. She writes for the Gukmin Daily, the Gyeongin Daily, and the Monthly Review and is up-to-date with trends in modern interpretations of traditional Korean performances. Hyun Kyung-chae won the Dong-a 1982 Music Competition and is a member of the Arts Council Korea. She is an adjunct professor of Yeungnam University and a consultant on the Seoul Arts Center.

문학 · 연구 및 비평

Literature · Research, Criticism Artists

298 미즈타 사야코
MIZUTA Sayako

304 안은영
AHN En-young

310 이지현
LEE Ji-hyun

316 이 퐁/글 김용란
Leepong/ Text by KIM Yong-ran

미즈타 사야코

미즈타 사야코는 일본 큐레이터로 2011년 일본을 강타한 지진 이후에 시작한 “Voyager in Voyager out”이라는 제목의 시리즈 전시 기획연구에 깊이를 더하고자 인천아트플랫폼에 입주하였다. 지진이 발생하기 전까지 세계의 어떤 도시든 간에 거의 비슷하게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지진 이후 본인이 도쿄에 거주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도록 선택되어진 것이고 그 삶은 다른 어떤 해외의 도시 속 삶과는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후 그녀는 장소, 공간, 위치 그리고 도시에 대해서 생각했고 최근의 전시인 “Voyager in Voager out”를 기획하기에 이르게 됐다. 이 전시의 키워드는 ‘움직임’, ‘여행’, ‘이주’, ‘항해’, ‘후기 여행산업’, ‘걷기’, ‘산책’, ‘장소’, ‘전위’ 등이다. 이러한 키워드는 전시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면서 늘어나거나 서로 결합해서 결국에는 하나가 될 수도 있는 가변적인 상황이다. “Voyager in Voyager out”라는 제목으로 그동안 도쿄의 다른 공간과 다른 시간에서 4번의 전시를 했다. 인천아트플랫폼에 입주하여 다른 입주작가들과 인터뷰를 나누고 그들에 작품세계에 대해 고찰한 후, 그 결과물을 책자로 출판할 계획이며 추후 “Voyager in Voyager out” 시리즈 전시에 참여작가를 선정하여 전시를 기획할 계획이다.

Voyager in Voyager out vol.3
Toward a minor room 전시전경
Toward a minor room Exhibition view 2012

MIZUTA Sayako

Sayako MIZUTA is a curator from Japan who came to Incheon in order to put in more depth into her serial exhibition titled “Voyager in Voyager out” which began since the 2011 Earthquake in her home country. Before the earthquake, cities tend to look all alike regardless of the country. After the disaster however, she realized the reason she resides in Tokyo is because that was the given situation and such life is different from the lives of any other cities overseas. She began to contemplate on place, space and location of her city, which then resulted into her latest art series “Voyager in Voyager out”.
The keyword of her exhibition includes ‘movement’, ‘journey’,‘emigration’, ‘voyage’, ‘latter tourism Industry’, ‘walking’, ‘stroll’, ‘a place’, and ‘forward’. The keywords are quite flexible and can either continue increase in numbers or combine with each other to become one as the exhibition goes on. Under the title “Voyager in Voyager out”, the exhibition has so far been displayed four times in different space and time in Tokyo. Mizuta plans to hold interview with other incoming IAP residency artists about their art, study them and release a book. She also looks to select participating artists for “Voyager in Voyager out” down the road.

장소와 본질에 대한 재고

IAP 레지던시 프로그램 참여 기간 동안의 연구 결과 보고서

1. 서문

내가 인천아트플랫폼(Incheon Art Platform, IAP)에서 활동하는 동안 내 기대와는 달리 주요 주제에 대해 차분히 객관적으로 깊이 생각해 볼 수 없었다. 주요 주제란 내가 그 당시 막 관심을 갖게 된 장소 또는 공간 그리고 함축성을 말한다. 마지막 두 달 동안 나는 많은 곳을 다녔으며 다양한 경험을 했다. IAP 근방의 많은 곳들을 다녔으며, 화랑, 작업실과 심지어 문래 지역의 철강 주조 공장을 포함한 서울의 여러 곳을 다녀왔고, 안동하회마을을 방문 했으며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를 보기도 했다. 모든 곳 마다 내가 각 장소에서 얻을 수 있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가는 곳마다 내가 느낀 점은 이러한 나의 행동과 시각 자체가 권위와 헤게모니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로 인해 나는 공허함만 가득 앉고 여행에서 돌아왔다. 이러한 공허함은 나를 슬픔에 젖게 했다. 왜냐하면 내가 방문 했던 모든 장소들이 반드시 곰곰이 생각해야만 하는 본질과 독창성을 분명 숨기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며 그 곳에서 진리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즉, 모든 장소가 이미 진정성을 상실했다는 것이다. 이에 각 방문지에서 내가 했던 행동들은 단지 허영심을 채우려 했을 뿐이었다는 것을 걱정했다. 나는 퍼즐의 조각을 찾듯이 단지 본질의 단편들을 찾고 있었을 뿐이었다.

2. 여행과 이동

저명한 사회학자이자 페미니즘 연구가인 카렌 카플란 (Caren Kaplan)은 여행과 이동의 이면에 존재하고 있는 권위와 우세에 대한 시각을 잘 그려냈다. 대체로 문학적으로 묘사된 여행과 이동에 관한 카플란의 담론은 미국인 학자로서의 자신의 관점에 근거했기 때문에 레지던스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일시적으로 인천을 방문한 일본인 독립 큐레이터의 관점과는 달랐다. 그러나 카렌 카플란의 저서에서 제기된 많은 문제에 동의할 수 밖에 없었으며 일부는 내가 한국에 머무르고 있는 동안 깊이 생각했던 문제와 일치했다.

망명과 여행 모두 진정성을 만들어 낸다. 망명자에게 진실한 곳은 지속적으로 이동하며 타국에 있다. 여행자에게 진정성은 역시나 다른 곳에 존재하며 현재는 진실성이 없다. 망명자는 과거와의 단 한 번의 단절을 나타내는 반면에 여행자는 수 많은 경험의 틈과 단편조각을 건넌다. 기본적으로 종속된 상태에 처해 혼란스러운 망명자와 여행자는 다시는 찾을 수 없는 잃어버린 실체와 국가를 찾아 다니는 우울한 사람들을 의미한다.
(카렌 카플란, '여행에 관한 질문: 이동에 관한 포스트 모던 담화')

3. Voyager in과 Voyager out의 연속

예술 작품과 예술 활동은 항상 나에게 많은 생각할 것들을 주는 여행과 이동에 대한 비유나 언급으로 가득 차 있다. 예술가들을 비롯해 내가 갖고 있는 생각들은 "Voyager in, Voyager out"을 구상하는 영감을 주었다. "Voyager in, Voyager out"의 처음 메시지는 지금 갖고 있는 것과 달랐다. 애초에 "Voyager in, Voyager out"을 통해 내가 전달하고자 했던 바는 독창성을 잃어버린 장소였다. 예를 들어 인터넷과 교통의 발달과 함께 여행은 과거의 우리가 생각했던 여행이 아니다. 직접 가지 않아도 인터넷을 통해 볼 수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으며 심지어 여행지를 방문할 경우에도 비행기와 자동차를 타고 가기 때문에 많은 경험을 할 수도 없다. 이전에는 일본을 살기에 안전하고 안정적인 곳이라고 여겼었지만 2011년 3월 11일에 있었던 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지진 이후 일본을 떠나는 것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지난 해 한국의 경기창작센터의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때, 점차 메시지를 완성해 나가고 있었던 나의 전시 프로젝트인 "Voyager in, Voyager out"은 예술가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전달되었다. 경기창작센터의 레지던시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인천으로 발걸음을 옮겼고, 현재의 프로젝트를 지속하였다. 예술가에 대한 인터뷰와 사유는 경기창작센터가 지원한 "Voyager in, Voyager out" 관련 소책자에 자세하게 나와있다. 내가 인천에 오기 전에 처음에 가졌던 목적은 한국 예술가 연구와 대안 공간 탐색을 계속해서 해 나가는 것이었다. 그러나 프로젝트 확대 진행에 있어 어려움이 많았다. 한국의 겨울은 몹시 추웠기 때문이다. 특히나 인천은 항구 도시이기에 바다로부터 불어오는 차고 습한 바람이 뼛속까지 시리게 했으며 얼어붙은 눈이 발 밑에서 느껴졌다. 나를 힘들게 만들었던 것은 바람뿐만 아니라 추운 날씨이기도 했다. IAP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충분한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 재원을 마련해야 했다. 언어 장벽으로 인해 때때로 번역가가 필요했으나 한 사람도 찾을 수 없었다. 동일한 이유로 인해 나는 한국의 예술가와 예술 공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에도 많은 시간을 들여야 했다. 가장 안타까웠던 점은 IAP 내에도 많은 훌륭한 예술가들이 있었으나 그들을 만날 기회가 많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어려움과 문제에도 불구하고 몇몇 예술가들을 만날 수 있었으며 예술 공간들을 방문할 수 있었다. 그 후기는 다음 장에서 밝힌다.

4. 스페이스 빔 커뮤니티(Space Beam Community)

인천에 온 일본인으로서, 잘 보존되어 있는 식민지 시대의 역사적 건축물을 통해 일본의 식민주의를 마주해야만 했다. 일본의 식민 지배를 인식하게 된 이후 뒤이은 질문은 어떻게 현실을 직시해야 하는가와 인천에 어떠한 관점을 견지해야 하는 가였다. 예술가들과 예술 공간에 대한 인터뷰와 대화를 통해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게 되었다. 그 대답은 바로 "현재와 지금 이곳"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렇다고 역사를 잊거나 부정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시간의 축의 과거에 머물러 있거나 미래를 열망하기 보다는 역사의 현재 의미와 내가 있는 곳의 미래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하며 내가 있는 한국의 현대 미술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인천의 배다리 지역에 위치한 스페이스 빔(Space Beam)은 일관된 생각과 유연한 태도를 가진 보기 드문 지역 예술 공간이다. 나는 이러한 일관된 생각과 유연한 태도가 가능했던 것은 시간과 공간의 연속성을 이해하고 수용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스페이스 빔이 현재, 여기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스페이스 빔 커뮤니티 일원들은 동일한 목표를 갖고 지역성과 대중성 그리고 자율성을 되살리거나 유지하는데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그들의 예술 프로젝트는 스페이스 빔이 보존하고자 하는 것들을 파괴하려는 산업 도로 건설이나 소위 뉴타운 사업에 대한 저항과 항의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특히 나는 2007년 "City-Normad2-Discovery"라는 스페이스 빔의 프로젝트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우리는 스페이스 빔을 인천 지역의 사정과 지역 문제 또는 상황에 대한 견해를 갖고 운영한다. 우리는 예술은 지역에 수평적으로 근간을 두고 있다는 생각을 전하고 싶다. 산업 발전이 가져다 준 혜택과 권한 대신에 우리의 일상생활에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것을 보고 싶다."라고 민운기씨는 인터뷰했으며, 나는 그의 말에 강한 인상을 받았다.

지역성을 보존하고자 하는 스페이스 빔의 노력, 그리고 스페이스 빔과 배다리의 상황에 관한 인터뷰는 후에 일본에 소개될 것이다.

5. 유네스코 에이 포트(Unesco A. poRT)

아티스트 이탈이 운영하는 유네스코 에이 포트(Unesco A. poRT)는 유네스코 에이 포트의 중심에 있다. 신포 시장 뒷 골목에 자리잡은 유네스코 에이 포트는 그의 단순한 목표에 근간하여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탈은 "유네스코 에이 포트는 다른 공간과 다른 나라를 연결해주는 플랫폼 또는 허브 역할을 하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확실히, 유네스코 에이 포트는 아시아의 예술 네트워크를 형성했으며 이러한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개발했고 진행했다. "우리는 유네스코 에이 포트를 '대안 공간'으로 지

Reconsidering Place and Essence

Report on the Results of Research during Residency in the IAP

1. Preface

Unlike my anticipation, during my stay at Incheon Art Platform, I couldn't calmly and objectively speculate on the main theme, which I became quite interested in recently, place – or space – and it's implication. I have been to a lot of places and experienced many things for the last 2 month: For sure, I've been to many places near IAP, I've had several short visits to Seoul including galleries, studios and even steel factories in Mullae area, I've had a short tour to Andong Hahoe Folk Village, and I've also seen petroglyph carved on Bangudae in Daegok-Ri. At every visit, I was focused on what can I acquire from each place. But what I had sensed wherever I went, were that these behaviors and perspectives themselves included authority and hegemony, and I came back with my mind filled with a sense of emptiness. It saddened me as I felt that the places that I'd been to surely had hidden essence and originality, which must contemplate carefully, I could not find truth in these places. In other words, they've already lost their authenticity. Accordingly, I was worried that what I had done in each place was nothing but filling in my vanity. Maybe I was just looking for fragments of essence like looking for pieces of jigsaw puzzle.

2. Travel & Displacement

Caren Kaplan, a well-known sociologist and researcher of feminism, well-depicts perspectives of authority and dominancy which lie behind "travel" and "displacement" objectively. Obviously, Kaplan's discourse on the "travel" and "displacement", mainly presented in the form of literature, was based on her own standpoint as an American scholar, so that it must be different from the perspective of a Japanese independent curator, temporarily visiting Incheon for a residency program, but I couldn't help but to agree that among many issued, raised by her in her book, some are corresponding to the issues that I have considered while staying in Korea.

Both exile and tourism constructs authenticities. For the exile, the site of the authentic is continually displaced, located in another country. For the tourist, authenticity is elsewhere as well, and the present is inauthentic. The figure of exile represents a single break with the past, while the tourist negotiates numerous rifts and fragmentations of experience. Both figures, when mystified into primary subject positions, represent melancholic seekers after a lost substance or unity that can never be attained.
(Caren Kaplan, "Questions of Travel: Postmodern Discourses of Displacement")

3. Continuation of "Voyager in, Voyager out"

Art works and artists' activities are filled with metaphors or references of "travel" and "displacement" which always provided me with a lot to think about. These thoughts, which I had with artists, inspired me to design "Voyager in, Voyager out". But the initial message of "Voyager in, Voyager out" was different from what I have now. In the beginning, what I wanted to deliver via "Voyager in, Voyager out" was "the place which lost its originality". For instance, with the advance of the Internet and transportation, travel is not really the travel that we had in the past. We can substantially see and experience via Internet without visiting places physically, and even when we visit, we cannot experience much as we sit in airplane and car. But after the catastrophic earthquake on the 11th day of March 2011, I started thinking about Diaspora from Japan, while Japan had been considered as a safe and stable place to live in before that.

When I joined the artists-in-residence programme of Gyeonggi Creation Center (GCC) in Korea last summer, my exhibition project "Voyager in Voyager out" whose message was gradually completed, was delivered via the interviews with artists. This participation in the artist-in-residence programme of GCC initiated me to come to Incheon and continue my current project. The interviews of artists and the reason were suggested in details in my booklet, "Voyager in, Voyager out in Korea", supported by GCC. The aim which I had initially before coming to Incheon was to continue researching Korean artists and alternative spaces. I've had a lot of difficulties in executing this extended project as, for instance, this winter in Korea was severe. Particularly, as Incheon is a port town, the cold and humid wind from the sea chilled me to the bones, and the frozen snow was felt underneath my feet. But it was not only wind and cold weather which gave me some difficulties. As I couldn't get sufficient financial supports from IAP or any other organisations, I had to fund myself. Due to language barrier, I needed translators from time to time, but I couldn't find any. For the same reason, I also spent a lot of time collecting information on artists and art spaces in Korea. But what I regret most was that I knew there were many of good artists in IAP, but I couldn't have a chance to meet them much.

With all the difficulties and problems, I was able to meet several artists and visited art spaces, and the results are as follow.

4. Space Beam Community

As a Japanese person coming to Incheon, I had to face with the Japanese Colonialism via well-preserved historical architecture of colonial style. The question came after the realisation was how I should face with the reality and what perspective I may have with Incheon. I found a hint of answer to this question from my interviews and dialogues with artists and alternative spaces: I must focus on "now and here". It doesn't mean that I should forget about or deny the history. It rather means that I must focus more on the current implication of the history and the future on the place where I am, and I must focus more on contemporary art of the place where I am, instead of lingering on or longing for "the past and the future" on the time axis.

Space Beam, located in Baedari area in East Incheon, is a rare community art space with the idea of consistent thinking and flexible attitude, which, I believe, was possible because Space Beam understood and accepted the concept of the space-time continuum. I believe that's why Space Beam exists now and here.

It is obvious that the members of Space Beam Community share the same goal and make a strong effort to revive or maintain locality, publicity and autonomy. Their art projects are directly connected to their resistance and the protest against construction of an industrial road or so-called, Newtown Project, which are destined to destroy what Space Beam wants to preserve. Particularly, I was impressed by one of its projects, "City-Nomad2-Discovery" in 2007. I was also deeply impressed by what Mr. MIN, Woon-gi said during the interview: "We run Space Beam with the view of the locality context, the local issues or conditions. We would like to give the idea that the art is horizontally-extended at the root in local. We would like to observe what our daily life should exist with, instead of our own benefit and authority, imposed by industrial developments."

My interview of Space Beam, and the situation of Baedari, including the efforts of Space Beam to preserve the locality, will be introduced to Japan later.

5. Unesco A. poRT

Unesco A. poRT is an art space, run by an artist Lee Tal. Mr. Lee is at the center of the space itself. The space, located on a back alley of Shinpo Market was founded and operated based on simple goal according to Lee Tal: "Unesco A. port is aimed at being as a platform or a hub connecting other spaces or other countries." Truly, Unesco A. poRT has constructed a art network of Asia, and it has developed and executed various projects by utilising its network. Lee Tal also stressed, "We do not refer to our space as, an 'alternative space', because the term, alternative space now becomes some sort of trend, and it also labels us in a certain way and limits our works. That's why we called Unesco A. port as an 'art space' instead of alternative space."

칭하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대안 공간이라는 이 용어가 현재 일종의 유행이 되어 특정한 방식으로 우리를 이름 붙이려 하며 우리 작품을 제한하려 하기 때문이다."라고 아티스트 이탈은 강조했다.

6. 미술가 김수환

김수환과 그의 작품들은 내게 많은 제안을 전달해 주었다. 그의 작품은 주로 인간의 탐욕과 노동자에 관한 것이다. 나는 그의 작품을 인천아트플랫폼에서 우연히 접하게 되었다. 인천에서 태어나 자란 그에게 인천아트플랫폼이 있는 자리는 그가 어렸을 때 그의 놀이터였다. 그의 부모님과 조부모님은 인천 부두 노동자였기에 자연적으로 부두에서 일하는 그의 가족들을 보면서 자랐다. 그의 작품은 주로 그의 가족에 대한 기억과 이야기를 재현한 것이며 인간의 욕망과 사회의 노동 체계와 오버랩 되거나 연결되어 있다. 그의 작품과 더불어 그의 기억과 어린 시절 환경을 재현하는데 있어 제한 없이 다양한 재료를 사용함으로써 그는 끊임없이 그리고 진지하게 그의 존재와 자신의 자리에 대한 답을 찾았다.

그와의 인터뷰는 오래 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우리는 그의 어린 시절과 현재 작품의 관한 많은 이슈에 대해 논의했다. 여기에 전문을 소개할 수 없지만 내가 일본에 돌아가자마자 그와 그의 작품을 일본에 소개할 것이다.

7. 결론

나는 많은 예술가들에게 인터뷰를 요청하였으나 안타깝게도 그들 모두를 인터뷰할 수는 없었다. 다른 예술가들과 대단한 인터뷰를 하기도 했다. 노리코 이시하라(Noriko Ishihara)의 작품은 일본과 한국 사이에 차이를 보여주는 페미니즘과 디아스포라에 관한 관점을 제시했으며, 레져와 스포츠 그리고 게임에 관해 다룬 김우현의 작품들은 내게 실재하는 곳과 상상 속의 장소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했다.

내가 한국에서 예술가들과 가졌던 모든 인터뷰 내용을 소개할 수는 없지만 결론적으로는 IAP에서의 체류와 이번 겨울 한국에서의 경험은 나에게 많은 질문을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질문들은 내가 미래에 구상할 전시회를 통해 답을 찾아야만 하는 것들이다. 이 질문들은 장소가 무엇을 의미를 하는지 그리고 장소가 현재와 어떻게 얽혀있는지에 관한 단순한 질문에 국한되지 않는다. 관계, 일시적 그리고 공간적 관계 그리고 시간과 공간, 진정성, 독창성, 본질과 본질의 감춰진 의미에 대한 사람들의 다른 관점에 관한 질문들도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러한 질문들은 내가 구상할 전시회와 한국 예술가 및 한국의 예술 공간에 대해 일본에 소개함으로써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다른 곳에 살며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해답을 찾기 위해, 나는 한국과 일본 사이에 네트워크 형성을 시작으로 더 나아가 아시아 전역으로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싶다.

---

5. Artist KIM, Soohwan

Kim Soohwan and his works have relayed a lot of suggestions to me. His works are mainly about human greed and the people at labour. I have come across to his work at Incheon Art Platform, where used to be his playground when he was a child as he was born and raised in Incheon. His parents and grandparents were longshoremen in Incheon, and naturally, he grew up watching his relatives working at port. His works are mainly recreation of the stories and the memories of his family, overlapped with and connected to human desires and labour systems of the society. At a glance, his works seems casual and light, like animation. But we can also sense cruelty and humour co-existing in his works. With his works, he has constantly and seriously sought the answer to his presence and "location" by using various materials without limitation in the form of reconstructed memories and his childhood environment.

His interview lasted for quite long. We discussed many issues from his childhood and the current works. The full script cannot be introduced here, but I will introduce him and his work to Japan as I return back to Japan.

6. Conclusion

I have also requested interviews with other artists, but unfortunately I was not able to interview all of them here. I had great interview of other artists as well: Noriko Ishihara's work cast a perspective of both feminism and Diaspora to see the difference between Japan and South Korea objectively; and Kim Woon Hyun's works dealing with leisure, sports and games, provide me with an opportunity to think about the real and the imaginary location.

Although I cannot introduce all the interviews which I had with the artists in Korea, in conclusion, my stay in IAP and my experiences in Korea this winter flourished questions, which I must seek the answers to, through exhibitions, which I will plan in the future. The questions were not only confined to simple questions on what 'place' imply and how it is intertwined with the present. There were questions on connections, temporal and spatial relations, different perspectives of different people towards the concept of time and space, authenticity and originality, essence and its hidden meanings, etc.

As aforesaid, these questions will be answered in exhibitions which I will plan, and in my introduction of Korean artists and art spaces in Korea to Japan. Furthermore, to seek the answer together with people living in different places and having different thoughts, I would like to start building up network between Korea and Japan, and extend this connection towards Asia.

안은영

안은영은 한국 출신의 큐레이터로 10년 전 호주로 유학을 떠난 이후 호주에서 활동하고 있다. 입주기간동안 한국 동시대 미술의 흐름과 지식을 확장시키는데 주력하였다. 다수의 컨퍼런스에 참석하고 한국현대미술에 대한 다양하고 심도 깊은 자료조사에 매진하였으며 인천아트플랫폼 입주작가들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천아트플랫폼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한국과 호주의 문화교류에 기여하는 평론글 및 전시 기획 등 더욱 활발한 활동을 할 예정이다.

AHN En-young

AHN En-young is a curator from Korea who took off to study in Australia a decade ago and have remained there ever since. During her stay in Incheon she focused on extending the flow of Korean contemporary art and knowledge. Having participated in number of conferences, she went all out to make a diverse and in-depth research into Korean contemporary art and interviewed other artists who took up the residency program. Based on her experience in IAP, she plans to gear up for even more activities, such as writing critiques and planning exhibitions, among other things.

설치물 사진, 인천아트플랫폼 전시회
"2012 예술가들 : 대한민국 인천 해안동 10-1 번지 인천아트플랫폼", 2012년, 사진: 안은영

인천아트플랫폼 이상미 국장 (가운데)와 안은영 씨(왼쪽),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실장 (좌측 상단에서 시계방향)

아시아 비영리예술공간의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위한 국제컨퍼런스의 마지막 날 포럼이 제물포 시장의 폐공간에서 개최되었다.
왼쪽부터 타이페이현대예술센터의 쉬아우-차 엘레노어 첸(Hsiau-tsa Eleanore Chen) 국장, 싱가포르 구 국회의사당 아트하우스 서실과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테니 콴 국장, 홍콩 경마 클럽 아트센터(JCCAC)의 전무이사 릴리언 하우 (Lillian Hau), 사진:안은영

안은영 인천아트플랫폼 레지던시 프로그램 참여 후기

2012년 3월 6일, 나는 인천국제공항의 휴면 공간을 팝업 갤러리로 활용하는 전시 아이디어를 생각하며 인천에 도착했다. 그러나 인천아트플랫폼(Incheon Art Platform, IAP) 의 이승미 관장님과 논의해 본 결과 내가 인천아트플랫폼의 레지던시 프로그램(Residency)에 참여하는 3개월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대규모 아이디어를 실현시키기 어렵다는 관장님의 의견에 동의했다. 그러나 나는 나의 레지던시 프로그램 참여를 최고로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 인천아트플랫폼의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만날 수 없었던 두 명의 예술가를 제외하곤 동기간 내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다른 모든 예술가들을 인터뷰했다.

5월 24일에 있었던 나의 발표회를 포함해 IAP의 대부분의 교육 프로그램과 기타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또한 여러 회의에도 참석했다. 대표적으로 3월 22일에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아트 프로젝트 2012: 코뮤니언(Art Project 2012: Communion), 3월 23일에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화가 이인성 100주년 기념전, 4월 14일에 명지 대학교에서 열린 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의 2012 봄 정기학술발표회와 4월 24일에 삼성미술관 리움에서 이용우 광주 비엔날레 재단 대표이사가 발표한 '한국 현대 미술의 국제 위상'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 참석했다. 나는 이러한 회의의 질의응답시간에 나를 IAP의 레지던시 프로그램 참가자로 소개했다.

5월 11일에는 국립현대미술관이 주관하는 한국 단색화의 세계화 및 문화 전략 회의에서 헨리 메이릭 휴즈 국제 미술평론가협회 명예회장의 논문에 대한 토론자로 초청 받았다.

더불어 5월 7일에는 '독창성의 역사'라는 주제에 대해 숙명여자대학교 미술대학의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두 시간에 걸친 특별 강의를 위해 초청 받기도 했다. 서울에서 열린 여섯 개의 아트 페어를 비롯하여 오십여 개가 넘는 전시 개막식에 참석했다.

IAP의 레지던시 프로그램 참여는 내가 갖고 있던 한국의 현대 미술에 대한 지식을 되살려주고 넓힐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또한 이 경험은 진행중인 문화 비교 집필을 진행하는 데와 한국과 호주에서의 큐레이터의 업무를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나의 다음 계획은 호주의 미술 전문잡지 Art Monthly Australia의 2012년 10월호 또는 11월호에 나의 IAP에서 참여 보고서를 출간하는 것이다. 나는 Art Monthly Australia의 편집장으로부터 이번 출간에 대한 정식 의뢰 레터를 받았다.

IAP의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내가 배운 것들을 한국과 호주를 중심으로 한 공동 문화 비교 전시 프로젝트 개발에 활용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En Young Ahn's Report On her participation in the Incheon Art Platform's Artists-in-Residence

Program from 6 March to 27 May 2012

On 6 March 2012, I arrived at the Incheon, initially, with the proposed exhibition idea which will utilise the underused space in major international airports as "pop-up" galleries. However, after a discussion with Ms. Seung-Mi Yi, the IAP director, I agreed with her that my proposal was too ambitious to achieve within less than a three month term of my residency at the IAP.

Nevertheless, I tried to make the best of my residency. During my term at the IAP, I interviewed all the concurrent, IAP artists-in-residence, with the exception of two artists who were unavailable.

I participated in most of the IAP's educational and other programs, including my own presentation on 24 May.

I also participated in several conferences, including the Art Project 2012: Communion at the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NMCA) on 22 March, the Symposium of the Centennial Celebration of Insung Lee at the NMCA on 23 March; the 2012 Annual Spring Conference of the Association of the Modern and Contemporary Korean Art History at the Myeongji University on 14 April, and the Seminar, entitled "the Current International Status of Contemporary Korean Art", given by Yongwoo Lee, the President of the Gwangju Biennale Foundation, at the Leeum Samsung Museum of Art on 24 April. During the question and answer sessions of these conferences, I presented myself as a participant of the IAP Residence Program.

On 11 May I was invited as the discussant for the paper by Henry Meyric Hughes, Honorary President of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Art, at the Conference Dansekhwa, Korean Monchrome Painting: Globalization and the Cultural Strategy, hosted by the Korean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On 7 May I was invited to give a special 2 hour lecture, entitled "the History of Originality", for the Post-graduate students of the College of Fine Arts of the Sookmyung Women's University.

I attended the openings of six art fairs and over fifty art exhibition openings in Seoul.

My IAP residency helped me to refresh and extend my knowledge of the contemporary art scene in Korea. Consequently, it will also help me in advancing my ongoing cross-cultural writing and curatorial work on Australia and Korea. My immediate plan is to publish my IAP report in the October or November 2012 issue of Art Monthly Australia. I have received the AMA Chief Editor's formal commissioning letter for this publication.

I hope to utilize what I acquired during my IAP residency in developing collaborative cross-cultural exhibition projects focusing on Korea and Australia.

국제공항 그 이상의 도시, 인천

안은영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인천이라는 도시에 대해서 단 한번도 방문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없다. 한국의 주요 국제공항이 있는 인천은 나에게 피할 수 없는 환승역이자, 다양한 흥미거리가 기다리고 있는 서울로 발길을 재촉하게 만드는 도시였다. 하지만 어느 쌀쌀한 이른 봄 날, 비로소 나는 이 "현명한 강"이라는 뜻의 도시인 인천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바로 인천아트플랫폼 (IAP)의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던 것이다.

인천아트플랫폼은 아주 흥미로운 종합 아트센터로 전시공간, 극장, 워크숍, 컨퍼런스, 거주시설을 제공하는 스튜디오 공간, 도서관, 크래프트 상점, 카페, 레지던시 아파트건물 (일명 "게스트 하우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아트센터의 주요 역할은 지역 커뮤니티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현대 시각예술을 중심으로 한 모든 형태의 창의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 센터의 레지던시 프로그램은 예술가, 큐레이터, 건축가, 문학작가, 예술비평가, 영화인과 연극인은 물론 음악가와 무용가가 참여하여, 서로 다른 경험과 지식, 전문성을 교류하는 한편 활동 반경을 확대시키고 서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다. 국내외 교통중심지인 인천을 배경으로 인천아트플랫폼은 국경을 초월한 전세계 예술가와 큐레이터, 유명 예술가들을 초빙하면서, 글로벌 예술가 공동체와 협력하려는 야심 찬 목표를 세우고 있다. 서울의 갤러리와 박물관, 관광지등과 연결된 지하철 1호선에 있는 인천역에서 도보로 이동이 가능한 곳에 위치하고 있다.

인천아트플랫폼은 좌측으로 청국의 조계지(현재 한국의 유일한 공식 차이나타운)와 우측으로 일본의 조계지 경계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곳에 있는 총 13개의 건물도 대부분은 1930년대와 1940년대에 창고로 사용되던 것을 개조한 것이다.

인천 앞바다를 배경으로 쓰여졌던 한국의 오랜 해양 역사의 한 가운데에서, 인천은 격동적인 한국현대사를 관통하는 많은 역사적인 기억을 우리와 함께 공유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인천은 중국과 인도 등지로 향하는 주요 무역항이었지만, 동시에 한국의 현대화와 불운했던 36년간의 일본식민통치가 시작되었던 주요 관문이 되었고, 많은 한국인들과 6 · 25전쟁(1950-1953)에 참전했던 외국인들의 기억 속에는 UN군과 한국군이 서울을 수복했던 인천 상륙작전의 전투지로 더 잘 알려져 있다. 사실 인천상륙작전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의 상은 인천아트플랫폼에서 걸어서도 갈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자유공원 한복판에 세워져 있다. 인천아트플랫폼에서 제공하고 있는 많은 교육프로그램 중 하나였던 현지 역사 가이드를 통해 나는 다른 레지던시 참가자들과 함께 인천에 대한 다른 흥미로운 역사를 알게 되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해돋이를 등지고 서 있는 맥아더 장군 상 아래로 내려다보이는 맨해튼과 같은 장관 속에서도 초현실적으로 평온한 인천도시의 경관이었다. 이른 아침의 햇살 아래 드러난 장엄한 도시를 감상하는 일은 지난 3개월 동안 단 하루도 빼놓을 수 없었던 나의 일과가 되었다.

인천아트플랫폼은 지역 유산을 보호하고 관리하고 홍보하기 위한 "구도시 재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인천광역시가 추진하고 있으며, 공식적으로는 인천아트문화재단에서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단 한 명의 열혈여성이 전반적인 센터 운영을 주도하고 있었는데, 50대쯤 되어 보이는 이 분은 바로 이상미 국장이다. 국장은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센터를 관리하고, 혁신적인 시각예술전시부터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아트 캠프와 다른 사회 전반적인 예술 관련 행사를 준비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왔다. 이러한 행사가 예외 없이 언론의 큰 관심을 받으면서, 인천아트플랫폼은 현재 인천에서 꼭 방문해야 하는 관광명소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국장은 넉넉하지 못한 예산으로 기존 프로젝트는 물론 신규 프로젝트까지 도입하는 자신감으로 보는 이에게 실로 깊은 인상을 남겼다. 3개월의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이 곳에 처음 도착했던 날에도 이상미 국장은 따스한 미소로 나를 맞아 주었다. 나는 게스트 하우스의 욕실이 딸린 침실로 안내되었고, 큰 책상과 빠른 인터넷 연결도 함께 제공되었다. 또한 공동 공간인 라운지에는 대형HDTV와 있었으며, 그 외에도 부엌과 세탁실을 이용할 수 있었다. 예산부족으로 피로감을 느낄 만도 하건만, 큐레이터와 행정실 직원들은 항상 신속하고 친절하게 도움을 주었다.

비주얼 아트, 건축, 문학, 영화, 음악, 댄스, 다른 공연예술 분야의 국내 지원자들은 레지던시 기간을 6개월에서 1년 또는 최대 3년까지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었다. 외국인들은 보통 3개월 동안 머물게 되지만, 최장 1년까지 연장 신청할 수 있다. 그 중 시각예술가와 공연예술가들은 레지던시의 스튜디오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레지던시의 시각예술가들은 비평가나 학자들이 작품이나 활동에 대한 건설적인 피드백 제공하는 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예술가들은 인천아트플랫폼에서 더 큰 관심을 받았다. 예를 들면 영국 브라이튼 출신의 젊은 영국 예술가 벤자민 필립스(Benjamin Phillips)는 인천아트플랫폼 행사에서 명예대사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초등학생과 젊은이들을 위한 영어로 참가하는 미술회화워크숍을 담당하면서 인천아트플랫폼의 총아로 거듭나게 되었다. 이렇듯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예술가들에 대한 특별 대우는 인천을 홍콩이나 싱가포르처럼 "영어 사용 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지역사회의 야심 찬 목표를 잘 보여 준다. 이는 동북아시아의 국제상업허브로 발돋움하기 위한 인천의 대규모 계획의 일환이다.

인천아트플랫폼 레지던시의 3일째 되던 날 "2012 예술가들: 대한민국 인천 해안동10-1 번지 인천아트플랫폼 (*review Exhibition of Incheon Art Platform 2012 Artists: Haean-dong 10-1*)" 단체전시회 개막식에서 다른 레지던시 참가자들을 만날 수 있었다. 이 전시회는 2012년 3월 8일부터 6월 10일까지 전시되었는데, 한국에서는 전시회가 보통 1~2주 정도라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상당히 긴 기간이었다. 이번 전시회의 목표는 올해 레지던시 참가자들을 대중에게 소개하는 것이다. 나의 경우에는 인천아트플랫폼의 유능한 큐레이터들이 출간물 스캔본으로 멋지게 편집한 포트폴리오로 전시회에 참가하게 되었다. 레지던시 작가들은 원하는 경우 인천아트플랫폼 내의 전시실에서 추가 전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고, 인천아트플랫폼과 문화재단 혹은 다른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다른 전시에도 참가할 수 있었다.

단체전시회가 개최된 첫째 주에 레지던시 예술가들은 센터에서 주관한 언론 인터뷰에 참여했다. 이상미 국장은 인천아트플랫폼의 언론 홍보를 적극적으로 주도하면서 전략적으로 레지던시 작가들의 프로필과 활동을 알리려고 노력했다. 예를 들면, 인천아트플랫폼은 구글플레이나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I-Q 앱이라는 최신 기술을 이용해서, 한국의 3천만 스마트폰 사용자(전체인구의 60%)들을 대상으로 인천아트플랫폼의 활동과 이벤트를 홍보하고 있다. 나는 다른 레지던시 작가들과 인터뷰를 하는 등 레지던시의 의무사항을 이행하는 동시에 서울에서 실시된 6개의 아트페어 참석 및 50개 이상의 전시회 개막식에 참석할 수 있었다.

국장의 설명에 따르면 애석하게도 인천에는 제대로 된 현대예술 갤러리가 단 하나도 없는 실정이다. 신석기시대까지 거슬러올라가는 인천의 오랜 문화 역사와 280만 명의 주민 인구수, 한국의 3대 인구 밀집도시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이는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일주일에도 수 백 개의 새로운 전시회가 개최되고 있으며 하루에도 여러 개의 흥미로운 전시회를 관람할 수 있는 서울에서 불과 28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하면서, 인천은 근접성으로 인해 희생양이 된 셈이다.

한국에 3개월 동안 머무는 동안 나는 "단색화, 한국의 모노크롬 회화 컨퍼런스(*Dansekhwa, Korean Monchrome Painting conference*: 5월 11일에 한국국립현대미술관에서 개최)를 포함하여 여러 컨퍼런스에 참석하기도 했으며, 유럽현대미술 비엔날레 마니페스타(Manifesta)의 공동창립자인 앙리 메릭 휴즈 (Henry Meyric Hughes) 논문에 대한 토론자로 초대받았다. 또한 숙명여대 미대 대학원생들을 위한 특별 강의에도 초대받았다. 레지던시의 막바지까지 나는 5월 21일에서 25일까지 개최되었던 "아시아 비영리공간의 국제 네트워킹에 대한 국제 컨퍼런스: 아시아의 지도를 바꾸고 아시아의 창의성을 바꾼다(*International Conference of International Networking of Non-profit Art Spaces in Asia: Altering the Map of Asia, Altering Asian Creativity*)"에 참석하는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처음에 컨퍼런스의 고문으로 초빙되었던 나는 종국에는 회장직까지 맡게 되었다.

인천아트플랫폼의 다양한 활동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면서, 감히 한국이 '흥미로운 지옥'이라는 사람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다

현재 인천아트플랫폼에서는 레지던시 작가들을 중심으로 6월부터 9월까지 4개의 단체전과 일부 작가들의 개인전을 진행할 예정이다.

Incheon, more than just an international airport

Until early this year, Incheon had never inspired me to make a stopover. For me, the city represented the unavoidable transit, where South Korea's major international airport is, and from which I usually wanted to get away as soon as possible, to Seoul, where all the excitements await. However, I was finally going to explore the city of 'Wise River' (a literal translation of 'Incheon') when I landed at Incheon airport on a chilly spring day. This opportunity was given by the Incheon Art Platform (IAP) and its residency program.

The IAP is an exciting, multi-disciplinary arts centre consisting of exhibition spaces, theatres, workshops, conference rooms, residential studio spaces, a library, craft shop, café, and residency apartment building (called 'the Guest House'). Its core mission is to provide the local community with life-enriching cultural services, and to foster all forms of creativity but privileging contemporary visual arts. Through its residency program, the centre aims to be a platform for artists, curators, architects, literary writers, critics of art, film and theatre, and musicians and dancers, to exchange their experiences, knowledge and expertise, and to broaden and advance their practices. Based in the country's major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ansportation hub, the IAP ambitiously wants to reach out beyond borders to bring artists, curators and other high-profile arts figures from all over the world, and to engage with a global art community.

The IAP is located within walking distance from Incheon Station on Line 1 of Greater Seoul's continuously expanding and evolving subway system, which is probably the best subway line for exploring Seoul, its galleries, museums or touristic attractions. The IAP occupies several metres of a street bordering Incheon's historic Chinese Concession area (now South Korea's only official China Town) and its restored Japanese Concession. The majority of its thirteen buildings are converted warehouses from the 1930s-1940s in a part of Incheon saturated with the city's long maritime history, as well as many historical memories of the nation's tumultuous modern and contemporary periods. Traditionally, Incheon has been the country's main trading port en route to China, India and beyond. It also served as the major gateway for the country's modernisation and unfortunate, thirty-six-year occupation by Japan. The city is remembered by many Koreans and foreigners affected by the Korean War (1950-3), and for the famous Incheon Battle (known as 'Incheon Landing') that led to the recapture of Seoul by the United Nations and South Korean forces. A statue of General Douglas MacArthur, a memorial to this battle, sits in the middle of Jayu, or 'Freedom' Park, located on a mountain within a fairly easy walking distance from the IAP. I, together with other newly arrived IAP residents, were given a glimpse into these fascinating histories of Incheon, through a local oral historian-guided walking tour, one of many educational and entertaining programs offered by the IAP. Personally, one of the most memorable parts of my IAP residency was the Manhattan-like spectacular and yet surreally tranquil view of Incheon city from the commanding position of the MacArthur statue against a backdrop of sunrise, which I enjoyed almost every morning for three months.

The Incheon Art Platform was developed by the Incheon Metropolitan City as part of its 'Old Town Restoration Project' to preserve, manage and promote its local heritage. Officially, it operates under the Incheon Arts and Culture Foundation. However, it is really a one-'woman' operation, run by its fifty-something-year-old, passionate director, Seungmi Lee, who tirelessly romotes the centre and has developed diverse programs, ranging from innovative visual art exhibitions to popular art-camps for children from disadvantaged backgrounds, and other socially

engaging art events – all of which have attracted media coverage and made the IPA a must-visit tourist destination in Incheon. I was particularly impressed by the director's confidence in managing the existing and new projects with what seems to be a barely adequate-sized budget.

The director Lee greeted me with a warm welcoming smile on the first day of my three-month residency. I was given a bedroom with an en suite shower combined with a toilet in the Guest House. The room was adequately furnished with generous desk spaces and a highly efficient Internet connection. Bedding was also provided. I was given free access to a communal lounge (with a giant HD TV set), kitchen and laundry. Despite the centre's tight budget constraint, its curators and admin staff provided prompt assistance (often within a few minutes). Domestic applicants from the fields of visual arts, architecture, literature, film, music, dance and other performing arts can choose a longer residency, ranging from a six-month to one-year term, or up to a maximum period of three years. Foreigners are usually given a-three month residency but can apply for an extension up to a one-year period. Visual artists and practitioners of performing arts are given a residential studio space. Resident visual artists, in particular, are offered a mentoring program, pairing them with critics or academicians who are assigned to provide constructive feedback on their work and practice. Curiously, English-speaking artists appear to enjoy a greater attention from the IAP. For example, Benjamin Phillips, a young English artist from Brighton, became the darling of the centre and happily served as a sort of honorary ambassador for IAP events, including one specifically designed for him to run a drawing workshop in English for primary school kids and young people. Such apparent special treatment for English-speaking artists echoes Incheon's aim to be an 'English speaking city', like its Asian peers Hong Kong and Singapore, as part of the city' s highly publicized ambition to become an international commercial hub of northeast Asia.

On the third day of my IAP residency, I met most of the other co-residents at the opening of our group exhibition, entitled Preview Exhibition of Incheon Art Platform 2012 Artists: Haean-dong 10-1 (the centre's street address). The exhibition was on view from 8 March to 10 June 2012, a rather generously long period considering that an exhibition in Korea usually lasts only a week or two. The main purpose of the show was to introduce this year's residency participants to the public. My 'exhibit' was managed by the highly efficient IAP curators who converted the scanned copies of a selection of my publications into a nicely bound portfolio. Any willing resident artists were given further opportunities to participate in IAP's in-house exhibitions, as well as other exhibitions supported by the IAP and the Incheon Arts and Culture Foundation or other public institutions.1

During the first week of the group exhibition, each resident artist was given a lengthy media interview organized by the centre. Director Lee seems to be a vital force behind IAP's extensive mass media exposure. I was impressed by the centre's strategic, proactive promotion of their residents' profile and activities. For example, the IAP utilises the latest technology (called 'I-Q app', available free from the Google Play and App Store) to advertise its activities and events, in sync with South Korea's reported 30 million smart phone users (about sixty percent of the population).

While meeting my residency's proposed obligations (among which, importantly, was a series of interviews with co-resident artists), I managed to attend the openings of six art fairs and at least fifty art exhibition openings in Seoul. Sadly, according to the IAP director, Incheon doesn't have a single commercial gallery with a contemporary art focus. This was a surprise given Incheon's long cultural history (dating from the New Stone Age) and, with over 2.8 million residents, as South Korea's third most populous city, after Seoul and Busan (also known as Pusan). Located just twenty-eight kilometres from Seoul, the city is a victim of proximity to the country's intoxicatingly glamorous capital where one may attend several interesting exhibitions daily out of the hundreds of new exhibitions opening each week. [1)]

During my three months in Korea, I also managed to attend several conferences including the Dansekhwa, Korean Monchrome Painting conference (at the Korean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11 May) to which I was invited as the discussant for the paper by Henry Meyric Hughes, a co-founder of Manifesta. I was also invited to give a special lecture to postgraduate students of the College of Fine Arts of Sookmyung Women's University. Until the last day of my residency, I busied myself for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f International Networking of Non-profit Art Spaces in Asia: Altering the Map of Asia, Altering Asian Creativity, held 21 to 25 May. I was initially invited as an advisor to this conference, but served as a chairperson. After such a diverse, activities-packed residency at the IAP, I could not agree more with Koreans that South Korea is an 'exciting hell'.

1) Based on IAP email invitations received up to the time of writing this piece, the majority of this year's resident artists have been included in at least four group shows between June and September. Some resident artists were also supported to hold a solo exhibition in the same period.

이지현

영화평론가인 이지현은 일주기간동안 〈프랑스인 김명실〉이라는 영화를 제작하였다. 프랑스로 입양된 한국인 친구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로 2013년 개봉을 앞두고 있다. 결과보고전에서 선보인 〈타임시트〉는 〈프랑스인 김명실〉의 중간 중간 나오는 인천과 프랑스의 모습을 편집하여 만든 짧은 영상이다. 프랑스에서 오래 유학한 작가에게 당시의 유학생활과 플랫폼의 입주생활은 신기하게도 겹쳐졌으며, 두 공간은 너무나 흡사하게 느껴졌다고 한다. 이러한 느낌을 전하고자 작가는 정교하게 편집한 영상을 통해, 2005년의 노르망디 지역과 2012년의 인천을 타임슬립하여 합체시킨다. 프랑스의 소도시 캉과 한국의 인천, 프랑스인과 한국인의 모습을 담은 무빙이미지들이 병치를 통해 나열되자, 직선의 시간은 해체되고 시간의 모형은 재정립된다. 이를 통해 작가는 이방인 그리고 학습자로서의 교집합을 담아내고자 시도했다.

LEE Ji-hyu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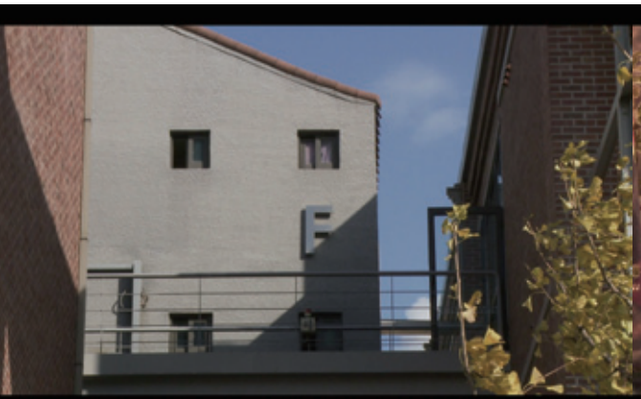
LEE Ji-hyun who is a film critic, produced a documentary film <Kim Myung-sil the French>. The film, set for release in 2013, is a story about her Korean friend who got adopted to France. <TimeSheet> which was featured at the exhibition is summarized version of scenes in Incheon and France that appear in <Kim Myung-sil the French>. Oddly enough, Lee who spent quite a few years studying in France back in 2005, felt her experience overlapping with that in Incheon in 2012. To Lee, there was an amazing similarity between the two places. In order to convey that feelings Lee skillfully edits and attaches the scenes of Normany in 2005 with that of Incheon in 2012, creating a 'time slip'. By juxtaposing the moving images of people in small city Caen in France and Korea's port city Incheon, Lee dismantles the straight flow of the time to re-establish the very shape of the time. Through this effort Lee tried to bring out the common features of oneself as a stranger and a learner at the same ti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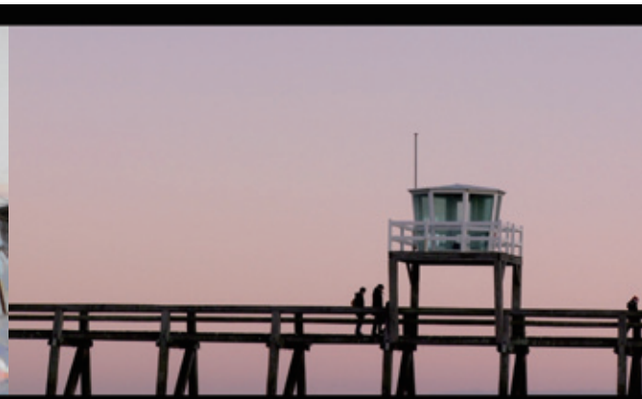
타임시트
Timesheet
5min 16:9 Digital moving image 2012

타임시트
Timesheet
5min 16:9Digital Moving Image 2012

타임시트
Timesheet
5min 16:9Digital Moving Image 2012

프랑스인 김명실
KIM Myung-sil the French
75min HD documentary film 2012





이퐁

Leepong

꾀병 한 번, 거짓말 두 번!
Malingering Once, Lying Twice!
Book 2012

비정규 씨, 출근하세요?
Mr. Irregular, Are you going to work?
Book 2012

시간의 구멍– 작가 이퐁, 시간을 말하다

김용란(아동문학 평론가)

동화 작가 이퐁은 『하시구 막힌 날』(해와나무 출판사, 2009년)에서 '네 살 때부터 지금껏 돋보기안경을 써 왔고, 우주 어딘가에 외계인이 있다고 믿으며 오늘도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이야기를 모으고 있다.' 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 십분 동화작가다운 자기소개가 아닐 수 없다.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며 외계인이 있다는 믿음까지.

『하시구 막힌 날』은 조근조근하게 들려주는 듯한 언어와 옛이야기의 상상력이 먼저 눈길을 끈다. 먼 옛날 눈 깜짝할 사이에 백두산을 한라산 옆에 옮겨 놓았다가는 다시, 숨 한 번 쉴 사이에 도로 제자리에 갖다 놓았다던 황 도인. 그의 죽음으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는 동화는 단번에, 능청스럽고 생생한 허구를 만들어낸다. 『하시구 막힌 날』뿐 아니라 다른 동화 작품, 「꿈틀꿈틀 시간에 또 만나」(『어린이와 문학』, 2012년 7월호, 18쪽), 「새벽 2시 59분」(『어린이와 문학』, 2007년 6월호, 58쪽)에서도 입말체의 리듬감이 흐르는 문장은 이어지고 있다.

"하수구가 물을 내보내는 구멍이라면, 하시구란 시간을 내보내는 구멍이다. 하시구가 하나라도 나라도 막히는 날엔 온 나라의 시간이 딱 멈추게 되는 게야. 너희가 하나씩 맡아 소중히 지키도록 하여라."

–『하시구 막힌 날』, 11쪽

『하시구 막힌 날』은 시간을 내보내는 구멍이라는, 옛이야기에서 담아온 신화적 상상력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황 도인은 청룡, 백호, 주작, 현무 네 제자에게 동서남북의 하시구를 맡기는데 이 시간의 구멍을 막히게 하는 존재가 어린 아이 인호이다. 타인에게 말하기를 힘들어하는 인호는 동서남북의 하시구를 지키는 황 도인의 제자들을 만남으로써 자신의 문제를 해결한다. 작가는 시간의 구멍이라는 신비로운 설정을 어린 인호의 고민과 천연스럽고 담백하게 버무려냈다. 사람들 앞에만 서면 얼굴이 빨개지고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입 밖으로 내뱉지 못하는 인호는 오들오들 떨며 책상 밑으로 들어가 숨는다. 책상 밑에 숨어들어간 인호는 시간의 구멍을 발견하고 그 구멍을 막아버리는 실수를 저지른다. 시간의 구멍이 막히자 시간이 멈춰버리게 된다. 시간의 막힘은 타자에게 발화하지 못하는 주체의 슬픔이 다름 아니다. 막힌 시간과 거침없이 흘러가는 시간의 문제는 이 작품의 내적 역동성을 형성한다. 이제 발화하지 못하는 주체는 발화하는 힘을 소유하게 됨으로써 막힌 시간의 구멍을 뚫고 콸콸콸 시간이 흘러가게 한다.

인간의 모든 일들은 시간 속에서 일어나며, 시간에 따라 전개된다. 시간은 이 세상의 경험을 담아낸다. 시간을 이야기로 재구성한다는 것은 세상에 대한 작가의 경험과 세계관을 드러내는 일이다. 동화 작가로 첫발을 내딛는 작품으로 『하시구 막힌 날』이 그간 작가가 경험한 모든 시간적 과정을 텍스트화한 것으로 인식되는 것은 그 때문이다. 동화라는 방식으로 세상에 발화하고자 하는 작가로서의 욕망의 표출. 자기만의 발화 방식을 찾지 못했던 작가가 동화라는 장르를 통하여 그것을 이루고자 하려는 의지를 읽을 수 있다.

작품 속에서 인호의 입안에는 작은 마음 벌레가 득실댄다. 작은 마음 벌레는 인호의 발화를 방해하는 요소들이다. 방해 요소를 제거하자 인호는 자유로워진다. 그렇다면 작가로서의 발화를 괴롭힌 요소들은 무엇이었을까. 작가 인터뷰를 통해 그것들을 유추해 볼 수 있었다.

용산 참사가 일어났을 때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어린이책 작가모임'에서 용산 참사를 규탄하는 활동을 했어요. 그때 참사 현장인 남일당 옆 카페 레아에서 노래를 하게 되었어요. 제가 대학 때 노래패였거든요. '청계천 8가'를 불렀어요. 젊었을 때에는 나도 정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며 보냈죠. 지금은 수도국산 달동네 박물관이 들어서 있는 송현동이 제가 학교 다닐 때에는 판자촌이었어요. 거기서 철거 반대 투쟁을 했는데, 노래패니까 가서 주민들과 노래 배우는 시간을 갖고 같이 마을을 지키고 그랬어요. 깜깜한 밤에 골리앗에 올라간 적도 있었는데, 그 아래 황량한 마을을 바라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 작가 인터뷰, 2012년 8월 14일, 인천아트플랫폼

작가는 대학을 졸업할 무렵 어떤 길을 택해야 할지 확신을 갖지 못했다고 한다. 노래로 많은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지만, 그 길을 의연하게 걸어갈 만한 자신이 없었기에 결국 포기하고 만 것이다. 노래는 젊은 시절 작가에게 세상에 발화하는 방식이자 시간이었기에, 이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자신만의 발화 방식이 막혀버리게 된 것을 의미한다. 그런 그가 조심스레 발화를 시작하게 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노래였다. 노래는 세상과 소통하는 그의 익숙한 방식이지만 이번 노래는 달랐다. 공연이 아니라 창작이었던 것이다.

노래패 선배 중에 기타리스트 고명원 씨가 있어요. 그 분한테 기타를 배우면서 제 삶을 담은 노래를 만들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경험한 지난 시간을 다시 마주하게 되었어요. 지난 시간이란 것을, 없던 일처럼 하고 살았던 것들, 접어두었던 것들을 조금씩, 조금씩 되돌리면서 말이죠. 임정자 동화 작가를 만나면서, 동화라는 장르가 가진 전복적 상상력을 느끼게 되었던 것도 크지요. 동화를 통해서 내 몸이 담아냈던 시간들을 조금씩 표현할 수 있게 되었어요.

– 작가 인터뷰, 2012년 8월 14일, 인천아트플랫폼

경험이란 세상에 대해 갖는 인식과 가치 판단의 바탕이 된다. 경험은 작가에게 시간에 대한 이야기이며 세계관이다. 또한 첫 작품인 『하시구 막힌 날』은 이퐁 작가가 동화를 통해 자신의 경험이 쌓아올린 세계관과 마주하게 한 용기를 의미하기도 한다. 이제 콸콸콸 흘러가는 시간 앞에서 작가는 막힘없이 시간을 흘려보낼 수 있을 것이다.

11월 출간 예정인 『비정규 씨 출근하세요?』(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어린이책 작가 모임, 사계절출판사, 2012년)에 실린 단편, 「빨간 딱지」에도 그가 경험한 저린 시간의 이야기들이 담겨 있다. 「빨간 딱지」에서 아이는 홀로 집안에 들어선다. 아무도 없는 집을 가득 메우고 있는 것은 낡은 세간들뿐이다. 아이의 아빠는 아무 잘못도 없이 회사에서 쫓겨났다. 아빠는 험겨운 헤직 싸움을 벌이고 있고, 아이의 엄마는 생계를 위해 음식점에 나가 일을 하고 있다. 아이는 세간들을 보며 불평을 한다.

낡은 가구뿐만 아니라 장롱 안에 있던 헌 물건들한테도 당장 버리겠다고 으름장을 놓던 아이는 그 사물들 하나하나에 지나온 시간들이 담겨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이제 아이는 사물들에 대한 미움을 거둔다. 그리고 그 대신 나무 화분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 함께 바람을 쐰다. 뭉땅 버리고 싶었던 시간은 아이의 마음속에 정리가 되고, 실내에 꽁꽁 숨겨 있던 나무는 밖으로 나가 햇볕을 쬐는 시간을 새로이 맞이하게 된다. 비정규직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낸 이 책은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어린이책 작가모임'이 엮어내는 두 번째 평화 책이다. 뜻을 같이 한 어린이 책 작가와 화가들 10여 명이 함께 참여한 이 책에는 간병인, 시간제 강사, 계약직 방송작가, 마트 계산원 등 비정규직으로 살아가는 노동자 엄마 아빠와 그 아이들의 이야기가 실려 있다.

작가의 다른 단편, 「도로록, 눈물 한 방울」(『어린이와 문학』 2011년 5월호, 128쪽)에도 자본의 욕망이 동심에게 내는 생채기를 다루고 있다. 재개발로 인해 철거되는 마을을 끝까지 버티다 떠나는 민아네. 엄마 아빠가 짐을 이삿짐 트럭에 옮기는 동안 민아는 동네를 한 바퀴 돈다. 노란 장난감 트럭을 끌고서. 군것질 재미가 쏠쏠했던 가게와 놀이 친구이자 선망의 대상이었던 세리 언니네와 소꿉친구 우진이네 집을 지나고 멋진 그림을 그려두었던 담벼락을 돌면서 동네에서 보냈던 시간들을 갈무리한다.

"아저씨도 같이 갈래요?"

크라커라 아저씨가 슬픈 눈으로 노란 트럭을 바라봐요.

"같이 가고 싶지만 난 여기에 꼭 붙어 있어야 하는 걸."

아무리 손가락으로 떼어내려 해 봐도 자꾸만 더 흐릿해질 뿐이에요. 크라커라 아저씨를 데려갈 수는 없어요.

"괜찮아. 원래부터 난 여기에 있었으니까."

크라커라 아저씨의 슬픈 얼굴 때문에 민아는 마음이 아파요.

"잘 있어요, 크라커라 아저씨."

"잘 가, 민아야."

–「도로록, 눈물 한 방울」(『어린이와 문학』 2011년 5월호, 135쪽)

민아의 노란 트럭에는 이것저것이 실린다. 세리 언니가 떨어뜨린 머리핀뿐만 아니라 거처를 잃어버린 병아리와 고양이까지. 민아는 담벼락의 그림이 크라커라 아저씨와도 함께 이사를 가고 싶지만, 담벼락 그림인 크라커라 아저씨는 움직일 수 없어 민아에게 어서 가라는 인사를 한다. 떠남을 애도하는 아이를 그려내는 작가의 언어가 맑고 단단하다. 작고 여린 것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작가의 일이다. 이퐁의 단편은 단순해 보이는 문장 속에 묵직한 정서를 담아낸다. 노래로 많은 것을 이야기하던 젊은 날의 시간이 이제야 동화로 발화하였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의 상상력의 밑바탕과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작고 약한 존재들의 가치에 닿아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 이퐁 단편의 매력은 환상적 수법에 있다. 시간의 구멍을 시키는 청룡, 백호, 주작, 현무, 춤을 추는 이순신 동상, 병아리와 이야기하는 머리핀 등, 현실에선 가능하지 않는 상황을 넉살 좋게 진짜인 것처럼 연출하는 솜씨이다. 현실에 밀착한 소재이건, 어린이 내면의 문제이건 이퐁이 만들어내는 이야기에는 보이지 않는 것을 천연덕스럽게 재현해 내는 힘이 있다. 지난여름 인천 아트플랫폼에서 김수환, 벤자민 필립스, 윱쓰양, 전윤정 작가와 작업한 《우주다방》(인천아트플랫폼 B동 전시관, 2012.6.19–7.8)은 그러한 작가의 기질이 한층 묻어나는 작업이었다. 기존의 단편들이 시간의 의미에 집중해 있다고 한다면 이번 전시 작업은 공간의 의미에 천착하고 있다. 우주다방은 미지의 세계로 이끄는 플랫폼을 의미한다. 공간을 담아내는 작업에서 환상성이 도드라지는 것은, 앞으로 한 발, 한 발 동화 작가의 길을 걷고자 하는 젊은 작가의 상상력이 어떻게 발동될 것인지 예견할 수 있는 계기였다고 본다.

이퐁 작가 인터뷰를 하면서 작가의 글쓰기의 방향이 사회의 현실을 향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앞으로도 그의 동화가 어린이의 현실에 천착해 들어가고 있는 한 작가가 표현하는 은유이거나 환상은 현실의 어린이를 향하고 있을 것이다. 동화는 어린이와 문학이 버무려진 장르이기 때문에, 작가의 손맛이 중요하다. 환상과 현실이 맛좋게 버무려진 동화 작품을 이퐁 작가에게 기대해 본다.

* 김용란은 인하대학교 국문과 대학원을 수료하였으며, 아동문학 비평으로 「상상의 힘, 추상의 힘」, 「식민지 전쟁과 평화」들을 발표했고, 작품으로는 『미루미루 수리수리 미루의 미루 찾기』가 있다. 현재 미세기 출판사 기획의원이다.

A Hole in Time -Author LEEpong Talks about Time

KIM Yong-ran(Critic of children's literature)

LEEpong writes children's stories. In her book 『The Day the Drain Got Clogged』 LEEpong, The Day the Drain Got Clogged, Sun and Tree Publishing House, 2009. she introduces himself by saying, 'From the time I was four, I have always had to wear reading glasses. I have also believed that aliens exist somewhere in the universe. Even today, I still get about by bicycle and collect stories.' This is hands down the ideal way for a children' s author to introduce herself. She reflects with accuracy on her childhood and even still believes in aliens.

『The book The Day the Drain Got Clogged』 tells stories that are immediately attractive because they use soft-spoken language and are as imaginative as old fairy tales. There is Hwang the Ascetic who long, long ago in the blink of an eye moved Baekdu Mountain next to Halla Mountain and then, in the space of taking a single breath, put everything back in its rightful place again. The story, which begins with his death, creates in a single stroke a sly, creative piece of fiction. Not only in 『The Day the Drain Got Clogged』 but also in Ms. Pong's other children's books 『Meet Again at Wriggle Time』, Children and Literature, July 2012, p. 18 and 『2:59 in the Morning』, Children and Literature, June 2007, p. 58, the rhythm is that of spoken speech, and the sentences have a natural flow to them.

"If the drain is a hole that the water flows through, the drain is also a hole through which time flows out. When just one drain gets clogged up, the whole country gets clogged up, too. On such a day, time will stop everywhere in the country. Each of you should take charge of one drain and watch it diligently."

『The Day the Drain Got Clogged』, p. 11

『The Day the Drain Got Clogged』 is about a hole through which time flows, and it is notable for the mythical imagination that it borrows from old fairy tales. Hwang the Ascetic entrusts four disciples (Azure Dragon, White Tiger, Vermillion Bird, and Black Tortoise) with drains in the east, west, north and south, but the child Inho appears and tries to block the drains. Inho has trouble speaking to others, but he solves his own problem by meeting the four disciples of Hwang the Ascetic who are guarding the drains in the east, west, north, and south. The author combines in a clear and natural way the mysterious selection of a hole through which time flows with Inho's own worries. Just standing in front of people made Inho's face turn beet red and kept him from saying what he had wanted. He would shake like a leaf on a tree and dive beneath a desk to hide. One time while he is busy hiding beneath a desk, Inho discovers a time hole and accidentally commits the blunder of blocking it. As soon as the hole gets blocked up, time comes to a halt. The blocking of the flow of time is nothing other than his sadness at not being able to speak. The internal dynamics of this book are composed of the problem of stopped time and moving time. Eventually, he is able to gain the ability to speak, and this transformation is what clears the hole so that time can flow once again.

All of the things that humans do are done inside time, and their development is time-dependent. Time contains and brings forth the experiences of this world. For an author to formulate a story about time is the same as that author laying out what is important for her about the world and her experience with the world. 『The Day the Drain Got Clogged』 is LEEpong's first step as an author of children's stories. Because of this, we are able to understand that it is the transformation into textual form of the entire temporal process of her experiences up to that time. This is the expression of desire for an author who wants to talk about the world through children's stories. We can discern in our reading how the author has not yet found her own unique voice, and how she tries to create it using the power of the genre of children's stories.

In the book, there is a small heart beetle that makes his home in Inho's mouth. This small heart beetle is one of the factors keeping Inho from speaking. When Inho gets rid of these obstacles, he becomes free. We wonder, then, what painful experiences provoked the author to speak. We get a glimpse into what these are through an interview with the author:

After the tragic fire broke out in Yongsan, the group called 'Authors of Children's Books Hoping for a Better World' held a meeting to lament the disaster. In Cafe Leya, next to the Namildang building where the disaster occurred, the participants started to sing songs. When I was in college, I was a member of the Singing Club, and so I sang 'Cheonggyecheon 8-ga.' When I was younger, I often worried about whether or not I would become a just person. Now, the Sudoguksan Museum of Housing and Living has moved into Songhyeon-dong, but when I was going to college it was a shanty town. They, too, fought against eviction for the sake of redevelopment. Our Singing Club used to go there and teach the residents how to sing, and together we protected their neighborhood. On one dark night, I went up to the Goliath and looked down on the godforsaken neighborhood below and thought about many things.

- Interview with the author, Aug 14, 2012, Incheon Art Platform

Around the time that Ms. LEE was graduating from college, she recalls, she was unsure about what path she should take. She wanted to become a person who would tell many stories through song, but she lacked the confidence to actually set out on that path and so finally gave it up. To Ms. LEE, songs were a means of speaking to the world when she was young, and she spent time doing just that. Giving up on that was to her nothing short of blocking off the idiosyncratic way she had of empowering himself with speech. Because she was like that, ironically enough songs were the way she had of cautiously beginning to speak. Singing was a way to communicate with the world that she had gotten used to, but the song this time was different. It wasn't a performance, it was creativity:

Among the more experienced people in the Singing Club was a guitarist, GO Myeong-won. While learning guitar from him, I started to write songs that told about my life. During this process, I got to revisit experiences that I had had in the past. What I mean by this is that little by little I was able to revisit those things that I had lived through but wanted to write off and things that I had given up and moved on from. Meeting Im Jeong-ja, another author of children's books, I started to have a feel for the subversive imagination used in the genre of children's books. Through children's books, I gradually came to express the time that was present inside my body.

- Interview with the author, Aug 14, 2012, Incheon Art Platform

Experience becomes the backdrop for the formulation of our awareness of the world and our evaluations of value. When an author talks about experience, she is also talking about time. Experience also makes up our view of the world. Experience becomes for the author a way of talking about time and her world view. <The Day the Drain Got Clogged>, which was Ms. LEE's first book, is also meaningful as it shows her courageously presenting her experiences and her world view. In the end, the author can stand in front of the bubbling flow of time and let it flow by without obstructing it.

『Mr. Temp, Are You Leaving for Work?』 Four Seasons Publishing House, 2012 is scheduled to be published in September. The book contains a story about the experiences with time that feature in another short piece, <The Red Note> contained therein. In <The Red Note> a boy steps alone into an empty house. The house is devoid of people but filled with old household furniture and utensils. The boy's father, who is run out of his company for no fault of his own, and engages in a fight over being fired that he cannot win. Meanwhile, the boy's mother has to start working in a restaurant to make ends meet. As for the boy, he vents his grievances on the old furniture and utensils.

The boy moves on from just threatening the old furniture with immediate destruction to threatening to throw away the old things that are in the closet. He discovers that each of the individual objects contains past time. It is then that the boy restrains his loathing for these objects. Instead, he carries a potted plant outside, and they both get some fresh air. The boy fills his heart with all of the time that he had wanted to get rid of forever and he puts it neatly into order. The tree that was well-hidden inside the room is now outside where it once again begins to spend its time in the direct sunlight. The book is made up of stories of so-called irregular or temp workers who are hired on a contract basis instead of as full company employees. The book was the second "book of peace" to have been compiled by Authors of Children's Books Hoping for a Better World and it is a compilation featuring ten children's authors and illustrators. The stories in the book depict moms and dads, as well as their children, who are engaged in irregular work, such as nurses, instructors paid based on teaching time, broadcast authors working under contract, and store cashiers.

Another short book by the author is <Drop-drop, a Single Tear> Children and Literature, May 2011, p. 128 This book also handles the subject of how capitalistic desires can act against the mind of a child. Mina is a child who has stuck out until the bitter end in the fight against forced eviction in the name of redevelopment of her neighborhood. While her mother and father are loading up the moving truck with their belongings, she takes a last walk around the neighborhood. Pulling her little toy truck, she takes final stock of the neighborhood, saying goodbye to her time there. There is the candy store where she had enjoyed yourself so much; the girl Saeri, whom she had envied even as they played together; the house where her playmate Yujin lives; and finally the stone wall next to her house that she had drawn so many lovely pictures on:

"Krakora, can you come with me?"

The man looked sadly down at the toy truck.

"I want to go with you but I've got to stay here."

No matter how much I rub out the picture with my fingers it only blurs. There was no way she would be able to take Krakora.

"It's okay. I've always been here."

Mina felt bad because Krakora's face was sad.

"Take care of yourself, Krakora."

"I wish you luck, Mina."

- 「Drip-drop, a Single Tear」(『Children and Literature』) May 2011, p. 135

Mina puts various things into her yellow truck, starting with a hairpin dropped by Saeri and including a chick that lost its nest and even a cat. Mina wants to take Krakora the wall picture with her, but Krakora can't move as he is part of the painting. All Krakora can tell her is to get on her way as a form of goodbye. The words that the author uses to describe how the child deplores leaving are clear and precise. It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writer to listen to the voice of things small and fragile. Concealed in the simple sentences of Ms. Lee' s short story are solemn undertones. This is not because she spent a lot of time when she was younger talking through song and because now she is speaking through the medium of the children's story. Rather, it is because the fount of her imagination and the direction that she has chosen have expanded to embrace the value of small and weak creatures.

Another attractive thing about Ms. Lee novelettes is the author's fantastic literary technique. The four mythical creatures guarding the holes in time, the dancing statue of Yi Sun-sin, and the hairpin talking to the chick illustrate how she can boldly imbue an impossible situation with a sense of reality. Whether it be material that sticks closely to reality or the inner problems of a child, Ms. Lee's stories reveal her ability to naturally represent things that cannot be seen. The authors and artists KIM Su-hwan, Benjamin PHILLIPS, Woopsyang, Leepong, CHUN Yun-jung, collaborated with Ms. LEE to produce <The Tea House of the Universe>, Incheon Art Platform B-dong Exhibition Center, 2012.6.19-7.8, which was presented at the Incheon Art Platform held last summer. This work brings the spirit of the author that I have described here to the next level. If the short stories that she had written previously are understood to have concentrated on the meaning of time, this exhibited work scrutinizes the meaning of space. The title - "the tea house of the universe" - refers to a platform for taking people to unknown worlds. What stands out as remarkable in this work about space is the glimpse it gives us of this young author's development as she takes baby steps along the writer's path. It is an opportunity to foresee how her imagination will develop and operate.

During my interview with Ms. LEE, I could perceives that her writing is oriented toward the reality of society today. To be sure, her metaphors and creative output, which are the expressions of her ability to dive into and explore the reality of children through children' s books, will in the future also be directed towards the reality of children. Children's books as a genre are always a mixture of children and literature, and so the handiwork of the author is all important. I expect that we will see a good mixture of the fruits of a creative imagination and reality from Ms. LEE in the children's books she will write in the future.

* KIM Yong-ran completed a graduate program in Korean studies at Inha University. As a critic of children's art, she has published books including 「The Power of the Imagination, The Power of Abstraction」, and 「Colonial Wars and Peace」. Among her creative works are 『Looking for the Miru of the Miru』. She is currently employed in the planning department at Miseghi Publishing House.

국제교류프로그램

International Exchange Program

324 전소정
JUN Sojung

330 추앙 후이린
CHUANG Hui-lin

전소정

일상과 예술의 경계는 모호하다. 그 경계를 구분 짓는 기준은 그것을 바라보는 개인의 취향이 될 수 있고 사회적 편견일 수도 있고, 그 일에 임하는 사람의 태도일 수 있을 것 같다. 작가는 그 모든 태도를 예술로 보지는 않지만 한 인물을 둘러싼 총체적 아우라가 그 행위를 예술로 믿게 만드는 마술적 순간이 있음을 말한다. 최근의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작가에게 그러한 마술적 순간을 제공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일반적 시각에서 누군가는 더 일상의 범주에, 누군가는 더 예술의 범주에 위치 될 수 있겠지만 작가는 그들을 예술가적 태도를 지닌 동등한 위치에서 바라보고 작품 안에서 이야기들을 확장시켜 나가고자 했다.

작가는 2012년 인천아트플랫폼 국제교환프로그램에 선정되어 Taipei Artist Village에 입주하여 작품을 제작하고 전시하였다. 〈My Fair Boy〉는 타이완 남부 자이에서 활동하는 목각인형 제작자의 모습을 담고 있다. 그는 작품의 도입부에서 부터 인형 조각을 위한 이상적인 칼을 만들고자 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가 만든 작품에 대하여 무한한 신뢰와 애정을 보내는 그의 태도에서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피그말리온의 이야기가 겹쳐진다.

JUN Sojung

The boundary between everyday life and art is ambiguous. What sets the two apart may depend on personal taste, social prejudice or the attitude of the person towards that idea. JUN believes that although not all actions are art, there exists a magical moment in which the aura that surrounds a person turns one's movement into a work of art. The people that appear in her work are such examples. Though some may look either more 'ordinary' or 'artistic' than others, JUN considers them equal in artistic attitude and strives to extend their stories within her work.

JUN was selected for IAP International Exchange Program and was admitted to Taipei Artist Village to produce and display her works. <My Fair Boy> features a craftsman that carves wooden doll in Chiayi region, south of Taiwan. The craftsman is shown trying to create an ideal knife to carve the doll from the very beginning. The way the craftsman is emitting great confidence and love in the work he create overlaps with that of great sculptor Pygmalion from Greek mythology.

Sun and Star: Record of the Words
6min 3sec Single channel video 2012

My fair boy
5min25sec Single channel video 2012

My fair boy
5min25sec Single channel video 2012

추앙 후이린

대만출신의 작가는 2012년 인천아트플랫폼 국제교환프로그램으로 인천에 왔다. 도시의 오래되고 철거되어가는 건물의 잔해들을 마주친 작가는 그것들과 함께 사라져 가는 것에 대한 역사성을 문명사적 관점에서 생각해 보자고 제안한다. 결국 인간의 탄생과 죽음이 하나로 이어져 있듯이 도시의 소멸과 재생 역시 그와 궤를 같이 하는 원리라는 것이다. 부분 부분 절단된 신체의 특정부위들을 배열하여 만들어낸 〈The Totem of Life〉라는 작품명은 도시 속에 묻혀버린 인간의 존재에 의문을 표현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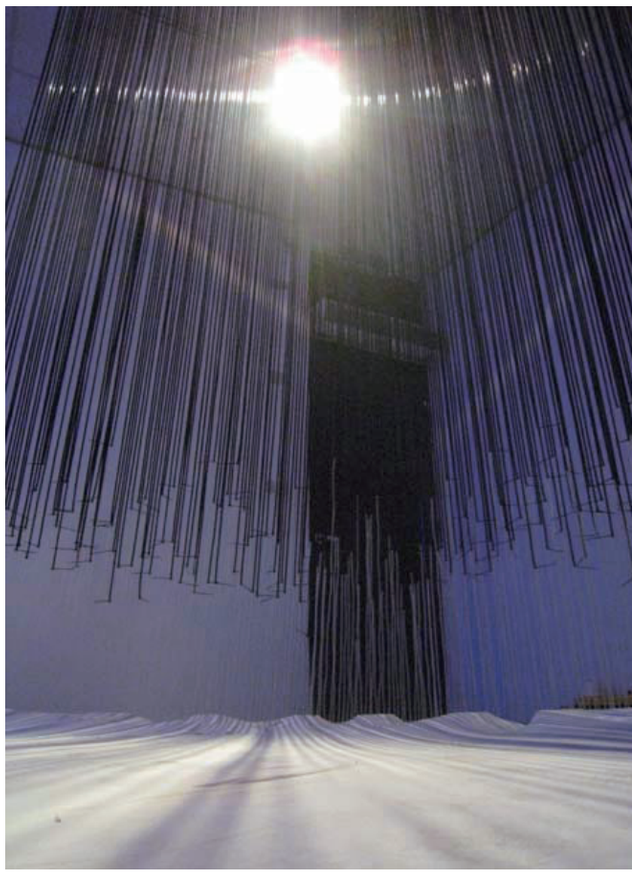
CHUANG Hui-lin

CHAUNG who is from Taiwan came to Incheon via 2012 IAP International Exchange Program. Seeing the wreckages of buildings that are being pulled down, CHAUNG suggested to view those remains in historical perspective, as something that symbolize certain era of civilization that would disappear completely along with the destruction of the remains. CHAUNG's point is that just like a one's birth and death are linked into one, so is the destruction and re-generation of the city in principle. CHAUNG's work <The Totem of Life> which has arraigned certain amputated parts of the body is CHAUNG's expressing of own question toward the existence of a human that is buried in city life.

The totem of life
Dimension variable Paper 2012

The Totem of Life
Dimension Variable Paper 2012

Crossed the hsinhai bridge...
320×900×800cm Mixed media 2011



작가약력 *Artists' Profile*

구본아

1976년 서울 출생, 인천 거주 및 작업

학력

2010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대학원 미술학 박사과정 졸업, 서울
2001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대학원 동양화과 졸업, 서울
1999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 졸업, 서울

주요 개인전

2012 KOOISM, 순 아트 갤러리, 상해, 중국
2009 폐허산수, 인사아트센터, 서울
기억의 빛깔, 올해의 주목할 작가전, 주불한국문화원, 파리, 프랑스
2006 구본아 개인전, 송은갤러리, 서울
2005 구본아 개인전, 포럼갤러리, 비스바덴, 독일
2004 物과 나눈 대화, 노암갤러리, 서울

주요 단체전

2012 해안동 10-1_3기 입주작가 프리뷰전,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八色居詞, OCI 미술관, 서울
HEXAGRAM, 아트포럼 뉴게이트, 서울
지구의 반란전, 우라니아미술관 독일한국문화원, 베를린, 독일
숲, 인사아트센터, 서울
여백, 토포하우스, 서울
여름생색전, 공아트스페이스, 서울
청년 예술 100 (nova),
위에미술관·셩즈 예술공간·아라리오 갤러리, 북경
날 보러 와요_오픈스튜디오,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숨 그리고 쉼_한중회화교류전, 유중아트센터, 서울
백화노방(白花怒放), 양평군립미술관, 경기도
평화의 바다, 물위의 경계_제2회 인천 평화미술 프로젝트, 인천아트
플랫폼, 인천

수상 및 선정

2012 가송예술상, 가송재단, 공 아트스페이스, 서울
2011 신진여성문화인상 수상, 여성문화네트워크, 문화체육관광부
2010 고양문화재단 수상 작가 선정_공감, 고양어울림미술관, 경기도
2009 문예진흥기금 시각예술분야 작가 선정,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올해의 주목할 작가 선정, 주불한국문화원
2006 문예진흥기금 시각예술분야 작가 선정,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시각예술분야 지원 작가 선정, 경기문화재단
개인전 지원 작가 선정, 송은문화재단
2005 송은미술대상전 수상, 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 서울
2004 도야마수묵화트리엔날레 수상, 도야마수묵미술관, 도야마, 일본
문예진흥기금 시각예술분야 작가 선정,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시각예술분야 지원 작가 선정, 경기문화재단

작품 소장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국립현대미술관, 경기도
OCI 미술관, 서울
인천문화재단, 인천

레지던시

2012 인천아트플랫폼 레지던시 프로그램 3기 입주작가, 인천
2011 OCI 미술관 입주작가, 서울
2006 국립고양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 고양, 경기도

권윤희

1980년 서울 출생, 서울 거주 및 작업

학력

2009 로드아일랜드 디자인 대학교 디지털 미디어 대학원 졸업,
로드아일랜드, 미국
2003 국민대학교 미술대학 입체미술과 졸업, 서울

주요 단체전

2011 Streaming Festival 6th Edition, Het Nutshuis, 헤이그, 네덜란드
버퍼링, 동덕아트 갤러리, 서울
2010 백색소음_Video Night, Strange Air in the Night, 낭시, 프랑스
2007 Micromediation, 솔 커플러 갤러리, 로드 아일랜드, 미국

수상 및 선정

2011 부산비엔날레 바다 미술제 입선, 부산
2009 15회 국제 일렉트로닉 아트 심포지엄, 최종 후보작(Short-list), 영국
2007 부산 아시아 단편 영화제 실험 영화부분_독백, 부산

레지던시

2012 인천아트플랫폼 레지던시 프로그램 3기 입주작가, 인천

KOO Bon-a

Born in Seoul, 1976. Lives and works in Incheon

Education

2010 Ph.D in Fine Arts, College of Fine Arts, Hongik University, Seoul
2001 M.F.A. in Oriental Painting, College of Fine Arts, Hongik University, Seoul
1999 B.F.A. in Oriental Painting, College of Fine Arts, Hongik University, Seoul

Selected Solo Exhibitions

2012 KOOISM, Shun Art Gallery, Shanghai, China
2009 Scenery of the Ruins, Insa Art Center, Seoul
Color of Memory, Korean Culture Center, Paris, France
2006 Solo Exhibition, Song Eun Gallery, Seoul
2005 Solo Exhibition, Forum Gallery, Wiesbaden, Germany
2004 Conversations with Substance, Noam Gallery, Seoul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12 Haean-dong 10-1, Incheon Art Platform, Incheon
八色居词, OCI Museum of Art, Seoul
HEXAGRAM, Art Forum New Gate, Seoul
Earth's banranjeon, Urania Museum of Art, Korea Culture Center, Berlin, Germany
Forest, Insa Art Center, Seoul
White space, Topohaus Art Center, Seoul
Summer Living Color, Gong Art Space, Seoul
Youth Art 100 (nova), 悦美术馆圣之艺术空间Arario Gallery, Beijing, China
Come to see me_Open Studio, Incheon Art Platform, Incheon
Breath and pause_Korea China Alternating Cold Exhibition, Yujung Art Center, Seoul
BackHwaNoBang(白花怒放), Yangpyeong Prefectural Museum of Art, Gyeonggi-do
Sea of Peace, Boundary of the water_2nd Incheon Peace Art Project, Incheon Art Platform, Incheon

Selected Awards

2012 The Gasong Art Award, Gasong Foundation, Gong Art Space, Seoul
2011 Young Women's Cultural Award, Women's Cultural Network, Ministry of Culture and Tourism
2010 Goyang Cultural Foundation Awar_Empathy, Goyang Oulim Art Center, Gyeonggi-do
2009 Fund for the Advancement of the Arts, Visual Artist Selection, Arts Council Korea
Remarkable Artist of the year, Paris France Korean Culture Center
2006 Fund for the Advancement of the Arts, Visual Artist Selection, Arts Council Korea
Visual Artist Selection,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Grant Award Wi nner, Song Eun Cultural Foundation
2005 The Grand Art Exhibition of Song Eun Winner, Seoul Arts Center Hangaram Art Museum, Seoul
2004 Toyama Suiboku Triennial Winner, The Suiboku Museum, Toyama, Japan
Fund for the Advancement of the Arts, Visual Artist Selection, Arts Council Korea
Visual Artist Selection,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Collections

Seoul Museum of Art, Seoul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Gyeonggi-do
OCI Museum, Seoul
Incheon Foundation For Arts & Culture, Incheon

Residencies

2012 Incheon Art Platform 3rd Artist-in-Residence Program, Incheon
2011 OCI Museum residency program, Seoul
2006 The National Art Studio, Goyang Art Studio residency program, Goyang, Gyeonggi-do

E-mail 2000kba@hanmail.net

KWON Yuni

Born in Seoul, 1980. Lives and works in Seoul

Education

2009 M.F.A. the Digital+Media program, Rhode Island School of Design
Rhode Island, USA
2003 B.F.A. the sculpture, Kookmin University, Seoul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11 Streaming Festival 6th Edition, Het Nutshuis, The Hague, Netherlands
Buffering, Dongduk Art Gallery, Seoul
2010 White Noise_Video Night, Strange Air in the Night, Nancy, France
2007 Micromediation, Sol Koffler Gallery, Rhode Island, USA

Selected Awards

2011 Busan Biennale Sea Art Festival Winner, Busan
2009 15th International Electronic Art Symposium, Final Nominations(Short-list), UK
2007 Busan Asian Short Film Festival of Experimental Film and part_monologue, Busan

Residency

2012 Incheon Art Platform 3rd Artist-in-Residence Program, Incheon

Website yunikwon.com
E-mail dearYuni@yunikwon.com

김봄

1984년 인천 출생, 서울 거주 및 작업

학력

2009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미술학과 동양화전공 졸업, 서울
2007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동양화과 졸업, 서울

주요 개인전

2011 Walking to the I'll, CEAAC, 스트라스부르그, 프랑스
2010 Landscape Map, 가양갤러리, 부산
2009 윈도우 갤러리, 갤러리 현대, 서울
2008 그림지도, 관훈갤러리, 서울
2007 조립된 산수, 스페이스아침, 서울

주요 단체전

2012 두 개의 문(부산비엔날레 특별전), 부산문화회관, 부산
Knocking, 카이스갤러리, 홍콩
산수너머, 경기도미술관, 경기도
2011 Translated, 한국국제교류재단 문화센터갤러리 · 창동창작스튜디오, 서울
한국화의 재발견, 성남아트센터, 경기도
Open studio, 고양창작스튜디오, 경기도
The Languages of Landscapes, ING은행, 서울
2010 궁, 그림으로 걷다, 미음갤러리, 서울
Do window, 현대갤러리, 서울
한국화의 이름으로, 포항시립미술관, 포항
2009 유락산수전, 이천월전시립미술관, 경기도
Art Road 77, 93 뮤지엄, 경기도
Attention, 자하미술관, 서울
2008 영산강 3백 5십리 답사기행, 신세계갤러리, 광주
풍경속으로 풍덩, 고양문화재단 아람 어린이 미술관, 경기도
동상이몽전, 갤러리담, 서울
2007 장면,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 갤러리 쌈지, 서울
신산수풍경전, 관훈갤러리, 서울

수상 및 선정

2010 제10회 송은미술대상전 선정 작가, 송은문화재단
2009 제3차 퍼블릭아트 선정 작가 12인, 월간 퍼블릭아트
2008 제30회 중앙미술대전 선정 작가, 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 서울
2006 의재 허백련 기념 광주 MBC수묵대전, 의재미술관, 광주

작품 소장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경기도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리움미술관, 서울
하나은행, 서울
중앙일보, 서울

레지던시

2012 인천아트플랫폼 레지던시 프로그램 3기 입주작가, 인천
2011 국립고양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 고양, 경기도
국제 교환 레지던시, CEAAC, 스트라스부르, 프랑스

KIM Bom

Born in Incheon, 1984. Lives and works in Seoul

Education

2009 M.F.A. Oriental Painting, Duksung Women's University, Seoul
2007 B.F.A. Oriental Painting, Duksung Women's University, Seoul

Selected Solo Exhibitions

2011 Walking to the I'll, CEAAC, France
2010 Landscape Map, Kayang Gallery, Busan
2009 Window Gallery, GALLERY HYUNDAI, Seoul
2008 Painting Map, Kwanhoon Gallery, Seoul
2007 Assembly Landscape, Gallery Space A-chim, Seoul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12 Busan Biennale, Busan Cultural Center, Busan
Knocking, CAIS Gallery, Hongkong
Beyond landscape paintings, Gyeonggi Museum of Modern Art, Gyeonggi-do
2011 Translated, Changdong Art Studio·Korea Foundation, Seoul
Recovery of Korea oriental paintings, Seoungnam Art Center, Gyeonggi-do
Open studio, Goyang Art Studio, Gyeonggi-do
The Languages of Landscapes, ING bank, Seoul
2010 A palace, Walking to the painting, Mi-um Gallery, Seoul
Do window, Hyundae Gallery, Seoul
Name of Korea painting, Pohang Art Muesum, Pohang
2009 Enjoy Oriental Landscape, Icheon Woljeon Museum of art, Gyeonggi-do
Art Road 77, 93 Museum, Gyeonggi-do
Attention, Zaha Museum, Seoul
2008 Youngsan river three hundreds fifty survey, Shinsegae Gallery, Gwangju
Poong dung in landscape, Goyang Aram Nuri Arts Center, Goyang, Gyeonggi-do
Four Artists, Four Dreams, Dam Gallery, Seoul
2007 Scene and the Unseen, Ssamzie Gallery, Seoul
New landscape, Kwonhoon Gallery, Seoul

Selected Awards

2010 The 10th SongEun Arts Competition for selection artist, SongEun Art Space Gallery, Seoul
2009 The 3rd Public Art Selected painter 12 persons, Monthly art magazine Public Art
2008 The 30th Joong-Ang Fine Arts Competition for selection artist, Seoul Arts Center Hangaram Art Museum, Seoul
2006 The exhibition of an india ink painting for special selection, Commemorating Uije HUH Baikryun, Gwangju MBC, Uije Museum, Gwangju

Collections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_Art Bank, Gyeonggi-do
Seoul Museum of Art, Seoul
Leeum Museum, Seoul
Hana bank, Seoul
Joong-Ang Daily, Seoul

Residencies

2012 Incheon Art Platform 3rd Artist-in-Residence Program, Incheon
2011 The National Art Studio, Goyang Art Studio residency program, Goyang, Gyeonggi-do
CEAAC_International Exchange Residency program(3months), Strasbourg, France

E-mail bmk684@hanmail.net

김선희

1977년 대구 출생, 서울 거주 및 작업

학력

2007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조소과 졸업, 서울
2000 동국대학교 조소과 졸업, 경주

주요 개인전

2011 그래서 은신처, 모로 갤러리, 서울
Fluff Hours, Vault Gallery, 브루노, 서스캐처원, 캐나다
2010 바라보는 숲, 대안공간 눈, 수원
2008 Room of Memory, 관훈갤러리, 서울

주요 단체전

2013 2012 플랫폼 아티스트,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2012 가을 사색에 잠기다, 롯데갤러리 안양점·대전점, 안양·대전
인천 앞바다에 왜 사이다가 떴을까?,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해안동 10–1_3기 입주작가 프리뷰전,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2011 19금, 갤러리 라엘, 서울
2010 내일_오픈 아카이브, 소마 미술관, 서울
Doors Art Fair 특별전_도시 속의 신화와 자연이 가진 환상, 호텔 임피리얼 팰리스, 서울
여수국제아트페스티벌 특별전 Ex–topia, 갤러리 연, 여수
2009 The New Faces at Next Door_Part 1, 옆집 갤러리, 서울
월요일은 쉽니다, 강서구 등촌 3동 우리 도서관, 서울
신진작가 교류 프로그램 시사회, 대안공간 팀 프리뷰, 서울
2008 제3회 갤러리 우림 신진작가 지원 프로젝트_가늠을 보다, 갤러리 우림, 서울
Art Culture in 덕 전통과 현대의 만남, 덕수궁 돌담길, 서울

작품소장

2008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경기도

레지던시

2012 인천아트플랫폼 레지던시 프로그램 3기 중기 입주작가, 인천
하대리 여름숲속미술제 Vault Project 2012, 횡성, 강원도
2011 Bruno Arts Bank, 브루노, 서스캐처원, 캐나다
2008 Vermont Studio Center_Full Fellowship Award, 버몬트, 미국
스페이스 빔 레지던시_Public Space III, 인천

KIM Sun-hee

Born in Daegu, 1977. Lives and works in Seoul

Education

2007 M.F.A. in Sculpture,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2000 B.F.A. in Sculpture, Dongguk University, Gyeongju

Selected Solo Exhibitions

2011 And the shelter, Moro Gallery, Seoul
Fluff Hours, Vault Gallery, Bruno, Saskatchewan, Canada
2010 Forest, Alternative Space Noon, Suwon
2008 Room of Memory, Kwanhoon Gallery, Seoul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13 2012 Platform Artists, Incheon Art Platform, Incheon
2012 Autumn: Lost in Meditation, LOTTE Gallery Anyang·Daejeon Store, Anyang·Daejeon
Why is the Cider floating off Incheon?, Incheon art platform, Incheon
Haean-dong 10-1_Incheon art platform, Incheon
2011 Prohibition under the age of 19, Gallery Lael, Seoul
2010 Tomorrow_Open Archive, SOMA Drawing Center, Seoul
Doors Art Fair, Imperial Palace Hotel, Seoul
Yeosu International Art Festival_Ex-topia, Gallery Yeon, Yeosu
2009 The New Faces at Next Door_Part 1, Next Door Gallery, Seoul
Close on Mondays, Woo-ri Library in Deungchon-3dong, Seoul
9th Team Preview Show, Alternative Space Team Preview, Seoul
2008 3rd Gallery Woolim New Artist Project, Gallery Woolim, Seoul
Art Culture in Palace, Street of Duksu Palace, Seoul

Collection

2008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_Art Bank, Gyeonggi-do

Residencies

2012 Incheon Art Platform 3rd Artist-in-Residence Program(6month), Incheon
Vault Project 2012, Art plan area, Hoengseong, Gangwon-do
2011 4 Weeks Residency, Bruno, Saskatchewan, Canada
2008 4 Weeks Residency Program with Full Fellowship Award, Vermont Studio Center, Vermont, USA
Space Beam Residency_Public Space III, Incheon

E-mail untilnov@gmail.com

김수환

1981년 인천 출생, 인천 거주 및 작업

학력

2011 인천대학교 일반대학원 미술학과 서양화전공 졸업, 인천
2007 인천대학교 미술학과 서양화전공 졸업, 인천

주요 개인전

2012 즐거운 나의 집,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2009 어느 날 어떤 것, 송은갤러리, 서울
2008 노가다주식회사, 밸벳갤러리, 서울
2007 TOY NOGADA, 성남아트센터, 성남, 경기도

주요 단체전

2012 그 거리의 창의적인 자세, 금천예술공장, 서울
평화의 바다, 물위의 경계_제2회 인천 평화미술 프로젝트,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우주다방 宇宙多房,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2011 뽕짝짬뽕 도큐멘트, 인천중구 빈집, 인천
유어인천 遊於仁川,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Again, 갤러리 골목, 서울
2009 간판 투성이, KT&G 상상마당, 서울
City–Ray, 스페이스 빔, 인천
2008 국제 아트북 축제, 정독도서관, 서울
무지개다리, 쉬필라움, 인천
Play Project, 요기가 표현 갤러리, 서울
2007 집들이 642–7, 제물포 인근 폐공장, 인천

수상 및 선정

2008 소마드로잉센터 3기 아카이브 등록작가
2007 인천문화재단 NCE 특별지원사업 선정
2006 제31회 창작미술협회공모전 대상
601비상 아트북 프로젝트 은상

레지던시

2013 국립고양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 고양, 경기도
2012 인천아트플랫폼 레지던시 프로그램 3기 입주작가, 인천

KIM Soohwan

Born in Incheon, 1981. Lives and works in Incheon

Education

2011 M.F.A. College of Fine Arts(painting), University of Incheon, Incheon
2007 B.F.A. College of Fine Arts(painting), University of Incheon, Incheon

Selected Solo Exhibitions

2012 HOME SWEET HOME, Incheon Art Platform, Incheon
2009 Randomday Something, SongEun Gallery, Seoul
2008 NOGADA Inc. Gallery Velvet, Seoul
2007 TOY NOGADA, Seongnam Arts Center, Seongnam, Gyeonggi-do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12 Creative posture of The Distance, Seoul Art Space_Geumcheon, Seoul
Sea of Peace, Boundary of the water_2nd Incheon Peace Art Project, Incheon Art Platform, Incheon
Wuju Dabang, Incheon Art Platform, Incheon
2011 Bbongzzak-Zzambbong Document, Empty house, Jung-gu, Incheon
You're Incheon, Incheon Art Platform, Incheon
Again, Gallery Golmok, Seoul
2009 Ganpan Tuseongi(A Web of Signs), KT&G SangsangMadang, Seoul
City-Ray, Space beam, Incheon
2008 International Art-Book Making Festival 2008, Jeongdok Public Library, Seoul
Rainbow Bridge, Spielraum, Incheon
Play Project, Expression Gallery Yogiga, Seoul
2007 642-7 Housewarming, A non-operating plant, Incheon

Selected Awards

2008 SOMA Drawing Center 3rd Archive Artist Registry, Seoul
2007 Supported by Incheon Foundation For Arts & Culture NCE(New Culture Engine)
2006 The 31th Competition of Chang-Jark Arts, Grand Prize
601 Bisang Art Book Project, Silver Prize

Residencies

2013 The National Art Studio, Goyang Art Studio residency program, Goyang, Gyeonggi-do
2012 Incheon Art Platform 3rd Artist-in-Residence Program, Incheon

Webite www.soohwan.com
E-mail shwan09@naver.com

김시하

1974년 경기도 안양 출생, 경기도, 중국 거주 및 작업

학력

2001 계원조형예술대학교 매체예술 동시대미술 연구과정 수료, 서울
1997 경희대학교 미술교육과 졸업, 서울

주요 개인전

2012 Real fantasy, 쿤스트독 갤러리, 서울
2010 The twinkle of time, 송은 갤러리, 서울
2008 펑펑천 · 김시하 공동 개인전, TN 갤러리, 북경, 중국
2006 파편_drawing, 갤러리 더 스페이스 기획 초대전, 서울
2005 예술가의 정원, 에스파스 다빈치 갤러리 기획 초대전, 서울
2003 꽃피는 젊은 예술, 성보 갤러리, 서울

주요 단체전

2011 뽕짝짬뽕도큐멘트, 인천시 중구 중앙동 1가 9–1번지, 인천
유어인천 遊於仁川,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분쟁의 바다 화해의 바다,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국경 없는 시간, 아트스페이스 휴, 파주
2010 Otonarisan, Gallery Artlier & Kyushu University Museum, 후쿠오카
일민시각문화5 : 격물치지, 일민미술관, 서울
Chaotic Harmony, Santa Barbara Museum of Art, 산타 바바라
Double Interview, Art Space Hue & I–MYU Projects 서울, 런던
Mind Games, Australian Centre for Photography, 시드니
2009 Chaotic Harmony, The Museum of Fine Arts, Houston, 휴스턴
극장전(劇場展), 삼성극장, 부산
City–Ray, 스페이스 빔, 인천
The Photograph as Contemporary Art, 두산아트센터, 서울
靑·少·年 : 일민시각문화 4, 일민미술관, 서울
Identity, Costume, Cliche : Korean Photography Today, PCNW, 시애틀
2008 젊은 모색 2008, I am an Artist,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Discoveries Exhibition of Fotofest, 포토페스트 비엔날레, 텍사스

수상

2012 서울문화재단 예술창작지원 사업 선정
2007 Young Portfoilio 2008 of Kiyosato Museum of Photographic Art, 키요사토, 일본
2006 Discoveries of Fotofest 2006, 포토페스트

레지던시

2012 인천아트플랫폼 레지던시 프로그램 3기 단기 입주작가, 인천
2008 국립고양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 고양, 경기도

KiIM Siha

Born in Anyang, Gyeonggi-do, 1974. Lives and works in Gyeonggi-do, China

Education

2001 Kaywon school of art and design work-shop course, Seoul
1997 The Department of art education, Kyunghee university, Seoul

Selected Solo Exhibitions

2012 Real fantasy, kunstdoc Gallery, Seoul
2010 A twinkle of time, Song Eun Museum, Seoul
2008 Co-Solo exhibition, TN Gallery, Beijing, China
2006 A broken piece_drawing exhibition, Gallery the space, Seoul
2005 Garden of artist, Davinci Gallery, Seoul
2003 Blooming young art, Sungbo Gallery, Seoul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11 BBongJJak JJamPPong Document, Jungangdong 1ga 9-1, Incheon
You're Incheon, Incheon Art Platform, Incheon
Sea of Peace, Incheon Art Platform, Incheon
Time Without Borders, Art Space Hue, Paju
2010 BBongJJak JJamPPong Document, Jungangdong 1ga 9-1, Incheon
You're Incheon, Incheon Art Platform, Incheon
Sea of Peace, Incheon Art Platform, Incheon
Time Without Borders, Art Space Hue, Paju
2009 Chaotic Harmony, The Museum of Fine Arts Houston, Houston
Cinema Exhibition, Samsung Theater, Busan
City-Ray, Space Beam, Incheon
The Photograph as Contemporary Art, Doosan Art Center, Seoul
Ilmin Visual Culture 4: Image of Youth, Ilmin Museum, Seoul
Identity, Costume, Cliché: Korean Photography Today, PCNW, Seattle
2008 Korean Young Artists 2008,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Gwacheon
Discoveries Exhibition of Fotofest, Fotofest Biennial, Houston

GRANT AND AWARD

2012 Supported by Seoul Foundation and Arts and Culture
2008 Young Portfolio 2008 of Kiyosato Museum of Photographic Art, Japan
2006 Discoveries of Fotofest 2006, Nominated by Anne Tucker

Residencies

2012 Incheon Art Platform 3rd Artist-in-Residence Program(3month), Incheon
2008 The National Art Studio, Goyang Art Studio residency program, Goyang, Gyeonggi-do

Website www.sihakim.com
E-mail sihakim@naver.com

김윤아

1978년 전라북도 출생, 서울 거주 및 작업

학력

2010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대학원 조소과 석사과정 졸업, 서울
2003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 졸업, 서울

주요 개인전

2012 Complete Remnant, 박수근미술관, 강원도
2010 Rains, RedMill Gallery, 미국
2009 Room, 유아트 스페이스, 서울
An Ideal Type, 난지갤러리, 서울
2008 실의 변증법에 대한 명상, 덕원갤러리, 서울

주요 단체전

2012 Network 21C, 한국 소리문화의 전당, 전주
미술창작스튜디오 네트워크, 봉산문화회관, 대구
개에게 먹힌 뇌, CSP111 아트스페이스, 서울
해안동 10–1_3기 입주작가 프리뷰전,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비밀_오차의 범위, 광주시립미술관, 광주
비밀_오차의 범위, 아르코미술관, 서울
2011 Art Chorus_21C 현대미술의 조명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인천
Network 21C, 한국 소리문화의 전당, 전주
네트워크_비밀, 부산시립미술관, 부산
현대미술 백인백색, 서울시립미술관 경희궁분관, 서울
2010 Art Chorus_한·러 국제미술교류전, 러시아 중앙화가 회관, 러시아
Sculpture2010 트리엔날레 디 밀라노, 인천 전시관, 인천
ART STUCK IN STORAGE, Unofficial Preview 갤러리, 서울
2009 서울–이스탄불전, Istanbul Yeminli Mali Musavirler Odasi Galerisi, 터키
조율_인천국제여성미술비엔날레,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한국의 금속미술_두드리고 다듬다,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서울
2008 Air project_난지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 오픈스튜디오, 난지창작스튜디오, 서울
미술창작스튜디오 네트워크전, 봉산문화센터, 대구
POSCO Steel Art Award, 포스코미술관, 서울
Young Avant–couriers, 부평 역사박물관, 인천
디지털미디어와 현대조각의 만남, 상암DMC IT컨소시엄전시관, 서울

수상 및 선정

2012 제1회 가송예술상, 특별상, 가송문화재단 공아트스페이스, 서울
2011 아르코 성장프로그램, 아르코미술관, 서울
2010 해외레지던스 지원 선정,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9 SeMA 신진작가 선정, 서울시립미술관
서울문화재단 정기공모사업–예술표현 활동지원 선정, 서울문화재단
2008 POSCO Steel Art Award, 입선, 포스코 청암재단

레지던시

2012 경기창작센터 레지던시 프로그램 중기 입주작가, 경기도
인천아트플랫폼 레지던시 프로그램 3기 중기 입주작가, 인천
2011 박수근미술관 레지던시 프로그램 6기 입주작가, 강원도
2010 버몬트센터스튜디오 레지던시 프로그램, Asian Artist Fellowship Honorable Mention Award, 미국
2008 서울난지 미술창작스튜디오 3기 입주작가, 서울

KIM Yunah

Born in Jeollabuk-do, 1978. Lives and works in Seoul

Education

2010 M.F.A. in Sculpture, Hongik University, Seoul
2003 B.F.A. in Sculpture, Hongik University, Seoul

Selected Solo Exhibition

2012 Complete Remnant, Parksookeun Museum, Gangwon-do
2010 Rains, RedMill Gallery, USA
2009 Room, Yooart Space, Seoul
An Ideal Type, Nanji Gallery, Seoul
2008 Contemplation on Dialectic of Strings, Dukwon Gallery, Seoul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12 Network 21C, Sori Arts Center of Jeollabuk-do, Jeonju
Art Studio Network, BONGSAN Culture Center, Daegu
Eaten Brain by dog, CSP111 Art Space, Seoul
Haean-dong 10-1, Incheon Art Platform, Incheon
the Secret_The Margin of error, Gwangju Museum of Art, Gwangju
the Secret_The Margin of error, Arko Art Center, Seoul
2011 Art Chorus_21C, Incheon Culture & Arts Center, Incheon
Network 21C, Sori Arts Center of Jeollabuk-do, Jeonju
Network_the Secret, Busan Museum of Art, Busan
Contemporary Trends 100 artists, Seoul Museum of Art, Seoul
2010 Art Chorus_Korea-Russia International Art Exchange Exhibition, Central House of Artists, Russia
Sculpture2010 Triennale de Milano, Incheon Museum, Incheon
ART STUCK IN STORAGE, Unofficial Preview Gallery, Seoul
2009 Seoul-Istanbul, Istanbul Yeminli Mali Musavirler Odasi Galerisi, Turkey
Exhibition Tuning_International Incheon Woman Artists Biennale, Incheon Art Platform, Incheon
Metal Art in Korea_Pounding and Polishing, Ewha Womans University Museum, Seoul
2008 Air Project_Open Studio, Nanji Studio, Seoul
Art Studio Network, BONGSAN Culture Center, Daegu
POSCO Steel Art Award POSCO Art Museum, Seoul
Young Avant-courier, Bupyeong History Museum, Incheon
Digital Media & Contemporary Sculpture, Sang-am DMC IT Consortium Exhibition Center, Seoul

Selected Awards

2012 1st Ghasong Ar tAward, Special Prize, Ghasong Council, Seoul
2011 ArKo program to develop for young artist, Arko Art Center, Seoul
2010 Grants for Artist in residency, Arts Council Korea
2009 SeMA Young artist creation support project, Seoul Museum of Art
SEOUL FOUNDATION arts and culture creation support project
2008 POSCO Steel Art Award, POSCO TJ Park Foundation

Residencies

2012 Gyeonggi Creation Center Residency program(6month), Gyeonggi-do
Incheon Art Platform 3rd Artist-in-Residence Program(6month), Incheon
2011 Parksookeun Museum Studio Residency program 6th artist, Seoul
2010 Vermont Studio Center residency program, Asian Artist Fellowship Honorable Mention Award, USA
2008 Nanji Art Studio Residency program 3rd Artist, Seoul

E-mail k.yunah@yahoo.com

김창기

1964년 전라북도 출생, 인천 거주 및 작업

학력

1998 이탈리아 까라라 국립 아카데미 조각학과 석사 졸업, 이탈리아
1992 인천 대학교 미술학과 졸업, 인천

주요 개인전

2011 한평갤러리, 인천
2011 갤러리 라메르, 서울
2010 부평아트센터, 인천
2006 심은 미술관, 인천
2005 스페이스 빔, 인천
2002 신세계갤러리 기획초대전, 인천
2000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인천
2000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인천
1999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인천
1998 최갤러리 초대전, 서울
1996 최갤러리 초대전, 서울
1995 Capella di pallazzo mediceo, 세라베짜, 이탈리아

주요 단체전

2012 인천, 조각을 말하다, 가온갤러리, 인천
날 보러 와요_인천아트플랫폼 입주작가 오픈스튜디오,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해안동 10–1_3기 입주작가 프리뷰전,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2011 대한민국 현대미술 백인 백색전, 서울시립미술관 경희궁 분관, 서울
인천 한마당 축제, 인천 종합 문화예술회관, 인천
인천 전업작가 협회전, 인천 학생교육 문화회관, 인천
반딧불이 마을전, 인천 미추홀 도서관, 인천
환경미협전_환경 미술 회화제, 인천 종합 문화예술회관, 인천
2010 마르뗄로 조각회 창립전_까라라 조각의 즐거운 여행, 갤러리 에쿼드
나인, 서울
사람과 사람전, 가온갤러리, 인천
2009 환경미협전_환경 미술 회화제, 인천 종합 문화예술회관, 인천
인천 조형작가 협회전, 부평역사박물관, 인천
2008 아름다운 교문 만들기 프로젝트, 송림초등학교, 인천
상해·인천 조각 교류전, 상해, 중국
인천대학교 교강사 동문전, 인천 종합 문화예술회관, 인천
전업미술가협회 10주년기념전, 세종문화회관 · 인천 종합 문화예술회관, 서울·인천
한·중 교류전, 남경, 중국
설치미술 프로젝트, 고성, 강원도
부평구 설치 평면전, 부평구청 전시실, 인천
반딧불이 마을전, 신세계 갤러리, 인천
조형작가 협회전, 신세계 갤러리, 인천
사람과 사람전, 한중문화회관, 인천
인천 대표 작가전, 연수구 평생교육원, 인천
인천 · 상해 교류전, 인천 학생교육 문화회관, 인천
2007 인천 · 상해 교류전, 서울 시청앞 광장, 서울
홍예문 프로젝트, 자유공원, 인천
2005 세번째 섬전, 전곡리, 경기도
소래 폐염전 프로젝트, 소래, 인천
평면설치 만남전, 부평구청, 인천

레지던시

2012 인천아트플랫폼 레지던시 프로그램 3기 입주작가, 인천

KIM Chang-ghi

Born in Jellabuk-do, 1964. Lives and works in Incheon

Education

1998 M.F.A. in Western Sculpture, College of Fine Arts, Carrara National Academy, Carrara, Italy
1992 B.F.A. in Western Painting, College of Fine Arts, Incheon University, Incheon

Selected Solo Exhibitions

2011 Hanpung Gallery, Incheon
Lamer Gallery, Seoul
2010 Bupyeong Art Center, Incheon
2006 Simeun Art Center, Incheon
2005 Space beam Gallery, Incheon
2002 Shinsegae Gallery, Incheon
2000 Incheon Culture & Arts Center, Incheon
1999 Incheon Culture & Arts Center, Incheon
1998 Choi Gallery, Seoul
1996 Choi Gallery, Seoul
1995 Capella Mediceo Gallery, Seraveza, Italy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12 Incheon, Speak a piece, Gallery Gaon, Incheon
Come to see me_Incheon Art Platform Open Studio, Incheon Art Platform, Incheon
Haean-dong 10-1, Incheon Art Platform, Incheon
2011 Korea Contemporary Art hundred people's hundred colors, Seoul Museum of Art (SeMA) Gyeonghui Branch, Seoul
Incheon Hanmadang Festival, Incheon culture & arts center, Incheon
Incheon Artist Association Exhibition, Education And Cultural For Student, Incheon
Firefly Village, Incheon Michuhol Library, Incheon
Environmental Art Association_Environmental Art Painting, Incheon culture & arts center, Incheon
2010 Martello Piece founding_Funny trip for Carrara Piece, Gallery Quad Nine, Seoul
Person and person, Gallery Gaon, Incheon
2009 Environmental Art Association_Environmental Art Painting, Incheon Culture & Arts Center, Incheon
Incheon Sculpture artist Association Exhibition, Bupyeong History Museum, Incheon
2008 A beautiful school gate project, Songrim Elementary, Incheon
Shanghai-Incheon International Sculpture Exhibition, Shanghai, China
Lecturers Alumni Exhibition-University of Incheon, Incheon Culture & Arts Center, Incheon
Korea Professtional Artist Association 10th Memorial Exhibition, Sejong Center for the Performing Arts, Seoul-Incheon
Korea-China Exhibition, Nanjing, China
Installation art project, Gosung-gun, Gangwon-do.
Bupyeong installation exhibition, Bupyeong-gu Office Exhibition hall, Incheon
Firefly Village, Shinsegae Gallery, Incheon
Incheon Sculpture artist Association Exhibition, Shinsegae Gallery, Incheon
Person and person, Korean Chinese Cultural Center, Incheon
Incheon Representative Artist Exhibition, Yeonsu institutes of lifelong education, Incheon
Incheon-Shanghai Exchanges Exhibition, Education And Cultural For Student, Incheon
2007 Incheon-Shanghai Exchanges Exhibition, Square in front of City Hall, Seoul
Hongyemun project, Freedom Park, Incheon
2005 The 3rd Island Exhibition, Jeongokri, Gyeonggi-do
Sorae Closed torsion Project, Sorae, Incheon
Installation Encounter exhibition, Bupyeong-gu Office Exhibition hall, Incheon

Residency

2012 Incheon Art Platform 3rd Artist-in-Residence Program, Incheon

E-mail chang-ghi@hanmail.net

김효숙

1981년 서울 출생, 경기도 용인 거주 및 작업

학력
2009 용인대학교 예술대학원 회화학과 졸업, 경기도
2004 용인대학교 예술대학 회화학과 졸업, 경기도

주요 개인전
2011 부유하는 나의 도시 II, OCI미술관, 서울
2008 부유하는 나의 도시, 영아트갤러리, 서울

주요 단체전
2012 OCI 미술관 입주작가 전, OCI미술관, 서울
해안동 10-1_3기 입주작가 프리뷰전,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tipping point 2012, 관훈갤러리, 서울
별별동행, 군산시민문화회관, 군산
평화의 바다, 물위의 경계_제2회 인천 평화미술 프로젝트,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아트로드77, 북하우스 아트스페이스, 파주
2011 송은미술대상전, 송은아트스페이스, 서울
I will survive, 서교예술실험센터, 서울
Irony of Individual, 유앤씨갤러리, 서울
Upload-都市, 아트스페이스 루, 서울
Eye scream maker, 스페이스 K, 대구, 과천
아트로드77, 갤러리 화이트블럭, 파주, 경기도
2010 미리보기전, OCI미술관, 서울
중앙미술대전,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 서울
2009 2009 아시아프, 옛 기무사 건물, 서울
상상력 발전소, 현대예술관, 울산
SMALL WONDERS, 인사갤러리, 서울
2008 드림 프로젝트, 고도갤러리, 서울
Thanks for giving, 봉아트갤러리, 서울
쉼표(,), JS Art갤러리, 파주, 경기도

수상 및 선정
2010 1회 송암문화재단 신진작가 선정작가
10회 송은미술대전 선정작가
32회 중앙미술대전 선정작가

작품 소장
국립현대미술관, 경기도
송암문화재단, 서울
인천문화재단, 인천

레지던시
2013 국립고양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 고양, 경기도
2012 인천아트플랫폼 레지던시 프로그램 3기 입주작가, 인천
2011 OCI미술관 레지던시 프로그램 입주작가, 서울

KIM Hyo-suk

Born in Seoul, 1981. Lives and works in Yongin, Gyeonggi-do

Education
2009 M.F.A. Graduate School of Fine Arts Western Painting Yongin University, Gyeonggi-do
2004 B.F.A. Graduate School of Fine Arts Western Painting Yongin University, Gyeonggi-do

Selected Solo Exhibitions
2011 My Floating City **II**, OCI Museum of Art, Seoul
2008 My Floating City, Young Art Gallery, Seoul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12 OCI Museum of Art residency program, OCI Museum of Art, Seoul
Haean-dong 10-1, Incheon Art Platform, Incheon
tipping point 2012, Kwanhoon Gallery, Seoul
A Sorts of accompanying, Gunsan Culture Center, Gunsan
Sea of Peace, Boundary of the water_2nd Incheon Peace Art Project, Incheon Art Platform, Incheon
Art Road 77, Book house art space, Paju, Gyeonggi-do
2011 SongEun Fine Arts Prize, SongEun Art Space, Seoul
I will survive, Seoul Art Center_Seogyo, Seoul
Irony of Individual, UNC Gallery, Seoul
Upload-City, ART SPACE LOO, Seoul
Eye scream maker, Space K, Daegu, Gwacheon
Art Road 77, Gallery White Block, Paju, Gyeonggi-do
2010 Preview, OCI Museum of Art, Seoul
Joongang Fine arts Prize, Seoul Arts Center Hangaram Art Museum, Seoul
2009 2009 ASYAAF, The old headquarters of Defense Security Command, Seoul
Imagination power station, Hyundai Arts center, Ulsan
SMALL WONDERS, Insa Gallery, Seoul
2008 Dream Project, Gallery Godo, Seoul
Thanks for giving, Bong Art Gallery, Seoul
Comma(,), JS Art Gallery, Paju, Gyeonggi-do

Selected Awards
2010 The 1st Songam Foundation_Young Artist Competition
The 10th SongEun Fine Arts Prize
The 32th Joongang Fine Arts Prize

Collections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Gyeonggi-do
Songam Arts & Cultural Foundation, Seoul
Incheon Foundation For Arts & Culture, Incheon

Residencies
2013 The National Art Studio, Goyang Art Studio residency program, Goyang, Gyeonggi-do
2012 Incheon Art Platform 3rd Artist-in-Residence Program, Incheon
2011 OCI Museum of Art Residency Program, Seoul

E-mail 99552555@naver.com

민재영

1968년 서울 출생, 경기도 분당 거주 및 작업

학력
2007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 박사 수료, 서울
1999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 석사 졸업, 서울
1990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 졸업, 서울

주요 개인전
2011 The Road Home, 가회동60 갤러리, 서울
2010 적응適應, 노암갤러리, 서울
2009 PARADE, 갤러리 쌈지, 서울
2007 가인갤러리, 서울
거리로 향한 창, 갤러리 진선, 서울

주요 단체전
2012 나, 화가, 아트포럼뉴게이트, 서울
해안동 10-1_3기 입주작가 프리뷰전,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2011 서울, 도시탐색전,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제2회 대한민국 현대한국화페스티벌,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
2010 한국화 판타지_한국화의 감각적 재해석, 서울시립미술관 남서울 분관, 서울
Art Road 77 아트페어 2010_With Art, With Artist, 아트팩토리, 파주, 경기도
Image In Dialog_드로잉, 순간을 가져오다, 한전아트센터 갤러리 기획전시실·주일한국대사관 한국문화원 전시실 갤러리 미, 서울, 일본
이원전 30주년 기념전, 공아트스페이스, 서울
2009 한·중 수묵화교류전_文·人·化, 의재미술관, 광주
한·중 현대회화 교류전, 798-ARTMIA 갤러리, 중국
대한민국예술대장정_박수근마을에서 이중섭거리까지, 박수근미술관, 강원도
동양화새천년기획 X_한국화의 현대적 변용, 예술의 전당, 서울
난지창작스튜디오 3기 릴레이전시_민재영·변웅필·이강원 3인전, 난지갤러리, 서울
2008 일상과의 대화, 전북도립미술관, 전라북도
Cutting Edge, 서울옥션 스페이스, 서울
동양화 새천년 기획 IX_한국현대회화, 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 서울
2007 Text in Bodyscape_신체에 관한 사유,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수상 및 선정
2010 서울시립미술관 SeMa 작가전시지원프로그램 선정
경기문화재단 우수작품창작발표활동 기금지원 선정
2009 서울문화재단 시각예술표현활동 지원기금 선정
2008 SOMA 드로잉센터 3기 아카이브 등록
2006 제28회 중앙미술대전 선정작가,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 서울

작품 소장
국립현대미술관, 경기도
포스코 미술관, 서울
경기도 미술관, 경기도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레지던시
2012 인천아트플랫폼 레지던시 프로그램 3기 입주작가, 인천
2008 서울시립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3기 입주작가, 서울

MIN Jaeyoung

Born in Seoul, 1968. Lives and works in Bundang, Gyeonggi-do

Education
2007 Completion of D.F.A. Course,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1999 B.F.A. in Oriental Painting, College of Fine Art,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1990 M.F.A. in Oriental Painting, College of Fine Art,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Selected Solo Exhibitions
2011 The Road Home, Gallery Gahoedong 60, Seoul
2010 Adaptation, Noam Gallery, Seoul
2009 PARADE, Gallery Ssamzie, Seoul
2007 Gaain Gallery, Seoul
Window Facing the Street, Gallery Jinsun, Seoul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12 I'm a painter, Art forum Newgate, Seoul
Haean-dong 10-1, Incheon Art Platform, Incheon
2011 Seoul, City Exploration, Seoul Museum of Art, Seoul
The International Contemporary Korean painting Festival in Republic of KOREA, Daegu Culture & Arts Center, Daegu
2010 Korean Painting Fantasy_Sensuous Reinterpretations of Korean Painting, Seoul Museum of Art, Seoul
Art Road 77 Art Fair 2010_With Art, With Artist, Art Factory, Paju, Gyeonggi-do
Image In Dialog, KEPCO Plaza Gallery in Korea·Gallery MI, Korean Cultural Center, the Korean Embassy in Japan, Seoul, Japan
The 30th Annual Exhibition of E-Won group, Gong Art Space, Seoul
2009 Korean·Chinese Contemporary Art Exhibition_Culture·Human·Harmony, Uijae Museum of Korean Art, Gwangju
Beijing 798 Biennale Group Exhibition by Korean·Chinese Artists, 798-ARTMIA Gallery, China
Long March of Korean Artists, Park Soo Keun Museum, Gangwon-do
New Millennium of Oriental Painting **X**_Korean Contemporary Painting, Seoul Arts Center, Seoul
MIN Jae-young·BYEN Ung-pil·LEE Kang-won_Trio Show, Nanji Gallery, Seoul
2008 Daily Conversation, Jeonbuk Museum of Art, Jellabuk-do
Cutting Edge, Seoul Auction Space, Seoul
Korean Contemporary Painting, Seoul Arts Center Hangaram Art Museum, Seoul
2007 Text in Bodyscape, Seoul Museum of Art, Seoul

Selected Awards
2010 SeMa Selected Emerging Artists Support Program, Seoul Museum of Art
Selected Creative Works,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2009 Selected to receive the supporting fund for artistically expressing activities,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2008 SOMA Drawing Center The 3rd Archive
2006 The 28th Joongang Fine Arts Prize-Selected Artists, Seoul Arts Center Hangaram Art Museum, Seoul

Collections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_Art Bank, Gyeonggi-do
Posco Art Museum, Seoul
Gyeonggi Museum of Modern Art, Gyeonggi-do
Seoul Museum of Art, Seoul

Residencies
2012 Incheon Art Platform 3rd Artist-in-Residence Program, Incheon
2008 Nanji Art Studio 3rd Residency, Seoul

E-mail jaeymin@hanmail.net

박방영

1957년 전라북도 출생, 경기도 파주 거주 및 작업

학력

2010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동양화 박사 수료, 서울
1995 Art student league of New York 수학, 미국
1989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서양화과 석사 졸업, 서울
1981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 졸업, 서울

주요 개인전

2011 갤러리 이노 초대전, 서울
2010 박방영의 함께 놀자, 갤러리 샤뽀 개관 초대전, 전주
2009 박방영 초대전, 빛갤러리, 서울
2008 박방영의 향기 흩날리고, 안단테 갤러리, 서울
박방영 초대 개인전, 국민일보 갤러리, 서울
2007 ARCHES gallery 기획 초대전, 캘리포니아, 미국
미술세계화랑, 긴자, 일본
2004 제비울 미술관 지원 초대작가전, 과천, 경기도
에스파스 다빈치 갤러리 선정 초대작가전, 서울

주요 단체전

2012 볼자노 아트페어, 볼자노, 이탈리아
평화의 바다, 물위의 경계_제2회 인천 평화미술 프로젝트,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흐:름, 홍익대학교 현대미술관, 서울
2011 그리다, JMA스페이스, 전북도립 미술관 서울관, 전라북도
2010 자연의 신화 제주_세계 자연문화 유산 특별 기획전, 제주 현대미술관, 제주
2009 꽃밭에서, 63스카이아트 갤러리, 서울
서울 오픈 아트페어, 코엑스, 서울
2008 다카르비엔날레, 세네갈, 아프리카
요코하마 월드피스아트페스티벌, 요코하마, 일본
서울국제아트페어, 코엑스, 서울

소장 경력

국립현대미술관, 경기도
경기도미술관, 경기도
청주박물관, 충청북도
두바이대사관, 서울
제비울 비술관, 경기도
제주현대미술관, 제주
동아제약연구소, 서울
반계유형원유적지, 전라북도

레지던시

2012 인천아트플랫폼 레지던시 프로그램 3기 입주작가, 인천

PAK Bang-young

Born in Jellabuk-do, 1957. Lives and works in Paju, Gyeonggi-do

Education

2010 Completion Ph.D. course in Oriental Art from Hongik University, Seoul
1995 Studied at Art student league of New York, USA
1989 M.F.A. Western Painting Hongik University, Seoul
1981 B.F.A. from Hongik University, Seoul

Selected Solo Exhibitions

2011 Gallary Inno Solo exhibition, Inno Gallery, Seoul
2010 Play together with PAK Bang-young, Gallery SaBBo, Jeonju
2009 PAK Bang-young Solo exhibition, Vit Gallery, Seoul
2008 PAK Bang-young's Scen flying, AnDanTe Gallery, Seoul
Solo invitations PAK Bang-young, KookminIlbo Gallery, Seoul
2007 ARCHES Gallery, California, USA
Art World Gallery, Ginja, Japan
2004 Invitation Solo Show Supported by Jebiul Art Museum, Gwacheon, Gyeonggi-do
PAK Bang-young Art of Crisp Breeze Wind, Selected by Espas Da Vinchi, Seoul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12 Volzano Art Fair, Volzano, Italy
Sea of Peace, Boundary of the water_2nd Incheon Peace Art Project, Incheon Art Platform, Incheon
Exhibition of Stream, Contemporary Art Museum of Hongik Univ, Seoul
2011 Draw, JMA Space, Jeonbuk Museum of Art_Seoul Space, Jellabuk-do
2010 Nature Myth of Jeju_World-wide natural cultural heritage special exhibition, Jeju Museum of Contemporary Art, Jeju
2009 At flower garden, 63 Sky Art Museum, Seoul
Seoul Open Art Fair, COEX, Seoul
2008 DAK'S ART BIENNALE, Senegal, Africa
World Peace Art festival, Yokohama, Japan
Seoul International Art Fair, COEX, Seoul

Collections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Gyeonggi-do
Gyeonggi Museum of Modern Art, Gyeonggi-do
Museum of Chungju, Chungcheongbuk-do
Embassy of Dubai, Seoul
Jebiul Fine Art Museume, Gyeonggi-do
Jeju Museum of Contemporary Art, Jeju
Dong A Pharmaceutical Co. Research Institute, Seoul
Historic Sites of BanKye YooHyungWon, Jellabuk-do

Residency

2012 Incheon Art Platform 3rd Artist-in-Residence Program, Incheon

Website pakbangyoung.com
E-mail pakbangyoung@hanmail.net

박상희

1969년 인천 출생, 인천 거주 및 작업

학력

1999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대학원 회화과 석사 졸업, 서울
1995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졸업, 서울

주요 개인전

2012 12회 개인전_밤, 풍경, 최정아 갤러리, 서울
11회 개인전_A Night Walk, 신세계갤러리, 인천
2009 10회 개인전_야경산책, 가온갤러리, 인천
9회 개인전_SeMA 신진작가지원전, 카이스 갤러리, 서울

주요 단체전

2012 플라스틱 데이즈, 포항시립미술관, 경상북도
재료의 연금술사, 이랜드스페이스, 서울
poster poster, 인터알리아, 서울
평화의 바다, 물위의 경계_제2회 인천 평화미술 프로젝트,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SCAG갤러리 개관기념전, SCAG갤러리, 서울
부산국제아트페어, BEXCO, 부산
2011 KIAF Korean Art Show, 뉴욕 한국 문화원, 뉴욕, 미국
이음과 흐름전, 신세계갤러리, 인천
아트로드 77, 화이트 블록 갤러리, 경기도
어떤 풍경, 카이스 갤러리, 서울
釜山 익숙한 도시, 낯선 장소, 신세계 갤러리, 부산
고양이를 부탁해,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Breathe, 홍콩 아트센터, 홍콩

작품 소장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경기도
아르코 미술관, 서울
인천문화재단, 인천

레지던시

2012 인천아트플랫폼 레지던시 프로그램 3기 입주작가, 인천
2009 인천아트플랫폼 파일럿 프로그램 입주작가, 인천
2007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 서울

PARK Sang-hee

Born in Incheon, 1969. Lives and works in Incheon

Education

1999 Graduated from Hongik Graduate school Majored in Painting, Seoul
1995 Graduated from Hongik Univ, Majored in Painting, dept. at Fine Arts, Seoul

Selected Solo Exhibitions

2012 12th Solo-Exhibition_A Night, The Sceanery, ChoiJungA Gallery, Seoul
11th Solo-Exhibition_A Night Walk, Shinsegae Gallery, Incheon
2009 10th Solo-Exhibition_A Night View Walk, Gaon Gallery, Incheon
9th Solo-Exhibition_SeMA Emerging Artists, Cais Gallery, Seoul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12 Plastic days, Pohang Museum of Steel Art, Gyeongsangbuk-do
Alchemists of Material, E-Land Space, Seoul
poster poster, Interaliar, Seoul
Sea of Peace, Boundary of the water_2nd Incheon Peace Art Project, Incheon Art Platform, Incheon
SCAGgallery opening exhibition, SCAG gallery, Seoul
Busan Art Fair, BEXCO, Busan
2011 KIAF Korean Art Show, Korean Cultural Service New York, New York, USA
Bridge to Bridge, Shinsegae Gallery, Incheon
Art Road 77 Art fair, White Block gallery, Gyeonggi-do
Some places, Cais Gallery, Seoul
Busan my city, my strange place, Shinsegae Gallery, Busan
Take care of my cat, Incheon Art Platform, Incheon
Breathe, Hongkong Art center, Hongkong

Collections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_Art Bank, Gyeonggi-do
Arko Art Center, Seoul
Incheon Foundation For Arts & Culture, Incheon

Residencies

2012 Incheon Art Platform 3rd Artist-in-Residence Program, Incheon
2009 Incheon Art Platform Artist-in-Residence Pilot Program, Incheon
2007 Nanji Art Studio Residency, Seoul

E-mail scaber@hanmail.net

신태수

1962년 경상북도 출생, 경북 안동 거주 및 작업

학력

1998 영남대학교 대학원 동양화과 졸업, 경북
1986 안동대학교 미술학과 졸업, 경북

주요 개인전

2011 가슴은 눈을 그리워하고, 사카이마치갤러리, 교토, 일본
2010 진경산묵眞景散墨, 사카이마치갤러리, 교토, 일본
진경산묵眞景散墨, 북촌미술관, 서울
2009 바람의 색, 안동시민회관, 안동
2007 청량산 가는 길, 모란갤러리, 서울
2003 안동 주변의 풍광, 공평아트센터, 서울
2001 진경산수 진인정신, 맥향화랑, 대구

주요 단체전

2012 평화의 바다, 물위의 경계_제2회 인천 평화미술 프로젝트,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해안동 10-1_3기 입주작가 프리뷰전,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2011 화가가 사랑한 하회마을, 안동문화예술의 전당, 안동
고려청자와 한국의 수묵화, 국제교류센터, 교토, 일본
뭍 그리고 바람, 이중섭 미술관, 제주
산을 내려가는 물의 마음, 안동문화예술의 전당, 안동
2009 한국화의 현대적변용, 예술의 전당, 서울
2008 누군들 따뜻한 남쪽마을이 그립지 않으랴, 천관문학관, 장흥, 전라남도
2007 백제의 향기, 부여의 꿈, 부여정림사지박물관, 부여, 충청남도

레지던시

2012 인천아트플랫폼 레지던시 프로그램 3기 입주작가, 인천
2011 박수근 미술관 정림리 창작스튜디오, 강원도

SHIN Taesoo

Born in Gyeongsangbuk-do, 1962. Lives and works in Andong, Gyeongbuk

Education

1998 Master's degree from graduate school of Yeungnam University majoring in Oriental painting, Gyeongbuk
1986 Department of Fine Art in college of Arts & Physical Education at Andong National University, Gyeongbuk

Selected Solo Exhibitions

2011 Heart missing the snow, Sakaimachi Gallery, Kyoto, Japan
2010 JinKyungSanMook, Sakaimachi Gallery, Kyoto, Japan
JinKyungSanMook, Bukchon Art Museum, Seoul
2009 Color of the Wind, Andong Civic Center Gallery, Andong, Gyeongbuk
2007 Path to Cheongnyansan(Mt.), Moran Gallery, Seoul
2003 Landscape of Andong and its surroundings, Gongpyeong Art Center, Seoul
2001 JinKyungSanSoo JinInJungSin, Maekhyang Gallery, Daegu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12 Sea of Peace, Boundary of the water_2nd Incheon Peace Art Project, Incheon Art Platform, Incheon
Haean-dong 10-1, Incheon Art Platform, Incheon
2011 Hahoe Village, a place where the artist loved, Andong Culture & Art Center, Andong, Gyeongbuk
Celadon from the Gorye age and Ink-and-wash Painting of Korea, International Center, Kyoto, Japan
Water and Wind, Lee Joong-Seop Art Museum, Jeju,
The heart of the water running down the Mountain, Andong Culture & Art Center, Andong, Gyeongbuk
2009 Modern Transformation of Korean Painting, Seoul Arts Center, Seoul
2008 Who would not miss the warm southern country?, Cheon-gwan Literature House, Jangheung, Jeollanam-do
2007 Scent of Baekje, Dream of Buyeo, Jeongnimsaji Museum, Buyeo, Chungcheongnam-do

Residencies

2012 Incheon Art Platform 3rd Artist-in-Residence Program, Incheon
2011 Park Soo-Keun Museum Creative Studio, Gangwon-do

E-mail tssin2647@hanmail.net

오석근

1979년 인천 출생, 인천 거주 및 작업

학력

2005 Nottingham Trent University School of Art & Design 사진과 졸업, 영국

주요 개인전

2012 해(海)에게서 소년(少年)에게+재와 먼지(灰塵),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79, 180 번지 두개의 집
2011 서해프로젝트 니나나나,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교과서(철수와 영희), 베이스 갤러리, 도쿄, 일본
2010 교과서(철수와 영희), 레꼴레따 문화센터, 부에노스 아이레스
교과서(철수와 영희), 오레곤 사진센터, 포틀랜드

주요 단체전

2012 Flesh & Bone, Portland Art Museum, 포틀랜드
City States, Liverpool Biennial, 리버풀
Meta Empire_Young Artists Project 2012, 엑스코, 대구
Twisted, 성곡미술관, 서울
Emerging : New Photography Acquisitions, Portland Art Museum, 포틀랜드
플랫폼 아티스트,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2011 뽕짝짬뽕 도큐멘트, 인천시 중구 중앙동 1가 9-1번지, 인천
분쟁의 바다, 화해의 바다_제1회 인천 평화미술 프로젝트,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국경 없는 시간, 아트스페이스 휴, 파주, 경기도
인천상륙작전,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2010 Otonarisan, Gallery Artlier & Kyushu University Museum, 후쿠오카, 일본
일민시각문화5 : 격물치지格物致知, 일민미술관, 서울
Chaotic Harmony, Santa Barbara Museum of Art, 산타 바바라
Double Interview, Art Space Hue & I-MYU Projects 서울, 런던
Mind Games, Australian Centre for Photography, 시드니
2009 Chaotic Harmony, The Museum of Fine Arts, Houston, 휴스턴
극장전劇場展, 삼성극장, 부산
City-Ray, 스페이스 빔, 인천
The Photograph as Contemporary Art, 두산아트센터, 서울
일민시각문화 4 : 靑少年, 일민미술관, 서울
Urban & Culture, 전주 포토 페스티벌, 전북예술회관, 전주
Identity, Costume, Cliche : Korean Photography Today, PCNW, 시애틀

수상

2012 서울문화재단 예술창작지원 선정
2010 서울문화재단 해외교류사업 지원 선정
2008 Young Portfoilio 2008 of Kiyosato Museum of Photographic Art

작품소장

Portland Museum of Art, 포틀랜드
The Museum Of Fine Arts, 휴스턴
Santa Barbara Museum of Arts, 산타 바바라
Kiyosato Museumof Photographic Art, 키요사토
일민미술관, 서울
상상마당, 서울
인천문화재단, 인천

레지던시

2011–2012 인천아트플랫폼 레지던시 프로그램 2기, 3기 입주작가, 인천

OH Suk-kuhn

Born in Incheon, 1979. Lives and works in Incheon

Education

2005 Nottingham Trent University School of Art & Design BA(Hons) Photography, UK

Selected Solo Exhibitions

2012 From the Sea to Youth+Ash and Dust, 179, 180 Yeonji-dong, Jongno-gu, Seoul, Two Houses
2011 Seohae Project_Ninanana, Incheon Art Platform, Incheon
The Text Book(Chulsoo & Younghee), Base Gallery, Tokyo, Japan
2010 The Text Book(Chulsoo & Younghee), Centro Cultural Recoleta, Buenos Aires
The Text Book(Chulsoo & Younghee), Blue Sky Gallery, Portland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12 Flesh & Bone, Portland Art Museum, Portland
City States, Liverpool Biennial, Liverpool
Meta Empire_Young Artists Project 2012, Exco, Deagu
Twisted, Sungkok Museum, Seoul
Emerging: New Photography Acquisitions, Portland Art Museum, Portland
Platform Artists, Incheon Art Platform, Incheon
2011 BBongJJak JJamPPong Document, Jungangdong 1ga 9-1, Incheon
Sea of Conflict, Sea of Reconciliation_1st Incheon Peace Art Project, Incheon Art Platform, Incheon
Time Without Borders, Art Space Hue, Paju, Gyeonggi-do
Incheon Landing Operation, Incheon Art Platform, Incheon
2010 Otonarisan, Gallery Artlier & Kyushu University Museum, Fukuoka, Japan
Ilmin Visual Culture 5: Ideal Beauty and Images, Ilmin Museum, Seoul
Chaotic Harmony, Santa Barbara Museum of Art, Santa Barbara
Double Interview, Art Space Hue & I-MYU Projects, Seoul & London
Mind Games, Australian Centre for Photography, Sydney
2009 Chaotic Harmony, The Museum of Fine Arts Houston, Houston
Cinema Exhibition, Samsung Theater, Busan
City-Ray, Space Beam, Incheon
The Photograph as Contemporary Art, Doosan Art Center, Seoul
Ilmin Visual Culture 4: Image of Youth, Ilmin Museum, Seoul
Urban & Culture, Jeonju Photo Festival, Jeollabuk-do Art Center, Jeonju
Identity, Costume, Cliché: Korean Photography Today, PCNW, Seattle

Selected Awards

2012 Supported by Seoul Foundation and Arts and Culture
2010 Supported by Seoul Foundation and Arts and Culture
2008 Young Portfolio 2008 of Kiyosato Museum of Photographic Art, Japan

Collections

Portland Museum of Art, Portland
The Museum of Fine Arts, Houston
Santa Barbara Museum of Art, Santa Barbara
Kiyosato Museum of Photographic Art, Kiyosato
Ilmin Museum, Seoul
SangsangMadang, Seoul
Incheon Foundation For Arts & Culture, Incheon

Residencies

2011-2012 Incheon Art Platform 2nd, 3rd Artist-in-Residence Program, Incheon

E-mai hommo_bulla@hotmail.com

웁쓰양

인천 출생, 인천 거주 및 작업

학력

부천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졸업, 경기도 부천

주요 개인전

2012 한 시대가 무심코 지나간다, 갤러리 정다방 프로젝트, 서울
2009 Evolution, 비주얼 아트센터 보다, 서울

주요 단체전

2012 평화의 바다, 물위의 경계_제2회 인천 평화미술 프로젝트, 인천아트 플랫폼, 인천
우주다방,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해안동 10-1_3기 입주작가 프리뷰전,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2011 유어인천, 인천아트 플랫폼, 인천
검소의 미학, 가일미술관, 가평, 경기도
미술로 보는 게임의 역사, 엑스코, 대구
2009 서교난장, KT&G상상마당, 서울
서교육십, KT&G상상마당, 서울
영아티스트 발굴전, 갤러리각, 서울
2008 I WANT, 가나아트스페이스, 서울
NEW WAVE, 갤러리 요기가, 서울
2007 꿈의 기록, 카페 VW, 서울

퍼포먼스

2012 예술의 쌩얼, 인천아트플랫폼 프로젝트 룸, 인천
2011 한 작품을 위한 뮤직비디오, 서울, 인천 거리 일대
2010 그림 장수 영화관 압수수색사건 ATU 닷라인, KT&G상상마당 시네마, 서울
고등어를 사려다 그림을 사다_재래시장 노점 퍼포먼스, 부평 재래시장 내, 인천
〈환장〉그림노점_재래시장 노점 퍼포먼스, 부평 재래시장 내, 인천
2007 지구도 숨쉬게 해주세요_환경 퍼포먼스, 부평, 인천

레지던시

2012 인천아트플랫폼 레지던시 프로그램 3기 입주작가, 인천

Woopsyang

Born in Incheon. Lives and works in Incheon

Education

Industrial design, Bucheon college, Bucheon, Gyeonggi-do

Solo Exhibition

2012 A times passing by inadvertently, Gallery Jungdabang Project, Seoul
2009 Evolution, The center of visual art Boda, Seoul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12 Sea of Peace, Boundary of the water_2nd Incheon Peace Art Project, Incheon Art Platform, Incheon
Wuju Dabang, Incheon Art Platform, Incheon
Haean-dong 10-1, Incheon Art Platform, Incheon
2011 Your Incheon, Incheon Art Platform, Incheon,
Simplicity of Aesthetics-aperto, GalL Art museum, Gapyeong, Gyeonggi-do
PIXEL ON CANVAS, EXCO, Dague
2009 Seogyo Nanjang, KT&G SangsangMadang, Seoul
Seogyo 60, KT&G SangsangMadang, Seoul
Young artists, Gallery Gak, Seoul
2008 I WANT, Gana Art space, Seoul
NEW WAVE, Yogiga Gallery, Seoul
2007 Recording of dream, Cafe VW, Seoul

Performances

2012 Naked Face of Arts, Incheon Art Platform, Incheon
2011 Music video for a artwork, Street of Seoul and Incheon
2010 Teather attack of an artist 2010 ATU, KT&G SangsangMadang, Seoul
Buy a Picture, but I bought a mackerel, Bupyeong bazar, Incheon
Hwan-Jang, Bupyeong bazar, Incheon
2007 Let the Earth breathe out, Bupyeong, Incheon

Residency

2012 Incheon Art Platform 3rd Artist-in-Residence Program, Incheon

E-mail reflowsky@naver.com

이수영

1967년 서울 출생, 경기도 일산 거주 및 작업

주요 개인전

2011 죽음 항해자, 고양시 벽제 화장터, 구제역 가축 매몰지, 고양창작스튜디오, 고양, 경기도
2010 SAJU 사주(四柱), Casa Asia, 바르셀로나, 스페인
2008 습진濕疹의 기억, 미술공간 琎 , 서울
2006 기록-증명, 인사미술공간, 서울

주요 단체전

2012 밥상의 기원, 복합공간 에무, 서울
하늘을 보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대전
그 '거리(distance)'의 창의적인 자세, 금천예술공장, 서울
평화의 바다, 물위의 경계_제2회 인천 평화미술 프로젝트,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20+, 미술을 만나다, 아람누리미술관, 고양, 경기도
해안동 10-1,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노마딕 리포트 2012, 아르코 미술관, 서울
2011 지도는 말을 한다, 아트라운지 디방, 서울
Liquid Moon 3_Korean German Project 2011, Ausstellungshalle Hawerkamp, 뮨스터, 독일
Time and Space, 자나두 갤러리, 울란바토르, 몽골
인터뷰, 아르코 미술관, 서울
Liquid Moon 2, 금천예술공장, 서울
2010 사거리, French Institute 갤러리, 바르셀로나, 스페인
레인보우 아시아, 예술의 전당, 서울
가리봉동 진달래 반점, 공간 해밀톤, 서울
Liquid Moon 1, Plan-d Galerie, 뒤셀도르프, 독일
2009 수유마을시장, 수유시장, 서울
예술을 파는 가게, 리트머스 갤러리, 안산, 경기도
짜장면渡海歌, 인천차이나타운 빈 점포, 인천
City-Ray, 스페이스빔, 인천
서울 무지개, 문화일보갤러리, 서울
2008 언니가 돌아왔다, 경기도 미술관, 안산, 경기도
부산비엔날레_바다미술제, 안리 미월드, 부산
돌아와요 부산항에, 부산시립미술관, 부산
부암동 43-2, 부암동 빈집 부엌방, 서울

레지던시

2012 인천아트플랫폼 레지던시 프로그램 3기 입주작가, 인천
2011 국립고양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 고양, 경기도
노마딕 레지던시, 달란드자드가드, 몽골리아
2010 앙가, 바르셀로나, 스페인
2009 서울시창작공간 금천예술공장, 서울

LEE Sooyoung

Born in Seoul, 1967. Lives and works in Ilsan, Gyeonggi-do

Selected Solo Exhibitions

2011 Death Wanders, a Crematorium, The Spot Infected livestock buried, Goyang, Gyeonggi-do
2010 SAJU, Fortunetelling, Casa Asia, Barcelona, Spain
2008 The Memory of Moist Rash, Art Space Hyun, Seoul
2006 Certification-Document, Insa Art Space, Seoul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12 The Origin of Meal, Complex Space EMU, Seoul
Looking at the Sky, KAIST(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Daejeon
The Creative Attitude of that 'Distance', Seoul Art Space Geumchon, Seoul
Sea of Peace, Boundary of the water_2nd Incheon Peace Art Project, Incheon Art Platform, Incheon
20+, To Meet Art, Aramnuri Arts Center, Goyang, Gyeonggi-do
Nomadic Report 2012, Arko Art Center, Seoul
2011 Maps Talk, Art Lounge Dibang, Seoul
Liquid Moon 3_Korean German project 2011, Ausstellungshalle Hawerkamp, Muenster, Germany
Time and Space, Xanadu Gallery, Ulaabaator, Mongolia
Interview, Arko Art Center, Seoul
Liquid Moon 2, Seoul Art Space_Geumcheon, Seoul
2010 Cross Road, French Institute Gallery, Barcelona, Spain
Rainbow Asia, Seoul Arts Center, Seoul
The Migrant Diner, Space Hamilton, Seoul
Liquid Moon 1, Plan-d Galerie, Dusseldorf, Germany
2009 Sooyoo Town Market, Sooyoo Market, Seoul
Art Market, Litmus Space, Ansan, Gyeonggi-do
Black Noodle Road Song, Unoccupied Store in Chinatown, Incheon
City-Ray, Space Beam Gallery, Incheon
Seoul Rainbow, Munwha Newspaper Gallery, Seoul
2008 Sister is back, Gyeonggi Museum of Modern Art, Ansan, Gyeonggi-do
Busan Biennale_Sea Art Festival, Unoccupied Sauna, Busan
Welcome to Busan, Busan Museum of Art, Busan
The Empty House # 43-2, Unoccupied House Kitchen, Seoul

Residencies

2012 Incheon Art Platform 3rd Artist-in-Residence Program, Incheon
2011 The National Art Studio, Goyang Art Studio residency program, Goyang, Gyeonggi-do
Nomadic Residency, Dalandzadgad, Mongolia
2010 Hanga, Barcelona, Spain
2009 Seoul Art Space_Guemcheon, Seoul

E-mail newbus11@hanmail.net

이의성

1982년 서울 출생, 서울, 인천 거주 및 작업

학력

2009 인하대학교 미술교육과 조소전공 졸업, 인천

주요 단체전

2013 가까운 미래, 먼 위안, 갤러리 화이트블럭, 경기도
서울문화재단_바람난 미술, 서울시청 신청사·서울역사 박물관, 서울
Young & Young artist project, 영은미술관, 경기도
[ ] Fill in the BLANK, 조호윤 에스더 갤러리, 서울
2012 인천 앞바다에 왜 사이다가 떴을까?,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풍경의 경계, 스페이스빔, 인천
Inha Fall exhibition 12, 팔레드서울, 서울
해안동 10-1_3기 입주작가 프리뷰전,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인천, 조각을 말하다, 가온갤러리, 인천
인하조각전, 한중문화관, 인천
2011 REVO Korea 2기 신진작가 Moving, 두산아트스퀘어, 서울
Gallery Aqua 신진작가전, 코엑스, 서울
2010 인하조각전, 에쿼드나인, 서울
2009 서울오픈아트페어 신진작가 전시, 코엑스, 서울
EPOCHE 판단중지, 부평구청전관, 인천

레지던시

2012 인천아트플랫폼 레지던시 프로그램 3기 입주작가, 인천

LEE Ui-sung

Born in Seoul, 1982. Lives and works in Seoul, Incheon

Education

2009 B.F.A. Fine Arts Education Inha University, Incheon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13 No Mercy, No Fear, Gallery White Block, Gyeonggi-do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_Art wing, the City Hall of Seoul·Seoul Museum of History, Seoul
Young & Young artist project, Youngeun Museum of Contemporary Art, Gyeonggi-do
[ ] Fill in the BLANK, Gallery JoHoYun Esther, Seoul
2012 Why is the Cider floating off Incheon?, Incheon Art Platform, Incheon
Boundary of a scene, Space Beam, Incheon
Inha Fall exhibition 12, Palais de Seoul, Seoul
Haean-dong 10-1, Incheon Art Platform, Incheon
Incheon, Sculpture of Incheon, Gallery Gaon, Incheon
Sculpture Group INHA Exhibition, Korean & Chinese cultural center, Incheon
2011 REVO Korea the 2nd Emerging Artist Moving Exhibition, Doosan Art Square, Seoul
Gallery Aqua Emerging Artist Representative Exhibition, COEX, Seoul
2010 Sculpture Group INHA Exhibition, Gallery Aquad 9, Seoul
2009 Seoul Open Art Fair Emerging Artist Contest, COEX, Seoul
EPOCHE Exhibition, Bupyeong-gu Office, Incheon

Residency

2012 Incheon Art Platform 3rd Artist-in-Residence Program, Incheon

E-mail leesung0712@naver.com

전윤정

1978년 인천 출생, 대전, 서울 거주 및 작업

학력

2011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조형학과 졸업, 서울
2003 서울여자대학교 서양화과 졸업, 서울

주요 개인전

2009 Next code, 대전 시립 미술관, 대전
상이한 감정, 대안 공간 반 지하, 대전
2008 근심의 도피_서울여자 대학교 석사학위 청구전, 바롬 갤러리, 서울

주요 단체전

2011 beyond drawing, 스페이스 15번지, 서울
Art Gwangju : 11, 대안공간 충정각, 광주
경기 창작센터 내 공간 프로젝트 전시 및 오픈스튜디오, 경기도
백인백색, 서울시립미술관 경희분관, 서울
2010 정신으로서의 선_그 힘, 이응노 미술관, 대전
순천 국제 대지미술제, 순천
기호의 우발성_2인전, 대안공간 충정각, 서울
유쾌한 간극_3인전, 오픈스페이스 배, 부산
EACH POINT 아트 팩토리, 경기도 헤이리
2009 김환기 국제미술제전_Eco Zone, 서울·광주·베를린
한국 현대 미술청년 전, 광주비엔날레전시실, 광주
미술에 다가가다_금호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워크샵 & 전시, kring, 서울
어울림, 영은 미술관, 광주, 경기도
37.2℃_2인전, UNC갤러리, 서울
2008 청년미술, 서울시립미술관 경희분관, 서울
2007 막긋기, 소마 미술관, 서울
Mild and Wild, 인데코 갤러리, 서울
2006 가늠을 보다, 우림 갤러리, 서울

선정

2010 드로잉 센터 아카이브 5기, 소마 미술관, 서울
2008 드로잉 센터 아카이브 3기, 소마 미술관, 서울
2006 드로잉 센터 아카이브 1기, 소마 미술관, 서울

레지던시

2012 인천아트플랫폼 레지던시 프로그램 3기 입주작가, 인천
2011 경기창작센터 입주 작가, 경기도
2009 금호창작스튜디오 입주 작가, 경기도

CHUN Yun-jung

Born in Incheon, 1978. Lives and works in Daejeon, Seoul

Education

2011 Painting at graduate school of Seoul Women's University, Seoul
2003 Department of Painting, Seoul Woman University, Seoul

Selected Solo Exhibitions

2009 Next code, Daejeon Museum of Art, Daejeon
Different Feeling, Banjiha gallery, Daejeon
2008 Gloom, Baroom gallery, Seoul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11 beyond drawing, Space 15, Seoul
Art gwangiu : 11, Alternative space Chung Jeong Gak, Gwangju
Gyeonggi Creation Center Residency open Studio & project Exhibition, Gyeonggi-do
No two men are of a mind, Gyeonghuigung Annex building of the Seoul Museum of Art, Seoul
2010 As mental ray_power, Yieungno Museum of Art, Daejeon
Sunnchon International Land Art Festival, Sunchon
Symbols of the contingency_2 Exhibition, Alternative space Chung Jeong Gak, Seoul
Pleasant Gap_3 Artists, Open Space Ship, Busan
EACH POINT, Art Factory Gallery, Heyri, Gyeonggi-do
2009 Kim Hwan-ki Museum of Art International Art Festival_Eco Zone, Seoul·Gwangju·Berlin, Germany
Korea Contemporary Art Exhibition Youth Asian panic, Gwangju Biennale Exhibition, Gwangju
kumho Art Studio Artists Workshop & Exhibition, Kring, Seoul
Eulim, Youngeun Museum of Art, Kwangju, Gyeonggi-do
37.2℃_2 Exhibition, UNC Gallery, Seoul
2008 New generation Art Fair, Seoul Museum of Art, Seoul
2007 Drawn to Drawing, SOMA Museum of Art, Seoul
Mild and Wild, Indeco Gallery, Seoul
2006 Sense of Proportion, Woo-Rim Gallery, Seoul

Selected Awards

2010 Drawing Center Archive 5th, SOMA Museum of Art, Seoul
2008 Drawing Center Archive 3rd, SOMA Museum of Art, Seoul
2006 Drawing Center Archive 1st, SOMA Museum of Art, Seoul

Residencies

2012 Incheon Art Platform 3rd Artist-in-Residence Program, Incheon
2011 Gyeonggi Creation Center Residency program, Gyeonggi-do
2009 Kumho Art Studio Residency program, Gyeonggi-do

E-mail yunjungchun@gmail.com

정용일

1956년 인천 출생, 인천 거주 및 작업

학력

2005 프랑스 국립파리1대학교 팡테옹 소르본느 조형예술학과 박사과정 수료, 프랑스
2001 프랑스 국립파리1대학교 팡테옹 소르본느 대학원 전공심화학위 D.E.A. 졸업, 프랑스
1991 중앙대학교 대학원 회화과 석사 졸업, 서울
1984 중앙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졸업, 서울

주요 개인전

2011 갤러리 혜원, 인천
갤러리 오동, 인천
갤러리 DY, 수지, 경기도
2009 스페이스 쌩끄 에뚜왈, 파리, 프랑스
갤러리 웨스턴, LA, 미국
타임스퀘어 갤러리, 서울
갤러리 더케이, 서울
짤즈부르그 아트페어, 짤즈부르그, 오스트리아
상하이 국제 아트엑스포, 상하이, 중국
뉴욕 국제 아트 엑스포, 뉴욕, 미국
S.O.A.F 서울 국제 아트페어, 코엑스, 서울
인천 아트페어, 인천
로테르담 아트페어, 네덜란드
2007 한전 아트센터, 서울
2006 아트라스 갤러리, 앙카라, 터키
2005 시드니 국제 아트페어, 시드니, 호주

주요 단체전

2012 천애약비린전(天涯若比隣展), 나무갤러리, 전주, 전라북도
관(觀)–관조전, 정족산 사고 특별전시장, 인천
평화의 바다, 물위의 경계_제2회 인천 평화미술 프로젝트,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한국현대미술의 장, 공평갤러리, 서울
중앙대 서양화 동문전, 서울미술관, 서울
공간, 그 너머 전, 팔레드서울, 서울
해안동 10–1_3기 입주작가 프리뷰전,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1999 21C 한국미술의 주역전–회화의 회복, 성곡미술관, 서울
1997 6인의 큐레이터가 뽑은 21C 한국미술의 주역전, 선 화랑
1995 2000년대 한국 미술의 주역전, 문화일보 갤러리, 서울

작품 소장

금호미술관, 서울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경기도
인천문화재단 미술은행, 인천
국립 하제테페 대학교 미술관, 앙카라, 터키

레지던시

2012 인천아트플랫폼 레지던시 프로그램 3기 입주작가, 인천

CHUNG Yongil

Born in Incheon, 1956. Lives and works in Incheon

Education

2005 Completion of a course ph.D Arts Plastique University Paris1 Pantheon Sorbonne, France
2001 D.E.A. Course in Graduated Arts Plastique University Paris1 Pantheon Sorbonne, France
1991 M.F.A. Fine art Dept. Chung-Ang University, Seoul
1984 B.F.A. Fine art Dept. Chung-Ang University, Seoul

Selected Solo Exhibitions

2011 Gallery Hae won, Incheon
Space Odong, Incheon
Gallery DY, Suji, Gyeonggi-do
2009 Space 5 Etoire, Paris, France
Gallery Western, LA, USA
Time Square Gallery, Seoul
Gallery The K, Seoul
Salzburg Art Fair, Salzburg, Austria
Sanghai Art Expo, Sanghai, China
New york Art Expo, New York, USA
Seoul Open Art Fair(S.O.A.F), COEX, Seoul
Incheon Art Fair, Incheon
Rotterdam Art Fair, Roterdam, Netherland
2007 Han Chun Gallery, Seoul
2006 Atlas Gallery, Ankara, Turkey
2005 Art Sydney The Affordable Art Fair(AAF), Sydney, Australia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12 Neighbors, even if the end of the sky(天涯若比隣展), Gallery NAMU, Jeonju, Jeollabuk-do
See(觀)-Exhibitionism, Mt.Jeongjok History Library Special Exhibitionhall, Incheon
Sea of Peace, Boundary of the water_2nd Incheon Peace Art Project, Incheon Culture & Arts Center, Incheon
Chapter of Korean contemporary art, Seoul Art Center Gongpeyong Gallery, Seoul
Chung-Ang University MFA Alumni Exhibition, Seoul museum, Seoul
Beyond space, Gallery Palais de Séoul, Seoul
Haean-dong 10-1, Incheon Art Platform, Incheon
1999 Primary Role of Korean Art in the 21st Century-Healing of Art, Sungkok Museum, Seoul
1997 6 Curators' Choice-Primary Role of Korean Art in the 21st Century, Gallery Sun, Seoul
1995 Primary Works of year 2000, Munhwa Newspaper Co's Gallery, Seoul

Collections

Kumho Museum, Seoul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_Art bank, Gyeonggi-do
Incheon Foundation For Arts & Culture_Art bank, Incheon
Hacettepe University Museum, Ankara, Turkey

Residency

2012 Incheon Art Platform 3rd Artist-in-Residence Program, Incheon

E-mail tempete2004@naver.com

차지량

인천, 서울 거주 및 작업

주요 개인전

2012 new home, 플레이스막, 서울
2011 일시적기업, 아트센터 보다, 서울
2010 세대독립클럽, TV12, 서울
2008 이동을 위한 회화, 쌈지일러팝, 서울

주요 단체전

2012 부산비엔날레_Outside of Garden, 부산
Playground in Island 2012 상영, 말레이시아
만국박람회, 우민아트센터, 청주
해안동 10–1_3기 입주작가 프리뷰전,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2011 국제실험영화제, 아르코 아카이브 기획전, 서울
주안미디어페스티벌, 메타폴리스, 인천
옥상과 영상, 인사동 금좌빌딩 옥상, 서울
Independence Day, Able Fine Art Gallery, 서울
진실은 진심이다, 아트센터보다, 서울
Noname House, 부암동 주택공간, 서울
가짜전시, 175갤러리, 서울
2010 이씨의출발, 아르코미술관, 서울
大韓民國未來摸索, 안동문화예술의전당, 안동
옆사람, 175갤러리, 서울
BIBLIOTHEQUE: 접힘과 펼침의 도서관, 상상마당, 서울
부천판타스틱영화제_Go to image cart, 부천시청, 부천
서교육십 : 상상의 아카이브, 상상마당, 서울

주요 퍼포먼스

2012 new home, 도시의 주거지 곳곳, 서울–경기–인천
2011 일시적기업, 서울지역 사무실 곳곳, 서울
new home, 도시의 주거지 곳곳, 서울, 인천
발언이 날아갈 자리, 산울림소극장, 서울
낯선오후, 마포구 서교동 주택, 서울
2010 미드나잇–퍼레이드, 서울 심야의 거리, 서울
DJ=YOU : GROUPING_국제 디제이 축제, 한강난지지구, 서울
OFFLINE : 자체발광_번개, 성미산 극장, 서울

수상 및 선정

2012 인디포럼 신작전_일시적기업 작품발표
서울디지털대학 미술상 대상_일시적기업
국제 뉴미디어 페스티벌 젊은작가상_일시적기업
2011 서울시립미술관 작가지원 프로그램_일시적기업
오프앤프리 국제영화제 오프인포커스_일시적기업
국제 뉴미디어 페스티벌 본선구애작_M.T=Midnight Terror
주안 미디어 페스티벌 작품공모 우수상_new home

작품 소장

인천문화재단 미술은행, 인천

레지던시

2012 인천아트플랫폼 레지던시 프로그램 3기 입주작가, 인천
2011 노네임하우스, 부암동 주택공간, 서울

CHA Ji-ryang

Lives and works in Incheon, Seoul

Selected Solo Exhibitions

2012 new home, place MAK, Seoul
2011 Temporary Enterprise, Gallery Boda, Seoul
2010 Independent Club of Indi-Gen, TV12, Seoul
2008 The expressions to move, ssa msie ILLUPOP, Seoul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12 Busan Biennale_Outside of Garden, Busan
Playground in Island, Malaysia
World Exposition, Wumin Art Center, Chungju
Haean-dong 10-1, Incheon Art Platform, Incheon
2011 EXiS, EX-CHOICE_Arko Archive, Seoul
Juan Media Festival, Metapolis, Incheon
Rooftop & Video, GJ-BD, Seoul
Independence Day, Able Fine Art NY. Seoul
Boda project_O.T=Office Terror, Gallery Boda, Seoul
Noname House_M.T=Midnight Terror, Seoul
Fake Exhibition_HAK-DOT-NE, 175Gallery, Seoul
2010 Mr.Lee's departure_MIDNIGHT-PARADE, Arko Art Center, Seoul
Explore the future, Andong Culture & Art center, Andong
Seatmate_HAK-DOT-NE, 175Gallery, Seoul
BIBLIOTHEQUE, SangsangMadang, Seoul
PIFAN_Go to image cart, City hall, Bucheon
Seogyo 60 : The Imaginary Archive, SangsangMadang, Seoul

Selected Performances

2012 new home, Seoul-Gyeonggi-Incheon
2011 O.T=Office Terror, Seoul
new home, Seoul, Incheon
Independent Club of Indi-Gen, Sanwoollim Theater, Seoul
An Odd Afternoon, House Of Two Stories, Seoul
2010 MIDNIGHT-PARADE, Seoul
DJ=YOU : GROUPING_WDF, Seoul
OFFLINE : Self-Glowing, Sungmisan Theater, Seoul

Selected Awards

2012 Indie Forum, (New) Program
Seoul Digital Univ Art Prize, Grand prize
NeMAF, Young Artist award
2011 SeMa, Selected Emerging Artist Program
Off and Free Film Festival, OAF IN FOCUS
NEMAF, Propose of NeMa
Juan Media Festival, Excellence award

Collection

Incheon Foundation For Arts & Culture_Art bank, Incheon

Residencies

2012 Incheon Art Platform 3rd Artist-in-Residence Program, Incheon
2011 Noname House, Seoul

Website www.vimeo.com/chajiryang/
E-mail cafmania@naver.com

홍지윤

1970년 서울 출생, 서울 거주 및 작업

학력

1994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동양화과 졸업, 서울
1992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 졸업, 서울

주요 개인전

2010 Life is colorful, 표갤러리, 서울
2009 활보 with big stride, Gallery TN, 북경 따산즈, 중국
2008 Bohemian Edition, 갤러리 나우, 서울
염색적 향기, 798 cup Gallery, 북경 따산즈, 중국
인생은 아름다워, 더갤러리, 서울

주요 단체전

2011 개관1주년 기념전 테크놀로지의 명상_Media의 정원, 포항시립미술관, 포항
분쟁의 바다, 화해의 바다_제1회 인천 평화미술 프로젝트,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이 작가를 추천한다 31, 김달진연구소, 갤러리 숲, 서울
전통과 새 감성, 롯데갤러리, 대전
2010 세계미술의 진주, 동아시아 미술, 예술의 전당, 서울
GREAT POP ART 20, 금산갤러리, 현대백화점, 서울
Delicious Vacation, 장흥아트파크, 장흥, 경기도
조우 Close encounter, 제주도립미술관, 제주도
Can! CAN Projcet_Salon de Café, 스페이스 캔, 서울
새만금 깃발축제, 새만금 방조제 신시도 광장, 전라북도
춘삼월전, 광주시립미술관, 광주
인터날레, 성곡미술관, 서울
2009 몸의 언어, Touch art gallery, 헤이리, 경기도
텍스트에서 이미지로, 수원시미술전시관, 수원, 경기도
신화조도, 인터알리아, 서울
Bloom in color, 신세계갤러리, 서울홀
미술에 대해 알고 싶은 일곱 가지 것들, 이천아트홀, 경기도
인천여성미술비엔날레 본전시, 인천
인사미술제, 선화랑, 서울
2008 Meme Trackers, 송장미술관, 북경, 중국
칼스루에 아트페어, Karlsruhe, 독일
아일랜드 649-11, LIG Art Hall, 서울
인사미술제, 관훈갤러리, 서울
창원아시아 미술제, 성산아트홀, 창원

수상

2007 서울문화재단기금
2006 뮌헨문화부 Villa Waldberta 초청기금
2008-2005 문예진흥기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3, 2001 Firenze Biennale The "Lorenzo il Magnifico" award, historic fortezza da Basso, Firenze, Italy

레지던시

2012 인천아트플랫폼 레지던시 프로그램 3기 입주작가, 인천
2006 Villa Waldberta residence, 뮌헨, 독일
2005 국립현대미술관 고양창작스튜디오 1기, 고양

만요 컴퍼니

주요활동

2011 플랫폼 페스티벌_조선천재 김해송,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대국민 대국악_한국국악협회 창립 50주년 기념 대한민국국악제
2011 연희축제 공연, 국립국악원, 서울
젊은 국악 공연, 경기도문화의전당 국악당, 경기도
밤샘 콘서트, 전주대사습축하공연
어린이날 특별공연, 청주박물관, 청주
2010 SBS-FM 추석특집 프로그램 '만담&만요'에 출연
그대의 입술은 한떨기 아편꽃, 천차만별콘서트 초청공연, 북촌창우극장
명동예술극장개관 1주년 축하공연, 서울
만요컴퍼니 창단

HONG Ji-yoon

Born in Seoul, 1970. Lives and works in Seoul

Education

1994 M.F.A. in Oriental fine Art Hongik University, Seoul
1992 B.F.A. in Oriental fine Art Hongik University, Seoul

Selected Solo Exhibitions

2010 Life is colorful, Pyo Gallery, Seoul
2009 with big stride, Gallery TN, Beijing, China
2008 Hong jiyoon's photo works_Bohemian Edition, Gallery now, Seoul
Dyeing fragrance, 798 cup Gallery, Beijing, China
Life is beautiful, The Gallery, Seoul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11 Meditation of technologe_Garden of Media, Pohang Museum, Pohang
Sea of Conflict, Sea of Reconciliation_1st Incheon Peace Art Project, Incheon Art Platform, Incheon
I Recommend This Artsit 31, Gallery Sub, Seoul
Traditional and new sensitivity, LOTTE Gallery, Daejeon
2010 Rainbow Asia_Pearl of World Art, East-Asia, Seoul Arts Center, Seoul
GREAT POP ART 20, Guemsan Gallery, Hyundai Department Store, Seoul
Delicious Vacation, Jangheung Art park, Jang-heung, Gyeonggi-do
Close encounter, Jeju Museum of Art, Jeju
Can! CAN Projcet_Salon de Café, Space Can, Seoul
Flag festival, Saemankum, Jellabuk-do
March_Spring, Gwangju Museum of Art, Gwang-ju
Inter-nale, Sungkok Art museum, Seoul
2009 Body speaks, Touch art gallery, Heyri, Gyeonggi-do
From Text to image, Suwon Art center, Suwon, Gyeonggi-do
New flower and birding painting, interalia, Seoul
Bloom in color, Shinsegae Gallery, Seoul
7 things I want to know about arts, Icheon Art Hall, Gyeonggi-do
International Incheon women Biennale main exhibition, Incheon Art Platform, Incheon
Insa art fair, SUN Gallery, seoul
2008 Meme Trackers, SongZhuang Art Center, Beijing, China
Karlsruhe Art fair, Karlsruhe, Germany
Island 649-11, LIG Art Hall, Seoul
Insa art fair, kwanhoon Gallery, Seoul
Changwon Asia art fair, Sungsan Art Hall, changwon

Selected Awards

2007 SEOUL FOUNDATION ARTS AND CULTURE
2006 Munich cultural department / Villa Waldberta invitation
2008-2005 Arts Council Korea
2003, 2001 Firenze Biennale The "Lorenzo il Magnifico" award, historic fortezza da Basso, Florence, Italy

Residencies

2012 Incheon Art Platform 3rd Artist-in-Residence Program, Incheon
2006 Villa Waldberta, Munich Culture department invited, Munich, Germany
2005 The National Art Studio, Goyang Art Studio 1st Residency program, Goyang, Gyeonggi-do

Website www.hongjiyoon.com
E-mail yoon315@dreamwiz.com

Manyo Company

Selected activity

2011 Platform Festival_The Genius of Joseon Dynasty, Kim Haesong, Incheon Art Platfom, Incheon
The Citizen The Korea Traditional Music, The 50th anniversary of Korea Traditional Music Association, The Korea Traditional Music Festival
2011 The Theatricals play Festival, National Gugak Center, Seoul
The youthful Korea Traditional Music, Gyeonggi Arts Center, Gyeonggi-do
All-night Concert, JEONJU Folks Jollification, Celebrating Performance
The special performance in Children's day, Cheongju National Museum, Cheongju

2010 SBS FM Radio, Korea Thanksgiving Day special program - 'Gag&Manyo'
Your lips like an Opium flower, The infinite variety concert, Bukchon Changwoo Theater
Celebrating performance for 1st anniversary of the Opening, Myeongdong Theater, Seoul
Manyo Company foundation

신재훈

1977년 인천 출생, 인천 거주 및 작업

학력

2009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연출과 졸업, 서울

주요 연출

2012 우리가 누구를 믿겠니(작, 연출), 연극실험실 혜화동1번지, 서울
정서진별곡(작, 연출) 무대독회,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바투(구헤미 작), 서울남산국악당, 서울
2011 Musical 부석사(김태웅 작), 영주 국민체육관, 경상북도
노래박물관 특별전_고려 및 조선 노래 복원 연주회,
국립국악원 우면당, 서울
우리가 누구를 믿겠니(작, 연출), CY시어터, 서울
Musical 날아라, 박씨!_창작팩토리 시범공연 선정작, 국립극단, 서울
비틀깨비(윤혜선 작, 원일 음악), 동탄 복합문화센터 반석아트홀,
황성, 경기도
우리가 누구를 믿겠니(작, 연출) 무대독회, CY시어터, 서울
달콤한 하품_숙명가야금연주단, 소월아트홀, 서울
2010 巫亞(공동연출)_국립아시아문화전당 다분야협업공연, 구로아트밸리, 서울
플러스 원(공동연출)_프린지 페스티벌, 산울림소극장, 서울
달콤한 하품_숙명가야금연주단,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
2009 극야(極夜)(이명연 작), CJ azit 창작예술지원 프로그램 일취월장, 서울
고부의 끈(김영선 작), 아리랑 아트홀, 서울
고부의 끈(김영선 작)_밀양여름공연예술축제 젊은 연출가전, 밀양연
극촌, 밀양, 경상남도
고부의 끈(김영선 작)_제5회 국제실험축제 & 아시아 태평양 연극 엑
스포, Shanghai Theatre Academy, 중국

주요활동

현재 극단 작은방 대표
2005 연극_이(작, 연출/김태웅) 무대감독, 국립박물관 용극장, 서울
2004 우리나라 우투리(작/김광림, 연출/김광림, 이상우) 무대감독,
프랑스 태양극장 초청작, 프리미에르 파 축제, 프랑스
우리나라 우투리 배우, 프랑스 태양극장 초청작, 프리미에르 파
축제, 프랑스
2003 우리나라 우투리(작, 연출/김광림) 무대감독, 예카체린 부르크,
러시아

수상 및 선정

2012 우리가 누구를 믿겠니, 서울문화재단 창작지원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 음악극어워드 인기음악극상
2012–2011 차세대예술인력 집중육성 지원사업 연극분야 선정,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9 제5회 국제실험축제 & 아시아 태평양 연극 엑스포 작품선정,
중국
2008 제3회 CJ 영페스티벌 연극부문 우수작품상
제4회 GM대우–의정부 전국대학뮤지컬페스티벌 연출상, 작품상

레지던시

2012 인천아트플랫폼 레지던시 프로그램 3기 입주작가, 인천

SHIN Jaehoon

Born in Incheon, 1977. Lives and works in Incheon

Education

2009 B.F.A. Directing. School of Drama,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Seoul

Selected Directings

2012 We(Playwright and Director), Hyehwa-dong 1bunzi, Seoul
Jeongserojin Story(Playwright and Director) Stage Reading, Incheon Art Platform, Incheon
Batoo, Seoul Namsan Traditional Theater, Seoul
2011 Musical Buseoksa, Yeongju, Gyeongsangbuk-do
Special Exhibition for Music Museum_The Goryeo and The Joseon Music Concert, Gugak Center, Seoul
We(Playwriting and Directing), CY Theater, Seoul
Musical Fly, Park!, Selected Showcase, The Incubation for the Performing Arts, National Theater Company of Korea, Seoul
THE BEATLE KKAEBI, Dongtan Culture Center Ban-seok Art Hall, Hwasung, Gyeonggi-do
We(Playwright and Director) Stage Reading, CY Theater, Seoul
Sweet Yawn_Sookmyung Gayagum Orchestra, Sowol Art Hall, Seoul
2010 Mu-A(Co-director)_Asia Culture Complex Multi-genre Corporation, Guro Arts Valley, Seoul
PLUS ONE(Co-director)_Fringe Festival, Theatre Company Sanwoollim, Seoul
Sweet Yawn_Sookmyung Gayagum Orchestra, Daegu Culture And Art Center, Daegu
2009 Polar Night, CJ azit Arts Support Programs-Ilchiwoljang, Seoul
Looking for the Son, Arirang Art hall, Seoul
Looking for the Son_Miryang Summer Performing Arts Festival, Miryang, Gyeongsangnam-do
Looking for the Son_The 5th International Experimental Festival & Asian Pacific EXPO of Theatre, Shanghai Theatre Academy, China

Selected Activity

Representative of Theater Boxroom
2005 Lee, Theater Yong, stage management Seoul
2004 Wuturi, stage management Premier Par Festival, Théâtre Du Soleil, France
2003 Wuturi, stage management Ekaterinburg, Russia

Acting

2004 Wuturi, Premier Par Festival, acting Théâtre Du Soleil, France

Selected Awards

2012 WE, Grants for Arts Creation, Arts Support Programs,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Musical Theatre Awards-Popular Music Theatre Awards, Uijeongbu International Music Theatre Festival
2012-2011 Arko Young Art Frontier for Theatre, Arts Council Korea
2009 Selected for the 5th International Experimental Festival & Asian Pacific EXPO of Theatre, Shanghai Theatre Academy, China
2008 Best Picture, The 3rd CJ Young Festival
Best Director and Best Picture, The 4th GM DAEWOO-Uijeongbu University Musical Festival.

Residency

2012 Incheon Art Platform 3rd Artist-in-Residence Program, Incheon

E-mail zolzimahoon@gmail.com

연희컴퍼니 유희

주요 공연

2012 국립국악원 설날 기획공연 미르(龍)해의 새아침 초청 공연
KBS 국악한마당_2012 새꿈새별 출연
2011 국립국악원 '공감 청년!' 선정 공연
부산국립국악원 국악뮤지컬 '부산아라' 객원 참여
한옥마을 상설공연 '비나소리' 공연
국립극장 여우락 페스티벌 바람곶 게스트
천차만별 콘서트 공연
안은미의 수원 화성 행궁 '댄싱마마 프로젝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쇼케이스 '탈, 아시안 크로스 로드' 공연
제30회 대한민국 국악제 '대국민 대국악' 사회, 공연
안숙선의 '소리로 가는 여행' 공연
평택 소리터 지영희 예술관 개관 기념 신모듬 협연
한국음악 창작의 밤_대한민국작곡상 30주년 기념 음악회 신모듬 협연
2010 블록버스터급 코리안쇼 꽃의 전설, 작품 구성 참여 및 공연
2009 4월, 8월 KBS 국악한마당 공연
2008 춘천 소양댐 '수연희' 상설공연
2006 뉴욕 코리안 데이 페스티발 초청 공연외 다수, 버지니아, 미국
2005 국악축전 '프로젝트 공상 구음 사물놀이' 공연
국악축전, 러시아 사할린 공연
김용우 5집 발매 기념 콘서트 '어이 얼어 자리' 공연

수상

2011 고양호수예술축제 '유희노리' 인기상 수상,
세계사물놀이 겨루기 대회 대학, 일반부 최우수상 으뜸상(창작)

레지던시

2012 인천아트플랫폼 레지던시 프로그램 3기 입주작가, 인천
2011 인천아트플랫폼 레지던시 프로그램 2기 입주작가, 인천

YeonheeCompany U-hee

Selected Performances

2012 Invited in New Year's Day Project Performance at the National Center for Korean Traditional Performing Arts
KBS Korean Traditional Music_2012 SaeGgoomSaeByul Play
2011 the National Center for Korean Traditional Performing Arts selected as 'Sympathy of Youth'
Busan National Gugak Center's Gukak Musical 'Busan Ara' honorary member
Traditional Korean Village Permanent concert 'BiNaSoRi'
the National Theater Yeou Rock Festival Baram Got guest
CheonChaManByul Concert
Suwon Hwaseong temporary palace 'Dancing Mama Project' of An Eun-mi
the National Asia Cultural Hall Showcase 'Tal, Asian cross road'
30th Korean Gukak festical 'The Nations Top Gukak' presided Performance
An Sook-sun's 'Traveling through the music concert'
Celebrating Pyeongtaek music rounge Ji Young-hee art center Opening collaboration with New Sound Group
Composing Night of Korean Music_Celebrating 30th Korean Composition Award, Collaboration with New Sound Group
2010 Blockbuster Korean Show Legend of Flower, composing and playing, Hotel Walker Hill
2009 April, August KBS Kukak Outdoor performance
2008 Chuncheon So-yang Dam 'Soo YeonHee' permanent concert
2006 New York Korean Day Festival Invited to perform, Virginia, USA
2005 'Project GongSang Oral Samulnori' Gukak festival
Gukak festival, Russia Sakhalin Show
Celebrating Kim Yong woo's Vol.5 Album Concert 'AuE All A Jari'

Selected Awards

2011 Goyang lake park art festival 'U-Hee Nori' popularity award
World Samulnori competition college-general part the Grand prize Best award(creativity)

Residencies

2011-2012 Incheon Art Platform 2nd, 3rd Artist-in-Residence Program, Incheon

E-mail u-hee@hotmail.com

안은영

1963년 서울 출생, 호주 캔버라 거주 및 활동

학력

2003 호주국립대학 미술사 박사학위 수여, 호주
1995 시드니대학 미술이론 석사학위 수여, 호주
1989 숙명여대 미술대학 회화과 졸업, 서울

출판 및 저서 활동

2012 『인천, 국제 공항을 넘어서』월간예술호주(2012. 11), pp. 26–27
2011 『한국 르네상스의 도서 서평, 1400–1600년』 아시아연구학회 (2011. 3), pp. 143–144
『두 비엔날레의 꼬리 : 광주와 부산』 월간예술호주(2011. 3), pp. 48–49
『박서보: 한국현대미술의 살아있는 역사 [한국어 포함]』 박서보 전시 한글/영문 도록, 한국 아방가르드의 선두주자 : 그의 60년의 기록, 부산시립미술관, pp. 149–151
2010 『예술의 섬, 낙관과 희망 : 세토우치 국제 아트페스티벌』 월간예술호주(2010. 11), pp. 25–27
『한국의 편지』 월간예술호주(2010. 11), pp. 25–27
2008 『국가 정체성 및 해외 한국미술 전시회 : 1945년 부터 2000년대 초반 까지』 세계에서의 한국학 : 민주주의, 평화, 번영과 문화, 한국연구 시리즈 37. 양승함 외 편집 (서울: Jimoondag J, 2008), pp. 167–190
『한국, 민주주의와 예술』 월간예술호주 (2008. 3), pp. 29–33

주요 전시기획

2004 우리나라, 우리미술_현대 호주 원주민 미술로의 초대, 포스코 미술관, 서울
2003 Three Creative Passions, 토탈 미술관, 서울
1996 삼켜진 달, 셔먼 갤러리 그룹, 시드니

선정

1999–2002 호주연방정부 장학금
2000 호주연방정부산하 호주예술위원회 발전기금
1998, 2000 (AICA)연례 총회에 호주 대표로 참가

레지던시

2012 인천아트플랫폼 레지던시 프로그램 3기 입주작가, 인천

AHN En-young

Born in Seoul, 1963. Lives and works in Canberra, Australia

Education

2003 Ph.D. in Art History, The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anberra, Australia
1995 Master of Visual Arts by Thesis, The University of Sydney, Sydney, Australia
1989 B.F.A. in Painting, College of Fine Arts, Su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Selected Publications

2012 『Incheon, more than just an international airport』 Art Monthly Australia(November 2012), pp. 26-27.
2011 『Book review of The Korean Renaissance, 1400–1600』 Asian Studies Review(March 2011), pp. 143-144
『A Tale of Two Biennales : Gwangju and Busan』 Art Monthly Australia (March 2011), pp. 48-49
『Park Seo-Bo : A Living History of Contemporary Korean Art [also parallel Korean text]』 In the Korean/English catalogue to the exhibition Park Seo-Bo, a Forerunner of Korean Avant-garde : Records His 60 Years. Busan Museum of Art, pp. 149-151
2010 『An island of art, optimism and hope : Setouchi International Art Festival』 Art Monthly Australia (November 2010), pp. 25-27
『Letter from South Korea』 Art Monthly Australia (November 2010), pp. 25-27
2008 『National Identity and Overseas Korean Art Exhibitions: from 1945 to the early 2000s』 In The Korean Studies in the World : Democracy, Peace, Prosperity and Culture. Korean Studies Series 37. Edited by Seung Ham Yang et al (Seoul : Jimoondag J, 2008), pp. 167-190
『South Korea, democracy and art』 Art Monthly Australia (March 2008), 29-33

Selected Curatorial works

2004 Our Country, Our Art_Welcome to the Art of Contemporary Australian Aboriginal Artists, POSCO Art Museum, Seoul
2003 Three Creative Passions, Total Museum, Seoul
1996 Swallowed Moon, Sherman Galleries, Sydney, Australia

Awards

2002-1999 Australian Postgraduate Award (an Australian Federal Government scholarship)
2000 Development Grant, the Commonwealth Government through the Australia Council

Residency

2012 Incheon Art Platform 3rd Artist-in-Residence Program, Incheon

E-mail enyoung.ahn@iinet.net.au

이지현

1978년 대구 출생, 서울 거주 및 작업

학력

2010 한양대학교 예술대학 연극영화과 대학원 박사 입학, 서울
2005 캉 바스–노르망디 대학교 영화학 석사 졸업, 프랑스
2002 한양대학교 인문과학대학 연극영화과 학사 졸업, 서울

주요 출판

2012 『이리 멘젤 영화의 희극성 고찰』 씨네포럼 15호, 영상미디어센터
『허우 샤오시엔 영화에서의 시간』 현대영화연구 14호, 현대영화연구소
제17회 부산국제영화제 공식데일리 필진
제9회 Edif EBS국제다큐영화제 메인카탈로그 필진
제13회 전주영화제 메인카탈로그 필진
2011 제16회 부산국제영화제 공식데일리 필진
『시네마텔링의 다양한 풍경』 공저, 이담출판사
2010 『브루노 뒤몽 영화에서의 사실주의』 현대영화연구 10호, 현대영화연구소
『한겨레신문』 오피니언 연재칼럼_이지현의 시네마룩스
『한겨레신문』 토요문화칼럼 필진
2009 제10회 전주영화제 공식데일리 필진
2008 『씨네21』 영화평론가

필모그라피

2012 단편 〈내고향 백령도 / HD, Color, 10min〉 연출
_2012 10.4 남북정상선언 5주 기념전시, 인천
다큐멘터리 〈프랑스인 김명실 / HD, Color, 70min, 2013 극장개봉〉 연출
_2012 인천영상위원회 제작지원작 상영회 〈인천, 영화를 산책하다〉, 인천
_2012 Vibgyor international Film Festival–Vibgyor Theme Package, 인도
_2011 영화진흥위원회 독립영화 현물지원사업 선정작
_2009 인천영상위원회 다큐멘터리 사전제작지원 선정작
2009 단편 〈수태고지 Annunciaiton / 35mm, Color, 15min〉 연출
_2012 ETN HD 스페셜 '작은 영화관' 방영
_2010 Regards sur la Coree du Sud – Cinematheque Lux de Caen, 프랑스
_2010 한–EU 단편영화교류전 – 섹션01, 서울
_2010 G20 영화대축제 – 특별 단편2, 서울
_2009 Drama 국제단편영화제 – International competition, 그리스
_2009 Filmini 3.0 – International competition, 불가리아
_2009 The Third Annual FRESH – Section Drawn Maya, 태국
2008 M/V 〈토이, 그대 모든 짐은 내게〉 연출
M/V 〈토이, 프랑지파니〉 연출
M/V 〈토이, Intro you〉 연출
2007 단편 〈이팝나무 아래서 Under the Fringe Tree / 16mm, Color, 5min〉 연출, 촬영
_2007 Indielisboa Film Festival–laboratory section, 포르투갈
단편 〈기억하다 / DV, Color, 6min〉 연출, 촬영
_2007 채널 CGV '씨네페스트' 방영

레지던시

2012 인천아트플랫폼 레지던시 프로그램 3기 입주작가, 인천

LEE Ji-hyun

Born in Daegu, 1978. Lives and works in Seoul

Education

2010 Ph.D College of Art, Major in Theater and Cinema), Hanyang Univ, Seoul
2005 M.A. UFR des science de l'homme, Département des Arts du Spectacle, Université de Caen Basse Normandie, France
2002 BA College of Liberal Arts, Major in Theater and Cinema), Hanyang Univ, Seoul

Selected Publications

2012 『A thought on comicality shown in Jiri Menzel's movies』 Cineforum vol.15
『A Study on the Representation Process of Time in Hou Hsiao Hsien's Films』 Contemporary Film Studies vol.14
The 17th Biff Daily Magazine
The 9th Edif Main Catalog
The 13th Jiff Main Catalog
2011 The 16th Biff Daily Magazine
『Landscapes of Cinematelling』 joint author, IDAM Press
2010 『Cinematic Realism of Bruno Dumont』 Contemporary Film Studies vol.10
『The Hankyoreh』 Column for the Opinion Webzine
『The Hankyoreh』 Column for the Newspaper
2009 The 10th Jigg Daily Magazine
2008 『Cine21』 Criticism for the Journal

Filmographies

2012 Short Film <My hometown Baek-ryeong Island / HD, Color, 10min>
_'10.4 Declaration for the Development of South-North Relations and Peace and Prosperity' 5th Anniversary Exhibition, Incheon
Documentary <French, Kim Myung-sil / HD, Color, 70min>
_2012 IFC Film Festival, Incheon
_2012 7th Vibgyor international Film Festival - Vibgyor Theme Package India
_2009 IFC Film Festival, Incheon
2009 Short Film <Annunciation / 35mm, Color, 15min>
_2012 ETN HD Special 'Small Theater'
_2010 Regards sur la Coree du Sud- Cinematheque Lux de Caen, France
_2010 Korea-EU short film festival - Section 01, Seoul
_2010 G20 film festival - Short Film Section 02, Seoul
_2009 Drama international short film festival- international competition, Greece
_2009 Filmini 3.0 - international competition, Bulgaria
_2009 The Third Annual FRESH - Section Drawn Maya, Thailand
2008 M/V <Toy, Geudae, modeun jimeul naege>
M/V <Toy, Um Homem E Uma Mulher>
M/V <Toy, Intro you>
2007 Short Film <Under the Fringe Tree / 16mm, Color, 5min>
_2007 Indielisboa Film Festival - laboratory section, Portugal
Short Film <Memorize / DV, Color, 6min>
_2007 Chanel CGV Cinefest

Residency

2012 Incheon Art Platform 3rd Artist-in-Residence Program, Incheon

E-mail 13inoche@hanmail.net

이퐁

1979년 서울 출생. 경기도 부천 거주 및 작업

학력

2002 인하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인천

주요 출판

2012 『꾀병 대신, 꼼지락』. 파란정원
『비정규씨, 출근하세요?』 공저. 사계절
『꿈틀꿈틀 시간에 또 만나!』. 월간 어린이와 문학 84호
2011 『눈물 한 방울』. 월간 어린이와 문학 70호
2009 『하시구 막힌 날』. 해와 나무
『(청소년을 위한) 법령과 함께 떠나는 1박 2일』. 법제처

레지던시

2012 인천아트플랫폼 레지던시 프로그램 3기 입주작가. 인천

Leepong

Born in Seoul, 1979. Lives and works in Bucheon, Gyeonggi-do

Education

2002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of Inha University, Incheon

Selected Publications

2012 『Wriggling, Instead of Malingering』, Paranjeongwon Press
『Mr. Non-regular Worker, Are You Going to Work?』, Sakyejul Press
『Let's meet again in Wrkggling time!』 written by Leepong et al, Children and Literature no.84
2011 『A Drop of Tear』 written by Leepong et al, Children and Literature no.70
2009 『The Day the Time Plughole Blocked』, Sun and Tree Press
『The Journey with Legislation for the Youths』,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Residency

2012 Incheon Art Platform 3rd Artist-in-Residence Program, Incheon

E-mail leepongb@gmail.com

벤자민 필립스

Benjamin PHILLIPS

Born in Guildford, Surrey, UK, 1986. Lives and works in London

Education

2009 University Of Brighton B.A. Honors Illustration 1.0, UK
2005 University of the Creative Arts, Farnham Foundation Diploma, Merit, UK

Selected Solo Exhibitions

2012 Book launch, Thanks Books, Seoul
2011 Lik+Neon, London, UK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12 Field work, group show, Rivington St, London, UK
Wuju Daebang, Incheon Art Platform, Incheon
2011 Unlasted, Hanmi Gallery, London, UK
2010 The Other Space, Camberwell, London, UK
The Camp, Old Street, London, UK
Off-Modern, Corsica Studios, London, UK
Moth in the Motor Exhibition, Café Oto, Dalston, London, UK
Artinavan Pop-Up Shop, Brixton Market, London, UK
Strawberry Fields Forever, Welcome Home, Glasgow, UK
2009 International Biennial of Contemporary Print, Liege, Belgium
Hungry Like The Wolf, Brighton Media Centre, Brighton, UK
Rooted, Rag Factory, Brick Lane, UK
Operation Concrete, Vibe Bar, Brick Lane, London, UK
The Rag Factory, Brick Lane, London, UK
Brighton Degree Show, Grand Parade, Brighton, UK

Experiences

2011 Children's Illustration Workshops_Ministry Of Stories, Hoxton, London, UK
2009 Selected artist for The 7th International Biennial of Contemporary Print, Museum of Modern Art, Liege, Belgium
2006-2003 Youth Artist Instructor_Kids For Life

Residency

2012 Incheon Art Platform 3rd Artist-in-Residence Program(3month), Incheon

E-mail benjyphillips@gmail.com

예 추치

YEH Tzu-chi

Born in Taipei, 1961. Lives and works in Tainan, Taiwan

Education

Master, Western Languages & Literature, Tamkang University, Taipei, Taiwan
Bachelor, Foreign Languages & Literature, Taiwan University, Taipei, Taiwan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12 Taehwa-river Eco Art Festival, Ulsan
Haean-dong 10-1, Incheon Art Platform, Incheon
2011 Artist Fair, Taipei剝皮寮 Bo-Er貳二 Art Zone, Kaohsiung, Taiwan
Womanhouse, Womanhouse女藝家園, Taipei, Taiwan
2006 Bring Your Art Work to Travel, Nan-hai南海 Gallery, Taipei, Taiwan
2005 Behavior.8H.Trade_Art Taipei 2005, Taipei Trade Center, Taipei, Taiwan
Installation Documenta of 2004 Taiwan Asia Performance Art Meeting, Kaohsiung · Tainan · Taipei, Taiwan
2004 The Ego Consciousness of Contemporary Art, Kaohsiung, Taiwan

Selected Performances

2012 Pan Asia Performance Art Network, Seoul Art Space_Mullae, Seoul
Love & Pain China Live Art, Hwa Hwa花花 Gallery, Beijing, China
In & Out of Heaven, Shi Wu Dong石屋洞 & China Academy of Arts, Hang Zou, China
2011 Opening of 100 Gender Photographs Exhibition, TamSui淡水 Art Center, Taipei, Taiwan
Bu Ding Shih: Indefinite Form Performance Event, JiaoTung交通 Tea House, Chong Qing, China
2010 A(rt) Nest of Nuts Performance Event, In Art/加力 Gallery, Tainan, Taiwan
Undisclosed Territories International Performance Art Event, Padepokan Lemah Putih, Solo, Indonesia
2009 On the Way_ArTrend International Performance Art Meeting, Kaohsiung · Taidung · Tainan · Taipei, Taiwan Open International Performance Art Festival, 798 Art Zone, Beijing, China
Beyond Pressure International Performance Art Event, Myanmar Art Center, Yangon, Myanmar
2008 Asiatopia International Performance Art Festival, angkok Art and Culture Centure, Bangkok, Thailand
ZAZ International Performance Art Festival, Tel Aviv, Jerusalem. Mitzpeh Ramon, Israel
Opening of Contemporary Women's Art: Environments & Identities, Department Store of ShinKong Mitsukoshi, Taichung, Taiwan
2007 Taipei International Performance Art Festival, GuLing Street牯嶺街 Theatre, Taipei, Taiwan
Interakcje International Art Festival, Galeria OFF · Galeria Bielska BWA, Piotrkow Trybunalski · Beilsko-Biala, Poland
La-bas International Performance Festival, Cable Factory, Helsinki, Finland
2006 Opening of Bring Your Art Work to Travel Exhibition, Nan-hai南海 Gallery, Taipei, Taiwan
Mobius International Festival of Performance Art, Mid Way Theatre, Boston, USA
Travel with Art, Peng-hu, Taiwan
In Love With Poetry: Visual Poetry Live Performance, Dogpig Art Cafe, Kaohsiung, Taiwan
2005 Philippine International Performance Art Festival, Manila, Philippine
Making Relationaships_Taiwan China Contemporary Performance Art, Taipei Fine Art Museum · Kaohsiung Fine Art Museum, Taiwan
Bucheon International Performance Art Festival, Bucheon, Gyeonggi-do
Matzushiro Modern Art Festival, Matzushiro Samurai School, Matzushiro, Japan
Behavior.8H.Trade, Art Taipei 2005, Taipei Trade Center, Taiwan

Residencies

2012 Incheon Art Platform 3rd Artist-in-Residence Program(3month), Incheon
2011 Organhaus Art Space, Chung Qing, China

Website http://yehtzuchiart.blogspot.com/
E-mail chi590@ms15.hinet.net

윌 볼튼

Wil BOLTON

Born in UK, 1974. Lives and works in UK

Education

1997 MA Arts Criticism, Distinction), City University, London, UK
1995 BA (Hons) History of Art, Courtauld Institute of Art, University of London, UK

Selected Exhibitions

2012 Terra Galaxia_Aerotropolis, Home and Away, Liverpool Biennial City States, UK
Peace on the water, Boundary on the water_Peace Art Project, Incheon Culture & Arts Center, Incheon
Taehwa River Eco Art Festival, Ulsan
Platform Festival, Incheon Art Platform, Incheon
Haean-dong 10-1, Incheon Art Platform, Incheon
2011 Sculpture Remixed, Tate Liverpool, UK
Image & Resonance, Foundation Destellos, Argentina
Seeing Sound 2, Bath Spa University, UK
Wonderpia, Nanji Studio Gallery, Seoul
Re/Flux, ICA, London, UK
Light Works, Grimsby Minster, UK
2010 Odd Place, ARTSIDE, Seoul
KRiK Festival, Spirit, Rijeka, Croatia
Soundgate, Kunsten / Utzon Centre / Platform4, Aalborg, Denmark
BBC Norfolk Film Festival, Fusion at The Forum, Norwich, UK
(D)FEFV, Decumanus Gallery, Krk, Croatia
Sonic Vigil V, St Fin Barre's Cathedral, Cork, Ireland
Location Location, Stramash Space, UK
SoundImageSound VII, Conservatory of Music, University of the Pacific, Stockton, USA
2009 A Thing About Machines, Herbert Gallery, Coventry, UK
Trading As..._Hanse Art Project, King's Lynn Arts Centre, UK
Transfixed Motion_Transitory Still, Sheffield Institute of Art and Design Gallery, UK
2008 Sound_Space 2008, South Hill Park, Bracknell, UK
2007 Black Powder+White Party, Kyung Hee University Museum of Arts, Seoul

Selected Performances

2012 Sound // Space_Hibernate Recordings Label Showcase, The Biscuit Factory, London, UK
Wil Bolton with special guests, St John the Baptist in the Wilderness, Cragg Vale, UK
2011 Hibernate & Home Normal Christmas Show, The Victoria, Dalston, London, UK
2009 Late at Tate_Colour Remixed, Tate Liverpool, UK
2008 Leap 08, Liverpool Lighthouse, UK
2007 Black Powder+White Party Opening Performance, Kyung Hee University Museum of Arts, Seoul
Detune, King's Lynn Arts Centre, UK
Julian Opie in the 90s and Kira Kim_A Palace of Mirages Opening Performance, King's Lynn Arts Centre, UK

Residencies

2012 Incheon Art Platform 3rd Artist-in-Residence Program(3month), Incheon
2011 Estonian Artists' Association, Tallinn, Estonia

Website www.wilbolton.co.uk
E-mail wil_bolton@yahoo.co.uk

이시하라 노리코

ISHIHARA Noriko

Born in Japan, 1979. Lives and works in Seoul

Education

2011 B.F.A. in Photography, Chung-Ang UniversityS, eoul
2002 BA in Humanities, International Culture, Miyazaki Municipal University, Japan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12 Peace on the water, Boundary on the water_Peace Art Project, Incheon Culture & Arts Center, Incheon
Seoul International New Media Festival_nemaf, Seoul Art Experiment Center-Seogyo, Seoul
Why is the Cider floating off Incheon?, Incheon Art Platform, Incheon
4 pm, gallery epoque, Seoul
Haean-dong 10-1, Incheon Art Platform, Incheon
2011 Spakling Silence_Kunsthalle Erfurt, Erfurt, Germany-Gallery Nottbeck, Tampere, Finland-Gallery AMU, Prague, Prague, Czech Republic
2010 Hidden sense_Daegu Photo Biennale-International Young Photo Exhibition, Daegu
Asia program ASIAN students and young artists art festival, Seoul
Korean Wave, Gallery Lamping street Bielefeld, Germany
2009 Korean Wave, Gallery PF01 Bratislava, Slovakia

Performance

2012 Anyang Gwangju Cross International Performance Art Festival_EPAT, stone&water, Anyang, Gyeonggi-do

Residency

2012 Incheon Art Platform 3rd Artist-in-Residence Program(3month), Incheon

E-mail noriko3ishihara@hotmail.com

조우 치

ZHOU Qi

Born in Heilongjiang Province, 1961. Lives and works in Beijing, China

Education

1987 National Academy of Fine Arts liushuyong, China

Selected Solo Exhibitions

2011 The memories of Red_Works of ZHOU Qi, The Heyday of Sky Gallery, 798, Beijing, China
2008 Zhou Qi Works 2007-2008, Lee C Gallery, Seoul
2003 Solo Exhibition_Works of ZHOU Qi, Panorama Gallery, Beijing, China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11 Power in the softness_Contemporary Art Exhibition 2011, B03. 798 Art District, Beijing, China
The Floating Socialism, Hexiang Art Museum, Taiwan
She_Contemporary Art Exbition, Jirui Art Center, Beijing, China
Sea of Conflict, Sea of Reconciliation_1st Incheon Peace Art Project, Incheon Art Platform, Incheon
2010 Special Encounter, China & Germany Securities, Beijing, China
China&Korea Contemporary Art Exhibition, Wuzhou Art Museum, Guangxi, China
Contemporary Art, Jason Gallery, Beijing, China
MOMENT, Gallery NORI, Jeju
2009 Round Inspiration China, Shang Yuansu Gallery, Beijing, China
China&Korea Contemporary Art Interchange Exhibition, 798 Ren Gallery, Beijing, China
China&Korea Contemporary Art Interchange Exhibition, Shi Zong Gallery, Seoul
60-70-80 China Contemporary Art Exhibition, Castle Gallery, Tours Paris
The Game-Fantasia in China, 39 Art Space, Beijing, China
The Spirit of Heights, PBOUD Gallery, Beijing, China
2008 Songzhuang Contemporary Art 2008, Songzhuang Exhibition Centre of Original Art, Beijing, China
Contemporary Chinese Art-works of 15 artists, Exhibition Center of Original Art, Beijing, China
Chinese Red, Dameng Space Gallery, Beijing, China
Extraordinary 08.cn_Contemporary Art Exhibition, 88 Art Literature Storehouse, Beijing, China
Light from the East-Works of Elite Chinese and Korean artists, Seoul Art Gallery, Seoul
Contemporary Chinese Painting, Gwangju
Sea Cat, Red Cat_Exchange Exhibition of Chinese and Korean Modern Art, Geoje Art Center, Gyeongsangnam-do
Contemporary Art Literature2008_Theme Exhibition, Gehua Museum, Beijing, China
Quartet-works of Four Chinese Artists, Soul Gallery, Beijing, China
Inaccuracy in Version, 67 Art Space, Beijing, China
2007 Exhibition of Modern Chinese Art_Rising Face, Geoje Art Center, Gyeongsangnam-do
East Coast Terminal_the First Contemporary Art, Songzhuang, Beijing, China
Height-Works of Three Artists, 67 Art Space, Beijing, China
2006 Made in Songzhuang, Shang Shang Art Museum, Beijing, China

Residency

2012 Incheon Art Platform 3rd Artist-in-Residence Program(3month), Incheon

E-mail zhouqiaa@yahoo.com.cn

짜까판 타나티라난

Jakraphun THANATEERANON

Born in Thiland, 1977. Lives and works in Tak, Thiland

Education

B.F.A. Chulalongkorn University's Faculty of Fine and Applied Arts, Bangkok, Thailand
M.F.A. Silpakorn University's Faculty of Painting Sculpture and Graphic Art, Bangkok, Thailand

Selected Solo Exhibitions

2012 Jack back to Town, Artery Art Gallery, Bangkok, Thailand
Face-Faith-Fake, WTF Gallery, Bangkok, Thailand
2011 Show(Cho's) room, Gallery Mite, Gwangju
What the Bags What the Biennale?? (WTB) UGROcommunity art space, Gwanju,
Mr. Siam, Opening performance for Gwangju design Biennale 2011, Gwangju
Portrait of Graz, Kultur steiermark art hall, Graz, Austria
2010 Consciousness at 33, Art Space Mite, Gwangju
2009 111 days self transformation, Changdong Studio,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Seoul
Light_Life, Agitpunkt Alternative Art Space, Seoul
2008 13:31 Autobiography art project, Thavibu Gallery, Bangkok, Thailand
2006 Masking Thailand New Media Arts Festival 2006, Play-Ground Department Store, Bangkok Thailand
2005 Anty Venus Thailand New Media Arts Festival 2005, Bed Supperclub, Bangkok Thailand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13 Huakrati Project, Leading Thai contemporary artists, Melbourne, Australia
2012 Sea of Peace, Boundary of the water_2nd Incheon Peace Art Project, Incheon Art Platform, Incheon
Grand opening exhibition My student gallery, Bangkok, Thailand
2011 Busan Light Art Festival, Busan
Boeun International Art Expo 2011, Boeun, Chungcheongbuk-do
Drawing Party, Gwangju Metro Gallery, Gwangju
Rondorama, Rondo studio, Graz, Austria
2010 Mudong Open Studio, Mudong Art Museum residency house, Gwangju
Reverse Engineering, Sunshine&Grease Gallery, Melbourne, Australia
2009 Dual Game, Litmus Artist in Residence Program exhibition, Ansan, Gyeonggi-do
Cue_Changdong Open Studio 7,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Seoul
Club Day_Art project in borderless village, Ansan, Gyeonggi-do
Paper Magic, National Gallery, Bangkok, Thailand.
Washi 5_International Paper Art, KC Gallery, LSC-Kingwood, Kingwood, TX, USA
Changwon Asian Art Festival, Sungsan art hall, Changwon
Mind Street Em-art gallery, Seoul
2008 Meander_Artist in residence program exhibition, Mino Paper Art Museum, Mino, Japan
2006 Inspired by The King, Play Ground Department Store, Bangkok, Thailand
2005 Masking-Unmasking_Asia Pacific Art Forum 2005, Taipei National University of the Arts, Taiwan

Residencies

2012 Incheon Art Platform 3rd Artist-in-Residence Program(3month), Incheon
2011 Artist in residence program Community space Ugro, Gwangju
Artist in residence program Rondo Studio, Graz, Austria
2010 Art Space Mite, Residency Program, Gwangju
Mudeung art museum, Residency Program, Gwangju
2009 Litmus Community Art Space, Dual Game Residency Program, Ansan, Gyeonggi-do
2009-2008 Asia Pacific Artists Fellowship Residency Program,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Gyeonggi-do

Website www.rama9art.org/jakraphun
E-mail newcool2006@yahoo.com

카밀라 스제노치

Kamila SZEJNOCH

Born in Poland, 1978. Lives and works in Warszawa, Poland

Education

2008 Dutch Art Institute, Enschede, The Nederlands DAI public Research & Practice in Art
2005 Academy of Fine Arts in Warsaw, Department of Sculpture Audio-Visual Space Section, Art in Public Space Section
2003 Warsaw University Department of Journalism and Political Sciences, Institute of Social Policy

Selected Solo Exhibitions

2012 Individual exhibition_For what?, Program Gallery, Warsaw
2010 Individual exhibition_Urban Actions, Studio Gallery, Warsaw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12 White Night_International Art Festival of art in public spaces, Košice, Slovakia
SURVIVAL Art Review, Oławka Stadium, Wrocław, Poland
For what?_Individual exhibition, Program Gallery, Warsaw
Kiev Sculpture Project_International Festival of Contemporary sculpture, Kiev, Ukraine
2011 Crossing Identities_International Videoart Festival and Photo Exhibition, organized by the International ArtExpo, Morelia, Mexico
HALO! Tu Warszawa_Festival of public space projects in the telephone booths in Warsaw
Herzschlag Teil 2_Temporary interventions by Polish and Swiss artists, Polish Museum in Rapperswil, Switzerland
2010 Explor-Art 2010_International workshop of territory exploration, AreaOdeon, Monza, Italy
Open city_Festival of art in public spaces, Lublin
Urban Actions_Individual exhibition, Studio Gallery, Warsaw
2009 Holy Machine_Individual public space project in cooperation with 'Fribourg-Nord' Gallery, Fribourg, Switzerland
2008 Oost West Burlesk_Eurora Art Festival, Rotterdam
One-year stipend of the Swiss Government for artistic development in Switzerland
Carousel Slide Swing_Individual public space project realized in cooperation with the Supermarket of Art, Foundation, Warsaw
2007 Supermarket of Art_International Biennial for young artists_(im)mortal love, Leto Gallery, Warsaw
The Expanding Pie, workshop and exhibition of diverse public space projects, Kunsthuis SYB, Beetsterzwaag, The Netherlands
2004 Duty and Revolt. Academy of Fine Arts in Warsaw 1944-2004, Zach ta Gallery, Warsaw
Polish and German art students' exhibition_Transmissions 2, Warsaw-Stuttgart
A New Look for Subway Stations, Wilanowska station, Warsaw
2003 Sculptors-Photographers, Krolikarnia Museum, Warsaw
Open-air workshop and exhibition, Polish Sculpture Centre, Oro sko

Selected Awards

2008 One-year stipend of the Swiss Government for artistic development in Switzerland
2007 One-year artistic scholarship of the Polish Ministry of Culture
2006 Public space planning competition_Town and Democracy. Warsaw-the dimension of Poland's freedom organized by The Warsaw Rising Museum: Award, Exhibition in the Royal Castle, Warsaw

Residencies

2012 Incheon Art Platform 3rd Artist-in-Residence Program(3month), Incheon
2012 Visegrad Artist Residency (Visegrad Fund) in cooperation with the SPACE gallery, Bratislava, Slovakia
2011 Pirate Camp : The Stateless Pavilion at the Venice Biennale, artists in residency program
Post Industrial Revolution, an Artistic residency exchange between the UK and Poland focusing on the cities of Birmingham and Gdansk

Website www.kamilaszejnoch.com
E-mail KamilaSzejnoch@mixbox.pl

미즈타 사야코

MIZUTA Sayako

Born in Japan, 1981. Lives and works in Tokyo, Japan

Education

2006 MA in the Arts Policy and Management, Musashino Art University, Tokyo, Japan
2004 BA in the Department of Arts, Comparative Culture, Tokyo Zokei University, Tokyo, Japan

Selected Curated Exhibitions

2012 Voyager in Voyager out_vol.4 Exhibition Room / Archive Room, Shinjuku Ophthalmologist Gallery, Tokyo, Japan
Voyager in Voyager out_vol.3 Toward a Minor room, Roji to Hito, Tokyo, Japan
Voyager in Voyager out_vol.2 Donkey's space, Tokyo Kurikara Market, Tokyo, Japan
Voyager in Voyager out_vol.1 Donkey's way, Dorothy Vacance, Tokyo, Japan
2011 Skin&MAP II_approaching memory and time, Shinjuku Ophthalmologist Gallery, Tokyo
2010 Skin&Map_the study of body and sense by four artists_Curatorial Exhibition Competition (Art space) of Aichi
Triennale 2010, Aichi Arts Center, Art Space G, 12th Floor, Aichi, Japan
2009 Flexible containers_six artists crossing the boundaries of senses, Matsunoyu 2F (public bathhouse), Tokyo, Japan

Organized Events

2012 Sticker Republic, DOROTHY VACANCE, Tokyo, Japan
2010 Art Tengoku 2010_Art Fair, Matsunoyu 2F-Handled public affairs in an event in which 6 commercial galleries in Tokyo participated

Experiences

2012 Coordination_Art Award Tokyo Marunouchi, Tokyo, Japan
2011 Coordination_Art Award Tokyo Marunouchi, Tokyo, Japan
Production Coordination_Festival, Tokyo, Japan
2010 Production Coordination_Festival, Tokyo, Japan
2008-2006 Chief Assistant Curator_Curatorial Section, Tokyo Wonder Site, Tokyo, Japan

Residencies

2012 Incheon Art Platform 3rd Artist-in-Residence Program(3month), Incheon
2012 Gyeonggi Creation Center Artist-in-residence, Gyeonggi-do

Website path-map.com
E-mail mizuta@gmail.com

칼라&안드레즈_안드레즈

Karla&Andrés_Andrés BELADIEZ

Education

1999 Diploma in Stage Direction and Dramaturgy at Royal School of Dramatic Art Madrid, Madrid, Spain

Experiences

2011 Artistic Advisor at Festival Feria de Huesca, Spain
Artistic Advisor for the Spanish Theatre Network, the Dance Comission and the Theatre and Circus Commission, Spain
2011-2006 Artist Director of the Castilla la Mancha Theater Festival
2010-09 Curator of the Meeting of International Fairs and festivals COFAE, Caracas, Republica Bolivariana
2009 Jury for evaluating artistic residencies at Laboral Theatre (Gijon.), Castile-La Mancha, Spain

Teaching

2002 International Master for stage directors at Middlesex University, Madrid, Spain

Awards

2002 Jose Luis Alonso Award, Spanish Stage Directors Association of Directors, Spain
Person of the Year(2003) in the category of culture, Press Association of Guadalajara, Spain

Stage Productions

2011 Artistic Advisor Juliet Unplugged, Senza Tempo, Barcelona, Spain
Artistic Advisor and light design_Live from the surface of the moon, live video performance,
Karla Kracht, Barcelona, Spain
2010 Artistic Advisor Absinthe Drinker (2010/2011) (TV installation) Karla Kracht, Barcelona, Spain
2006 Direction and Light Design_Stelaluna, Miman Teatro, Spain
2005 Dramaturgy and direction_Jorge Dandin, Miman Teatro, Spain
Dramaturgy and direction_En un lugar de la Mancha 'Falsaria de Indias', Spain
Dramaturgy and direction_Suenos de color crimson, Productions '0.99', Spain
2003 Direction and Light Design_Cosimo, Pamper theater, Spain
Direction and Light Design_Las voces-Circulo de Bellas Artes, Madrid, Spain
Direction and Light Desig_Proyecto Alpha, Productions Aldaba, Spain

칼라&안드레즈_칼라

Karla&Andrés_Karla KRACHT

Born in Germany, 1975. Lives and works in Barcelona

Education

2011 Pocket Video Creation with Txalo, Elclimamola
2010 Interactive technologies and stage creation with Konic Theater, Barcelona, Spain
2009 Workshop-Expanded Stage Design with Telenoika, Barcelona, Spain
2006 Absent Interfaces. Workshop on Body and Technology, La Caldera, Barcelona, Spain
Professional Course on Communication, Image and sound, CastInfo, Barcelona, Spain
2005 Master Class-Audiovisual Spaces with Solu, Le Freak, Barcelona, Spain
2001 University of the West of England's Studies of Graphic Design, Bristol, UK
2003 Erasmus Exchange at Barcelona University, Barcelona, Spain
1998 University Dresden's Faculty of fine Art and English, Dresden, Germany
1996 University Leipzig's Faculty of Spanish, History of Art and Italian, Leipzig, Germany

Projects

2012 Multimedia installation-ZOOM WOOZ , Incheon Art Platform, Incheon
Multimedia installation-ZOOM WOOZ , mARTadero, Cochabamba, Bolivia
2011 Karaoke Grill, Video Dance
Despulles Il.luminades Video Installation, Mariaelena Roque, Tarragona, Spain
Absinthe Drinker, Experimental Short Film
A Menina dos meus Olhos Video creation for Dance Theatre Piece by FIAR, Center of art the Street Palmela, Portugal
The taste of..., Videocreation for Dance Theater piece by Carles Mallol, Spain
2010 Manual for astronaut illustrations and coordination of children's book
Live from the surface of the moon, Live animation
Der absinth trinker, Audiovisual live performance

Selected Showcases & Exhibitions

2011 Alhondiga Bilbao, Niu:Espai Artistic, Vizcaya, Spain
Festival lab30, Art lab, Augsburg, Germany
L'atelier art (game) room, Berlin, Germany
Live from the surface of the Moon, Festival Tac, Valladolid, Spain
Karaoke Grill, Video for action, Barcelona, Spain
The Bright Side of the Moon, Illustration, Collective exhibition, Barcelona, Spain
2010 Live from the surface of the Moon, VJ-Festival E-Werk Erlangen, Alemania, Germany
Live Cinema-Der Absinth Trinker, Performance festival, Paderborn, Germany
Cycle Dance-Dance Now, La Pedrera, Barcelona
Presentation of dance piece-Anatomia de un sueno, Festival TAC, Valladolid, Spain
Video Performance-spellbound with musician Ilia Mayer, Horizo TV, Barcelona, Spain

Selected Awards

2010 Award for most innovative Work at TAC Festival, Valladolid, Spain
2008 Special Award at TAC Festival, Valladolid, Spain
2007 Short listed for VAD Festivals' International video art competition, Girona, Spain
2005 Finalist at Punt multimedia Animation competition

Residencies

2012 Proyecto mARTadero, Cochabamba, Bolivia
Incheon Art Platform 3rd Artist-in-Residence Program(3month), Incheon
2011 Boca Nord, Barcelona, Spain
2010 Experimentem amb l'Art, Barcelona, Spain

E-mail karla@karlaakracht.com

국제교류

전소정

1982년 부산 출생, 서울 거주 및 작업

학력

2011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대학원 미디어아트학과 졸업, 서울
2005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 졸업, 서울

주요 개인전

2012 이면의 이면, 갤러리 팩토리, 서울
예술하는 습관, 갤러리 잔다리, 서울
2010 심경의 변화, 인사미술공간, 서울
여섯 개의 밤들, Centre Européen d'Actions Artistiques Contemporaines, 스트라스부르, 프랑스
2009 One Man Theater 일인극장, 공근혜 갤러리, 서울
2008 The Finale of a Story, 갤러리 킹, 서울

주요 단체전

2013 What We See, 오사카 국립미술관, 오사카, 일본
2012 Viva Arirang, Palais de Glace, 부에노스 아이레스, 아르헨티나
플레이타임, 문화역 서울 284, 서울
Photographic!, 대구사진비엔날레, 대구
서울변방연극제, 혜화동 1번지, 서울
아트스펙트럼 2012, 삼성미술관 리움, 서울
Building Stories, Pilar Corrias 갤러리, 런던, 영국
2011 EXiS 서울 국제 실험영화 페스티벌, 한국 영상자료원, 서울
2010 미디어–아카이브 프로젝트, 아르코미술관, 서울
오프앤프리 국제영화제, 아트하우스 모모, 서울
2009 Cream_요코하마 국제 아트와 미디어 페스티벌, 요코하마, 일본
플랫폼 인 기무사, 옛 기무사 건물, 서울
Jeune Création 2009, CENTQUATRE 104, 파리, 프랑스
요술 이미지 The Magic of Photography, 한미사진미술관, 서울
Kom.Post, Gallery Visite ma tente, 베를린, 독일
2008 연극 되어지다, 프로젝트 스페이스 사루비아다방, 서울
풍경과 상상, 그 뜻밖의 만남, 아람미술관, 고양, 경기도
신진기예전, 토탈미술관, 서울

레지던시

2013 Apexart, 뉴욕, 미국
2012 Taipei Artist Village, 타이페이, 대만
2011 금천예술공장, 서울
2010 국립창동창작스튜디오, 서울
CEAAC 유럽 현대 미술센터, 스트라스부르, 프랑스
2009 인천아트플랫폼 파일럿 프로그램 입주작가, 인천
HIAP, 헬싱키, 핀란드

JUN Sojung

Born in Busan, 1982. Lives and works in Seoul

Education

2011 M.F.A. Graduate School of Communication & Art, Yonsei University, Seoul
2005 B.F.A. Sculp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Selected Solo Exhibitions

2012 The other side of the other side, Gallery Factory, Seoul
The Habit of Art, Gallery Zandari, Seoul
2010 As you like it, Insa Art Space, Seoul
Six Nuits, Centre Européen d'Actions Artistiques Contemporaines, Strasbourg, France
2009 One Man Theater, Gallery Kong, Seoul
2008 The Finale of a Story, Gallery King, Seoul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13 What We See, The National Museum of Art, Osaka, Japan
2012 Viva Arirang, Palais de Glace, Buenos Aires, Argentina
PLAYTIME, Culture Station Seoul 284, Seoul
Daegu Photo Biennale, Daegu Art Factory, Daegu
Seoul Marginal Theater Festival 'Theater without Theater, Politics without Politics', Seoul
ArtSpectrum 2012, Samsung Museum Leeum, Seoul
Building Stories, Pilar Corrias Gallery, London, UK
2011 EXiS, Experimental Film/Video Festival in Seoul, Korean Film Archive
2010 Media-Archive Project, ARKO Art Center, Seoul
Off And Free International Film Festival, Arthouse MoMo, Seoul
2009 Cream_International Festival for Arts and Media Yokohama 2009, Yokohama, Japan
Platform in KIMUSA, KIMUSA, Seoul
Jeune Création 2009, CENTQUATRE 104, Paris, France
The Magic of Photography, HANMI Photograph Museum, Seoul
Kom.Post, Gallery Visite ma tente Berlin, Germany
2008 Between the Lines, Project space SARUBIA, Seoul
Landscape and Imagination, The Unexpected Meeting, Aram Museum, Goyang, Gyeonggi-do
Up-and-Comers, Art Omi Residency Program_competition, Total Museum, Seoul

Residencies

2013 Apexart, New York, USA
2012 Taipei Artist Village, Taipei, Taiwan
Seoul Art Space_Guemcheon, Seoul
2010 The National Art Studio, Changdong Art Studio residency program, Seoul
Centre Européen d'Actions Artistiques Contemporaines, Strasbourg, France
2009 Incheon Art Platform Artist-in-Residence Pilot Program, Incheon
HIAP Helsinki International Artist in Residence Program, Helsinki, Finland

Website http://www.junsojung.com
E-mail junsojung@gmail.com

추앙 후이린

CHUANG Hui-lin

Born in kaohsiung, 1979. Lives and works in Taipei, Taiwan

Education

B.F.A. in painting, School of Plastic Arts at Taipei National University of the Arts, Taipei, Taiwan
M.F.A. in Sculpture, College of Design and Arts at Dayeh University, Changhua, Taiwan
Fine Arts, Hongik University, Seoul

Selected Solo Exhibition

2011 Just want to be alive, Black and White Art Space, Taichung, Taiwan
2010 Peru Boundary, Sheltering Sky, Taipei, Taiwan
2009 Social Membrane_Waving between familiarity and unfamiliarity, Taipei National University of the Arts, Taipei, Taiwan
2004 I'm home, Dogpig Art Cafe, Kaohsiung, Taiwan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12 Brave New World, Taipei Art Village, Taipei, Taiwan
Taiwan Lantern Festival, The Man Mo Temple, Changhua, Taiwan
2011 Born! Boom! Contemporary Art Exhibition, CMP Block, Taichung, Taiwan
2010 435_2010 Fall Resident Artists Group Exhibition, International Artist Village of Banciao, Banciao City, Taiwan
Exhibition of the Newly Emerging Artists in Taiwan_3D Creation Series, Taichung City Seaport Art Center, Taichung, Taiwan
Sculpture Group Exhibition, Taipei National University of the Arts, Taipei, Taiwan
There-abuse of beauty_Halfway House, Urban Core, Taipei, Taiwan
2009 Waving between familiarity and unfamiliarity, SinPinPier Absolutely Art Space, Kaohsiung, Taiwan
2008 Wang_San Internation Art Festival, Hasla Open-Air Museum, Kangneung, Gangwon-do
2007 5.7.5 HAIKU-Sculpture, Okinawa Prefectural Art University, Okinawa, Japan

Selected Awards

2010 Exhibition of the Newly Emerging Artists in Taiwan, Judges' list award

Residencies

2012 Incheon Art Platform 3rd Artist-in-Residence Program(3month), Incheon
2010 435 International Artist Residency, Banciao City International Artist Village, Taiwan

E-mail f8843301@yahoo.com.tw

발행인 송영길 인천광역시장
편집인 이승미 인천아트플랫폼 관장
발행일 2013년 2월
발행처 인천아트플랫폼
(400-021) 인천 중구 제물량로 218번길 3
Tel. 032)760-1000 Fax. 032)760-1010
www.inartplatform.kr
디자인 은정문화사
번역 주미영, IC-글로벌, Koreantc

Publisher SONG Young-gil, Mayor of the Incheon Metropolitan City
Editor LEE Seungmi, Director of Incheon Art Platform
Date of Publication February, 2013
Contact Incheon Art Platform
218-3 Jemulryang-ro, Jung-gu, Incheon (400-021)
Tel. 032)760-1000 Fax. 032)760-1010
www.inartplatform.kr
Design EunJung Culture
Translation JU Meeyoung, IC-Global, Koreantc

ⓒ 인천아트플랫폼, 2013
이 책에 수록된 도판 및 글의 저작권은 해당작가와 인천아트플랫폼에 있으며 저작자와 인천아트플랫폼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Incheon Art Platform, 2013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publication may be reproduced in any form or by any means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individual copyright holders and the Incheon Art Platform.

KOO Bon-a 구본아
KWON Yuni 권윤희
KIM Bom 김 봄
KIM Sun-hee 김선희
KIM Soohwan 김수환
KIM Siha 김시하
KIM Yunah 김윤아
KIM Chang-ghi 김창기
KIM Hyo-suk 김효숙
Manyo Company 만요컴퍼니
MIZUTA Sayako 미즈타 사야코
MIN Jaeyoung 민재영
PAK Bang-young 박방영
PARK Sang-hee 박상희
Benjamin PHILLIPS 벤자민 필립스
SHIN Jaehoon 신재훈
SHIN Taesoo 신태수
AHN En-young 안은영
Yeonhee Company U-hee 연희컴퍼니 유희
YEH Tzu-chi 예추치
OH Suk-kuhn 오석근
Woopsyang 웁쓰양
Wil BOLTON 윌 볼튼
LEE Sooyoung 이수영
ISHIHARA Noriko 이시하라 노리코
LEE Ui-sung 이의성
LEE Ji-hyun 이지현
Leepong 이 퐁
CHUN Yun-jung 전윤정
CHUNG Yongil 정용일
ZHOU Qi 조우치
Jakraphun THANATEERANON 짜까판 타나티라난
CHA Ji-ryang 차지량
Kamila SZEJNOCH 카밀라 스제노치
Karla&Andrés 칼라&안드레즈
HONG Ji-yoon 홍지윤

www.inartplatform.kr